# Die Traumdeutung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 장병길 역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대표하는 저술, 프로이트는 '모든 꿈은 소망 충족'이라고 선언한다.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꿈이라는 창을 통해 무의식의 숨겨진 소망과 욕구를 이해하고, 꿈을 이 소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봤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꿈 속에 담긴 내밀한 욕구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까지 완성한, 꿈과 무의식을 향한 열정적인 탐구의 결과물이다.



# Dje Traumdeutung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꿈의 해석》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현대자동차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친의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장혜미슈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 혐 301-0100-8607-71

(t) 02)720-8278 (h) www.olje.or.kr (e) oljeclassics@olje.or.kr

####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해설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1856년 5월에 오스트리아ㆍ형가리 이중 제국에 속한 모라비아(Moravia) 지방의 소도시 프라이베르크(Freiberg, 현 체코의 프로시보르)에서 유대인의 아들로서 태어났다. 17세의 수재 프로이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원이던 정치학을 단념하고 비엔나 의과 대학에 진학하여, 1876년에 처음으로 뱀장어에 관한 연구 과제를 담당했다. 그 후 15년 동안 신경 계통의 연구에만 종사했으나, 여섯 명의 자식과 많은 친척들의 부양 때문에 존경하던 비엔나 대학 생리학과 과장 브뤼케(Ernst Brücke) 교수의 권고에도 무릅쓰고 개업 의사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언제나 인간이 어떻게 현재와 같이 활동하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그는 은사 브뤼케 교수의 역학 법칙이 인체에서와 똑같이 인품에도 응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이것이 곧 역학적 심리학의 창안으로, 개업의로서 신경성 환자들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어간 덕분이었다. 환자들의 괴상한 증상을 이루는 동기가 역동적 세력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프로이트는 이 세력이 무의식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그를 마침내 생리학과 신경학에서 멀게 하고 심리학에로 접근시켰다. 심리학에 접근한 후의 그의 일생은 정신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심적 세력이 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상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 심리의 세력을 밝힌 것이 곧 《꿈의 해석》이다.

《꿈의 해석》이 출간된 것은 1900년으로, 심리학 일반에 중요한 해였다. 제임스 (William James)가 〈기퍼드 강의〉를 맡은 해도 바로 이 해였다. 제임스는 2년 에 걸친 강의를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란 제목으로 출판했다. 제임스는 전문적 심리학자로써 하의식(下意識)을, 프로이트는 의학적 역동 심리학자로서 (1) 직

접적으로나 혹은 위장된 모양으로 의식에 환기된 기억이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진 다는 것, (2)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이상한 에너지가 따른다는 것, (3) 이 에너지가 정신병 치료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등에 주목하여 무의식을 주창했다. 이래서 프로이트의 역동적 심리학은 무의식의 심리학이라고 불린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환영을 받지 못하던 중, 1904년에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를, 다음 해에 《성욕에 관한 세 논문》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프로이트는 성 본능에 관하여, 성욕이 사춘기에서 발생한다는 종전의 설(說)을 부정하고 출생 시부터 아동의 성욕이 점점 자라고 아동의 첫 성(性)의 대상이 자신들의 부모라고 단정하였다. 이로써 그는 범성욕주의자(汎性慾主義者)라는 세상의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설은 1909년 미국의 클라크 대학(Clark University) 심리학 교수 스탠리 홀(Granville Stanley Hall)을 비롯하여 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욱이 당시의 권위자였던 제임스의 인정도 받았다.

프로이트는 1912년부터 이전의 자기 학설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즉 정신 분석학은 신경성 질환을 치료 · 이해하는 것에서 인간의 행동 동기와 인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옮아갔다. 1923년에 출간된 《자아와 이드》에서는 성욕의 본능 욕구 등이 있는 원시적 이드(id)가 현실을 알고 있는 자아(ego)에 의하여 억제되고, 이 자아는 이상적 자아인 초자아(super-ego)에 의하여 지배 · 억제된다고 주장하는 인격론을 폈다.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프로이트는 〈환상의 미래〉(1927년 논문)에서 인간 본성에 잠재하는 불합리하고도 강력한 충격력(衝擊力)이 합리적 세력을 약하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환상·우매·쾌락·비이성에 살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938년 프로이트는 나치에 의해 저서가 불에 타고 재산이 몰수당한 끝에, 친구들의 권고로 가족들과 함께 일생을 정신 분석학의 발전을 위하여 머물고 있던 비엔나를 떠나 영국으로 망명했다. 망명지에서의 각계의 환영과 찬양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되던 어느 날 밤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기쁨보다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무의식계의 연구에 대한 공적은 보링(Edwin Garrigues Boring)이 심리학 사상 4대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손꼽는 것에서나, 제1차 대전을 끝낸 후의일반인의 대화 속에서 무의식・억압된 최촉감(催促感)・저지 ・심적 복합체・고착・투사 따위의 술어(述語)가 오가는 것으로도 넉넉히 실증된다.

프로이트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도 이 《꿈의 해석》과 《성욕에 관한 세 논문》은 2대 명저(名著)이다. 그는 《꿈의 해석》에서, 보통 꾸는 꿈의 뒤쪽에는 분석해야만 알수 있는 감추어진 즉 무의식적인 꿈이 있다고 말하고, 이 무의식적인 꿈을 분석하는 것이 곧 꿈의 해석이라 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은 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하는 소망 충족으로써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꿈이 허무맹랑하고 난맥상 (亂脈相)을 이루어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프로이트에 의하면 소망 충족이 꿈의 여러 작업 과정을 거쳐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의식의 잠재 내용을 분석ㆍ해석하고 있다.

이 역서(譯書)는 원저자의 《Die Traumdeutung》 제7판(1922년)에 의한 것이다.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독자의 이해를 돕고, 언어의 구조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는 한편, 원저자의 의도를 가능한 한 살리기 위하여 번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 1. 본문 중의 인용부호는 ""로 표시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로 표시한다.
- 2. 꿈 내용의 소개는 고딕체로 한다.
- 3. 서명 따위는 《》로, 논문 따위는 〈〉로 표시한다.
- 4. 주석은 편의상 일련번호를 붙인다.

장병길(張秉吉) 씀

#### 저자 서언

이 저서는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경 병리학적 관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믿어진다. 왜냐하면 꿈이란 심리학적으로 음미할 때 일련의 이상 심리의 형성물의 첫 구성 요소로 표명되고, 이 첫 부분 이외에서 의사는 실지의 여러 이유로히스테리성 공포증과 강박 관념과 망상 관념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실제적인 뜻을 꿈은—나중에 알게 될 것이지만—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는하나 모범 사례로서의 이론적 가치는 그만큼 더 커진다. 그리고 꿈 형상의 발생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또한 공포증·강박 관념과 망상 관념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관련성 때문에 우리들의 테마가 중대성을 띠게 되는데 우리들의 앞으로의 연구가 여러 결점을 가진다면 그것은 그 관련성에 연유한다. 이 저서에서 발견되는 여러 절단면의 수는 꿈을 형성하는 문제가 정신 병리학의 포괄적인 여러 문제와 관련하는 접촉점의 수와 똑같다. 이 정신 병리학의 문제는 여기에서 취급될수 없으며,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과 능력이 충분하고 더 많은 재료가 수집되었을때에 개정판에서 상세히 논해질 것이다.

꿈 해석을 설명하는 재료와 여러 특수성은 또 나에게 이 저서의 발간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문헌 속에 기록된 꿈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된 꿈이 나의 목적에 쓰일 수 없었던 까닭은 이 저서 자체에서 밝혀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여러 꿈과 정신 분석 치료에 응한 나의 환자들의 여러 꿈에서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후자의 재료에서는 꿈의 과정이 신경증적 여러 성질의 혼입(混入)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복잡화(複雜化)되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다. 나는 나 자신의 꿈에 관한 보고와 불가분리(不可分離)하게 결부되어서 나의 심적 친밀성을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시인이 아니고 자연 탐구자인 저자의 과

업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눈앞에 드러내 보였다. 이런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나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괴로움을 견디고, 나의 심리학적 제 귀결(諸歸結) 일반을 증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나의 많은 비밀을 생략하거나 바꾸어 놓음으로써 그 비밀을 완화하려는 유혹에 이기지 못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생략하거나 바꾸어 놓을 때마다 내가 사용한 실례는 그 재료로서의 값어치를 매우 떨어뜨렸다. 나는 이 연구서의 독자들이 나의 어려운 입장에 서서 나를 관대하게 받아 주실 것과 여기에 보고된 여러 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사상의 자유를 꿈 생활에 대해서 거절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해설5
저자 서언9
제 1 장
꿈 문제에 관한 학문적 문헌15
1, 꿈과 깨어 있는 생활과의 관계19
2. 꿈의 재료—꿈에서의 기억23
3. 꿈 자극과 꿈 원천
(1) 외적(객관적) 감각 자극
(2) 내적(주관적) 감각 자극40
(3) 내적 · 기관적 신체 자극 · · · · 42
(4) 순수한 심적 자극 원천48
4. 왜 사람은 잠을 깬 뒤에 꿈을 잊을까?50
5. 꿈의 심리학적 여러 특성54
6. 꿈에서의 윤리적 감정68
7. 꿈 이론과 꿈 기능
8. 꿈과 정신병과의 여러 관계88
제 2 장
꿈 해석의 방법—꿈 표본의 분석96
제 3 장
꿈은 하나의 소망 충족(所望充足)이다120
제 4 장
꿈의 왜곡131
N = =1
제 5 장
꿈의 재료와 꿈의 원천157

1. 꿈에서의 최근의 것과 변변치 않은 것158
2. 꿈 원천으로서의 유아적인 것178
3. 신체적 꿈 원천205
4. 전형적인 꿈223
(1) 나체(裸體)로 당황하는 꿈224
(2) 근친자(近親者)가 죽는 꿈
(3) 시험(試驗)의 꿈
제 6 장
꿈의 작업
1, 압축 작업
(1) 〈식물학 연구 논문의 꿈〉260
(2) 〈아름다운 꿈〉
(3) 〈딱정벌레의 꿈〉267
2. 이동(移動) 작업
3. 꿈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285
4. 표현(表現) 가능성에 관한 관찰310
5. 꿈에서의 상징에 의한 표현—전형적인 꿈속(續)320
(1) 남자(남자 생식기)의 상징으로서의 모자328
(2) 작은 것은 생식기이다—차에 치는 것은 성교의 상징이다329
(3) 건물 · 계단 · 동굴에 의한 생식기 표현
(4) 남자와 생식기는 인물로, 여자와 생식기는 풍경으로 상징된다
(5) 아이들의 거세 꿈
(6) 오줌 상징에 관하여
(7) 계단 꿈
(8) 색다른 계단 꿈
(9) 현실감과 반복의 표현
(10) 건강한 사람의 꿈에서의 상징 문제에 관하여340
(11) 비스마르크(Bismarck)가 꾼 꿈
(12) 화학자의 꿈348
6. 여러 설명의 실례—꿈에서의 계산과 대화
7. 황당무계한 꿈—꿈에서의 지적 업적383
(1) 6년 전에 아버지를 잃은 한 환자의 꿈
(2) 이와 매우 비슷한 두 번째 사례는 나의 꿈이다
(3) 인용하는 예에 의한 꿈 재료
(4) 죽은 아버지에 관한 황당무계한 새로운 꿈

(5) 숫자로 농(弄)하는 황당무계한 다른 꿈 하나
(6) 내가 꿈속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나의 꿈 하나
8. 꿈속의 감정413
9. 제2의 가공
제 7 장
꿈 사상의 심리학을 위하여458
1, 꿈의 망각460
2. 역행
3. 소망 충족에 관하여495
4. 꿈에 의한 깸, 꿈의 기능, 불안 꿈514
5. 제1차 과정과 제2차 과정, 억압
6. 무의식과 의식, 현실545
꿈에 관한 문헌



꿈 문제에 관한 학문적 문헌

#### 제 1 장

#### 꿈 문제에 관한 학문적 문헌

나는 아래에서 이런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즉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심리학적 방법 이 있다는 사실과 이 방법을 응용함으로써 모든 꿈은 뜻깊은 마음의 소산으로 밝혀지고, 그 소산은 깨어 있는 상태의 마음의 움직임에서 어떤 일정한 위치에 배치된다는 사실이다. 그 위에 나는 꿈의 기묘성과 애매성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협력 또는 반발하여 꿈을 일으키는 마음의 힘의 본체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노력이 이루어지면 나는 나의 논술을 중지하려고 하는데, 그 까닭은 꿈의 문제가 꿈 밖의 다른 재료를 써서 해결되어야 하는 보다 포괄적인 여러 문제에 합류되는 지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먼저 종래의 저자들의 업적과 함께 꿈 문제에 관한 현재의 학문에서의 자리를 개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논리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그다지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 이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꿈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거둔 성과는 대단치 않았다. 이 사실은 꿈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며, 각 개인의 의견을 인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권말에 붙인 문헌에서 우리들의 제목을 위한 많은 고무적인 관찰과 매우 흥미 있는 재료가 발견될 것이로되, 꿈의 본질을 꿰뚫거나 꿈의 수수께끼의 하나라도 결정적으로 풀어 준 것은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 하다. 더욱이 일반적인 교양을 가진 전문가 외의 사람들이 꿈에 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류의 시초에 원시 민족들이 꿈을 어떻게 생각하였고, 또 꿈이 그들의 세계관과 영혼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흥미로운 테마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문제를 추고(追考)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나는 다만 러벅(John Lubbock) 경, 스펜서(Herbert Spencer), 타일러(E. B. Tylor) 등의 저명한 연구를 지적하고, 그런 여러 문제나 고찰이 우리들이 《꿈의

1 이 저서의 발표에까지 1900년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해석》의 당면 문제를 끝마친 다음이 아니면 참된 뜻이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 는 사실만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고전적 고대 민족의 꿈 평가는 뚜렷하게 꿈에 관한 원시적인 이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sup>2</sup> 꿈은 그 민족이 믿고 있던 초인간적 본질의 세계와 관계하고 있으며, 신들이나 귀신들의 계시라고 그들은 전제했다. 또한 꿈은 그 꿈을 꾼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리는 뜻깊은 목적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꿈의 다양성은 무엇보다도 꿈을 하나로 통일하기가 어려웠고, 꿈의 가치와 신빙성에 따라 꿈을 여러 가지로 나누거나 분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대 철학자들의 꿈에 대한 판단은 점복(占卜)에 부여했던 위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꿈을 취급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두 저서에서 꿈은 이미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었다. 꿈은 신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신적인 성질의 것도 신적인 것도 아니다. 즉 꿈은 초자연적 계시가 아니라 도리어 신성에 가까운 인간 정신의 법칙에서 온 것이며, 자고 있는 동안 꿈을 꾼 사람의 영혼 활동으로 규정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꿈 생활의 몇 가지 성격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침입하는 사소한 자극을 대규모로 새로이 해석하는 것이다. (몸의 여기 저기가 좀 따뜻해지면 불 속을 지나서 뜨거움을 느끼는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에서 의사가 낮에 느끼지 못했던 체내에서 시작한 변화의 첫 징조를 꿈에서 추측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sup>3</sup>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사람들은 꿈이 다 알다시피 꿈꾸는 영혼의 한 소산(所産) 이 아니라 신의 고지(告知)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들이 꿈 생활을 평가할 때에 언제나 발견되는 두 대조적인 흐름을 그 고대인들도 이미 관찰했었다. 그들은 경고하거나 예고할 목적으로 잠자는 사람에게 보내지는 참되고 가치 있는 꿈과, 그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의도를 가진 무가치하고 믿을 수 없는 허무한 꿈을 구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루페(P. O. Gruppe)(《희랍 신화와 종교사》 390면)는 마크로비우스(Makrobius)

- 2 이하는 뷕센쉬츠(B. Büchsenschütz)의 간절한 설명에 따름
- 3 꿈의 질병에 대한 관계에 관해서 희랍의 의사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는 그의 유명한 저서의 한 장(章)에서 논하고 있다.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와 아르테미도로스(Artemidoros)를 좇아서 꿈의 분류를 이렇게 되풀이했다. "꿈 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다만 현재(또는 과거)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이런 꿈은 이를테면 굶주림이나 굶주림을 없 애는 따위의 주어진 표상이거나 혹은 그 반대 표상을 직접 재현하는 반수면(半睡 眠) 상태(insomnia), 그리고 예를 들면 몽마(夢魔) 에피알테스(ephialtes)와 같은 주어진 표상을 공상적으로 확대하는 환상을 포함한다. 이와 반대로 또 하나는 미 래에 대하여 결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에 속하는 것은 (1) 꿈속에서 받는 직접적 인 예언. (2) 목전의 일에 대한 예언. (3) 상징적이며 설명이 필요한 꿈이 있다." 꿈의 이와 같은 엇갈린 평가는 꿈 해석의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꿈에 관해서 중대한 해명을 기대하나 모든 꿈을 직접 이해할 수 없고, 투명치 못 한 특정한 꿈이 뜻있는 것을 알려주느냐의 여부를 가려낼 수 없기에 꿈의 불명료 한 내용을 통찰력 있고 동시에 의미심장한 내용과 바꾸어 놓으려는 노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꿈 해석에서의 고대 후기의 최대 권위자는 아르테미도로스였다. 그의 상세한 저작은 소실된 동일한 내용의 저술들을 보상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4 고대인들의 학문 발달 이전의 꿈 해석은 뚜렷이 그들의 세계관과 꼭 들어맞는다. 말하자면 그들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만을 언제나 현실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 깥 세계로 투영하곤 했다. 또 이 해석은 아침에 남아 있는 꿈의 기억이 깨어 있는 생활에 주는 중요한 인상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 기억 속에서는. 꿈은 말하자면 (어딘가 그 밖의 마음의 여러 내용에 비해서) 별(別) 세계에서 온 묘한, 알지 못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경건주의적인 또는 신비적인 문필가들을 제외 하고도—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으며 자연 과학적으론 설명되지 않는 초 자연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으나—일체의 모험적인 것을 싫어하고 날카롭게 생각

4 그 후 중세기에서 꿈 해석이 어떤 운명을 가졌는가에 관해서는 디프겐(P. Diepgen)을, 그리고 특수 연구에서는 푀르스터(M. Förster), 고트하르트(O. Gotthard) 등의 기타 연구를 참조. 유대인에서의 꿈 해석에 관해서는 알몰리(Almoli) · 암람(N. Amram) · 뢰빙어(Löwinger)와 최근에 와서는 정신 분석의 입장에 선 라우어(C. Lauer), 아라비아의 꿈 해석의 지식에 관해서는 드렉슬(F. X. Drexl) · 슈 바르츠(F. Schwarz) · 선교사 트핑크디(Tfinkdji), 일본에 관해서는 미우라(K. Miura)와 이와야(S. Iwaya), 중국에 관해서는 제커(F. Secker), 인도에 관해서는 네겔라인(J. von Negelein)이 보고하고 있다.

하는 동시에 초인간적인 정신의 힘과 활동이 있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꿈의 현상의 불가사의성을 규정하려는 사람들도 있다(하프너(P. Haffner)). 이를테면 셀링 (Schelling) 학파의 사람들과 같은 철학자의 꿈 생활에 대한 존중은 고대에는 아무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은 꿈의 신성의 잔재임이 뚜렷하다. 그리고 점복(占卜)적이고 미래를 예언하는 꿈의 능력에 관한 뚜렷한 결론도 아직 없다. 과학적 사고방식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강력하게 이런 주장을 물리치려는 심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수집된 재료를 모조리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 탓이다.

꿈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사의 기술이 곤란한 까닭은, 이런 인식에 있어서 그것이 개개의 점에서는 대단히 가치가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한 걸음의 진보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의 연구자들이 계속 형성할 수 있는 보증된 성과의 기초를 마련할 길은 없어졌거나, 새로운 연구자 각자가 아주 처음부터 동일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내가 연대순으로 연구자들을 좇아서 꿈 문제에 관해 가졌던 그들의 각설(各設)을 일일이 설명하려 했다면, 나는 꿈의 학문적 인식의 현 상황을 뚜렷하고 완전하게 묘사하려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이 책을 하나하나의 연구 본위로서가 아니라, 문제 본위로 엮으려 하며, 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재료가 문헌 중에 구해지는가를 그때마다 인용하고자한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다룬 문헌이 널리 퍼져 있고 다른 문제와 엉켜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헌을 들추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인 사실이나 중요한 관점만은나의 논술 속에서 빠뜨리지 않았다는 데에 독자 여러분들의 인내를 빌려고 한다. 여태까지의 대다수의 연구자는 잠과 꿈을 똑같은 맥락 속에서 다루었고, 또 규칙적으로 정신 병리학에 이르는 꿈과 비슷한 상태, 그리고 착각이나 환상과 같은 꿈과 비슷한 현상의 설명을 한데 묶어 보려고 했다. 이와는 달리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제를 좁게 한정하고 꿈 생활의 범위에서 몇 가지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그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생겼다. 생각하건대, 이런 경향의 변화는불명(不明)한 사상이 일련의 상세한 연구로써만 해명되고 일치된다는 사실을 확

신케 하는 표현의 하나이다. 내가 여기서 보이려는 것도 이런 세부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심리학적 성질의 세부 연구이다. 나는 이때까지 잠의 문제에 관여할 계기를 거의 갖지 못했다. 그 까닭은 설혹 잠의 문제가 잠자는 상태의 성격을 묘사하는 속에서 심적 기관의 여러 기능적 조건의 변화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생리학의 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잠에 관한 문헌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꿈의 여러 현상 자체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문제의 설정에 집중된다.

#### 1. 꿈과 깨어 있는 생활과의 관계

깨어 있을 때의 소박한 판단은, 꿈이 실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도 꿈은 여전히 잠든 사람들을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꿈 현상에 관해서 상세하고 예민한 기술에 덕을 입고 있는 옛 생리학자부르다흐(K, F, Burdach)는 이 확신을 많이 인용되는 글월로 표현하였다. "……여러 노력과 향락, 기쁨과 슬픔을 가진 낮 생활은 되풀이되지 않고 도리어 꿈은 거기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가령 우리들의 온 마음이 어떤 일로 꽉 차 있더라도, 또는 깊은 슬픔이 우리들의 마음을 산산이 찢어 놓을 때에나 어떤 일이 우리들의 온 정신력을 긴장시킬 때에도 꿈은 우리들에게 아주 낯선 어떤 것을 주거나, 또는 현실에서 개개의 요소만을 뽑아서 꿈을 결합케 하거나, 혹은 다만 우리들의 기분 속에 들어와서 현실을 상징하거나 한다." 피히테(I, H, Fichte)는 똑같은 뜻에서 직접 보완몽(補完夢)을 언급하면서, 꿈이 스스로 정신을 치료하는 성질을 가진 숨은 자선(慈善) 중의 하나라고 한다. 같은 뜻에서 슈트륌펠(L, Strümpfel)도 각 방면에서 정당하게 평가된 바 있는 꿈의 본질과 발생에 관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깨어 있는 의식 세계를 등지고 있다…….", "꿈속

에서는 깬 의식의 질서 있는 내용에 관한 기억과 의식의 정상적인 활동은 아주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꿈속에서의 마음은 깨어 있는 생활의 규칙적인 내용과 흐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분리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저자들은 꿈과 깨어 있는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이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는다. 하프너는 이렇게 말한다. "우선 꿈은 깨어 있는 생활의 계속이다. 우리들의 꿈은 언제나 의식의 바로 앞에 있었던 여러 표상과 연결된다. 면밀하게 관찰하면 거의 언제나 꿈이 전날의 경험과 연결된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다." 바이간트(W. Weygandt)는 위에서 인용한 부르다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아마도 대다수의 꿈은 빈번하게 우리들을 일상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대신에, 바로 일상생활 속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사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모리(L. F. A. Maury)는 간단하게 우리들은 보고 말하고 바라고 행한 것을 꿈꾼다고 줄였다. 예센(P. Jessen)은 1855년에 발간된 《심리학》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많고 적고간에 꿈 내용은 언제나 개개의 인격·연령·성별·신분·교양의 정도, 끊임없는생활방식, 그때까지의 생활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철학자 마스(J. G. E Maaβ)(《정열에 관해서》 1805년)는 가장 뚜렷한 입장에 섰다. "우리들이 가장 열렬한 정열을 기울이는 일에 대해 가장 빈번히 꿈꾼다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으로 입증된다. 이로써 우리들의 정열이 꿈을 만드는데 틀림없이 영향을 끼침을 잘 알 수 있다. 공명심에 들뜬 사람은 (아마 그의 상상속에서만) 이미 이루어 놓은, 혹은 이제부터 이루어 보려는 월계수를 꿈꾸는데 반하여, 연인의 꿈은 자신의 달콤한 희망의 상대자에 종사한다. …… 마음속에 잠든모든 감성적 욕망과 염악(厭惡)은 어떤 까닭으로 자극되면, 그 자극과 함께 있는여러 표상에서 하나의 꿈이 발생하거나, 또는이 여러 표상이 미리 있던 꿈과 뒤섞일 수 있다."(《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중의 빈터슈타인(T. von Winterstein)의 보고)

이와 유사하게 고대인들은 꿈 내용이 생활 여하에 따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라데 슈토크(P. Radestock)의 글에서 인용하련다. 즉 "크세르크세스(Xerxes)가 희랍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원정에 앞서, 그 원정의 결심을 단념하도록 훌륭한 충고를 받았으나 꿈에서는 그 원정을 감행하도록 여러 번 지시를 받았다. 이때에 페르시아의 늙은 이성적인 해 몽자의 한 사람인 아르타바노스(Artabanos)가 참으로 적절하게 꿈은 깨어 있을 때의 생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루크레티우스(Lucretius)의 교훈시  $\langle$ 자연계에 관하여 $\rangle$ (IV, V, 959)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다.

대개 사람은 꿈에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의 마음을 종종 괴롭힌 것이나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 것을 꿈꾼다.
변호사는 소송을 생각하고 법률을 만들고
제왕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키케로(Cicero)(《신탁에 관해서 II》)는 자신보다 아주 나중의 사람 모리와 동일하게 말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생각하거나 행동한 것의 잔재가 가장 많이 작용한다."

꿈생활과 깨어 있는 생활과의 관계에 관한 이 두 의견의 대립은 실제로 없애기 어려운 것인 듯하다. 따라서 이제 힐데브란트(F. W. Hildebrant)(1875년)의 의견을 생각할 단계에 도달했다. 그는 꿈의 여러 특성이 '일견하여 모순된 듯한 일련의 여러 대립'에 의해서만 기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대립 중의 첫째 것은 먼저, 꿈은 현실적이고 참다운 생활에서 아주 끊어진 것, 또는 꿈은 꿈으로서 뭉쳐진 것이라는 견해와 꿈과 의식은 서로 교착하고 언제나 서로 의존한다는 견해와의 대립이다. 꿈은 깨었을 때 체험하는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어떤 것, 오히려 넘을수 없는 어떤 심연에 의해서 현실 생활에서 분리된 것, 그 자체 속에서 연금술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꿈은 우리들을 현실에서 놓아 주고, 우리들 내부의 현실에로 향한 정상적인 올바른 기억을 없애고, 우리들을 딴 세계 속

으로, 결국에는 현실의 생활사(生活史)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전혀 딴 생활사 속으로 인도한다.'이어서 힐데브란트는 잠이 들자 우리들의 전(全) 존재가 그 존재 양식과 함께 보이지 않는 미닫이 뒤로 사라지듯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세인트헬레나(Saint Helena) 섬에 갇힌 몸이 된 나폴레옹에게 모젤 포도주의우수성을 보여주기위해 그 섬으로 항해하는 꿈을 꾸었다. 이 사람은 잠에서 깨어서 재미있는 환상이 깨어진 것을 원통하게 느낄 만큼 전 황제(前皇帝)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 깨어난 그는 꿈 상태를 현실과 비교해 본다. 그는 포도주 상인도 아니었고, 그렇게 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항해한 적도 없었고, 세인트헬레나 섬을 여행지로 택한 일도 없었다. 또 그는 나폴레옹을 동정해 본 일도 없을뿐 아니라 도리어 성난 애국적인 증오마저 가졌다. 더욱이 이 꿈꾼 사람은 나폴레옹이 그 섬에서 죽을 때 아직 세상에 나지도 않았다. 나폴레옹과의 개인적 관계도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이 꿈의 체험은 완전히 서로 흐르고 서로 계속하는 생활의두 개의 단면 사이에 갇힌 이질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힐데브란트는 이렇게 말을 계속한다. "그렇지만 이 일견 정반대되는 설명도 똑같이 참이고 옳다. 나는 가장 내적인 결합과 관계는 맺어졌다가 끊어지곤 하면서도 서로 제휴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꿈이어떤 것을 표시하더라도 꿈의 재료는 현실과 이 현실에서 전개되는 생활에서 골라낸 것이다. 꿈이 아무리 기묘한 일을 하더라도 꿈은 본질적으로 결코 현실 세계와 떨어질 수 없으며 꿈의 아무리 섬세한, 아무리 어리석은 형성물이라도 언제나 그 것들의 근본적인 재료를 감성계에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에서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깨어 있는 우리들의 사고 과정 속에 이미 어떻게 해서 한 자리를 발견한 것에서 구한다. 우리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미 체험한 것을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없다."

#### 2. 꿈의 재료—꿈에서의 기억

꿈 내용을 구성하는 재료는 모두 어떤 방법으로든 체험에서 나온 것이고, 꿈에서 재생되고 기억된다는 사실은 적어도 논쟁할 수 없는 인식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내용과 깨어 있는 생활과의 관계를 비교할 때 양자의 관계가 일목요 연한 결과로서 쉽게 드러나리란 생각은 잘못이다. 오히려 꿈 내용과 현실과의 관련은 주의 깊이 찾아봄으로써 밝혀지고,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까닭은 꿈에서의 기억력이 표명한 여러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 특성에 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까지 증명된 바 없다. 이 여러 특성을 탐구하는 일은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생각해도 알지 못하고 경험한 일도 없는 재료가 꿈에 나타나는 일이 종종 생긴다. 꿈꾼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것을 경험했다는 기억도 없고, 언제 경험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다. 꿈이 어떤 재료에서 창조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애매하다. 그래서 꿈은 스스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진 것으로 믿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꿈꾼 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새로운 체험 하나를 하게 된다. 이 체험은 훨씬 이전에 잃었던 체험을 다시 기억에 불러일으켜서 꿈의 원천을 발견케 한다. 그리하여 깨어 있을 때 상기 능력의 지배권 외에 있던 것이 꿈에서 알려져 상기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한다. 5

특별히 인상 깊은 이런 실례 하나를 델뵈프(J. R. L. Delbœuf)는 자신의 꿈 경험속에서 인용했다. 그는 마당을 덮은 눈(雪) 밑에 도마뱀 두 마리가 절반 빳빳이 파묻혀 있는 꿈을 꾸었다. 동물 애호가인 그는 이것을 손으로 녹여 주고 도마뱀이 좋아하는, 담벽 위에 자라난 작은 양치식물 잎 몇 개를 이것들에게 주었다. 꿈에서 그는 이식물의 이름을 '아스플레니움 루타 뮤랄리스(Asplenium ruta muralis)'라고 기억했다. 꿈은 계속되어 다시 도마뱀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두 마리의 새 도마뱀이나머지 잎사귀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리고 그는 들 쪽에서 다섯 번째,

<sup>5</sup> 바시드(N. Vaschide)는 꿈에서는 깨어 있을 때보다 외국어를 더 유창하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종종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의 도마뱀이 벽의 구멍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길은 똑같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도마뱀의 행렬로 가득 찼다.

델뵈프는 잠을 깬 후 자기가 아는 식물의 라틴어 이름이 조금 밖에 없고 그 중에도 '아스플레니움(Asplenium)'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런 라틴명 양치식물이 있음을 알고 크게 놀랐다. '아스플레니움 루타 뮤라리아(Asplenium ruta muraria)'가 올바른 명칭이고, 꿈에서는 조금 틀렸을 뿐이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생각할 수 없음은 확실하다. 꿈에서 '아스플레니움'의 이름을 인식한 것은 그에게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이 꿈은 1862년의 일이었는데, 16년 후에 이 철학자는 그가 찾아간 친구에게서 작은 식물 표본 앨범을 보게 됐다. 이것은 스위스의 각처에서 여행 기념으로 외유객 (外遊客)에게 팔리는 앨범이었다. 그러자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표본 앨범을 열었더니 그곳에 전에 꿈에서 본 '아스플레니움'이 있었다. 그 옆에 자신의 필적으로 이식물의 라틴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꿈과 현실과의 연결이 생겼다. 이 친구의 누이동생은 1860년—도마뱀의 꿈보다 두 해 전 신혼여행 중에 델뵈프를 찾아왔었다. 당시 그녀는 오빠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 앨범을 가지고 있었다. 델뵈프는 어떤 식물학자에게서 배워가면서 이 앨범의 식물 하나하나에 모두 라틴어 이름을 써 준 일이 있었다.

또 가치 있는 예를 보고할 수 있게끔 한 우연한 은총은 델뵈프가 잊었던 꿈 내용의 원천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했다. 1877년 어느 날, 그는 낡은 그림 잡지 한 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잡지에서 자기가 1862년에 꾸었던 꿈과 비슷한 도 마뱀 행렬의 그림을 보았다. 이 책은 1861년에 나온 것인데 그는 창간호부터의 구 독자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꿈이 깨어 있을 상태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여러 기억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사실이므로, 나는 주의를 환기한다는 뜻에서 또 다른 '초기억적인' 꿈을 보고하고자 한다. 모리는 '뮈시당(Mussidan)'이란 낱말이얼마 동안 낮에 언제나 머리에 떠올랐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프랑스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것을 알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한 여인과 담화하는 꿈을 꾸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뮈시당 출신 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모리가 그 도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도르도뉴(Dordogne) 현(縣)'의 한 도시라고 대답했다. 잠에서 깬 모리는 꿈속에서의 답이라 믿지 않았으나 지리 사전을 보니 꿈에 나타난 대로였다. 이 경우에 꿈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지만, 이 증명된 지식의 잊힌 원천은 찾아낼 수 없었다.

예센은 이와 매우 비슷한 고대의 꿈에 관해서 보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대의 스칼리제르(Scaliger)(혜닝스(Hennings)의 꿈이 이에 속한다. 스칼리제르는 베로나의 저명인사들을 칭찬하는 시 한 편을 썼다. 그때 꿈에 '브루뇰루스(Brugnolus)'란 사나이가 나타나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는 사실을 탄식했다. 스칼리제르는 그런 이름을 들은 기억이 없었으나 그에 관한 시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들은 '브루뇰루스'라는 사람이 전에 베로나에서 비평가로서 유명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알게 되었다."

그 뒤에 계속되는 꿈에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기억이 실현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진 초기억적 꿈에 관해서 에르베 드 생 드니(Hervey de St. Denys) 경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느 때 나의 누이동생에게 자수를 보여 주면서 그 동생과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금발 여인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여인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여자였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생생하게 그 얼굴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같은 사람의 꿈을 꾸었다. 이 두 번째의 꿈에서 나는 그 여인에게 어디서 만나 뵌 것 같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그래요, 포르닉(Pornic) 해수욕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고 대답했다. 나는 바로 잠을 깼다. 그때서야 이 아름다운 꿈에서의 얼굴과 연결된 자세한 것들을 아주 뚜렷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에르베 드 생 드니 경은 이런 꿈도 보고한다. 즉 그가 완전히 알고 있는 한 유명한음악가의 멜로디를 언젠가 꿈속에서 들었는데, 이 멜로디는 그에게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 몇 해 지난 후 비로소 그는 이 멜로디가 낡은 악곡집(樂曲集)에 기록된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이 악곡집을 전에 가지고 있었음을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입수하지 못한 문헌(《심리 연구 협회보》)에서 마이어스(F. H.

H. Myers)는, 이런 초기억적 꿈의 실례를 많이 수집하여 공개했다. 나는 꿈을 관찰한 사람이면 누구나, 꿈이란 깨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지식과 기억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중에 보고받은 신경증 환자의 정신 분석 연구에서 나는 매년 여러 번 환자들이 인용한 말이나 회개한 말을 실제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과, 환자들이 이런 것을 깨어 있을 때에는 잊고 있으나 꿈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꿈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여 주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꿈의 초기억에 관한 단순한 실례를 하나 더 들고자 한다. 이 사례에서 꿈만이 입수할 수 있는 기억의 원천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한 사람이 다방에서 '콘투슈프카(Kontuszówka)'를 주문하는 한층 더 긴 직관성 있는 꿈 하나를 꾸었다. 이 꿈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나에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런 이름을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폴란드의화주(火酒)의 일종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환자의 꿈에서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광고에서 보고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환자는 처음 나를 믿지 않았으나 이삼일 지난 뒤에 실지로 다방의 한 광고판에서 그 술의 이름을 발견했다. 더욱이 그 광고판은 그가 몇 달 전부터 적어도 하루에 두 차례는지나다녀야 했던 길목에 있었다.

나의 꿈에서, 나 자신이 꿈의 여러 원천을 알게 되는 것은 우연에 의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도 있었다. 어디서 보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대단히 산뜻한 교회 탑이 이 책을 엮기 수년 전까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때에 갑자기 그 탑을 알게 되었다. 잘츠부르크와 라이헨할 사이의 어떤 작은 역에서의 일임이 아주 확실해졌다. 1890년대 후반기였다. 나는 이 열차 선로를 1886년에 처음으로 지나갔다. 내가 이미 꿈 연구에 깊이 종사하고 있었던 후년에, 어떤 뚜렷한 풍경을 때때로 되풀이하는 꿈의 상(像)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나의 몸의 어떤 일정한 방향의 관계에서, 즉 왼쪽에서 많은 기괴한 석상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컴컴한 곳을 보았다. 이곳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의 희미한 기억에 의하면, 어떤 맥주 집의 입구인 듯하나 이 꿈 광경이 도대체 어떤 뜻의 것인지 몰랐고, 또 이 광경이 어디

에서 온 것인지도 여전히 알 수 없었다. 1907년 나는 1895년 이래 가고 싶어 하면 서도 가지 못했던 파도바(Padua)로 우연히 갔다. 이 아름다운 대학 도시의 첫 방문은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되었다. 나는 마돈나 델 아레나(Madonna dell' Arena) 사원의 지오토(Giotto)의 프레스코 그림을 볼 수 없어 아쉬워했다. 이 사원을 가는도중에 그날은 문이 닫혔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온 것이다. 12년 후의 나의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전의 일을 만회하리라 생각하고 우선 마돈나 델 아레나 사원으로의길에 올랐다. 길의 왼편에서 아마 1895년 내가 되돌아왔던 그 장소가 아닌가 하고생각되는 곳에서 어떤 풍경 하나를 보았다. 꿈에 종종 보았던 예(例)의 석상이 한데 붙은 곳이었다. 실제로 그곳은 한 요리집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재연(再演)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꿈의 원천, 부분적으로는 깨어 있을 때의 사고 활동에서는 기억에 오르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는 재료를 조달하는 원천 중의 하나는 유년 시절의 생활이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몇 연구자만 여기에 인용하겠다.

할데브란트, "꿈은 때때로 이상한 재연 능력을 발휘하여 먼 옛날에 벌써 인연이 멀어진, 아니 아주 잊힌 일들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뚜렷이 입증된 바이다."

슈트륌펠, "꿈이, 보다 나중의 시기가 가장 일렀던 유년기의 경험 위에 쌓아올렸던 거대한 퇴적물 속에서 몇 가지의 풍경·사물·인물 등의 여러 상(像)을 처음 그대로 완전히 생생한 모습으로 재연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황은 점점 뚜렷해지기 마련이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그 인상은 그인상이 생길 때에 하나의 생생한 의식을 갖거나, 또는 강한 심적 가치와 연결하며, 나중엔 본래의 기억으로서 꿈속에 되돌아오고, 깨었을 때의 의식은 이 기억을 기뻐한다. 그리고 오히려 깊은 꿈 기억에 먼 옛날의 인물·사물·풍경이나 체험이가라앉고 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작은 부분으로 의식되었을 뿐이거나, 하등의 마음의 가치를 갖지 못했던 것들이거나, 또는 이것저것을 다 잃었기에 그전의 원천이 발견되기까지는 꿈에서나 깨어 있을 때에나 자기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한다."

폴켈트(J. Volkelt), "유년 시의 기억이 꿈에 종종 나타나는 사실에 우리들은 특히 주목한다. 꿈은 우리들이 이미 아득한 지난날에 생각되지 않은 것,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런 가치 없던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끈기 있게 상기하게 한다."

모리는 말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출생지인 모(Meaux)에서 이웃의 트릴 폴트(Trilport)에 종종 다녔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교량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자기가 다시 트릴폴트 마을의 길에서 놀고 있는 꿈을 꾸었다. 제복 같은 옷을 입은 남자 한 사람이 놀고 있는 그의 곁으로 다가온다. 모리는 그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는 C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리지기라고 말했다. 잠을 깬 뒤에 이상하게 여긴 모리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늙은 식모에게 그런 이름의 남자가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의 다리지기가 있었다는 대답이었다.

모리는, 꿈에 나타나는 유년 시절의 정확한 생각을 그때와 똑같이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F 씨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고한다. 이 F 씨는 어린 시절을 몽브리종(Montbrison)에서 지냈다. 이 마을에서 떠난 지 25년 만에 F 씨는 출생지와 그곳의 친지들을 찾아보려고 결심했다. 떠나기 전날 밤 꾼 꿈에서 그는 자기가 몽브리종 가까이에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아버지 친구 T 씨를 만났다.

F 씨는 어린 시절에 그런 이름의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서도 알고 있었으나, 꿈에서 깨어나서는 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뒤로부터 이삼일 지나서 실지로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꿈에서 여태껏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곳을 보았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F 씨는 바로 이 사람이 꿈에서의 T 씨임을 알아차렸다. 다만 실제의 T 씨는 꿈에서의 그보다는 늙어 보였을 뿐이었다.

여기서 나는, 기억에 남아 있는 인상이 어떤 관계를 통해 보충된 나 자신의 꿈을 하나 말하고자 한다. 나는 꿈에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내 고향의 의사임을 꿈에서 알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요즘도 이따금 만나는 일이 있는 중학교의 선생 한 분과 혼동되었다. 나는 꿈에서 깨어서도 그이와 그 중학교 교사와의 관계를 몰랐다. 어머니에게 물어본 즉 그가 외눈임을 알았다. 꿈에서 혼동되던 교사도 외눈이었다. 나는 38년 동안 이 사람과 만난 적이 없었고, 나의 기억으로는 이 의사에 대해서 평시에 생각해 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의 꿈에는 매우 가까운 과거를 포함한 여러 요소가 증명된다는 많은 꿈 연구자들의 주장은 유년 시절이 꿈에서 차지하는 지나친 역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들린다. 로베르트(W. Robert)마저, "대체로 보통 꿈은 다만최근의 인상에만 종사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우선 로베르트의 꿈 이론이가장 오래된 옛 인상을 억지로 없애고 가장 새로운 인상만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수었다. 그러나 로베르트가 말한 사실은 내가 직접 조사한 결과 그가 지적한 사실이옳다고 확신할 수 있다. 미국의 학자 넬슨(J. Nelson)은, 꿈에 나오는 것들은 그꿈의 전날 또는 전전날에 있었던 일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날의 인상은 꿈에 나타나기에 충분히 약화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꿈 내용과 깨어났을 때와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하려 하지 않는 많은 연구자는 이런 것에 주목한다. 즉 깨어 있는 사고가 격렬하게 종사하는 여러 인상이 낮 동안의 사고 활동에 의하여 조금 옆으로 물리쳐질 때에 비로소 그 인상은 꿈에 나타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최고의 슬픔에 있는 동안에는 대체로 사랑하는 사자(死者)의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의 관찰자의 한 사람인 핼럼(F. Hallam)은 그 반대의 실례를 수집하고, 이 점에서 심리적 개성의 권리를 변호하고 있다.

꿈 기억의 가장 뚜렷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 번째 특성은, 재생된 재료의 선택에 나타난다. 깨었을 때와 같이 가장 뜻있는 것뿐 아니라, 꿈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사소한 것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 몹시 신기해하며 놀라움을 표현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코자 한다.

힐데브란트, "왜냐하면 꿈은 그 재료를 보통 크고 심각한 사건에서나 전날의 강력하고 열렬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부차적인 첨부물, 말하자면 가장 가까운 과거나 또는 보다 오래전 과거의 가치 없는 단편에서 취한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가족 중의 누가 죽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다가 가까스로 잠이 들면, 그날 밤의 꿈에서는 깨끗이 잊어 버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새삼스럽게 강한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들이 스치고 지나간 이후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낯선 사람의 이마 위의 사마귀는 우리들의 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슈트륌펠, "…… 꿈을 분석한 결과, 전날 또는 전전날의 경험에서 온 것이지만 깨어 있는 동안에는 극히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체험한 직후에 잊어 버린 정도의 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우연히 들리는 말이라든지 곁눈질한 행동이라든지 어떤 독서 중의 몇 가지 단편 등이다."

엘리스(Havelock Ellis)(1889년), "깨어 있는 동안 생활의 심각한 감정이나,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주요한 심적 에너지를 쏟는 의문이나 문제는, 보통 즉시로 꿈 의식에 나타나는 따위의 것이 아니다. 최근의 과거가 문제되는 경우 우리들의 꿈에다시 나타나는 것들은 일상생활 중의 사사롭고 우연히 잊어 버린 인상이다. 깨어있을 때 가장 극심한 심적 활동은 가장 깊이 잠든다."

빈츠(C. Binz)는 이런 꿈 기억이 갖는 특성을, 자신이 지지하는 꿈 이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계기로 삼는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꿈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묻는다. 왜 우리들은 반드시 가까운 과거의 일을 꿈꾸지 않을까. 왜 꿈에는 이렇다 할이유가 없는데 중요하지 않은 먼 과거, 이제는 거의 꺼져 버린 과거가 나타나는가. 왜 꿈에서 의식은 종종 아무래도 좋은 기억 상(記憶像)의 인상을 받는가. 더욱이 뇌세포는 체험한 것의 가장 자극적인 기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말이 없고 활발치 못하다(깨어 있는 강한 기억 행위가 잠들기 직전에 뇌세포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사사로운 것과 따라서 등한한 것에 대한 꿈 기억의 특별한 선호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대한 꿈의 의존성을 오인하게 하고, 또한 하나하나의 경우에 이런 의존성을 증명하기 곤란케 한다는 점은 쉽게 통찰된다. 그래서 화이튼 캘킨스(M. Whiton Calikins)는 그(그리고 그의 친구)의 꿈의 통계적 연구에서 총수의 11%가 낮의 생활과의 연관이 전연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힐데브란트는 우리들이 그때그때에, 그리고 꿈 재료 수집을 충분히하여 그 유래를 추구하면 모든 꿈 상(像)이 우리들에게 발생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점에서는 확실히 옳다. 물론 그는 이것을 지극히 힘들면서도 보답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즉 기억이란 방의 가장 먼 구

석구석에 있는 심적으로 아주 값없는 여러 재료를 찾아내고 먼 과거의 아주 무의 미한 여러 일들을 아마 이미 다음 순간에 그것들에게 가져온 망각 속에서 밝혀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통찰력 있는 연구가가 대단히 수수하게 시작한 길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길은 그를 직접 꿈 해명의 중심점으로 인도했어야 했다.

꿈 기억의 태도가 모든 기억 일반론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단 정신적으로 소유한 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숄츠(F. Scholz))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또는 델뵈프와 같이 그것은 모든 인상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변질하지 않고 새벽에 다시 나타나는 제한 없이 민감한 흔적하나를 남겨 두었다고 표현했다. 심적 생활의 많은 다른 병리학적 현상도 똑같이우리들을 이런 결론으로 이끌어간다. 꿈에서의 사고가 실현하는 비상한 능력에 눈을 돌리면 우리들은 후술(後述)할 약간의 꿈 이론이 제출하여야 하는 모순을 뚜렷이 느끼게 된다. 이때 이 이론은 꿈의 황당무계와 지리멸렬을, 낮에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의 부분적 망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꿈의 현상 일반을 기억의 현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 목적인, 밤에도 쉴 새 없는 재연 활동의 표명을 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치(A. Pilcz)와 같은 보고는 이 해석에 부합될 것이다. 그 보고에 의하면 꿈 시간과 꿈 내용 사이의 견고한 관계는, 깊은 잠에서는 가장 먼 과거의 일이 나타나고, 새벽 가까이의 얕은 잠에서는 최근의 인상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꿈이 기여할 재료를 처리하는 따위의 방식에 의해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슈트륌펠은 경험이 꿈에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당하게 지적했다. 꿈은 확실히 한 동기를 제공하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중단된다. 그 이어지는 부분은 변화하여 등장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 아주 낯선 것이 대신 나타나기도 한다. 꿈은 단지 재연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것은 확실히 규칙이므로 한 이론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즉이 예외에서는 꿈은 깨었을 때의 기억이 행하듯이 똑같은 체험을 완전히 반복한다. 델뵈프는 대학 동료 하나가 재난에서 기적적으로 피한 위험한 마차 여행을 꿈

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시 본 일을 이야기했다. 캘킨스 양은 꿈꾼 전날에 일어난일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꿈을 보고하였는데, 나도 나중에 유년 시절에 체험한 것이 꿈에서 완전히 되풀이된 실례를 소개할 생각이다. 6

#### 3. 꿈 자극과 꿈 원천

'꿈은 내장(內臟)에서 비롯된다'는 일반적인 말을 참고하여, 우리들은 꿈의 자극이나 꿈의 원천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잠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꿈을 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꿈은 수면 방해에 대한 반응이다.

연구자들의 저서에서 꿈을 자극하는 원인에 관한 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문제는 꿈이 생물학적 연구의 한 대상이 된 뒤에야 비로소 뚜렷이 제기되었다. 꿈을 하나님의 고시(告示)로 본 옛 사람들은 꿈의 자극 원천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꿈은 신적 또는 마력적인 힘의 의지에서 생기고, 꿈 내용은 그런 힘의 인식이나 의도에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학문은 곧, 꿈을 낳는 자극물이 언제나 같은가 또는 여러 가지인가의 문제를 묻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심리학보다는 오히려 생리학이 꿈을 설명하는 데에 근본이 되지 않는지가 고려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자는 잠을 방해하는 여러 원인과 따라서 꿈 원천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신체의 자극이나 마음의 흥분도 꿈을 만드는 원인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듯이 보인다. 어떤 꿈 원천을 중요시할 것인가, 또 꿈이 생기는 중요도에 따라 그 원천에 어떤 상하 차이를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한의견은 대단히 구구하다.

꿈 원천을 다 열거하면 결국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것은 꿈의 분류에도 이용된

6 나중의 경험으로부터 나는 낮 동안에는 극히 해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았던 일이 꿈에서 되풀이되는 사실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둔다. 트렁크에 짐을 꾸린다든지 부엌에서 요리한다든 지 등등. 이런 꿈에서는 꿈꾸는 본인은 '기억'의 성격이 아니라 '현실'의 성격을 강조한다. 즉 "나는 낮에 그런 일을 실지로 행하였다."

다. (1) 외적(객관적) 감각 자극, (2) 내적(주관적) 감각 자극, (3) 내적(유기적) 신체 자극, (4) 순수한 심적 자극 원천

#### (1) 외적(객관적) 감각 자극

이미 여러 번 우리들에게 꿈에 관한 문제의 안내자로서 봉사한 저서의 필자인 철학자의 아들, 젊은 슈트륌펠은 다 알다시피 피부의 전신적 무감각증과 고급 감각의 몇 가지 마비에 괴로워하는 환자의 관찰을 보고했다. 이 환자에게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감각의 문을 외부에서 차단하면 그는 잠에 빠지곤 했다. 우리들은 모두 잠에 들려면 슈트륌펠 실험에서의 그 환자와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감각 문호인 눈을 감고, 다른 감각에서 모든 자극이나 또는 그 감각 위에 작용하는 자극의 모든 변화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도가 아주 완전하지 않더라도 잠에 든다. 우리들은 감각 기관에서 자극을 완전히 멀리할 수 없거니와, 우리들의 감각 기관의 자극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다. 우리들이 과히 강한 자극에 잠을 깬다는 사실은 정신은 수면 중에도 신체 밖에 있는 외계와 계속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수면 중에 우리들에게 오는 감각 자극은 사실 꿈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극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면 상태에 필연적으로 따르거나 혹은 때때로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자극에서부터 수면을 중단시키기에 적합한, 또는 그런 목적을 가진 우연한 각성 자극에 이르기까지 여러 자극이 있다. 매우 강한 빛이 눈 속에 침입하는 일도 있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냄새를 풍기는 물건이 코의 점막을 자극하기도 한다. 잠든 중에 자신도 모르게 손발을 움직여서 차게 느끼거나, 잠자는 방식에 따라 압박감이나 접촉감마저 가진다. 벌레가 찌르는 일도 있을 것이고, 밤에 작은 일이 몇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습격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주의 깊은 여러 관찰자에 의하여 자극이 꿈 원천으로 인정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깨어 있을 때에 확인된 자극과 꿈 내용의 한 조각과일치하는 여러 많은 꿈이 수집된다.

나는 객관적—다소 우발적인—감각 자극에 거슬러 올라가는 꿈에 관한 예센의 말을 여기에서 인용하련다. "정체 모를 모든 소리는 그것에 적합한 꿈 영상을 깨우고, 천둥소리는 우리들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인도하고, 닭소리는 인간의 비명으로 바뀌고, 문소리는 강도 침입의 꿈이 될 수 있다. 밤에 이불을 차고 자면 알몸으로 배회하거나 물속에 빠진 꿈을 꾼다. 비스듬히 자다가 발이 침대 밖으로 나가면 무서운 절벽 끝에 선 꿈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 베개 밑으로 들어가면 큰 바위에 찌그러지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정액이 지나치게 축적되면 육욕의 꿈을, 아프면 학대받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몸에 상처를 입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마이어(G. F. Meier)(《몽유병 해명의 시도》, 하레(Halle) 1758년는 이런 꿈을 꾸었다. 그는 두세 사람의 남자에게 습격당하여 땅에 눕혀지고, 엄지발가락과 다음 발가락 사이에 쇄기가 박혔다고 생각하다가 깨어나서 보니 발가락 사이에 보릿짚한 개가 끼어 있음을 알았다. 헤닝스(J. C. Hennings, 1784년)에 의하면, 마이어는 또 한 번은 잠옷을 목에 약간 끼게 입고 잤기 때문에 교수형을 당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호프바우어(J. C. Hoffbauer)는 젊었을 때 높은 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 뒤, 실지로 깨어나 보니 조립식 침대가 풀어져 자신이 정말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레고리(J. Gregory)는 언젠가 발밑에 뜨거운 물을 넣은 병을 놓고 잤는데, 꿈에 에트나(Ätna) 산 정상에서 발밑의 지열(地熱)을 참을 수 없으리만큼 느꼈다고 보고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에 고약을 붙이고 자다가 인디언들에 의해 머리 껍질이 벗겨지는 꿈을 꾸었다. 또 다른 사람은 젖은 잠옷을 입고 잠들었는데, 강물 속으로 끌려가는 꿈을 꾸었고, 어떤 지통풍(指痛風) 환자는 잠자는 동안에 종교 재판에 고소되어 고문의 괴로움을 겪는 꿈을 꾸었다(맥니쉬(R. Macnish))"

수면 중의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감각 자극을 주어서 그 자극과 일치하는 꿈을 꾸게 하는 데 성공하면 자극과 꿈 내용의 유사성에 관한 논의는 신빙성이 더해지게된다. 맥니쉬는 지루 드 부자랭그(Girou de Buzareingues)가 이런 시험을 했다고말한다. "그는 무릎을 덮지 않고 잤는데, 우편 마차를 타고 여행한 꿈을 꾸었다.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그는, 여행자라면 밤에 마차에서 무릎이 차가워지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어떤 때에 뒤통수를 내어놓고 잤더니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의식에 참가한 꿈을 꾸었다. 그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는 이런 종교 의식 외에는 언제나 뒤통수를 덮는 풍습이 있었다."

모리는 자신의 꿈에 관한 새로운 관찰을 보고했다(다른 일련의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다).

- 1) 입술과 코밑을 새털로 간지럽혔을 때—무서운 고문의 꿈, 역청(歷靑) 가면이 그 얼굴에 씌워진 다음에 그 가면이 갈래갈래 찢기면서 얼굴의 가죽도 찢겨지는 꿈.
- 2) 가위로 핀셋을 두드릴 때—그는 종소리를 듣고, 폭풍 경보의 종소리를 들었다. 1848년 6월 어느 날에 있었던 꿈.
- 3)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그는 카이로(Cairo)에 있는 요한 마리아 파리나 (Johann Maria Farina)의 상점에 있으면서 그가 재연할 수 없는 미친 듯한 모험의 꿈을 꾸었다.
- 4) 목을 살짝 꼬집힐 때—그는 고약을 바르는 꿈을 꾸고 어릴 때에 치료해 준 의사의 일을 생각했다.
- 5) 사람들이 뜨거운 쇠를 그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올 때—그는 화부(火夫)들<sup>7</sup> 꿈을 꿨다. 이 강도들은 집에 침입하여 가족들의 발을 화로 속에 넣고 가족들을 위협하여 돈을 몽땅 털어갔다. 다음에 아브랑테(Abrantés) 왕비가 나타난다. 자신은 꿈에서 왕비의 비서관이다.
- 6) 이마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그는 이탈리아에서 땀을 몹시 흘리고 오르비에토(Orvieto) 백포도주를 마시는 꿈을 꾸었다.
- 7) 촛불이 붉은 종이 너머로 몇 번이나 얼굴 위에 던져질 때—그는 폭풍과 서열(暑熱)의 꿈을 꾸다. 전에 도버 해협에서 폭풍우를 만났던 경험의 꿈을 꾸었다.

에르베 드 생 드니, 바이간트와 그 외의 사람들은 꿈을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 도한다.

7 화부(火夫)들(Chauffeurs)은 이 고문에 종사하는 방데(Vendée) 지방의 강도단의 명칭이다.

여러 방면에서 미리 마련해 놓고 시작되는 결과를 점차로 표명하는 방법으로, 감성계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인상을 꿈의 구조 속에 섞는, 매우 기묘한 꿈 작용"이인정되고 있다(힐데브란트).

젊었을 때 나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시간 장치가되어 있는 자명 시계를 종종 사용했다. 수없이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즉이 장치의 소리가 상상컨대 대단히 길고, 연결된 꿈에 묘하게 끼어서, 마치 이 꿈전체가 단지 이 자명(自鳴) 소리를 향하여 진행하고, 그 소리 안에 논리적으로 불가결한 그 꿈의 본래의 요점이 있고, 또 자연히 주어진 그 구극의 목표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이 저자는 말한다. 나는 또 다른 목적하에 이런 자명종의 꿈을 세 가지 인용하련다.

폴켈트는 말한다. 어떤 작곡가가 언젠가 꿈을 꾸었다. 그는 음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대체적인 설명을 끝내고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 '알았어?' 그러자 학생은 덜된 사람처럼 '물론이죠, 오 이(Oh ja).'라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그는 이 고함소리에 견딜 수 없어서 큰 소리를 치지 말라고 명했다. 그랬더니 학급 전체가 '오랴(Orja).' 하고 소리친 다음에 '오이료(Eurjo)', 끝으로 '포이에료(Feuerjo, '불이다!'의 뜻)!'라고 외쳤다. 꿈에서 깨어나니 길에서 정말로 '불이다 (Feuerjo)!'라고 사람들이 소리쳤다."

가르니에(A. Garnier)는 라데슈토크에게 보고했다(《마음의 제(諸) 능력에 관한 연구》 1865년). 나폴레옹 1세는 시한폭탄의 폭발로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마차에서 꿈을 꾼 것이다. 꿈에서 그는 다시 타리아멘토(Taglimento) 강을 건너서 오스트리아군의 포격을 받았다. 나폴레옹은 위험하다."라고 고함치면서 놀라 눈을 떴다. 모리가 체험했던 다음과 같은 꿈은 유명하다. 그는 병상에 있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혁명 당시의 공포 정치를 꿈꾸었다. 소름끼치는 살육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마지막에 자신도 법정으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로베스피에르 (Robespierre) · 마라(Marat) · 푸키에 텡빌(Fouquier—Tinville), 그 외의 저 무시무시한 시절의 슬픈 영웅들이 모두 도열하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지 못했던 여러 돌발 사건이 있은 뒤에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무수한 군중이 모인 가운데 형장으로 끌려갔다.

다. 그는 단두대에 올랐다. 형리(刑吏)가 그를 대에 묶었다. 대가 돌아간다. 기요틴 (guillotine)의 칼날이 떨어진다. 그는 목이 동체(胴體)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무서운 나머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침대의 대가 떨어져서, 마치 기요틴의 칼날이 그대로 그의 경추(頸椎)에 맞은 것 같았음을 알았다.

이 꿈은, 르 로랭(J. Le Lorrain)과 에제(V. Egger)에 의해서 《철학 잡지》에 인용된 재미있는 논쟁으로 연결되었다. 이 논쟁은 잠을 깨우는 자극을 지각하고 잠을 깨는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같이 매우 많은 꿈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압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압축하느냐를 다뤘다.

이런 실례에서는 수면 중의 객관적인 감각 자극을 여러 꿈 원천 가운데에서 가장 정확한 원천으로 나타내 보인다. 또 이 꿈 원천은 일반인의 지식 중에서 유일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꿈의 연구 문헌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교양인에게 꿈의 발생을 물어 보면, 그는 꼭 잠을 깬 뒤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꿈의 실례를 예시(例示)하면서 객관적인 감각 자극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과학적 관찰은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학문은 관찰에서 보다 많은 질문의 기회를 마련한다. 즉 수면 중에 감각에 끼치는 자극은 꿈에서 알다시피 그 현실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자극과 어떤 관계가 있는 별개의 표상에 의해 대리된다. 그러나 꿈자극과 꿈 반응을 맺는 관계는 모리의 말에 의하면 유일무이한 관계가 아니라 임의 친화(親和) 관계이다. 이와 관련해 할데브란트의 세 개의 자명종의 꿈을 예로들어 보자. 이 꿈들이 제기하는 문제란 왜 동일한 자극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꿈반응을 일으키고, 또 하필이면 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다.

"즉 내가 봄날 아침에 소요한다. 푸른 들을 지나 이웃 마을까지 걸어간다. 그곳에서 성장한 마을 사람들이 찬송가책을 팔에 끼고 모두들 교회 쪽으로 걸어간다. 오래 정말 오늘이 일요일이고 아침 예배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 예배에 나도 참가하려고 했으나, 그에 앞서 나는 조금 격분되었기에 교회를 둘러싼 묘지에 가서 자신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여기서 여러 묘비를 읽고 있는 동안에 나는 종지기가 종각에 올라가는 발소리를 들었고, 그 꼭대기에는 예배 신호를 알리는 작은 마을의 종이 보였다. 종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그리고 갑작스러운 종소리는 맑고

날카로웠다. 너무나 맑고 날카로운 소리여서 나는 잠을 깼다. 그러나 종소리는 자명 종에서 울려온다."

"둘째 결합. 맑은 겨울날 길에 눈이 쌓였다. 나는 썰매타기에 참가키로 약속했다. 썰매가 집 앞에 왔다고 알려질 때까지 얼마 동안 기다려야 했다. 이제 탈 준비를 했다—모피를 깔고 발주머니를 끄집어낸다—드디어 내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기다리는 말들에게 신호를 줄 때까지 출발은 아직 연기된다. 이제 말들이 끈다. 힘차게 흔들리는 방울은 힘차게 예(例)의 터키 근위병의 음악 소리를 냈다.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자명 종인지 순간적으로 꿈의 거미줄이 찢겼다. 또다시 그것은 시계의 요란한 소리였다." "또 세 번째 예. 나는 식모가 서너 개의 접시를 포개들고 낭하(廊下)를 지나서 부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여자의 팔에 놓인 접시 탑은 나에게는 균형을 잃게 하는 위험인 듯싶었다. '조심해! 포갠 그릇을 떨어뜨릴래!' 하고 고함을 쳤다. '익숙하니까요'란 의무적인 으레 하는 항변이 뒤따른다. 그동안에도 나의 애절한 걱정의 눈초리는 걸어가는 여인을 쫓았다. 보라,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떨어졌다. 뒹군다. 몇 백 개의 조각이 마룻바닥에 깔렸다. 그러나—그 깨어지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내가 바로 깨달았듯이 그것은 접시 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무 엇이 울리는 소리였다. 이 소리도 자명종 소리였다."

마음이 꿈속에서 객관적 감각 자극의 성질을 오인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해서 슈트륌펠—또한 분트(W. Wundt)—은 마음이 수면 중에 가해지는 자극에 대하여 착각을 일으키는 여러 조건들 아래에 놓여 있다고 대답한다. 어떤 감각 인상은 그 인상이 매우 강하고 뚜렷하고 지속적인 경우에, 또 우리들이 침착하게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에 그 인상은 우리들이 인식하는 바가 되고 올바르게 해석된다. 즉 감각 인상은 그 인상이 모든 선행된 여러 경험에 속하는 기억군(群) 밑에서 정리된다. 만일에 이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인상을 일으키는 대상을 오인하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들은 하나의 착각을 일으킨다. "들에 산보해서 먼 대상을 희미하게 인식할 때에 처음엔 그는 그것을 말(馬)로 본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그것은 쉬고 있는 소라고 해석하고, 끝으로 뚜렷하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마음이 수면 중에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받

는 인상은 희미하고 비슷한 성질의 것이다. 마음은 그런 표상을 근거로 여러 환상을 형성한다. 동시에 그 인상을 통해서 크고 작은 기억 상이 환기되고, 그 기억 상을 통해서 인상은 그 심적 가치를 얻는다. 이때에 고려될 많은 기억권(圈) 중의 어떤 기억권에서 소속의 상이 환기되는가, 또 가능한 여러 연상 관계의 어떤 연상이 그때에 관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슈트륌펠은, 그것은 역시 일정하지 않으나 소위 심적 생활의 자의(恣意)에 일임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들은 여기서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다음 사실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꿈을 형성하는 법칙성은 실제로 이 이상 더 추구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감각 인상이 일으킨 환상을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여러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느냐의 여 부에 대한 물음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잠 속에 침입하는 객관적 감각 자 극이 꿈 원천으로서 미미한 역할만을 한다는 사실, 기억 상을 선택하고 환기시키 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실상 모리가 실험적으로 산 출한 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면 (이 때문에 나는 자세히 그것을 인용했으나) 생각 하기가 쉽다. 즉 실험은 실제로 꿈의 여러 요소 중의 한 요소만의 기원을 설명한다 는 것. 그리고 나머지 꿈 내용은 실제로 너무나 독립적이고 너무나 세부까지 결정 적이기에. 실험적으로 도입된 요소와 일치될 것이라는 한 요구에 의해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객관적 인상이 때때로 뜻밖의 참으로 기묘 한 모양으로 꿈속에 소화되는 것을 볼 때에. 위에서 정명한 환상 이론이나 꿈을 형 성하는 객관적 인상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사정에 이른다. 그래서 시몽 (P. M. Simmon)은 그가 여러 거인과 식탁에 앉아 있는 꿈 이야기를 한다. 뚜렷이 무서운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거인들이 먹을 때에 입을 놀리는 소리였다. 잠을 깨 니 그 소리는 방 밖에서 질주하는 말굽 소리였다. 이 꿈에서 말굽의 소음이 《걸리 버 여행기》의 기억권, 브롭딩내그(Brobdingnag)의 거인들의 체재에서와 같은 표 상을 환기시켰다면. 자극에 대한 매우 비범한 이 기억권의 선택에는 그 밖에 다른 동기에 의해서 영향 받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8

<sup>8</sup> 꿈에서의 거인은 이 꿈을 꾼 본인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문제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 내적(주관적) 감각 자극

많은 이의에도 불구하고 수면 중에 객관적 감각 흥분의 역할이 꿈의 생산자로서 확고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극이 그 성질이나 빈도에 비추어서 모든 꿈 상(像)을 설명하는 데에 불충분하게 보이면, 우리들은 그런 자극 과 흡사하게 작용하는 다른 꿈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외적 감각 자극 이 외에 여러 감각 기관 중의 내적(주관적) 여러 자극을 고려한다는 생각이 처음 어디 에서 나왔는지 지금은 모르나, 이런 생각은 사실상 꿈 원인론에 관한 최근의 모든 설명에서 다소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이 깨어 있는 상 태로부터 깜깜한 시야의 빛 혼돈으로, 또 이명(耳鳴)으로, 또 굉음 등등으로 알고 있는 주관적 시각과 청각 감각이. 내가 믿는 바에 의하면 꿈 환상에서 본질적인 역 할을 다하고, 그 감각들 중에서는 특히 주관적 망막 자극의 역할이 크다. 그리하여 닮은 혹은 아주 같은 사물이 많이 눈앞에 나타나는 꿈의 뚜렷한 경향이 이것으로 설명된다. 무수한 새 · 나비 · 물고기 · 진주 · 꽃 등은 우리들의 눈앞에 전개된다. 깜깜한 시야의 광진(光塵)은 공상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고, 광진을 만드는 수많은 광점(光點)은 꿈에서 그것과 같은 수의 독립된 형상이 되고, 이 형상은 빛의 혼돈 의 운동성 때문에 활동하는 물체로 보인다. 아마 또 꿈에 많은 동물 형태가 생기는 경향도 이런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형태의 잡다성은 주관적 빛의 상의 특별한 모양에 쉽게 밀착된다."

꿈 상의 원천으로서 주관적 감각 자극은 그 자극이 객관적 자극과 같이 외부의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 주관적 감각 자극은 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때마다 언제나 임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감각 자극은 객관적 자극과 비교했을 때, 그 자극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증명되는 꿈 자극자로서의 역할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거나 전혀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꿈을 일으키는 주관적 감각 자극의 힘은 주로 요하네스 뮐러(Johannes Müller)가 '공상적 시각 현상(現像)'으로 기술한 소위 최면 상태적 착각(催眠狀態的 錯覺)으로써 증명된다. 막 잠에 들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서 아주 예외 없이 나타나고, 또 눈을 뜬 뒤에도 잠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매우 활발하고 변화 많

은 영상이 그것이다. 이를 철저하게 조사했던 모리는 이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현상과 꿈 형상과의 관련, 아니 오히려 그 일치를 주장했다(요하네스 뮐러도 같은 주장을 했다).

모리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심적 무위(無位), 주의력의 이 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보통 경향에서 한 최면적 환각을 보기 위해서는 1초 동안 이런 무감각 상태에 빠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환각 뒤에 아마 다시 잠에서 깨고 깨어서는 또 그환각에 빠지는 동안에 드디어 잠이 들면 만사는 끝난다. 너무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에서 깨면 우리들은 잠들기 전에 최면 상태의 착각으로 경험했던 영상을 성공적으로 꿈에서 볼 수 있다고 모리는 말한다.

그래서 모리는 언젠가 잠잘 때에 믿지 못할 정도로 왜곡된 표정과 기묘한 머리 모양을 한 괴상한 인물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꿈에서도 나타났고, 깨었을 때에도 모리에게 믿겨졌다고 한다. 또 절식(節食)으로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던 어떤 다른 때에, 그는 그릇 하나와 그 그릇 속의 음식물을 끄집어내는 포크를 가진 손을 보았다. 꿈에서 그는 맛있는 음식이 놓인 식탁 앞에 앉아서 음식물을 먹는 사람들의 움직이는 포크 소리를 들었다. 또 다른 때에는 눈이 아파서 잠들기 전에 매우노력한 후에야 그 하나하나를 읽어낼 수 있었던 극히 작은 기호를 보았다. 한 시간가량 잠자는 동안에 꿈에서 고심한 끝에 겨우 판독할 수 있었던 매우 작은 활자로인쇄된 책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 영상과 똑같이 언어 · 이름 등의 청각 착각은 또 최면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주도악지(主導樂旨)와 함께 시작되는 가극을 알리는 서곡으로서 꿈에서 되풀이된다.

최면 상태적 착각의 최근의 관찰자 트럼벌 래드(G. Trumbull Ladd)는 요하네스 뮐러와 모리와 같은 생각을 취했다. 그는 그가 점차적으로 잠든 2~5분 후에 눈을 뜨지 않고 훈련에 의해서 갑자기 잠에서 깰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막 꺼져가는 망막 상의 영상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꿈의 영상과 비교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망막의 고유 광선의 광점과 광선이 심적으로 지각된 꿈속의 모양의 윤곽·모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의 내적 관계가 양자 사이에서 언제나 인정된다고 보증한다.

예컨대 그가 읽고 공부했던 뚜렷하게 인쇄된 책을 눈앞에서 본 꿈은, 망막 속에서 여러 광점의 평행선상 배치와 일치하였다. 이것을 그의 말대로 표현하면, 그가 꿈에서 읽은 뚜렷이 인쇄된 면은 그의 깨어 있는 지각에서는 실지로 인쇄된 한 면의한 조각과 같은 한 대상으로 사라졌다. 좀 더 뚜렷하게 알아보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종이 한 장에 뚫린, 한 구멍에서 들여다보는 단어 조각들과 같았다.

래드는 이러한 현상의 핵심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망막의 내적 흥분 상태란 재료에 기대지 않는 시각적 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히 깜깜한 방에서 잠든 직후의 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깰 무렵의 아침 꿈에 대해서는 밝은 방에서 눈에 들어오는 객관적 빛이 자극 원천이 된다. 고유 광선이 자극과 교대하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은 우리들이 꿈에서 보는 침착성 없는 형상의 흐름과 일치한다. 래드의 관찰을 승인해 준다면 이 주관적 자극원의 꿈에 대한 뜻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각 형상은 다 알다시피 꿈의 주요한 구성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청각을 제외하고는 다른 감각 영역의 기여도는 극히 낮고 우연적이다.

## (3) 내적 · 기관적 신체 자극

우리들이 꿈 원천을 신체의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구하려 한다면, 우리들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 존재를 거의 자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내적 기관이, 자극을 받은 상태, 말하자면 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밖에서 오는 동통(疼痛) 자극이나 감각 자극의 원천과 같은 고통스런 감각의 원천이 됨을 기억하여야만 한다. 예컨대 슈트륌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은 수면 상태에서는 깨어 있을 때 보다 깊고 보다 넓은 신체적 감각 의식에 도달한다. 그리고 마음은 그것이 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신체의 부분과 변화에서 유래한 어떤 자극 인상을 맞이하게끔 강요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사람은 꿈에서 깨었을 때 몰랐던 질병의 진행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것은 꿈이 여러 인상에 주는 확대화에 의해서다). 물론 꿈의 예언력을 믿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의사로서의 연구자는 적어

도 꿈의 뜻을 질병의 예고로 인정한다(시몽과 많은 옛 연구자).

꿈의 이런 진단학적인 행위를 믿을 수 있는 실례가 근세에 없지 않다. 예를 들면 티시에(P. Tissié)는 《꿈 증세의 가치에 관하여》에서 아르티그(Artigues)를 인용하여, 43세의 여자 이야기를 보고했다. 이 여자는 일견 아주 건강했으나, 이삼년 동안 계속 불안한 꿈으로 괴로워한 끝에 의사에게서 심장 장해란 진단을 받았다. 곧이어 그 여자는 죽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내부의 여러 기관의 뚜렷한 장해가 꿈을 자극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심장이나 폐장의 질환이 번번이 불안의 꿈이 되는 것이 인정된다. 물론 꿈 생활의 이런 관계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단지 문헌을 제시하는 데에 만족하련다(라데슈토크·슈피타·모리·시몽·티시에). 티시에는 병든 기관이 꿈 내용에 특별한 성격을 부여한다고 했다. 심장병의 꿈은 대개 대단히 짧고 공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거의 언제나꿈 내용에서는 무서운 상태의 죽음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결핵 환자는 질식·압박·도망의 꿈을 꾸고, 그는 예외 없이 예의 뵈르너(J. Börner)가 엎드려 자거나 호흡기공(呼吸器孔)을 덮거나 하여 시험적으로 만들어 낸 주지(周知)의 악몽을 꾼다. 소화기 계통의 장해에서는 먹거나 토하는 꿈을 꾼다. 끝으로 성욕 흥분의꿈 내용에 끼치는 영향은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구에게도 뚜렷한데, 이것은 기관이자극해서 꿈을 일으킨다는 모든 이론에 가장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꿈에관한 문헌을 찾아보면 학자들(모리·바이간트)이 제각기 질병의 여러 상태가 그들의 꿈 내용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서 꿈의 여러 문제를 연구하게 된 것은 매우 분명

9 꿈의 이와 같은 진단학적 이용(예를 들면 히포크라테스에 있어서의) 이외에 사람들은 고대에서의 꿈의 치료학적 뜻을 생각하여야 한다. 희랍에는 보통 건강을 구하는 병자가 이용한 꿈 점복(占卜)이 있었다. 병자는 아폴로(Apollo)나 혹은 아스클레피오스(Äskulap) 신전에 가서 여러 가지 의식에 종사하고, 목욕하고, 몸을 마찰시키고, 향을 피우고 흥분에 빠지고, 희생이 된 수산양의 모피 위에 누워서 잠들다가 꿈을 꾼다. 환자는 꿈에서 치료 방법을 본다. 이 수단은 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상징이나 비유로 나타나는 때도 있다. 이것을 사제가 해석한다. 희랍인들의 치료 꿈에 관한 이 이상의 것은 레만(A, Lehmann)(제1권, 74장), 부쉐 르클레르크(A, Bouché-Leclercq), 헤르만(K, F, Hermann)의 《희랍 고대의 신사(神事》)(제41장 38장 16절), 스프렌젤의 《의학사에의 기여》 제2권, 163면 이하의 '뵈팅어(Böttinger)의 기술', 로이드(W, Lloyd)의 《고대의 마그네티즘과 메스메리즘》(런던 1887년), 될링어(J, Döllinger)의 《이교와 유대교》.

하다.

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꿈 원천의 종류가 늘어난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뜻있는 일은 아니다. 꿈은 건강한 사람—아마 모든 사람에게 매일 밤 생기는 현상이고, 여러 기관의 병리학적 상태는 확실히 꿈꾸는 데에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꿈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보통 꿈의 자극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이때까지의 어떤 원천보다도 풍부하게 흐르고,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한 꿈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우리들이 잠을 잘 때에 외부 세계에서 돌려진 마음이 신체 내부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우리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꿈을 만들 수 있는 자극이 잠든 마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이 반드시 질병에 걸려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것이다. 우리들이 깨었을 때에 그 성질에 따라서만 막연히 보통 감정으로서 지각하고 이 막연한 감정을 작성하는 데에 모든 기관 조직이 기여한다고 의사들이 말하는데, 그 보통 감정은 밤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그것의 하나하나의 요소의 성분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어, 꿈의 여러 표상의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보통의 원천을 자연히 제공한다. 그러면 어떤 규칙에 따라 기관 자극이 꿈의 여러 표상으로 변화되는가를 검토하는 일만 남게 된다.

우리들은 여기서 모든 의사 · 연구자의 찬동을 얻은 꿈 발생론에 도달한 것이다. 티시에가 이름 지은 '내부 자아', 즉 우리들의 본체의 중핵부를 덮고 있는 어둠과 꿈 발생의 어둠은 양자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서로 잘 일치되어 있다.

식물성의 기관 감각을 꿈 형성자로 만드는 관념의 진행은 의사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다. 즉 이 관념의 진행은 그 나타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일치점을 보이는 꿈과 정신 장해를 병리학적으로 일치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내적 기관에서 생기는 보통 감정과 자극의 여러 변화는 정신병의 발생에 큰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 자극론이 이론을 독자적으로 제출한 창도자(唱導者) 이상으로 구명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몇몇 연구자는, 철학자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가 1851년에 전개하였던 사고방식을 좇았다. 우리들의 세계상은 우리들의 지성이 밖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인상을 시간·공간·인과율의 형식으로 개도함으로써 우리들 속에서 생긴다. 유기체 내부에서의 감응적 신경 계통에 의한 여러 자극은 낮 동안에는 기껏 우리들의 감정 위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낮 동안의여러 인상의 압도적 영향이 그치는 밤에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여러 인상은 우리들의 이목을 끈다—마치 낮의 소음으로 들리지 않던 샘의 물소리를 밤에는 들을 수있듯이. 그러면 지성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다하는 때 이외에 어떻게 지성은 이자극에 대하여 반응할 것인가. 그러므로 지성은 그와 같은 여러 자극을 인과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여러 형식으로 개변시킨다. 이래서 꿈이 생긴다. 셰르너(K. A. Scherner)와 그 뒤의 폴켈트는 신체 자극과 꿈 형상 사이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파헤치려고 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들이 꿈 이론의장에 이르기까지 보류하기로 하자.

특별히 시종여일하게 철두철미하게 진행된 연구에서 정신병 의사 크라우스(A. Krauss)는 꿈을 섬망(譫妄)이나 망상의 발생과 동일한 요소, 즉 기관적으로 제약된 감각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꿈이나 혹은 망상의 출발점이 될 수 없는 유기체의 부위란 생각할 수 없다. 기관적으로 제약된 감각은 "그러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1) 전체적 기분(보통 감정) 2) 식물적 유기체의 주요 조직 체계에 내재하는 특수한 여러 자극. 이 자극은 다섯 그룹으로 구분된다. (1) 근육 감각 (2) 호흡 감각 (3) 위 감각 (4) 성욕 감각 (5) 말초 감각(제2 논설)."

크라우스는 신체 자극에 기인한 꿈 형상의 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어떤 자극을 받아 어떤 감각이 생기면, 그것은 어떤 연상 법칙에 의해서 그 감각과 비슷한 표상을 환기시키고, 그 표상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형상을 만들지만 의식면에서는 이 형상에 대하여 정상적인 경우와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 즉의식은 감각 자체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그 감각에 따르는 여러 표상에 주의를 돌리기 때문이고, 이런 일이 오랫동안 올바르게 파악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크라우스는 이 과정에 또 여러 감각의 꿈 형상에의 '실체 변화(Trans-

substantiation)'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한다.

기관적 신체 자극이 꿈을 형성하는 데 끼치는 영향은 오늘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나, 양자의 관계 법칙은 대단히 구구하며, 또 종종 애매한 해답으로 귀결되곤한다. 신체 자극을 기초로 한 꿈 해석의 특별한 임무는 꿈 내용을 그 꿈의 원인이되는 기관적 자극으로 환원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들이 셰르너가 발견한해석 법칙을 거부한다면, 우리들은 기관적 자극 존재 자체는 꿈 내용 이외의 것을통해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못한다는 곤란한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꿈 형식의 해석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서 되풀이되기 때문에 전형적이라고 불리는 여러 꿈 형식의 해석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것 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이를 빼는 꿈, 비행하는 꿈, 옷을 벗거나 벗어질 듯 한 옷차림을 하는 꿈 등. 알려진 꿈들이다. 이 마지막 꿈은 이불을 벗어 버리고 알 몸으로 자는 수면 지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빼는 꿈은 이의 자극에 환원되나, 그것은 이의 병으로 인한 흥분 상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 햇하는 꿈은 슈트륌펠에 의하면, 또 이에 셰르너가 따르고 있으나, 흉곽 피부 감 각의 무의식화에 이르렀을 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폐엽(肺葉)에서 나오는 자극량을 마음이 해명한 것으로, 마음이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인 근사상(沂似像) 이다. 이 흉곽 피부 감각의 무의식화에 의해서 비로소 비행하는 표상 형식과 결부 하는 감각이 생긴다. 높은 곳에서의 추락은 피부 압박감의 무의식화에서 시작하여 팔이 한쪽 몸에서 축 늘어졌거나 굽히고 있던 무릎이 갑자기 펴지면서 피부 압박 감을 다시 의식할 때 꾸는 꿈이다. 이때 의식화에로의 이행되는 과정이 떨어지는 꿈으로서 심적으로 구체적 모양을 띠는 것이다(슈트륌펠). 이런 그럴싸한 설명 방 법에도 확실히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다. 즉 그것은 이 방법이 이렇다 할 까닭 없 이 어떤 기관 감각을 심적 지각에서 말살하거나 또는 설명에 이로운 상태가 될 때 까지 고의로 심적 감각에 떠맡기는 점이다. 나는 나중에 전형적 꿈과 그 발생에 관 해서 논하게 될 것이다.

시몽은 비슷한 일련의 꿈을 비교하고 기관 자극이 꿈의 성립을 결정하는 데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법칙을 공식화하려고 했다. 그는 말하였다. 즉 대체로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수면 중에 감정 표현에 관계하는 어떤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감정에서 일어나는 흥분 상태에 있게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꿈은 그 감정에 알맞은 표상을 갖게될 것이라고.

또 다른 법칙은 이렇다. 한 기관이 수면 중에 활동하거나 자극하거나 또는 장해를 받으면, 꿈은 그 기관이 맡아보는 기능의 작용과 관계하는 표상을 내포한다.

볼드(J. Maurly Vold, 1896년)는 꿈을 이루는 신체의 자극에 관한 이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향을 하나하나의 영역에 실험해서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잠자는 사람의 손발의 위치를 바꾸어 놓고 거기에서 꿈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했다. 그는 그 결론으로 이렇게 보고했다.

- 1) 꿈에서 손발의 위치는 대강 현실의 위치와 같다. 즉 현 상태에 일치하는 손발의 정적 상태를 꿈꾼다.
- 2) 사지 운동 때에 그 운동에 나타나는 위치의 하나는 현실의 위치에 알맞은 운동을 꿈꾼다.
- 3) 꿈에서 자기의 손발의 위치를 다른 사람의 손발의 위치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 4) 그 운동이 방해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 5) 특정한 위치에 있는 손발이 꿈에서 동물 또는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양자 사이에 약간의 비슷한 점이 만들어진다.
- 6) 꿈에서 손발의 위치는 그 손발과 관계있는 생각을 자극한다. 예를 들면 손가락을 움직일 때 계산하는 꿈이 나타난다.

이런 결론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체 자극의 이론도, 또한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꿈 상의 얼핏 보아 자유로운 상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듯하다. <sup>10</sup>

10 이 연구자가 그 후에 두 권으로 공개한 꿈 연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조하기를 바란다.

## (4) 순수한 심적 자극 원천

꿈의 깨어 있는 생활과의 관계와 꿈 재료의 유래를 논할 때, 우리들은 낮에 한 일 과 깨었을 때의 관심을 꿈에서 꾼다는 고대와 최근의 꿈 연구자의 견해를 알게 되 었다. 깨었을 때부터 잠자는 중까지 계속 가지는 이런 관심은 꿈과 의식 생활을 맺 어 주는 심리적 유대일 뿐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수면 중에 활동하는 자극과 함께 모든 꿈 상의 유래를 해명하는 데에 경시할 수 없는 꿈 원 천으로 넉넉히 제시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 상기한 견해에 관한 반박을 알고 있 다. 즉 꿈은 잠든 사람을 낮 동안의 여러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대개의 경우 낮 동안 가장 강렬하게 우리들의 관심을 끈 사물이. 깨어 있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자극을 주지 않을 때 비로소 꿈을 꾼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꿈 을 분석하면 사사건건에서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흔히', '대체 로'. '대다수의 경우'라는 조건부 없이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법칙 을 세울 수 없다는 인상이다. 깨었을 때의 관심이 수면 시의 내적 · 외적 자극과 함 께 꿈 원인론을 발견하는 데에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들은 한 꿈이 갖는 모든 요소의 유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꿈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남는 문제 는, 심적 그리고 신체적 자극이 꿈 하나하나에서 어떤 배치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꿈의 완전한 해명은 어떤 경우에도 성취되지 않으며, 꿈 연구자에게는—그들이 그 유래에 관해서 언급할 수 없었던 꿈의 구성 성분이 남아 있다. 심적 꿈 원천으로서의 낮의 관심사는, 누구나 꿈에서 자기의 일을 더 계속한 다는 믿을 만한 주장에 따라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 밖의 심적인 꿈 원천은 알려져 있지 않다. 뒤에서 언급될 것이나 셰르너를 제외 하고는 문헌상에 나타난 꿈 설명들은 큰 맹점을 보여 준다. 꿈에 관한 가장 특징 있는 표상 형상은 그 재료를 어디서 끄집어내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연구자는 이해하기 심히 어려운 심적 자극이 이바지하는 공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평가하려고 한다. 물론 그들은 꿈을 신경 자극의 꿈과 연상의 꿈으 로 나누나, 이 후자의 원천은 전적으로 기억의 재현이다(분트). 그러나 그들은 "꿈 이, 원동력을 주는 신체의 자극 없이도 나타나지 않을까의 여부에 대한 의심을 버 릴 수 없었다(폴켈트)."

순수한 연상 꿈의 특징도 해명되지 않았다. "본래의 연상 꿈에서는 그런 뚜렷한 핵(核)은 이제 문제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흩어진 덩어리가 또 꿈의 중심부에 침입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성과 오성(悟性)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표상 세계는 여기서도더 한층 중요한 신체의 자극과 마음의 자극에 의해 결합되지 않고, 따라서 그것 자체의 여러 변화와 완전한 혼돈에 일임되었다(폴켈트)."

분트도 역시 꿈 형성에 대한 심적 기여를 과소평가하여 이렇게 논한다. "꿈의 환상을 순수한 착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많은 꿈 표상은 아마 잠자는 중에도 없어지지 않는 가벼운 감각 자극에서 생기는 환상이다." 바이간트도 같은 의견으로서이것을 한층 더 일반화했다. 그는 모든 꿈 표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 첫 원인은 감각 자극이고, 여기에 처음으로 다시 나타나는 다른 여러 연상이 결합한다." 티시에는 더 적극적으로 심적 자극 원천을 경시하여 "절대적으로 심적인 그런 꿈은 없다", "우리들의 꿈의 상념은 밖에서 온다……"라고 말했다.

유력한 철학자 분트와 같이 중간 입장을 취하는 몇 연구자는, 많은 꿈에서 신체의 자극과 미지의, 또는 깨어 있을 때의 여러 관심으로서 인정되는 마음의 자극이 함께 움직여서 꿈을 만들어 낸다고 덧붙이는 일을 잊지 않았다. 우리들은 꿈을 형성 하는 수수께끼가 뜻밖에 심적 자극 원천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해명할 수 있을 것임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우선 우리들은 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심적 생활에서 온 것이 아닌 자극이 과대평가된 것에 놀라지 않는다. 이것만이 쉽게 발견되고 실험으로 실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꿈의 뜻을 신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 정신병학의 지배적인 사고 방향과 철두철미하게 합치된다. 두뇌의 유기체 지배는 아주 힘차게 주장하면서도, 유기체의 여러 변화로부터 마음을 제외한 것이나 또는 마음의 생활을 발현하는 데에서의 자주성을 증명하는 것을 승인하는 일이 자연 철학이나 형이상학적인 심령 본체를 운위(云謂)한 시대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듯이 오늘날의 정신과 의사들을 대단히 놀라게 한다. 이 의사들의 불신은 마음을 똑같이 관리하에 두고, 지금은 마음의 여러 충동들이 마음 자체의 능력을 폭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이런 태도는 바로 그들이 신체적인 것과 심적인 것 사이에

걸려 있는 인과의 쇠시슬을 그들이 신용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심적인 것이 실제의 연구에서 어떤 현상의 첫 동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심적인 것의 기관적 근거에까지 이르는 길의 연속선임이 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심적인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인식에 있어서 종착점을 뜻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조금도 부정될 필요가 없다.

#### 4. 왜 사람은 잠을 깬 뒤에 꿈을 잊을까?

꿈이 아침에 사라진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안다. 물론 꿈은 회상된다. 우리들은 잠을 깬 뒤에 꿈의 기억을 통해 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곧잘 이렇게 생각한다. 즉 밤중에 꿈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깨어서는 그 일부만이 생각난다고. 아침에는 아직 뚜렷이 기억했던 꿈이 낮 사이에 여러 개의 작은 조각을 제외하고는 사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관찰할 수 있다. 우리들은 꿈꾼 사실을 알고 있으나,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들은 꿈을 잊는 경험에 익숙해졌기에, 아침에 꿈 내용과 꿈꾼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또한 밤에 꿈을 꾸었으리라는 가능성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 잊을 수 없으리만큼 집요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 있다. 나는 25년 이상 이전에 꾼 환자들의 꿈을 분석한 일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7년 전에 꾼 나 자신의꿈도 아직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두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긴 하나당장에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꿈의 잊음에 관해서 슈트륌펠은 자세히 연구했다. 이 잊음은 확실히 복잡한 현상의 하나이다. 그는 이 이유를 단일한 근거에로가 아니라 여러 근거로 환원시켰다. 우선 꿈을 잊는다는 것은 깨어 있을 때에 잊음의 원인이었던 모든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우리들은 잠에서 깨었을 때 무수한 감각이나 지각을 즉시 곧잘 잊어버린다. 이 까닭은 그것들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그것들과 결부된 마음의 자극이 지나

칠 정도로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많은 꿈 형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꿈의 형상을 잊는 까닭은 그것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인접한 보다 거센 형상은 기억된다. 더욱이 강도(强度)라는 요소만이 꿈 형상들의 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슈트륌펠은 또 다른 연구자들(화이트 캘킨스)과 같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한다. 즉 대단히 활동적인 것으로 알려진 꿈 형상이 때때로 갑자기 잊히는 데 반하여, 기억에 남은 것들 중에는 대단히 희미하고 감각적으로 약한 형상들이 많이 있다. 게다가 우리들은 깨어 있을 때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은 잊기 쉬우나, 되풀이하여 지각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잘 기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꿈 형상의 대다수는 일회한(一回限)의 경험이다. 비이 특성은 모든 꿈을 똑같이 잊는 데에 이바지한다. 다음 셋째 원인은 훨씬 중요하다. 감각ㆍ표상ㆍ사고 등이 어느 정도 확실히 기억되려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적절히 연결하거나 단결할 필요가 있다.

작은 시 하나를 단어로 분해하고 그것을 뒤섞어 놓는다면 시로 이해되기 어렵다. "잘 정돈되고 사실에 맞는 순서에서 한 마디의 단어가 다른 말을 도와야만 전체는 뜻깊고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된다. 우리들은 대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혼란한 것이나 질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대체로 꿈에는 논리도 질서도 결핍되어 있다. 꿈의 구성은 대부분의 경우 그 구성이 바로 다음 순간에 벌써 갈래갈래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억 가능성을 결핍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라데슈토크의 의견과는 모순된다. 그는 우리들이 아주 엉뚱한 꿈들을 제대로 잘 보존한다고 인정한다.

슈트륌펠에 의하면, 꿈과 깨어 있는 상태와의 관계에서 유도되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꿈의 잊음에서 한층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깬 의식이 꿈을 잊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의 한 사본에 지나지 않는다. 즉 꿈은, 결코 깬 상태에서 정돈된 기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개별적인 것만을 취하는데,이 개별적인 것의 보편적인 심적 결합에 있어서 그 개별만을 잘라서 갖는다. 그리고 그 결합 속에서 각 개별은 깨어 있을 때에 기억된다. 그러므로 꿈의 구성은 마

<sup>11</sup>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꿈들은 되풀이 지적되었다. 샤바네(P. Chabaneix)의 수집을 참조.

음을 채우고 있는 심적 계열의 집합에 자리를 갖지 않는다. 꿈을 구성하는 데는 조금도 기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꿈 형상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심적 생활의 토대에서 솟아나 새로이 일어난 바람에 곧 흐트러지는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마음의 공간에 떠돌아다닌다."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은 이러하다. 즉 깨자마자 흘러들어 오는 감각 세계에 주목하기에 바쁜 나머지, 이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꿈 상이란 극히 적은 수이다. 꿈의 형상은 햇빛 앞의 별빛과 같이 새로운 하루의여러 인상 앞에서 물러난다.

끝으로 꿈이 왜 잊히는가를 설명하려면 다음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꿈에 대단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컨대 연구자로서 잠시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동안에는 전보다 더 많은 꿈을 꾼다. 그는 자기의 여러꿈을 보통 때보다 더 쉽고 더 빈번하게 기억한다.

보나텔리(F. Bonatelli)가 슈트륌펠의 학설에 덧붙인 꿈의 망각에 관한 베니니(V. Benini)의 두 개의 다른 원인은 이미 슈트륌펠의 설에 포함되어 있다. (1) 잠과 깸 사이의 보통 감정의 변화는 양자를 재현하는 데 불리하다. (2) 꿈에서의 표상 재료의 다른 배열은, 각성 의식이 꿈을 번역하지 못하게 한다.

슈트륌펠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꿈의 망각의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실로 많은 꿈이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욱 주목된다. 꿈 기억을 법칙화하려는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여기에서도 어디인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듯하다. 꿈 기억의 몇 가지 특징이 최근에 주목되어 왔다. 예를 들면 아침에 잊은 꿈을 우리들은 꿈의 잊었던 내용을 우연히 촉발시키는 지각의 기회를 통해서 낮 사이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데슈토크ㆍ티시에). 그러나 모든 꿈 기억은 그 가치를 비판적인 눈으로 볼 때 매우 과소평가하기에 적합한 처치에 놓여 있다. 꿈 중의 많은 것을 생략하는 우리들의 기억이 과연그 꿈 내용을 변조하지는 않았을지 의심된다.

이와 같은 꿈의 재현의 정확성을 슈트륌펠도 의심한다. "그러면 깨어 있는 의식은 멋대로 여러 가지를 꿈의 기억 속으로 기계적으로 끼어 넣는다. 즉 우리들은 실제의 꿈이 보지도 않은 여러 가지 것을 꿈꾼 것같이 생각한다."

특히 결정적으로 예센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꿈을 연구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일견 이때까지 대단히 근소하게 고려된 사정은 특히 다음의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들이 가졌던 꿈을 회상하려고 할 때, 그 회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꿈 형상의 간격을 채우고 보충하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진상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연결된 꿈일지라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나타나리만큼 연결된 꿈이란 희소하며 혹은 아주 없기도 하다. 또 가장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주목할 만한 꿈을 아무런 보탬이나 아무런수식 없이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서로의 관련 속에서 보려는 인간 정신의 경향은 연관성의 결여를 기계적으로 보완한다."

독자적으로 수립된 것이 분명한 에제(1895년)의 소견은 거의 예센의 말을 번역한 것처럼 들린다. "꿈을 관찰하는 데는 독특한 난관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일체의 잘못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하고 견문한 것을 바로 종이에 기록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잊게 되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잊음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잊는 것은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잊지 않은 것을 나중에 말하기 시작하면, 기억이 공급하는 지리멸렬한 단편을 상상에 의하여 보충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의 제작자가 된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작자의 신념을 무리하게 깊게 하고 작자는 진심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그것을 정당하게 인정된 사실인 것같이 이야기한다……"

슈피타도 대체로 같은 의견으로, 우리들이 꿈을 재현하려고 할 때 비로소 자유롭게 서로 연결된 여러 꿈 요소를 질서 있게 하는 것같이 생각된다. "병렬적인 것을 전후적인 것, 개별적인 것으로 만든다. 즉 꿈에 결핍된 논리적 결합의 과정을 꿈에 덧붙인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기억의 진위성에 대해서 하나의 객관적인 음미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며, 또 이음미가 우리들 자신의 체험인 꿈에서나, 우리들이 그 꿈에 대해서 단지 원천으로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꿈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면, 꿈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에는 대체 어떤 가치가 남겠는가?

## 5. 꿈의 심리학적 여러 특성

우리들은 꿈을 학문적으로 고찰함에 있어서 꿈이 우리들 마음 활동의 결과라는 전 제하에서 출발했다. 그렇다고는 하나, 끝난 꿈은 우리들이 "꿈에서 보았어."라든지 "나는 꿈을 꾸었다."라든지 기꺼이 말할 정도로 꿈의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리만큼 낯선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꿈에 대한 이런 '마음의 낯설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꿈의 원천에 관한 우리들의 논의에 따르면 그것은 꿈 내용을 만들고 있는 재료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재료는 물론 대부분 깨어 있는 생활에서나 꿈 생활에서나 다 공통적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꿈에서의 심적 과정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이에따라 꿈의 심리학적 특성의 묘사를 시도할 수 있다.

《정신 물리학》(제2부)의 여러 요소 중의 몇 소견에서 페히너(G. Th. Fechner) 이상으로 꿈생활과 깨어 있는 생활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고, 폭넓은 결론을 내린사람은 없다. 그는 '의식적인 심적 생활이 단순히 식역(識閾)의 밑으로 하락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바깥 세계의 영향에서 주의를 돌린다고 깨어 있는 생활에 대한 꿈생활의 특성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도리어 "꿈의 무대가 깨어 있는 표상 생활의 무대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면시와 각성 시의 정신 물리학적 활동 무대가 동일해야 한다면 꿈은 깨었을 때의 표상 활동이 집중력이 한 단계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따라서 그 재료와 형식도 깨어 있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실정은 아주 다르다."

심적 활동의 이와 같은 이동에 관한 페히너의 소견은 충분히 밝혀진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한 페히너가 그 소견에서 암시한 길을 밟은 사람은 없다. 생리 학적인 뇌수 분포의 뜻에서나, 또는 심지어 뇌 피질의 조직학적 구성에 관한 해 부학적 해명은 아마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간상을 순서 있게 배열된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심적 기구(機構)와 그 생각을 관련시켜 볼때, 그의 생각은 의미심장하고 대단히 유익한 것임이 아마 판명될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꿈 생활의 명백한 여러 심리학적 특이성의 하나하나를 강조하고, 그것을 큰 규모 있는 설명을 시도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데 만족했다.

꿈 생활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가 이미 잠자는 상태에서 나타나고 잠을 가져오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정당하게 인정된다. 슐라이어마허(F. E. D. Schleiermacher)에 따르면, 깬 상태의 최대 특징은 사고 활동이 '형상'이 아니라 '개념' 속에 생기는 데 있다. 이제 꿈은 주로 형상 속에서 생각되고 수면 상태에 접근함에 따라 의식적인 여러 활동이 곤란해지는 데 반비례하여 무의식적 표상이 나타나고, 또 이 무의식적 표상은 모두 형상의 부류에 속하는 사실이 관찰된다. 우리들이 '고의로 의식적인 표상 행위'로 느끼는 그런 표상 행위의 불가능과 보통 방심상태(放心狀態)와 결부된 형상의 등장,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꿈에 붙어 있는 두 가지 성격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꿈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때 꿈의 본질적 성격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형상에 관해서─취침 시의 착각에 관해서─그것 자체가 내용상으로 말해서 꿈 형상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

그러므로 꿈은 주로 시각적 여러 형상 속에서 사고하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꿈은 또 청각 형상이나 드물게 다른 감각 인상을 가지고 작용한다. 또 꿈에서는 많은 것이, 더욱이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아마 그러기에 언어 표상의 찌꺼기에 대리해서) 단적으로 생각되거나 또는 표상된다. 그렇다고는 하나 형상과 같은 기능을 가진 내용의 여러 요소, 즉 기억 표상보다 지각에 가까운 내용의 여러 요소만이꿈에 대해서 특징적이다. 정신과 의사에게는 잘 알려진 모든 논리를 무시하고 우리들은 모든 사리에 밝은 연구자들과 더불어 "꿈은 착각한다. 꿈은 착각에 의하여사고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시각적 표상과 청각적 표상 사이에는 아무런 상위(相違)도 없다. 멜로디를 들으면 잠이 오고, 그 멜로디의 기억은 잠이들면 같은 멜로디의 착각으로 변화해서, 몇 번이나 깨어서는 잠들고 잠들고는 깬뒤에 새 본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한층 미약한 질적으로 변한 하나의 기억 표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sup>12</sup> 질베러(H. Silberer)는 훌륭한 실례를 들어서 추상적인 사상마저도 사람이 졸음에 빠진 상태에서는 그 추상적 사상과 동일한 것을 표현하려는 구체적·조소적 형상으로 번역되는 것을 표시하였다(《브로이러 프로이드(Bleuler—Freud) 연감》 제1권, 1909년).

표상이 착각으로 변한다는 것이 꿈에 알맞은 깨었을 때의 생각과 꿈의 유일한 차이점은 아니다. 이 여러 형상 속에서 꿈은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꿈은 어떤 것을 현재의 것으로 표현한다. 꿈은 슈피타의 말대로 하나의 관념을 희곡화한다. 그러나 꿈 생활의 이런 측면의 성격 묘사는 꿈을 꿀 때에—대체로, 특별한 해명을 요구하는 예외들도 있으나—자신이 생각하지 않고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즉 아무런 의심 없이 착각을 승인하고 받아들인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된다.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았으나 특별한 형식으로 생각하였다—꿈을 꾸었다는 비판은 깨어나서야 비로소 생긴다. 이 성격은 진정한 수면몽(睡眠夢)을 현실과 결코 혼동되는 일이 없는 백일몽(白日夢)과 준별(峻別)한다.

부르다흐는 이때까지 관찰된 꿈 생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한다. "꿈의 본질적 특징에 속하는 것은 (1) 우리들 마음의 주관적 활동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각 능력은 공상의 산물을 마치 이들이 감각적인 인상들로부터 유래된 것인 듯이 받아들이는 것, (2) 잠은 독재의 중단이다. 그러므로 잠에 들려면어느 정도의 수동성이 필요하다…… 졸음의 여러 현상은 독재의 전폐에 의하여 생겨난다."

이제 어떤 독재적 활동이 정지한 뒤에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꿈 착각에 대한 심적 믿음성을 해명하려는 시도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슈트륌펠은 이 과정에서 마음 이 마음의 기구에 적합하게 행동한다고 자세히 논했다. 여러 꿈 요소는 결코 단순한 표상이 아니고, 깨어 있을 때에는 감각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마음의 진정하고 현실적인 체험이다. 마음은 깨어서는 언어 형상과 언어로 표상 사고하는데 반하여, 꿈에서는 현실의 감각 형상으로 표상 사고한다. 더욱이 공간 의식이 꿈에 첨가되는데 깨었을 때와 같이 감각과 형상은 하나의 외적 공간으로 옮겨진다.따라서 우리들은 꿈에서 마음이 마음의 형상과 지각에 대하여 깨었을 때와 같은상태에 있다고 승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음이 오류를 범할 때에는, 마음의 안팎에서 주어진 여러 감각 지각 사이에서만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수면 상태에서 결여되기 때문이다. 수면 상태의 마음은 마음의 형상에 마음의 객관적 현실성을 증명하는 검증을 할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은 의지

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상과 이 의지가 결여된 다른 형상과의 구별을 소홀히 한다. 마음은 자신이 인과율의 법칙을 자신의 꿈 내용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한다. 요컨대 마음이 바깥 세계로부터 방향을 전환한 것이 마음이 주관적 꿈 세계를 믿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결론에 델뵈프도 도달하였는데, 방향을 심리학적으로 달리 전개했다. 우리들이 꿈 형상을 현실이라고 믿는 까닭은, 우리들이 수면 중에 다른 것과 비교할 인상을 갖지 못하고 바깥 세계로부터 차단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착각을 진실로 믿는 것은 수면 중에 우리들이 그것을 음미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다. 꿈은우리들을 그렇게 음미하게 한다. 예컨대 우리들이 보고 있는 장미꽃에 손을 댄다. 더욱이 이것은 모두 꿈속의 일이다. 델뵈프에 의하면, 실제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깨어 있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것이 꿈인지 혹은 깨어 있는 현실인지에 대하여판정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 나는 내가 알몸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깨어서알 때, 잠들어서깰 때까지 체험된 모든 것이 허구임을 안다. 수면 중에 나는 꿈형상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나의 자아를 하나의 외계에 대치시키는그 외계를 인정하는. 잠재울 수 없는 사고의 습관성 때문이다.

13 델뵈프와 같이 상처 없는 마음의 기구의 보통 정확한 기능을 대단히 제약하게 되는 변화에 의해서 꿈 의 작용을 해명하려고 하프너는 시도하였으나, 다만 그는 이 제약을 다소 다르게 불렀다. 그에 의하면 꿈의 첫 증세는 공간과 시간을 갖지 않는 것, 즉 개체에 주어지는 시공적 질서 내의 일정한 위치에서 의 표상의 해방이다. 이 증세에 제2의 증세가 덧붙는데, 그것은 착각이나 상상이나 공상 결합을 바깥 의 지각과 혼돈하는 데에 있다. "고급의 마음의 여러 힘은 한편 특히 개념 구성·판단·추리를, 또 한 편 자유로운 자기규정을 감성적 공상상(空想像)에 결합시키고, 언제나 이 감성적 공상상을 토대로 삼 기 때문에 이 작용은 꿈 표상의 무법칙성에 참가한다. 참가한다고 우리들이 말한 까닭은 우리들의 판 단력이 의지력과 같이 수면 중에도 어떤 방법으로써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작용에 의해서 우 리들은 꿈에서도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매우 자유롭다. 인간은 꿈에서도 사고 법칙 자체를 범할 수 없다. 즉 인간은 그와 마주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신과 일치시킬 수 없다. 그는 또 꿈에서 도 그가 선한 것으로서 표상하려는 것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와 의욕의 법칙을 적용 함에 있어서 인간 정신은 꿈에서는 어떤 표상을 다른 표상과 바꾸어 가짐으로써 잘못을 범한다. 이러 므로 우리들은 꿈에서 한편 가장 날카로운 판단 구성과 또 한편 가장 철저한 추리를 행하고, 가장 도 덕적이고 신성한 결심을 굳게 할 수 있는데도 큰 모순을 승인하고 바란다. 그 날개를 가지고 꿈속의 우리들의 공상이 날아가는 그런 날개의 모든 비밀은 방향 선택의 결핍에 있고, 다른 의사소통의 결여 와 같이 비판적 반성의 결여가 꿈속에서의 우리들의 기대·소망·판단의 제한 없는 임의의 주요한 원 이이다."

이와 같이 외계로부터의 전환이 꿈 상태의 가장 뚜렷한 여러 특성을 주조(鑄造)하는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면, 위에서 본 추론의 과대평가를 막아 주는 차원에서, 노(老) 부르다흐의 자상한 몇 가지 의견을 돌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 소견은 잠든 마음의 외계와의 관계에 빛을 던져 준다. "잠은 다만 다음 조건 밑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부르다흐는 말한다. "즉 마음이 감각 자극에 의하여 흥분되지 않는 조건에서 만 일어난다. …… 그러나 잠의 조건은 감각 자극의 결여가 아니라 도리어 감각 자극으로의 관심의 결여이다. "많은 감성적 인상 자체는 마음의 안정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방앗간 주인은 가루를 찧는 수레가 돌고 있는 소리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둠속에서 잠들 수 없다."

"마음은 잠자는 중에 바깥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표면에서 물러난다 ······ 그러나 외계와의 관념이 전적으로 끊어진 것은 아니다. 만일에 사람이 잠잘 때에는 듣고 느끼지 못하여, 잠에서 깬 뒤에야 비로소 듣고 느끼게 된다면 잠든 사람을 깨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이상으로 자극의 지속에 대해서는 다음 사실로 실증된다. 즉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인상의 감성적인 강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인상의 심적인 맥락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을 해도 깨지 않던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깬다······. 그러므로 마음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자극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어떤 감각 자극이 표상에 대하여 중요한 일에 관계하면 그 감각 자극의 결여에 의해서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잠자는 동안에 자극을 선택하고 있다. 침실의 램프가 꺼지면 잠을 깨고 가루방아 소리가 멈추면 잠을 깬다. 말하자면 어떤 감각 활동의 정지에 의해서 잠이 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감각 활동이 지각된다는 사실을 전제하나 그 감각 활동이 평범한 것이거나, 또는 도리어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그 활동은 마음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우리들 자신이 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이의를 무시하려 한다 해도, 우리들은 다음

<sup>14</sup> 클라파레드(E. Claparède)(1905년)가 잠자는 메커니즘을 발견한 '무관심'을 여기서 참조하시기를 바람.

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이때까지 소개된 외계에서의 등지는 것으로 유도된 꿈 세계의 여러 특성이 꿈 세계의 비일상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꿈의 여러 착각을 여러 표상으로 바꾸고, 꿈의 여러 상태를 사고로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꿈 해석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잠을 깬 뒤에 꿈을 기억에서 재현할 때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재번역을 전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성공하더라도 꿈은 그 수수께끼를 변함없이 그대로 간직한다.

형상의 그 심적 가치의 상실, 이 상실 자체는 다시 바깥 세계에서의 이반(離反)에 환원된다. 이것이야말로 슈트륌펠에 의하면 우리들의 기억 중에 있는 꿈이 각성 시의 일상생활과 그 생활에 대립하는 낯선 것의 인상을 일으키는 일대 원인이 된다.

우리들은 이미 잠이 심적 여러 활동의 하나인 표상의 흐름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능력을 포기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수면 상태가 또한 마음의 여러 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추측하더라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마음의 여러 작용 중의 어떤 것은 아마 완전히 중단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뒤에 남은 것이 방해 없이 더 활동하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이다. 꿈의 여러 특성이, 수면 시 마음의 여러 능력이 저하되는 것에 의해 설명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다. 꿈이 우리들의 깨어 있는 판단에 주는 인상이 이런 생각을 지지한다. 꿈은 지리멸렬하고 거침없이 가장 경박한 모순을 하나로 합치고, 불가능을 허용하고, 낮에 큰 영향력을 가진 지식을 소홀히 하고, 우리들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둔감하게 한다. 꿈에서 하듯이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미치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꿈에서 말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미친 또는 저능한 사람의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에서의 심적 활동을 과소평가하고, 특히 고급한 지적 활동이 꿈에서는 아주 정지하거나 적어도 대단히 손상되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구동성으로—예외는 나중에 논의될 것이나—연구자들은 이상과 같이 꿈을 판단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한다. 그리고 이 판단이 또 직접 꿈 생활에 관한 일정한 이론이나 설명으로 이끌게 된다. 나는 꿈의 심리학적 여러 성격에 관한 철학자 · 의사 등의 여러 발언을 요약 할 단계에 이르렀다.

르무안(A, Lemoine)에 의하면 꿈 형상의 지리멸렬은 꿈의 유일한 본질적 성격이다. 모리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절대로 합리적이어서 어떤 불통일, 어떤 시대착오, 어떤 부조리를 포함하지 않는 꿈은 없다고 한다.

슈피타에 인용된 헤겔에 의하면, 꿈에는 모든 객관적  $\cdot$  합리적인 관련성이 결핍되어 있다.

뒤가(L. Dugas)는 이렇게 말한다. "꿈, 그것은 심령적인, 감정적인, 심성적인 무정부 상태이다. 그것은 일체가 자신에게 일임된 통제도 목적도 없이 활동하는 여러 기능의 작용이다. 꿈에서 정신은 정신적 자동인형이다."라고.

심적 활동은 수면 중에 아무런 목적 없이 나타난다는 의견을 가진 폴켈트까지도 '중심적 자아의 논리적 권력에 의하여 각성 속에서 통제된 표상 생활의 이완·해소·혼효(混淆)'를 인정한다.

이미 키케로가 행한 (《신화에 관해서 II》) 이상으로 꿈속에 나타나는 표상 결합의 황당무계성을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불합리하고, 근거 없고, 기괴를 극(極)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페히너, "마치 심리학적 활동이 분별 있는 사람의 뇌수에서 바보의 뇌수로 옮긴 것 같다."

라데슈토크, "실상 이 미친 노력 속에서 확고한 법칙을 인식하기는 불가능한 듯하다. 꿈은 분별 있고 깨어 있는 표상의 흐름을 이끄는 의지라는 엄격한 감시와 주의력을 피해, 미친 유희 속에서 모든 것을 천변만화(千變萬化)하게 뒤죽박죽으로 섞는다."

힐데브란트, "예를 들면 그 오성적 추리에 있어서 꿈꾸는 사람은 얼마나 기묘한 비약을 감행하고 있느냐!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그는 주지의 경험 명제를 직접 머리위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가! 꿈은 자연과 사회의 질서 속에 참으로 코웃음 칠 모순을 가져와서, 꿈을 보는 인간에게 그것을 참지 못하게 하고 우스운 것이 쌓이고 쌓

여서 드디어 사람은 잠에서 깰 정도이다. 3×3=20이 되는 일이 있고, 개가 시를 읽고,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무덤으로 결어가고, 바위가 물 위에 뜰지라도 우리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또 중대한 사명을 띠고 진실하게 베른부르크 (Bernburg) 공국이나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후작령(侯爵領)으로 그 나라의 해군 전력을 시찰하거나 풀타바(Pultawa) 전투 직전에 카를 12세 휘하에 지원병으로 달려간다."

빈츠는 이 여러 인상에서 생기는 꿈 이론에 관한 증명을 이렇게 보았다. "열 개의 꿈 중에서 적어도 아홉은 어리석은 내용이다. 우리들은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결합시키는데, 그다음 순간에는 마치 천변만화하게 그 결합이 아주 변해서 점점 더 미친 우스운 것이 된다. 불완전하게 잠자는 뇌의 바쁜 유희는 이렇게 진행하여 드디어 잠을 깨고는 이마에 손을 대고, 실제로 자기에게 아직 맥이 통한 표상과 사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나의 몸에 묻는 형편이다."

모리는 각성의 사상에 대한 꿈 형상의 관계를 의사로서 매우 인상 깊은 비유로 설명한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 빈번히 생기는 의지의 영상의 생산과 지성의 관계는 무도병(舞蹈病)이나 마비 상태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어떤 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관계와 일치한다……" 여하간 그에게 있어서는 꿈은 "생각과 추정력의 일련의 쇠퇴"이다. 개개의 보다 높은 여러 심적 능력에 관해서, 모리의 의견을 되풀이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학설을 인용할 필요는 거의 없다.

슈트륌펠에 의하면 꿈에서는 부조리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자명하게 상태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마음의 종합적 · 윤리적인 활동은 후퇴한다. 슈피타에 의하면 꿈에서는 표상과 인과율은 아주 침묵하는 듯이 보인다. 라데슈토크와 그 밖의 사람들은 꿈에 고유한 판단력의 약화를 강조한다.

요틀(F. Jodl)에 의하면 꿈에는 전(全) 의식 내용에 의한 지각 계열의 비판·수정이 없다. 그는 설명한다. "모든 종류의 의식 활동은 꿈에 나타나지만 불완전하고 방해를 받고 서로 고립적이다." 꿈이 깨어 있는 우리들의 지식에 대하여 제시하는 여러 모순은 꿈에서 사실을 잊거나 또는 각 표상 사이의 논리적 여러 관계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꿈에서의 심적 기능을 경시하는 논자(論者)들도 꿈에 심적 활동의 일부는 남아 있다고 인정한다. 다른 꿈 연구자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분트도 이사실을 뚜렷이 인정한다. 꿈에서 작용하는 정상적인 마음의 활동의 종류와 양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되고 있다. 재현 등력, 기억은 꿈에서도 그 기능을 감소당하는 일이 적고 도리어 깨었을 때보다 약간 우월성을 보여 주는 일이 있다. 물론 꿈의 황당무계함의 원인의 일부는 바로 이 꿈세계의 건망증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슈피타에 의하면 이것은 잠에 빠지지 않고 꿈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의 정서 생활(情緒生活)이다. 그의 '정서'란 인간의 가장 내적·주관적 본질로서의 감정들의 부단한 총괄이다.

횰츠는 꿈에 나타나는 심적 활동의 하나를 꿈 재료가 첨가되는 '비유적인 신해석'이라고 본다. 지베크(H. Siebeck)는 또 마음에 의하여 모든 지각과 직관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꿈속에서 마음의 '보족(補足)적 해석 능력'을 밝혔다. 꿈에 관해서 특히 곤란한 문제의 하나는, 소위 최고의 심적 기능, 즉 의식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우리들은 의식을 통해서만이 꿈의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꿈에서의 의식의 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피타는 꿈에서 자의식이 아니라 의식만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델뵈프는 이 구별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한다.

여러 표상을 연결하는 연상 법칙은 꿈 형상에도 해당된다. 오히려 그 법칙의 지배력은 꿈에서 보다 순수하고 강력하게 나타난다. 슈트륌펠은 꿈은 결국 일견해서 있는 그대로의 여러 표상의 법칙에 따르거나 또는 있는 그대로의 표상을 동반한 기관 자극, 즉 반성이나 오성, 미적 취미나 윤리적 판단 등이 작용할 여지가 없는 여러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한다. 내가 여기에서 인용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소견은 아마 다음과 같은 꿈의 형상을 생각할 것이다. 다른 장소에서 인용 설명한 바 있는 여러 원천에서 발생하여 수면 중에 작용하는 자극이 분트가 그 안팎의 자극의 유래로 보아서 환상이라고 불렀던 착각으로서 우선 마음에 나타나는 약간의 표상을 일깨운다. 이 약간의 표상은 서로 주지의 연상 법칙에 의하여 결합하고, 그 뒤에 같은 법칙에 따라서 새로운 일련의 표상을 깨운다. 그리고 마음속에 잔존하

는 정돈하는 능력이 그 모든 재료를 정돈하고 가공한다(분트와 바이간트를 참조). 다만 밖에서 유래하지 않는 형상이 이런 저런 연상 법칙에 따라 환기되는 것을 결 정하는 여러 동기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러 꿈 표상을 서로 결합시키는 연상 작용은 아주 특수하고 깨어 있을 때의 사고 속에서 활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되풀이되어 관찰돼 왔다. 그리하여 폴켈트도 이렇게 말한다. "꿈에서 여러 표상은 우연한 유사성이나 거의 지각하기 어려운 관련에 따라 쫓고 쫓기곤 한다. 모든 꿈은 이와 같은 무질서하고 구속 없는 연상들로 가득 차 있다." 모리는 꿈 생활을 어떤 정신 장해와 한층 밀접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표상 결합의 성격을 중시하고, '정신 착란'의 중요한 두 가지 성격을 인정한다. (1) "정신의 자발적인, 말하자면 자동적인 활동" (2) "여러 관념의 불완전하고 불규칙한 연상"이다.

모리 자신은 단순한 언어의 동음(同音)이 꿈의 여러 표상을 결합하는 원인이 되는 두 개의 훌륭한 예를 들었다. 어느 때 그는 예루살렘 또는 메카로 '순례(pélerinage)'를 떠나는 꿈을 꾸었다. 다음에 그는 여러 가지의 모험 끝에 화학자 펠르티에('Pel' etier)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눈 뒤 석제(錫製)의 '십(pelle)'을 그에게서 받았다. 이 삽은 그 뒤에 꾼 꿈의 한 장면에서 그의 큰 군도(軍刀)가 되었다. 다른 꿈에서 그는 국도를 걷고 있었는데 이정표의 킬로미터('Kilo'meter)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큰 저울을 가지고 있는 향료상에게로 갔다. 한 남자가 저울 위에 1킬로그램짜리 분동('Kilo' gewichte)을 놓고 모리의 몸무게를 달아보려고 했다. 향료상은, "당신은 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롤로(Gilolo)' 섬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장면이 계속되었는데, 그 속에서 그는 로벨리아('Lo'belia)의 꽃을 보았다. 그리고 로페츠('Lo'pez) 장군을만났다. 이 장군의 죽음을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읽었다. 끝으로 로토('Lo'tto) 화투놀음을 하는 장면에서 잠을 깼다."

꿈의 심적 여러 능력을 경시하는 견해에 다른 면에서의 반박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한다. 확실히 이 경우 반대론은 어려운 것같이 보인다. 꿈 생활을 멸 시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슈피타)이 깨었을 때 지배하고 있는 심리학적 여러 법

<sup>15</sup> 나중에 똑같은 머리 철자와 비슷한 음을 가진 말들이 나타나는 꿈의 의미가 설명될 것이다.

칙이 꿈을 지배한다고 확증하거나, 또 다른 한 사람(뒤가)이 "꿈은 부조리한 것도 아니고 또 순수하게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양자가 이 평가를 꿈에서의 모든 기능의 무정부 상태나 그 해소에 알맞은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꿈의 망상이라는 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고, 덴마크 왕자의 망상을 이곳에 인용된 현명한 판단이 관련되어 있는, 덴마크 왕자의 망상과 같이 위장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해된 듯하다. 이 논자들은 외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피했거나, 혹은 꿈이 그들에게 표시한 외관이 달랐음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해블록 엘리스(1899년)는 꿈의 외관상의 부조리성에 머물지 않고 꿈을 "막연한 정서와 불완전한 생각의 한 원시 세계"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들에게 심적 생활의 원시적 발전 단계를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제임스 설리 (James Sully)는 꿈에 관해서 위와 같은 의견을 더 철저하고도 예리하게 표명했다. 설리만이 다른 심리학자와는 아주 다르게 꿈의 감추어진 깊은 뜻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할 때, 설리의 의견에 대하여 한층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꿈은 인격을 계속 보존하는 한 수단이다. 수면 시에우리들은 사물을 보고 느끼던 옛 방법, 오래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충동과 활동으로 되돌아간다." 델뵈프와 같은 사상가는 물론 모순된 재료에 대하여 반증을 표시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렇게 주장한다. "잠잘 때에는 지각을 제외하곤 정신의 모든 능력ㆍ지성ㆍ상상력ㆍ기억력ㆍ의지력ㆍ도의심 등은 그 원래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 능력은 상상의 불안정한 대상에 적용될 뿐이다. 꿈꾸는 사람들은 환자나현자, 사형 집행자나 희생자, 난쟁이나 거인, 악마나 천사를 마음대로 연기하는 연예인이다." 꿈속의 심적 능력 저하론에 관해서 가장 열렬히 반박한 사람은 에르베후작인 것 같으며, 모리는 이 후작에 신랄하게 반박했다.

저자는 이 후작의 저서를 백방 노력했으나 얻을 수 없었다. 모리는 후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즉 에르베 후작은 잠자는 동안의 지성에 그 활동과 주의의 모든 자유를 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잠은 다만 여러 감각 기능의 폐쇄에, 또 그것들의 외계와의 단절에 비롯된다고 하는 듯하다. 따라서 그의 의견에 의하면 잠자는 사

람과, 자신에게서 감각 기관을 폐쇄하고 사고하는 사람과의 구별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의 사고와 잠자고 있는 사람의 사고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후자 에서 관념이 시각적 · 객관적 형태를 취하고, 외적 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감각과 구별할 수 없고, 기억은 눈앞에 있는 사실의 외관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리는 이렇게 덧붙인다. "또 하나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잠자고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은 깨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능력이 유지하는 균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에르베의 저서에 관해 더 상세히 전한 바시드의 글을 통해 우리들은 에르베가 외 견상의 지리멸렬성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꿈속의 영 상은 관념의 묘사이다. 주체는 관념이고 환상은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승인한 뒤에 관념의 움직임을 쫓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꿈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 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꿈의 혼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갖은 기괴 한 생각일지라도 단순한 아주 논리적인 것이 된다." 또 "가장 괴기한 꿈일지라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으면 극히 논리적으로 설명된다."

슈테르케(J. Stärke)는 꿈의 지리멸렬성에 대한 동일한 해명이 내가 모르는 옛 연구자의 한 사람인 볼프 다비손(Wolf Davison)에 의해 1899년에 다음과 같이 변호된 것에 주목하였다. 즉 "꿈 중의 여러 표상의 특별한 비약은 모두 그 원인을 연상의 법칙에 두고 있으나, 다만 실제로 이 결합은 종종 우리에게는 알지 못한 채로마음속에서 행하여지므로, 우리들은 관념들이 비약이 없는데도 비약한 것으로 믿는다."

꿈의 심적 소산으로서 평가는 문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의 멸시의 평가에서부터 아직 해명되어 있지 않는 가치의 예상에 의하여 꿈에 깨어 있을 때의 생활보다 훨씬 높은 기능을 꿈에 부여하는 과대평가에까지 이르고 있다. 힐데브란트는 꿈의 심리학적 성격 묘사를 세 가지 이율배반에서 파악하였다. 그 여러 대립 중의 세 번째의 대립에서 이 계열의 종착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심적 생활의 앙양(昂揚), 적지 않게 정묘한 영역에까지 도달한 자아강화와, 종종 인간적인 것의 수준 이하에 이를 수 있는 뚜렷한 저하와 약화의 사이

에 있는 대립이다."

"전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누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우리들이 깨어 있는 생활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을 부단한 재산으로서 소유하고 있음을 겸손하게 부정하나. 꿈 정령(精靈)의 창 조와 활동 속에서는 감정의 깊이와 진실, 감각의 섬세, 직관의 명료성, 관찰의 섬 세함. 기지의 발랄함 등이 때때로 나타난다는 사실 말이다. 꿈은 하나의 놀라운 시, 훌륭한 우의, 비할 바 없는 유머, 값진 풍자를 가지고 있다. 꿈은 세계를 독특 하고 이상화한 빛 속에서 보고. 세계의 여러 현상의 효과를 때때로 그 밑바닥에 놓 여 있는 본질의 가장 뜻 깊은 이해 속에서 강화한다. 꿈은 지상적으로 아름다운 것 을 진실로 하늘의 빛 속에, 숭고한 것을 최고의 존엄 속에, 경험적으로 두려운 것 을 가장 두려운 모습 속에서 비웃을 것을 말할 수 없는 철저한 희극을 가지고 우리 들의 면전에 털어놓는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이 잠을 깬 뒤에도 그 인상들의 어 떤 하나가 여전히 우리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것은 현실 세계가 우리들에게 이때까지 한 번도 보여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의심한다. 즉 저 과소평가한 의 견과 이 칭찬은 실제로 동일한 것인가, 한 의견은 우매한 꿈들을, 또 다른 의견은 깊고 훌륭한 꿈들을 간과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 는 두 종류 모두가 꿈에서 가능하다면 꿈의 심리학적 성격을 묘사해 보려는 시도 는 쓸데없는 일이 아닌 성싶고. 심적 생활의 가장 깊은 저락(低落)부터 각성 속에 서 낯선 심적 생활의 앙양(昂揚)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같은 해결이 편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해답에는 다 음과 같은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즉 연구자들의 많은 여러 꿈에 관한 노력이 이런 모순을 일소할 보편적으로 타당한 어떤 특징이 꿈에 있다는 추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반론된다.

정밀한 자연 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철학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저 옛적의 지적인 어떤 시대에 있어서 꿈의 심적 행위가 오늘날에 있어서보다 따뜻하게 호의적으로 용인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꿈은 외적 자연 압력으로부터의 정신의 해방이고, 감성의 질곡(桎梏)으로부터의 마음의 해방이라고 말한 슈베르트(G.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H. von Schubert)와 같은 의견이나, 젊었을 때의 피히테<sup>™</sup>와 그 밖의 사람들의 의견은 모두 꿈을 심적 생활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비행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런 생각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신비가들이나 경건주의자들에게서만 되풀이된다. ™ 자연 과학적 사고방식의 출현과 함께 꿈의평가에 반동의 풍조가 나타났다. 꿈 연구에 종사하는 의사는 꿈에서의 심적 활동을 과소평가하기 쉽고 철학자들과 직업적이 아닌 관찰자들 즉 아마추어 심리학자들 의연구는 이 영역에서 절대로 무시되지 않는데 대중의 여러 예감과의 한층더 밀접한 일치에서 대부분 꿈의 심적 가치를 고집했었다. 꿈에서의 심적 행위를낮게 평가하려는 사람은 당연지사이나, 꿈 원인에서 신체적 자극원을 중요시하고,꿈꾸는 마음이 깨었을 때에 마음의 대부분의 능력을 그대로 가진다고 생각하는 논자에게 있어서는, 또 꿈을 꾸게 하는 자극이 꿈꾸는 정신 자체에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까닭이 없다.

냉정히 비교에서, 우리들이 또 꿈 생활에 돌리려고 하는 여러 뛰어난 능력 중 가장 뚜렷한 것은 기억력이다. 우리들은 이 능력을 증명하는 실례를 때때로 상세히 다루어 왔었다. 옛 연구가들이 종종 칭찬한 꿈 생활의 다른 특징의 하나, 즉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의 착각이라고 쉽게 인식된다. 이 특징이야말로 할데브란트의 말과 같이 바로 착각에 따른 특징이다. '꿈꾼다'는 것도 깨어 있을 때의 사고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꿈꾸는 것은 역시 생각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꿈은 시간성이란 점에서 또 다른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독립적이란 것이다. 위에서도 인용한 모리의 기요틴에 의한 자신의 처형과 같은 꿈은 깨었을 때의 우리들의 심적 활동이 사고 내용을 완성할 수 있는 이상의 지각 내용을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추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여러 논의에서 반박이 제기되었다. '꿈의 외관상

<sup>16</sup> 하프너와 슈피타를 참조.

<sup>17</sup> 내가 이 저서의 옛 판(版)에서 참조하지 않았기에 사죄하여야 하는, 연구가들 중의 한 사람인 매우 지혜로운 신비주의자 뒤 프렐(C, Du Prel)은 인간을 문제로 삼는 한 각성이 아니라 꿈이 형이상학의 입구라고 말한다(《신비주의의 철학》).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의 지속성'에 관한 르 로랭과 에제의 논문 이래, 이 점에 관해서 흥미 있는 깊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논쟁도 이 미묘하고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18}$ 

꿈이 낮의 지적 활동을 계승하여 낮에 도달하지 못했던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의혹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시인이나 작곡가에서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보고나 샤바네(Chabaneix)의 실례 수집 등에 의해서 의심할 바 아닌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해석만큼은 원리적인 차원에서 많은 의문<sup>19</sup>을 벗어날 수 없다.

끝으로 주장되어 온 꿈의 예언력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 논쟁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의혹과 완강히 되풀이된 확언과 교차한다. 우리들은 이 주제와 관련해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피하려 한다. 그 까닭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설명의 가능성이 가까이 임박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6. 꿈에서의 윤리적 감정

꿈에 관한 나 자신의 여러 연구를 알아야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깨어 있는 동안의 도덕적 성향과 감각이 꿈 생활에까지 도달하느냐의 문제와, 도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를 분리시켜 왔다. 우리들이 모든 다른 마음의 작용들과 관련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연구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모순적인 견해들을 우리는 이곳에서도 만나게 된다. 어떤 이는 꿈이 윤리적 요구에 관해서 무지하다고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주장하며, 혹자는 인간의 도덕적 본능이 꿈에서도 유지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매일 밤 꿈 경험을 생각해 보면, 첫 주장의 정당성은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18 이 문제에 관한 이 이상의 문헌과 비판적인 논의는 토보볼스카(J. Tobowolska)의 파리 대학 학위 논문(1900년)을 참조.

19 해블록 엘리스의 《꿈의 세계》에서의 비판을 참조.

다. 예센은 사람들은 수면 중에는 보다 잘, 보다 도덕적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꿈에서는 동정을 느끼지 않고 극악의 범죄·도둑·살인·타살을 완전히 무관심하게, 그리고 그 행위를 후회 없이 행하므로 꿈에서는 양심은 침묵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라데슈토크는 "반성·분별·미의 호통·윤리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꿈에서 연상이 진행하고 여러 표상이 결합한다. 판단력은 극히 약하고 꿈 세계에는 윤리적 무관심이 지배하고 있음"이 고려된다. 폴켈트는 "누구나 알다시피 성적여러 관계는 꿈에서 극히 통제 없이 행해진다. 꿈꾸는 사람은 수치를 모르고, 모든 윤리적인 감정과 판단을 잃고 있듯이, 그는 타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조차 깨었을 때의 그들과 관계할 수 있다고 티끌만큼도 생각지 못할 행위를 예사로 행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에 날카롭게 대립한 것이 쇼펜하우어의 의견이다. "누구나 꿈에서는 완전히 자기의 성격에 따라 행동하고 말한다." 피셔(K, Ph, Fischer)<sup>20</sup>는 주관적 감정과 노력, 혹은 격정과 정열은 꿈 생활의 자의(恣意) 속에서 자기를 개시하고 인간의 도덕적 여러 특성은 그 사람의 꿈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하프너는 "희귀한 예외를 제외하면 …… 도덕심이 굳은 사람은 꿈에서도 도덕적이다. 그는 유혹에 저항하고, 증오 · 시기 · 분노, 이 밖의 여러 악덕에 대하여 자기를 닫는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꿈속에서도 대체로 깨었을 때 그가 본대로의 형상을 발견할 것이다."

숄츠, "꿈속에는 진실이 있다. 모든 높은 또는 야비한 모든 분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다시 인식한다…… 진실한 사람은 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그는 자기의 본성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그것에 놀란다. 황제의 목을 자른 꿈을 꾼 신하를 사형에 처한 로마 황제가 만일에 그런 꿈을 꾼 사람은 깨어 있을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임에 틀림없다고 정당화한다면 그 황제가 취한 조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없는 것에 관해, 우리들은 특히 '꿈에도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20 《인류학 체계 요강》엘란겐(Erlangen), 1850년(슈피타의 인용).

이에 대하여 플라톤은 깨었을 때 행한 것을 꿈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최상의 인간이라고 말했다.

파프(E. R. Pfaff)는 유명한 격언을 바꾸어서 "잠시 너의 꿈을 들려 달라. 그러면 나는 너의 내심이 어떻다는 것을 너에게 말해줄 터이다."라고 했다.

내가 이미 수없이 인용한 힐데브란트의 소저(小著)—이것은 꿈 문제 연구에 가장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생각이 깊은 공헌서이다—도 바로 꿈에서의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또 그에게 있어서는 생활이 순수하면 그만큼 꿈도 순수하고, 전자가 불순하면 후자도 따라서 불순하다는 규칙이 확정된다.

인간의 윤리적 본성은 꿈속에서도 그대로이다. "물론 우리들은 꿈에서 분명한 계산 착오를, 아주 낭비적인 방향으로의 과학의 전향을, 대단히 우스운 시대착오를 범하고도 태연스럽고 또 자신을 의심하지도 않으나, 우리들은 선악·정사·덕부덕(德不德)의 구별만은 잊지 않는다. 가령 낮에 우리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의 대부분이 수면 중에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도—칸트의 정언 명령(定言命令)은 불가분리적인 동반자로서 우리들의 발뒤축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면 중에도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기초인 윤리적 본성이 너무 공고하게 정하여져 있기에, 공상·분별·기억, 그 밖의 동등한 능력이 꿈에서 그것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혼효(混淆)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다는 데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 문제에 관한 금후(今後)의 토론에 두 그룹의 연구자에 의해서 뚜렷한 단층과 불연속이 나타난다. 엄밀하게 말하면 꿈에서는 윤리성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에게서는 이렇게 선언하는 동시에 그들의 비도덕적인 꿈에 대한 관심은 끝을 맺는다. 그들은 어떤 꿈을 꾼 사람을 그 꿈의 책임자로 간주하고, 그 꿈의 도덕적인 열성(劣性)에서 그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나쁜 경향을 결론지으려는 기도를, 꿈의 부조리성에 의하여 그 사람의 각성 시의 지적 업적의 무가치를 증명한다는, 일견 똑같이 가치 있는 시도처럼 쉽게 거부하는 것이다. '정언 명령'이 꿈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다른 연구자들은 비도덕적인 꿈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그런 해괴한 꿈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

의 윤리적 성격에 대한 확신을 뒤엎을 만큼 의심이 가는 꿈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자신이 어느 점까지 선하고 악한지 자신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아무도 자신의 부도덕한 꿈의 기억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꿈의 도덕성 여하에 관한 논단에 있어서의 대립은, 대립으로서 두 그룹 연구자 사이에서는 부도덕한 꿈의 유래를 해명하려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도 덕한 꿈 원천이 심적 생활의 여러 기능에 구해지는가, 또는 심적 생활의 신체적으로 제약되는 영향에 구해질 것인가에 따라 여기에 새로운 대립이 형성된다. 그러나 꿈 생활의 책임을 옹호하는 측과 무책임을 주장하는 측 모두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토대로 꿈의 부도덕에 대한 특별한 심적 원천이 있음을 인정한다.

도덕성이 꿈에서도 연장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꿈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하프너는 이렇게 말한다. 즉 "우리들은 꿈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꿈에서의 우리들의 사고나 의욕에는 우리들의 생활이 진실성과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기에 어떤 꿈의 의욕, 꿈의 행위도 악이거나 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간접적으로 나쁜 꿈을 일으키는 한에는 그 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그에 게서는 깨어 있을 때에도 그렇거니와 잠이 들기 전에는 더욱 그렇고, 마음을 윤리적으로 깨끗이 할 책무가 생긴다.

꿈의 윤리적 내용에 대해 책임을 거부하느냐 용인하느냐의 혼돈을 할데브란트는 한층 깊이 분석하고 있다. 그가 꿈의 극적 표현법이 극히 복잡한 사고 과정의 가장짧은 시간 내에서의 압축과, 할데브란트도 인정한 꿈에서의 표상제요소(表象諸要素)의 가치 약탈과 혼효 등 꿈의 비윤리적 외관에 대해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꿈의 죄악이나 죄책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만일에 우리들이 어떤 부당한 비난을, 특히 우리들의 의도나 지향과 관계있는 그런 비난을 물리치려고 하면, 우리들은 곧잘 '그런 일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에서 우리들은 한편 꿈의 영역이야말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관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가장 먼 최후의 세계임을 말하고자 한다. 즉 이런 사상은 꿈 세

계에서는 우리들의 실제의 본성과 허술하게 맺어져 있을 뿐이기에 그런 생각을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들이 바로 이 영역에서 그런 관념의 존재를 뚜렷이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 만일 우리들의 변론이 간접적으로 꿈 세계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변론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그 처음 동기가 어떤 형식으로든 소망·욕망·충동으로서 미리 깨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는 따위의 꿈 행위를 생각할 수는 없다." 이 최초의 충동에 관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꿈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꿈은 나중에 그것을 형성하고 전개할 뿐이다.

꿈은 우리들에게서 미리 찾은 역사적 소재의 극미량을 극적 형식으로 가공할 따름이다. 꿈은 "그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이다."라는 사도(使徒)의 말을 극(劇)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도덕한 꿈의 세세한 부분을 잠이 깬 뒤에 자신의 윤리적인 강인성 밑에서 웃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형성 요소를 결코 웃어넘겨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꿈에서 범하는 미오(迷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아닐지라도 그 몇 퍼센트의 책임을 느낀다. "요컨대 우리들은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온다'는 예수의 말을 그런 공격 곤란한 뜻으로 해석한다—다음에우리들은 또 꿈에서 범한 모든 나쁜 일이 죄책의 어두운 극미량을 가지고 있다고확신 할 수밖에 없다."

유혹의 사상으로서 낮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스쳐가는 악한 충동의 싹과 암시속에서 힐데브란트는 꿈의 부도덕성의 원천을 발견하고, 인격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도덕적인 여러 요소를 그는 계산에 넣으려 하지 않는다. 이 사상과 이 사상의 동일한 평가야말로 우리들이 알다시피 모든 시대의 경건한 사람이나 성자들로 하여금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외다." 라고 탄식하게 할 것이다.

이 대조적 표상의 보편적 출현—많은 사람에 있어서, 또 윤리적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도—에 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한 판단은 때때로 진실하

<sup>21</sup> 피셔(K. Ph. Fischer)

지 못한 것이다. 슈피타는 이와 관련된 첼러(A, Zeller)의 의견을 이렇게 인용했다(에르슈(J, S, Ersch)와 그루버(J, G, Gruber)의 《과학과 예술 종합 백과사전》 (1818년)의 〈미망〉 항목에서 재인용).

"하나의 정신이 언제나 완전한 힘을 소유하고 비본질적인 생각 뿐 아니라 대단히 우스운 모순된 생각이 자기 사상의 항상적인 명석한 진행을 중단하지 않을 만큼 잘 조직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물론 최대의 사상가들마저 여러 생각의 꿈 같은 조 롱적이고 고통스러운 무뢰한을 슬퍼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가장 깊은 고찰이나 가장 신성하고 진정한 사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힐데브란트와 다른 의견은 이런 대조적 사상의 심리학적 위치 위에 다음 사실을 뚜렷하게 비추어 주었다. 즉 그에 의하면, 꿈은 깨었을 때는 대체로 우리들에게 폐 쇄되어 있는 우리들의 본성의 깊이와 구김살을 때때로 엿보여 준다. 같은 인식을 칸트는 인류학의 한 곳에서 털어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꿈은 우리들에게 감 추어진 소질을 발견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들은 현재 있는 대로의 것"이 아니고. 만일에 우리들이 다른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 들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같은 것을 라데슈토크는 이렇 게 말한다. "꿈은 우리들에게 종종 다만 우리들이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고 싶지 않 은 것만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꿈을 부정하게도 거짓말쟁이니 사기꾼이 니 하여 비난한다."라고 말한다. 에르트만(J. E. Erdmann)은 이렇게 말한다. "꿈 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가르쳐 준 일이 한 번도 없다. 이에 반하여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에 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 지느냐를 나는 이때까지 여러 번 꿈에서 배워서 크게 놀란다."라고. 피히테도 같은 생각이다. "우리들의 꿈 성격은 우리들이 깨어 있는 자아 관찰에 의해서 그것을 경 험하는 것 이상으로 충실하게 우리들의 전체 감정을 비쳐 준다." 우리들은 다음 사 실에 주목한다. 즉 우리들의 윤리 의식에 알려져 있지 않는 충동의 나타남은. 깨었 을 때는 결핍되어 있는 혹은 그 깸 속에서 극히 작은 역할을 하는 다른 표상 재료 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진 꿈과 대비된다는 사실이다. 즉 스 스로 질식사하고. 벌써 써 버린 것으로 생각된 우리들의 성질이 부활된다. 문힌 낡 은 정열이 부활한다. 우리들의 염두에 아주 없던 일이나 사람이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베니니의 인정이나, 폴켈트의 "거의 모르는 사이에 깨어 있는 의식 속으로 침입하고 그 의식에서 아마 두 번 다시 절대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여러 표상도, 또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을 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 준다." 라는 말은 명백하다. 끝으로 슐라이어마허의 잠이 들면서부터 우리들에 의하여 바라지 않는 표상에 동반된다는 말을 여기서 상기하여 두자.

'바라지 않는 여러 표상'에 우리는 부도덕적인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황당무계한 꿈에서 우리에게 해괴한 감정을 일으키는 표상 재료 전체를 포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차이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도덕적 영역에서 바라지 않았던 표상은 우리들의 그 밖의 감정과 대립하지만, 그렇지 않은 표상은 단지 우리들에게 의아하게 생각된다는 점이다. 이 차이를 보다 깊은 인식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직까지는 행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꿈에서 바라지 않는 여러 표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런 대조적인 도덕적 충동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 깨었을 때의 마음과 꿈을 꾸는 마음의 심리학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새로운 의견 차이가 생기고 연구자의 각기 다른 분류가 생긴다. 힐데브란트의 사고방식과 그것을 기초로 삼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추구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약간의 힘이 깨어 있을 때의 부도덕한 충동에도 있고, 그 힘은 실지로 행동이 되지 않도록억제되나, 수면 시에는 말하자면 낮에 억제와 같은 작용을 하여 이런 움직임의 존재를 우리들이 못 느끼도록 했던 그 어떤 것이 없어진다는 견해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꿈은 인간 모습 전체는 아니라도 그대로의 모습을 표시하며, 그렇게 된 마음의 내부를 우리들에게 알리는 여러 수단의 하나가 된다. 이런 전제에 섬으로써비로소 힐데브란트가 꿈에 경고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한 까닭이 있다. 즉 꿈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윤리적 결함에 대해 우리들의 주의를 일으키는 경고자이다. 이것은 마치 의사의 중언에 따르면 꿈이 이때까지 느끼지 않고 있던 육체상의 질환을 의식에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슈피타도 사춘기에 마음속에 흘러들어 온 자극 원천을 지적하고, 만일에 꿈을 꾼 사람이 깨었을 때에 엄격한 도

덕적 행위를 행하고, 또 깊은 죄감(罪感)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억제하고 기르지 않고 행위까지 되지 않도록 노력할 때에, 그 꿈을 꾼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그를 위로했을 때, 이와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견해에 따라 우리는 바라지 않는 여러 표상이 낮에는 억제되어 있는 관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런 관념들의 출현에서 참된 정신적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에 따르면, 우리들에게는 이런 결론을 내릴 권리가 없는 것이된다. 예센은 꿈에서나 깨었을 때에나 또 열(熱)에 들뜨거나 그 밖의 다른 정신 착란에서 떠오르는 바라지 않은 여러 표상들에서 "작용을 멈춘 의지 활동과 내적 운동에 의해 야기된 형상이나 표상의 약간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성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도덕한 꿈은 꿈꾸는 사람들의 심적 생활에 관해서 다음의 것을 증명한다. 즉 부 도덕한 꿈은 당면의 표상 내용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실히 알지만 결코 그 자 신의 심적 활동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 아니다. 모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덕성 의 울타리 밖에 둘 수 있는 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을 말하게 하고, 행 동케 하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고, 양심은 때때로 경고할 뿐이고 우리들을 붙잡아 두지는 않는다. 나에게는 나의 결점과 나쁜 경향이 있다. 각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 는 그것과 싸우기를 노력하고 또 때때로 상당히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꿈 에서는 반드시 패한다. 그런 결점이나 경향의 압력에 의하여 나는 뉘우침이나 겁 없이 행동해 버린다. …… 여하간 명백하게 나의 뇌리에 널리 퍼져서 꿈을 구성하 는 여러 환상은 나의 침묵하는 의지가 그것을 억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내가 그 것을 느끼는 여러 자극에 의하여 나에게 암시된다." 만일에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 속에 현실로 존재하는 억압되고 감추어져 있는 부도덕한 성향을 드러낼 능력이 꿈 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의견을 모리 이상으로 날카로운 말로 표현한 사람은 없 을 것이다. "꿈은 인간에게 인간의 나체와 비참을 보여 준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 행사를 멈추고 모든 정욕의 장난감으로 화한다. 그런데 깨었을 때 양심이나 명예 심이나 공포심이 그런 정욕에서 우리들을 지켜 준다." 다른 곳에서 그는 적절하게 이렇게 말한다. "꿈에서 개시되는 것은 특히 본능적인 인간이다…… 인간은 꿈에 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미 얻은 여러 표상이 그 인간 정신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꿈에서는 그런 관념과 모순되는 여러 경향이 정신에 대하여 한층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그는 그 실례로서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가장 격심한 공격을 가한 바로 그 미신(迷信)의 희생으로서 그의 꿈이 그 자신의 모습을 적지 않게 표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꿈 생활의 심리학적 인식에 대한 이 명석한 의견의 가치는 모리에게서는 다음의 사실에 의해서 손상되었다. 즉 그는 자신이 이렇게 올바르게 관찰한 여러 현상 중에서 그것이 꿈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적 자동 현상(automatisme)'을 증명하는 것 이외의 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 자동 현상을 심적 활동의 완전한 대립자로 본다

슈트리커의 의식 연구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다. "꿈은 단지 미망(迷妄)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예컨대 꿈에서 도둑을 무서워하는 경우, 물론 그 도둑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나 무서워하는 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꿈에서의 감정이 꿈의 기타의 내용과 같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며, 또한 꿈에서의 심적 여러 과정 속에서 어느 것이 현실인가, 즉 무엇이 각성 시의 심적 여러 과정속에 분류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 7. 꿈 이론과 꿈 기능

이때까지 관찰한 꿈의 여러 성격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한 관점에서 해명하는 동시에, 광범한 현상 영역에 대한 꿈의 위치를 규정하는 꿈에 관한 의견을 하나의 이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개개의 꿈 이론은 그 이론이 꿈의 개개의 성격을 본질적 성격에까지 높이고 그 성격에 여러 해석이나 여러 관계를 맺는 점에서 구별된다. 꿈의 개개의 기능, 즉 효용성이나 그 밖의 업적 능력은 반드시 그 이론에서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목적론을 향하는 우리들의 기대는 꿈의 한 기

능으로서의 통찰과 결부되는 따위의 이론을 수용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미 이런 뜻에서 꿈 이론이라고 칭할 수 있는 꿈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알았다. 꿈은 인간 행위를 지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옛 사람의 신앙은 꿈을 이해하는 데 알맞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꿈의 완전한 이론의 하나였다. 꿈이 생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 이래 꿈 이론의 수는 증가했으나 그중에 참으로 불완전한 것도 적지 않다. 꿈 이론은 꿈에서의 심적 활동의 척도와 종류에 관해서 근본적인 가설 여하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1) 깨어 있을 때의 완전한 심적 활동은 꿈에서 계속된다는 설(예. 델뵈프와 같은)—그때에 마음은 잠자지 않으며 마음의 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깨었을 때와는 다른 수면 상태의 제(諸) 조건 속에 놓인 마음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깨었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 이론에서는, 그것이 깨었을 때의 생각과 꿈과의 여러 차이점을 모두 잠자는 상태의 여러 조건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이다. 그 뿐 아니라 이 이론에는 꿈의 한 기능에로의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꿈을 꾸는가. 또 마음 장치의 복잡한 기구는 자신을 위하여 생각되지 않는 듯한 여러 관계 속으로 옮겨졌을 때에도 역시 왜 그대로 작용을 계속하는가, 이런 점이 이 이론에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꿈을 꾸지 않고 잠자느냐, 혹은 만일 방해되는 자극이 왔을 때는 눈을 뜨느냐, 이것이 유일한 합목적적인 반응이 된다는 점에서 세 번째의 반응인 꿈꾸는 반응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
- (2) 위와는 반대로 꿈에서 심적 활동이 저하하고 여러 관련이 이완되고 재료가 빈약하게 되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이 이론에 따르면 델뵈프의 그것에 따른 이론들과는 아주 다른 심리학적 성격이 묘사되어야 한다. 잠은 마음 위의 한 면에 흩어져서 마음의 외계와의 차단을 뜻할 뿐 아니라, 잠은 마음의 메커니즘 속에 침입하여때때로 그것을 사용하기 어렵게 한다. 정신병학에 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론은 꿈을 편집증과 같이 구성하고, 둘째 이론은 꿈을 신경 박약혹은 급성 환각 상태(amentia)의 모범 사례로 삼는다.

꿈 생활 속에서는 잠에 의해 마비 상태에 빠진 마음의 활동이 일부만이 나타난다는 이론이 의사나 일반학계에서 대단히 환영받는다. 꿈의 해명이 매우 일반의 관심을 모은다고 전제할 수 있는 한에서, 꿈의 지배적 이론은 아마 이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꿈 해명에서 이미 알려진 난점, 즉 꿈에 의해서 구상화된 몇 가지 모순의 하나를 얼마나 쉽게 회피하느냐를 여기에서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꿈은 부분적인 것의 산물이기 때문에 헤르바르트(J. F. Herbart)는 《꿈의 심리학》에서 "점차적·부분적인 동시에 대단히 이상한 각성"이라고 말한다. 이 이론은 진행 중의 각성에서 점차로 완전한 각성에 이르는 일련의 상태를 통하여 황당무계하다고 폭로된 꿈의 열등 기능으로부터 완전히집중화한 사고 기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계열을 설명할 수 있다.

생리학적 서술법을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이 학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빈츠의 서술에서 이 이론을 발견한다. "이 (마비의) 상태는, 그러나 새벽에 가서 점점 끝말에 가까워 간다. 뇌 단백질 속에 쌓인 피로 물질이 점차로 감소되고 점차로 그 분해 도수가 높아지고 혹은 언제나 활동하는 혈액 순환에 의해서 씻어진다. 이곳저곳에 벌써 개개의 세포군이 잠을 깨어 나타나기 시작하나, 주변은 아직 마비 상태 속에 가만히 있다. 이때 개개의 집단에서 독립한 활동이 안개에 걸친 우리들의 의식 앞에 나타난다. 이 활동에는 연상을 지배하고 감독하는 다른 뇌의 각 부분의 통제가 결핍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성된 형상은 가까운 과거의 물질적 인상을 많이 반영하고 거칠며 무질서하다. 자유롭게 된 뇌세포의 수는점차로 많아지고 꿈의 황당무계성은 점점 적어진다."

꿈꾸는 것을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각성으로 보는 생각이나, 혹은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은 흔적은 확실히 반세의 모든 물리학적 철학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가장 상세히 설명한 이가 모리이다. 이런 생각에서는 그 연구자가마치 각성 상태나 잠자는 상태를 해부학적 위치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 물론 이때 모리는 해부학의 일부분이 특별한 심적 기능 하나와 결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만일에 부분적 각성의 이론이 실증된다면 이 이론의 세세한 부분을 모으는 데에는 실로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치려 한다.

꿈 기능은 꿈 생활에 관한 이러한 이해로서는 판명되지 않는다. 도리어 꿈의 위치 와 뜻에 관한 판단은 빈츠의 해명에서 철저하게 판명된다. "우리들이 본 바와 같이 모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꿈을 신체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또 어떤 때에는 바 로 병적 과정으로 규정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꿈에 관한 빈츠의 '신체적'이 란 표현은 아마 여러 방향을 말하는 것 같다. 이 말은 첫째 꿈 발생과 관련된다. 꿈 의 원인론은 빈츠가 특히 흥미를 가진 문제인데, 그는 독극물을 복용시켜 실험적 으로 꿈을 유발하는 것을 연구했다. 이것은 물론 이런 꿈 이론과 관련해서 꿈 자 극의 원천을 될 수 있는 대로 전적으로 신체적 측면에서 구하자는 생각이다. 극단 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우리들이 자극을 피해서 우리들을 잠의 상태에 옮겨 놓으면 아침까지 꿈꿀 필요가 없고 또 꿈꿀 까닭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침이 되면 점 차적인 각성은 새로 생긴 자극에 의해서 꿈의 여러 현상 속에 반영되나. 아무런 자 극 없이 잠잘 수는 없다.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가 생명의 싹을 탄식하 듯이 사방에서, 안에서나 밖에서, 아니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전연 마음에 두지 않았던 신체 부분에서 잠자는 사람에게 자극이 온다. 이렇게 마음은 방해되어서 어떤 때엔 이런 단서를, 또 다른 때엔 저런 단서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그 깬 한 부분이 잠깐 활동을 계속하다가 바로 잠에 빠진다. 꿈은 자극에서 일어난 잠을 방 해하는 데 대한 반응이다.

여하간 마음의 기관의 일임에 틀림없는 꿈을 신체적인 과정으로 보려는 생각에는 또 하나의 다른 뜻이 담겨 있다. 꿈을 심적인 과정으로 존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음악에 전연 통하지 않는 사람의 열 손가락이 피아노의 건반 위를 움직인다."라는 것과 같은 옛날부터 꿈을 평가하는 데 쓰인 비유는 꿈이 정밀과학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가장 많이 받아왔는가를 잘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이 견해에 의하면, 꿈이란 전적으로 그리고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음악을 모르는 사람의 열 손가락이 음악 한 곡을 연주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꿈이 부분적인 각성이라는 이론은 일찍이 반발에 부딪혔다. 부르다흐는 1830년에 "꿈은 부분적 각성이라고는 하나, 첫째로 이것으로 꿈의 설명이나 각성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둘째로 이것은 마음의 다른 힘이 쉬고 있는 동안에 약간의 힘이 꿈속에서 활동한다는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은 일생동안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꿈을 신체적 과정으로 보는 지배적인 꿈 이론의 뒤에 대단히 흥미로운 한 가지 꿈 해석이 따른다. 1886년에 로베르트(Robert)가 말한 의견은, 꿈에 하나의 유익한 결과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목을 끈다. 그는 관찰한 두 사실을 자신의 이론의 기초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들이 꿈 재료를 평가할 때에 언급한 것이다. 즉 낮 동안의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자주 꿈꾸면서도 낮 동안의 중대한 일에 대해 서는 거의 꿈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베르트는 사람이 충분히 생각한 일은 절대 로 꿈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고. 중도에서 그치거나 마음에 스쳐간 일만이 꿈의 원인이 된다는 견해가 옳다고 본다—"사람들이 대체로 꿈을 해명할 수 없는 까닭 은 그 꿈의 여러 원인이 '그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끝낸 전날의 감각 인상' 에 있기 때문이다." 한 인상이 꿈에 도달하는 조건은 이 인상이 자신의 공작 과정 에서 방해당하거나 또는 그 인상이 그런 공작 과정 도상에서 너무나 뜻 없는 것으 로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던 것 중의 어느 한쪽이다. 로베르트는 꿈을 "정신의 반응 현상에서 비로소 인식되는 하나의 신체적 분비 과정으로 본다. '꿈은 싹 속에 서 질식한 생각의 분비이다.' 꿈꿀 능력을 빼앗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미치광이가 될는지도 모른다. 그의 뇌 속에는 대량의 미완성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관념과 얕은 인상이 누적되어 그 무게 때문에 전체의 완성으로서 기억에 구성될 것이 질식하기 때문이다." 꿈은 짐을 지나치게 짊어진 뇌에 대하여 안전판의 역할을 다하다. "꿈 은 무거운 짐을 없애는 유익한 힘이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짐은 꿈속의 표상을 통해서 덜어지는가 하고 로베르트에게 묻는 것은 그를 오해한 것이다. 이 저자는 뚜렷이 위의 꿈 재료의 두 특색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즉 잠자는 중에 가치 없는 인상의 배설은 어떤 방법으로서 신체적 과정으로 행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꿈꾸는 것은 특별한 심적 과정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 배설 작업에서 받는 보고라는 것이다. 여하간 이 배설은 밤중에마음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로베르트 자신은 이에 덧붙여서 낮 사이 의 자극이 그 위에 한층 더 가공되어서 "소화되지 않은 채 정신 속에 남아 있는 관 념 소재에서 배설되지 않는 것은 '공상에 의거한 관념의 실마리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의 전체와 결합되어. 해롭지 않은 공상화로서 기억에 편입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베르트의 이론은 꿈 원천의 해석에 있어서 위의 지배적인 꿈 이론에 정 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위의 지배적 이론에 의하면, 만일에 안팎의 여러 자극이 마 음을 언제나 깨워 주지 않으면 사람은 꿈꾸는 일이 없게 되는데. 로베르트의 이론 에 의하면 꿈은 마음속에 마음이 떨어뜨리려는 짐을 지나치게 짊어지고 있는 데서 생긴다. 로베르트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즉 신체의 상황 속에 있 는 꿈을 만드는 여러 원인은. 깨었을 때의 의식에서 가져온 꿈 형성의 재료를 하나 도 갖지 않은 정신을 꿈꾸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물론 꿈에서의 마음의 깊이에 서 모습을 나타내는 공상 상(空想像)이 신경 자극의 영향을 받는 사실은 인정되어 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래서 로베르트에 의하면 꿈은 신체적인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물론 꿈은 마음의 사상이 아니고 깨었을 때의 마음의 여러 일 중에 자신이 거처할 곳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꿈은 마음의 움직임이란 장치에 의 해서 생기는 밤마다의 신체적 사상이고, 이 장치를 지나친 긴장에서 보호하는 역 할, 또 달리 표현한다면 마음을 씻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브 들라주(Yves Delage)는 꿈 재료의 선택에 뚜렷이 나타나는 꿈의 똑같은 여러 성격 위에 자신의 이론을 세웠다. 같은 사물을 취급하더라도 출발점에 조그만 편향만 있어도 결과적으로 어떤 다른 결론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려 주는 좋은 예가 들라주의 이론이다.

들라주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은 후, 하루 종일 머리를 점령한 것을 꿈꾸지 않고, 그것이 꿈에 나타날 때면 낮의 관심이 그 밖의 다른 것에 향하고 난 뒤라는 것을 체험했다. 그는 자기 이외의 사람을 조사한 결과, 이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알았다. 들라주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것으로 알려지면 오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젊은 부부의 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젊은 남녀는 서로 열렬히 사랑할 때, 결혼 전이나 밀월 중에는 거의 절대로 서로의 꿈을 꾸지 않는다. 그들이 해괴한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은 다른 관계없는, 또는 싫은 사람과 불의를 행

한 꿈이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는가? 들라주는 우리들의 꿈에 나오는 재료가 가까운 과거나 먼 옛날의 여러 신상의 단편이거나 나머지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꿈에 나타나는 일체를 꿈 생활의 창조로 우선 생각하고자 하나, 그것은 자세히 조사하면 인식되지 않았던 것의 재현, 무의식의 기억임이 판명된다. 그러나 이 관념 재료는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관념 재료는 우리들의 정신보다도 감각에 한층 더 강하게 준 여러 인상 혹은 그런 것이 나타난 바로 뒤에 주의가 그곳에서 딴곳으로 쏠린, 인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어떤 인상이 적게 의식되면 될수록, 그러나 그때에 그 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인상은 바로 꿈에서, 한 역할을 연출할 가능성이 짙어진다.

로베르트가 강조하듯이 본질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같은 두 개의 인상의 범주, 즉부차적인 인상과 끝이 나지 않은 인상이다. 그러나 들라주는 이 인상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사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계를 달리본다. 또 부차적인 인상들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 그 인상들은 성질상 잠자는 동안 이완하는 새로운 인상으로서 "그만큼 지나친 긴장된탄력"이다. 그리고 우연히 그 소화 과정에서 저지되거나 혹은 고의로 억압된 강렬한 인상은 미약한, 거의 돌보지 않는 인상보다도 더 여러 역할을 꿈에 연출할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낮 동안에 저지나 억압에 의하여 저장된 심적 에너지는 밤에 꿈의 원동력이 된다. 꿈에는 심적으로 억압된 것이 나타난다.<sup>22</sup>

유감스러우나 들라주의 생각은 여기서 끝난다. 그는 꿈에서의 독립적인 심적 활동에 극히 작은 역할 밖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이론은 여기서 다시 '뇌의 부분적 잠'이란 생각과 굳게 결부된다. "즉 꿈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생각의 산물이고, 그 생각은 여러 기억 위에 차례로 이어서 정착하나, 그런 기억은 그 생각의 길 위에 위치하고 생각의 진행을 저지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생각은 그런 기억의 상호간에 뇌의 현실적인 활동이 다소 잠에 의하여금지되는 정도에 따라, 혹은 약하고 애매한, 혹은 더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 안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는 이와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밤에 우리들이 꿈에 보는 것은 낮동안에 우리들이 등한시한 것의 뚜렷한 잔재이다. 꿈은 종종 경멸된 사실의 복수이고 포기된 사람들의 소리이다((빨간 백합화))."

어 낸다."

(3) 다음과 같은 꿈의 여러 이론을 셋째 그룹으로 규합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마음이 깨었을 때에 불완전한 방법으로 성취하는, 또는 아주 성취하지 않는 특별한 마음의 활동과 능력과 경향을 꿈꾸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꿈의 유익한 기능은 대체로 이런 여러 능력의 실행에서 생긴다. 옛 심리학자 사이에서 꿈에 주어진 가치 평가는 이 계통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그 여러 의견을 소개하는 대신에 부르다흐의 소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꿈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이것은 개성의 힘에 의하여 제한되지도 않으며 자의식에 의해서도 방해되지 않고 자기규정에 의해서도 조절됨이 없이 감각의 중심점의 자유로운 유희 속에 나타나는 생명성이다."

부르다흐와 그 밖의 연구자들은, 마음이 자신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동하는 것을, 마음이 보양(保養)하고 낮일을 위해 새로운 힘을 저장하는 상태, 즉 뚜렷하게 일종의 휴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또 부르다흐는 시인 노발리스(Novalis)가 꿈을 찬양한 부드러운 말을 인용하면서 긍정한다. "꿈은 낮의 인생의 규칙과 평범에 대하여 건축된 보루(保壘)이고, 묶인 공상의 자유로운 휴식이다. 꿈에서 공상은 인생의 모든 형상을 뒤섞고 만다.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의 끊임없는 진실성은 유쾌한 어린이의 유희에 의하여 중절된다. 꿈꾸는 일이 없다면 확실히 우리들은 틀림없이 빨리 늙는다. 그러므로 꿈이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중한 과제로서 묘혈(墓穴)로 향한 순례에서의 부드러운 반려(伴侶)로 볼 수 있다."

푸르키니에(J. E. Purkinje)는 한층 더 뚜렷하게 마음을 상쾌히 하고 원기를 북돋아 주는 꿈의 활동을 서술하였다. "특히 생산적인 꿈은 이런 활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낮에 일어난 일과 관계없는 상상의 가벼운 희롱이다. 마음은 깨어 있는 때의 생활에서 긴장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 주고 긴장에서 벗어나려 한다. 마음은 우선 깨었을 때의 긴장에 반대되는 상태를 만들어 낸다. 마음은 비애를 기쁨으로, 우울을 소망과 명랑으로, 증오를 사랑과 애정으로, 두려움을 용기와 신뢰로 치유한다. 의심은 확신과 견고한 신념에 의해 유화(柔和)되고

무익한 기대는 충족에 의해 유화된다. 낮 동안에 다친 일이 없는 여러 개의 상처도 잠은 덮어 두고 새로운 자극에서 보호한다. 시간의 괴로움을 없애는 활동은 부분적으로 이에 의존한다." 우리들은 누구나 잠이 마음 생활에게 은혜가 됨을 느낀다. 그리고 민중들 역시 막연하게나마 잠이 은혜를 선사하는 길의 하나가 꿈이라는 선입견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잠 상태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활동하는 마음의 특수한 활동에 관한 꿈의 설명 중, 가장 독창적이고 광범한 연구는 셰르너(1861년)가 한 것이다. 그의 저서는 담담하고 과장된 문제와, 매혹을 느끼지 않으면 반감을 일으키며 대상에 대한 거의 도취적인 감정을 가지고 쓰고 있어서 분석하기에 참으로 곤란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히려 셰르너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철학자 폴켈트의 명석하고 간결한 서술에 따르려고 한다. "실제로 신비적인 압축, 화려하고 빛나는 파도 속에서 뜻깊은 것의 예감에 가득 찬 빛이 빛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 이 철학자의 길은 밝아지지 않는다." 셰르너의 서술은 그의 지지자 사이에서마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세르너는 마음의 그 모든 능력이 그대로 꿈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아니다. 그는 꿈에서 어떻게 자기의 중심성이나 자발적 에너지가 무력화하는가, 또 이 산만화(散漫化)에서 어떻게 인식력(認識力)·감수력(感受力)·의지력·표상력(表象力)이 변화하는가, 또 어떻게 이 마음의 모든 힘의 잠재물에 참다운 정신성을 지니지 못하고 하나의 메커니즘의 성질만 지니게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꿈에서는 공상(空想)이라고 불릴 마음의 활동이 일체의 오성(悟性)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고, 따라서 또 엄격한 척도를 벗어나서 제한 없는 지배권을 장악한다. 물론 그 마음의 작용은 깨었을 때에 만들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건물을 건축한다. 그 마음의 작용은 다만 재생산적일 뿐 아니라, 또 생산적이다. 그런 마음의 작용의 여러 특성은 꿈 생활에 그것의 특수한 성격을 부여한다. 그 마음의 작용은 '헤아릴 수 없는 것, 과대한 것, 거대한 것'을 특히 즐긴다. 동시에 그것은 방해적인 사고 범주의 속박을 떠나서 깨었을 때에 있어서의 보다큰 유연성과 민속성(歐速性)과 표현욕을 획득한다. 또 정서의 미묘한 감정 자극이나 열렬한 감정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고, 내면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외적, 입

체적으로 생생하게 구상(具象)한다. 꿈의 공상은 개념의 말을 갖지 않는다. 꿈의 공상은 말하려는 것을 구상적인 것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개념에 방해된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꿈의 공상은 그 말하려는 것을 직관(直觀) 형식이 허용하는 한 생각대로 자유롭게 묘사한다. 따라서 꿈의 말은 분명하나, 과장되고 애매하고 대중이 없다. 특히 꿈의 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꿈의 공상이 어떤 일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를 싫어하고,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의 어떤 요소를 어떤 형상이 표현할 수 있는 한에서 도리어 즐겁게 그 형상—그 아주 다른 형상을 선택하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상의 상징 활동이다…….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은 꿈의 공상이 대상을 전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다만 그 윤곽을, 더욱이 이 윤곽을 자유롭게 묘사한다. 그러기에 꿈의 그림은 천재가 단숨에 묘사한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꿈의 공상은 단지 사물을 그곳에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적으로 부득이 꿈의 자아를 다소 대상과 결부시켜 하나의 연극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 예컨대 시각 자극에 의하여 생기는 꿈은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묘사한다. 꿈꾸는 본인은 그 흩어진 돈을 주워 모으고 기뻐하면서 돈을 주워 가져갈 수 있다.

꿈의 공상이 그 공작의 예술적 활동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셰르너에 의하면 전적으로 낮 사이에 뚜렷하지 않았던 기관적 자극이고, 그 결과 꿈 원천과 꿈 자극체의 가설에서 셰르너의 너무도 공상적인 이론과 분트와 그 밖의 서로 반대자의 위치에 있는 생리학적 이론에 따르면 마음이 내적 신체에 자극하는 반응은 그 자극에 알 맞은 어떤 관념의 환기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더욱이 다음에는 이 관념은 연상에 의하여 몇 가지 다른 관념에 도움을 청하며, 이 단계에서 꿈의 심적 과정 추구는 일견 끝난 듯하다. 셰르너에 의하면 신체 자극은 마음이 자신의 공상적 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마음에 주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셰르너는 꿈 형상의 형성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물론 꿈 공상이 신체 자극에 착수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공상은 신체 자극을 희롱하고, 그 꿈에서 그 자극이 일어나는 기관 원천을 어떤 조 소(彫塑)적인 상징화 속에 표상한다. (아니 여기서 폴켈트와 그 밖의 논자는 셰르 너와 이별하나) 꿈 공상은 인간의 신체 전체에 대하여 마음에 든 어떤 일정한 표현 방법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마음에 든 표현 방법이란 가옥(家屋)이다. 그러나 꿈 공상은 다행히 그 표현에서 이 재료에만 매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공상은 또 반대로 각 기관을 표시하기 위해서 많은 집들을, 예컨대 내장 자극에 대한대단히 긴 길(路)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 그 집의 각 부분은 실제로 개개의 신체 부분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두통의 꿈에서는 방의 천정이 머리로 표현된다. 이 천정을 꿈꾸는 사람은 욕지기나게 하는 개구리 같은 거미로 덮여진 것으로 본다.

집의 상징을 떠나서 다른 대상들도 꿈을 자극시키는 신체의 각 부분을 표현하는 데에 이용된다. "그리하여 호흡하는 폐장(肺臟)은 공기 같은 아지랑이로 불꽃이 타오르는 아궁이로 상징되고, 심장은 속이 빈 작은 상자나 바구니로 상징되고, 방광은 둥근 부대나 옴팍하게 패인 물건으로 상징된다. 남자의 성욕 자극은 클라리넷의 앞부분이나 담뱃대나, 길 위에 떨어진 모피의 꿈이 된다. 클라리넷·담뱃대는 남근(男根)과 비슷한 모양을, 모피는 음모(陰毛)를 표현한다. 여자의 성욕 자극의꿈에서는, 꼭 맞댄 넓적다리의 사이는 집에 둘러싸인 좁은 안마당으로, 질(燈)은집의 정원 복판으로 통하는 연하고 미끈미끈한 대단히 좁은 길로 생각된다. 그리고 꿈꾸는 여성은 예컨대 한 통의 편지를 신사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꿈을 꾼다(폴켈트)." 어떤 신체 자극에서 생긴 꿈의 끝에서는, 꿈 공상은 흥분하고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의 기능을 뚜렷이 표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가면을 벗어 버리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치통의 원인으로 생긴 꿈은 흔히 그 당사자가 입에서 이 하나를 뽑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러나 꿈 공상은 단지 흥분하고 있는 기관의 모양에만 주의하지 않고, 그 기관에 포함된 실체를 상징화의 대상으로도 삼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장 자극의 꿈은 자신을 오물이 가득 떨어져 있는 길로, 방광 자극의 꿈은 거품이 일어나는 물로 표현된다. 혹은 또 꿈속의 자기는 자신의 상태를 상징화하고 구체적으로 결합하거나 (예, 우리들이 고통의 자극을 받을 때 이빨을 내어 보이는 개나 미친 소와 격투하는 꿈을 꾸는 따위) 혹은 또 성욕을 꿈꾸는 여자는 벗은 남자에게 쫓기거나 한다.

세세한 부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도외시하면 이렇게 만사를 상징하는 공상의 작용은 언제나 모든 꿈의 중심적인 힘이다. 그리고 폴켈트는 그 훌륭하고도 간결한 책 속에서 이런 공상의 성격을 더 면밀하게 규정하고 다 알고 있는 마음의 활동을 철학적 사상의 한 체계 내부에 넣으려고 한다. 이 책은 일찍이 철학적 개념 도식을 예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알기 어려운 것이다.

셰르너의 상징화의 공상 작용에는 꿈의 유익한 한 기능이 결부되어 있지 않다. 마음은 꿈꾸면서 마음에 제공된 자극들과 함께 희롱한다. 그것이 무례한 놀음이 란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내가 그 자의성과 모든 연구의 경과에서 의 이탈이 지나치게 눈에 띈다고 생각되는 셰르너의 꿈 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그것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고 독자는 추측함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셰르너 설(說)이 오만하다고 하여 모든 검토에서 배제하는 일은 거절해야 한다고 이곳에서 밝혀야겠다. 셰르너 설은 애매한 심중의 일을 느 끼는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특히 깊이 조심하여 관찰한 사람이 꿈에 서 얻은 인상 위에 수립된 이론이다. 또 이 이론이 취급하고 있는 문제는 인간이 몇 천 년 동안 수수께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곳에 어떤 깊은 뜻이 감추어져 있으 리라고 생각되어 온 문제이다. 또 과학 자체가 고백하듯이. 엄격한 과학이라 하여 도 일반적인 느낌과는 정반대로 꿈이란 문제의 대상에 내용과 뜻의 깊이를 거부하 려는 이외에는 그 해명에 아무런 이바지도 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끝으로 우리들 은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여 두자. 즉 우리들은 꿈을 해명함에 있어서 공상을 작용 시켜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듯하다고. 또 신경절 세포의 공상이란 것이 있다. 앞 에서 인용한 빈츠와 같이, 냉정하고 정밀한 연구자의 의견, 즉 새벽의 여신이 잠들 고 있는 뇌 피질 위에 달려드는 것을 서술한 그 한 곳과 같은 것은, 공상성이나 그 불확실한 면에서 보아 결코 셰르너의 꿈 해석의 시도를 넘지 못한다. 꿈을 해석하 려는 셰르너의 시도의 배후에는 어떤 현실적인 것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 을 고사하고 희미하게 인식되고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꿈에 관한 한 이론이 요구 하는 보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현재에 있어서 나는 셰르너의 꿈 이 론은, 그 이론과 대립되는 의학적 꿈 이론과 함께 오늘날의 꿈 이론이 아직 불안정 하게 동요하고 있는 두 극한을 우리들에게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 8. 꿈과 정신병과의 여러 관계

꿈의 정신 장해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사람은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로 예컨대 어떤 꿈이 어떤 정신병학적 상태를 대표하거나, 그 서론이 되거나, 혹은 그 상태의 경과 후에 남아 있는 경우의 병원학적 및 치료학적 관계, 둘째 정신병의 경우에 꿈 생활이 입는 여러 변화, 셋째로 꿈과 정신병 사이에 있는 내적 여러 관계, 본질적 근친성의 유비(類比) 관계, 두 계열의 현상 사이에 있는 여러 관계는 옛 의학에서—그리고 현대에서는 또 새롭게—슈피타나 라데슈토크나 모리나 티시에 등의 저서에 수집된 이 문제에 관한 문헌이 가르쳐 주듯이 의사들이 선호하는 주제이고, 최근에는 산테 데 상티스(Sante de Sanctis)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23 우리들의 설명은 이 중요한 문제에 일별(一瞥)하는 데에 흥미를 가지고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나는 꿈과 정신병과의 치료학적 · 병원학적 여러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관찰을 모범 실례로 보고 하려고 한다. 크라우스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혼바움(C. Hohnbaum)은 정신 착란의 첫 증세가 불안한 무서운 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고, 정신 착란의 우세한 관념이 이 꿈과 결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산테 데 상티스는 편집증 환자들에게서 똑같은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그 개개의 관찰에서 어떤 꿈은 '광기를 결정하는 참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신 착란은 정신 착란적 해명을 포함하는 유력한 꿈과 함께 나타나거나 또 의심에 대하여 투쟁하는 몇 개의 꿈을 통해서 점차로 나타나거나 한다. 데 상티스가 관찰한 사례에서는 어 23 이러한 여러 관계를 취급한 최근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페레(C. Feré), 이텔러(K. W. Ideler), 라 제그(C. Lasègue), 파송(A. E. Pichon), 레지(E. Régis), 베스파(B. Vespa), 기슬러(C. M. Giessler), 카조프스키(A, D. Kazoowsky), 파하토니(D. Pachantoni) 등.

떤 압도적인 꿈에 가벼운 히스테리적 발작이 계속되고 거기에서 불안한 우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페레(티시에에 의함)는 히스테리적 마비의 결과가되는 꿈에 관해서 보고한다. 이 예들에서 꿈은 정신 장해의 병원(病源)으로 생각되지만, 정신 장해가 꿈 생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꿈에서 처음으로 발현되었다고말해도 사실에 부합한다고할 수 있다. 다른 여러 예에서 꿈 생활은 병 증세를 포함하고 있다. 혹은 정신병은 꿈 생활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토마이어(S. Thomayer)는 전간성(癲癎性) 발작의 등가물로 해석되어야 하는 '불안한 꿈'에 주목했다. 앨리슨(A. Allison)은 환자가 낮 사이에 일견 아주 건강하나, 밤에 반드시환각이나 조광(燥狂)의 발작을 일으키는 야간 정신병에 대해서 보고했다(라데슈토크에 의함). 상티스에게도 비슷한 보고가 있다(알코올 중독자에 있는 편집증적 꿈등가물, 아내에게 불의를 책하는 소리). 티시에는 새로운 곳에서 병적 성격의 행위 (망상 전제(妄想前提)나 강박 충격(强迫衝擊))가 꿈에서 생기는 것을 많이 보고했다. 기슬랭(J. Guislain)은 간헐적 발광이 잠을 대신하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장래에 꿈 심리학과 함께 꿈 심리병학이 의사들의 연구 과제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깨어 있을 때에 건전한 기능 하에 있으면서도 꿈 생활은 정신병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뚜렷이 관찰된다. 그레고리(Gregory)가 처음으로 이에 주목한 것 같다(크라우스에 의함). 마카리오(M. M. A. Macario)(티시에에 의함)는 완전히 치유된 지 일주일 만에 꿈에서 관념 도피와 전의 격렬한 병 증세를 다시 경험한 광포한 정신병 화자에 관해서 보고했다.

꿈이 장기간의 정신병자에게서 입는 여러 변화에 관해서 이때까지 연구된 바가 대단히 적다. 이에 반해서 여러 현상의 긴밀한 일치에서 간취(看取)되는 꿈과 정신장해와의 내적 친근성은 예로부터 주목되어 왔다. 모리에 의하면, 최초로 이 내적친근성에 주목한 것은 카바니스(P. J. G. Cabanis)의 《신체와 정신에 관한 보고》이고, 뒤를 이어서 렐뤼(L. F. Lélut) · 모로(J. Moreau)가 있고, 특히 이 문제를열심히 취급한 이는 멘 드 비랑(M. F. P. Maine de Biran)이다. 확실히 양자의 비교 고찰은 그것보다 훨씬 일찍이 행하여졌다. 라데슈토크는 이 문제를 취급한 한

장(章)에서 꿈과 발광의 유사점을 비교한 여러 의견을 소개했다. 칸트는 어떤 저서에서 "미치광이는 눈을 뜬 채 꿈꾸는 인간이다."라고 말했고, 크라우스는 "광기는 감각이 깬 상태 안의 꿈이다."라고 말했다. 쇼펜하우어는 꿈은 짧은 시간의 광기라고 했으며, 광기는 긴 꿈이라고 불렀다. 하겐(F. W. Hagen)은 섬망(譫妄)을 잠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환에 의해서 일어난 꿈의 영위(營爲)라고 말했고, 분트는 《생리학적 심리학》에서 "실제로 우리들은 꿈에서 우리들이 정신 병원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현상을 스스로 친히 체험하여 볼 수 있다."라고 기록했다.

슈피타는 우리들로 하여금 양자를 동일시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 있는 개개의 일치를 다음 순서로 열거한다. "(1) 자기의식의 소멸 또는 자기의식의 둔화, 따라서 그런 상태 자체에 관한 무지, 즉 놀랄 수가 없다는 것, 도덕적 의식의 결여. (2) 꿈에서는 미약해지고 또 광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높여진 감각의 여러 기관의 변화된 지각. (3) 단지 연상 법칙이나 재현 법칙에 의한 관념 상호(相互)의 결합, 따라서 자동적 관념 계열의 형성, 그러므로(과장·환각 등의) 여러 관념 사이에 있는 관계의 불균형. (4) 위의 모든 결과로서의 인격이나 때로는 여러 성격의 특성의 변화 내지 역전."

라데슈토크는 이에 약간의 특징, 재료에서 보이는 대비 관계를 덧붙였다. "가장 많은 착각이나 환각이 발견되는 것은 시각·청각·신체 감각의 영역이다. 후각이나 미각은 꿈에서와 같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열병 환자는 헛소리에 (꿈꾸는 사람과 같이) 아주 옛일을 말한다. 깨어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잊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을 병자나 잠자는 사람은 생각한다."—꿈과 정신병과의 유사는 일족(一族)의 사람처럼 섬세한 움직임이나 하나하나의 눈에 띈 특징에까지 언급됨으로써 비로소 그 완전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꿈은 육체나 정신 질환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현실이 거부한 것을 주는 부유한 행복이다. 그러므로 정신병자에게서도 행복·위대·부유·숭고의 가벼운 환상이 나타난다. 부자로 생각하거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궤멸(潰滅)되어서 미쳐버린 바,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섬망(譫妄)의 내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여인은 어머니로서의 기쁨을 표현하는 헛소리를

하고, 재산을 잃은 사람은 자신을 굉장한 부자로 생각하며, 남자에게 속은 소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데슈토크의 이 부분은 그리징어(W. Griesinger)의 진지한 논의의 요약이고, 그리징어의 이론은 대단히 명쾌하게 소망 충족을 꿈과 정신병에 공통된 표상의 성격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나는 내 스스로의 연구에 의해서, 여기에 꿈과 정신병과의심리학적 이론의 열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혼란한 사상 결합과 판단력의 약화는 꿈과 발광을 전적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냉정한 두뇌에서 보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자기의 정신적 여러 능력의 '과대 평가'가 정신병에서나 꿈에서나 발견된다. 꿈의 신속한 관념 교대(交代)에 일치하는 것이 정신병의 관념 도피이다. 자신이 두 개의 인격으로 분열하여 꿈에서 다른 사람의 '자신'이 자신의 '자신'을 정정하는 따위의 꿈에서의 '인격 분열'은 '환각적 편집증'에서의 주지의 인격 분열과 아주 성격이 일치한다. 꿈꾸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듣는다. 끊임없는 망상조차도 같은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병적 꿈(귀찮게 따르는 꿈)과 유사하다. 섬망에서 치유된 환자는 곧잘 자신이 앓는 동안에 꿈꾼 기분이었다고 고백한다. 또 보통 잠자는 중에 꿈에서 그러하듯이, 꿈을 꾸듯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라데슈토크는 자신이나 다른 연구가의 소견을 요약하여 "발광, 즉 이상 한 병적 현상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정상적인 꿈 상태로 간주된다."라고 말하 나, 이 말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크라우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현상의 유사점에 근거하기보다 더욱 밀접하게 꿈과 광기의 친근성을 그 병원을(차라리 자극원이라 할) 통해 꿈과 광기의 유사성을 규명하려 했다. 그에 의하면 양자에 공통된 근본 요소는 이미 말한 대로기관에 의해 야기된 감각, 신체 자극, 모든 신체 기관에서 온 일반 감정(모리의 52면에 인용된 페스(L. Peisse)를 참조)이다.

꿈과 정신 장해와의 의심할 바 없는 일치는 꿈 생활을 파악하는 의학적 이론의 가장 강력한 거점이 되어 있다. 이 의학적 이론에 따르면 꿈은 무익한 방해적인 과정으로서, 또 저하된 심적 작용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꿈에 대한 궁극적인 해

명은 정신 장해의 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 정신 장해 자체가 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형편이므로 아마 꿈에 관한 다른 생각은 정신 장해의 내적 메커니즘에 관한 우리들의 의견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이 꿈의 비밀에 다가서려 노력할 때에, 비로소 동시에 정신병의 해명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말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 보충(1909년)

내가 꿈 무제의 무헌을 이 서적의 초판에서 제2판까지의 기간 이상에 걸쳐서 취급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해명이 필요하리라. 이 해명은 아마 독자들에게 만족을 주 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해명하여 둘 수밖에 없다. 내가 무헌에 나타난 꿈 연구를 소개하게 된 까닭은. 이 책의 서두에서 밝힌 대로이고. 또 이 문헌 소개를 계속하는 일은 나에게는 큰 수고였고 수고한 만큼 얻는 바가 있 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의 9년이란 기간 동안, 실제로 새로 운 재료의 관점에서 보거나 꿈 해석상으로 보거나. 새롭거나 가치 있는 변화가 아 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연구는 이후 나온 출판물에서 묵살되거나 무시되 었다. 학자들의 특유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꺼려하는 훌륭한 실례를 표시 한 소위 '꿈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나의 설(說)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다. 아나톨 프랑스는 '학자는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고 조소한다. 학문에 복수란 것이 있어도 좋다면, 나의 편에서도 이 책의 초판 이래 세상에 나온 문헌을 무시해 도 무방할 것이다. 학술 잡지에 게재된 조그마한 비평을 보아도 나의 설에 대한 몸 이해와 오해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비평가에게 다시 한 번 이 책을 읽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번 다시 읽게."라고. 정신 분석학 치료 수단의 적용을 결심한 의사들이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연구 는 풍부한 꿈의 실례를 보고하고 나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해명하고 있다. 이 여 러 연구가 내가 제기한 설(說)을 확신하고 있는 한, 나는 이 연구의 결론을 나의 서 술 중에 넣었다. 권말의 제2에서 본서 초판 이후 가장 중요한 꿈 문헌을 기록했다. 간행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어 역으로 출판된 산테 데 상티스의 내용이 풍부한 꿈 연구 서적은, 그 출판이 나의 《꿈의 해석》과 때를 같이 하였기에 이것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의 근면한 노작(勞作)도 내용적으로 대단히 빈약해서 독자들은 거기에서 내가 취급한 여러 문제의 가능성조차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언급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꿈 문제를 다룬 방법과 아주 가까운 책 이 두 권 있다. 젊은 철학자 헤르만 스보보다(Hermann Swoboda)는 빌헬름 플리 스(Wilhelm Fließ)가 처음 발견한 생물학적 주기성(23일 및 28일을 일주기로 한 다)의 생각을 심적 사상에까지 미쳐서 한 권의 공상적 서적 속에서 이것을 열쇠로 특히 꿈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다. 4 이곳에서는 꿈의 뜻이 그다지 고려되지 않은 감이 있다. 그에 의하면 꿈의 내용 재료는 생리학적 주기의 하나를 완성하는 꿈꾼 날 밤에 비로소 모든 기억의 합치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개인적 인 의견을 보고도 나는 처음 저자 자신이 이 설을 진지하게 주장하고자 하지 않는 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나의 추정은 잘못된 듯하다. 나는 다른 곳에서 스보보 다의 소견에 대한 약간의 관찰을 보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보다 기뻤던 것은 나 의 설의 핵심과 완전히 일치하는 꿈 해석을 의외의 곳에서 찾은 일이다. 시간상으 로 볼 때, 그 의견이 나의 책을 읽음으로써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 진 것으로 도저 히 생각되지 않으므로, 나는 독립적 사상가와 내 꿈 이론의 본질의 일치가 문헌적 으로 실증되는 것으로 여겨 기뻐하였다. 내가 주목한 그 꿈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책은 1900년(제2판) 《어떤 현실주의자의 공상》이란 표제로 링코이스(J. Popper-Lvnkeus)에 의해서 공간(公刊)되었다.

<sup>24</sup> 스보보다, 《인체의 주기》 1904년.

## 보충(1914년)

이상은 1909년에 쓴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사정은 달라졌다. 나의 《꿈의 해석》은 문헌상 이미 무시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정세는 이제야말로 나로 하여 금 위에 기록한 보고를 더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꿈의 해석》이 제출한 많은 새로운 주장이나 문제는 이제 많은 연구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연구가들에게서 문제시된 나 자신의 여러 견해를 다 피력하기 전에는 그 여러 연구를 소개·논평할 수 없으므로 나는 최근의 문헌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뒤의 나의 논의들과 관련하여 논하여 두었다.



꿈 해석의 방법-꿈 표본의 분석

# 제 2 장

꿈 해석의 방법—꿈 표본의 분석

내가 이 장(章)에 붙인 표제는 꿈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전통을 따르려는지 알려줄 것이다. 나는 꿈이 해명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결심이다. 앞 에서 언급한 꿈이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이는 나에게는 다 만 나의 본래의 과제를 해결할 때에 얻어진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나는 바로 지배적 꿈 이론, 아니 셰르너 설(說)을 제외하고 모 든 꿈 이론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한다'함은 꿈에 '뜻'을 부여함을 뜻하고, 우리들의 여러 심적 행위의 연쇄(連鎖)를 통해 동일한 자격의 어 떤 것으로 꿈을 대체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학문적 인 꿈 이론은 꿈 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빈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학문적 이 론에 있어 꿈은 어떤 심적 행위가 아니며, 어떤 방법을 써서 마음의 장치에 자신 을 알리는 하나의 신체적 과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예 부터 다르게 생각했다. 그들의 생각은 사물을 학문과 같이 엄격히 취하지 않는 훌 륭한 권리를 즐기면서, 꿈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들은 꿈에 아무 뜻도 없다고는 단언하지 않았다. 그들이 승인하는 의견에 의하면. 어떤 희미한 예감에 끌리어. 꿈은 분명하진 않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다른 사고 과정을 대신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 대 용물(代用物)을 찾고 꿈의 감추어진 뜻을 찾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다.

예부터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려고 애썼다. 그때 성격이 아주 다른 두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째 방법은 이렇다. 꿈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다른보다 알기 쉬운,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그와 비슷한 내용과 바꾸어 본다는 것이다. 상징적 꿈 해석이다. 물론 이 방법은 이유를 모를 뿐 아니라, 내용이 혼잡한 꿈 앞에서는 애당초 소용이 없게 된다. 예컨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파라오의 꿈에 준 설명이다. 살찐 7마리의 소에게 마른 소 7마리가 와서 살찐 소를 먹어 버린다. 이것은 애굽에서 7년 동안 해마다 만들어 낸 풍성한 물자를 7년간의 기근이 와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서 다 먹어 버린다는 예언의 상징적 대용물이다. 시인들이 그리는 인공적인 꿈의 대다수는 이런 상징적 해석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꿈은 시인의 사상을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꿈의 여러 성격에 알맞게 분장해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꿈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어서 전적으로 미래의 일과관계한다는 의견—전에 꿈이 승인받은 예언적 의미의 잔재—은 상징적 해석에 의하여 발견된 꿈의 뜻을 '무엇 무엇이 되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의 것으로 옮겨놓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상징적 해석의 길이 어떻게 발견되느냐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시사(示唆)가 없다. 성공 여부는 슬기로운 묘안, 돌발적인 직관에 있으며, 따라서 상징에 의한 꿈 해석은 특수한 재능 없이는 할 수 없는 듯 보이는 하나의 기술ㆍ기예(技藝)와 같은 것이다.² 또 다른 옛적에 흔히 쓰인 꿈 해석은 그다지 힘든 것은 아니었다. 그 방법은 '해독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즉 꿈을 일종의 암호문과 같이 본다. 정해 진 해독의 열쇠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 꿈의 암호는 무난히 풀려서 진정한 뜻이 알려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편지나 장례식의 꿈을 꾼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열쇠가 쓰여 있는 '꿈 해석' 책을 뒤진다. '편지(Brief)'는 '성가신 사건 (Verdruß)', '장례식(Leichenbegängnis)'은 '약혼(Verlobung)'이라는 답이 나오는 따위이다. 이런 해답에서 하나의 관련, 더욱이 미래에 관한 어떤 사건을 조립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 해독법이 가진 순기계적인 번역의 성격을 조금 완화ㆍ수정 하는, 말하자면 개정 해독법이란 재미있는 것이 있다. 달디스(Daltis)의 아르테미도로스(Artemidoros)³의 꿈 해석의 저서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꿈

- 1 시인 빌헬름 옌젠(Wilhelm Jensen)의 소설 《그라디바(Gradiva)》에서 나는 우연히 많은 허구의 꿈을 발견하였다. 이것들은 마치 참된 꿈과 같이 묘사되고 참된 꿈과 같이 해석된다. 시인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람이 꾼 꿈과 같이 그려져 있다. 이 시인은 처음부터 나의 꿈에 관한 이론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나는 나의 연구와 시인의 창작과의 우연한 일치를 나의 꿈 분석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로 삼았다(빌헬름 옌젠의 《그라디바》속의 '망상과 꿈', 나의 간행물 《응용 심리학 논고》 제1권 1906년, 제2판 1912년).
- 2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최고의 꿈 해석가는 비슷한 점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꿈에 나오는 여러 가지는 물에 비친 물건의 모습과 같이 움직임에 따라서 일그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그러진 것 속에서 참된 것을 가려 내는 사람은 가장 올바르게 꿈을 해석할 수 있다(뷕센쉬츠).
- 3 아마 2세기 초엽에 탄생했으리라고 믿어지는 달디스 출신 아르테미도로스는 희랍·로마의 세계에

내용 뿐 아니라 꿈을 보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생활 정신을 고려한다. 그래서 꿈에서 본 것이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부자ㆍ기혼자ㆍ웅변가에 대하여 가지는 뜻 과, 가난한 사람ㆍ미혼자, 그리고 상인에 대해 가지는 뜻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 꿈의 전체 위에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꿈이란 그 속에서 어떤 돌멩이도 하나의 특별한 뜻을 바라는 역석(礫石)인 것과 같이 꿈 내용의 하나하나가 해석된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확실히 지리멸렬하고 혼란한 꿈들의 존재에서부터 해독법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4

서 가장 완전하고도 자세히 꿈 해석의 모습을 후세에 전한 사람이다. 테오도르 곰페르츠(Theodor Gomperz)가 강조하듯이 그는 꿈 점(占)을 관찰과 경험에 의거할 것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꿈 해석을 다른 사기적인 것과 엄격히 구별하였다. 그의 꿈 해석 원리는 곰페르츠에 의하면 마술과 같은 연상 원 리에 있다. 꿈에 나오는 것들은 기억한 것이다. 그것은 꿈 해석자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꿈에 나오는 것은 해석자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고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천차만별하기 에 거기에 제멋대로의, 그리고 확실치 않은 것이 생긴다. 내가 아래에서 취하는 방법은 옛날의 방법 과는 다음의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즉 나의 방법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꿈의 내용을 듣 고 생각해 내는 것을 무시한다. 거꾸로 그 꿈을 꾼 사람이 스스로 꿈의 내용에서 생각하는 것을 중요 시한다. 선교사 트핑크디(Tfinkdjit)(《메소포타미아의 꿈과 꿈의 해석》 1913년)의 새로운 보고에 의하 면 동양의 최근의 못점사(夢上師)도 꿈을 꾼 사람의 협력을 크게 요구한다고 한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Mesopotamia)의 아랍 사람들의 몽점사를 이렇게 보고한다. "훌륭한 몽점사는 꿈을 올바르게 판단하 고 해석하기 위해서, 훌륭한 설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상대편으로부터 듣는다. 요컨대 이 몽점사는 모든 사정을 상대방에서 찾고, 듣고 싶은 것을 모두 들은 뒤에 요구된 판단을 내린다." 이런 질문 속에는 (부모·아내·아이들 등의) 가족에 관한 자세한 테마나 "어젯밤 자기 전에나 오늘 아침에 동침하였는가?"란 전형적인 질문이 반드시 있다—"꿈 점에서의 주요한 관념은 꿈을 그 반대로 설명하는 일이다."

4 알프레트 로비체크(Alfred Robitsek) 박사는 우리들의 빈약한 모방인 동양의 꿈 책이 꿈을 대체로 말의 음(審)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따라서 해석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런 유사성은 유럽 언어로 번역하면 그 뜻을 잃을 수밖에 없으므로, 유럽의 통속적인 몽점(夢占)의 번역책의 몰이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 —고대 동양 문화권의 언어의 익살이나 희롱을 알려는 사람은 후고 빙클러(Hugo Winckler)의 서적을 조사하면 좋을 것이다. 옛적부터 전해오는 꿈 점의 훌륭한 한실례는 언어의 익살에서 기인한다. 아르테미도로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탄드로스 (Aristander)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준 몽점은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나에게는 생각된다.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티로스(Tyros)를 포위하고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있을 때에 자기의 방패 위에서 사티로스(Satyros) 신(神)이 춤추는 꿈을 꾸었다. 아리스탄드로스는 사티로스라는 말을 '사(sa)'와 '티로스(tyros)'로 분해하여서 왕을 움직여 포위 공격을 강화시키는 데에 성공하고 드디어는 이 도시를 함락시켰다." (사 티로스(sa tyros)는 '티로스는 너의 것이다.'라는 뜻)—여하튼 꿈이란 언어 표현에 대단히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으므로 페렌치가 "어느 나라의 말에도 그 고유한 꿈의 언어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연구 주제를 학문적으로 취급함에 있어서 꿈의 위의 두 평범한 해독법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상징적 방법은 그 적용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해독법에서는 무엇보다 '열쇠', 즉 꿈 책이 신용할 만하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증은 전혀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철학자나 정신병 의사에게 찬성하여 그들과 함께 꿈 해석의 문제를 하나의 상상적 문제로 묵살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5

그러나 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여기서 다시 오랜 역사를 지니고 고집스럽게 유지되어 온 민간의 신앙이 오늘날 세상에서 통용되는 학문보다도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그 드물지 않은 사례들이 앞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만 했다. 나는 꿈이 실제로 뜻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꿈 해석의 학문적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방법의 존재를 다음 방법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몇 해 동안 나는 치료학의 견지에서 약간의 정신 병리학적 형성물, 즉 히스테리성 공포증·강박 관념 등의 해명에 종사하였다. 즉 요제프 브로이어(Josef Breuer)의 중요한 한 보고에 의하여 병 증세로 느껴지는 이 형성물을 해소시키는 일과, 실제로 해소하는 일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병적 표상이 환자의 정신생활 속에서 나온 여러 요소에로 환원되면 이 표상은 소멸하고 환자는 그 표상에서 해방된다. 우리들의 모든 치료학적 노력은 일반적으로 무력하고 정신병적 여러 상태는 여러 수수께 끼에 싸여 있기 때문에 나는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브로이어가 걷기 시작한 길을사태가 밝혀질 때까지 어디까지나 걸어 볼 생각이었다. 이 방법의 기술은 결국 어디에 낙착(落着)하였으며, 이 노력의 성과는 어땠는가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상

가 있다."라고 한 것은 옳다. 꿈은 대체로 다른 나라의 말로 옮기기에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 책도 번역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였으나 처음으로 뉴욕의 브릴(A. A. Brill) 박사는 《꿈의 해석》을 영어로 번역(런던 1913년, 죠지 알렌 출판사)하는 데 성공하였고, 계속 홀로스 박사와 페렌치 박사, 정신 분석학자들은 헝가리 언어로 번역하였다(1918년).

- 5 이 책의 원고를 끝낸 뒤에 스튬프(E, J, G, Stumpf)의 저서 한 권이 나에게 입수되었다. 이 저서는 꿈은 의미가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이 방법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보증 없이 비유적 상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6 프로이트와 브로이어 《히스테리 연구》(비엔나, 1895년 제3판, 1916년).

세히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 정신 분석 연구 도중에 나는 꿈 해석의 문제에 부딪 쳤다. 어떤 일정한 일이 염두(念頭)에 떠오른 것을 빠뜨리지 않고 나에게 전하도록 명령받은 환자들은 나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꿈이란 어떤 병 적인 관념에서 거꾸로 기억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심적 연속(連續) 속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꿈 자체를 하나의 병 증세와 같이 취급하고, 정신 병을 위해 만들어 낸 해석 방법을 꿈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어떤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 환자는 두 종류로 노 력한다. 즉 자기의 심적 지각에 대하여 주의력을 긴장시키고, 환자가 그에게 떠오 르는 생각에 대해서 언제나 가해 오던 비판을 중단하는 일이다. 주의력을 집중시 켜서 자기를 관찰할 목적으로 환자가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는 일이 유리하고, 또 자기가 지각한 관념 형성에 대한 비판을 중지하는 것은 의사 측에서 환자에게 엄 격하게 명령할 필요가 있다. 즉 이렇게 말해 준다. 정신 분석의 성공 여부는 당신 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모조리 관찰하고 그것을 감추지 말고 말하여 주느냐 않 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느니, 또는 지금의 문 제와는 관계없다느니 하며 어떤 상념을 억제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우스운 일이라 하여 다른 하나를 보고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떠오른 것에 대하여 는 공평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들의 분석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즉 꿈이나 강박 관념 그 밖의 것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머리에 떠오른 여러 생각에 덧붙인 그 비판에 있을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 분석 연구에서, 심사숙고하는 남자의 심적 상태가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남자의 심적 상태와는 아주 다른 것을 알았다. 심사숙고에 있어서마음의 활동은 주의 깊게 자기를 관찰하는 경우보다 왕성하다. 이것은 자기 관찰자(自己觀察者)의 표정상의 침착함과는 반대로 심사숙고하는 사람의 긴장한 표정과 주름살을 짓는 이마가 증명하듯이, 심사숙고하는 마음의 활동이 자기 관찰 때보다 심리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 이런 두 경우는모두 틀림없이 긴장된 주의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사숙고자는 주의력을 긴장시키는 외에 '비판'적 기능 또한 작동시킨다. 이 비판에 따라 그는 염두에 떠오른

것 중의 일부를 없애든지 그것을 지각한 뒤에 다른 것을 잠깐 중지하든지 한다. 그 리하여서 그는 그 사고 때문에 열리게 될 사고의 길을 더듬지 않게 되고, 또 더욱 이 다른 사고에 대하여 취할 행동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고는 의식되지 않 고, 그 사고는 지각되기에 앞서서 억압된다. 이에 반하여 자기 관찰자는 애써서 그 가 이 비판의 억제에 성공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파악될 수 없는 무수한 상념이 그의 의식에까지 오르게 되어서 자기의 지각에서 새로 파악된 재료의 도움을 얻어 병적 관념이나 꿈의 형성물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심적 에너지 (가동적인 주의력)를 배분함에 있어서 잠자기 전의 상태(그리고 확실히 또 최면술 적 상태)와 어떤 유사성을 가진 심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된다. 수면 중에 는 우리들은 여러 관념의 흐름에 대하여 작용하는 어떤 종류의 자유로운 (그리고 또 의심 없이 비판적인) 행위가 뒤에 물러섬으로써 '원치 않았던 여러 관념'이 등 장한다. 왜 그런 자유롭고 비판적인 행위가 그치는가의 이유를 우리들은 보통 '피 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원치 않았으나 나타나는 관념은 시간적 및 청각 적 형상으로 변화한다(슐라이어마허의 기타의 견해).7 꿈과 병적 관념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상태에 있어서 사람들은 앞서 말한 활동성을 고의로 자유롭게 단념하 고. 축적된 심적 에너지(또는 그 일부분)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하지 않는 생각 을 주의 깊게 좇는 데 이용한다. 이 원하지 않는 생각은 그 특성을 여러 관념으로 써 (이것이 잠이 든 상태와의 차이이다) 보존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워하지 않던' 관념을 '바라는' 관념으로 바꾼다. (이 익숙해진 비판을 단념함으로써) 일견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과 맞서라는 요구는 여러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 닐 것이다. '워하지 않는 생각'은 보통 그 생각이 떠오르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굉장 한 저항에 부딪친다. 그러나 만일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Schiller)의 말을 믿 을 수 있다면 시인의 창작도 역시 그런 심적 태도를 조건으로 삼는 듯하다. 친구 쾨르너(Körner)와의 사이에 교화된 편지의 한 구절에서 (그 발견자는 오토 랑크 (Otto Rank)이다) 실러는 쾨르너가 자기의 창작 재능이 미약한 것을 탄식한 데 대

<sup>7</sup> 질벨러는 여러 관념이 시각적 형상으로 전화(轉/t)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여서 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하였다(《정신 분석 연구 연감》제1권과 제2권, 1909년 이하),

하여 이렇게 대답한다. "너의 탄식의 원인은 너의 오성(悟性)이 너의 상상력을 강요하기 때문인 것 같네. 나는 여기서 비유 하나를 들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오성을 쉽게 알도록 하겠네. 오성이 흘러오는 여러 관념을, 말하자면 입구에서 이미 너무 엄격하게 조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마음을 창조하는 행위에 불리한 것 같아. 한 관념은 그것만을 별도로 생각하면 대단히 쓸모없을 수도 있고, 대단히 대담할 수도 있다네. 그러나 아마도 한 관념은 그 관념 뒤에 따르는 다른 관념에 의해서 중요하고 무미(無味)롭게 보이는 다른 관념들과 어떻게든지 결합하여서 대단히유익한 관념을 일으킬 수도 있네. —오성은 그런 쓸모없는 관념이 다른 것과 결합한 모양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 관념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네.

이에 반해서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오성은 자기 호위병을 입구에서 철수시킨 듯이 생각되네. 그래서 여러 관념이 난입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오성은 관념의 큰 무리를 바라보고 검사하지.—비판가이건 아니건 이름을 굳이 묻지 않겠으나, 자네 같은 비평가들은 흘러가 버리는 순간적 상념을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이 상념은 모든 독창적인 예술가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런 상념이 오래계속 가는가 혹은 짧게 끝나는가에 따라서 생각하는 예술가와 꿈꾸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자네들의 결실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은 자네들이 너무 일찍 비난을 하고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이라네(1788년 12월1일자 서신)."실러가 부른 바와 같이 '호위병을 오성의 입구에서 철퇴시키는 일', 즉 비판을 교환

나의 환자 대부분은 첫 마디의 교시(敎示) 뒤에 다음과 같은 것에 성공했다. 나 자신도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을 종이에 써 놓고 이 생각을 보완하면 완전히 그런 상태로 몸을 옮길 수 있다. 비판적 활동을 억누르고 자기 관찰의 강도를 높이는 데 얻는 심적 에너지의 양은 개인이 어떤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지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진다.

하지 않는 자기 관찰의 상태에 자신의 몸을 대치시키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

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선 배운 것은, 사람들이 꿈 전체가 아니라 그 꿈 내용의 일

부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는 점이다. 나는 또 정신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 에게. 당신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고 물을 때. 환자가 대개 자기의 정신 적 시야 속에서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환자에게 꿈을 잘 게 썰어서 제시하면 환자는 나에게 각 꿈 부분의 '배후의 생각'이라 할 수 있는 일 련의 생각을 말해 주었다. 이 중요한 첫 조건에서 내가 행한 꿈 해석의 방법은 이 미 옛적부터 전설적으로 유명한 상징에 의한 민간의 꿈 해석과는 다르고. 둘째의 방법, 즉 예의 '해독법'에 가까운 것이다. 나의 방법은 해독법과 같이 전체적 해석 이 아니라 부분적 해석이며, 또 해독법과 같이 꿈을 처음부터 합성물이 된 어떤 것, 심적 여러 형성물의 한 혼합체로 파악한다. 나는 신경증 환자의 정신 분석 과 정에서 대략 천 개 이상의 꿈을 판단하고 해명하였으나. 꿈 해석의 기술이나 이론 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재료를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정신병자의 꿈이어 서 건강한 사람의 꿈을 추측하지 못한다는 이의에 내가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 이 외에도 나는 다른 까닭으로서 그 재료를 내던져야 한다. 그 꿈이 향하는 주제는 말 할 것도 없이 모두 그 신경증의 밑바닥이 되어 있는 병력이다. 이 때문에 어떤 꿈 이든 대단히 긴 서론과 신경증의 본질 및 병원학적 여러 조건의 진상을 밝힐 필요 가 생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새롭고 극히 기이한 것이며, 따라서 꿈 문제로부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이다. 나의 의도는 신경증 심리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 를 해명하기 위해 예비적 일을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재료인 신경증 환 자의 꿈을 단념하게 되면, 나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남는 것은 이따금 지면(知面)의 건강한 사람에게서 들은 꿈 이야기이거나 꿈을 취 급한 책에 기록된 실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꿈에서는 꿈의 뜻을 발견할 수단으로서의 분석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의 처리법은 물론 주어진 꿈 내용 을 규정된 해결에 따라서 해독하는 보통의 해독법과 같이 편리하지 않다. 도리어 실정은 같은 꿈 내용일지라도 그 꿈을 꾼 사람이나 그 꿈의 연결 여하에 따라 뜻하 는 바가 달라진다. 나는 이것저것으로 부득이 나 자신의 꿈을 재료로 삼았다. 이것 은 풍부하고 손쉬운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의 꿈이고 일상생활의 여러 잡다한 계기 (契機)와도 관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분석'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을는

지 알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유롭고 임의대로 해석하게 되니까 하고 말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나로서는 자기 관찰이 타인의 관찰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었다. 꿈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자기 분석이 유효적절한가를 무엇이든지 시험하여 보아도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실은 그것과는 다른 여러 곤란을 나 자신이 극복해야 했다. 여하튼 타인이 어떤 오해를 할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마음속의 것을 여러 가지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주저된다. 그렇다고 하나 이런 일을 우리들은 초월하자.

델뵈프는 "만일에 그가 그것에 의하여 어떤 미해결 문제에 빛을 던져 준다고 믿으면, 모든 심리학자는 자신의 여러 약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했고, 또 독자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나의 아낌없는 고백에 흥미를 가질는지 알 수 없으나, 얼마 지나서는 그것에 의해서 빛을 던져 주는 심리학적 여러 문제로 점점 끌려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의 꿈 하나를 끄집어내어 그 꿈을 나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려고 한다. 이런 꿈은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독자들에게 바란다. 독자는 나의 여러 관심을 독자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나와 함께 되어서 나의 생활의 세세한 것 속으로 헤쳐 들어와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꿈에 숨겨진 뜻을 알려는 흥미가 단호하게 그런 전신(轉身)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서언

나는 1895년 여름, 어떤 젊은 부인의 정신을 분석했다. 이 부인은 나와 나의 가족들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이런 뒤섞인 관계가 의사, 특히 정신병 의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자극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의사의 개인적 관심이 커지면서 의사의 권위는 떨어진다. 실패라도 한다면 환자의 가족과의 옛 우정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 치료는 부분적 성공으로 끝났다. 그 환자는 히스테리성 불안에서 벗어났으나 그렇다고 해서 병 증세가 일체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당시 아직 히스테리성 병력의 최종적 종결을 규정하는 여러 규준(規準)에 관해서 진정한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여성 환자에게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였으 나, 그 해결책은 그 여성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같이 보였다. 이렇게 의견이 어긋 난 상태에서 우리들은 여름에 치료를 중단하였다. — 어느 날 나의 한 젊은 친구(친 한 친구의 한 사람)가-나를 찾아왔다. 이 친구는 그 여환자인 이르마(Irma)를 시 골 피서지로 찾아갔었던 것이다. 나는 이 친구에게 그 여환자의 용태를 물었더니. 전보다는 회복되었으나 완쾌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 오토란 친구의 대 답의 어조가 나를 불쾌하게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이 친구의 말 을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예컨대 "당신은 그 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 을 기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듯이. 그래서—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오토가 나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 환자 가족들의 탓이라 생각했다. 나는 환자 의 식구들이 나의 치료를 결코 유쾌한 눈으로는 바라보지 않았다고 짐작하던 터였 다. 그러나 이 고통스런 느낌은 뚜렷하지 않아 나는 나 자신의 이러한 느낌을 밖으 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바로 그날 밤 나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공통의 친구인 M 박사에게 이르마의 병력에 대해 쓰고 있었다. 이 M 박사는 당시 우리들 친구 사이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날 밤중에, 아마 새벽녘이었 을 것이다. 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을 눈뜬 직후에 써 두었는데 내용은 이렇다.

### 1895년 7월 23일에서 24일에 걸친 꿈<sup>®</sup>

큰 홀 우리들은 여러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 — 그 중에 이르마가 있다. 나는 바로 이르마를 옆으로 데리고 간다. 말하자면 그 여자의 편지에 대답을 하고, 또 이르마가 예의 '해결책'을 다시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 아프다고는 하나 그것은 너의 탓이다." 이르마는 대답한다. "내 목과 위와 배가얼마나 아픈지 당신은 몰라요. 목을 조르는 듯해요."라고, 나는 놀라서 이르마를 응시한다. 창백하게 몸이 부어 있다. 나는 이것이 어떤 내장 기관을 살펴보지 않았던 탓으로 생각했다. 창가에 데리고 가서 목구멍을 진찰한다. 의치(義齒)한 부인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르마는 약간 싫어했다. 싫어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sup>8</sup> 이것은 내가 정밀하게 해석을 시도했던 최초의 꿈이다.

그 여자는 바로 입을 크게 벌린다. 오른쪽에 큰 반점이 보인다. 다른 곳에는 뚜렷하 게 갑개골상(甲介骨狀)을 한 묘한. 말려든 듯한 모양의 널리 퍼진 회백색의 결가(結 痂)가 보인다—나는 급히 M 박사를 불렀다. M 박사는 나와 같이 다시 진찰하고 틀림 없다고 말한다…… M 박사는 보통 때와 모습이 아주 다르다. 창백한 안색으로 발을 절름거리며 턱에는 수염이 없다…… 친구 오토도 이르마의 옆에 서 있다. 그리고 같 은 친구 레오폴트(Leopold)는 이르마의 작은 몸을 진찰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 여자 는 왼쪽 아래에서 탁음(Dämpfung)이 들리고, 왼쪽 어깨의 피부에 침윤(浸潤)이 있다 고 그는 지적한다. (그녀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처럼 이것을 알았 다) ····· M 박사는 말한다. "이것은 전염병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위 에 적리(赤痢)가 일어나고 독물은 배설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들은 알아낸다. 오토는 이르마가 병이 났을 때 곧 프로필(Propyl)제 주 사를 놓았다. 프로필렌(Propvlen)····· 프로피온산(Propionsäure)····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이 화학 방정식은 고딕체로 인쇄되어 나의 앞에 보인다) ····· 그런 주사는 경솔히 쓰지 않는 법인데 …… 아마 주사기의 소독도 불완전했을 것이다. 이 꿈에는 다른 꿈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 이것이 전날의 어떤 일과 관련하고 있고 어떤 주제를 취급하고 있는가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서언이 이를 밝혀 준다. 이르 마의 용태에 관한 오토의 보고, 밤 늦게까지 쓴 병력 등은 나의 마음의 활동을 수 면 중에도 계속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서언과 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자신도 모르겠다. 첫 째 이르마가 호소한 병 증세는 이상하게 여겨지는데, 내가 치료하려 했던 그 증세 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나는 프로피온산 주사를 놓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M 박사가 말한 위안은 웃음을 자아낸다. 이 꿈은 끝에 가서 애매해지고 템포가 빨 라진 듯 생각된다. 이 뜻의 일체를 알기 위해서는 상세히 분석할 것을 결심하지 않 을 수 없다.

#### 분석

홀-내가 접대하는 많은 손님들. 그 여름을 우리들은 카렌베르크(Kahlenberg)에 잇 닿아 있는 한 언덕 위에 홀로 떨어져 있는 집, 벨뷔(Ballevue)에서 지냈다. 이 집은 전에 집회소였고, 그 방은 모두 홀식(式)으로 천정이 보통 것보다 높았다. 이것은 이 벨뷔 집을 배경으로 꾼 꿈이다. 더욱이 이 꿈은 나의 아내의 생일 얼마 전의 것이다. 그날 아내는 나에게 생일에 많은 손님이 초대된다고 말했다. 손님 중에는 이르마도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의 꿈은 그때의 상황을 미리 예견한 것이다. 즉 그것은 아내의 생일 당일의 일이고, 이르마를 포함하여 많은 손님들이 벨뷔 홀에 초대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르마가 '해결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이렇게 말한다. 즉 네가 아직 아프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시에도 이 말을 이르마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여자에게 말했을는지도 모른다. 나의 임무는 환자에게 나타난 병 증세의 숨겨진 뜻을 환자에게 말해 줌으로써 이루어지고, 성공을 좌우하는 이 해결책을 그 여자가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관해서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이것은 나중에 잘못임을 알았다). 나 자신의 불가피한 무지 속에서, 내가 치료를 성공시켜야 했던 시절에, 그나마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오류 덕분인데 나는 지금 다행히 이 오류를 극복했다. —그러나 나는 그꿈에서 이르마에게 던진 말, 즉 아직 이르마가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주목된다. 만일에 그것이 이르마 자신의 책임이라면 그 여자가 아프더라도 그것은 나의 책임이 될 수 없다. 이런 방향에서 꿈의 뜻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르마의 호소, 목·배·위의 아픔, 목을 조르는 듯한 아픔. 위통은 나의 환자의 증세군(群)에 속한 것이다. 이 아픔은 대단치 않았다. 오히려 이르마는 욕지기·구토를 호소했다. 목과 배의 고통, 목의 긴박감은 실제로 거의 없었다. 왜 내가 꿈에서 이런 증세를 선출하였는지 이상하며, 그 까닭을 그 당장에는 알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창백하고 부은 것 같다. 나의 그 여성 환자는 언제나 혈색이 좋았다. 여기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나는 내가 내장 기관의 감염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놀랐다. 나의 불안 · 놀라움은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실은 언제나 전적으로 신경증 환자만을 상대로 하기에, 다른 의사 같으면 기관의 치료를 해 볼 많은 현상을 히스테리의 탓으로 돌리려는 특수한 전문의 의사가 품는 끊임없는 불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불안 · 놀라움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가느다란 의심이—이것이 어디에서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생긴다. 만일에 이르마의 고통이 기관적 성질의 것이라면 나는 또 그 치료에 책임은 없다. 히스테리성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단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치료에 실패하였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나는 그 여자를 창가에 데리고 가서 그 여자의 목을 진찰한다. 의치의 부인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르마는 진찰을 조금 싫어했다. 싫어할 필요도 없는데 하고 나는 생각한다.

이르마의 구강을 진찰할 기회를 나는 한 번도 갖지 못했다. 나는 꿈속의 이 사건에서 얼마 전에 진찰한 어떤 여성 가정교사의 일을 생각했다. 그 여자는 얼핏 보아 젊고 아름다웠으나 입을 벌릴 때 치열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에서 다시 연상되는 것은 의사나 환자에게 아주 재미없는 조그만 비밀이나 진찰과 결부된다. —그 여자가 싫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마 우선 이르마에 대한 위안의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또 하나의 뜻을 상상한다. 주의깊이 분석하면 예기(豫期)했던 '배후의 생각'이 충분히 모두 밝혀졌는가의 여부는 스스로 알게 된다. 창가에 서있는 이르마의 용모는 갑자기 다른 일을 생각하게 했다. 이르마에게 한 여자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대단히 존경했다. 어느 날 저녁때에 내가 이 여자를 방문하니 꿈에서 본 대로 창가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의사였던 M 박사는 이 여자가 디프테리아성(性) 태(苔)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M 박사와 디프테리아성 태가 나의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돌연 이 여자도 이르마와 똑같이 히스테리성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한 것을 생각했다. 그렇다, 이르마가 그것을 내게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용태에 대해서 그 여인이 (꿈속의 이르마와 같이) 목을 조르는 히스테리성 망상에 고민하고 있음

을 알았다. 즉 나는 이 여자의 히스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번이나 해 보려던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는 대단히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꿈이 보여 주듯이 그 여자는 싫어한다. 다른 설명을 한다면 그 여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한다. 사실 이 여자는 그 때까지 다른 의사에게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을 만큼 매우 건강했다. 그러나 여기 에 또 이르마나 그 여자의 것으로 귀착시킬 수 없는 일이 조금 남아 있다. 창백 · 부증(浮症) · 의치 등이 그것이다. 의치는 그 여자 가정교사를 생각하게 했다. 의치 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다른 한 인물을 생각했다. 이 인물이라면 위의 일에 알맞다. 역시 나의 환자가 아니고 나의 앞에 나타나면 아주 수줍어하기에 환자로서 취급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여자인데, 이 여 자를 환자로 삼고 싶지는 않았다. 언제나 창백하고 전에, 특히 행복했던 때를 보내 고 난 다음 에는 퉁퉁 부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환자 이르마를 다른 두 사람 과 비교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확실히 진찰이나 치료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내가 꿈에서 이 두 사람을 이르마와 바꾼 것은 어떤 까닭일까? 나는 이르마 대신 에 저 두 사람을 환자로 삼고 싶었을까? 내가 이르마를 머저리로 생각한 것은 확 실하고, 그것은 이르마가 나의 지시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친 구는 영리하기 때문에 나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드디어 입을 크게 벌린다. 이 여 성이 이르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에게 말을 해 줄 것이다.10

목 속에 흰 반점과 결개結痂)한 갑개골(甲介骨)이 보인다. 흰 반점은 디프테리아, 즉 이르마의 친구를 생각하게 하나, 이 밖에도 나는 약 2년 전에 나의 큰 딸이 디프테리아에 걸린 것과, 그때의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을 생각해 냈다. 갑개골의 결가는 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주지시켜 준다. 당시 나는 비강비대증에 걸려 종

- 9 이 제3의 인물에서 의미 불명의 '복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아내이다. 복통은 아내의 수치심이 나에게 뚜렷이 알려진 기회의 하나를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였다. 나는 내가 이르마와 나의 아내를 이 꿈에서 그다지 친절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성실하고 온순한 환자라는 이상형에 비추어 이 두 사람을 판단했다는 말을 변명으로 덧붙인다.
- 10 나는 이 부분의 해석이 감추어진 모든 의미를 좇는 데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세여성을 계속 비교하면, 지금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꿈은 적어도 아주 모를 한 곳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꿈이 미지(未知)의 것과 연결되는 배꼽과 같은 것이다.

종 코카인을 쓰고 있었다. 며칠 전에 나와 같은 환자가 비점막(鼻點膜)에 괴저(壞疽)를 일으킨 것을 들었다. 1885년 내가 권한 코카인 사용은 대단한 비난을 일으켰다. 1895년에 고인이 된 친구 한 사람은 코카인의 남용으로 죽음을 재촉했었다. 나는 급히 M 박사를 부른다. M 박사는 나와 같이 다시 한 번 진찰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M 박사가 우리들 사이에 점유한 위치를 말해 주는 것뿐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급히'는 조금 이상하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나의 슬픈 실패를 생각하게 했다. 당시 나는 그때까지 아직 무해하다고 믿어진 약품(Sulfonal)을 어떤 환자에게 계속 투약하여, 그 여성 환자를 무거운 중독증에 빠뜨린 적이 있고, 나는 곧 경험 있는 연상의 동료의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다. 내 생각은 다른 부수적인 상황을 통해 확인된다. 중독증에 걸린 그 환자는 나의 큰 딸과 같은 이름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이것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지금 운명의 보복과 같이 닥쳐왔다. 마치 인물의 대치가 다른 뜻으로 계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저 마틸데 (Mathilde) 대신에 지금은 이 마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식이다. 마치 내가나 자신에게 의사로서의 양심의 부족을 비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고자 하는 듯했다.

M 박사는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며 턱에 수염이 없다. 그의 나쁜 외관이 때때로 그의 친구들을 걱정시킨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절름발이와 수염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다. 나는 외국에 있는 형이 생각났다. 이 형은 수염이 없다. 꿈속의 M 박사는 대체로 이 형과 비슷하다. 삼 일 전의 일이다. 이 형이 허리의 관절염으로 발을 절름거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두 인물을 꿈에서 하나의 인물로합친 데에는 틀림없이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두 사람 다 내가 최근에 제안한 진찰을 거부했었다.

친구 오토는 지금 여성 환자 옆에 서 있다. 그리고 친구 레오폴트는 이르마를 진찰하고 탁음이 들린다고 한다. 레오폴트는 오토의 친척이고, 역시 의사이다. 이 두 사람은 전공이 같은 점에서 운명적으로 자연히 경쟁자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내가 신경증 소아 치료의 주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나의 조수로 근무했다. 내가 꿈에서 본장면은 당시에 그다지 진귀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오토와 어떤 환자의 소견에 대

해서 논하고 있는데, 레오폴트가 환자를 다시 한 번 진찰하고 병명 결정에 뜻밖의힘이 되어주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성격의 차이가 있었다. 한 사람은 '재빠르고', 또 한 사람은 느리고 신중하고 철저하다. 내가 꿈에서 오토와 조심성 있는 레오폴트를 대립시킨 것은, 뚜렷하게 레오폴트를 칭찬하기 위함이었다. 의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위에서 말한 이르마와, 더 영리하다고 생각되는 여자 친구를 비교한 것과 같다. 지금 나는 꿈에서 관념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동 경로 중에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즉 병든 아이로부터 소아과 병원에 이르는 생각이다. — 좌하(左下)의 탁음은 레오폴트의 철저성이 나를 놀라게 한 어떤 사건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어떤 병독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머리를 스친다. 이것은 내가 이르마 대신에 치료하고 싶었던 한 여성과 관련된 것일지도 알 수 없다. 이 여성은 내가 본 한에서는 결핵 환자인 듯이 보였다.

"왼쪽 어깨의 피부에 침윤." 나는 밤늦게까지 눈을 뜨고 있으면 반드시 어깨에 류머 티즘을 느낀다. 이것은 확실히 그것이다. 꿈속의 말은 대단히 애매하다.

"그녀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처럼 이것을 알았다".는 '자신의 몸에서 감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왼쪽 어깨의 피부에 침윤"이란 말은 어느 모로보나 대단히 우스꽝스럽다. '왼쪽 등 뒤 위쪽의 침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폐와 관계가 있고 따라서 또 결핵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는 확실히 삽입구에 지나지 않는다. 병원에서 우리들은 물론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진찰한다. 이것은 성인 여성 환자의 경우와 정반대이다. 우리들은 기술이 좋은 임상(臨床)에 관해서 "저 사람은 언제나 환자를 옷을 입은 채 물리적으로 진찰한다."라고 말한다. 그 이상의 것은 나에게는 희미하다. 정직하게 말해서 이 이상 더 깊이 이런 것을 파고들어 갈 생각은 없다.

M 박사는 "이것은 전염병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위에 적리가 일어나고 독물은 배설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생각하면 좀 우스운 말이다. 역시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말이다. 잘 관찰하면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다. 내가 이 여환자에게 발견한 것은 국부적인 디프테리아였다. 나는 나의 딸이 병에 걸렸을 때 디프테리티스(Diphtheritis)와 디프테리아(Diphtherie)에 관해서 토론한

일을 기억한다. 디프테리아는 국부적인 디프테리티스에서 오는 전신 전염병이다. 레오폴트는 탁음을 통해서 전신 전염병을 확인했다. 이 탁음은 그러므로 병독 전이(病毒轉移)의 원천부를 생각하게 한다. 물론 디프테리아에 있어서는 이런 전이는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은 오히려 농혈증(膿血症)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위안의 말이다. 그것은 이런 뜻인 성싶다. 꿈의 끝 부분은 여러 고통이 심한 기관 질환에 근거한 내용을 보여 준다. 이것도 책임을 벗으려는 나의 마음을 말해 주는 성싶었다. 디프테리티스 질병의 지속에 심리 요법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르마가 그런 중병을 앓았다는 것은 어쩐지 양심에 걸린다. 그것은 너무 심해 보인다. 그래서 나에게는 일이 잘 끝날 보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위안의 말이 M 박사의 입을 통해 나오도록 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꿈을 초월하는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위안은 왜 무의미한가?

"적리." 병 독소는 내장을 통해서 배설된다는 희미한 이론적 관념. 나는 이에 의하여 M 박사가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설명이나 기묘하게 병리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비웃으려고 하는 것일까? 적리라면 또 다른 일이 염두에 떠오른다.

몇 달 전에 변을 보는 데 매우 고생하는 젊은 남자를 맡아 보았다. 다른 의사들은 이 환자를 '영양 불량에 의한 빈혈증'으로 진단했다. 나는 히스테리로 진단했으나 심리 치료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 해외여행을 권했다. 이 환자는 며칠 전에 애 굽에서 절망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애굽에서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의사에게서 적리로 진단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진단이 히스테리에 속은 다른 의사의 오진 이라고 짐작했으나 내가 그 환자로 하여금 히스테리성 장 질환을 기관적 질환으로 알게끔 놓아 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적리(Dysenterie)'는 꿈에서는 불리지 않았던 '디프테리아(Diphtherie)'와 발음이 비슷하다.

물론 나는 "거기에다 적리가 될는지도 알 수 없어."라는 위안적인 예비 진단으로 M 박사를 조롱하려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M 박사가 어떤 동료에

관해 웃으면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의사와의 입회(立會) 진찰 때문에 어떤 중환자에게 불려갔다. 그 의사는 대단히 낙관적이었다. M 박사는 오줌에 단백이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단백은 배설되고 맙니다."라고 대답했다.—그러므로 꿈의 이 부분은 확실히 히스테리에 어두운 동업자에 대한 조롱을 포함하고 있다. 마치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 나의 뇌리에 이런 것이 스쳐간다. M 박사는 그의 환자인 친구 이르마가 결핵 병자는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데, 사실은 히스테리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M 박사는 이 히스테리를 알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M은 히스테리에 속은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내가 무슨 동기로 이 친구를 이렇게 혹독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이유는 극히 간단하다. M 박사는 이르마에 대한 나의 '해결책'을 이르마가 그랬던 것처럼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꿈에서 이미 두 사람에게, 즉 이르마에게는 너의 아픔은 너 자신의 책임이라고, 또 M 박사에게는 무의미한 위무(慰撫)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복수하였다.

"이 전염병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들은 알아낸다." 꿈에서 어떤 것을 직접 알고 있다는 것은 주목될 가치가 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레오폴트의 지적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들은 알지 못했다.

친구 오토는 이르마가 병이 났을 때 주사 한 대를 놓았다. 오토가 이르마의 가족과 잠깐 있는 동안에, 근처의 호텔에 불려가서 갑자기 불편을 호소한 사람에게 주사를 놓은 것을 오토에게서 실지로 들었었다. 주사는 또 코카인 때문에 죽은 불행한 친구의 일을 생각하게 했다. 나는 이 친구에게 모르핀을 끊는 동안 내복(內服)만하라고 충고했으나. 친구는 바로 코카인 주사를 놓았다.

"프로필제 주사 …… 프로필렌 …… 프로피온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병의 경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에서 인용한 이 꿈을 꾼 전날 저녁에 아내는 오토가 보내 준 리큐르 술병을 열어 주었는데, 그 술병에는 '파인애플(Ananas)"이라고 씌어 있었다. 오토는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물건

<sup>11</sup> 덧붙여 말하면 아나나스(파인애플)는 나의 여환자인 이르마의 성(姓)과 비슷한 음이다.

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어서 아내를 얻어서 이 습관에서 벗어나면 좋으련만. " 이 리큐르에서 퓨젤유(油) 냄새가 나서 입에 댈 수가 없었다. 아내는 이것을 하인들에게 주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오토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마셔도 중독이 되지 않으리라고 말해 두었다. 퓨젤유의 냄새(아밀……)는 바로 나에게 프로필 · 메틸 등 일련의 기억을 깨웠다. 그것이 꿈에서 그 대용품 프로필 제제가 되었다. 아밀(Amyl) 냄새를 맡은 다음에 꿈에서는 그 대용품 프로필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대용은 바로 유기 화학에서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트리메틸아민." 나는 이 화학 방정식을 꿈에서 보았다. 여하튼 이것은 나의 기억력의 큰 노력을 증명한다. 더욱이 이 방정식은 앞뒤의 연결 속에서 어떤 것을 아주특수하게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는 듯이 고딕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의주의를 환기시킨 트리메틸아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이 트리메틸아민은 연래(年來) 내가 시작한 일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다른 한 친구(나도 그 친구의일을 잘 알고 있는)와의 대화를 뇌리에 떠오르게 한다. 그는 전에 나에게 성 화학(性化學)에 관한 생각을 말해 주고, 특히 트리메틸아민은 성적 신진대사의 산물의하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내가 치료하려는 신경 질환의 발생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는 성생활이라는 요소로 나를 인도한다. 나의환자 이르마는 젊은 미망인이었다. 내가 이르마를 치료할 때 실패한 이유를 변명하자면, 나는 그녀의 친구들이 바꿔 주고 싶어 했던, 이르마가 미망인이라는 사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꿈의 구조는 참으로 기묘하다. 내가 이꿈에서 이르마 대신에 나의 환자로 대치시킨 여자도 젊은 미망인이었다.

왜 트리메틸아민의 방정식이 꿈에서 그렇게 강조되었는지 나는 짐작할 수 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트리메틸아민은 성적 요소의 우위 (優位)에 대한 암시를 뜻할 뿐 아니라, 세상이 나의 학설을 묵살하여도 그 사람의 찬동(贊同)만을 얻으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과도 관계된다. 나의 생애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이 친구가 이 꿈의 관념연관(觀念聯關) 속에 아주 나타나지 12 이 점에 관해서 이 꿈은 뚜렷하게 예언적이 아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나의 여환자의 '미해결'의 위병(胃病)은 진정한 담석(膽石)의 전구증(前驅症)이었기 때 문이다. 않을 까닭이 없다. 실상 이 사람은 꿈에 나타난다. 즉 그는 비강 질환의 여러 영향에 더욱 상세하고, 갑개골과 여성의 생식 기관 사이에 관한 극히 주목할 만한 관계를 밝힌 사람이다(이르마의 인후부에 부어 있는 세 곳). 나는 이르마의 통증이 코와 무슨 관계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이르마를 진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도 축농증을 앓고 있어서 나는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꿈에서의 병독 전이(病毒轉移) 때에 나의 염두에 떠오른 농혈증(膿血症)은 아마 이것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주사는 경솔히 쓰지 않는 법인데." 이것은 친구 오토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다. 그가 오후에 말과 눈치로 내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이, 나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은 대략 이러했다. 그는 왜 저렇게 쉽게 남에게 영향을 받을까? 또 매우 쉽게 판단을 내릴까—이 밖에 위에서 말한 문구는 나에게 있어서다시 갑자기 코카인 주사를 놓으려고 결심한 죽은 그 친구를 의미한다. 나는 코카인 주사를 놓으려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그런 화학 물질을 경솔히 사용하는오토를 비난하면서, 내가 다시 불행한 마틸데 사건(이 사건은 내게 비슷한 비난을한다)에 다다르는 것을 뜻한다. 나는 여기서 뚜렷하게 내가 양심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뿐 아니라 이 반대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아마 주사기의 소독도 불완전했을 것이다." 이것도 오토에 대한 비난이지만 출처는 다른 곳에 있다. 어제 나는 82세 된 한 부인의 아들을 우연히 만났다. 나는 이 늙은 부인에게 하루에 두 번 모르핀 주사를 놓아야 한다. 이 부인은 지금 시골에 있고 아들의 말에 의하면 정맥염(靜脈炎)에 걸려 있는 듯하다고 한다. 나는 바로 주사기의 불완전한 소독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부인이 침윤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을 나는 자랑으로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소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즉 나는 양심적이다. 정맥염에서의 나의 생각은 다시 나의 아내에게로 옮겨간다. 아내는 임신 중에 정맥염에 걸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세 가지 비슷한 경우가 생각난다. 나의 아내의 경우, 이르마의 경우, 죽은 마틸데의 경우이다. 이 삼자의 동일성은 명백히 내가 꿈에 이 삼자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데서 비롯된다.

나는 이제 꿈 해석을 끝냈다. 13 이 작업 중에 나는 열심히 꿈 내용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꿈 사상을 비교할 때마다 떠오르는 모든 관념들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다. 또 이렇게 하여서 꿈의 참뜻이 나에게 뚜렷해졌다. 나는 이 꿈에 의하여 실현되고 틀림없이 이 꿈을 꾸는 동기가 되었을 하나의 의도를 생각해 냈다. 이 꿈은 그날 밤의 몇 가지 사건(오토의 보고, 병력에 관한 집필)에 의해서 나의 속에 깨어 있는 소망 몇 가지를 충족시키고 있다. 즉 꿈의 결론은 이렇다. 현재 이르마의 고통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오토에게 있다는 것. 그러나 오토는 이르마의 불완전한 치료 상황을 서술하여 나를 불쾌하게 했다. 그래서 이 꿈은 오토가 나에게 했던 비난을 오토 자신에게 도로 던짐으로써 나를 위해오토에게 복수했다. 꿈은 이르마의 용태에 관해서 내게 책임이 없다고 고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여러 요소로 전가시켰다. 꿈이란 어떤 일정한 상황을 내가 바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꿈 내용은 어떤 소망 충족이고, 꿈의 동기는 어떤 소원이다

대단히 많은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또 소망 충족의 입장에서 볼 때 꿈의 세부에 관해서도 많은 것이 나에게 뚜렷해진다.

오토가 경솔한 의술적 치료(주사)를 하였다 하여, 나는 오토의 나에 대한 경솔한 반대 태도에 대하여 그에게 복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퓨젤유 냄새를 풍기는 나쁜 리큐르에 대하여 오토에게 복수했다. 나는 이 꿈에서 이 두 비난을 통일하는 하나의 표현, 즉 프로필렌 제제의 주사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의 경쟁자인 가장 믿을 수 있는 레오폴트를 꿈에 넣고 나의 복수를 한층더 계속한다. 마치 나는 "나는 그를 너보다 더 좋아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러나 나의 분노의 대상은 오토뿐이 아니다. 나는 이르마를 이르마보다 더 영리하고 순한 다른 여성과 바꿈으로써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르마에게도 복수한다. 나는 또 M 박사에 대해서도 그의 모순을 묵인할 수 없고, 하나의 명백한 암시에 의해서 "자네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무지한 인간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한다(또

<sup>13</sup> 주지한 바와 같이 나는 꿈 해석의 작업에서 나에게 생각난 모든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적리가 일어날 것이다." 등등). 나는 M 박사를 등지고 사정에 더 밝은 다른 사람 (즉 나에게 트리메틸아민의 이야기를 해 준 한 친구)에 대하여 호소한다. 이르마 를 떠나서 그 여자 친구에게. 오토를 물리치고 레오폴트에 대하여 말하듯이. 이 괘 씸한 삼자를 추방하고 그 대신에 내가 좋아서 선택한 다른 삼자가 있어 준다면 나 는 이유 없는 비난을 받지 않게 될 텐데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그런 여러 비난 이 이유가 없다는 것은 꿈에서 정중하게 논박된다. 이르마의 고통은 나의 탓이 아 니고 나의 제안을 채용하려 들지 않는 그 여자의 탓이다. 이르마의 고통은 나와 관 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관적인 것이므로 정신 요법으로써 치료될 리가 없 기 때문이다. 이르마의 괴로움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르마가 미망인이란 것(트 리메틸아민)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된다. 그 여자의 괴로움은 나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그런데도 부적당한 약제를 조심성 없이 오토가 주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고통은 나의 환자의 정맥염과 같이 소독이 불완전한 주사기에서 일어 난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다. 물론 나는 나의 책임을 해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 설명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것에 주의한 다. 그뿐이랴, 이 설명들은 서로 모순된다. 이 이론 전체는—이 꿈은 그런 항변에 지나지 않는다--이웃에서 솥을 빌려서 그 솥을 망가진 채로 돌려준 남자의 변명을 생각하게 한다. 첫째로 솥은 손상 없이 돌려주었다. 둘째로 솥은 빌려왔을 때에 이 미 구멍이 뚫려 있었다. 셋째로 자기는 이웃에서 솥을 빌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층 훌륭한 것은, 만일 이 세 가지 변명 중의 하나라도 그렇다고 용인된다면 이 사나이 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된다.

그 위에 이 꿈속에는 다른 테마가 조금 들어 있다. 이르마의 병에 대한 나의 책임 해제와 그 테마가 어떤 관계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즉 내 딸의 병, 같은 이름의 여성 환자의 병, 코카인 중독, 애굽에 여행 중인 나의 환자의 병, 나의 아내, 나의 동생, M 박사의 건강, 육체상의 병, 축농증에 걸린 멀리 있는 나의 친구에 대한 걱정 등이 그 테마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총괄하면, 예컨대 "건강에 대한 걱정, 자기 및 타인의 의사로서의 양심" 등이 하나의 관념군(群)을 성립한다. 나는 오토가이르마의 용태에 대하여 보고했을 때 막연한 불쾌 감정을 일으켰다. 꿈에서 하나

가 되어 작용하고 있던 관념군에서, 나는 추가로서 이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나에게는 다음과 같다. 너는 너의 의사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너는 양심적이 아니다. 너는 네가 약속한 것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양심적인가? 나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환자의 건강을 내가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가를 보이기위해서, 나는 상술(上述)한 관념을 이용하려고 했더라면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으로는 이 관념 재료 중에는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 도리어 친구들이 오토의 한 책임을 해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불쾌한 생각도 섞여있다. 재료 그 자체는 초당파적이나, 꿈을 구성하는 다량의 재료와 이르마의 병에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다는 소망에서 비롯된 협소한 꿈의 테마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위에서 이 꿈의 진의는 완전히 폭로되었고, 이 꿈 해석의 어느 곳에도 소루(疏漏) 가 없다고 나는 주장할 생각이 없다.

내가 또 이 꿈을 문제로 삼아 그 꿈에서 그 이상의 설명을 끄집어 내어 이 꿈이 제기하는 새로운 수수께끼를 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꿈에는 현재로서 더 여러 가지 관념의 관련이 추구될 곳이 있다. 그러나 자기 꿈을 운위(左調)할 때 고려할 여러 가지 미묘한 점을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 이 꿈을 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은 참 못마땅하다고 재빠르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해 보면 되고, 나보다 더 정직하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면 된다. 우선나는 지금 새롭게 획득한 인식에 만족코자 한다. 그 인식이란 이렇다. 어떤 사람이지금 여기에 표시된 꿈 해석 방법을 쓴다면, 꿈은 실제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재래의 많은 연구가들이 생각하듯이 결코 지리멸렬한 뇌 활동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꿈 해석을 끝내고 보면 꿈은 하나의 소망 충족임이 알려진다.



꿈은 하나의 소망 충족(所望充足)이다

## 제 3 장

### 꿈은 하나의 소망 충족(所望充足)이다

좁은 골짜기 길을 지나서 갑자기 언덕에 이른다. 여기에서 길이 사방으로 갈라진 다. 그리고 매우 풍부한 조망(眺望)이 사방으로 열리면 잠깐 발을 멈추고 오랫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고 깊이 생각에 잠긴다. 이런 심정은 우리들이 최초의 꿈 해석을 끝낸 다음에야 생긴다. 우리들은 갑자기 어떤 것을 인식한다. 꿈은 연주 자의 손 대신 외부의 충격에 의해 연주되는 어떤 악기의 불규칙한 음향과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꿈은 뜻 없는 부조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관념군의 일부가 잠든 동안 다른 일부가 깨어나기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꿈은 완전한 가치를 가진 하나의 심적 현상이며 소망 충족이다. 꿈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깨어 있는 심리적인 여러 행위의 한 연속에서 생긴다. 꿈은 극도로 복잡한 정신적 행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인식을 즐 기려고 하는 순간에 무수한 의문이 우리들에게로 몰려온다. 만일에 꿈이 꿈 해석 의 진술대로 하나의 충족된 소망을 표시한다면 이 소망 충족을 표현하는 특별하고 이상한 형식의 성격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우리들이 잠에서 깼을 때에 기억하는 현재적인 꿈의 형태가 되기 위해 꿈 사상은 어떠한 변화를 겪는 것 일까? 이 변화는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가? 꿈으로 만들어진 재료는 어디에서 유 래하는가? 꿈 사상에서 간취(看取)되는 여러 특성의 대부분은—예를 들면 우리들 이 여러 꿈의 관념이 서로 모순되는 것—어디에서 오는 것인가(123면에 언급된 솥 이야기와의 유비성 참조)? 꿈은 우리들의 내적인 심리적인 현상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우리들이 낮 동안에 지녔던 여러 의견이나 생각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지금은 이런 문제를 모두 버리고 다만 하나의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한다. 앞에서 우리들은 꿈이 소망 충족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꿈의 일반적 성질인 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분석하기 시작한 꿈(이르마의 주사)의 우연한 내용인 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떤 꿈에도 뜻이 있고 심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꿈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룬 첫 번째 꿈은 소망 충족이었다. 또 다른 꿈은 아마 충족된 두려움으로 해명될 수도 있다. 세 번째 꿈은 반성으로, 네 번째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재현 등으로 해명될 수도 있다. 다른 소망의 꿈도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소망의 꿈으로만 한정될까?

꿈이 종종 소망 충족의 성격을 숨김없이 뚜렷이 드러낸다는 것은 쉽게 표명되는 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꿈의 언어를 일찍이 이해하지 못했는가가 의아하게 생 각될 정도이다. 예컨대 이곳에서 나의 생각대로 말한다면, 실험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꿈이 있다. 나는 저녁 식사 때에 정어리 · 올리브 열매나 그 밖의 염분이 많 은 것을 먹으면 밤중에 반드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잠을 깬다. 그러나 눈을 뜨기 전에 꿈을 꾼다. 그 내용은 언제나 똑같다. 즉 물을 마시는 꿈이다. 나는 꿀꺽꿀꺽 찬물을 마신다. 그 맛이란 형언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잠을 깬다. 이번에는 진짜 물을 마신다. 이 간단한 꿈의 유인은 눈을 떴을 때에도 여전히 느끼는 갈증이다. 이 목마른 감각에서 물을 마시려는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꿈은 이 소망을 충족시 킨다. 그때에 꿈은 어떤 기능에 봉사한다. 나는 곧 이 기능을 알아맞힌다. 나는 잘 자는 성격이어서 어떤 욕구에 눈을 깨는 일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꿈에서 물을 마셔도. 마치 오토나 M 박사에 대한 나의 복수심이 꿈을 가지고는 처리되지 않듯이 실지의 목마름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두 꿈 모두에 좋은 의지가 깃들 어 있다. 조금 모양이 바뀌었으나 최근에 같은 꿈을 꾼 적이 있다. 그날 나는 잠이 들기 전에 침대 옆 탁자 위의 물 컵을 비웠었다. 두서너 시간 뒤에 또다시 목이 말 라서 성가시다는 생각을 했다. 물을 마시려면 아내의 침대 옆 탁자 위의 물 컵을 가져와야 했다. 그런데 나는 아내가 나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대단히 편리한 꿈을 꾸었다. 이 꿈에서 본 물이 든 용기는 내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가지고 온 에트루리 아의 납골 단지였다. 이 단지는 오래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었었다. 그런데 그 물 은 (유골 때문에) 너무 짜서 나는 잠에서 깼다. 꿈이 얼마나 편리하게 일을 처리하 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망 충족이 꿈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꿈은 완전히 이기 적이다. 자기 편할 대로 일이 처리되기 바라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용 납하지 않는다. 납골 단지가 꿈에 나타난 것도 역시 하나의 소망 충족이다. 즉 내가 그 단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내 쪽에 있는 물 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나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납골 단지는 한층 강해진 짠맛의 감각 자극에 대응하고, 이 느낌 때문에 나는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sup>1</sup>

이런 편리한 꿈을 나는 젊었을 때 자주 꾸었다. 옛적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격 이어서 가끔 눈을 뜨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괴로움이었다. 그런 때에 나는 내가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세면대에 서 있는 꿈을 언제나 꾸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것이 꿈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또 잠자고 있다. 젊은 의사 중에 나와 비슷한 잠꾸러기가 있었다. 이 남자는 대단히 재미있는 태만한 꿈을 꾸었다. 그는 병원 근처에 하숙하고 있었다. 하숙집 부인에게 언제나 아침에 깨워주도록 신신부탁을 해두었으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특히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꿈을 꾸었다.

그는 한 병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 머리맡에 매달려 있는 명찰에 '의과 대학생 페피(Pepi H.) 씨 22세'라고 쓰여 있다. 이 남자는 병원에 이미 와 있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몸을 돌리고 다시 계속 잠을 잤다는 것이다. 즉 그는 그때 자기가 꿈꾼 동기를 뚜렷이 자신에게 밝힌 것이다.

위와 같이 자극이 잠자는 동안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꿈 하나. 나의 여성 환자 한 사람이 턱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성공하지 못해서 의사의 희망대로 밤낮으로 습 포(濕布)를 환부에 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언제나 잠들면 바로 그 습

1 바이간트도 갈증의 꿈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바로 갈증의 느낌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가장 정밀하게 파악된다. 이 느낌은 언제나 갈증을 해소하는 표상을 불러일으킨다─그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가까운 기억에 따라서 분화된다. 해갈하고 난 후에, 상상했던 그 음료수의 효과가 적어진 것에 대해 실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보편타당한 점을 간과한다. 밤에 갈증을 느껴, 꿈을 꾸지 않고 잠에서 깨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나의 실험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 깊이 잠든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제29장 8절을 참조.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困憊)하야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같이……"

포를 떼어 버렸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 여자에게 충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도 역시 습포를 마루 위에 팽개쳤다. 그 여자는 이렇게 변명했다. "이번엔 내 책임이 아니라, 어젯밤에 꾼 꿈 때문이에요. 나는 오페라 극장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요양소에 카를 마이어(Karl Meyer) 씨가 누워 있었는데 턱이 견딜 수 없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페라를 구경하는 나는 턱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습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떼어버린 것이에요."라고. 이가냘픈 환자의 꿈은, 불쾌한 환경에 있는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내뱉는 말과 같이들린다. 즉 "정말은 더 재미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라고 한다. 꿈은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꿈을 꾼 여자 환자가 자기의 아픔을 전가한 카를 마이어 씨는 그 여자가 가장 무관심했던 젊은 남자였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수집한 몇 개의 다른 꿈 중에서 소망 충족을 지적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나의 꿈 이론을 알고 그 이론을 자기의 아내에게 말한 한 친구는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나의 아내가 당신에게 말해 달라고 하는데, 월경의 꿈을 꿨다네. 어떤 뜻인지 알고 싶다는 거야."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젊은 여성이 월경의 꿈을 꿀 때에는 월경이 끝난 것이다(즉 임신 중이다). 그러므로 그 꿈은 임신의 괴로움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자신의 자유를 향락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것은 첫 임신을 알리는 교묘한 방법이다. 다른 한 친구는 그의 아내가 블라우스에 젖을 묻힌 꿈을 꾸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것도 일종의 임신을 알려 주는 꿈이다. 그러나 초산은 아니다. 젊은 모친은 첫 아기를 낳았을 때보다도 이번 아기에게 더젖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에 걸린 아이를 간호하기 위하여 몇 주일 동안 남편과 잠자리를 멀리했던 어떤 젊은 부인은 아기가 무사히 회복된 뒤에 어떤 사교 모임의 꿈을 꾸었다. 도데 (Alphonse Daudet), 부르제(Paul Bourget), 프레보(Marcel Prévost) 등 이 밖의 작가들도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친절했고, 그 여자를 즐겁게 해 주었다. 꿈속의 이 작가들은 초상화에서 보았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초상화를 본 적 없었던 프레보는 전날 오랜만에 병실에 들어온 최초의 방문객인, 소독을하고 간 소독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꿈은 쉽게 완전히 해명될 수 있다. 그 끊

임없는 간병보다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 이 꿈의 의미 일 것이다.

이상의 몇 사례를 통해 오직 소망 충족으로 꿈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꿈들을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짧은 간단한 꿈이고, 꿈 연구자들의 주의를 끌었던 혼란스럽고 복잡한 구성의 꿈들과는 눈에 띄게 다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런 간단한꿈을 좀 더 음미할 필요가 있을 성싶다. 제일 간단한 것은 아이들의 꿈이다. 아이들의 심적 능력이 어른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등동물의 구조나 발전의 탐구가 고등 동물의 구조 연구에 유익하듯이 소아 심리학은성인 심리학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소아 심리학을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

어린이의 꿈은 때때로 단순한 소망 충족이다. 그 꿈은 어른의 꿈에 비하여 재미가 없다. 어린이의 꿈은 애써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없으나, 꿈의 본질이 소망 충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는 귀중한 재료가 된다. 나는 아이들의 꿈 실례 몇 가지를 수집할 수 있었다.

나는 (1896년 여름) 아우스제(Aussee)에서 아름다운 할슈타트(Hallstatt)로 소풍을 갔었는데 당시 8년 6개월 된 딸과 5년 3개월 된 아들이 제각기 꿈을 꾸었다. 우리들은 그 여름을 아우스제의 언덕에서 보냈고, 날씨 좋은 날에는 다흐슈타인 (Dachstein)의 훌륭한 조망을 즐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야 하겠다. 지모니 산의 오두막집(Simony—Hütte)이 망원경을 통해서 잘 보였다. 아이들은 몇 번이나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았는지의 여부를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소풍을 떠나기 전에 나는 아이들에게 할슈타트가 다흐슈타인의 아래에 있다고 말해 두었다. 두 아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들은 할슈타트에서 떠나서 아이들이 대단히 즐거워했던 경치가 좋은 에허른 계곡으로 갔다. 그런데 다섯 살 난아이가 기분이 점점 나빠졌다. 새로운 산이 보일 때마다 그 아이는 "저것이 다흐슈타인이야?" 하고 물었다. 나는 그때마다 "아니야, 그 뒤에 있는 산이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풀이했더니 그 아이는 입을 아주 다물어 버렸다. 폭포

로 가는 길에서 그 아이는 함께 가기를 꺼려하는 눈치였다. 지쳤구나 하고 나는 생 각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는 아주 원기 좋게 나에게 와서 어젯밤에 모두 지모 니 산의 오두막집에 간 꿈을 꿨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이해했다. 즉 그 아이는 내가 다흐슈타인에 관해 이야기 했을 때. 그 아이는 할슈타트로 소풍을 가 면 그 산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자주 들었던 산장(Hütte)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풍을 와서. 그 앞의 산들과 폭포로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아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꿈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었 다. 꿈의 세세한 점을 듣고자 했으나 내용이 빈약했다. "여섯 시간이나 걸려서 점 점 올라가는 거야." 하고 그 아이는 전에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할 뿐이었다. 8년 6개월 된 딸도 이번 소풍에 여러 소망을 가졌고. 꿈이 그 소망들을 충족시켜 주었다. 우리들은 이웃의 열두 살 된 소년을 할슈타트에 데리고 갔다. 나의 딸은 이미 한 사람의 기사(騎士)로 보이는 이 소년에게 홀딱 반한 것 같았다. 딸은 이 튿날 아침에 이런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 어젯밤 이런 꿈을 꾸었어. 저 에밀 (Emil)이 우리 집 식구가 되어서 아버지와 엄마에게. 파파·마마라고 하면서 동생과 함께 큰 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마마가 방에 들어와서 파란 종이에 싼 큰 초콜릿을 우리들 침대 밑에 많이 넣어 주었어." 아이들은 아버지인 나에게서 꿈 해 석의 지식을 유전적으로 전수받지 못했으므로, 위에서 말해온 꿈 연구자들과 마 찬가지로 이렇게 말한다. "그런 꿈은 엉터리야."라고, 딸아이는 적어도 이 꿈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엉터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이 어느 부분인지 알게 되면 신경증 이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에밀이 아주 우리 집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우나. 초콜릿은 우스운 일이 아니야." 나는 이 후반부가 이해되지 않았으나 아내가 설명해 주었다. 정거장에서 집에 오는 도중에 아이들은 과자 자 동판매기 앞에서 그런 초콜릿을 탐냈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참말 여 러 가지 소망을 채웠으니 이 소망을 꿈에 남겨 두자고, 나는 이런 것을 몰랐다. 꿈 내용 중에서 딸이 이야기했던 다른 부분은 바로 이해가 됐다. 행실이 훌륭한 에 밀이 길에서 파파나 마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딸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때 에밀이 일시적이나마 우리들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상태를 딸은 꿈에서 계속적으 로 받아들였다. 딸아이의 애정은, 꿈에서 표현된 형제들과의 우애 이외에는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초콜릿을 왜 침대 밑에 던졌는지는 딸에게 캐물어야만 해결될 문제였다.

나는 이와 아주 비슷한 꿈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었다. 꿈꾼 사람은 여덟 살 난 소녀였다. 아버지는 몇 아이들을 데리고 로러 산장(Rohrer—Hütte)을 찾을 생각으로 도른바하(Dornbach)로 소풍을 떠났다. 그러나 너무 늦었기에 되돌아오고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하메아우(Hameau)를 가리키는 도표 (道標) 앞을 지났다. 아이들은 하메아우로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훗날로 미루었다. 다음 날 아침에 여덟 살 난 딸은 만족한 얼굴로 아버지에게 "아빠, 아빠와 함께 로러 산장과 하메아우에 간 꿈을 꾸었어." 하고 말했다. 즉 이 소녀의 기다릴 수 없는 감정은 아빠와의 약속 이행을 미리 꿈에서 실현시킨 것이다.

똑같은 줄거리의 또 하나는, 나의 세 살짜리 딸이 꾼 아우스제의 아름다운 경치의 꿈이다. 이 여아는 처음에 호수를 배로 건너고 배를 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배가 도착했어도 내리기를 싫어하여 울었다. 다음날 아침, 딸은 어젯밤에 호수에서 뱃놀이한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배를 더 오랫동안 타고 있고 싶어서 이런 꿈을 꾼 것이다.

당시 여덟 살의 큰 아들은 이미 자기의 공상을 현실화한 꿈을 꾸었다. 이 아이는 마차꾼이 된 디오메데스(Diomedes)가 끄는 마차를 아킬레스(Achilleus)와 같이 타고 가는 꿈을 꾸었다. 전날에 누나에게 준 희랍 전설을 듣고 그것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꾼 꿈이다.

아이들의 잠꼬대가 역시 꿈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내가 최근에 수집한 꿈 하나를 다음에 소개하려고 한다. 당시 낳은 지 19개월이 된 막내딸이 아침에 토하기에 하루 종일 절식케 했다. 그날 밤에 그 아이는 흥분해서 헛소리를 질렀다. "안나 프. 오이트(Anna F. eud), 따(ㄹ)기(Er(d)beer), 산딸기(Hochbeer), 오므(ㄹ)렛(Eier(s)peis), 빵죽(Papp)"이라고 고함쳤다. 이때 이 딸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물건의 이름으로 표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 잠꼬대 속에서 튀어나오는 음식물의 이름은 자기가 바랐던 것일 것이다. 딸기가 둘로 표현된

것은 가정의 위생 방침에 대한 일종의 시위였는데, 이는 이 아이의 소화 불량의 원인이 딸기를 너무 많이 먹은 데 있다고 유모가 말한 상황을 이 아이도 알고 있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었다. 이 아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형편없는 진단에 복수하고자 꿈에서 계획했던 것이다.<sup>2</sup>

유년 시절엔 성욕을 아직 모른다고 그 시절을 찬양하더라도, 우리들은 생명 충동의 큰 것 하나가 유년 시절에 얼마나 풍부한 환멸·체념, 따라서 꿈 자극의 원천이될 수 있는지를 그릇 인식하지 말자. 출째 예를 들어보자. 생후 22개월의 조카가내 생일에 축하의 말을 하면서 선물로 체리한 바구니를 주는 임무를 맡았다. 체리는 계절적으로 아직 드문 때였다. 이 임무는 작은 조카에게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었다. 즉 그 아이는 언제나 "체리가 들어 있어."라고 되풀이하면서 그 작은 바구니를 손에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이를 보상할 줄을 알았다. 그때까지는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흰 병정'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흰 병정은 그가 바깥에서 본 어떤 흰 외투를 뒤집어쓴 근위 사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일의한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조카는 기뻐하면서 이렇게말했다. 즉 꿈 이야기이지만 "헤(르)만이 체리를 모두 먹었어요(He(r)mann alle Kirschen aufgessen!)."라는 말을 했다.

- 2 그 후 이 어린 손녀와 일흔 살이나 차이가 있는 이 아이의 할머니는 손녀와 똑같은 꿈을 꿨다. 할머니는 신장하수병(腎臟下垂病) 때문에 하루 종일 밥을 굶어야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꿈에서 젊은 처녀 시절로 되돌아가 낮과 밤에 두 차례나 식사에 '초대되어서' 두 번 모두 맛있는 음식이 자기 앞에 차려 져 있는 것을 보았다.
- 3 유아의 심적 생활을 조금 자세히 조사해 보면, 아이의 심적 활동에서 볼 수 있는 유아적 형태의 성적 충동력이 대단히 크고, 다만 오랫동안 간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른들이 나중에 상상하는 유년 시절의 행복을 좀 의심스럽게 한다(《성욕론에 대한 세 논문》 1905년과 1915년 제3판 참조).
- 4 어린아이들은 곧 복잡한, 결코 명랑하다고 말할 수 없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나, 한편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간단한 유아적인 성격과 환경의 꿈이 종종 나타난다. 네 살 부터 다섯 살의 꿈이 이미 얼마나 뜻밖에 내용이 풍부한가를 나의 논문 〈어떤 다섯 살 난 사내아이의 공포증의 분석〉 (브로이라—프로이드 연감, 제1권 1909년)과 융(C, G, Jung)의 〈유아의 영혼의 여러 갈등에 관해서〉 (上揭書 제2권 1910년)에 있는 실례는 표시하고 있다. 정신 분석적으로 해명된 아이의 꿈에 관해서는 이 밖에 폰 후크 헬무트(H, von Hug—Hellmuth), 퍼트남(J, J, Putnam), 랄테(F, van Raalte), 슈필 라인(S, Spielrein), 타우스크(V, Tausk)를 참조하라. 다른 실례에 관해서 비안키에라(F, Banchieri), 부제만(A, Busemann), 도글리아(Doglia), 특히 소아의 꿈의 소망 충족적 경향을 강조한 위갬(A,

동물들이 꾸는 꿈을 나는 모른다. 나의 청강생 중 한 사람에게 들은 속담은 그것을 안다고 한다. 이 속담은 "거위는 어떤 꿈을 꾸는가?" 하고 묻는다. 그 대답은 "옥수수 꿈을 꾸지."5라고 대답한다. 꿈은 소망 충족이라는 이론은 이 문답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sup>6</sup>

Wigam)을 보시라. 그런데 어른들은 특히 그들이 이상한 생활의 여러 조건 밑에 옮겨지면 소아적인 꿈을 꾸는 듯하다. 오토 노르덴쇨트(Otto Nordenskjöld)는 그의 저서 《남빙양(南氷洋》》(1904년)에서 그와 함께 겨울을 지낸 탐험 대원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한다(제1권), "바로 현재와 같이 활발하고 풍 부한 적이 없었던 우리들의 꿈은, 우리들의 깊은 관념의 방향에 극히 특색적이었다. 보통 매우 드물게 밤에 꿈을 꾸지 않는 대원들이 아침에 긴 꿈 이야기를 했다. 그 꿈들은 모두 우리들에게는 먼 과거가 된 바깥 세계에 관한 것이었으나, 종종 우리들의 현재 생활 상태에 적합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꿈이 있었다. 대원의 한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 특히 수업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작은 바 다표범(海豹) 모형의 가죽을 벗기는 숙제를 맡는다.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한 꿈을 가장 빈번히 꾸었다. 대원의 한 사람은 꿈에 큰 오찬회에 가는 데 누구보다도 뛰어났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대단히 기뻐했다. 나는 접시 세 개나 나오는 점심을 먹었다고. 다른 한 대원은 산같이 쌓인 담배 꿈을 꾸었다. 또한 대원은 모든 돛을 펴고 바다 위를 달리는 배 꿈을 꾸었다. 또 다른 한 꿈 은 이렇게 말한다. 편지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실은 배달이 잘못 되어서 이 편지가 이렇게 늦 었는데 큰 수고 끝에 겨우 가지고 왔노라고 길게 변명하였다. 물론 사람들은 이보다 더 불가능한 일을 꿈에서 할 수 있으나, 나 자신이 꾸고 또 들은 거의 모든 꿈은 공상이 아주 뚜렷하게 적었다. 이런 꿈 을 모두 기록하여 두면 그것은 확실히 큰 심리학적 흥밋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잠은 우리들이 모두 바 라고 있는 것을 가져다주므로, 모두가 잠을 얼마나 바랐는가는 쉽게 이해될 것이다." 뒤 프렐에 따라 나는 또 이렇게 인용한다. "문고 파르크(Mungo Park)는 아프리카 여행 중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 이었을 때에, 끊임없이 물의 혜택을 받은 자기 고향의 골짜기와 들의 꿈을 꾸게 되었다. 또 배고픔에 고생한 트렌크(Trenk)는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 있는 슈테른 성채에서 호화로운 음식에 둘러 싸인 꿈을 꾸었고. 프랭클린(Franklin)의 첫 탐험대의 한 대원인 조지 백(George Back)은 무서운 결 핍 때문에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풍족한 음식물의 꿈을 계속 꾸었다."

- 5 페렌치가 인용한 형가리의 격언은 보다 완전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돼지는 떡갈나무 열매를, 거위는 옥수수의 꿈을 꾼다." 유대인의 속담은 이렇다. "닭은 무슨 꿈을 꾸는가—수수의 꿈을((베른슈타인 (I. Bernstein)편(編) 《유대 이언(俚諺) 대집》제1판)."
- 6 나는 꿈이 소망 충족이라는 주장을 나 이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생각은 아니다(다음 장의 서두를 참조), 이런 암시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는 옛 사람으로 프톨레마이우스(Ptolemäus) 치하에 살았던 의사 헤르포필로스(Herophilos)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헤르포필로스는 뷕센쉬츠에 의하면 꿈을 신이 보낸 꿈, 영혼이 자신에게 유익한, 또 일어날 것의 형상을 자기에게 보임으로써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꿈,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꿈꿀 때 여러 형상의 접근에 의해서 스스로 생기는 혼합된 꿈으로 삼분(三分)했다. 슈테르케(J. Stärcke)는 셰르너의 실례 수집 중에서 셰르너 자신이 소망충족 꿈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 하나를 표명하였다. "꿈을 꾸는 여자의 깨었을 때의 소망을 공상이 바로 채워 주는 까닭은 그 소망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꿈은 '기분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우리들이 언어 관례(言語慣例)만을 따지면서 우리들은 꿈에 감추어진 뜻에 관한 우리들의 견해에 최단거리로 도달한 것을 알게 된다. 일반적인 언어는 흔히 꿈을 멸시하여 말하나—"꿈은 거품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이 꿈에 대한 학문을 정당화한다고 생각된다—언어 관례에서 꿈은 주로 애교 있는 소 망 충족자이다. 실제로 자기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몹시 기뻐 하며 "나는 그것을 참으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소리를 지른다.

꿈'이다. 이 소망의 꿈에 가까운 것은 '남자나 여자의 연애 동경'의 꿈과 '불쾌한 기분'의 꿈이다. 다 알다시피 셰르너는 꿈의 생성에 관해서 깨었을 때의 이전의 심적 상태 이외의 다른 의미를 소망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고, 더욱이 소망을 꿈의 본질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꿈의 왜곡

# 제 4 장 꿈의 왜곡

모든 꿈의 뜻은 소망 충족이고. 소망의 꿈 이외에는 꿈이 있을 수 없다고 내가 주 장한다면, 틀림없이 나는 맹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반대할 것이다. "소망 충족으로 인정되는 꿈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바이다(라데슈토크, 폴켈트, 푸르키니에, 티시에, 시 몽(감옥 중의 트렌크 남작의 굶주리는 꿈), 그리징어)." 그러나 소망 충족의 꿈 이 외에는 꿈이 없다는 것은 부당한 보편화이고. 그런 설(說)은 다행히 쉽게 반박될 수 있는 것이다. 극히 불쾌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소망 충족의 기미가 아주 없는 꿈의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비관론의 철학자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Eduard v. Hartmann)은 소망 충족의 최강의 반대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무의식의 철 학》 제2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꿈에 관해서 말한다면 깨어 있는 생활의 일 체의 괴로움은 잠의 상태에도 꿈과 더불어 나타나지마는, 교양인에게는 이 인생을 견디기 쉬운 것으로 만드는 학문의 향락과 예술의 향락 이 두 가지만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불만이 덜한 관찰자도 꿈에는 쾌락보다 고통이나 불쾌가 번 번이 나타나는 사실을 강조한다. 숄츠 · 폴켈트와 그 밖의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 뿐 아니라. 사라 위드(Sarah Weed) · 플로렌스 핼럼(Florence Hallam) 두 여성은 자기들의 꿈을 조사하고 꿈에는 불쾌가 우세하다는 통계를 냈다. 즉 그 여자들은 수집한 꿈의 58%는 불쾌한 꿈이고, 겨우 26%만이 유쾌한 꿈이라고 한다. "일상 생활의 복잡다기(複雜多岐)한 고통감을 수면 중에 가져오는 이 꿈 외에도 불쾌감 속에서 우리들을 잠에서 깨울 정도로 강렬하고 가장 불쾌한 감정의 불안 꿈이 있 다. 더욱이 앞에서 우리들이 소망 꿈이 가장 순수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던 아이들 이야말로 그런 불안 꿈에 가장 잘 습격당한다(예컨대 밤중의 공포, 야경증(Pavor nocturnus)에 관해서는 드바케르(F. Debacker)를 참조할 것)."

<sup>1</sup> 이미 신(新)플라톤의 플로티노스(Plotin)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욕정이 움직이면 공상이 생기고, 공 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욕정의 대상을 나타내어 보여 준다(뒤 프렐)."

사실상 이 불안 꿈은 우리들이 앞장의 여러 실례에서 결론을 내린 '꿈은 소망 충족 이다'라는 명제를 일반화할 수 없게 하는 듯하다. 아니 이 명제를 부조리한 것으로 비웃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런 그럴듯한 반감을 물리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견해는 꿈의 현재 내용을 평가하는 데 기초를 두지 않고, 해석의 작업에 의하여 꿈의 배후에 인식되는 사상 내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꿈의 현재 내용(顯在內容)과 잠재 내용(潛在內容)을 비교·대조하기로 하자.

가장 고통스러운 현재 내용의 꿈이 있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누가 이 꿈을 해석하고 꿈의 잠재 내용을 밝히려고 시도했던가? 그러나 이때까지 시도한 일이 없다면, 앞에서 반박한 두 가지 이론은 우리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다. 고통스러운 꿈이나 불안의 꿈이,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망 충족이었을는지도 알 수 없다.<sup>2</sup>

학문적 연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할 때, 거기에 또 제2의 미해결 문제를 가지고 오면 유리할 때가 때때로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고통의 꿈이나 불안의 꿈이 어떻게 소망 충족(즉 쾌락의 꿈)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제2의 문제를 여기에 제출해 보자. 즉 "표면상으로는 보잘것없으나 잘 살펴보면 소망 충족으로 판명될 내용의 꿈이 왜 처음부터 이 소망 충족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지 않는가."라고. 앞서 상세하게 소개한 이르마의 주사 이야기의 예를 인용해 보자. 그꿈은 결코 고통의 성격을 가진 꿈이 아니다. 그 꿈을 해석한 결과 소망 충족임을 알았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석이 필요할까? 왜 꿈은 그 뜻을 직접 우리들에게 알리지 않을까? 실제로 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이 그 꿈의 당사자의 소망

2 독자들과 비평가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이런 고찰을 거부하고, 꿈의 현재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과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설리(James Sully)의 논문〈계시로서의 꿈〉의 다음 문구만큼은 나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인용했다 하여서 이것의 가치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즉 "결국 꿈은 초서나 셰익스피어나 밀턴 등의 권위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주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밤의 공상의 혼돈된 집합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을 준다. 암호로 쓰인 문자와 같이 자세히 조사해 보면 꿈의 문자는 마치 잠꼬대와 같은 처음의 외관을 잃고 진실하고 지적인 소식의 면목을 보여 준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한 번 글자를 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쓴 재기사본(再記寫本)과 같이 꿈은 그 무가치한 표면 적 성격 밑에 어떤 낡은 귀중한 소식의 흔적을 나타낸다."

충족을 뜻하는 인상을 처음에는 주지 않았다. 독자들도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나 자신도 해석하기 전에는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설명을 요하 는 이런 꿈의 설명 방법을 '꿈 왜곡의 사실'이라 하면, 이제 제2의 의문이 생긴다. 이 꿈의 왜곡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예컨대, 꿈의 사상에 적합한 표현을 수면 중에는 만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꿈의 분석은 우리들로 하여금 꿈의 왜곡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이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 나는 역시 나 자신의 두 번째 꿈을 예시하고자 한다.이 꿈 역시 많은 개인적인 비밀 누설을 요한다. 나로서는 꿈을 뚜렷하게 고백하고 싶진 않지만, 문제를 철저히 해명함으로써 내 개인의 희생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서언

1897년 봄, 우리 대학의 두 교수가 나를 조교수에 임명할 것을 제의했음을 소문으로 듣고 알았다. 이 이야기는 나로서는 돌발적이었다. 사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두 훌륭한 학자가 나를 인정한 사실은 나를 대단히 기쁘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것은 당국이 이 몇해 동안 이런 제의를 취급할 형편이 아니었고, 나의 선배이며 업적으로 보더라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임명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만이 아무 거침없이 진행될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부족하나마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기에 명예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 여하간 목표가 너무 멀리 있었기에, 그것을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쑥스러운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나의 친한 동료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이 동료는 내가 모범으로 삼 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우리들의 친구 중에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환자들의 눈으로 본다면 거의 신(神)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으며, 이 남자는 오랫동안 교수 임

명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와 같이 단념하지 않고 때때로 본부에 나가서 자기 일이 진척되도록 작업을 계속했다. 그날 밤도 낮에 본부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는 자기가 그날 장관에게 자신의 교수 임명이 늦어지는 까닭이 혹시 자기의 종파 때문 인가를 물었다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장관은 현 정세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어떤 차례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척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며 그 친구는 말을 끝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은 나의 단념하려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였다. 같은 종파상의 난점은 나의 경우에도 해당되었기 때문이었다.

- 이 방문이 있은 다음 날 아침에, 형식상 주목할 만한 꿈을 꾸었다. 이 꿈은 두 개의 관념과 두 개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관념과 형상이 하나씩 서로 엇갈려 있다. 그 러나 나는 여기서 이 꿈의 전반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후반부는 이 꿈을 소개하는 목적과 관계없기 때문이다.
- (1) 친구 R은 나의 백부이다.—나는 그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친애감을 가지고 있다.
- (2) 그의 얼굴이 조금 다른 듯 보인다. 얼굴이 길어진 것 같다. 얼굴을 둘러싼 노란 수염은 특히 뚜렷하게 눈에 띈다.
- 이것으로부터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형상이 이어지는데, 즉 후반부 내용이다. 나는 이것은 생략하려고 한다.
- 이 꿈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행해졌다.
- 오전 중에 이 꿈을 생각했을 때,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개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하루 종일 이 꿈은 나를 쫓아다녔다. 저녁에 나는 자신에게 이런 비난을 하였다. "너는 네 환자 중 누군가가 꿈의 해석에 대해 아무 의미도 없는 꿈이라고 말할 뿐이라면, 너는 환자를 위로하면서, 그 꿈 뒤에 어떤 불쾌한 일이 숨어 있어 환자가 그것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너 자신에 대해서도 네가 그와 똑같은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꿈이 개꿈이라고 하는 너의 의견은 다름 아닌 꿈 해석에 대한 내심의 반항을 뜻하는 것이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나는 꿈 해석에 착수한 것이다.

'R은 나의 백부이다.'는 무슨 뜻일까? 나에게는 요제프(Josef)란 백부 한 분 밖에

없다. <sup>3</sup> 이 백부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있다. 30년 전에 돈벌이하다가 법망(法網)에 걸렸다. 내 아버지는 그 걱정으로 며칠 새 흰머리가 더 늘었고, 요제프 백부는 조금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다만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서 친구 R이 나의 백부 요제프라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R은 생각이 좀 모자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쾌한 일이다. 그러나 꿈속의 얼굴은 물론 R보다는 길고 노란 수염을 기르고 있다. 백부는 실지로 깨끗한 금빛의 수염으로 길게 얼굴을 두르고 있었다. 친구 R의 머리털은 매우 까맸다. 그러나 새까만 머리칼은 백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젊었을 때와는 아주 다른 보기 싫은모양이 된다. 검은 머리 하나하나가 어떤 불쾌한 색으로 변하면서, 즉 적갈색이 되고, 다음에 노란 감색으로, 다음에 회색이 된다. 친구의 수염은 마침 이 회색의 단계에 있었다. 나의 수염도 섭섭하지만 벌써 그런 빛깔이 되었다. 저 꿈속의 얼굴은친구 R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백부의 얼굴이기도 했다. 그 얼굴은 가족들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몇 사람의 얼굴을 같은 한 장의 건판(乾板) 위에 촬영하는 갈톤(Galton)의 복합사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친구 R을 요제프 백부와 같이 우둔하다고 생각한 것은 확실하다.

나는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관계를 어떤 목적으로 안출(案出)하였는지 아직 전혀 알지 못한다. 이 관계(백부와 친구)는 그다지 깊지 않다. 왜냐하면 백부는 범죄자이고, 나의 친구 R은 청렴결백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 R은 오토바이로 학생을 치어서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했을까? 그러나 이것은 달과 자라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때 생각난 것이 있었다. 같은 제목으로 나는 며칠 전에 다른 동료 N과 함께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 나는 N을 길에서 만났다. N도 교수 후보자이다. N도 역시 내가 추천을 받은 것을 축하해준다. 이 축하의 말을 나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이야말로 이런 제의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실 터인데,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말했다. 진심은 아닌

<sup>3</sup> 이런 경우, 나의 기억—깨어 있을 때—이 분석의 목적으로 보아서 제한된 것임은 주목할 만하다. 나는 백부 중에서 다섯 분 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중의 한 분을 특히 좋아하고 존경하였다. 그런데 꿈 해석에 대한 내심의 반항을 극복한 그 순간, 나는 "내게는 백부 한 분밖에 없다. 즉 꿈에서 본 백부가 그분이다."라고 말하였다.

듯하나 N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 으니까요.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한 번 나를 고소했지요. 그래서 조 사를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고소한 상대 여자가 처벌 받는 것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어 그 여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 나 관청은 나를 임명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을 역이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기 에 나는 교수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청렴결백하시니까." 이제 나는 만사를 알 수 있었다. 이 꿈에서 백부 요제프는 교수에 임명되지 않은 두 동료로. 즉 하나는 모자란 사람으로 또 하나는 범죄자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하였는가를 알게 되었다. 만일에 친구 R과 N의 교수 임명이 늦어지 는 이유가 '종파상'의 난점에 있다면, 나의 임명도 의심스럽게 된다. 그러나 두 사 람의 교수 임명의 거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이유가 나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충분히 희망이 있는 셈이 된다. 나의 꿈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즉 한쪽의 R을 바보로, 다른 한쪽의 N을 범죄자 로 취급했다. 나는 어떤가 하면 여기서 어느 쪽도 아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공통점 이 없다. 나는 즐겁게 교수 임명을 기다려도 괜찮다. 이래서 R의 보고, 즉 장관이 그에게 알려 준 것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에서 나는 벗어난 것이다. 나는 이 꿈 해석을 계속해야 한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스럽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존경하는 두 친구를 치탈(褫奪)한 나의 안 이한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물론 내가 취한 그 방법은 불만스러운 것이나. 꿈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평가할 줄 알게 된 이후, 그 불만은 상당히 누그 러졌다. 내가 진심으로 R을 바보로 생각하고. 또 내가 N의 협박 사건에 관한 이야 기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소리 높여 항 의할 것이다. 또한 나는 오토가 프로필렌 제제의 주사를 놓았기에 이르마의 병환 이 심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두 경우의 나의 꿈 표현은 '그렇게 되어 주 기를'이란 나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을 충족시켜 준 나의 주장은, 꿈의 후반부에서 가 전반부에서보다 부조리하지 않다. 나의 주장은 후반부에서는 사실상의 실마리 를 오묘하게 이용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어떤 까닭이 있는 듯한' 오묘한 방법과 같다. 왜냐하면 R은 당시 R의 교수 임명에 대한 학과 주임 교수의 반대투표를 받았고, N은 상술한 중상(中傷)적 사건을 악의 없이 내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되풀이해 말하지만, 나는 이 꿈에 대해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내가 고려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나는 R을 백부로 생각한 뒤에, 꿈에서 그에 대하여 친애의 정을 느꼈다. 이 감정은 어떻게 생겼는 가? 백부 요제프에게 나는 정을 가진 적이 없다. 나는 친구를 그전부터 경외했다. 그러나 꿈에서 가졌던 R에 대한 친애의 정을 실지로 R에게 전한다면. 그는 이상 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R에 대한 나의 친애감은 진짜가 아니고 과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R을 백부 요제프와 혼동하여 표현하려던. 그의 모든 정신적 능력 에 대한 나의 판단 역시도 진짜가 아니고 과장된 것이다. 과장과대(誇張誇大)라고 말했으나, 과장된 의미는 정반대의 뜻을 지닌다. 이제 새로운 사실을 어렴풋이 깨 닫게 된다. 꿈에서 내가 느낀 친애감은 잠재적 내용의 친애감이 아니다. 꿈의 배후 에 있는 사상에 속하지 않는, 대립적인 것이다. 그것은 꿈의 참뜻을 감추는 것이 다. 아마 이 감추려는 것이야말로 이 친애감의 본시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생각나 는 것인데, 처음에는 꿈 해석의 착수가 싫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연기하려고 하고, 이 꿈을 무의미한 것으로 배척했다. 나의 정신 분석적 치료에서 나는 이런 거부적 비판이 어떤 뜻을 감추고 있는가를 알았다. 이런 거부적 비판은 어떤 의식 상의 가치가 아니라. 다만 감정 발로(發露)의 가치를 갖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는 다. 예를 들면 나의 작은 딸이 사과를 권해 받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 먹어 보 지도 않고 그 사과가 시다고 생각한다. 나의 환자들이 이 딸과 같이 행동한다면 그 때에는 억압하려는 어떤 관념이 존재한다. 같은 일이 나의 꿈에도 들어맞는다. 내 가 이 꿈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분석할 경우 나에게 무엇인가 불쾌한, 납 득하기 어려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싫어한 것은 R이 바보라는 주장이었 다. 내가 R에게 느낀 친애감은 꿈의 잠재적 사고가 아니라. 나의 반항에서 비롯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꿈이 잠재적 내용과 비교해 이 점에서 왜곡되었다면, 더 욱이 정반대로 왜곡되었다면, 꿈에서의 이 현재(顯在)적 친애감은 날조(捏造)된 것 이다. 왜곡은 고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변장의 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나 의 꿈 사상은 R에 대한 비방을 포함하고 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이 비방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방과는 정반대의 것, 그에 대한 친애의 정을 꿈에 들여온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들어맞는 사실일는지도 알 수 없다. 제3장의 실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소망 충족을 표현하는 꿈도 물론 있다. 소망 충족이 변장해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기에는 소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에 반항하는 소망은 즉 왜곡되어 꿈에서 표현된다. 나는 심리 내부의 상태를 견주어본 현상을 사회생활 속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이런 심적 활동과 비슷한 왜곡은 사회생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것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권력을 쥐고 있고,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은 그런 권력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둘 중에서 후자가 그 심적 행위를 왜곡하거나, 우리들의 표현법을 빌면, 변장한다. 내가 매일 행하는 예절은 대부분 이런 변장이다. 내가 독자들을 위해서 나의 꿈을 해석할 때에, 나는 부득이 이렇게 왜곡한다. 이런 강제적 왜곡에 대해 시인(괴테) 역시 탄식하고 있다.

네가 알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노라.

권력자에게 불쾌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정치적 문필가도 이와 같은 사정에 있는 것이다. 그가 숨기지 않고 말하면, 권력자는 그의 언론을 탄압할 것이다. 만일에 그것이 구두 토론이고 나중에 문서인 경우에 문필가는 예방적으로 검열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표현을 부드럽게 하거나 왜곡한다. 문필가는 검열의 강약에 따라서 공격의 어떤 형식을 보류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암유(暗喻)하여, 변장의 배후에 자신이 말하려는 것의 가시를 감춘다. 예컨대자기 나라의 관리를 염두에 두면서, 중국의 두 대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논하는 따위이다. 검열이 횡포할수록 변장은 점점 오묘하게 되어, 독자에게 원래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수단은 점점 기지를 더해 가게 된다.4

문서 검열의 현상과 꿈 왜곡의 현상이 극히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양측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우리 들은 꿈을 형성하는 근원으로 개개인의 두 심적 힘(흐름ㆍ체계)을 가정할 수 있다.

4 폰 후크-헬무트 박사는 1915년(《의학 정신 분석 국제 잡지》 제3권)에 어떤 꿈을 보고하였다. 이 꿈은 나의 명명(命名)의 정확성을 정당화하는 데 알맞은 실례가 될 것이다. 이 꿈에서 꿈 왜곡은 마치 우편 물 검열이 적당하지 않은 곳을 삭제하는 데 쓰는 수단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우편 검열에서는 그런 곳을 지워버리지마는 꿈 왜곡에서의 검열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중얼댐으로 대신한다. 이 꿈의 이해를 위해서 다음 사실을 미리 말해두자. 이 꿈을 꾼 여자는 50세의 명망 있는 훌륭한 부인이고 고 급 사관이었던 남편과 약 12년 전에 사별한 미망인이다. 이 미망인은 자식들을 다 기르고, 그 중의 한 자식은 이 부인이 이 꿈을 꾸었을 때에는 어떤 직장에 있었다. 이제 '사랑의 봉사(Liebesdienste)'에 관한 꿈에 관해 언급하자, 그 여자는 제1 위수병원(衛成病院)에 가서 위병(衛兵)에게 위수병원에서 봉 사하고 싶으므로 군의장을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이름을 말했다) 만나게 해달라고 말한다. 이때 이 여자는 '봉사(Dienst)'란 말을 강조하였으므로 위병은 이것을 '사랑의 봉사'로 생각했다. 이 상대가 늙은 부인이었기에 조금 주저하였으나 위병은 통과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군의장에게 가지 않고 어두컴컴한 큰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긴 책상을 둘러싸고 사관들과 군의들이 서 있거나 앉 아 있었다. 이 여자는 일등 군의를 붙잡고 앞에서의 희망을 말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여자의 뜻을 알 았다. 그때에 그 여자는 꿈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 비에나의 많은 부인이나 젊은 처녀들은 병졸ㆍ 군속·장교의 구별 없이 언제나 기쁘게·····." 여기서 꿈속에서 중얼댐이 계속된다. 그러나 이 중얼댐 의 뜻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챘다는 것을, 사관들의 일부의 놀라움과 일부의 음험한 태 도로써 알았다. 그 여자는 말을 계속했다. "이런 우리들의 말은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마는 우리들 은 진심입니다. 전장에 있는 병정들에게 죽을 생각이 있는지 물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몇 분 동안 고통스러운 침묵이 계속된다. 일등 군의가 그 여자의 허리에 팔을 감고 이렇게 말한다. "부인, 당신이 그것을 받아주시지요. 사실 그렇게 될 것이요.……." (중얼댐)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상 대방에게서 몸을 멀리 한다. "결국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한가지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다. "저 는 늙은 할머니라 그렇게는 안 되지요. 여하튼 조건은 지켜야지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지요. 늙은 부 인이 아주 젊은 청년과 …… 하여서는 안 되지요. (중얼댐) 그런 일은 수치스러워서……." 일등 군의 관은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옛적에 그 여자에게 구혼(求婚)한 사관도 끼어 있었던 두서너 명의 사관들은 큰 소리를 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여자는 만사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알 고 있는 군의장에게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그때에는 그 군의장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그 부 인은 매우 놀랐다. 그러나 일등 군의관은 대단히 공손하게 그 방에서 위층으로 통하는 좁은 나선 계단 을 올라가서 2층에 가도록 가리켰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 아래층에서 장교 한 사람이 "대단한 결심 이다. 부인의 나이는 문제도 아니다. 모두들 조심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단순히 자기의 의무 를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자는 끝없는 계단을 울라갔다. 이 꿈은 두서너 주일 동안에 두 번이 나 되풀이되었다. --이 부인이 말하듯이--아주 자세한, 정말로 무의미한 차이는 있었으나 되풀이되었 다.

둘 중에 하나는 꿈을 통해 나타나는 소망을 형성하고, 다른 하나는 이 꿈의 소망을 검열하고, 이 검열을 통해 그 표현의 왜곡을 강요한다. 그래서 문제는 다만 이 제 2의 심급에서의 검문 · 검열을 행사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게 된다. 그리 하여 우리들은 의식의 '본질'에 관해서 아주 독특한 견해를 세우게 된다. 즉 의식의 과정은 생각하거나 표상하게 되는 과정과는 다른, 독립적인 특별한 심리적 활동이며, 의식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지각하는 감각 기관으로 나타난다. 정신 병학에 있어서 그러한 근본적 가정이 불가결한 것임은 뚜렷하다. 그런 여러 근본적 가정의 상세한 연구는 나중으로 미루어두기로 하자.

내가 두 개의 심적 심급 및 이들과 의식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내가 꿈에서 R에 대해 느낀 조심할 만한 친애감과—더욱이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R은 멸시당하고 있다—아주 유사한 경우를 정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에 사로잡힌 한 군주와 활발한 여론이 서로 다투고 있는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자. 민중은 그들에게 좋지 않은 관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 관리의 파면을 요구한다. 그럴 때에이 군주는 자신이 국민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아무런이유 없이 그 관리를 표창할 것이다. 그것은 제1 체계의 소망 노력은 친구 R을 현재 바로 문제가 된 특별한 관심 때문에 바보로 모욕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제2심급, 즉 의식으로의 입장을 통제하는 심판소는 친구 R을 관대한 친애감의 분출로 표창한 것이다. 5

우리들이 여태까지 아무런 소용없이 철학에 기대하였던 심적 기관의 구조에 관한 해명이, 꿈 해석에서 얻어질 수 있으리라고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꿈 왜곡의 설명을 끝낸 현재. 또다시 우리

5 이런 위선적인 꿈은 누구에게나 결코 드문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학문적 문제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에 계속적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은 옛날에 벌써 인연을 끊은 친구와의 화해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다섯 번인가 여섯 번, 같은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이 꿈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이 꿈의 참 뜻은, 문제의 친구에 대한 우정의 최후의 한 조각을 버려라,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라는 권장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그 반대물로 변장하고 있다. 나는 전에 어떤 인물에 관한하나의 '위선적 오이디푸스 꿈'을 보고한 적이 있다. 이 꿈속에서 꿈의 잠재적 내용인 적대적인 기분의 움직임이나 죽음을 바라는 기분은 현재적 친애로 대체된다((어떤 위선적 오이디푸스 꿈의 전형적 실례》)). 위선적인 꿈의 다른 종류에 관해서는 나중에 논하자(제6장 〈꿈의 작업〉을 보라).

들의 최초의 문제로 되돌아가련다. 문제는 이렇다. "도대체 고통스러운 내용을 가진 꿈이 어떻게 소망 충족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가." 꿈 왜곡이라는 것이 행해지고, 고통 내용이 쾌락 내용의 변장으로서만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두 심적 심급에 관한 가설을 고려하면서 우리들은 지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고통의 꿈은 사실상 제2 심급에게는 불쾌한 것, 그러나 동시에 제1 심급의 소망을 채우는 어떤 것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통의 꿈은, 모든 꿈이 제1 심급에서 온 것이고, 제2 심급이 꿈 자체에 대해서 방해하고 결코 창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모두가 소망 충족의 꿈이다. 제2 심급이 꿈에 기여하는 것만을 눈여겨본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까지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수수께끼는 모두 영원히 수수께끼대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꿈이 실제로 감추어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감추어진 뜻이 소망 충족이라는 것, 이것은 해석에 의해 모든 경우에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래에서 몇 가지 고통의 꿈을 소개하여 그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 일부는 히스테리 환자의 꿈이므로 긴 전제가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히스테리증의 여러 심적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할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한 신경증 환자를 분석적으로 치료할 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환자의 꿈은 반드시 의사인 나와 환자와의 대화의 주요 주제가 된다. 그때에 나는 환자를 향해서 (그 도움에 의해서 내가 그 환자의 신경병적 여러 증세를 이해하게 되는) 모든 심리학적인 해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환자는 나의 말에 대하여 용서 없이 비판한다. 그것은 동업자 사이에서도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날카로운 비판이다. 내가 "꿈은 모든 소망 충족이다."라고 하면, 환자들은 마치 단합이라도 하듯이 "그런 바보 같은!"이라고 말한다. 나를 통해서 반증으로 가져온 꿈의 재료 중의 몇 실례를 들어보자.

"선생은 늘 꿈이 충족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어떤 머리 좋은 여환자가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주 반대되는 내용의 꿈을 선생에게 이야기해 드릴까 요. 즉 그 꿈에서는 나의 소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선생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될까요. 꿈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분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고자 한다. 그러나 훈제 연어가 조금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시장에 나가려고 했으나 오늘은 일요일, 더욱이 오후였으므로 상점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져다주는 상점에 두세 번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고장이다. 그래서 그날 초대하고 싶었던 내 소망을 포기해야 했다." 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그 꿈은 듣는 바대로 훌륭하게 맥이 통해서 소망 충족의 정반대인 것같이 보이나, 해석해 보아야 그 꿈의 참된 뜻을 말해 드릴수 있다고. "이 꿈은 어떤 재료에서 온 것일까요? 꿈의 계기는 언제나 전날의 여러 사건 중에 있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 분석

이 여환자의 남편은 솔직하고 부지런한 고기 도매상인이다. 전날에 이 남편은 그여자를 보고, 요즈음에 몸이 뚱뚱해져서 체중을 줄여야겠다고 말하며, 일찍 기상해서 운동하고, 미식(美食)을 피하고, 특히 밖에서의 저녁 만찬 초대에는 응하지않겠다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자기 남편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남편은 단골 술집에서 한 화가와 알게 되었다. 이 화가가 꼭 남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였다. 이렇게 표정이 풍부한 두상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거친 태도로 "당신의 의사는 고맙지만, 예쁘고 젊은 소녀의 엉덩이가 내 얼굴보다 훨씬 당신에게 좋을 것이요."라고 대답했다. 그 여자는 지금 남편에 정을 쏟고 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리광도 피운다. 그 여자는 "저에게 캐비아(kaviar)를 주지 마셔요." 하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캐비아란 무엇을 뜻할까? 즉 그 여자는 전부터 매일 오전 중에 캐비아를 바른 빵을 먹고 싶었으나 과분하다는 생각으로 그러지를 못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그것을 청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오랫동안 남편에게 어리광을 피울 수 있도록 그

<sup>6 &#</sup>x27;미인의 엉덩이'는 '모델이 된다'의 뜻. 괴테의 글 중에 "엉덩이가 없다면 귀인이라도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남편에게 부탁했다.

이것은 나에게는 근거가 박약하게 보인다. 보통 이런 불충분한 설명의 배후에는 고백하고 싶지 않은 동기가 숨어있는 법이다. 베른하임(Bernheim)의 최면술 실험에서는 최면 상태의 환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환자는 깬 뒤에야 그 명령을 실행하는데,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물으면, 환자는 왜 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지는 않고, 그것에 어떤 까닭을 붙인다. 이 캐비아의 예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그 여자는 생활하면서 충족되지 않는 소망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여자의 꿈 또한 소망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소망을 바랄까?

여태까지의 생각만으론 꿈을 해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이 여자는 저항을 극복하려는 것과 같이 잠시 침묵한 뒤에 또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그 여자는 이 친구를 조금 질투했다. 남편이 늘 이 여자를 칭찬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부인은 대단히 말랐었다. 그런데 남편은 뚱뚱한 여자를 좋아했다. 이 여자는 좀 더 뚱뚱해졌으면 하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언제 당신은 우리들을 초대하시렵니까? 당신 댁의 음식은 언제나 맛이 좋으니 말입니다."

이제 이 꿈의 뜻은 밝혀졌다. 나는 여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친구가 초대하라고 말했을 때에 당신이 생각한 것과 같다. '물론 나는 당신을 초대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집에서 먹고 뚱뚱해져서 나의 남편에게 한층 더 마음에 들게 된다. 이제 저녁 식사 초대를 단념해야지.' 그러면 꿈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없어요.' 따라서 친구에게 살이 찌고 몸이 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란 무엇 하나 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소망을 충족시킨 것이다. 당신은 남편이 식이요법을 위해 사람들의 초대를 거절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만찬에 초대받아 먹는 음식 때문에 살이 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결론은 불완전하다. 결론을 맺어야 꿈 해석이 완전해지는데, 아직 꿈 내용에서 훈제 연어가 확실치 않다. "저 훈제 연어는 어떻게 꿈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런데 나도 우연히 그 여자 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 여자 친구가, 바로 나의 환자 가 캐비아를 과만(過滿)한 것으로 생각하여 먹지 않듯이 연어에 돈을 쓰고 싶어 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꿈은 더 미묘하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해석은 부수적 인 사정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 두 해석은 일체의 정신병적 증세와 같이 꿈이 일 반적으로 이중의 뜻을 보여 준다는 훌륭한 사례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의 환 자는 소망 거부의 꿈을 꾸는 동시에. 거부된 소망의 충족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내 려고 노력한다(캐비아의 빵). 그 여자 친구도 더 살이 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들은 이 부인이 여자 친구의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 꿈을 꾸더라도 조금도 의심하 지 않음 것이다. 즉 이 여자 친구의 소망이 (더 살이 찌기를 바라는) 충족되지 않는 것이 이 환자의 소망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대신에 자신의 소망이 충족되지 않 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만일 꿈속의 그 여자가 자신이 아니라 그 여자 친구였더라 면, 즉 그 여자가 그 여자 친구를 대신하여 자신을 꿈속에 나타낸 것이라면, 즉 자 기 자신을 그 여자 친구와 '동일시'한 것이라면, 우리들은 이 꿈을 새로이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나는 나의 환자가 동일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동일시의 표시 로서 그 여자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만하지 않는 하나의 소망을 만 들어냈다. 그러나 이 히스테리성 동일시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자 세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일시는 히스테리의 여러 증세의 기구(機構)에 있어 서 극히 중대한 계기가 된다. 동일시를 이용해 환자는 자기 자신의 여러 경험뿐 아 니라 많은 인간의 여러 체험을 그들의 히스테리의 여러 증세 속에서 재현하고. 말 하자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대신해 고민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동일시를 통해. 자기 혼자서 한 연극의 모든 역할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면 사 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항의할 것이다. "그것은 다 아는 히스테리의 모방이 아닌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 히스테리 환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일체의 증 세를 모방하는 히스테리 환자의 독특한 능력, 말하자면 재연(再演)으로까지 높아 진 공감이 아닌가?"라고. 그러나 이러한 항의는 히스테리 모방에 있어 심적 과정 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경로를 보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 로와 그 경로에서 이루어지는 심적 활동은 각기 다른 것이다. 후자는 사람들이 곧 잘 상상하여 결정하는 히스테리 환자의 모방보다 좀 더 복잡한 것이다. 어떤 독특 한 경련을 일으킨 한 부인 환자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병원의 한 방에 넣어두었는 데, 이 독특한 히스테리의 발작을 다른 환자들이 모방한다. 다른 환자들이 이 발작 을 목도하고 그것을 모방하였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심리적 전염이다. 의사는 뚜렷 하게 판단한다. 전염은 다음과 같이 행하여진다. 환자들은 보통 의사가 환자 한 사 람 한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서로를 더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의사의 회진 이 끝나면 서로 증세를 걱정한다. 그러는 중에 한 환자에게 발작이 일어난다. 그리 고 그 원인은 집에서 보낸 편지이거나 또는 새로 시작된 연애에서 비롯된 괴로움 에 있었다는 것이 잠시 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 으킨다. 그리고 무의식중에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만일에 이러이러한 워인 때문 에 이런 발작이 일어난다면 나 자신도 그런 발작에 걸린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같은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의식화 될 수 있는 추측이라면, 이 추측 은 아마도 '자신에게도 같은 발작이 일어날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불안감에서 생 겨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추측은 무의식층(無意識層)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증상은 실현되고 만다. 그러므로 동일시는 단순한 모방이 아 니라 동일한 병원적(病源的) 요구에 의거한 '동일화'이다. 동일화는 '마치…같은'을 표현하고, 무의식계에 체류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과 관계있다.

히스테리에서 동일화는 어떤 성적인 공통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된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 히스테리 환자들의 증세에서는 자신이성교한 사람이나 혹은 현재 성교를 하고 있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한다. 언어 역시 재미있게도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일심동체'라고 표현한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히스테리 공상에서는 성관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성관계와 충분히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성관계가 현실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의 여성 환자가 꿈에서 그 여자 친구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하나의 증세(실현할수 없는 소망)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을 그 여자 친구와 동일시하면서, 그 여자

친구에 대한 질투심(그러나 환자 자신은 이 질투를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한다)을 표현한다면, 그 여성 환자는 단순히 히스테리 사고 과정의 여러 법칙을 따랐을 뿐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 여성 환자가 꿈에서 자신을 여자 친구의 자리에 놓은 까닭은 이 여자 친구가 남편에게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녀 자신이 남편에게 친구와 같은 평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치료한 환자 중에 가장 두뇌가 명석한 한 여성 환자는 나의 꿈 이론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 반박은 앞의 경우보다도 쉽게, 더욱이 '하나의 소망 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다른 소망이 충족된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해결되었다. 어 느 날 나는 이 부인 환자에게 "꿈은 소망의 충족이다."라고 설명하였는데, 다음 날 그 부인은 나에게 시어머니와 피서지를 여행하는 꿈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 여 성이 시어머니와 여름을 같이 보내는 것을 무척 싫어해서. 최근에 시어머니 거처 에서 멀리 떨어진 피서지에 세를 얻어 다행히 그 동거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꿈은 그 여자가 바라던 해결책을 도로 물린 것이었다. 이 꿈이야말로. 꿈은 소망 충족이라는 나의 이론을 가장 날카롭게 반박하고 있지 않 는가. 확실히 사람들은 이 꿈으로부터 곧잘 결론만을 끄집어내어서 이 꿈을 해석 하였다. 이 꿈에 의하면 나의 말은 잘못이었다. 즉 그 여자의 소망은 "당신의 말이 잘못이었다."라고 말하는 데 있고, 꿈은 그 여자의 소망을 성취시켜 준 것이다. '당 신의 말이 틀렸으면' 하는 소망은 휴가라는 주제로 성취되었지만. 휴가 문제로 충 족된 소망은 실상 이런 것과는 다른 더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나는 그 여 자를 분석하면서 얻은 재료를 통해. 그녀의 인생에 있어 어떤 시기에 그 여자의 병 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당시에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여자는 기억에 없다며 이 추측을 부정했다. 그러나 내가 옳았다는 것을 곧 우리들은 알게 되었다. 내가 틀렸으면 하는 그 여자의 소망은 그녀가 시어머니 와 함께 휴가를 떠난다는 꿈으로 변했고. 따라서 당시 추측한 일들이 실지로 일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정당한 소망과 일치했다.

7 나는 히스테리 정신병학 속에서 이런 단편을 끄집어내어 이곳에 끼어 넣고, 모든 연관에서 잘라 단편 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그 효과를 의심한다. 만일에 이 단편이 꿈과 신경증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여러 관계를 암시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단편을 인용한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8년간의 김나지움 시절 동창으로 지낸 친구에게 일어난 작은 사건을, 분석하지 않고 단지 추측으로만 해석한 일이 있었다. 이 친구는 언젠가 참석했던 작은 집회에서 '꿈은 소망 충족이다'는 나의 새로운 학설 강연회를 듣고, 그날 밤 그가 꾼모든 소송에 패하는 꿈을 (그는 변호사였다) 내게 들려주었다. 나는 모든 소송에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도피적인 말로 그 자리를 모면했지만,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다. 즉 '내가 8년 동안 학급에서 수석으로 지냈고, 친구는 중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소년 시절부터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철저히 욕을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더 음울한 또 다른 꿈으로, 똑같이 나의 견해를 반박하는, 어떤 여성 환자에게서들은 실례가 있다. 이 환자는 젊은 소녀였다. "선생님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나의 언니에게는 지금 사내아이 카를뿐입니다. 그 아이의 형 오토를 언니는 잃었습니다. 그때 나는 언니의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오토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내가기르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카를도 좋아합니다만 오토처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의 눈앞에 지금 있는 카를이 죽고 관속에서 마치 형 오토가 죽을 때와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습니다. 주변에 촛불이 있었어요. 오토가 죽었을 때에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선생께서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시지요? 언니의 독자가 죽기를 바라는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오토 대신에 카를이 죽어 주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해석은 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 뒤에 그녀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었는데, 이 올바른 꿈의 해석은 꿈을 꾼 여인이 살아온 내력을 모두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젊었을 때 부모를 잃은 이 처녀는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자기 언니 집에서 자랐고, 이 집에 오는 언니의 친구들 중에서 자기 뇌리에 박혀 있는 남성이 있었다. 그와는 잠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였으나 언니의 애매한 반대로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고, 그 뒤로 이 남자는 언니의 집에 출입을 끊었다. 그 여자도 자신이 열렬히 사랑했던 언니의 아이 오토가 죽은 뒤 얼마 안 되어 독립하였다. 그러나 한번 빠진

언니의 친구에 대한 애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여자의 자존심은 그 남자를 만 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기의 마음을 다른 남성에게 쏟을 수도 없었 다. 그녀는 문학가였던 그 남성이 강연하는 곳에는 반드시 참석했다. 이 밖에도 남 몰래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꿈 이야 기를 하기 전날 내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음악회에 가는데, 자기도 가서 먼 곳에 서나마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은 꿈을 꾼 전날의 이야기였 다. 꿈 이야기를 나에게 하던 날, 그 음악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쉽게 이 꿈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었다. 오토가 죽은 뒤에 일어난 사건 으로 생각나는 것이 없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 여자는 즉시.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았던 그이는 오토가 죽은 뒤에 오셔서 오토의 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기대했던 바였다. 그래서 나는 이 꿈을 이렇게 분석해 보았다. "만일에 지금 또 하나의 아이가 죽으면 오토가 죽을 때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 다. 당신은 그때 하루 종일 언니 집에서 지내게 된다. 그 교수도 틀림없이 조위를 표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오토 때와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억누르려고 애쓰는 소망, 즉 그 사람 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 주머니 속에 음악회 입장 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당신 꿈은 기다릴 수 없는 꿈이다. 오늘 당 신이 이룰 재회를 꿈이 두세 시간 먼저 해준 것뿐이다."

그 여자는 확실히 자신의 소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억제하려는 상황을 택했던 것이다. 즉 모두가 슬픔에 싸여 있고, 애정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 충실히 재현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녀 가 무척이나 사랑했던 오토의 관 옆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란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여성 환자의 꿈은 이와 비슷한 꿈이나 위의 것과는 달리 해석되었다. 이여자는 소녀시절에 명석하고 명랑하고 평판이 좋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내게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 평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인이다. 이 부인은 어떤 긴 꿈의 연결 속에서 열다섯 살 된 외동딸이 죽어서 상자 속

에 누워 있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을 토대로 '꿈은 소망 충족이다'라는 나의 설(說) 을 반박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 여자 자신이 이 상자의 세부(細部)가 꿈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데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고 어렵풋이 느낀 것 같다. 8 분 석 도중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 즉 전날 저녁 모임에서 화제가 영어 '상자(box)' 에 이르고, 그 독일어에 해당되는 여러 말이 문제가 되었다(상자(Schachtel), 관람 석(Loge), 궤(Kasten), 따귀(Ohrifeige) 등). 꿈의 나머지 다른 부분을 가지고 보 충해 보면, 그 녀는 영어의 '박스(box)'가 독일어의 '뷰흐제(Büchse)(작은 상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여자의 생식기가 속된 표현으로 '뷰흐제(Büchse)'라고 불리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국소 해부학의 지식을 참작 하면) '상자' 속의 아기는 즉 자궁 속의 태아를 뜻한다. 그래서 이 꿈의 형상은 실상 자기의 어떤 소망에 통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는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젊은 부인이 모두 그렇지마는, 그 여자도 임신이 시작되면 결코 행복하지 않으니 뱃속의 아기가 그대로 죽었으면 하는 소망을 여러 번 했다. 그 뿐이 아니고 심한 부부싸움 끝에 두 손을 쥐고 뱃속의 아기가 죽으라고 배를 친 적도 있었다. 그러므로 죽은 아기는 사실상 하나의 소망 충족이었으나 이것은 15년 동안이나 버 려졌던 소망 충족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면 그것이 정말로 소망 충족이냐의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다. 그 동안에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내용으로 한 최후의 두 꿈을 한데 묶은 하나의 꿈은, 전형적인 꿈을 언급할 때에 다시 고려될 것이다. 그때에 바라지 않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꿈이 소망의 꿈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다른 새로운 예를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꿈은 환자로부터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법률학자에게서 들은 것이다. 이 꿈도 소망 꿈에 관한 나의 설(說)이 조급히 일반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나에게 말하여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꿈꿨다. 나는 어떤 부인의 팔을 잡고 나의 집 앞까지 왔다. 그 앞에 포장마차가 있다. 한 사나이가 다가와서 나는 형사인데 동행하자고 한다. 나는 용무를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다."

<sup>8</sup> 좌절된 만찬 꿈에서의 훈제 연어와 같다.

"당신은 내가 포박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물론 아니오. 어떤 죄목으로 당신은 체포되었는가? 당신은 아마 알고 있겠지."—"내가 생각하건대. 영아 살해 때문이었소."—"영아 살해? 그러나 이 범행은 젊은 어머니만이 갓난아기에게 저지 를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 아니오."—"그렇소."9—"그런데 당신은 어 떤 상태에서 그런 꿈을 꾸었는가?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군."—"그것은 당신에 게 말하고 싶지 않소. 말하기 거북한 일이오."—"그것을 듣지 않으면 꿈 해석이 안 되오."—"그러면 들어보겠소? 나는 그날 밤에 집에 있지 않았소. 어떤 여자에게 가 있었소. 내가 중히 여기고 있는 여자였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들은 또 관계를 가졌고. 다시 잠을 잤고. 그리고 그 꿈을 꿨소."—"유부녀인가?"—"그 렇소."—"당신은 그 부인이 아기를 배는 걸 원치 않죠?"—"그렇게 되면 우리들 사 이가 폭로되니까요 "—"그렇다면 질 내(膣內)에 사정하지 않았던가?"—"조심성 있 게 사정 전에 그만두었소."—"이렇게 상상해도 좋을까? 당신은 그런 방법으로 여 러 번 성교를 했소. 그리고 그 아침 또 되풀이한 뒤에 정말 괜찮을까 불안해졌다 고 "--"혹 그럴는지 모름 일이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꿈은 물론 소망 충족이오. 당신은 이 꿈에서, '아기를 만들지 않았다' 또는 이와 거의 같은 것이긴 하나 '아이 를 죽였다'는 안심을 얻었소 꿈과 이 결론 사이를 채우는 일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소. 기억하고 있을 것이오. 사흘 전에 우리들은 최근의 결혼에 있어서의 어려 움. 그리고 일단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아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간섭 도 처벌되는데 반해. 수태되지 않도록 하는 성교는 허용되는 불철저(不徹底) 등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소. 또 우리들은 그것에 관해서 중세기의 논쟁 문제 에도 언급하였소. 본래 어떤 시기에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는가 라는, 즉 이 시 기 이후가 아니면 살인이란 개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당신은 예의 니콜 라우스 레나우(N. Lenau)의 시를 알고 있을 것이오. 그는 영아 살인과 수태(受胎) 방지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소."—"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 우연히 레나우의 일을 생각했소. 묘한 일이오."—"그것도 또 당신의 꿈의 여운인데. 여기서 당신 꿈 9 꿈 이야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아서 분석하는 동안에 비로소 꿈의 생략된 부분이 생각에 떠오르는 일이 종종 생긴다. 이와 같이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은 보통 꿈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다. 나중에 나오 는 〈꿈의 망각〉의 장을 참조.

속의 작은 부수적 소망 충족까지 하나 더 설명해 보이지요. 당신은 부인의 팔을 끼 고 당신 집 앞에 왔다고 말했소. 그러니 당신은 부인을 당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인 데, 실지로 당신은 상대방의 집에서 밤을 샌 것이오. 이 꿈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소망 충족이 이렇게 불쾌한 형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데에는 아마 하나 이상의 여 러 원인이 있을 것이오. 불안 신경증의 병인에 관한 나의 논문을 읽으면 당신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나는 '성교 중절'을 신경병적 불안이 성립하는 한 병원적 요 소로 생각하고 있소. 성교 중절을 몇 번이나 되풀이한 뒤에도 무엇인가 불안한 마 음이 남아 있다면(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은 당신의 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오). 그것은 나의 설(說)을 증명해 주는 것이오. 당신은 소망 충족을 감추기 위해 이 불 쾌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소. 그러나 영아 살인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소. 당신은 왜 여성만이 저지르는 특별한 범죄를 꿈에 등장시킨 것일까."—"나는 고백하지만 몇 년 전에 한 번 그런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소. 어떤 젊은 여자는 나와의 관계에 서 생긴 아이를 낙태해서 지우려고 하였소. 물론 나에게도 그 책임은 있었으나 그 여자가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소. 그 러나 나는 자연 이 일이 발각되지나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오."—"잘 알겠소. 이 기억이 당신이 재주를 잘못 부렸다는 추측이 자네를 괴롭게 한, 두 번째 원인을 제공한 것이오."

나의 강의에서 꿈 이야기를 들은 젊은 의사 한 사람은, 틀림없이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 까닭은 그가 자신의 꿈속에서 이와 비슷한 꿈을 꾸고 서둘러서 이 꿈의 사고방식을 다른 테마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에 소득 신고를 하였다. 신고한 소득이 조금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신고는 정직하게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는 이런 꿈을 꿨다. 즉 한 지인은 납세 위원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득 신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되었는데, 그의 것만 의심받고 상당한 탈세 형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 주었다. 이 꿈은 수입이 많은 의사로 알려지기 바라는 소망을 서툴게 은폐한 소망 충족이다. 이 꿈은 잘 알려진 젊은 처녀의 이야기를 회상하게 한다. 즉 이 처녀의 구혼자는 신경질적이었으므로 결혼하면 매를 맞을 것이기에 구혼을 거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이 처녀의 답은 이랬

다. "우선 나를 때려 주소서!" 결혼하려는 그 여자의 소망이 지나치게 강해서 결혼하면 틀림없이 그 여자에게 닥쳐올 불행을 결혼과 함께 얻자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불행을 소망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내가 나의 이론에 직접 반대되는 꿈. 즉 소망이 달성되지 않거나 불쾌한 일이 나타 나는 것을 내용으로 삼은 빈번히 관찰되는 꿈들을 소망을 어진(反) 꿈으로 총괄한 다면 나는 그 꿈들이 대체로 두 가지 원리에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의 하 나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나 꿈에서나 크게 역할을 하지만, 실은 아직까지 지적된 바가 없다. 이런 꿈의 원동력의 하나는 나의 말이 틀렸으면 좋을 터인데 하는 소망 이다. 이 꿈은 보통 나에게 치료받은 환자가 나에게 반항할 때 볼 수 있었던 것이 다. 나는 내가 환자에게 '꿈은 소망 충족이다'란 나의 이론을 들려준 다음에 비로소 그 꿈을 꿀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한다.10 물론 나는 이런 것이 나의 많은 독자들에 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내가 틀 렸으면 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에서 즐기는 소망을 단념한다. 여기에서 보 고하려는 마지막 꿈인 '치료 중에 꾼 꿈'도 역시 같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환자 는 젊은 여자인데, 그 식구들이나 그의 담당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의 치료를 받 고 싶었는데,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집 식구들이 그 여자가 이 이상 더 나에게 오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여자에게 한 약속, 즉 돈이 없으면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돈 문제만큼은 예외가 없다고 그 여자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소망 충족을 표시하는 일은 실제로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이한 수수께끼 외에 또 하나의 다른 수수께끼가 있다. 이 수수께끼는 처음 것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 여자에게 말했다는 나의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는 그 여자에게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 여자의 오빠의 한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그 여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일에 관해서 대단히 친절했다. 이 꿈은 그 오빠의 말이 정말이 되어 주

<sup>10</sup> 비슷한 '소망에 반(反)한 꿈'을 근년에 나의 청강자들이 몇 번이나 나에게 보고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꿈의 소망설'을 알았다는 반응으로서 이해된다.

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그 여자는 꿈속에 한해서만 오빠의 말은 무엇이든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 '오빠의 말은 틀림없다'는 것이 그 여자의생활 내용이었고 또 질병을 유발한 동기였다.

아우구스트 슈테르케(August Stärcke)라는 한 의사는, 꿈은 소망 충족이라는 이론에 일견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스스로 해석하였다.

나는 나의 왼손의 둘째 손가락의 첫 마디에 매독성 초기 경결(初期哽結)이 나타난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이 꿈이 아주 그의 소원에 반대되는 내용을 뚜렷이, 그리고 연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꿈을 음미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분석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초기 경결(Primäraffekt)'이 '첫사랑(prima affectio)'과 동일시된다는 것과, 불쾌한 부스럼은 슈테르케의 말을 좇아 '대단히큰 열정을 띤 소망 충족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sup>11</sup>

소망에 반대되는 꿈의 또 다른 동기의 하나는 너무 가까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나자신이 오랫동안 그러했듯이 그 동기를 간과할 위험에 쉽사리 빠지게 된다. 대단히 많은 사람의 성적 체질 속에는 공격적이고 사디즘(Sadismus)적 요소가 정반대물로 전화(轉化)함으로써 생기는 마조히즘(Masohismus)적 요소가 있다. 자신에게 가한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비굴과 정신적 가책 속에서 쾌감을 추구할 때에 우리들은 그들을 관념적 마조히스트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은 '소망에 반대되는 꿈'이나 '불쾌한 꿈'을 곧잘 꾼다. 그 꿈들은 그들의 마조히즘적 경향을 만족시키는 소망 충족이다. 한 예를 들자.

이 젊은 남자는 소년 시절에 형에게 동성애를 느끼고 형을 매우 학대하였다. 이 뒤에 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뀐 뒤, 세 부분으로 구성된 꿈을 꾸었다. 하나, 형이 그를 욕보이는 장면. 둘, 두 어른이 동성애의 추태를 보여 주는 장면. 셋, 형이 장차 자기에게 그 관리권을 양보하리라고 생각했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는 것. 여기까지 꿈을 꾸었을 때에, 그는 고통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조히즘적 소망의 꿈이며,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형이 옛적에 자기로부터 받

11 《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제2권, 1911~2년.

은 수많은 가책의 보복으로 사업을 팔아서 자기를 곤궁에 빠뜨린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니다.'

나는 앞의 실례를 통해 고통을 내용으로 삼은 꿈마저 소망 충족으로 분석되고 해명된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들이 이러한 꿈들을 해석하는 도중에 언제나 사람들이 말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 꿈이 가지는 고통감은 아마 우리들에게 그런 테마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음미하지 못하게 하는—이것은 대개 성공한다—혐오감과 동일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취급할 수밖에 없을때, 누구나 혐오감을 극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꿈에서 되풀이되는 불쾌감이어떤 소망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않은, 자신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소망이 있기 마련이다. 또 한편 우리들은 이모든 꿈이 이렇게도 왜곡되는 것은 그 꿈의 테마에 대한, 혹은 그 꿈에서 오는 소망에 대한 염오(厭惡), 억압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꿈 왜곡은 실상 한 개의 검열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앞에서 말한 꿈의 본질을 나타내는 공식에 다음과 같은 변경을 가할때에 불쾌한 꿈의 분석이 비로소 명백하게 이해된다. '꿈은 어떤 (억압되고 배척된) 소망의 (가장된) 충족이다.'2

이제 불안의 꿈들이 고통스런 내용을 가진 꿈의 특수한 일종으로서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불안의 꿈을 소망의 꿈이라 한다면 초보자는 극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불안의 문제를 매우 간단하게 다룰 수 있다. 불안의 꿈이 우리들에게 보여 주 는 것은 꿈 문제의 새로운 일면이 아니다. 불안의 꿈의 이해는 신경증적 불안 일반 을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이다. 우리들이 꿈에서 경험하는 불안은 피상적

<sup>12</sup> 살아 있는 고명한 시인 한 사람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정신 분석이나 꿈 해석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꿈의 본질에 관해서 나의 소견과 조금도 다름없이 규정하고 있 다. 즉 꿈이란 '억압된 동경의 소망이 거짓의 얼굴과 이름을 가지고 부당하게 떠오르는 것'이라는 것이 다. (슈피텔러(G, Spitteler), '나의 유년 시절의 체험(〈남독일월보(南獨逸月報》))외13년 10월호).' 나는 미리 오토 랑크가 확대와 변경을 가한 상술의 근본 명제를 인용하련다. "꿈은 보통 억압된 소아적 · 성 적 재료를 토대로, 또 그 재료의 도움을 얻어서 적극적이고 대체로 성적 소망을 피복(被覆)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변장된 형식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자신을 해석하는 꿈》)."

으로만 꿈 내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듯 보일 뿐이다. 꿈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진다. 즉 공포증의 불안이 그 공포증이 의존하고 있는 표상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것과 같이 불안 꿈 역시 꿈의 내용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창에서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창가에 있을 때에 다소 조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같은 경우에도 공포증에 걸리면 창가에 대한 공포가 왜 그다지도 크며, 훨씬 넓게 환자에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납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포증에 적용되는 똑같은 설명이 또 불안의 꿈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경우, 불안은 불안에 따르는 관념과 표면상으로만 결합되어 있을 뿐이고, 실상은 아주 다른 원천에서 생긴다.

불안 꿈과 신경증적 불안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나는 불안 꿈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증적 불안을 참조하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전에 '불안 신경증'에 관한 작은 논문(〈신경증학 중앙 기관지〉 1895년, 전집 제1권)에서 신경증적 불안은 성생활에서 오며, 그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서 쓰이지 않은 채 그쳐버린 리비도 (Libido)를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이후부터 이 공식이 참이라는 사실이 점점 실증되고 있다. 이 공식에서 다른 명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 불안 꿈은 성적 내용을 가진 꿈이고, 거기에 속한 리비도가 바뀌어 불안이 된 것이다. 이 주장이 신경증 환자의 몇 가지 꿈 분석에 의해서 입증되는 사실은 뒤로 돌리자. 또 꿈 이론을 구성하려는 앞의 시도에서 나는 다시 한 번 불안 꿈의 조건을 논하고, 불안 꿈이 소망충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꿈의 재료와 꿈의 원천

### 제 5 장

## 꿈의 재료와 꿈의 원천

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을 분석함으로써 꿈이 소망 충족임을 알았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꿈의 보편적 성격을 밝혔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해석의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었던 그 밖의 모든 학문적문제를 잠시 제쳐 놓았다. 우리들이 목적에 도달한 지금, 우리들은 되돌아가서 꿈의 여러 문제를 논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아직 소망 충족의 테마를 모두 해결한 것이 아니지만, 잠시 이 테마를 불문에 붙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들은 꿈의 해석에서 우리들의 독특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꿈의 현재적 내용 보다도 뜻 깊은 잠재적 내용을 발견한 이후, 현재적 내용만이 알려졌을 때에는 공 격할 수 없을 듯이 보이던 수수께끼나 모순이 만족스럽게 풀리느냐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꿈의 개개의 문제를 새로이 취급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꿈과 깨어 있는 생활과의 관계와 꿈의 재료의 출처를 연구한 사람들의 소견은 서장(字章)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우리들은 여러 사람들이 제출한 여러 의견에 주목하였으나, 설명되지 않았던 꿈의 기억의 세 가지 특성을 하나하나 다시 기억해보기로 하자.

- (1) 꿈은 최근의 여러 인상을 뚜렷이 우대한다(로베르트·슈트륌펠·힐데브란트· 위드 핼럼(Weed-Hallam)).
- (2) 꿈은, 본질적인 것과 중요한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과 간과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꿈은 깨어 있을 때와는 다른 여러 원리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한다.
- (3) 꿈은 우리들의 가장 어렸을 때의 여러 인상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우리들 자신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깨어 있는 생활에서 이미 잊었다고 생각한 변변

치 않은 것까지 어린 시절에서 끄집어낸다.1

꿈의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의 이런 여러 특성은 말할 나위도 없이 많은 연구가들이 꿈의 현재 내용을 관찰한 것이다.

## 1, 꿈에서의 최근의 것과 변변치 않은 것

내가 꿈 내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의 출처를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어떤 꿈에서든 전날의 여러 체험과의 결합이 보인다."라고 우선 나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꿈이건, 자기의 꿈이건, 꿈의 여하를 막론하고 나의 이 경험은 언제나 입증된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 후에 무엇인가 나의 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 전날의 사건이나 체험을 먼저 찾음으로써 꿈 해석을 시작할 수 있다. 여러 경우에 이 방법이 가장 짧은 길이다. 전장(前章)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두 개의 꿈(이르마의 주사, 노란 수염의 나의 백부)에서는 전날과의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뚜렷하였다. 실제로 나 자신의 꿈의 몇 가지 기록을 끄집어내어 음미함으로써 이 관계가 언제나 지적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겠다. 그러나 찾아내려는 꿈의 원천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그 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나는 어떤 집을 방문하였다. 어려운 수속을 거쳐서 겨우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에 한 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원천—전날 저녁에 한 친척 부인과의 담화, 즉 그 부인이 바라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그녀에게 말했다.

1 "꿈은 우리들의 기억력을 낮 동안의 가치 없는 인상의 부담으로부터 면제한다."는 로베르트의 견해가 지지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그 까닭은 꿈에 우리들의 유년 시절의 보잘것없는 기억 상(記憶像)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로베르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꿈이 그 사명을 대단히 불충분하게 수행한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 ② 나는 어떤 (분명하지 않은) 식물에 관해 '연구 논문'을 썼다.
- 원천—그전에 어떤 서점의 진열장 속에서 시클라멘(Zyklamen)과(科)의 '연구서' 를 보았다.
- ③ 나는 길에서 '모녀' 두 사람을 만난다. 딸이 나의 환자였다.
- 원천—치료를 받고 있는 한 여성 환자가 저녁에 나에게 그 여자의 '어머니'가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게 반대한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 ④ S&R의 책방에서 나는 1년에 '20굴덴(Gulden)'으로 정기 간행물을 예약한다. 원천—아내가 전날에 일주일의 생활비 '20굴덴'을 받지 못했다고 나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 ⑤ 나는 나를 '회원'으로 취급하는 사회 민주주의 '위원회'에서 '편지' 한 통을 받는다. 원천—'간행물'이 자유당 선거 '위원회'와 내가 실제로 '회원'으로 있는 박애주의 협 회 본부에서 동시에 도착했다.
- ⑥ 한 남자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험한 바위' 위에 뵈클린(Böcklin)같이 서 있다. 원천—'악마의 섬'의 '드레퓌스(Dreyfus)', 동시에 '영국'의 친척으로부터의 편지.

꿈이 반드시 전날의 여러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 얼마 동안의 비교적 장기간에 생긴 여러 인상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본래 그다지 중대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꿈을 꾼 전날의 사건이 주로 꿈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이삼일 전의 인상이 꿈의 원천이 된다는 생각을 종종 가지나, 좀 더 관찰하면 역시 전날의 모든 인상이 다시 한 번 기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건이 일어난 날과 꿈을 꾼 날 사이에, 전날의 재현이 끼어있고, 게다가 비교적 오래된 인상을 생각나게 하는 최근의 동기도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나는 꿈을 일으킨 낮에 주어진 인상과 꿈에서 그 인상이 재생되는 과정사이에 생물학적 의미를 지닌 규칙적인 간격(헤르만 스보보다는 그 첫 예로 18시간의 간격을 든다)이 개입한다는 것을 실증할 수 없었다. 엘리스도 이 문제에 주 첫 장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헤르만 스보보다는 23일과 28일이라고 말하는 빌헬류 플리스가 밝혔한

생물학적 간격을 널리 심리적 생활 일반에 적용하고, 특히 이 기간은 꿈의 여러 요소가 꿈속에 출현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이런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꿈 해석은 본질적으로 달

목하고, 자신은 꿈에서 그런 재현의 주기성을 '특히 그것에 주의했음에도 불구하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꿈 재료의 출처에 관해서는 새로운 원천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최근에 '주기설(週期說)'의 꿈 재료에 대한 적용 가부(可否)를 음미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재료로 삼고 조금 더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를 위해 그 꿈의 재료의 출현이 내 인생의 어느 시기에 등장한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여러 요소를 꿈의 내용 중에서 선택했다.

#### (1) 1910년 10월 1~2일의 꿈

(단편)……이탈리아의 어느 곳, 세 딸은 마치 골동품 상점이기나 한 듯이 나에게 작은 귀중품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무릎에 앉는다. 나는 그 물품을 하나하나 보고 이것은 내가 준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나는 명백히 '사보나롤라(Savonarola)'의 얼굴을 한 작은 가면 하나를 보고 있다.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사보나롤라'의 초상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여행 일기를 보면 나는 9월 4, 5일에 플로렌스(Florenz)에 체재했다. 이곳에 있었을 때에 나는 여행의 동반자들을 광열적(狂熱的)인 중(僧)이 화형에 처형된 피아차 시뇨라(Piazza Signoria) 광장에 데리고 가서 그 광장의 포석(錦石)에 이 중의얼굴이 새겨 있는 부조판(浮彫板)을 보여 주려고 생각했다. 동반자에게 그것을 보여 준 것은 5일 오전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이것이 꿈에 등장하기까지에는 27+1일이 경과했다. 플리스의 말을 따르면 '여성의 주기'이다. 그러나 이 실례의 증명력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위의 꿈을 꾼 전날에 음울한 눈매를 가진 동료가 내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나를 찾아왔다. 수년 전에 나는 그에게 '랍비 사보나롤라'(Rabbi Savonarola)'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는 부상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부상자는 폰테바(Pontebb) 기차 사고를 당했다. 일주일 전에 나도 이 기차를 탔었다. 이 부상자를 보고 나는 자연 최근의 이탈리아 여행을 회상하였다. 꿈 내용의 '사보나롤라'란 뚜렷한 요소의 출현은, '그 꿈을 꾼 전날'의 동료의 방문을 통해 설명된다.

### (2) 1910년 10월 10~11일의 꿈

나는 옛날로 돌아가서 대학의 실험실에서 화학 공부를 하고 있다. 교수 L(Hafrat L,)은 어떤 장소로 나를 불러낸다. 그리고 그 교수는 난포인지 혹은 기계 같은 것 하나를 높이 손에 쳐들고 총명(?)하게 (눈을 날카롭게?) 운반하면서 머리를 앞에 쓱 내민 특별한 모습으로 낭하를 걸어간다. 곧 우리들은 넓은 곳에 이른다……(나중은 잊었다). 이 꿈 내용에서 가장 뚜렷한 무엇을 찾는 듯이 멀리 보면서 L 교수가 난포(혹은 확대경)를 앞에 운반하는 모습이다. L 교수를 만나본 지도 오래 되었으나, 나는 지금 벌써 그가 다른 어떤 사람의 대용물에 지나지 않음을, 즉 L 교수가 꿈에서 확대경을 들고 서 있듯이로마의 포위군 쪽을 바라보면서 확대경을 들고 있는 것은 시라쿠사(Syrakus)의 아레투사(Arethusa) 분수 가까이에 있는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의 입상임을 알았다. 이 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일까? 나의 기록으로서는 9월 17일의 저녁이었다. 그러므로 이 날짜에서 꿈을 꾼 날까지는 실상 13+10=23 즉 23일 지났다. 플리스의 소위 '남성의 주기'이다. 이 경우도 꿈 해석을 해보면 유감스럽게도 주기적 관련의 필요성이 일부 없어 보인다. 이 꿈의 계기는 대학 부속병원의 강당에서 내가학외(學外)교수로서 강의하고 있던 그 병원이 요즈음 어디로 이전되리라는 소식을 이 꿈을 꾼 전날 들었다. 어떤 불편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강의실을 빌리는 것조차 문제가 되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실지로 강의실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실을 얻고자 유력한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부탁해 보았으나, 어디서나 좋은 인상이 아니었던 나의 강사 초기였던 터라 호응을 받지 못했

고'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엘리스는 스페인에서 '다라우스(Daraus)' · '바라우스(Varaus)' · '차라우스 (Zaraus)'란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중에 꾼 꿈을 보고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지역을 기억해 낼 수 없었다. 그는 그 꿈을 내버려 두었다. 두서너 달 후에 그는 실제로 '차라우스'란 곳을 발견했다. 그것은 산 세바스치 안(San Sebastian)과 빌바오(Bilbao) 사이에 있는 어떤 정거장의 이름이었고, 그가 이 꿈을 꾸기 250일 전에 기차로 지나간 적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하룻밤도 지나지 않은' 경험이 모든 꿈에 대한 자극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최근(꿈꾼 전날은 제외하고)의 인상들과 꿈 내용의 관계는 오래된 인상들과 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꿈은 꿈을 꾼 전날의 여러 체험('최근'의 여러 인상)에서부터 더 먼 과거의 여러 체험에 이르기까지 생각의 실마리가 걸쳐 있는 한, 인생의 어떤 시기는 상관없이 그 재료를 끄집어낼 수 있다.

던 것 같다. 당시 나는 L을 찾아 갔다. L은 마침 학부장이고 나를 옹호하여 줄 것 같아서 나의 곤란을 호소하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L은 승낙해 주었으나 그 뒤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꿈에서는 L은 아르키메데스, 즉 저쪽으로 가라고 나를 어디론가 안내해 주는 아르키메데스였다. 꿈의 관념은 복수심과 과대 의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꿈 해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꿈의 계기가 없었다면 이 밤의 꿈에 아르키메데스가 나올 이치가 거의 없다. 그러나 시라쿠 사의 저 입상의 강렬하고 새로운 인상은 다른 시간적 간격으로 꿈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확실치 않다.

#### (3) 1910년 10월 2~3일의 꿈

(단편)·····자신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메뉴를 마련해 준 오저(Oser) 교수의 무엇인가가 나의 기분을 대단히 부드럽게 해 준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잊었다.) 이 꿈은 이날의 소화 기관의 장해에 대한 반응이다. 이 장해는 내가 식이요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동료와 상의하느냐의 여부를 음미하게 했다. 또 죽은 오저 교수를 내가 꿈에 상담자로 선택한 것은 내가 존경했던 죽은 (10월 1일에 죽었음) 다른 교수 한 분과 관련 있다. 그런데 오저 교수의 사망은 언제였던가? 나는 그의 죽음을 언제 알았던가? 8월 22일의 신문에서였다. 그때 나는 화란(Holland)에 있었고, 비엔나의 신문을 꼬박꼬박 받았기에 8월 24일이나 25일에 오저의 사망 보도를 틀림없이 읽었을 것이다. 이 기간은 어떤 주기에도 모두 맞지 않는다. 그것은 7+30+2=39일, 혹은 40일이 된다. 이 동안에 나는 오저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한 기억이 없다. 이와 같은, 주기설에 관한 자세한 연구 없이는 규칙적인 주기보다 훨씬 빈번하게 꿈에 나타나는 그 주기는 쓸모가 없다. 나는 본문에서 주장한 대로 꿈꾸기 전날 받은 인상과의 관계만이일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왜 최근의 인상이 우대되는가? 이 점을 우리들은 위에서 언급된 꿈들 중 하나를 한층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서적의 꿈을 선택 해 보자.

# 꿈 내용

나는 어떤 식물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쓴다. 그 책이 내 앞에 있다. 나는 삽입된 빛깔 있는 도판면(圖版面)을 넘긴다. 책마다 식물 표본에서 가져온 것 같은 식물의 건조 표본이 들어 있다.

## 분석

나는 전날 오전에 책방의 진열장에서 《시클라멘(Zyklamen)과(科)》라는 제목이 달 린 새 책을 한 권 보았다. 이것은 확실히 이 식물에 관한 '연구 서적'이다.

시클라멘은 나의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나는 아내가 이 시클라멘을 바랐으나 그것을 가져다주는 일이 적었음을 자책한다. —꽃을 갖고 돌아간다는 테마에서 나는 이야기 하나를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입증되도록 했다. 즉 "망각은 매우 빈번하게 무의식적인 것을 고의로 실행하는 것이며 여하튼 잊고 있는 것을 가만히생각하게 하여서 결론을 내리게 한다." 생일에 꽃다발을 남편에게서 습관적으로받고 있던 어떤 젊은 부인은, 어느 해의 생일에 이 애정의 표시를 받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그 부인이 "오늘이 나의 생일이에요." 하고 말할 때까지아내의 울음의 까닭을 몰랐다. 이 말을 듣고서야 그는 이마를 치면서 겨우 "용서하시오. 아 참, 까맣게 잊었소."라고 말하고 급히 꽃을 가지러 나가려 했으나, 이미아내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망각 속에 자기가 남편의 기억에서 이미 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L 부인은 이틀 전에 나의 아내를 만나 건강하다고 말하고 나의 안부를 물었다. 이 부인은 몇 해 전에 나의 치료를 받았었다.

새로운 항목 하나. 나는 실제로 어떤 식물, 즉 코카 식물에 관한 연구 논문과 비슷

한 것을 쓴 적이 있다. 이 논문은 카를 콜러(K. Koller)를 코카인의 마취 특성에 주 목하게 했다. 나는 알칼로이드의 응용성을 나의 논문 속에 시사해두었으나 이 점 을 근본적으로 충분히 추구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꿈(이 꿈의 해석은 꿈을 꾼 다 음 저녁에 여가가 있었을 때에 발견한 것이다)을 꾼 다음 날 오전 중에 일종의 백 일몽 속에서 코카인을 생각했었음을 알았다. 만일에 내가 녹내장(glaukom)에 걸 린다면 나는 베를린에 가서 그곳 친구가 추천하는 의사의 손에 의해 신분을 밝히 지 말고 수술을 받자. 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수술자는 이 수술이 코카인이 사 용되게 된 후부터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자랑할 것이다. 그때 나는 내 자신이 이 발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지 않도록 안색을 바꾸지 않을 것 이다. 이 공상에는 의사가, 동업의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 것일까란 생각이 결부되어 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베를린의 의사에게 나는 보통 환자와 같이 말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것이다. 이 백일몽을 생각하고 나 서 겨우 나는 이 백일몽의 뒤에 특정 체험이 감추어져 있음에 생각이 미쳤다. 콜러 의 코카인 발견의 직후에 나의 아버지가 녹내장을 앓았다. 아버지는 나의 친구 안 과 의사 쾨니히슈타인(Königstein)의 수술을 받았고, 콜러 박사는 코카인 마취의 수고를 해 주었다. 그는 "이번에 코카인 도입에 관련 있는 세 사람이 하나로 뭉쳤 군." 하고 말했다.

나의 생각은 더 진행된다. 이 코카인의 이야기는 최근에 생각한 것일까? 그것은 이삼일 전에 내가 기념 논문집을 받았을 때의 일이었다. 이 논문집은 제자들이 은 사이자 연구소장이 된 사람의 기념 축전으로 출판한 것이다. 연구소의 업적표에 코카인 마취의 특성에 관한 콜러 박사의 발견도 실려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때 나는 갑자기 나의 꿈이 전날 밤의 사건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쾨니히슈 타인 박사 댁으로 갔는데 나는 그와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나는 극도로 흥분했다. 현관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에 게르트너(Gärtner) 교수가자기의 젊은 부인과 함께 왔다. 나는 이 교수 부부에게 '꽃이 피듯이' 예쁘다고 축하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수는 내가 이제 말한 논문집의 집필자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로 하여금 기념 논문집의 일을 떠올리게 하였을 것

이다. 앞서 언급한 그 생일에 실망했던 L 부인도 다른 이야기의 도중에서이긴 하지만 쾨니히슈타인 박사와의 이야기에 등장했다.

꿈의 내용의 다른 여러 요소도 분석해 보자. 그 연구 논문집에는 '식물 표본'인 것처럼 건조 표본이 붙어 있다. 이 표본에 관해서는 김나지움 시절의 기억이 있다. 어느 때 교장 선생이 상급생을 모두 모아놓고서 학교에 있는 식물 표본의 검사와청소를 명했다. 작은 '벌레'가 발견되었다—좀벌레였다. 교장 선생은 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지 교장 선생은 나에게 단 두서너 장의 표본 종이만 맡겼다. 그 표본지위에 십자화과 식물이 붙어 있었다. 나는 식물학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론적인 지식의 예비 시험에도 십자화과 식물을 판정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어떤 것이 그 식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론적인 지식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시험은 실패했을 것이다—내 생각은 십자화과 식물에서 국화과 식물로 옮겨간다. 조선계(朝鮮薊)는 본래 국화과 식물의 하나이고,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아내는 나보다 훌륭해서 나를 위해 이 꽃을 시장에서 사다주었다.

나는 내가 저술한 연구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본다. 이것도 배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제 베를린의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 친구는 천리안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네의 꿈에 관한 저서에 대하여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네. 나는 그 저서가 완성되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페이지를 넘기고 있어." 얼마나 나는 이 친구의 천리안적 재능을 부러워했던고! 정말로 이 책이 완성되어 나의 눈앞에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모개진 색채도판(色彩圖版).' 의학도 시절에 나는 다만 개개의 제목에 관한 연구서만의 공부에 열중했다. 그때에 얼마 안 되는 용돈으로 의학 연감 등을 많이 모았다. 그 속에 있는 '색채도판'은 나에게는 재미가 있었다. 나는 나의 철저한 버릇을 자랑했다. 그 후 저술하기 시작했을 때에 나는 이 저서에 나 자신이 그런 도판을 넣어야 했는데, 그 하나가 형편없이 되어 동료들의 조롱을 산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또 웬일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조롱에 아주 옛날의 아이 시절의 생각이 결부된다.

아버지가 어느 때 농담으로 나와 제일 위의 누이동생에게 '색채도판'이 들어 있는

책(《페르시아 여행기》)을 주면서 찢어도 좋다고 했다. 이런 것은 교육상 좋은 일이 아니다. 나는 당시 다섯 살, 누이동생은 세 살도 되지 않았다. 우리 둘이 마치 조선 계의 꽃잎 하나하나를 찢는 듯이 책 한 장 한 장을 찢어버리는 모습은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는 단 하나의 당시의 기억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부터 나에게는 책 수집과 소유에 애착이 생겼다(그것은 개개의 제목에 관해서 연구한 서적으로만 공부하려는 나의 경향에 상응한 것이고, 또 꿈 사상 속에 이미 조선계와 시클라멘과에 관해서 생긴 하나의 도락(道樂)이다). 나는 '좀벌레'가 되었다(식물 표본을 참조). 나는 일생의 첫 정열을, 자기의 신상을 돌아보게 된 후부터 언제나 이 어린 시절의인상에 귀착시켰다. 도리어 나는 이 어린 때의 광경이 나의 후생의 애서(愛書) 습관에 대한 '은폐 기억' 임을 알았다. 물론 나는 일찍이 정열 때문에 사람이 고생을 맛보기 쉽다는 것을 경험했다. 17세의 나는 책방에 큰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었다. 아버지는 나의 성향이 보다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비교적 후기의 소년 시절의 체험은 곧 바로 친구 쾨니히슈타인 박사와의 대화로 옮아간다. 왜냐하면 당시와 같이 내가 '도락'에 깊이 빠져 있다는 비난이 꿈꾼 날 저녁의 대화 속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계없는 까닭에 나는 이 꿈의 해석을 계속하기를 중단하고, 해석에 도달하는 길만을 시사하겠다. 해석 도중에 한 곳 이상에서 나는 쾨니히슈타인 박사와의 대화를 생각했다. 이 대화에서 문제된 점을 생각하면 이 꿈의 뜻이 뚜렷해진다. 개시된 모든 사고과정, 아내나 나 자신의 도락, 코카인, 동업자에게 치료를 받을때의 곤란, 개별적 연구에 대한 나의 편애, 식물학과 같은 약간의 학과에 대한 나의 태만 등의 일체는 여러 갈래의 담화의 어떤 하나에서 합류한다. 이 꿈도 이르마의 꿈에서 시작된 테마를 이어서 이 두 꿈 사이에 새로이 첨가된 새로운 재료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논하고 있다. 이 꿈의 일견 무의미한 표현 형식마저 새로운 의미를 지난다. 즉 내가 (코카인에 관한) 귀중하고 유익한 논문을 쓴 그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내가 유능하고 근면한 대학생이라고 그 당시에 자신을 변호한 것

<sup>3</sup> 나의 논문 〈은폐 기억에 관해서〉(《정신병 및 신경증 월간 잡지》 1899년)를 참조.

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양자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꿈의 해석을 여기서 중지하련다. 왜냐하면 전날에 일어난 체험과 꿈 내용과의 관계를 한 실례를 들어서 구명(究明)하려는 의도로꿈 해석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꿈에 관해서 현재 내용만을 알고 있는 한에는, 꿈과 낮 동안의 인상과의 관계만이 나의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분석이 끝난후에는 같은 날의 또 다른 한 체험 속에 꿈의 제2의 원천이 생긴다. 꿈에 관련되는여러 인상 중의 첫 인상은 아무래도 사소하고 부수적인 사정이다. 나는 진열장에서 책한 권을 본다. 그 표제가 나의 주의를 끌지만 그 내용에는 흥미를 가질 것 같지 않다. 두 번째 체험에는 큰 심적 가치가 있다. 나는 안과의의 친구와 한 시간이나 열심히 이야기하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 두 사람으로서는 중요한 암시를 주었고, 나의 내심이 극히 복잡한 상태에 있음을 나 자신에게 알린 여러 기억을 나에게되살렸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인이 왔기에 중단되었다. 낮 사이의 이 두 체험은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날 밤에 꾼 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꿈 내용 속에서 변변치 않은 인상을 발견할 뿐이고, 꿈은 일상생활 속의 방계적(傍系的)인 조그마한 것을 그 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꿈의 분석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 꿈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을 지향한다. 내가 꿈의 분석에 의해서 뚜렷해진 잠재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유일한 옳은태도이지마는) 꿈을 해석하면 나는 자연히 새롭고 중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꿈이 왜 낮의 생활의 무가치한 단편만에 관계되는가라는 수수께끼는 풀린다. 그리고 또 나는 깨었을 때의 심적 생활이 꿈속에 이어지지 않고 그 대신에 꿈이 변변치 않은 재료 때문에 심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하지 않을 수없다. 사실 그 반대가 옳다. 낮 사이에 우리들의 주의를 끈 것은 역시 꿈속에서의 사상도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낮에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재료가 있을 경우에만 감히 꿈을 꾸려고 한다.

정당하게 일어나는 인상이 나를 꿈꾸게 하였음에도 보잘것없는 낮의 인상을 꿈꾸는 사실에 대한 가장 또렷한 설명은, 우리들이 위에서 검열자로서 활동하는 심적힘에 돌렸던 꿈 왜곡의 한 현상이 여기에서 다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시클라멘과

에 관한 연구 논문의 기억은 마치 포기한 석찬(夕餐)의 꿈에서 여자 친구에 관한 언급이 '훈제 연어'의 암시로 표현된 것과 비슷하게 나와 친구와의 대화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일견하여 그런 관계가 없는 것같이 보이나 도대체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연구 논문의 인상이 안과 의사와의 대화와 암시에 관계될 수 있는가에 있다. 하려다가 그만 둔 만찬의 꿈 예에서는 이 관계가 처음부터 있었다. 여자 친구가 좋아하는 '훈제 연어'는 바로 그 여자 친구가 꿈을 꾼 부인을 자극할수 있었던 표상권(表象圈)에 속하고 있다. 새로운 실례에서는 그것이 하루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 이외에 아무런 공통점을 갖지 않는 별개의 두 인상이 문제가 된다. 논문은 오전 중에 나에게 있던 일이고, 대화는 저녁에 있은 일이다. 분석이 주는 답은 이렇다. 처음에는 없었던 두 인상 사이의 여러 관계는 나중에 한쪽 인상의 표상 내용에서 다른 인상의 표상 내용으로 연결된다. 나는 이미 분석을 기술할 때 그 매개체를 강조하여 두었다. 나는 시클라멘 연구서의 표상에는, 아마 밖으로부터의 영향 없이 이 꽃이 나의 아내가 사랑하는 꽃이라는 생각이나, 혹은 그 밖에도 L 부인에게 보내지 못했던 꽃다발에 대한 생각을 연결시킬 것이다. 나는 이런 배후 사상만으로 꿈이 생긴다고는 믿지 않는다.

경!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묘에서 유령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햄릿》에 있는 말이다. 그러나 분석 도중에 생각난 것인데, 우리들의 대화를 방해한 이는 정원사란 뜻의 '게르트너(Gärtner)'이며, 나는 그 부인을 '꽃이 핀듯'이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떠오른 일이지마는, 우리들은 '플로라(Flora)'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나의 여성 환자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일이 이렇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매개체에 관해서 나는 무의미한 것과 자극적인 것이라는 낮의 두 체험을 식물의 표상권에서 결부시켰을 것이다. 다음에 그 앞의 여러 관계, 곧 코카인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쾨니히슈타인 박사란 인물과 내가 쓴 식물학상의 연구논문을 매개시킬 수 있는

관계이며, 이 두 표상권의 융합을 강화하여 하나의 표상권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이제 첫 체험 중의 한 요소가 둘째 체험에 대한 암시로서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설명을 자기 멋대로 조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게르트너 교수가 꽃이 핀 듯한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화제에 오른 부인 환자가 '플로라'가 아니고 '안나(Anna)'란 이름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이런 관념의 여러 관계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른관념의 여러 관계가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관계를 만들어 내는 일은, 보통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농담의 물음이나 수수께끼가 증명하듯이 참으로 쉽다. 재치의 세력권은 끝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낮의 두 체험 사이에 충분히 연결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날 밤의 꿈은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모여들고 잊혀져버리는 낮의 인상의 무의미한 것이 '연구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화의 내용과 결합되고, 이 대화를 꿈속에서 표현했을 것이다. 이 운명을 타고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연구서'의 꿈 내용이었으므로 이 꿈 내용이야말로 결합에 안성맞춤이었다. 레싱(Lessing)이 '교활한 작은 집(Häuschen Schlau)'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 부자들만이 많은 돈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은 체험이 심적으로 중대한 체험을 대리하는 그 심적 과정은, 우리들에게 아직도 의심스럽고 낯설게 보인다. 얼른 보아서 정확하지 않은 이 작업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는 후장에 돌리기로 한다. 여기서는 우리들은 꿈 분석에서 언제나 되풀이되는 무수한 경험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심적 과정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자. 그러나 이 과정은 마치 처음에는 힘이 약했던 표상이 처음보다 강한 에너지를 가진 표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자신도 역시 강도를 높이고, 그 결과로 의식 속으로 끌어넣을 만한 힘에 이를 때까지 어떤 '이동(移動· Verschiebung)'—우리들이 말하는 바의 심적 역점의 이동—이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성립하는 것 같다. 감정의 부여(賦與), 또는 정의적 행동이 문제가 될 때 그런 에너지 이동은 의심할 바가 아니다. 고독하게 사는 처녀가 동물을 좋아한다든가, 독신 남자가 열렬한 수집가가 된다든가, 병사이 색깔이 있는 형

겊 조각, 즉 군기(軍旗)를 피로 수호(守護)한다든가, 연애 관계에서 일초라도 더 손 을 잡으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든가. 《오셀로》에서 잃은 손수건이 분노의 폭발의 원인이 된다는 둥,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의심할 바 없는 심 적 이동의 실례이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들의 의식 안에 도달하고 무엇이 그것을 거절하는가, 즉 무엇을 우리들이 생각하느냐가 같은 방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병적 인상을 주며, 그리고 그것이 깨어 있는 생활에 나타나 면 우리들은 그것을 사고착오라 부른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나중에 취급될 다음과 같은 관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우리들이 꿈의 이동 속에서 알아차린 심적 과정은 물론 병적으로 장해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아마 정상적인 과정과는 다른 과정으로서, 즉 더 본원적 성질의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꿈 내용이 부수적인 여러 체험의 나머지를 받아들이는 사실을 이동(移動)의 수단 을 통하여서 꿈 왜곡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우리들은 이 꿈 왜곡이 두 개 의 심급 사이에서 성형된 통과 검열의 한 결과라고 인정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꿈 분석이 그 꿈 원천의 기억이 그 원천의 강도를 중요하지 않은 기억으로 이동시킨 일상생활로부터의 참되고 의미있는 꿈의 원천을 규칙적으로 발견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견해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소용이 없 어진 로베르트의 이론의 정반대에 서게 된다. 로베르트가 설명하려던 사실은 진실 로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로베르트의 가정은 하나의 오해이고 이 오해는 꿈의 실 제의 뜻을 표면적인 꿈 내용으로 대치시키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더욱이 우리들 은 로베르트의 소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난할 수 있다. 즉 만일에 진정으로 꿈 이 특수한 심적 작업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고를 낮의 기억의 '나머지'로부터 자유 롭게 하는 의무를 지녔다면, 우리들의 잠은 깨어 있는 정신생활 이상으로 더 많은 괴로움이 되고, 더 곤란한 일에 이용될 것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억 을 보호하여야 할 낮 사이에 받은 사소한 인상의 수는 확실히 방대한 것이기 때문 이다. 이 일을 완성하리만큼 밤이 길지는 않다. 도리어 변변치 않은 인상을 망각한 다는 것은 우리들의 심적인 여러 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진행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로베르트의 소견을 고려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 없음을 느낀다. 우리들은 낮 동안의 무관심한 인상들 중의 하나—더욱이 전날의 인상—를 반드시 꿈속으로 끌어넣는다는 사실을 해명하지 않았다. 이 인상과, 무의식계의 본래의 꿈 원천과의 관계는 언제나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이 관계는이미 우리들이 관찰했던 바와 같이 계획한 '이동'에 맞추어 꿈 작업 과정에서 나중에 행해진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은 인상이라 해도 바로 최근의 인상의 방향으로 연결을 맺게 하는 일종의 강제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이 중요하지 않은 인상은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특히 잘 적합한 것인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꿈 사상이 그 강도를 자기 자신의 표상권 안에 있는 어떤 비본질적요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명에 있어서 다음 경험은 모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에 꿈을 일으킬 둘 또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체험이 낮 사이에 우리들에게 주어 졌다면, 꿈은 이 체험들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한다. 즉 꿈은 "이 여러 체험을 하나 로 만드는 강제에 따른다." 이를테면 내가 여름 어느 날 밤에 기차를 탄다. 거기 서 아는 사람 둘을 만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 낮을 모르는 사이이다. 한 쪽 은 대단히 유력한 동업자이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의사로서 드나들던 귀족의 집안 의 한 사람이다. 나는 이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한다. 그러나 긴 기차 여행 중에 이 두 사람은 나와만 이야기를 나누어. 나는 어느 때에는 한 쪽과. 또 다른 때에는 다른 쪽과 이야기를 계속해야만 한다. 한쪽의 동업자에 대하여 나는 그도 알고 있 는 방금 개업한 어느 의사를 좀 돌봐 달라고 부탁한다. 그 동업자는 "그 사람은 젊 은 데 비해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채로는 좋은 가정에 드나들기는 좀 힘들 걸요."라고 말하기에, 나는 "그러기에 끌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또 즉석에서 나는 한쪽을 향해서 나의 부인 환자의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 는 동시에 그 사람의 백모(伯母)가 되는 분의 근황을 묻는다. 이 백모는 그 당시에 중병을 앓고 있었다. 이 기차 여행의 밤에 나는 내가 좀 돌봐 달라고 부탁한 그 젊 은 친구가, 훌륭한 살롱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높은 신분의 부유한 사람들 앞에 서 둘째 번의 기차 여행자의 백모(꿈에서는 벌써 죽었다)에 해당되는 늙은 부인을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위해서 능란한 태도로 조사(弔辭)를 말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사실 대로 말해서 나는 이 늙은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의 꿈은 여기서도 낮 사이의 두 체험을 하나로 종합하고 하나의 통일적 상태를 만들고 있다.

많은 비슷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나는 이런 명제를 세울 수 있다. 꿈의 작업에는 모든 존재하는 꿈 자극 원천을 꿈에서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강제가 존재한다고. <sup>4</sup> 우리들은 종합에로의 이 강제를 후장(〈꿈의 작업〉)에서 압축하여 하 나의 다른 심적인 첫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분석이 목표로 하는 바 꿈을 일으키는 원천이 과연 반드시 최근의 (그리고 중대한) 사건이 되어야 하느냐의 여부, 혹은 어떤 내적 체험, 즉 심적으로 가치 있는 사건의 기억이 꿈 제작자의 역할을 인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수많은 분석에서 밝혀진 해답은 후자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꿈을 일으키는 요인은 말하자면 낮 사이의 사고 작업을 통하여 최근의 것(즉 꿈을 꾼 전날의 것)이 된 내적 과정일 수 있다. 이즈음에서 꿈 원천을 인식시키는 여러 조건을 도식화하여 보자.

꿈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 ⊙ 꿈에 직접 나타나는 최근의, 그리고 심적으로 중요한 체험.5
- © 꿈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되는 많은 최근의 중요한 체험.<sup>6</sup>
- © 사소하지만 때를 같이하는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꿈 내용 속에 표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최근의 중대한 체험.<sup>7</sup>
- ② 꿈속에서 '반드시' 어떤 최근의, 그리고 사소한 언급에 의해서 대리되는 중요한 내적인 체험(기억·사고 과정).<sup>8</sup>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꿈 해석에는, 꿈 내용의 한 요소로서 최근의 인상이 되풀이

- 4 중요한 것을 동시에 융합하여 처리하는 꿈의 이런 경향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들라주, 델뵈프의 《강제적 접근》. 다른 좋은 실례는 엘리스 참조.
- 5 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 나의 백부인 친구의 꿈.
- 6 젊은 의사의 조사(弔辭)에 관한 꿈.
- 7 식물학 연구 논문의 꿈.
- 8 분석 중의 나의 환자들의 꿈의 대부분은 이런 종류의 것이다.

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꿈속에서 어떤 것을 대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이 부분은 본래의 꿈 자극물 자체의 표상권에 속하든지 (더욱이 그 표상권의 본질적 성분으로서이냐 혹은 비본질적 성분으로서이냐 중의 어느 하나의 자격에서)—혹은 꿈 자극물의 권(圈)과 크건 작건 관계를 맺은 어떤 사소한 인상권(印象圈)으로부터 유래된다.

이때 조건이 많아 보이는 것은 '이동'이 생겼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았든가 둘 중의 하나에 의해서 생긴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은 꿈의 의학적 이론이 우리에게 뇌 세포의 부분적 각성으로부터 완전한 각성에 이르는 전 단계를 보여주듯이, 이 선택으로 꿈에 대한 설명이 용이해 지는 것임을 우리들은 여기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계열에 관해서 우리들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한다. 즉 그때에 만일 (1) 꿈 내용이 최근의 체험과의 결합을 보존한다는 것, (2) 꿈 자극물이 심적으로 가치 있는 과정이라는 것. 이 두 조건이 수호되면 심적으로는 가치가 있으나 최근의 것이 아닌 요소(기억·사고과정)는 하나의 최근의, 더욱이 심적으로는 사소한 요소로 대용되어서 꿈을 형성하는 목적을 이룬다. 위의 ①의 경우에 동일한 인상에 의해서이 두 조건은 실현된다. 꿈에 이용되는 변변치 않은 여러 인상이 최근의 것인 한도내에서는 하루나이를 지나면 바로 이용될 자격을 잃는 사실을 우리들이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그 만큼 어떤 인상의 신선도가 꿈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심적 가치를 그 인상 자체에 부여하며, 이 심적 가치는 어떤 뜻에서 강렬한 감정적 기억이나 사고 과정에 비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꿈을 형성하는 최근의 인상의 그런 가치가 어디에 근거하느냐를 우리들은 나중에 심리학적 설명에서 비로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제7장 참조).

이 밖에 여기서 우리들은, 밤중에 우리들은 의식하지 못하나, 기억 재료나 표상 재료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 사람들이 최후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룻밤 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는 분명히 정당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꿈의 심리학에서 잠의 심리학에로 옮겨 가게 된다. 또 이런 유

혹은 앞으로도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상기한 소견에 대하여 하나의 반론이 있다. 변변치 않은 여러 인상이 최근의 것인 한도에서만 꿈 내용 속으로 들어온다면, 그 인상들은 최근의 것이었던 그 당시에는 슈트륌펠의 말에 의하면—꿈 내용에는 아무런 심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즉 벌써 잊은 낡은 시기의 여러 요소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신선하지도 않고 심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여러 요소가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반론은 우리들이 신경증 환자에 관한 정신 분석의 여러 결과를 돌이켜보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그 대답은 이렇다. 심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변변치 않은 재료에 의하여(꿈을 꾸는 데 대하여서도, 사고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대용되는 '이동' 현상은 그 경우에 이미 훨씬 전에 일어나, 그때부터 이 이동 현상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원래 그 변변치 않은 여러 요소는, 그것들이 옮겨감으로써 심적으로 중요한 재료의 가치를 인수한 후부터는 이미 변변치 않은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변변치 않은 것은 꿈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논의로부터 우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즉 무의미한 꿈자극물도, 따라서 또 악의 없는 꿈도 없다고. 아이들의 꿈이나, 밤에 주어진 여러자극에 대한 짧은 꿈 반응을 제외하고 이 명제는 절대적인 진실이다. 사람들의 꿈은 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현재적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왜곡되고, 해석이 완

9 꿈을 형성함에 있어서 최근의 것이 하는 역할을 취급한 뜻있는 기여를 오토 푀츨(Otto Pötzl)은 많은 논점을 포함한 연구에서 이루었다(직접의 간취에 대한 여러 관계에서의 실험적으로 야기된 꿈의 여러 영상', 《신경증 및 정신병 잡지》제37권 1917년). 그는 피험자 몇 사람에게 타히스토스코프(주의력을 시험하기 위한 심리 테스트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기계)로 노출된 영상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파악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다음에 그날 밤에 피험자들이 꾼 꿈을 조사하고, 이꿈에서 낮에 보여준 영상과 관계를 가진 부분을 다시 그리게 하였다. 뚜렷하게 판명된 것은 피험자에게 주의되지 않았던 영상의 세부(細部)가 꿈을 형성할 재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지각되고 또 그림에 그려진 부분은 현재적 꿈 내용 속에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꿈 작업에 의해서 채용된 재료는 주지의 '자의적'인, 바로 말하면 자주적 방법으로써 꿈을 형성하려는 여러 경향에 호응하게 끝 가공되었다. 푀츨의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시사는 나의 이 저서에서 시도되고 있는 꿈 해석의 의도를 훨씬 넘은 것이다. 꿈 형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이 새로운 방법이, 수면 방해적 자극을 꿈 내용 속에 도입하는 것을 그 본체로 삼고 있는 옛적의 조잡한 기술과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도 한마다말하여 두고 싶다.

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당하게 판단된다. 그러면 그 꿈은 역시 중요한 것이었음이 확실하게 알려진다. 꿈이란 절대로 변변치 않은 일과 관계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변변치 않은 일에 우리들의 잠을 방해시키지 않는다. <sup>10</sup> 외관상 해롭지 않은 꿈은 그 꿈의 뜻을 해석해 보면 사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투적인 표현이 나에게 용서된다면 꿈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놈이다." 이것 역시 나에 대한 반론을 야기할뿐 아니라 또 나에게는 꿈 왜곡의 과정을 보일 기회이기에, 여기에 수집한 꿈 중에서 '해롭지 않은 꿈' 하나를 끄집어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하나, 실제 생활에서 보수적인 소위 '조용한 물'의 종류에 속하는 한 영리하고 아름다운 귀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꿨습니다. 시장에 늦게 가서 푸줏간에서나 잡화점에서나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단순한 꿈이다. 그러나 꿈이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세히 그 세부를 들려주기를 바랐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여자는 말했다. 그 여자는 바구니를 든 여자 요리인과 함께 시장으로 갔다. 푸줏간은 그 여자가 바라는 물건을 듣고서 "그것은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다른 물건을 보이면서 팔려고 했다. 그것을 사양하고 잡화상의 여인에게로 갔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어떤 묘한 검은 뭉치를 강제로 팔려고 했다. 그 여자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사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이 꿈과 낮에 일어난 사건과의 관련을 쉽게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여자는 시장에 늦게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체험을 묘사하는 도중 '푸줏간은 벌써 닫혔다.'는 흔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다. 그러나 이 말은,—오히려 '닫혀 있지 않다.'는 그 반대의 뜻의 말은, 남성의 복장의 어떤 부분이 닫혀 있지 않다('바지 앞이 열려 있다'는 비엔나의 속어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속된 표현이 아닌가! 그 여자가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아니다. 그 여자는 도리어 이 표현을 피했다. 이제이 꿈의 세부의 해석에 착수하자.

꿈속의 어떤 일이 하나의 이야기의 성격을 띤 경우, 즉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들 10 (꿈의 해석)의 친절한 비평가인 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가 대부분의 우리들이 앞으로 프로이 트를 따라갈 수 없는 지점이다." 그러나 엘리스는 여태까지 꿈을 분석하지 않았고, 현재적 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당하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을 때, 즉 다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닐 때--이것은 대체로 뚜렷이 구별되지마는-그것은 생활 안에서의 실제 대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물론 그 실제의 대화는 꿈에 서는 다만 소재로 취급되고. 짧게 찢기고. 희미하게 변화되고. 특히 전체의 맥락에 서 이탈되어 있다. □ 우리들은 이런 대화나 이야기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 다. 그런데 "그것은 떨어졌습니다."란 푸줏간의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바로 나 자신에서였다. 며칠 전에 나는 그 여자에게 "가장 어린 유년 시절의 체험은 그 것 자체로서는 '떨어졌으나'(얻지 못했다는 뜻) 분석해 보면 '이동'과 꿈을 통해서 바꾸어져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푸줏간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여 자는 낡은 사고방식을 현재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 —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 요. 사지 않겠어요."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말은 분석의 필요상 분해된다. 그 여 자 자신이 전날 말다툼 끝에 여자 요리사에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 면서 "몸을 단정히 해요."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한 '이동'이 이해되다. 여자 요리 사에게 말한 두 마디 말 중에서, 그 여자는 무의미한 쪽의 말을 꿈에서 채용하였 으나 억압된 쪽의 말 "몸을 단정히 해요!"이 남아 있는 꿈 내용에 적합하다. 우리 들은 점잖지 못한 요구를 하고 '푸줏간을 닫는다'는 일을 잊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 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분석의 실마리를 제대로 더듬고 있 음은 잡화상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약간의 암시와의 합치가 증명하 고 있다. 다발로 팔리는 야채(그 여자가 나중에 덧붙인 것에 의하면 긴). 그리고 거 무스레하다는 것은 꿈에서 아스파라가스와 무(Rettig)가 하나로 된 것이다. 아스 파라가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나머지 야채도—"검은 것. 디밀어(Rett'dich)"(역자주. 무와 동음)라는 외침으 로써-우리들이 '푸줏간이 닫혔다.'는 말로 꿈 분석을 착수하려 했을 때부터 바로 눈치 챘던 동일한 성적 테마를 암시하는 것 같다. 지금 문제는 이 꿈의 뜻을 완전 히 이해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꿈은 의미심장하고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 라 점만은 명백해졌을 것이다. 12

<sup>11</sup> 꿈에서의 대화에 관해서는 꿈 작업의 항(項)을 참조. 연구자 델뵈프는 그가 꿈의 대화를 스테로판(版) 과 비교하고 꿈의 대화의 유래를 인식한 것 같다.

<sup>12</sup> 호기심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꿈의 배후에 내 쪽에서의 무례한 성욕을 도발하는 행위란 공상과,

둘, 어떤 점에서는 앞의 꿈과 반대되는 같은 여환자의 또 하나의 다른 단순한 꿈. 그 여자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피아노를 조율시키면 어떨까." 그 여자는 "헛일이 에요. 새로 가죽을 씌워야 하니까요." 이것도 전날의 실제의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 다. 그 여인의 남편은 실제로 전날에 이렇게 말하였고, 그 여자도 역시 그렇게 답 변했다. 그 여자가 그것을 꿈꾼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나 그 여자는 그 피아노에 대하여 '소리가 나쁜, 욕지기나는 상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이 이 피아노를 결 혼 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따위의 말을 하고는 있으나 꿈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는 실은 "헛일이다"라 말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그저께 여자 친구들을 찾아갔 을 때에 유래한다. 그 집에서 그 여자는 웃옷을 벗도록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대 해서 그 여자는, "고맙습니다만 헛일이에요, 바로 가야 하니까,"라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나에게 생각난 것으로, 그 여자는 전전날의 분석 중에 단 추 하나가 끼어 있지 않은 웃옷을 갑자기 붙잡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 치 "보지 마셔요. 헛일이니까."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런 이유로 피아노의 상자 (Kasten)는 흉곽(胸廓·Brust Kasten)이 된다. 이 꿈의 분석은, 그 여자가 자신 의 모습에 불만을 품기 시작한 이전의 육체적 발달기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 나 '욕지기나는'이나 '소리가 나쁜' 것을 생각에 두고 꿈에서나 암시에서나 얼마나 때때로 여자의 신체의 작은 가슴 부분(乳房)이-반대물로서 또는 대용물로서-큰 신체 부분을 얼마나 자주 대신하는지 생각해 볼 때 더 먼 과거로 거슬러 간다. 셋, 나는 이 일련의 꿈을 중단하고 어떤 젊은 남자의 짤막한 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자 한다. 이 남자는 '다시 외투를 입는다. 그것이 싫어서 죽겠다'는 꿈을 꾼다. 이 꿈 의 동기는 갑자기 추워진 데에 있으나. 잘 검토하면 꿈을 만든 두 부분이 잘 맞지

부인 쪽에서의 그 행위의 거절이란 공상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 이 꿈 해석을 기괴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같은 공상이 왜곡되어서 꿈에 나타나지 않고 노골적으로 의식되고 망상되어 있는 히스테리 여성 환자들의 호소를 의사들이 듣는 수많은 경우를 상기시키고자 한다.—이 꿈을 꾼 것은 이 여환자가 정신 분석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 꿈에 의해서 그 신경증의 원인이 되어 있는 초기상흔(初期傷痕)을 되풀이하였다는 것을 내가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그 후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유년 시절에 성적 폭행을 받고, 말하자면 그 폭행이 꿈에서 반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발견한다.

<sup>13</sup> 꿈 해석으로서 우리들에게 밝혀지는 바와 같이, 정반대되는 것으로 대처.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추울 때에 무거운 또는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은 결코 '싫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석해 보면, 그는 어제 어떤 부인에게서 그 여자의 막내둥이가 생긴 것은 콘돔이 찢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을 생각했다. 그는 이것을 계기로 자기의 생각을 종합했다. 그것은 이렇다. 콘돔이 얇으면 위험하고 두꺼우면 재미없다. 콘돔은 바로 외투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씌운다. 독일어로서는 가벼운 웃옷도 외투란 말로 표현된다. 그 부인이 말한 사건은 미혼 남자에게는 여하간 '싫은' 일인 것이다.

이제 다시 단순한 꿈으로 되돌아가자.

넷, 그 여자는 양초 한 자루를 촛대에 세운다. 그러나 초가 꺾어져 잘 서지도 않는다. 학교의 처녀들은 "네가 서툴러서 그래."라고 말하나, 그 여자는 "내 탓이 아니야."라 고 대답한다.

이 꿈에도 실제의 동기가 있다. 실제로 초를 촛대 위에 세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꺾여 있지 않았다. 이 꿈에는 분명히 상징이 있다. 초는 여자 생식기를 자극하는 물건이다. 꺾어져 잘 서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남자의 음위(陰痿)를 뜻한다 ("내 탓이 아니야." 혹은 "내 책임이 아니야."). 다만 문제는 신중한 교육을 받고 일체의 욕지기나는 것을 모르고 생활해온 이 젊은 부인이 초의 이런 이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 그 여자는 우연히 어떤 체험에서 자기가 이 지식을 얻었는가를 말할 수 있었다. 라인 강에 작은 배를 띄웠을 때 대학생들이 타고 있던 보트가 스쳐갔다. 대학생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스웨덴 왕비는 창에 덧문을 닫고 아폴로의 초를 갖고……"

끝 구절은 그 여자에게 들리지 않았거나, 이해되지 않았거나 이다. 그 여자의 남편이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구절이 꿈의 내용 속에서 그 여자가전에 기숙사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서투르게 처리한 순진한 기억으로 대신하고있다. 더욱이 이 노래의 구절과 이 기억은 닫힌 덧문이란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수음(手淫)이란 테마와 음위(陰痿)와의 결합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잠재적 꿈 내용의 '아폴로'는 이 꿈을 먼저 있었던 처녀 신 팔라스(Pallas)가 언급되었던 꿈과 결부시킨다. 이것은 모두 순진한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섯, 꿈에 의해서 그 당사자의 현실 생활을 추측하는 것을 대단히 쉽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기에, 다른 꿈 하나를 소개하련다. 이것도 순진하게 보이는 꿈이다. 이 꿈은 같은 부인 환자가 꾼 것이다. 내 자신이 전날에 실제로 행했던 일을 꿈꿨다. 즉책이 가득 찬 작은 트렁크,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뚜껑을 닫기 힘들었다. 이것을 실제로 꿈으로 꾸었다. 이 꿈에서 환자 자신은 꿈과 현실의 합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꿈에 관한 이런 모든 판단, 꿈에 대한 주석은 깨어 있을 때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의 예에서 증명될 것처럼 반드시 잠재 내용에 속하는 것이다. 꿈속의 이야기는 전날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영어가 도움이 된다는 묘안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보고하면 지나친 일일 것이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잔뜩 들어 있는 작은 상자(상자 속의 죽은 아기 꿈을 참조)가 여기서 다시 문제된다. 이만한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런 모든 '순진한 꿈'에서는 성적 요소가 검열의 동기로서 눈에 띄게 매우 우세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제쳐 두어야 할 근본적인 뜻을 가진 테마이다.

# 2. 꿈 원천으로서의 유아적인 것

꿈 내용의 여러 특성 중의 셋째 것으로서, 우리들은 (로베르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구가들과 함께 "꿈에서는 깨어 있을 때에 기억하고 있지 못하던 어렸을 때의 여러 인상이 나타난다."고 말해 두었다. 꿈에 나오는 각 요소의 유래하는 바가깬 후에도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혹은 얼마나 드물게일어나는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유년기의 인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여러 조건들이 증명할 수 있도록 갖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모리가 보고한 어떤 남자의 이야기는 가장 명확히 증명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 남자는 어느 날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기를 결심했다. 출발하기 전날 밤에, 알지 못하는 곳의 노상에서 어떤 낯모를 신사와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고향에 가보니 꿈에 본 그 모를 곳이 고향 마을의 바로 가까운 곳에 실제로 있었고, 꿈속의 그 신사도 그곳에 살고 있는 별세한 아버지의 친구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어렸을 때에 그곳과 그 사람을 이미 보아알고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여하튼 이 꿈은, 음악회의 입장권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소녀의 꿈이나, 하메아우에 데리고 간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아이의 꿈과 같이 초조한 꿈이다. 꿈을 꾸는 본인에게 바로 이 어렸을 때의 인상을 다시 나타내는 여러 동기는 분석을 거치지 않고서는 물론 발견되지 않는다.

나의 청강자 중에, 자기의 꿈에는 거의 왜곡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 전에 꿈에서 자기의 옛날 가정교사가 유모의 침대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유모는 그가 열한 살 될 때까지 집에 있었다. 꿈에서도 이 광경의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재미있어 하면서 이 꿈 이야기를 형에게 했다. 형은 웃으면서 그 꿈이 현실이었음을 동생에게 증명해 주었다. 형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형은 그때 여섯 살이었다. 가정교사와 유모 두 사람은 주위의 사정이 밤의 정교(情交)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면 형에게 맥주를 주어서 취하게 했다. 이때 유모의 방에서 자고 있던 세 살짜리 동생, 즉 이 꿈의 본인은 별로 방해가 되지 않았다.

꿈이 유소 시(幼少時)의 여러 요소를 포한하고 있다고 해석의 도움 없이 단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그것은 유년 시대에 꿈꾸고 그 뒤에 되풀이되다가 어른 이 되어서도 잠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소위 '계속적인' 꿈이다. 이런 꿈에 관해서 다알고 있는 실례에 내가 경험 한 두서너 개를 덧붙여 두고자 한다. 물론 나 자신은 그런 계속적인 꿈을 꾼 적이 없다. 30대의 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종 누런 빛깔의 사자 꿈을 꾼다. 그는 이 사자를 자세히 묘사할 수 있다. 그런데 꿈에서 낯익어진 이 사자가 어느 날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다. 도자기의 사자였다. 이 도자기는 오랫동안 행방불명이 되었던 것이다.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서 이 도자기 사자가 그의 어렸을 때에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자신은 그 일을 기억해 낼 수 없었다.

이제 꿈의 현재 내용으로부터 분석에 의해서 비로소 밝혀지는 잠재 내용에 눈을돌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도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는 꿈에도 유년 시절의 여러 경험이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노란 사자'의 친구에게 나는 그러한 종류의 적절한 교훈적인 꿈의 실례 하나를 알게 되었다. 난센(Nansen)의 극지 탐험기(極地探險記)를 읽은 날 밤에 그는 이 과 감한 탐험가가 극지의 얼음판에서 좌골(坐骨) 신경통 때문에 전기 치료를 받고 있는 꿈을 꿨다. 그는 이 꿈을 분석하고 있을 때 유년 시절의 일이 생각났다. 이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이 꿈은 여하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서너 살의 아기였던 무렵의 어느 날에 그는 어른들이 탐험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그것이 중한 병이냐고 물었다. '여행 (Reisen)'을 '아픔(Reissen)'으로 잘못 들었던 때문이다. 그는 형과 누이들의 웃음 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시클라멘과(科) 연구 논문의 꿈의 분석에서 다섯 살 난 나에게 아버지가 빛깔이 들어 있는 그림책을 주고 마구 찢게 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유년 시절의 생각에 내가 부딪치게 된 것도 비슷한 예이다. 이 기억이 꿈 내용을 형성할 때에, 실제로 관계하였는지의 여부와, 도리어 분석 작업이 행하여지자 비로소 한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부하고 착잡한 여러연상 결합은 첫 번째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즉 시클라멘—좋아하는 꽃—좋아하는음식물—조선계(朝鮮薊). 조선계 같은 잎을 한 장 한 장 찢는다(이 표현은 당시의중국 제국의 분할에서 매일 들은 이야기였다. 건조 식물 표본(乾燥食物標本)—좀벌레, 이것이 좋아하는 것은 종이이다). 또 나는 내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았던이 꿈의 마지막 뜻이 아기 때에 본 어떤 장면의 내용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일련의 다른 꿈의 분석에서 우리들은, 꿈을 일으켰던 소망 자체의 충족으로서 꿈이 존재하는 바, 소망 그 자체는 어린 시절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게 된다. 놀랍게도 "아기는 꿈에서 자신의 충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우리에게 이미 한 번 새로운 지식을 준 꿈 분석을 계속하련다. 그것은

앞서 친구 R이 나의 백부라는 꿈이다. 우리들은 교수로 임명되기를 바란다는 소망동기가 분명해지는 부분까지 꿈을 분석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꿈에서의 R에 대한 친애감을 꿈 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두 친구에 대한 비방의 반대와 저항의 창조물로서 설명하였다. 그 꿈은 나 자신이 꾼 꿈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이 그런 분석으로써는 흡족하지 않다는 말로 분석을 계속하고자 한다. 나는 꿈 사상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은 동료들에 대한 판단이 깨어 있을 때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잘 알고 있다. 교수 임명이란 점에서 그들과 그 운명을 같이 나누기 싫다는 소망의 강도만으로는, 깨었을 때의 평가와 꿈의 평가와의 대립을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었다. 교수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심정이 그렇게 강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나와는 관계가 먼 것으로 알고 있는 병적 공명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점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모른다. 아마 나도 사실상 공명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명심은 벌써 교수의 명칭이나 지위에 대하여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한 공명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여기 생각나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한 늙은 여자 농부가 맏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나의 어머니에게, 이 아기는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예언했다는 것을 나의 유년 시에 여러 번 들려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예언은 결코 진귀한 것이 아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여 마음을 즐기는 어머니의 수도 무한히 많고, 지상에서의 힘을 잃고 미래의 일에 생각을 돌리는 농부의 할머니나, 그 밖의 나이 많은 여자의 수도 무한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 맞지 않았다고 하여 별로 그 여자 예언자가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공명심은 이 원천에 유래한 것일까?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어렸을 때의 다른 한 인상에 생각이 미쳤다. 이 인상은 사태를 더 한층 잘 설명할 수 있다. 어느 날 저녁에 나는 프라터(Prater)의 식당에 갔다. 이곳에 양친은 열한두 살이었던 나를 곧잘 데리고 갔다.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식탁에서 식탁으로 누벼 다니면서 조그마한 돈을 받고 손님이 내어 놓은 제목으로 시를 지어 낭송하는 거지 즉흥시인이었다. 나는 그 남자를 우리들의 식탁

에 불러 오는 심부름을 했다. 그 사나이는 나에게 감사하고 주어진 시를 낭송하기전에, 나에 대한 일을 시로 읊고, "나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 아이는 장래에 장관이 됩니다."라고 선언했다. 아직도 이 제2의 예언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는 주민 내각 시대의 일이었다. 부친은 전에 평민 출신의 장관이었던 헤르프스트 (Herbst) 박사ㆍ기스크라(Giskra)ㆍ웅어(Unger)ㆍ베르거(Berger) 등의 초상화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신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액자를 벽에 걸었다. 유대인의 장관도 섞여 있었다. 그러므로 근면한 유대인의 사내아이도 장차 장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을 부풀렸다. 내가 대학에 입학 수속을 하기 직전까지 법과를 지망하였던 것도 그 당시의 인상과 관계가 없지 않다. 나는 최후의 순간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법과를 그만두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의사에게는 대체로 장관으로의 길은 열려 있지 않다.

그런데 나의 꿈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겨우 느낀 것이긴 하나 그 꿈은 나의 우울한 현재로부터 저 희망에 찼던 평민 내각 시대(平民內閣時代)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고, '당시의' 나의 소망을 꿈이 가진 바 힘을 다해서 채워 준다. 나는 두 존경하는 학자인 동업자를 하나는 바보로, 또 하나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꿈에서 나 자신이 장관이나 된 것같이 행동하고 자신을 장관의자리에 앉힌 것이다. 장관 각하에 대한 복수는 얼마나 철저한가! 장관은 나의 교수임명을 거절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꿈속에서 자신을 장관의 위치에 놓았던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 나는, 꿈을 만드는 소망이 설사 현재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먼 소년 시절의 기억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내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꿈은, 로마에 가고 싶다는 동경에서 비롯된 일련의 꿈이다. 나는 이 동경을 아마도 상당히 오랫동안 꿈에서만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여행할 여가가 있는 시기에는 로마에서의 체류가 건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 번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기차의 창에서 티베르(Tiber) 강과 천사교(天使橋)를 바라보는 동안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도 로

<sup>14</sup> 나는 그 후에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소망을 충족시키는 데 조금 용기가 필요함을 알았다.

마의 거리에 발을 디디지 못한 것을 알았다. 이 꿈에서의 로마 경치는 그 전날 어 떤 환자 집의 살롱에서 잠깐 본 유명한 석판(石版) 그림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또 어느 때에는 누가 나를 한 언덕에 안내하고 반쯤 안개에 싸인 로마를 가리켜 보였 다. 대단히 먼 곳인데도 이렇게도 똑똑히 보일까 하고 꿈에서 나는 감탄했다. 이 꿈 의 내용은 내가 여기에 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다. '영원한 도시를 멀리 바라본다'란 동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내가 안개 속에 있는 도시를 처음 본 첫 것은 뤼벡(Lübeck)이다. 이 꿈속의 언덕의 원형은 뤼벡의 글라이헨베르크 (Gleichenberg)이다. 셋째 꿈에서 드디어 나는 로마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도 큰 도회지답지 않은 조망(眺望)에 크게 실망했다. 검은 물의 작은 강. 그 한쪽 언 덕은 검은 바위, 또 한쪽은 풀밭으로 희고 큰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추커(Zucker) 씨 (안면이 좀 있는 사람)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을로 가는 길을 그에게 물으려고 결심했 다. 실지로 보지 않은 도시를 꿈에서 보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이다. 꿈의 풍경을 그 여러 요소로 분해하여 보니 흰 꽃은 잘 알고 있는 라벤나(Ravenna)였다. 라벤 나는 잠시나마 로마를 능가할 기세를 보인 일이 있는 도시이다. 라벤나 교외에 있 는 연못의 검은 물 한복판에서 우리들은 매우 아름다운 수련꽃을 본 일이 있었다. 꿈은 이 꽃을 마치 독일의 아우스제의 수선화와 같이 풀밭 속에 피게 한 것이다. 이것은 라벤나에서는 이 수련꽃을 물속에서 따가지고 오는 데 대단히 수고했기 때 문이다. 물가의 검은 바위는 칼스바드 옆에 있는 테펠 골짜기를 연상케 한다. 카를 스바트(Karlsbad)는 내가 추커 씨에게 길을 물으려고 한 특별한 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꿈을 엮어낸 재료 속에서 유쾌한 유대인의 재미있는 두 이야기를 뚜 렷이 인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뜻이 깊으나 종종 날카로운 처세술을 품고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은 대화나 편지 속에 언제나 즐거이 이것을 인용한다. 그 하 나는 '몸'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었다. 어떤 가난한 유대인이 차표 없이 카를스 바트 행(行)의 급행열차에 몰래 탔다. 그러나 차장에게 붙잡혀서 검찰할 때마다 객 실 밖으로 끌려 나가서 점점 악독하게 취급된다. 몇 번째인가 역시 열차 밖에 끌 려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친구 하나를 만났다. 어디로 가느냐란 친구의 물음에 그는 "내 몸이 견디면—카를스바트로."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니 또 하나의 이야기가 연장된다. 프랑스 말을 모르는 유대인이 파리에 갔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파리에 들어서면 리슐리외(Rue Richelieu)에 가는 길을 물으라고 누누이 설명을 들었다. 파리도 나의 왕년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내가 처음 파리의 땅을 밟았을 때의 기쁨이란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이어서 이 기쁨은 나의 다른 소망도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길을 묻는다는 것은 또 직접로마를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주지한 바와 같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커란 이름도 역시 카를스바트를 시사하는데, 우리는 당뇨병에 걸린 모든 인간에게 카를스바트로 가라고 권한다. 이 꿈의 계기는 베를린의 친구가부활제에 프라하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에 있다. 내가 이 친구와 이야기하고자했던 데에는 '추커(Zucker)(설탕의 뜻도 있다)'나 '당뇨병(Zuckerkrankheit)'과 관련된 이유가 더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꿈을 꾸고 며칠 안 되어서 넷째 번 꿈을 꾸었다. 이 꿈도 또 로마에 간 꿈이었다. 눈앞에 마을이 보인다. 거기에 독일어로 된 광고가 많은 것을 나는 이상하게 느꼈다. 전에 나는 친구에게 프라하는 독일인의 유람객에게는 결코 안락한 곳이 못될 것이라고 예상 절반, 걱정 절반의 편지를 써 보냈었다. 그러므로 이 꿈은 보혜미아의 도시에서가 아니라 로마에서 그를 만나자는 소망과 더불어 프라하에서 독일어가 좀더 허용될지 모른다는 나의 대학 시절 가졌던 관심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나는 극히 어렸을 때 체코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태어난 곳은 슬라브인이 살고 있는 메렌(Mähren)의 작은 마을이었다. 열일곱 살 때에 들은 어떤 체코의 동요를, 나는 그 뜻을 모르나 지금도 암송할 수 있을정도로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꿈에도 나의 유년 시절의 여러 인상에로의 복잡한 관계는 빠져 있지 않다.

트라지메너(Trasimener) 호수를 지나간 최근의 이탈리아 여행에서 티베르 강을 보고 로마에서 약 80킬로 떨어진 곳에서 여행에 지친 나머지 되돌아선 후에 나 자 신의 이 영원한 도시에 대한 동경이 소년 시절의 여러 인상 때문에 강력해진 것을 드디어 발견했다. 마침 나는 다음 해에 로마를 지나서 나폴리(Neapel)에 갈 계획 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옛적에 누군가 독일의 고전 작가의 작품에서 본 듯한 한 문장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것은 부교장(副校長) '빙켈만(Winckelmann)'과 '한니 발(Hannibal)' 장군의 어느 편이 로마에 가려는 열망에 보다 열렬했는가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실제로 나는 한니발이 지나간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나도 한니발과 같이 그때까지의 팔자 때문에 로마를 볼 수 없었다. 한니발도 여러 사람이 로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캄파니엔'으로 갔다. 그러나 내가 그의 운명과 비슷한 운명을 맛본 한니발은, 내가 김나지움 시절에 좋아하던 영웅 이었다. 소년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카르타고 전쟁 동안에 로마 병정이 아니 라 카르타고의 영웅에 마음이 끌렸었다. 그 뒤에 김나지움 상급생 시절에 나 자신 이 이인종(異人種)의 피를 계승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또 동급 생 사이의 반 유대적인 감정을 보고 우두커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 부터 이 유대인의 영웅은 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비쳤다. 이 젊은이에게 한니발과 로마는 각각 유대인의 완고성(頑固性)과 가톨릭교회의 조직의 상징으로 생각되었 다. 이후 반유대운동이 우리의 감정생활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는 당시 유소년 시 절의 생각과 감정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로마를 방문하려는 소망 은 나의 꿈 생활에서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열렬한 소망의 가면이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저 한니발과 같은 인내 와 전심으로써 임하여야 하고. 또 그 소망의 충족은 로마로 진주(進駐)하고 싶다는 한니발의 필생의 소망과 같이 때로는 운명의 은총을 받는 일이 적은 것같이 생각 되었다

이제 겨우 나는 이런 모든 감정이나 꿈에서 아직도 여전히 그 위력을 보여 주는 소년 시절의 한 체험에 이르렀다. 열 살부터 열두 살의 소년이었던 때에, 부친은 나를 소풍에 데리고 가서는 그의 인생관을 조금씩 들려주었다. 그는 내가 아버지보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가를 나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언젠가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내 청년 시절의 일이다. 좋은 옷을 입고 새로운 털모자를 쓰고 토요일에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도가 저편에서 오더니 갑자기 나의 모자를 고인 물에 던져 버리면서, '유대인, 보도에서 내려가!'라고 고함

을 질렀어."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나 말이야? 나는 차도에 내려가서 모자를 주웠지." 이것은 어쩐지 소년의 손을 끌고 가는 튼튼한 부친에 어울리지 않게 나에게 느껴졌다. 나는 이 불만스러운 사태에,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스(Hamilkar Barkas)<sup>15</sup>가 소년 한니발로 하여금 사당 앞에서 로마인에 대한 복수를 서약하게 하였던 장면 하나를, 나의 기분에 알맞은 한 정경으로 대치시켰다. 그 후부터 한니발은 나의 공상 중에 움직일 수없는 위치를 차지했다.

나의 카르타고의 영웅에 대한 감격은 유년 시절에까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이 경우에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감정 관계의 새로운 매개물로의 전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글을 배운 후 나의 어린 마음속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책 중의 하나는 티르스(Thiers)의 《집정(執政)과 제국》이었다. 나는 나의 나무 병정의 넓은 등에 제국의 장군들의 이름이 있는 딱지를 붙였고, 당시 이미 나는 마세나(Masséna(유대 명(名)으로 마나세(Menasse))를 대단히좋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그것은 꼭 백 년 전의, 나의 탄생일과 같은 날짜에이 장군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폴레옹도 알프스를 넘었으므로 한니발의 계열에 속한다. 그리고 아마 이 영웅이 상(英雄理想)의 발전은 더 어린 시절에서 온 것이고, 세 살 때까지 함께 놀았던 한살 위의 아이가 언제나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일으켰다고 생각되는 소망에 연결될 것이다. 꿈을 깊이 분석할수록 그만큼 때때로 우리들은 잠재 내용 속에서 꿈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는 유년 시절의 여러 체험의 흔적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앞에서, 기억이 생략 · 변경되지 않고 현재적 꿈 내용 전체를 형성하리만 큼 기억을 다시 생산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두서넛의 실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 몇 가지의 새로운 실례를 덧붙여두나,이 실례들은 모두 유아 시절의 정경에 관계하고 있다. 환자 한 사람이 어떤 성적

<sup>15</sup> 첫 판에서는 이 이름이 하스드류발이 되어 있다.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잘못인데, 나는 나의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에서 이 잘못을 해명하여 두었다.

사건을 거의 왜곡하지 않고 표현한 꿈을 보고했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 그대로였다. 물론 이 사건의 기억은 깨었을 때에 완전히 잊어지지 않았으나 대단히 희미했다. 기억이 새로워진 것은 이 꿈에 분석을 가했던 결과였다. 꿈 당사자는 열두 살때, 침대에 누워 있는 친구를 방문하였다. 이 친구는 아마 우연한 일이었겠으나 침대 위에서 몸의 일부분을 드러냈다. 그는 친구의 음부를 보고 흥분되어서 자신도음부를 드러내고는 친구의 음경을 움켜잡았다. 친구가 싫어하고 놀라는 빛이기에이 소년은 당황하였다. 꿈은 23년 뒤에 그때의 감정 일체를 그대로 자세히 재현하였다. 그러나 조금 변경되어 환자는 적극적으로 역할하지 않고 수동(受動)의 입장에 서고, 상대방의 친구는 현재의 어떤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아적 장면은 물론 현재적 꿈 내용에 있어서 암시를 통해서만 대표되고 해석에 의해서 꿈에서 풀려져야 한다. 이런 실례의 보고는 신빙성 면에서 불리한데, 그 까닭은 대개 아이의 여러 체험에서는 증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여러 체험이 아주 어렸을 때의 것이면, 그 체험들은 기억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유년 시절의 체험이 대체로 꿈에 있다고 결론을 내릴 권리는 정신 분석적 작업에서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될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듯이 보이는 많은 요소에 기인한다. 그러나 꿈 해석을 위해서 꿈과 유년 시절의 체험과의 연관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꿈을 유년 시절의 체험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독자를 충분히이해시키지 못할 것이다. 특히 나는 분석에 의거한 재료 전부를 독자의 눈앞에 늘어놓아 보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나는 보고를 안 할 수도 없다.

하나, 나의 여환자 한 사람의 꿈은 모두가 조급한(gehetzt) 사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간에 알맞게 저편에 도착한다든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든가, 그 밖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여환자는 언제나 바쁘다. 어떤 꿈에서 그 여환자는 여자 친구들을 찾아가야 했다. 어머니가 걸어가지 말고 차를 타고 가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 여환자는 마구 뛰어가면서 몇 번씩이나 넘어진다—분석에서 나타난 재료를 보면, 아이 시절에 서로 보채면서 놀던 기억이 판연하게 식별되었다(비엔나 사람의 소위 '덤비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특히 이 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 즉 '암소가 넘어질 때까지 달린다(Die Kuh rannte, bis sie feil),'를 한 마디의 말인 양 빠른

입으로 말하는 장난에 돌릴 수 있다. 이 빠른 입 놀리기도 또 '조급한 것'의 일종이다. 어린 여자 친구들의 순진한 모든 성급한 장난은 기억에 남는다. 이 장난은 더순진한 조급하게 구는 다른 장난과 대체되기 때문이다.

둘, 또 다른 하나의 꿈에 관해서. 그 여자는 큰 방에 있다. 방 안에는 정형외과의 수술실과 같은 여러 기계ㆍ기구가 있다. 그 여자는 나에게 시간이 없으므로 다른 다섯 사람과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여자는 그것이 싫어서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침대 위에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一혹은 어떤 침대와 같은 것의 위에. 그 여자는 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내가 "아니어요, 그것은 정말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다른 환자들은 그 여자를 비웃는다. "바보야, 너는."이라고 말한다.—그와 동시에 그 여자는 자신이 작은 사각형과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같이 느낀다.

이 꿈 내용의 첫 부분은 나의 치료와 나에게로의 전이와 관련된다. 둘째 부분은 어 렸을 때의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 침대에 관한 이야기는 이 두 부분을 결합시킨다. 정형외과 수술실은, 내가 치료의 기간과 성질을 정형외과의 치료에 비교해서 설 명한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 나는 처음 치료에 착수했을 때에 당분간 당신 때문 에 많은 시간을 낼 수는 없으나 조금 지나면 매일 한 시간을 할당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해 두었었다. 이것이 그 여자 속에 있는 옛적 감정을 자극했다. 감정은 히 스테리에 걸리기 쉬운 아이들의 중요한 특색이다. 이런 아이들은 애정을 끊임없 이 바란다. 나의 화자는 여섯 형제의 막내딸이다(그러므로 '다섯 명과 함께'). 따라 서 아버지께서 특히 사랑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자기에게 대하여 시간과 주의를 기 울이는 일이 적다고 생각했다.—내가. 그것은 정말이 아니라고 말할 때까지 그 여 자가 기다린다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즉 양복점의 작은 사동(使童)이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그 아이에게 돈을 주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남 편에게 "저 아이가 돈을 잃어버리면 나는 또 지불해야 되지 않겠는지 몰라요."라 고 물었다. 남편은 '아내를 놀래주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말했다(꿈 내용 속의 희롱). 그래서 그 여자는 같은 물음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리고 '남편이 드디 어 그것은 정말이 아니야 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이제 만일 내가 그 여자에게 두 배의 시간을 낸다면 그 여자는 갑절의 치료비를 나에게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욕심쟁이라 할까, 치사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잠재 내용으로서 떠올랐다(아이 시절의 치사함은 꿈속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금전상의 인색으로 대치된다. '치사'하다는 말은 양자를 중개한다.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등등의 모든 것이 꿈속에서 '치사함'이란 말로 바꾸어 쓰인다면, '한 구석에 서 있다'와 '침대에 눕지 않는다'는 유년 시절의 장면의 한 성분으로서 치사하다는 것에 잘 어울린다. 어렸을 때에 그 여자는 밤에 오줌을 싼다. 그리고 침대를 더럽힌다. 이 여자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이젠 너를 사랑하지 않을 터라든지, 오빠나 언니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든지 하는 아버지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 벌로서 구석에 세워졌다. 작은 사각형은 그 여자의 작은 조카와 관계가 있다. 이 조카는 9개의 사각 속에 수를 적어넣어서 어디서 어떻게 덧셈하여도 총계가 15란 숫자가 되는 방법을 그 여자에게 보여 주었었다.

셋, 한 남자의 꿈. 이 남자는 노상에서 두 사내아이가 서로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주위에 흩어진 도구로서 미루어 보건대 통 만드는 가게의 점원들인 것 같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때려 눕혔다. 눕혀진 쪽은 푸른 돌을 박은 귀고리를 하고 있다. 그는 막대기를 들고 범인 쪽으로 달려가나 상대방은 판자벽에 서 있는 어머니인 듯한 여자에게 도망쳤다. 이 여자는 날 품팔이 공용인의 부인으로 그에게 등지고 서 있다. 드디어 여자는 돌아서서 그를 소름끼칠 눈초리로 노렸다. 그는 놀라서 도망친다. 그 여자의 눈썹 밑에 붉은 살이 돋아 있다.

이 꿈은 전날의 자세한 사건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아이 싸움도 실제로 있었다. 그가 말리려고 뛰어들었으나 두 아이는 도망쳤다.—통 가게의 아이들은 계속되는 꿈에서 비로소 해명되었다. 이 둘째 꿈 분석에서 그는 '통 밑을 때려서 뺀다'란 표현을 썼다.—푸른 돌로 된 귀고리는 그의 관찰에 의하면 대체로 매음부(賣淫婦)가 끼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두 사내아이에 관한 잘 알려진 익살맞은 시 하나가 떠올랐다. "또 하나의 사내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마리(소녀란 뜻)"라는 것이었다.—'서 있는 부인', 두 사내아이의 싸움을 본 후에 그는 도노 강을 산책하여 인적이 없는 기회에 판자벽에 오줌을 쌌다. 먼 곳에서 정장한 중년 부인이 그에게 웃음을 던

지면서 그에게 명함을 주려고 했다.

꿈속의 여자는 그가 오줌을 누면서 서 있었던 것처럼 서 있으므로 소변을 보는 중이다. 그러면 이것에, 무시무시한 '광경'과 불쑥 나온 빨간 살 등이 덧붙여진다. 이살은 쪼그리고 앉을 때에 쫙 벌려지는 여자의 생식기로 생각된다. 아이 때에 본 이광경은 나중의 기억 속에서는 '육아(內芽)', '상처'로 다시 등장한다. 이 꿈은 두 개의 원인 내지 기회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 두 번째의 원인, 즉 때려눕힌다와 소변본다에서 작은 사내아이는 소녀의 생식기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알 수 있었듯이, 그는 그가 그런 기회에 표시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부친에게서 받은 징계 혹은 위험을 기억하고 있다.

넷, 다음에 드는 한 중년 부인의 꿈의 배후에는 부득이 하나의 공상과 결합된 수많은 유년 시절의 기억이 발견된다. 그 여자는 바삐 물건을 사러 나간다. 그래도 노상에서 엎드려뻗치듯이 무릎을 꿇고 넘어진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특히 마치꾼들이 많았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몇 번이나 일어서려고 해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드디어 성공한 듯하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마치에 실려서 집에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물건이 잔뜩 들어 있는 큰 바구니(물건을 사서 넣는 바구니인 듯한) 하나를 그 여자에게 던졌다.

이 여자는 아이 때에 조급히 굴었던 것과 같이 자기 꿈에서도 언제나 무엇인가에 조급한 저 부인 환자이다. 꿈의 첫 정경은, '넘어진다'란 말이 경마를 암시하듯이, 넘어진 말을 본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 여자는 젊었을 때 말을 탔으며, 더 젊었을 때에는 아마 그 자신이 말이기도 했을 것이다. 야외에서 간질병이 일어나서 마차로 집에 운반된 문지기의 열일곱 살 난 아들에 관한 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이 '넘어진다'에 관계하고 있다. 물론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말만을 들은 것뿐이었기에 간질병의 발작, '넘어지는 사람'이란 관념은 그 여자의 공상을 강하게 지배하고, 나중에 그 여자 자신의 히스테리 발작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ㅡ여자가 넘어지는 꿈을 꿀 때 대체로 거기에는 성적 뜻이 있다. 즉 자기가 '타락한 여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 꿈은 틀림없이 그렇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넘어진 곳은 그라벤 노상, 즉 비엔나에서도 유명한 매춘부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시장바구

니(Körb)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바구니는 그 여자가 처음에 구혼자들에게 주었던, 그리고 그 여자 자신이 생각하듯이 나중에는 그 여자도 받았던 수많은 거절(Korbe)을 생각하게 한다. 이에 "누구 한 사람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가 덧붙는다. 이것은 그 여자가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장바구니는 극히 신분이 얕은 남자와 결혼해서 자신이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나간다는, 분석의 결과 뚜렷해진 공상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끝으로 시장바구니는 남을 섬기는 인간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도둑질했기 때문에 쫓겨난 하녀에 대한 생각 등, 아이 시절의 기억이 또 이에 결부한다.

이 하녀도 역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었다. 그 여자는 당시 열두 살이었다. 거기서 마차꾼과 친해졌기 때문에 쫓겨난 하녀(나중에 결혼하였다)의 기억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기억이 꿈속의 마차꾼의 원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꿈속의 마차꾼은 넘어진 여자(타락한 여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제는 창에서 던져 넣어진 바구니가 남아 있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기차의 화물 운반, 시골집의 창 안팎에서 속삭이는 연애, 신사가 부인 방의 창에 푸른 은행나무 열매를 던져 넣거나, 누이동생이 밖을 지나가는 백치(白痴)가 창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놀란 일 등, 시골에 있었을 때의 작은 인상들을 연상하게 하였다. 그러자 이것들의 배후에는 오래된 희미한 열 살 무렵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이 여자는 옛적에 피서지에서 고용한 유모가 하인 남자와 연애를 하여 둘이 함께 있는 것도 본 일이 있다. 이 유모는하인과 함께 '운반된(던져 진)' 것이다. (꿈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 우리들이다른 많은 경우에 종종 듣는 이야기이다. 일꾼의 짐이나 트렁크는 비엔나에서는 멸시되어 '일곱 도구(일곱 개의 은행 열매)'라고 불린다. "일곱 도구를 꾸려가지고나가 주게."와 같이 말한다.

분석한 결과, 희미하거나 혹은 아주 기억에 없는, 그리고 때로는 첫 삼 년으로 소급할 수 있는 어렸을 때의 여러 인상에 이르는 환자들의 꿈을 나는 많이 수집했다. 그러나 이런 꿈이 일반적으로 꿈 전체에 알맞다고 결론짓는 것은 좋지 못하다. 다들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병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꿈에서 아이 때의

장면에 주어진 역할은 신경병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고, 꿈의 본질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내가 뚜렷한 병 증세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꿈을 해석할 때 대단히 빈번하게 다음과 같이 경험한다. 즉 나는 잠재적 꿈 내용에서 뜻밖에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발견한다. 그리고 어떤 일련의 꿈이 갑자기 어렸을 때의 체험에서 생기는 여러 궤도 속으로 흘러들어 간다. 그 실례를 나는 이미 열거했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제시하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최근의계기와 벌써 잊은 어렸을 때의 체험이 한데 뭉쳐서 꿈 원천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의꿈 몇 가지를 보고하는 데 그치려 한다.

하나, 여행 후에 피곤해서 배를 곯은 채 잠들었던 바, 여러 큰 <del>욕구를</del> 내용으로 한 꿈을 꾸었다.

나는 부엌에 가서 보릿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려고 했다. 부엌에는 세 여자가 있었 다. 그 중의 한 사람은 주부이고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떡이라도 만들 듯이 반죽하 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끝나니 기다려 주시오."라고 한다. (이것은 분명 한 대화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나는 기다릴 수 없어서 성내고 부엌에서 나와 버렸 다. 나는 외투를 끄집어냈다. 처음 외투를 입어 보니 대단히 길다. 그런데 그것을 벗 어 보니 털 깃이 붙어 있어서 놀랐다. 두 번째의 외투에는 터키 무늬의 가장자리가 붙 은 긴 줄이 있었다. 얼굴이 길고 짧은 수염을 기른 낯선 사람이 와서 그것을 자기 외 투라 하고 내가 입으려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나는 외투 전체에 터키 무늬의 수놓 은 것을 보여 주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묻는다. "당신에게 도대체 터키(모양·무늬) 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그러나 이때부터 우리들은 대단히 사이가 좋아졌다. 이 꿈 분석에서. 내가 아마 열세 살 때에 읽었던. 즉 제1권의 끝부터 읽기 시작했 던 첫 소설이 아주 우연히 떠올랐다. 소설의 제목이나 저자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 다. 그러나 그 결말은 잘 기억하고 있다. 주인공은 미쳐서 언제나 세 여인의 이름 을 부른다. 이 세 여인은 주인공의 생애에 최대의 행복과 불행을 가져왔다. 그 이 름의 하나는 펠라지(Pélagie)이다. 나는 이것을 기억해 내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꿈 분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때 세 여인은 인간의 운명 을 다스리는 세 여신을 연상하게 하였다. 나는, 꿈속의 세 여인 중의 한 사람, 즉 주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때때로 나의 꿈에서와 같이 살아 있는 것에 첫 음식 물을 주는 어머니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유방은 사랑과 굶주림이 만나는 곳이 다. 여성미를 숭배하는 어떤 젊은 남자는 유모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어느 때에. 자기를 젖으로 길러 준 아름다운 그 유모와의 그 좋은 기회를 더 잘 이용하지 못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다. 나는 신경증의 메커니즘에서의 '후 의 돌이킴'이라는 계기를 설명할 때에 언제나 이 이야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운명 의 여신 한 사람은 떡이라도 빚듯이 손바닥을 비비고 있다. 운명의 여신으로서는 이상한 짓이니 이것은 꼭 설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렸을 때의 다른 기억 에서 설명된다. 여섯 살 때 어머니에게서 학과를 배울 때, 나는 우리들 인간은 흙 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배웠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불안하 게 하고, 나는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손을 비비면서—떡을 빚 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만 손에 반죽한 보릿가루가 없었을 뿐이다.—어머니 는 우리들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견본으로서, 손을 비볐기 때문에 생기는 표피 의 검은 때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이렇게 실물을 보자 나는 대단히 놀랐다. 나중 에 "어차피 한 번은 죽으니까."란 표현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했다. 16 아이 때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가면 솥 곁에 있던 어머니는 점심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고 나에게 충고한다. 꿈에서 내가 부엌에서 만난 것은 실제로 운명의 여신들이라 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다음에 떡으로 옮겨 가자. 나의 대학생 시절의 은사로 나에게 조직학(皮垢)을 가르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떡(Knödel)과 비슷한 크 뇌들(Knödl)이란 이름에 부딪치면 그 선생의 저서에서 표절(Plagiat)하였기 때문 에 선생에게 고발된 한 인물, 크뇌들(Knödl)이란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 표절한 다. 즉 자기의 것이 아니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주제는. 한때 나를 대학의 강당에서 종종 출몰했던 '외투 도둑'과 같이 다뤘던 꿈의 후반부 에 계속된다. 나는 우연히 생각나는 대로 타의 없이 표절(Plagiat)이란 말을 여기 에 기록했는데 이제 알았지만, 이 말은 꿈의 현재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

<sup>16</sup> 어린 시절의 기억에 속한 두 개의 감정, 즉 놀라움과 피할 수 없는 것에의 굴종(屈從)은, 처음에 나에 게 이 어린 체험에 대한 기억을 부활시킨 하나 앞의 꿈에 나타나 있었다.

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橋梁)의 역할을 한다. 펠라지(Pélagie)—표절(Plagiat)—상어(Plagiostomen)<sup>17</sup>—물고기의 부대(浮袋)(Fischblase)란 연상 관념의 한 계열은 저 낡은 소설을 크뇌들 사건과 성적 도구를 뜻하는 외투<sup>18</sup>와 연결된다.(모리의 킬로 로토(Kilo-Lotto)의 꿈 참조). 이 연결은 매우 견강부회적인 결합 관계임에는 틀림없으나 만일에 이것이 꿈 작업에 의하여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각성 시의 의식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결합 관계이다. 참으로 결합 관계를 만들려는 충동에는 거침이 없다는 듯이, 고귀한 이름 브뤼케(Brücke・다리의 뜻)까지 이제, 내가 마음에 아무런 구애됨이 없었던 학생으로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지낸 저 연구소를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리하여 너는 날마다 지식의 유방에 파문혀 굶주린다). 이에 대하여 나는 이 꿈에서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은사의 기억이 떠오른다. 이 선생의 이름도 또 음식물과 관계한다. (Knödl과 같이 쇠고기(Fleischl)=Fleisch=고기) 그리고 또 손의 검은 때 뭉치가한 역할을 맡는 슬픈 장면(주부와 어머니), 또 광기(소설의 주인공), 라틴 부엌(약국)에서 공복을 채우는 한 수단, 즉 코카인 등에 대한 기억도 있다.

이상과 같이 나는 혼잡한 사고를 더듬고, 채 분석하지 못한 부분을 완전히 해명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개인적 희생이 너무 크기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해명하지 않겠다. 나는 다만 이 혼란의 밑바닥에 있는 꿈 사상에로 직접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실마리만을 들기로 한다. 외투를 못 입게하려고 하던 긴 얼굴에 짧은 수염을 가진 사나이는, 나의 아내에게 많은 터키 옷감을 판 슈팔라토(Spalato) 상인의 얼굴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 사나이는 이름이 포포비치(Popovic)였다. 좀 애매한 이름으로, 그 이름을 들은 익살스러운 시인 슈테덴하임(Stettenheim)은 암시적인 말을 던졌다. "그가 나에게 자기의 이름을 대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악수했다."(포포(Popo)는 엉덩이의 뜻). 여하튼 나의 꿈은 위의 펠라지ㆍ크뇌들ㆍ브뤼케ㆍ플라이슐과 같은 이름을 남용하는 듯하다. 이런 이름의 농담이 졸렬하다고 주장한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나의 이런 짓은 복수 17 나는 의도적으로 '상어'에 대한 설명을 피했다. 상어는 그 교수 앞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

18 콘돔.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의 한 토막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이름이 여러 번 유치한 농담의 재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헤르더(Herder)가 언젠가 괴테(J. W. von Goethe)라는 이름으로 희롱의 시를 지었다.

신(神)들(괴터(Götter)), 고트(Gothe) 족 혹은 때(垢)(Kote)에서 탄생한 너— 너희들 신들도 역시 때(垢)이구나.

이것을 보고 괴테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과 피부를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이 느끼고,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고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름의 오용이란 먼 길을 걸은 것은 다만 이 한탄(恨嘆)의 말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쯤에서 이제 중단하자. —슈팔라토(Spalato)에서 물건을 산 일은 카타로(Cattaro)에서 물건을 사는 일을 연상케 한다. 그때는 너무 성격이 소극적이었으므로 굉장한 물건이 있는데도 사지 못했다(유모의 유방을 즐길 기회를 놓친 것, 앞을 참조). 꿈 당사자에게 굶주림이 주는 꿈 사상의 하나는 이렇다. 가령 다소의 부정을 피할 수 없더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인생은 짧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도 성적인 뜻이 있다. 욕망은 부정 앞에서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을 즐기라'는 생각은 검열을 두려워하여 어떤 꿈의 뒤에 몸을 감출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반대되는 사상, 즉정신적인 자양분만이 꿈 당사자에게 충분했던 때에 대한 기억, 모든 방해, 그리고 싫어해야 할 성적인 징벌을 가하겠다는 위협이 고개를 쳐든다.

둘, 둘째 꿈은 상당히 긴 배경 설명을 요구한다. 나는 휴가를 얻었으므로 아우스제로 여행하려고 서쪽 정거장으로 마차를 몰았다. 먼저 떠나는 이슐(Ischl) 행(行) 열차의 플랫폼에 갔다. 거기에 툰(Thun) 백작이 서 있다. 백작은 또 이슐 황제에게가는 길일 것이다. 비가 오는데 무임승차로 와서 즉시 지선 열차의 출입구를 지나서 플랫폼으로 나갔다. 출찰계(出札係)가 툰 백작을 몰라보고 차표를 요구했을 때백작은 그 손을 흔들고 아무 말 없이 출찰계원을 밀고 지나갔다. 백작이 이슐 행

열차에 오르고 차가 떠난 뒤, 차장은 나에게 와서 플랫폼에서 대합실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리고 거기에 남아 있었다. 나는 팁을 주고 차실(車室)의 시중을 드는 녀석이라도 나타나지 않나 살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런 녀석이라도 나타나면 소동을 일으켜 줄 테다, 즉 나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 테다라고 생각했다. 그런 중에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부르다 보니 〈피가로의 결혼〉 중의 아리아였다.

백작이 춤추시려면 춤추시오 말씀을 내리시지요 어서 한 곡을 치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노래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매우 명랑하고 투지가 왕성하였고, 시중꾼과 마부에게 심술궂은 일을 했으나, 그들을 성나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성싶다. 나의 머릿속에는 피가로의 대사나 코미디 프랑세즈(Comédie francaise)에서 본 보마르세(Beaumarchais)의 희극의 기억에 알맞은 모든 담대하고 반역적인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다. 탄생하느라 고생했던 귀족들의 말, 알마비바 백작이 수잔느에게 고집했던 귀족의 특권, 툰(Thun) 백작을 반대파의 악의에 찬 일간 신문기자들이 니히츠툰(Nichtstun)(툰은 '일하다', 니히츠툰은 '무능'의 뜻)이라고 부르는 희롱, 이런 것이 나의 머리에 떠오른다. 사실 툰 백작이 부럽지 않았다. 그는 용무로 황제에게 가야 하는데, 나는 말하자면 휴가 여행을 떠나는 실제의 니히츠툰 백작이었기 때문이다. 휴가를 위한모든 유쾌한 계획이 뒤따른다. 이때 한 신사가 왔다. 그는 국가시험에 정부 대표로입회했던 사람이며 이 일을 끝낸 그는 '정부동금자(政府同衾者)'란 별명을 받았다. 그는 자기 관직을 빙자로 일등실의 객실(Coupe) 한 칸을 요구했다. 그의 말을 들은 역원은 다른 역원에게, 쿠페라고 하시는데 어디가 좋을까 하고 상담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참으로 특권이다. 나도 일등 요금을 지불했다. 나도 쿠페를 얻었으나

당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없었다. 역원에 불평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손님들의 만일을 생각해서 이 쿠페의 마루 밑에 적어도 구멍 하나쯤 뚫어 놓으면 어떠냐고, 한마디 뇌까렸다. 실제로 나는 밤중에 3시 45분경 오줌이 마려워서 잠을 깼다. 그 때 꾼 꿈은 다음과 같다.

군중, 학생 집회—한 백작(툰(Thun) 혹은 타페(Taaffe))이 연설한다. 독일 사람에 대해 서 한 마디 말하라는 통에. 백작은 조롱적인 태도로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은 머 위라고 말하면서 찢긴 잎사귀 한 장의 엽골(葉骨)만을 뭉쳐 놓은 듯한 것을 단춧구 멍에 꽂는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화가 났다. " 그리고 이와 같은 나의 마음에 놀랐 다. (그리고 희미해진다) 강당과 같은 곳. 출입구가 닫혀 있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 깨 끗이 정돈된 방 앞을 지나간다. 확실히 정부의 방들이다. 자색과 고동색의 중간 빛깔 의 가구, 중년의 뚱뚱한 가정부가 앉아 있는 낭하에 도달했다. 나는 이 여자와의 이야 기를 피하려고 한다. 부인은 내가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이 "남폿불로 안내해 드릴까요." 하고 묻는다. 계단에서 기다려 달라고 나는 그 여자 에게 몸짓하면서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시의 눈을 용하게 빠져 나와서 잘 했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 와서 좁고 험한 고갯길을 찾아간다. (다시 희미해진 다…….) 앞에서는 집에서였으나 이제는 동네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것 같다. 일두(-頭) 마차를 타고 정거장에 가라고 마차꾼에게 호령한다. 마부는 내가 마치 그를 혹사 나 한 듯이 나에게 말대꾸하고 나서 "나는 철길 위를 당신과 함께 달릴 수 없어요."라 고 한다. 보통 같으면 기차로 달릴 곳을 나는 마차로 벌써 달린 것 같았다. 역은 어디 나 사람으로 가득 찼다. 나는 크렘스(Krems) 또는 즈나임(Znaim)으로 갈까 했으나 그 곳에는 궁궐 사람들이 있으리라 하고 생각을 돌이켜 그라즈(Graz)나 이와 비슷한 다 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제서야 나는 차에 앉았다. 차 안은 시내 전차와 마찬가 지다. 단춧구멍에 묘하게 짠 긴 것이 꽂혀 있고. 거기에다 딱딱한 재료로 만든 자색이 섞인 갈색의 오랑캐꽃이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여기서 한 장면이 끝나고 말았다.

<sup>19</sup> 이 되풀이는 부주의로 꿈의 본문 속에 섞이었다. 분석이 보여주듯이 이 되풀이는 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대로 두려고 한다.

나는 또다시 정거장 앞에 서 있다. 이번에는 중년 신사 두 사람을 데리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궁리를 생각했으나, 이 궁리가 벌써 실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생각과 체험이 하나인 것 같았다. 같이 간 신사는 장님이나 매한가지다. 적어도한쪽 눈은 멀었다. 나는 그에게 남자용 소변기 병을 내밀었다. (이 병은 마을에서 사야 했거나 샀던 것이다.) 즉 나는 간호인이고 그는 장님이므로 그에게 병을 내밀 수밖에 도리가 없다. 차장이 이런 모습을 보면 모른 체하고 우리들을 지나칠 것은 틀림없다. 이때에 눈먼 사나이의 자세와 그 소변보는 음경이 뚜렷이 보였다.

이 꿈 전체는 꿈꾼 본인을 1848년 혁명의 해에 옮겨 놓은 공상이란 인상을 준다. 이 기억은 1898년의 50년 제(祭)에 의해서 새로워졌고. 또 거기에다가 바하우 (Wachau)에 소풍 가서 그곳에서 피슈호프(Fischhof)의 은둔소로 잘못 알았던 엠 머스도르프(Emmersdorf) 마을을 알게 된 데에서 새로워졌다. 이 피슈호프와 이 꿈의 현재 내용과의 특색 몇 가지는 뚜렷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관념 결합은 거 기에서 영국에 있는 나의 동생 집으로 나를 인도한다. 동생은 아내에게 '50년 전 에'라고 곧잘 말했다. 이것은 테니슨 경(卿)의 어떤 시의 제목이다. 이에 대해서 아 이들은 '15년 전에'라고 정정하곤 했다. 툰 백작을 보고 떠오른 여러 관념과 결부된 이 공상은 뒷건물과 유기적 관계없는 이탈리아 사원의 정면과 같다. 이 사원의 정 면과 다른 점은 그것이 틈이 많이 벌어졌고 착란(錯亂)하고 내부의 요소가 여러 곳 에서 튀어나와 있다는 점이다. 꿈의 첫 상태는 많은 장면으로 뒤섞여서 만들어졌 으나, 나는 그 장면에서 첫 상태를 분간할 수 있다. 꿈에서의 백작의 오만한 모습 은 나의 열다섯 살 때의 김나지움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 시절에 인기 없고 무식한 선생에 대해서 모반(謀叛)을 계획했다. 이 모반의 지도자는 자 기를 영국의 헨리 8세로 자처한 학교 동료의 한 사람이었다. 반역의 지휘는 나에 게 맡겨졌다. '오스트리아(Wachau!)에 대한 다뉴브 강의 의미'에 관한 토론이 소 동의 표면화의 계기였다. 이 일당에 귀족 출신 한 사람이 있었다. 키가 굉장히 컸 기 때문에 '기린'이란 별명이 붙었다. 그가 독일어 폭군 선생에게서 꾸중을 듣고 서 있는 모습이 꿈속의 백작 그대로였다. 좋아하는 꽃의 설명과, 그것도 역시 꽃임에 는 틀림없으나 어디인가 단춧구멍에 꽂힌 것은(이것은 내가 그날 어떤 여자 친구 에게 갖다 준 난초를 생각하게 하고, 예리코(Jericho)의 장미를 생각나게 한다.) 홍장미와 백장미의 내란의 막을 올린 셰익스피어의 제왕극(諸王劇) 중의 한 장면 을 특히 생각하게 한다. '헨리8세'에 관한 언급이 이를 기억나게 한 것이다. 이것 으로부터 장미에서 붉은 석죽화(石竹花)와 흰 석죽화(石竹花)에로의 길도 멀지 않 다. (이 사이에서 시가(詩歌) 두 수가 분석된다. 하나는 독일 노래, 또 하나는 스페 인 노래이다. 전자는 '장미·튤립·석죽화. 모든 꽃이 시든다.' 후자는 '이자벨리타 (Isabelita)여, 슬퍼하지 말라, 꽃이 시들어 감을 '이다. 스페인어를 생각한 것은 피 가로(Figaro)에서 온 것이다) 흰 석죽화는 비엔나에서는 반유대주의자. 붉은 석죽 화는 사회 민주주의자의 표지로 되어 있다. 그 배후에는 풍광명미(風光明媚)한 작 센 지방(앵글로 색슨)을 질주하는 열차 속에 반유대적 도전의 생각이 숨겨져 있다. 첫 꿈의 상태를 형성한 여러 요소를 제공하는 제3의 장면은 나의 대학생 시절의 초기에서 온 것이다. 어떤 독일의 대학생 협회에서 '자연법·과학에 대한 철학의 관계'란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얼굴이 흰 청년인 나는 철저한 유물론자로서 극히 치우친 입장을 감히 대변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착실한 대학생이 반박 하였다. 이 남자는 그 후에 사람들을 지휘하고 조직하는 데에 재능을 보였으나, 그 의 이름도 역시 동물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우리들의 의견을 여지없이 갈긴다. 이렇게 말한다. "나도 젊었을 때에 돼지를 길렀소. 그 뒤 후회하고 아버지의 집으 로 되돌아갔소."라고. 나는 성을 냈다. (꿈에서도 같다.) 매우 무례해져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돼지를 기른 일이 있음을 알았으니 이제 그런 연설에 놀라지 않 소." (꿈에서 나의 독일에 대한 애국적 생각에 놀랐다.) 대혼란이 일어났다. 모두 들 나의 이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나는 단연코 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욕당한 사람에게 도전하라고 권했으나, 당사자는 이 권유를 받지 않고 현명하게 사태를 가라앉혔다.

꿈 장면에 관한 이 밖의 여러 요소는 더 깊은 심층(深層)에서 유래한 것이다. 백작이 머위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머위(Huflattich)—상치(Lattice)—샐러드(Salat)—욕심쟁이 개(Salathund)의 풋내기 등의 한 연상 계열을 생각한다. 여기에서 일련의 욕지거리를 볼 수 있다. 기린(Giraffe) · 돼지(Schwein) · 암퇘지

(Sau) · 개(Hund). 나는 어떤 길을 거쳐서 당나귀란 말에 도달하면. 또 다른 학교 선생을 모욕하게 될 수 있었다. 그 외에 나는—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알 수 없으 나—머위를 '민들레(pisse-en-lit)(침대 위에 오줌을 싼다)'라고 번역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름의 셀러드를 가져오라고 하는 에밀 졸라(E. Zola)의 《제르 미날(Germinal)》에서 유래된 것이다. 개(Hund-chien)는 그 단어 속에 똥이란 음 을 가지고 있다(chien은 대변보다. pisser은 소변보다의 뜻), 그런데 우리들은 곧 이런 망측한 것이 언제나 세 개의 혼합 상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래할 혁명과 관련이 깊은 듯한 《제르미날》에서는, 방귀(Flautus)란 이름의 가스 상의 배설물의 생산과 관계하는 실로 이상한 경쟁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20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플라투스에로의 길은 벌써 오래전부터 주비되어 있었다고, 꽃에서 이자벨리타(Isabelita)라 스페인의 노래를 거쳐서 이자 벨라(Isabella)와 페르디난도(Ferdinand), 헨리8세, 영국사를 경유하여서 영국에 대한 스페인 무적함대의 전쟁이란 길에 통한다. 싸움이 승리로 끝난 뒤에 영국인 은 그들이 바람에 날려서 흩어졌다는 명(銘)을 새기 메달을 만들었다. 이것은 선풍 (旋風)이 스페인 함대를 흐트러뜨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히스테리증의 해 석과 치료법에 관해서 상세히 보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보고 논문 중의 〈치료 법〉의 한 장의 표제에 반 농담으로 이 명문(銘文)을 선택하려고 했었다. 꿈의 둘째 장면은 첫째 장면과 같이 상세히 풀 수 없다. 그것은 검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나는 꿈에서 그 혁명 시대의 한 고관의 자리에 자기를 놓았다. 이 고관은 또 독수리와 묘한 일을 하기도 하고, 양편실금증(兩便失禁症)을 앓기도 하였다. 한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이 상기한 이야기의 대부분을 들려주었다고 해도나는 여기서 검열에 합격할 자격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연결된 방들은 내가 잠깐 들여다볼 수 있었던 각하의 귀빈 열차의 찻간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꿈에서 흔히 그러하나, 부인을 뜻한다. 가정부가 나타난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어떤 영리한 중년 부인의 집에서 대접받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부인

<sup>20</sup> 제르미날(Germinal)이 아니라 대지(La Terre)에서이다. 이 잘못을 나는 분석한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그리고 나는 Huflattich와 플라투스(Flatus)에 있는 똑같은 문자에 주목한다.

을 여기에 나타나게 한 것은 은공(恩功)을 원수로 갚은 결과가 되었다—. 남포사건은 같은 내용의 재미있는 체험을 기록하고, 이 체험을 《영웅과 레안더(Hero und Leander)》(바다의 파도와 사랑의 파도, 무적함대와 폭풍우)로 전환시킨 그릴파저 (Grillpazer)에 돌릴 수 있다. <sup>21</sup>

꿈의 남은 두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는 일을 나는 자제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꿈을 분석하도록 한 계기가 된 어린 시절 두 개의 정경을 떠올리게 한 요소들만 끄 집어 내려한다. 나를 이렇게 자제하도록 한 것이 성적 재료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을듯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설명에 만족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비밀로 간직되어야 하는 여러 일을 자기에게는 결코 비밀로 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나로 하여금 분석을 감추게 하는 이유들이 아니라, 본래 꿈의 내용을 나 자신에게 감추려는 내심(內心)의 검열의 여러 동기 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꿈을 분석하여 보고 이 세 꿈의 각 부분이 염치없는 거짓 말이고 깨어 있을 때에는 이미 오래전에 억압한 어리석은 과대망상의 표현임을 인 식할 수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망상은 한두 개의 계획을 현재적 꿈 내 용에서까지 나타내며, (나는 내가 영리하다고 느낀다) 여하간 꿈을 꾼 전날 저녁 의 교만한 기분을 충분히 헤아리게 한다. 모든 영역에 자만심이 엿보인다. 예컨대 그라츠의 지명은 돈을 무진장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의기양양해서 말하는 말. "그라츠(Graz)가 어떻단 말이냐"와 관계되고. 또 라블레(Rabelias)의 뛰어난 저서 《가르강튀아(Gargantua)와 그의 아들 팡타그뤼엘(Pantagruel)의 생애와 행 적》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꿈의 첫 부분의 상기한 내용을 일종의 거짓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소아 시절의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나는 이번 여행 때문에 새 가방을 샀는데, 이 가방 빛깔은 갈색 티 가 나는 얕은 자색이고. 이 빛깔은 꿈에 몇 번이나 나타난다('색시 낚기'라 불리는

<sup>21</sup> 꿈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질베러가 그의 뜻깊은 연구(《환상과 신화》, 1910년)에서, 꿈 작업이 꿈을 형성함에 있어서 잠재적 꿈 사상뿐만 아니라 심적 과정을 재현할 수 있음을 가리키려고 했다(〈기능적제(諸) 현상〉). 그러나 나는 그가 꿈을 형성함에 있어서의 심적 사상'이 그 밖의 모든 것과 똑같이 하나의 사상 재료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교만한 꿈에서 나는 이런 여러 과정을 발견한 것을 자랑한다.

물건 옆에 단단한 재료로 만든 자색의 바이올린, 정부의 각 방에 있는 가구들). 어떤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 아이들의 유명한 믿음이다. 그런데 나는 아이 때의 나에 대하여 전부터 이렇게 듣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건 자체의 기억을, 들은 것에 대한 기억으로 바꾼 것이지만 나는 두 살까지 자면서 오줌을 쌌던 모양이다. 아버지의 책망을 받으면 나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큰 마을 N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빨간 침대를 사서 드리겠노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위안했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꿈에서 우리들이 병을 '이미' 마을에서 샀다, 또는 '사야 했다'란 삽입 부분이 있는 것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남자용의 소변기와 여성의 가방의 병존(併存)에 주의하시기를 바람) 아이의 모든 과대망상은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 오줌싸개가 꿈에 대하여 가지는 뜻은 앞에서 소개한 꿈 해석에서 분명할 것이다. 신경증의 정신 분석은 오줌싸개와 공명심과의 밀접한 관계를 또 뚜렷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칠팔 세 때에 가정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있다. 이것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양친이 계실 때 양친의 침실 안에서 대소변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들었는데, 나는 어느 날 밤 침상에 들기 전에 이것을 범했다. 아버지는, "너는 좋은 사람 되기는 틀렸다."고 나를 꾸짖었다. 이 꾸중은 나의 공명심을 대단히 손상시켰다. 이 장면의 암시가 나의 꿈에 되풀이될 때마다 반드시 나는 "보십시오. 이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듯이 나의 여러 업적과 성공을 일일이 들어 보였다. 이 어린 시절의 한 체험이 지금 문제가 된 꿈의 끝부분에 재료를 제공한다. 물론 복수 때문에 역할이 바뀌긴 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녹내장을 뜻하므로" 확실히 이것은 아버지로 생각되고, 처음의 늙은이는 내가 옛적에 그의 앞에서 소변을 보았듯이 지금 그가 나의 앞에서 소변을 본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듯, 녹내장을 통해 그의 수술에 효과가 있었던 코카인을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 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조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다. 그는 눈이 멀었기에 내가 오줌통을 받쳐 주는데다가 또 나는 내가 자랑하는 히스테리증

<sup>22</sup> 다른 해석. 그는 신들의 아버지 오딘(Odhin)과 같이 두 눈이다—오딘의 위로.—아버지에게 새로운 침대 하나를 사 줄 것이라는 아이의 정경으로부터의 위안.

이론에 관한 나의 모든 지식을 마음껏 암시하기 때문이다. 23

어린 시절의 두 소변 장면이 나에게 있어서 과대망상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었다면, 아우스제에로의 여행도상에서 내가 탄 찻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연한 상황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는 오줌이 마려워서 잠을 깨었다. 생각하건대 사람들은 이 요의(尿意)야말로본래의 꿈 자극자라고 보고 싶을 것이나, 반대로 나는 이 요의를 꿈 사상이 일으켰다고 생각하고자 한다. 나는 밤중에 그런 것으로 잠을 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기때문이다. 더욱이 오전 2시 45분에 잠을 깨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아직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하련다. 나는 여행 중에 편한한 상황에

23 약간의 판단 재료를 덧붙여 둔다. 유리병을 댄다는 것은 안경 상점에서 안경알을 몇 번이나 눈에 대어 본 농부 이야기를 나에게 생각하게 한다.—(농부 낚기—앞의 꿈 부분의 색시 낚기).—졸라의 《대지(Le Terre)》에 나오는 농부들의, 머리가 돈 아버지에 대한 취급.—아버지가 늙어서 아이들과 같이 침대 를 더럽혔다는 슬픈 복수의 만족. 그러므로 나는 꿈에서 그의 간호(看護)인이다. —여기서 "사고와 체 험은 말하자면 하나이다."는, 아버지인 신이 뇌연화증(腦軟化症)의 노인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게 취 급되는, 오스카 파니차(Oska Panizza)의 대단히 혁명적인 연극을 생각하게 한다. 거기에 이렇게 씌 어져 있다. "신에 있어서는 의지와 행동이 하나다. 그리고 그는 일종의 가니메데스(Ganymed)와 같은 그의 대천사(大天使)에 의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와 행동은 하나이기 때문이다."—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는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된 후년에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말한 비난이다. 그러나 대체로 반역적이고 권위적인 윗사람을 모욕하는 꿈 내용은, 모두 아버지에 대 한 반항으로 해석된다. 백작은 나라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완전한 권력으로부터 인 간무화사시대(人間文化史時代)를 지나는데 따라서 다른 사회적 여러 권위가 생긴(이 명제가 '모권(母 權)'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낡은. 아이에게는 최초의 유일한 권위이다. —꿈에서 의 "사고와 체험은 하나이다"이란 표현은, 그것에 대해서는 남자용의 유리병도 관계가 있는 히스테리 적 여러 증세를 해명하려는 것이다. 비엔나 사람에게 나는 '그슈나스(Gschnas)의 원리'를 설명할 필 요는 없다. 즉 그것은, 진기하고 귀중한 외관을 가진 물건을, 보잘것없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가치 없 는 재료로부터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미술가들이 유쾌한 저녁을 보낼 때에 즐기는 바와 같은 냄 비나 짚으로 된 빗자루나 과자 등으로 무기를 만드는 따위가 그 실례이다. 나는 히스테리증 환자들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이외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체험 중 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흔한 재료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름끼치는 혹은 빗나간 공상 사건을 만든다. 그들의 병 증세는 우선 이 공상과 관계되며, 실제의 사건이 중대하든 단순하든 그 실제의 사건과는 관 련이 없다. 이 설명으로써 나는 몇 번이나 곤란을 극복했다. 그리고 성공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나 는 이것을 '남자용 유리병'의 꿈 내용으로 암시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최근의 '그슈나스회(會)의 저녁' 에 곧잘 병원에서 쓰이는 남자용 유리병이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루크레치아 보르지아(Lucrezia Borgia)의 독배(毒杯)가 진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서는 아침 일찍이 잠을 깨어서도 요의를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점을 분명하게 결론내리지 않아도 나로서는 상관이 없다.

그 꿈의 원천과 소망 자극자가 쉽사리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 완전히 해석되는 듯이 보이는 꿈에 있어서도 매우 어린 시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실마리가 나온다는 것을 꿈을 분석할 때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주의하게 된 이후, 나는 꿈의 이런 특성 속에도 '꿈을 꾼다'는 본질적인 조건 하나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만일에 내가 이 생각을 일반화해도 좋다면 어떤 꿈의 현재 내용일지라도 그 속에는 극히 최근에 체험한 것과의 연결이 있다. 반면 모든 꿈의 잠재 내용 속에는 가장 낡은 체험과의 연결이 있다. 나는 실제로 히스테리증 분석에서 가장 낡은 이 체험이 좋은 뜻으로 현재까지 '최근의 것'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어온 것임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추론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낡은 소아 시절 체험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새로이 논해져야 할 것이다(제7장).

처음에 고려된 꿈 기억의 세 특성 중에서 '변변치 않은' 것이 꿈 내용에서 하는 큰 역할은, 이것을 꿈 왜곡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만족스럽게 해명되었다. 다른 두 특성, 즉 '최근의 것'과 '소아적인 것'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우리가 확인하였으나, 그 양자를 꿈의 동기의 원인에서 끄집어 낼 수는 없었다. 우리들에게는 이 두 특성을 해명 또는 평가하는 일이 남아 있다. 지금은 그런 특성이 있다고만 해 두고, 그 해 명평가(解明評價)는 우리들이 심적 구조의 내적 성질이,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 듯이 꿈 해석을 통해서 관찰될 수 있음을 안 다음에, 면심수심(眠心睡心)의 심리학에서나 또는 우리들이 나중에 취급하게 될 심적 장치의 구조를 논하는 곳에 양보될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나는 최근의 몇 가지 꿈 분석에서 얻은 다른 결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꿈은 종종 여러 뜻을 갖고 있는 성싶다. 실례로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소망 충족이 한 꿈에 통일될 뿐 아니라, 그 옷을 벗겨 보면 제일 밑에서 최초기(最初期)의 소아 시절의 한 소망 충족의 실현을 만나는 일도 있다. 나는 '종종'이라고 말

했으나, 이것은 '일반적으로'라고 바꾸는 편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신체적 꿈 원천

교양은 있어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여러 가지 꿈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꿈이 도대체 어떤 원천에서 유래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얼굴을 틀림없이 짓는다. 즉 그 사람은 바로 소화 장해 이니 소화 곤란(꿈은 오장육부의 피곤)이니, 잠자는 동안의 우연한 몸의 위치니. 조그마한 자극 등이 잠자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한다. 그런 요소를 다 고려 하더라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 더 남아 있다는 점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보인다. 꿈을 형성함에 있어 그런 신체적 자극 원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전문적 무헌을 본서의 서장(序章)에 상세히 밝혀 두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 분석 결과를 상기만 하도록 하자. 우리들은 다음의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신체적 자극 원천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바깥의 여러 대상에서 오는 객관적 자극, 둘째는 주관적인 근거를 둔 감각 기관의 내적 흥분 상태, 셋째는 신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체 자극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꿈 연구자들이 자칫하면 이 신체적 자 극 원천 외에 가능한 어떤 심리적 꿈 원천을 불문에 붙이거나, 혹은 이것을 아주 제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신체적 자극 원천들을 지지하는 주장을 검토할 때 우리들은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객관적인 감각 기관의 여러 흥분의 뜻은— 한편으로는 잠자는 동안의 우연한 자극이건 또는 잠든 심적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자극이건—여러 관찰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또 실험을 통해서 주관적

<sup>24</sup> 꿈의 뜻이 몇 개나 겹쳐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은,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취급하기 곤란하나 가장 내용이 풍부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가능성을 잊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하기 쉽고, 꿈의 본 절에 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여러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아직 막막한 형편이고, 현재까지는 랑크(O. Rank)에 의한 요자극(尿刺戟)의 꿈에서의 상당히 규칙적인 상 정성층(象徵成層)이 자세히 연구되어 있을 뿐이다.

감각 흥분의 역할이 꿈속의 최면술적 상징의 반복을 통해 증명된 것같이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 형상이나 꿈 표상의 극히 광범위한 내적 신체 자극에로의 환원은, 물론, 모든 면에서 증명되지 않으나 소화 기관·비뇨기·생식 기관의 흥분 상태가 꿈 내용에 끼치는 주지(周知)의 영향에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꿈의 신체적 자극 원천, 즉 '신경 자극'과 '신체 자극'이 많은 연구가에 의해서 지적되는 꿈의 유일한 원천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신체적 자극 이론의 정확성으로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만 꿈을 설명할 수 있느냐의 여러 의문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 이론의 모든 대표자가 누구나 다 이 이론의 사실상의 여러 근거에 관해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특히 꿈 내용 속에 나타나는 데 아무런 수고도 필요 없는 우발적 및 외적 신경 자극에 관한 한에는—아무도 꿈의 풍부한 표상 내용이 단지 외적 신경 자극에서만 끄집어내어질 수 없다는 견해를 부인할 수 없다. 매리 캘킨스(Mary Whiton Calkins) 양(孃)은 그런 견지에서 자기 자신 및 제삼자의 꿈을 6주간에 걸쳐서 조사하고, 거기에 외적 감각 지각의 요소가 입증될 수 있다는 꿈이 전체의 13.2% 또는 6.8%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집된 꿈의 실례 중에서 겨우 두 실례만이 기관적 감각으로 환원되었을 뿐이다. 이 통계는 우리들이 자신의 경험으로써 이미 확증한 것을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신경 자극 꿈'을 다른 꿈의 여러 형식보다도 잘 연구된 꿈의 한 종류로 구별하려 한다. 슈피타는 꿈을 '신경 자극 꿈'과 '연상 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신체적 자극 꿈과 꿈의 표상 내용 사이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해결이 불충분 함은 분명하다.

외적 자극 원천이 충분히 빈번치 않다는 첫 번째 이의에, 이런 꿈 원천을 끌어들여 이뤄지는 꿈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두 번째 이의가 부가된다. 이 이론의 대 변자들은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해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첫째, 외적 자극이 꿈에서 왜 외적 자극 성격 그대로 인식되지 않고 보통 오인되는가(자명시계

의 꿈 참조)이다. 둘째, 왜 지각하는 영혼이 이 오인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결과가 그다지도 막연하게 바뀌는가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은 슈트륌펠로부터 이렇게 듣는다. 영혼은 수면 중에는 외부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감각 자극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 여러 방향으로 동요하고 있는 흥분을 토대로 삼아서 환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의 말을 여기에 인용해 보자.

"외적 또는 내적 신경 자극에 의하여 하나의 감각 또는 하나의 감각 복합체, 하나의 감정, 요컨대 하나의 심적 동작이 잠자는 동안에 마음속에 생기고, 이 동작이 마음에 의하여 지각되자마자 이 동작을 깰 때부터 영혼에 남아 있는 경험권 내에서, 혹은 그대로의, 혹은 그것에 부속된 심적 가치를 동반한 감각 형상, 즉 이전의여러 지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동작은 말하자면 자기의 주변에 크고 작은 형상을 규합한다. 이 형상에 의해서 신경 자극에서 유래되는 인상이 심적 가치를 얻게 된다. 우리들이 깨었을 때의 태도에 관해서 흔히, 잠자고 있는 영혼은 신경 자극의여러 인상을 해석한다고 말한다. 이 해석의 결과는 소위 신경 자극에 의한 꿈, 즉하나의 신경 자극이 재현의 여러 법칙에 따라 심적 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사실에 의해서 좌우되는 여러 요소를 가진 꿈이다."

분트의 다음 소견은 본질적인 모든 점에서 위의 이론과 일치한다. 즉 분트는 이렇게 생각한다. 꿈속의 여러 표상은 대체로 감각이 자극한 결과이고 특히 일반적 감각이 자극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 표상들은 대체로 공상적 환상이고 아마 극히 작은 부분은 착각으로 고양되는 순수한 기억 표상일 것이라고. 이 꿈에 의하여 일어나는 꿈 자극에 대한 꿈 내용의 관계를 슈트륌펠은 적절하게 비유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음악을 모르는 사람의 열 손가락이 피아노의 건반 위를 미끄러져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꿈은 심리적 여러 동기에서 생긴 마음의 현상이 아니고 생리학적 자극이 낳은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 자극은 자극을 받은 기관이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인 증상을 가지고 나타난다. 숫자 하나하나가 솟아 있는 시계의 문자판이란 유명한 비유에 의해서 마이네르트(Meynert)가 행하려던 강박 관념에 대한 설명도 또한 비슷한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신체적 꿈 자극설이 인기가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설의 약점

은 대단히 쉽게 들추어진다. 모든 신체적 자극은 환상을 만들어서 심적 기구로 하 여금 무수한 그런 해석을 촉구할 수 있다. 즉 모든 표상 속에서 꿈 내용 중의 자기 의 대리를 발견할 수 있다. 25 그러나 슈트륌펠과 분트의 학설은 외적 자극과 그 해 석을 위해 선택된 꿈 표상과의 관계를 통제하는 어떤 동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를테면 이 자극이 그들의 자극을 재현하는 활동 과정에서 하는 '기묘한 선택'을 설 명할 수 없다(립스(T. Lipps). 《심적 생활의 기본적 사실》). 다른 여러 이의는 영혼 이 수면 중에 객관적 감각 자극의 실제의 본질을 인식할 상태에 서 있지 않다는 이 론의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것이다. 생리학자 부르다흐는, 우리들에게 수면 중에 도 영혼이 자기에게 도달하는 감각적 인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올바른 해석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고, 동시에 우리들이 개개인에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감각 인상을 잠자는 동안의 무관심 속에서도 골라 낼 수 있다(유모와 유아), 또 그는 우리들이 대수롭지 않은 청각 인상을 받아도 잠 에서 깨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름이 불리면 더 확실히 잠에서 깨다고 논한다. 이 설 (說)은 물론 영혼이 수면 상태에서도 여러 자극을 취사선택함을 전제로 한 생각이 다(제1장), 부르다흐는 이 모든 관찰에서 수면 상태에서는 감각 자극을 해석할 능 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한 '관심을 결핍하고 있다'고 가정해 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1830년 부르다흐가 주장한 이 이론은 변함없이 1883년 립스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것을 신체 자극의 이론을 취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마음은. "자고 있어?"란 물음에 "아니야."로 답하고. "그러면 내게 10 굴덴만 꿔 줘요."란 청에 "나는 자고 있어."라고 답하는 일화(逸話) 속의 잠자는 사 람과 같이 우리들에게 보인다.

신체 자극론이 불충분한 점은 다른 면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꿈을 꾸는 경우에 외적 자극이 꿈에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외적 자극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꿈을 꾸게 끔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관찰을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수면 중

<sup>25</sup> 나는 독자들에게 두 권으로 묶은, 실험적으로 만든, 꿈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몰리 볼드(J. Mourly Vold))을 읽기를 권하고 싶다. 이것은 (상기한 실험의 여러 조건에서는 하나하나의 꿈 내용이 밝혀지는 일이 얼마나 적으며, 또 실험이 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바가 얼마나 적은가를 증명하고 있다.

에 나를 습격하는 피부 자극(皮膚刺戟)이나 압박 자극(壓迫刺戟)에 대하여 나는 그 자극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잠을 깨어서도 예컨대 한쪽 발이 덮여 있지 않거나 팔이 몸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병리학에 의하면 강력하게 일어나는 여러 감각 자극과 운동 자극은 잠자는 중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여러 예가 나타난다. 또 고통스런 자극일 때 대개 그렇듯이 수면 중에 계속 이와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으나 이 고통이 꿈으로 엮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 나는 자극 때문에 깨어나서 자극을 물리칠 수도 있다. <sup>25</sup> 신경 자극이 나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은 네 번째로나 가능한 반응이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들도 꿈을 꿀 가능성만큼이나 똑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꿈의 동기가 신체적 자극 원천 뿐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신체적 자극에 의해서 꿈을 해명하려는 위의 학설의 불비(不備)를 올바르게 인식 한 다른 연구가들—셰르너 및 셰르너의 입장을 따르는 철학자 폴켈트—은 구체적 여러 자극에서 다채로운 꿈 형상을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을 더욱 정밀하게 규정하 려고 했다. 말하자면 꿈을 꾼다는 것의 본질을 심령적인 것과 하나의 심적 활동에 서 구하려고 했다. 셰르너는 꿈을 형성할 때에 전개되는 심적 특성을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생생하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마음이 자기에게 제공되는 여러 자극을 취급할 때의 학리도 알아냈다고 믿었다. 셰르너에 따르면 낮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공상의 제멋대로의 활동 속의 꿈 작업은 자극이 생기는 기관의 성질과 이 자극 의 종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꿈의 안내자로서 일종의 꿈 책이 생긴다. 이런 책에 의해서 꿈 형상에서 신체 감정이나 기관의 상태나 자극의 상태가 추측되다. "이런 까닭으로 고양이의 형상은 마음의 불쾌함을 표현하고. 밝 고 부드러운 과자의 형상은 나체를 표현한다. 사람의 몸 전체는 집으로, 신체의 각 기관은 집의 각 부분으로 꿈 공상에 의해서 상상된다 '치통의 꿈'에서는 구강은 둥 근 높은 천정의 현관 낭하로서. 식도에 통하는 목구멍의 경사는 사닥다리로 표현 되고. '두통의 꿈'에서는 욕지기나는 두꺼비 같은 거미로 덮인 방의 천정이 머리 높 26 이에 관해서는 란다우어(K. Landauer)의 〈잠자는 사람의 여러 행동〉(《신경증·정신병 잡지》 제37호 1918년)을 참조. 관찰자가 보기에는, 잠자는 사람의 여러 행동에는 눈에 보이는 의미 있는 것이 있다. 잠자는 사람은 절대로 우둔하지 않고 반대로 그는 논리적이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다." "꿈은 이런 상징을 여러 가지로서 택하여 동일한 기관에 사용한다. 이와 같이 숨 쉬는 폐는 가득 찬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로, 심장은 속이 없는 상자나 바구니로, 방광은 둥근 부대 모양의, 혹은 오목 한 물건으로 상징된다. 더욱이 대체로 꿈의 끝에서 때때로 흥분된 기관이, 혹은 그 기능이 그대로 그 꿈꾼 당사자의 몸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특 히 중요하다. 예컨대 이를 자극하는 꿈은 보통 그 꿈을 꾼 당사자가 이 하나를 뽑 는 따위로 끝이 맺어진다." 이런 꿈 판단론은 꿈의 연구자에 의해 대단히 존중된다 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이론은 특히 상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 은 이 이론을 부분적으로 승인할 것을 주저하나. 나는 승인할 부분이 그 이론에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주지한 바와 같이 상징에 의한 옛 사람들이 다룬 꿈 해석을 부활시키는 것이 된다. 다만 이 해석의 범위가 인간의 육체 관계에만 국 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상의 기술이 없는 것이 셰르너의 이론의 응용을 심히 제한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특히 여기서 도 어떤 특정 자극이 꿈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 로 꿈 해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듯 보인다. 그리하여 셰르너의 지지자인 폴켈트는 신체를 집으로 표현할 만한 확증이 없음을 일찍이 알았다. 문제된 이론 에 의하면, 마음은 마음을 괴롭히는 자극에 관한 환상을 형성하는 데에만 만족하 고. 그 자극의 해결 따위를 희미하게나마 생각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다시 꿈의 작 업은 마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이나 목표가 없는 무용한 작업으로서 마음에 귀속 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신체적 자극을 상징화하는 셰르너의 이론에 대해서 심한 반론에 직면한다. 이 신체 자극이란 언제나 있으며, 마음은 일반적 의견에 의하면 깨었을 때보다도 잠자는 동안에 이 신체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왜마음이 밤새도록 꿈을 꾸지 않으며, 더욱이 매일 밤 신체의 모든 기관의 꿈을 꾸지 않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만일에 꿈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눈・귀・이・위장 등에서 특별한 흥분이 일어나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이 비난을 피하려고 기도한다면, 우리들은 극히 적은 수의 경우에만 가능한 이런 자극의 고양(高揚)을 증명하는

곤란을 면하기 어렵다. 비행의 꿈이 호흡하는 폐엽(肺葉)의 상하 운동의 상징화라고 하면, 슈트륌펠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꿈이 더 빈번하게 꿈꾸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꿈꾸고 있는 동안의 앙양된 호흡 활동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 제삼의 경우, 말하자면 특수한 동기가 균등하게 존재하는 내장의 여러 감각에 주의를 돌리기 위해 때때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장 진상에 가까운 경우이다. 그러나 이 제삼의가능성은 이미 셰르너의 이론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세르너와 폴켈트 학설의 값어치는 이들이 해명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인식을 감추고 있는 듯이 보이는 꿈 내용의 여러 성격에 우리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점에 있다. 꿈이 여러 신체 기관이나 기능의 상징화를 품고 있는 것, 꿈에서의 물은 종종 요 (尿)의 자극을 뜻하는 것, 남근(男根)이 곳곳하게 선 막대기나 기둥으로 묘사되는 것 등은 옳다. 눈부신 시야와 산뜻한 빛깔이 나오는 꿈은 퇴색된 다른 꿈과는 달리 '시각을 자극하는 꿈'으로 해석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소음이나 사람 소리를 포함한 꿈에서의 환각이 일익(一翼)을 맡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깨끗한 금발 사내아이가 다리 위에 두 줄로 맞서서 서로 밀치고 당기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드디어 꿈의 당사자가 다리 위에 나타나서 자기의 턱에서 한 개의 긴 이를 뽑는 셰르너의 꿈과 같은 꿈이나, 두 줄의 서랍이 한 역할을 하고, 역시 이 한 개를 뽑는 데에서 끝나는 폴켈트의 꿈이나, 이 밖에 두 사람의 저서 중에 풍부하게 보고되어 있는 꿈은, 그 장점을 음미하지 않고서 셰르너의 이론을 쓸데없는 날조로 버릴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이의 자극으로 생각되는 추정적 상징화에 대한다른 해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

나는 여태까지 신체적 꿈 원천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면서 우리들의 꿈 분석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론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다른 연구자들이 그들의 꿈 재료에 응용하지 않았던 한 방법에 의하여 우리는 꿈이 심적 행위로서 꿈이 고유한 값어 치를 갖는다는 것, 소망이 꿈을 형성하는 동기가 되고, 전날의 체험이 꿈 내용의 가장 가까운 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중대한 연구법을 등한히 하고 꿈을 신체 자극에 대한 무익하고 수수께끼 같은 심적 반응이라고 보는 일체의 꿈 이론은 이제 다시 비판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꿈은 우리들에게만, 또 다른 어떤 꿈은 우리 이외의 해석자들 에게만 속하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종류의 꿈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은 정말 있 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꿈 자극에 관한 통속적인 이론이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사실을 우리들의 꿈 이론 안에 끄집어들여서 처리하는 일만 남아 있다. 이미 이 방향으로 우리들은 다음 명제를 설정함으로써 첫 발을 드디어 내디뎠다. 즉 꿈의 작업은 동시에 존재하는 꿈 자극 일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강제력 아래에 있다. 우리들은 다음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것들은 전날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인상적인 여러 체험이 남아서 그 체험에서 생기는 여러 소망이 하나의 꿈에 통일 된다는 사실, 똑같이 심적으로 가치가 큰 인상과 전날의 변변치 못한 체험이 (양 자 사이에 기맥을 서로 관통하는 여러 표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서 로 결합하여 꿈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꿈은 잠들고 있는 마음속에서 동 시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인 것 같다. 우리들이 여태까지 꿈 재료를 분석한 범위 안에서 우리들은 그 재료가 (최근의 재료나 어린 시절의 재료를 꿈은 특히 좋아하므로) 심리학적으로 그 당시의 결정하기 어려웠던 활동성의 성격을 용 인하지 않을 수 없던 심적 잔재이고, 기억된 흔적의 집합물임을 알았다. 만일에 이 기억의 활동성에 새로운 자극 재료가 수면 상태 동안에 첨가되면 무엇이 생기는가 를 우리들은 이제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 여러 자극은 또 활동적이란 점에서 꿈 에 대해 중요성을 갖는다. 이 자극들은 다른 심적 여러 활동성과 통일되어서 꿈을 형성하는 재료를 제공한다. 말을 바꾸면, 수면 중에 나타나는 여러 자극은 한 소망 충족으로 가공되고, 이 소망 충족의 다른 여러 성분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낮 동안의 심적 찌꺼기이다. 이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같이 수면 중의 신체적 자극에 대하여 한 종류 이상의 반응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통합이 이뤄지는 경우는 심적 및 신체적 두 꿈 원천을 대리하고 있는 하나의 표상 재료가 꿈 내용을 위해 성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뜻하다

꿈의 본질은 심적인 꿈 원천에 신체적 자극이 덧붙여져도 변화되지 않는다. 즉 실 재 재료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더라도 꿈은 소망 충족으로 남는다. 나는 꿈에 가해지는 바깥으로부터의 여러 자극의 뜻을 여러 가지로 형성할 수 있는 일련의 특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즉 개인적·생리적, 또 그때그때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우연한 여러 계기의 협동은, 잠자는 동안에 한층 힘찬 개개의 객관적 자극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습관적이고 우발적인 잠의 깊이는 자극의 강도와 결합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잠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자극을 억압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잠을 깨우기도 한다. 혹은 잠의 깊이가 자극을 꿈속에도 끌어넣어서 자극을 극복하려는시도를 도울 수도 있다. 이런 여러 배합 관계에 따라서 외적·객관적 자극은 어떤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빈번하게 혹은 드물게 꿈에 표현된다. 깊이 잠들면 좀처럼 깨지 않는 완고한 잠꾸러기인 나로 말하자면, 외적 흥분의 원인이 꿈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그 반면에 심적인 여러 계기는 확실히나에게 쉽게 꿈을 보여 준다. 나는 어떤 객관적이고 고통스러운 자극 원천이 인식되고 바로 이 꿈에서 외적 자극이 어떤 꿈을 꾸게 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그러한 꿈을 여태까지 겨우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나는 회색 말을 타고 간다. 처음엔 겁이 나서 마치 말 위에 놓인 것같이 서툴렀다. 그때 나는 동료 P를 만났다. 이 친구는 털옷을 입고 말 위에 의기양양하게 앉아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했다. (아마 나의 말 타는 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듯하다). 나는 매우 영리한 말의 등에서 점점 훌륭하고 올바르게 몸을 잡는다. 그래서 말의 등에 있는 것이 대단히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안장 대신에 일종의 방석 같은 것이 말의목부터 허리까지 깔려 있다. 나는 두 대의 짐마차의 사이를 스칠 듯이 지나간다. 말을타고 조금 가다가 되돌아와서 길에 면한 작은 문을 열어 놓은 교회당 앞에서 내리려고 했으나 실지로 나는 그 가까이에 있는 다른 예배당 앞에서 내렸다. 같은 길가에 호텔이 있다. 말을 혼자 보내도 좋았으나 호텔에까지 끌고 가는 편이 좋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곳에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호텔 앞에 한 종업원이 서 있다. 그 종업원이 나에게 내가 전에 발견했던 종잇조각을 보여 주며 나를비웃었다. 종이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씌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의 말(분명하지 않음)이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란 것인 듯하다. 말 밑에 두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러자 나는 지금 외국의 도시에 있고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희미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 꿈이 고통의 자극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도리어 강제에 기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처음에는 알아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날에 뾰루지로 고생했다.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아팠다. 드디어 음낭의 밑이 사과만 하게 되어서 걸을 적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열이 있는 노곤함, 식욕 부진, 그날에 해야 할 곤란한 일과, 이런 것들이 고통과 겹쳐서 나의 기분을 어지럽혔다. 의사로서의 나의 일을 다할 기력이 아주 없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병의 성질과 환부 때문에 그때의 나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동작이 자연 생각났다. 그것은 말을 탄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꿈은 나에게 이 행위를 하게 했다. 이것이야 말로 생각할 수 있는 한의 가장 강력한 병고의 부정이다. 나는 말을 탈 줄 모르고, 보통 그런 꿈을 꾼 적도 없다. 말을 탄 일은 한 번 있을 뿐이었다. 그때는 안장을 얹지 않았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 꿈에서 나는 마치 음낭에 뾰루지가 없는 듯이, 아니 나는 뾰루지의 고통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돈 것이다. 꿈의 묘사에 의하면 나의 안장은 그로 인해서 잠을 들 수 있게 하는 안마법이다. 아마 나는 이 방법 때문에 처음 두세 시간 고통을 잊고 잠들 수 있었음을 알았다. 그러던 중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서 잠에서 깨어나려고 했다. 이때 꿈이 닥쳐와서 위안의 말을 해 주었다. "안심하고 잠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눈을 뜨지는 않을 것이다. 뾰루지는 없다. 왜 냐하면 너는 말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뾰루지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꿈은 자기의 의도를 달성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나는 잠을 더 계속했다.

그러나 이 꿈은 병고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념을 완강히 주장하며 '뾰루지를 암시에 의해 없앤다'고 주장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이때 이 꿈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나 손해로 재산을 몽땅 잃은 상인의 환각과 같은 망상으로서 작용한다. 더욱이 부정된 자극과 그 자극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형상의 세부는 실제로 마음속에

<sup>27</sup> 그리징어의 저서에 있는 당해(當該)의 장소와 '거부성(拒否性) 신경 정신병'에 관한 나의 제2 논문(《신 경증 중앙 기관지》 1896년)참조,

서 평소 작용하는 재료를 꿈 상황에 결부시키고, 이 재료는 꿈에서 표현하는 하나 의 수단으로서 꿈에 의해서 채용된다. 나는 회색 말을 탄다. 이 빛깔은 최근에 시 골에서 만났을 때 P가 입고 있던 양복의 회색과 똑같은 것이다. 나는 나의 뾰루지 의 원인이 약효(藥效)가 지나친 음식물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이편이 병원학적으 로 보통 뾰루지의 원인으로 생각되기 쉬운 설탕보다도 옳다. 친구 P는 높은 말 위 에 앉아 이때부터 어떤 부인 환자일 때에는 나와 교대한다. 나는 이 환자에게 큰 술책을 써 본다(나는 꿈에서 처음 곡예사가 원심적(遠心的)으로 말을 타듯 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마치 일화에서 말이 솜씨 없는 승마자를 안내하듯이 나를 자기 멋대로 사방으로 끌고 다녔다. 이래서 말은 한 여환자를 상징하는 뜻을 가진다(말 은 꿈에서 매우 영리하다). "타고 보니 기분이 좋다."라는 말은 내가 P와 교대하기 전에 환자 집에서 차지한 위치와 관계가 있다. 요즈음 이 도시의 훌륭한 의사들 사 이에서 발견되는 소수의 나의 후원자 한 사람이 환자 집과 관련시켜서 나에게 말 한다. "나는 당신이 안장 위에서 매우 편안히 앉아계시다고 생각했었다."라고. 뾰 루지의 고통을 견디면서 매일 여덟 시간이나 또는 열 시간 걸리는 정신병을 치료 하는 것은 대단한 재주였다. 게다가 내가 쓰고 있는, 특히 수고스러운 치료법은 몸 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계속되지 못함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꿈은 그런 경우에 틀림없이 나타날 상황에 대한 울적한 암시를 많이 갖고 있다(신경쇠 약증 환자가 의사에게 보여 주는 종잇조각—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먹 지 않는다). 좀 더 분석해 보니까 기수의 소망 상황은 현재 영국에 있는 한 살 위 인 나의 조카와 나와의 사이에 있었던 어린아이 때의 여러 사건과 통하고 있음을 알았다. 더욱이 이 꿈에는 나의 이탈리아 여행의 여러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꿈속 의 도시는 베로나(Verona)와 시에나(Siena)의 인상을 합친 것이다. 더 깊이 분석 하면 성적인 꿈 사상이 나타난다. 이탈리아에 가 본 적이 없는 한 부인 환자를 빙 자해서. 저 아름다운 이탈리아가 나타난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했다(이탈리아를 향하여서=gen Italian, 생식기=genitalien). 동시에 또 친구 P가 가기 전에 내가 가 있던 집이나 나의 음낭에 뾰루지가 생긴 위치를 생각했다.

또 다른 한 꿈에서 나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어떤 감각 자극에서 생긴 잠의

방해를 막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꿈과 우연한 꿈 자극과의 관련을 발견하고, 이 꿈이 그런 성질의 꿈인 것을 이해한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한여름 티롤(Tirol) 산중의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다. 나는 꿈을 꾸었구나 하고 잠을 깨었다. 그것은 교황이 서거했다는 꿈이었다. 이 시각적이지 않은 짧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꿈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바로 전에 신문에서 교황의 건강이 좀 나쁘다는 기사를 읽은 것만 기억되었다. 오전 중에 나의 아내는 "오늘 아침 요란하게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셨지요?"라고 나에게 묻는다. 들은 기억이 없었으나 꿈의 뜻이 갑자기 밝혀졌다. 이 꿈은 믿음이 깊은 티롤 주민들이 나를 잠에서 깨게 할 종소리에 대하여, 나의 수면 욕구가 표시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교황이 서거했다'란 꿈의 결론으로 복수하였다. 그리고 나는 종소리에 아무 관심 없이 잠을 계속 잤다.

앞장에서 진술했던 여러 꿈 중에, 소위 신경 자극의 꿈에 의한 가공 변형의 실례가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다. 꿀꺽꿀꺽 무엇인가를 마시는 꿈이 그것이다. 이런 꿈에서 신체적 자극은 일견해서 유일한 꿈 원천이고, 자극에서 생기는 소망—즉 갈증이 유일한 꿈의 동기이다. 신체적 자극이 단독으로 한 소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간단한 꿈에서도 비슷하다. 밤중에 뺨의 습포를 던져 버리는 부인 환자의 꿈은 고통의 자극에 대하여 소망 충족을 가지고 반응하는 이상한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환자는 자기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를 타인으로 오인하는 데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같이 생각된다.

세 사람의 운명의 여신에 관한 나의 꿈은 분명히 공복(空腹)에서 비롯된 꿈이다. 그러나 이 꿈은 무엇을 먹고 싶다는 욕망을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는 데까지 소급하게 하고, 또 뚜렷이 밖으로 나타나서는 곤란한 한층 더 심각한 동경을 덮어 감추고자 순진한 욕망을 오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우리들은 툰 백작의 꿈에 의해서 우연한 육체상의 욕구가 심적 생활의 강한, 특히 강력하게 억압된 충동과 어떤 길을 통해서 결합하는가를 볼 수 있었다. 또 가르니에(A, Garnier)가 보고한 경우에서와 같이, 나폴레옹이 폭발하는 지뢰의 소리를 듣고, 전쟁 꿈속에 그 소리를 섞어서 들은 뒤에 눈을 떴다면, 그런 점에서 이 꿈은 마음의 움직임이 꿈에 봉사하여

수면 중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노력을 한층 더 뚜렷이 나타낸다. 어떤 젊은 변호사는 처음 맡은 큰 파산 사건으로 마음이 부푼 뒤에 낮잠을 자면서, 나폴레옹과 매우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전에 어떤 파산 문제로 들은 바 있는 후지아틴 (Hussiatyn)의 라이히(G. Reich)란 사람의 꿈을 꿨다. 그러나 이 꿈에서 이 후지아틴의 명칭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집요하게 되풀이된다. 그리하여 잠을 깨고보니 기관지염에 걸린 자기의 아내가 심한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Hussiatyn은 Husten(기침)과 음이 비슷함).

보통 때는 대단한 숙면가였던 나풀레옹 1세의 꿈과, 병원에 가기 위해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깨워진 자신이 이미 병원의 침대 위에 있는 꿈을 꾸며, 만일에 내가 이미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계속 잠을 자는 잠꾸러기 대학생의 꿈을 결합하여 보자. 후자는 분명히 편의(便宜)의 꿈이었고, 본인은 꿈을 꾼 동기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으나, 그것에 의해서 꿈을 꾸는 일의 전반의 비밀 하나를 폭로하고 있다. 어떤 뜻에서 모든 꿈은, 편의의 꿈이다. 꿈은 깨는 대신에 잠을 계속하려는 의도에 봉사한다. 꿈은 잠의 수호자이고, 그것의 방해자가 아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려는 마음의 여러 요소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를 다른 곳에서 정당화할 것이다. 이 견해를, 바깥에서 오는 객관적인 자극의 역할에 적용시킬 근거만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다.

만일에 마음이, 이 자극의 강도와 그 뜻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마음은 수면 중의 흥분에로의 여러 동기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마음은 그 자극을 부정 또는 가치 없게 하기 위해서 꿈을 이용한다. 혹은 셋째로 만일에 마음이이 자극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때이면 마음은 그 현실적 자극을 잠과 잘 조화되고 소망되는 어떤 상황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해석을 찾는다. 꿈은 현실적 자극으로부터 그 현실성을 빼내기 위해서 자기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잠을 계속 잘 수 있다. 그의 잠을 방해하려는 것은 물론 아르콜(Arcole) 싸움터의 대포소리에 대한 꿈속 기억뿐이다.

의식적인 자아가 지향하고, 또 꿈의 검열과 더불어 꿈꾸는 데에 기여하는, 자고 싶 28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의존한 두 원전(原典)은 서로 다르게 이야기 한다. 다는 소망은 그리하여 언제나 꿈을 형성하는 동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일체의 성공한 꿈은 그 소망의 충족이다. <sup>259</sup> 나는 언제나 존재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런 일반적 수면 소망이 어느 때에는 그 중의 갑(甲), 또 다른 때에는 그 중의 을(乙)이 꿈 내용에 의해서 충족되는 여러 가지 다른 소망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의 문제를 다른 기회에 논하련다. 그러나 수면 소망 속에서 우리들은 슈트륌펠-분트의 이론의 결함을 보충하고, 바깥 자극의 해석에 있어 잘못과 변덕성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했다. 수면 중의 마음은 올바른 해석을 내릴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이 올바른 해석은 적극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우리들에 대해서 '잠자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 중에서 수면 소망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행사되는 검열과 조화할 수 있는 해석만이 허가된다.

예를 들면, 이것은 꾀꼬리이고 종달새가 아니라는 식이다. 왜냐하면 종달새라면 잠으로 지낼 수 있는 유쾌한 밤은 끝난 것이니까. 자극에 관해서 허용할 수 있는 여러 해석 중에서 마음속에 숨어서 망보고 있는 소망 충동과 가장 잘 결부될 수 있는 해석이 선택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만사는 의미가 명백히 결정되고,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릇된 해석은 착각이 아니라, 담대히 말해서 핑계이다. 그러나 꿈 검열을 염려해서 '이동(移動)'이란 피할 길이 있듯이, 여기에도 역시 정상적인 마음의 과정을 굴절시키는 하나의 행위가 인정된다.

바깥에서의 신경 자극과 안에서의 신체 자극이, 마음이 무관심할 수 없으리만큼 강력할 때에는 이 자극들은 —그러나 결국 꿈에서 깨지 않고 그 대신에 꿈을 꾸는 경우—꿈을 형성하기 위해서 확고한 한 점을 나타내고, 꿈 재료 중에서 하나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핵심에 상응하는 하나의 소망 충족이 마치 마음의 두 꿈 자극을 매개하고 결합하는 여러 관념이 탐구되는 똑같은 방법으로 탐구된다. 꿈에는 신체의 요소가 꿈 내용을 지휘한다는 주장은 위의 뜻에서만 많은 꿈에 타당하다. 이런 극단의 경우에서는 꿈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지 않는 소망마저 환기된다. 그러나 꿈은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소망을 실현되고 충족된 것으로서만 표현

<sup>29 (</sup>그리고 나중에 언급될 '제2의 가공').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꿈은 어떤 소망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극을 통해서 실현·충족된 것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 활동적인 재료가 고통스러운 혹은 불쾌한 성질의 것일지라도 그 재료는 꿈을 형성하는 데에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생활은 그 실현의 충족이 불쾌감을 환기하는 따위의 소망도 자유롭게 구사한다. 이 현상은 모순된 것처럼 들릴 것이나 두 개의 마음의 심급이 있는 것과, 이 두 심급 사이에 있는 검문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제1의 체계에 소속하면서 그 실현 충족에 대해서는 제2의 체계가 이론을 주창하는 억압된 소망이 마음의 생활에는 있다. 나는 그런 소망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런 소망이 전에 존재했으나 나중에 파괴되었다는 식의시간적 · 역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우리들이 정신 신경증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억압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즉 이런 억압된 조망은 아직 존재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소망 위에 덮어 씌워 있는 저지(沮止)도 지금 존재한다고.이러한 충동에 대해 '아래를 향해서 억압한다.'란 말은 사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아래로 억압된 소망을 실현시키는 심적 수단은 보존되어 쓸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억눌린 소망이 실현되면 두 번째 (의식 가능한) 체계의 제지는 배제되어서 불쾌감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끝내기 위하여 요약하면, 수면 중에 신체의 여러 원천에서 온 불쾌감의 성격을 가진 자극이 존재할 때에, 이상황이 꿈 작업에 의해 이용되어서 그 결과 보통 억눌린 소망 충족은—크건 작건간에 검열의 구속을 받으면서—꿈속에 표현된다.

이러한 사정은 일련의 불안 꿈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소망 이론에 적당하지 않은 꿈 형성의 다른 일련의 꿈의 형성들은 다른 심적 메커니즘의 존재를 가르쳐 준다. 여러 꿈속의 불안은 신경적이며, 심적 성욕 부진에서 오는 일이 있다. 그때 불안은 억압된 리비도와 일치한다. 이 때 불안이나 불안 꿈은 모두 신경증 증세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서 소망 충족적인 꿈의 경향이 좌절되는 한계에 서게 된다. 그러나 다른 불안 꿈에서는 불안의 느낌은 신체적으로 주어지고 (우연한 호흡 압박에 직면한 폐결핵 환자나 심장병 환자의 경우), 이때 이 불안의

느낌은 강력하게 억압된 소망을 꿈으로 충족시키는 데 이용된다. 그런 소망 꿈을 보면 심적 여러 동기에서 똑같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져와질는지도 알 수 없 다. 표면상으로 별개인 두 경우를 통일하기는 어렵지 않다. 감정적 경향과 표상 내 용이란 밀접하게 관련된 두 심적 형성물 중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쪽이 꿈에서 도 다른 한쪽을 앙양시키며, 또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불안이 억 압된 표상 내용을. 또 다른 경우에는 억압에서 해방된 성적 흥분과 평행된 표상 내 용이 불안을 환기시킨다. 첫 경우를 보면 신체적으로 주어진 감정은 심적으로 해 석되고, 둘째 경우에는 일체가 심적 소여(所與)이다. 그러나 억압된 내용은 불안에 알맞은 신체적 해석과 쉽게 바꾸어진다. 여기서 우리들의 이해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난점은 꿈 자체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 난점은, 우리들이 위의 논의에 의 하여 불안의 발전 경로와 억압과의 여러 문제에 접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신체의 전체적 느낌은. 의심할 바 없이. 육체의 내부에서 온 주도적인 꿈 자극의 하나이지만 그 느낌은 꿈 내용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몸의 느낌은 꿈 내용에서의 표현에 봉사해야 할 재료를 취사선택할 것을 꿈 사상에 강요하기 때문 에 그러한 것이다. 즉 신체의 전체적 느낌은 그런 재료의 어떤 부분을 자기의 성질 에 적합한 것으로 추천하나, 그 밖의 것은 멀리한다. 뿐만 아니라 낮으로부터 계속 되고 있는 전체적인 신체의 기분이란 것은, 물론 꿈으로서는 뜻있는 마음의 잔재 와 결합된다. 그때에 이 기분 자체는 꿈에서 유지되는 일도 있고. 또 없어지는 일 도 있어서, 그 때문에 이 기분은 설혹 불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물에 옮겨가 기도 하다.

수면 중의 신체적 자극 원천, 즉 수면의 느낌은 만일 그것이 대단히 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나의 의견으로는 그 자극 원천은 꿈을 형성할 때에 낮 사이의 최근의 것으로서 잔존하지만, 변변치 않은 인상과 비슷한 역할을 연출한다. 즉 만일에 그것이 심적 꿈 원천의 표상 내용과 결합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면 꿈의 형성에는 참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잠자는 동안의 신체적 자극은 언제나 입수할 수 있는 값싼 재료인 듯 취급되고, 만일에 그 자극이 값비싼 재료였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도 상응한 처리를 요하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사용될 수

있는 재료로 생각되고 있다. 이 경우는 미술 애호가가 조각가에게 진귀한 보석이나 루비를 주어서, 그것으로 예술품을 만들게 할 때와 거의 비슷하다. 돌의 크기, 그 빛깔과 얼룩은 모두 어떤 머리를 그 속에 조각하여 이를 묘사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편 대리석이나 사암(砂巖)의 균형 있고 풍부한 재료라면 예술가는 이념을 좇아서 자기의 생각을 형상화한다. 이런 방법으로써만 다음 사실이 나에게 이해된다. 즉 우리들의 신체에서 나오는 대단히 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자극이 제공하는 꿈 내용이 모든 꿈 또는 밤마다의 꿈속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30

우리들을 다시 꿈 해석으로 인도하는 실례 하나가 나의 견해를 아마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이것은 빈번히 꾸는 꿈이며, 또 불안에 매우 가까운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곳에서 꼼짝할 수 없다거나,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하겠다든가 하는 따위의 불안에 아주 가까운 억제된 느낌은 무슨 뜻인가? 어느 날 나는 그 뜻을 이해하고자 고심했다. 그날 밤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나는 아주 불완전한 옷차림으로 아래층의 한 거실에서 위층으로 올라간다. 그때 나는 반드시 계단을 세 개씩 밟고, 이렇게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다. 갑자기 위에서 하녀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즉 나의 쪽으로 온다. 부끄러워서 빨리 가려고 했으나, 이때 소위 꼼짝 못하는 상태가 나타나서 나는 계단에 달라붙은 채로 그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 분석

이 꿈 장면은 평상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는 비엔나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집은 바깥 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아래층에 나의 진료소와 서재가 있다. 그 일층 위에 방들이 있다. 밤늦게 아래에서 일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서 침실로 간다. 꿈을 꾼 전날 밤에 나는 실지로 좀 흩어진 옷차림으로 이 계단을 올라갔다. 즉 칼라・넥타이・커프스를 뗀 모습이다. 그것이 꿈속에서 과장되어, 꿈에 흔히 있는 일이나, 막연히 단정치 못한 모습이 되었다. 계단을 뛰어넘는 것은 30 프랑크는, 기관을 통해서 환기된 약간의 각성몽(뇨의(尿意)꿈과 누정(漏精)꿈)이, 수면 욕구와 기관적 욕구 사이에 행하여지는 싸움이나, 후자가 꿈 내용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속에서 표명하였다.

계단을 오를 때의 나의 버릇이다. 꿈에서는 이미 승인된 소망 충족이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심장의 기능을 확인하고, 이것이면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단을 뛰어넘는 방법은 꿈의 후반부에서의 꼼짝 못하는 상태에 대한 유력한 대조물이다. 그것은 나에게,—일부러 증명할 필요는 없다—꿈속에서는 신체의 움직임이 완전히 행해지는 것으로 표상하여도 거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 독자는 꿈속에서 날아가는 일을 상기하면 된다.

그러나 내가 올라간 계단은 우리 집의 계단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어느 집 계단인 지 몰랐다. 위에서 하녀가 내려왔다는 데에서 겨우 그곳을 알 수 있었다. 하녀는 내가 매일 두 번씩 왕진해서 주사를 놓는 늙은 부인의 집 하녀였다. 계단도 그 집의 계단이었다.

어떻게 이 계단과 하녀가 나의 꿈속에 들어왔을까?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에 수치 를 느끼는 것에는 성적인 성격이 있다. 나의 꿈속의 하녀는 나보다 나이가 위이며. 애교도 없고 결코 매력적이 아니었다. 이런 여러 문제를 앞에 둔 나에게는 다름 아 닌 다음의 것이 뇌리에 떠올랐다. 즉 내가 이 집을 오전 중에 일찍이 찾을 때에는 언제나 계단 앞에서 기침소리를 낸다. 침은 계단 위에 떨어진다. 이 집의 아래나 위에 타구(唾具)라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계단을 깨끗이 했으면, 내 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타구 하나쯤은 놓아두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이 집의 여자 주인은 꿈속의 하녀와 같이 나이 먹고 애교 없는 여인이었으나 보기 에는 확실히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단의 청결이란 점에서는 나의 의견과는 달랐다. 그 여자는 내가 또 기침을 하는지를 숨어서 본다. 내가 기 침을 하는 것을 알면 들으라는 듯이 무엇이라고 종알거린다. 그런 때면 우리들이 얼굴을 맞대어도 그 여자는 언제나 나에게 하는 인사를 며칠 동안 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꿈의 전날 이 여자 주인의 세력은 하녀가 나에게 준 주의에 의해서 한층 강해진다. 평상시와 같이 빨리 주사를 끝마치니 하녀가 현관에서 나를 붙잡고 이 렇게 말한다. "선생님, 오늘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구두를 깨끗이 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맑은 주단이 선생님의 구두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것이 계단과 하 녀가 나의 꿈에 나타나기 위해 제기한 요구권의 전부였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과 계단 위에 침을 뱉는 것 사이에는 강한 연결이 있다. 인두염과 심장 장해는 모두 끽연(喫煙)이란 나쁜 버릇에 대한 벌이다. 그리고 물론 이 끽연 버릇 때문에 나는 나의 아내에게서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터이고, 이런 점에서 환자 집과 나 자신의 집에서도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꿈은 이 두 집을 한 채의 집에 융합하였다.

이 꿈의 이상의 분석을, 우리들은 단정치 못한 복장의 꿈이란 전형적인 꿈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논할 때까지 잠시 연기하여 두자. 다만 우선 결론으로서 말해 둘 것이 있다. 꼼짝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억제된 움직임이란 꿈의 감정은, 특정한 맥락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일어난다. 수면 중의 나의 운동 능력의 어떤 특별한 상태가 이 꿈 내용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마치 이 인식을 확증해 주는 듯이 가볍게 계단을 뛰어올라 갔기 때문이다.

# 4. 전형적인 꿈

우리들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꿈 내용의 뒤에 있는, 무의식의 사고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의 방법의 실제적 효력은 꿈 해석에 있어 심히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개개인의 특수성 속에 자신의 꿈 세계를 공급할 개인의 자유와 독자성 때문에, 타인에게는 자기의 꿈을 아주 모르게 꾸밀 수 있는 것과 반대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꿈이 있다. 이런 꿈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뜻을 가진다고 우리들은 흔히 상정(想定)한다. 이 전형적 꿈들은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런 꿈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같은 한 원천으로부터 유래하는 것 같고, 따라서 이꿈이 꿈의 원천을 해명하는 데에 특히 적합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의 꿈 해석의 기술을 이 전

형적인 꿈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유감스러우나 우리들의 기술은 다름 아닌 이 꿈에 관해서 별로 신통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형적인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꿈꾼 사람 본인은 평상시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보통 때이면 이 생각이 계기가 되어서 점차로 꿈이 이해되어 가지만. 설령 생각이 떠올랐다 하여도 명확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우리들이 그런 정도의 생각을 원용(接用)하더라도 우리들의 임무를 다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이 왜 생기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들의 기술상 결함을 보충할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본서(本書) 뒤에서 생각하기로 하자. 그 기회가 오면 내가 여기서 왜 전형적 그룹 중의 두서넛만을 들 수 있는가를, 또 왜 내가 그 밖의 전형적인 꿈의 그룹을 뒷장에 양보하는가를 독자는 이해할 것이다.

### (1) 나체(裸體)로 당황하는 꿈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벗고 있든지 단정치 못한 복장으로 있는 꿈에서는, 낯선 사람이 있는데도 '나에게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나체 꿈은 꿈에서 수치와 당황을 느끼고 그곳에서 도망하거나 혹은 숨으려고 하나, 그때 일종의 독특한 저지(沮止)가 가해져서 그곳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변경시킬 능력을 갖지못함을 느끼는 내용의 꿈에 한정된다. 나체와 저지가 이렇게 결부될 때만이 나체꿈은 전형적 꿈이다. 이 꿈 내용의 핵심은 그 밖의 많은 어떤 것과 관계하여도 좋고, 또 개인적인 첨가물을 갖고 있어도 관계없다. 자신의 나체를 (대부분은 장소를 바꿈으로써) 감추고 싶다, 그런데 되지 않는다 라는 그 수치의 감정에서 오는 불쾌한 감정,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독자가 여태까지 이런 꿈에서 이런 상황에 던져진 경험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

나체의 종류와 정도는 보통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을 흔히 들으나, 이것이 명백한 영상인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옷을 벗었다는 것은 대단히 애매하고 불투명한 것이다. 이야기를 시켜 보면, "속옷이 아니면 팬티, 어느 한

쪽을 입고 있었다."와 같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표현으로 밖에는 그 모습을 전할 수 없다. 대체로 복장의 불비(不備)는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결코 심한 것이 아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나체 대신에 규칙에 위반된 복장이 자주 나타난다. 칼을 차지 않고 노상에 있으려니까 저편에서 상관이 오는 것을 보았다든가,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든가, 카이저의 평복 차림으로 있었다는 따위 등이다.

타인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하나, 그 타인이 어떤 얼굴 표정을 지었는지 는 뚜렷하지 않다. 그 때문에 당황하는 복장의 불비(不備)가 상대의 비난을 받는다 든가, 상대의 눈에 띈다든가 하는 것은 이 전형적인 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정반대로 타인은 무관심한 얼굴 표정을 짓거나, 또는 (내가 어떤 특히 명백한 꿈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엄숙한 무표정으로 있다. 이것은 어떻든지 설명되어야 한다.

꿈을 꾼 본인의 수치감에서 오는 당황과 이에 상대하는 모르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한 묶음으로 보면 하나의 모순이 생긴다. 이 모순은 꿈에서 빈번히 생긴다. 꿈을 꾼 당사자의 기분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놀라서 그를 주시하고 조소하거나 그의 모양을 보고 성을 내야만 이치에 맞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론 이 풍속문란(風俗紊亂)이란 점은 소망 충족에 의하여 제거되었다. 이에 반하여 한쪽의 수치스런 당황은 어떤 힘에 지지되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합치면 한 개의 모순이 생긴다. 어떤 꿈이 소망 충족 때문에 그 형태가 부분적으로 왜곡되어서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증거 하나가 있다. 즉 그 꿈은 《황제의 새 옷》이란 안데르센(Hans Andersen)의 작품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동화의 기초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재료는 최근에 루트비히 풀다(Ludwig Fulda)의 작품 《부적(符籍》》에서 문학화되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는 두 사기사(許欺師)의 이야기가나온다. 그들은 황제를 위해 값비싼 옷 한 벌을 짜서 바친다. 그러나 이 옷은 착한사람과 충성스러운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이다. 황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외출한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 시금석과 같은 옷의 힘에 겁을 먹고 황제의나체를 알지 못하는 척한다.

이 끝의 것이 우리들의 꿈의 상황이다. 알지 못한 꿈 내용이 한 자극이 되어서 어 떤 표현 방식을 발명한다. 이 표현 형식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상황이 뜻 깊은 것 이 된다고 생각하여도 결코 지나친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때 기억에 남아 있는 상 황은, 그 본래의 뜻을 잃고 여태까지 몰랐던 다른 여러 목표에 이용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제2의 심적 체계의 의식적 사고 활동에 의해서 꿈 내용의 그러한 오해가 종종 생기고. 그것이 또 궁극적인 꿈 형성의 한 요인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우리들은 강박 관념이나 공포증을 형성함에 있어 서 이것과 비슷한 오해가—동일한 심적 개성의 내부에 있어서—주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또 꿈에서는 이 변형을 위한 재료가 취해지는 원 천이 설명될 수 있다. 사기꾼은 꿈이고, 황제는 그 꿈을 꾼 본인이다. 그리고 도덕 적인 경향은 잠재 내용이 억압에 희생된, 용서받을 수 없는 소망에 점령된다는 막 연한 인식을 넌지시 표시하고 있다. 내가 신경증 환자를 분석하는 동안에. 이런 꿈 이 나타내는 관계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꿈이 극히 어렸을 때의 기억에 의존하 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들의 유아 시절에 한해서만 우리들은 친척 들, 낯선 보모나 하녀나 손님들 앞에서 옷을 입지 않고도 태연하였다. 그리고 당시 에 우리들은 자신의 나체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1 옷을 벗는 것이 아이들 을 부끄럽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아이 시절에서 도 볼 수 있다. 벌거벗은 아이들은 웃거나 뛰놀거나 자기의 배를 두드린다. 어머니 나 그곳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이들을 보고. "저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 어, 안 돼." 하고 꾸짖는다. 아이들은 종종 노출욕을 보여 준다. 우리 지방의 한 마 을을 지나면 누구나 두세 살 난 아이들이 아마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경의를 표시 하기 위함인지 그들을 향해서 남녀 아이들이 속옷을 높이 걷어 올리는 광경을 만 나게 된다. 나의 환자 한 사람은 여덟 살 때의 한 광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 는 자기 전에 옷을 벗고 속옷만으로 옆방에 있는 누이동생에게 춤추며 가려고 하 면 식모가 그것을 말린다. 신경증 환자의 소년 시절에 이성의 앞에서 자기의 몸을

<sup>31</sup> 아이는 또 동화 속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갑자기 아이가 "뭐야, 왕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 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노출시키는 것은 큰 역할을 한다. 편집증에 있어서는, 옷을 벗을 때에 사람들이 보 고 있다는 망상은 이런 여러 체험으로 환원된다. 성적 도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환자 중에는, 유아적 체험의 충동이 병 증세에까지 항진(亢進)된 노출증 환자의 무 리가 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여 그때를 천국과 같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천국 자체는 개개인의 유년 시절에 관한 혼합된 공상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또 하늘의 낙원에서는 사람들은 서로의 나체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결국 어느 때에 와서 수치와 불안이 각성되고. 추방이 생기고 남녀의 성생활과 문화의 영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꿈은 이 잃은 낙원으로 매일 밤 우리들을 도로 데리고 간다. 우리들은 매우 어린 유아 시절(만 세 살 말경까지의 의식 이전의 시기)의 여러 인상은 다만 그 자체 속에서나 그 밖 의 모든 것에서 떠나서 독립적으로 그것을 재현할 것을 갈망하고, 그 재현이 소망 충족의 하나라고 앞에서 감히 추측하였다. 그러므로 나체 꿈은 노출 꿈이다. 32 노출 꿈의 핵심은, 자기의 모습과 난잡한 복장이다. 자기의 모습이라고 해도 그것 은 유년 시절의 자기가 아니라 현재 볼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이다. 한편 난잡한 모 습이라는 것도 유년 시절 이래의 그 많은 난잡한 복장의 기억이 겹쳤기 때문이 아 니면 검열자의 마음에 들려고 애매해진 것. 이 둘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본인으로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더해진다. 나는 이 유아의 노출을 실지로 구경한 구경꾼 이 꿈에 다시 나타나는 예를 본 적이 없다. 꿈은 참으로 결코 단순한 기억이 아니 다. 유년 시절에 우리들의 성적 관심을 끈 사람이 꿈ㆍ히스테리ㆍ강박 신경증 속 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편집증만은 구경꾼을 다시 그 들의 자리에 끌어들이고. 그 구경꾼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광신적으로 그들의 존재 를 확신한다. 꿈이 구경꾼들의 대신으로 연출되고 있는 광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많은 모를 사람들'을 대리시키는 것은, 확실히 면전에서 노출하여 보여 준 한 사람 한 사람의 친밀한 사람의 소망 반대물이다. '많은 모를 사람들'은 이 밖에서도 꿈에 서는 임의의 다른 관계 중에 나타난다. 소망 반대물로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비밀'

<sup>32</sup> 그다지 곤란 없이 유아적 노출욕에 환원할 수 있으나, 여러 점에서 상기한 '전형적' 나체 꿈과는 다른 부인의 흥미로운 나체 꿈에 관해서는 페렌치가 보고했다.

을 의미한다. 33

우리들은 편집증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낡은 상황의 부활이 얼마나 이 반대 관계에 순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사람은 이미 혼자가 아니다. 사람은 확실히 남에 의하여 관찰된다. 그러나 그 관찰자는 '많은 낯선, 이상하게 애매한 사람들'이 다.

더욱이 노출 꿈에는 억압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런 꿈에서의 불쾌한 감각은 억압에 의해서 부정된 노출 장면의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상된 데 대한 제2의 심적 체계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장면이꿈에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

억제된 느낌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취급할 것이다. 이 느낌은 꿈에서 의지의 갈 등, '아니다'를 표현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무의식적 의도는 노출을 계속 하도록 요구하고, 제2의 심적 체계는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동화나 그 밖의 시적 재료와 우리들의, 전형적인 꿈의 관계는, 드문 것도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니다. 때때로 시인들은 변화 과정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통찰하고 인식하고—시인은 보통 그 변화 과정의 도구이나—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그 시의 근원을 꿈에서 찾는 것이다. 한 친구는 켈러 (Gottfried Keller)의 《푸른 하인리히(Der grüne Heinrich)》에서 다음 구절을 지적해 주었다. "레에(Lee) 씨, 호메로스(Homer) 속에 오디세우스(Odysseus)가 벌거벗은 채 흙투성이가 되어 나우시카와 그의 친구들 앞에 나타나는 대목이 있지요? 저는 당신이 이 오디세우스의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특히 신랄한 진리를 실제로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당신은 알고 싶습니까? 호메로스가 묘사한 이 경우를 잘 검토해 봅시다. 당신이 고향을 떠나서, 당신과 친한 모든 것을 떠나서 낯선 것을 방랑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여러 가지를 듣고 보아서 많이 경험하고 근심도 고생도 하고, 아주 가련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어느 밤에 분명히 이런 꿈을 꿀 것입니다. 즉 당신이 한 걸음씩 고향에 가까이 가는 꿈입니다. 꿈속의 고향은 둘도 없는 아름다운 빛깔로

<sup>33</sup> 당연한 근거에서 꿈에 '전(全) 가족'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비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이 당신 쪽으로 향하여 걸어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자기가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알몸이고 먼지에 파 묻혀 걸어 다녔다는 것에 생각이 미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치감과불안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숨어서 나체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때에 당신은 땀에 젖어서 잠을 깬다, 이런 식이지요. 이 세상에 인간이 있는 한, 이 것이 고뇌가 많은 방랑객이 꾸는 꿈입니다. 이렇게 호메로스는 인류의 영원한 본성의 가장 깊은 깊이에서 이 오디세우스의 상황을 설정한 것입니다."

보통, 시인은 독자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성의 가장 깊고 영원한 것에 호소하는 사람이며, 가장 깊고 영원한 인간 본성은, 나중에는 전 역사적(前歷史的) 의식 이전 (意識以前)인 유아 시절에 뿌리박고 있는 심적 생활의 여러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다. 고향 없는 인간의 의식이 가능한, 조금도 흠잡을 수 없는 여러 소망의 뒤에억압되고 용서될 수 없는 유아시절의 소망이 꿈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우시카 (Nausikaa)의 전설 속에서 객관화된 꿈이 불안 꿈으로 변하는 것이다.

처음엔 바삐 계단을 올라가나 나중에 곧 계단 위에서 못 박힌 듯이 되는,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나의 꿈은, 노출 꿈의 본질적 여러 성분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역시 하나의 노출 꿈이다. 따라서 이 꿈도 어떤 어린 시절의 체험에 환원될 수 있다. 그런 어린 시절의 체험이 알려지면, 하녀의 나에 대한 태도나 내가 주단을 더럽힌 데에 대한 하녀의 비난이, 꿈에서 하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만드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어 있는가가 틀림없이 판명된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신 분석에서는 우리는 시간적 근접성을 사실적인 연관성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두 개의 사상이 언뜻 보아서 아무런 관련 없이 바로 서로 이어 나타나는 경우에, 이 두 사상은 판독될 수 있는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그것은 마치, 내가 a라 쓰고 다음에 나란히 b라고 쓰면, ab라는 하나의 철자로서 ab라고 발음되는 것과 같다. 잇따르는 꿈의 전후 관계도 같다. 위에 기록한 계단의 꿈은 일련의 꿈속 일부를 꺼낸 것이다. 나는 꿈의 나머지도 해석에 의해 이미 잘 알고 있다. 그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꿈은 틀림없이 동일한 맥락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단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꿈은 연결된 꿈과의 관련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이제 다음의 일련의 꿈은 내가 두살 반쯤까지 젖을 먹었던 때부터 나를 돌본,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나의 의식 속에 기억되고 있는 유모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여자는 늙고 미운 얼굴이었으나 대단히 영리하고 일을 잘 했다고 한다. 내가 나의 꿈에서 할 수 있는 추측에 의하면, 유모는 언제나 나를 부드럽게 대하지는 않았고, 내가 청결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혹독하게 꾸짖었다. 그리하여 꿈속의 하녀는 첫 유모의 교육을 계속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나의 의식 전의유아 시절의 유모의 화신으로서 꿈에서 취급될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아였던 나는 유모의 혹독한 취급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은 긍정된다.<sup>34</sup>

### (2) 근친자(近親者)가 죽는 꿈

전형적이라고 불리는 다른 일련의 꿈은 가족 즉 부모 · 형제 · 자매 · 아이 등이 죽는 내용의 꿈이다. 이런 꿈은 두 종류로 구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런 꿈을 꾸어도 꿈꾸는 사람은 꿈속에서 조금도 슬픔을 느끼지 않고, 따라서 꿈에서 깬 뒤에도 자기의 무정(無情)에 놀라는 경우고, 또 하나는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잠자는 동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꿈이다.

첫 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련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꿈을 분석하면 그 꿈은 그 내용과는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다른 소망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발견된다. 젊은 아주머니가 언니의 외아들의 관 앞에 서 있었다는 꿈이 바로 이런 꿈이다. 이 꿈 내용은 그 여인이 작은 조카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던 애인과 다시 만나려는 소망

34 이 꿈의 보충적 해석. '계단 위에 침을 뱉다(auf der Treppe spucken)'는 '침을 뱉는다(esprit d'escalier)'는 '유령이 나타난다'이므로) 대략 번역해서 프랑스어로는 '계단의 정신(또는 기지)(esprit d'escalier)'가 된다. Treppenwitz는 대체로 '당장에 좋은 슬기의 결핍'을 뜻한다. 이 결핍에 대해서 나는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 그러나 유모에는 이 '당장에 좋은 슬기'가 결핍되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을 뒤에 감추고 있다. 전에 한 번 다른 조카가 죽었을 때 그 관의 옆에서 역시 오래간만에 애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이다. 이 소망이야 말로 이 꿈의 본래의 내용이므로, 이것은 오히려 슬픔의 동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꿈을 꾼 본인은 꿈에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이때 우리들은 꿈속의 감정은 현재 내용(顯在內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잠재 내용(潛在內容)에 속한다는 것과, 또 꿈의 정서 내용이 표상 내용에 덧붙여진 왜곡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친척의 죽음이 상상되고, 그때에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꿈은 위의 꿈과는 다르다. 이런 꿈은 그 내용이 증명하듯이 문제의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는 모든 독자나 그 밖의 사람들의 감정은 나의 해석에 반대할 것이므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광범위한 증거에 입각해서 나의 증거를 견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꿈에서 '실현된 것'으로서 표현되는 소망이 반드시 현실대로의 소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꿈 하나를 이미 밝혔다. 그것은 또 이미 옛적에 지나간, 처리된, 밑에 깔린, 억압된 소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들이 그것이 꿈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일종의 계속적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소망이었다. 이 소망은, 우리들의 개념으로서의 죽은 사람과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디세우스 중의 망령과 같이 피를 빨자마자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미 소개된 상자 속의 죽은 아이의 꿈에서는, 15년 전에 실제로 적극적이었고 그때부터 명백히 인정되었던 한 소망이 문제였다. 만일 내가 매우 일찍 경험한 유아 시절의 기억이 이 꿈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덧붙이면, 이 부가적 의견은 아마 꿈 이론의 견지에서 무관심하게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저 꿈을 꾼 여인이 작은 아이였을 때 그것이어느 때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 여인은 자기를 배고 있던 그 여인의 어머니가 대단히 언짢아서 뱃속의 아이의 죽음을 열렬히 바랐다는 말을 들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성인이 되어 아기를 배고 어머니의 예를 좇은 것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 중 누가 죽어서 슬퍼하는 꿈을 꿨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이 그들의 누구이든 죽기를 지금 바란다는 증거로 이 꿈 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꿈 이론에는 그만한 권한이 없다. 꿈 이론은, 꿈을 꾼 당사자가—유아 시절의 어떤 시기에—그들의 누구이든 죽기를 바란 일이 있었다 고 추측하는 데에만 나는 만족한다. 그러나 이 진술을 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납득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나의 반대자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생각한 일이 없다. 그런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가치 없는 이야기라고. 따라서 나는 지금도 그렇다고 지적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벌써 소멸된 유아의 심적 생활의 일부를 여기에 환원시켜야 한다. 35 우선 우리들은 아이들의, 그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른의 세계를 살펴보면 형제의 불화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고. 또 형제 자매의 불화의 씨는 아이시절에 있으며, 또 상당히 옛적부터 이어져 온다는 것은 쉽게 확증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관계를 애정이라고 무조건 규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성인이 되어서 지금 애정으로 서로 돕고 있는 형제자매까지도 아이 시 절엔 늘 서로 싸우면서 지냈다. 위 아이는 아래 아이를 놀리거나 일러바치거나 장 난감을 빼앗거나 한다. 또는 아래 아이는 위 아이에게 대항하지 못한 대로 부노를 느끼고 이를 갈고. 위 아이를 질투하고 두려워한다. 혹은 아래 아이의 자유에 대 한 동경과 정의감이 처음 생기는 것도 그 윗사람에 대해서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그 집의 아이들의 사이가 나쁘다고 불만을 터뜨리지만,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 행 실이 좋다고 인정되는 아이들의 성격도 이를 자세히 관찰하면, 어른들에게서 기대 할 수 있는 성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아 이는 자기의 욕구를 강렬하게 느끼며, 특히 그 경쟁상대나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사악하다'고 하지 않고, '장난꾸러기'라고 한다. 아이는 어른들 앞에서나 법률 앞에서도 자기의 나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래도 하등 지장이 없다. 유년이 지나지 않는 동안에 이 작은 이기주의자 속에서 이타적인 감정의 움직임이나 도덕심이 깨고.

<sup>35</sup> 이에 관해서 《정신 분석 병리학 연감》 제1권 1909년 소재의 '다섯 살 사내아이의 공포증의 분석'과 '신 경증학'에 관한 소논집 속편 중의 〈유아의 성욕 이론에 관해서〉를 참조.

마이네르트의 소위 제2의 자아가 제1의 자아 위에 세력을 피고, 제1의 자아의 움직임을 저지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도의심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지않으며, 부도덕적인 유아 시(時)의 연속 기간도 아이에 따라 다르다. 또 그런 도덕심이 나타나지 않는 아이를 보고 우리들은 곧잘 '변질자(變質者)'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때는 확실히 발달 장애가 문제이다. 제1차 성격이 후기의 발달에 의해서 이미 감추어져 있을 경우에, 히스테리증의 습격에 의해서 첫 성격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표면에 나타난다. 소위 히스테리적 성격과 '장난꾸러기'와의 일치는 누구의 눈에나 뜨일 정도로 뚜렷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강박 신경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제1차 성격에게 한층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종의 과잉 도덕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거나 그들이 죽거나 하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도 그들의 무의식계 속에서는 옛적부터 그들에 대하여 나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이 나쁜 소망은 꿈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흥미 있는 것은 세 살 또는 세 살 조금 넘는 작은 아이들이 그들의 아래 자매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관찰하는 일이다. 아래 아이가 없다가 동생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는 황새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다고 듣는다. 이 아이는 새로 온 사람을 보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 "황새가 다시 그것을 데리고 가 버렸으면 좋을 터인데." 하라고.

나는 아이가 새로 온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것을 계산에 잘 넣었다고 확신한다. 친한 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은 네 살 아래의 여동생과 대단히 사이가 좋은) 이 부인은 누이동생이 태어났다고 듣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빨간 모자를 아기에게 주지 않을 테야." 아기가 자매에 대한 적개심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아주 나중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적개심은 이미 자매가 생겼

<sup>36</sup> 전술(前述)한 연구 논문에서 내가 그 공포증을 분석한 세 살 반이 된 한스(Hans)는 누이동생이 탄생한 후 얼마간 지나서 열(熱)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즉 "동생 같은 것, 나는 필요 없다."고, 그 후일 년 반 지나서 한스는 신경증에 걸렸다. 이때에 그는 작은 누이동생이 죽도록 어머니가 누이동생을 더운 물로 씻어줄 때에 대야 속에 쳐 넣었으면 좋을 터인데, 하는 소망을 뚜렷이 표명하였다. 더욱이이 한스는 품행이 좋고 순한 아이였으며, 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이 동생을 귀여워하고 특히 그 동생을 돌보아 주었다.

을 때에 깨우쳐진다. 꼭 세 살도 되지 않는 계집아이가 요람 속의 아기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한 사건을 들은 바 있다. 앞으로 아기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자기는 결코 덕을 보지 못함을 예감한 것이다. 이 나이의 아이가 가지는 질투심은 강력하고 뚜렷하다. 그러나 작은 아이가 어디엔가 가 버리면 아이는 집안의 애정을 한 몸에 모으고 있는 터에, 또 다시 황새가 새 새끼를 데리고 온다. 이때 이 아이는, 이번의 아기도 전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훨씬 이전과 그리고 전의 아기가 죽었을 때부터 이번 아기가 나올 때까지에 맛보았던 행복을 맛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품게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일까? 물론 이런 아이의 새로 낳은 어린 형제에 대한 태도는, 정상한 상태에서는 나이의 차이로 생긴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나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면 언니에 해당하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의지할 것 없는 아기에 대한 모성의 여러 본능이 작용할 것이다.

형제자매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들 성인의 둔한 관찰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빈번히 아이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다.<sup>38</sup>

나는 서로 뒤이어 탄생한 나 자신의 아이들에 대하여 이런 관찰을 할 기회를 잃었으나 이제 나의 작은 조카를 통해서 그 잃었던 기회를 메우게 되었다. 이 조카는 열다섯 달 동안의 독재를 누이동생의 출현으로 잃어 버렸다. 이 작은 조카는 대단히 훌륭한 태도로 누이동생의 손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만, 만 두 살되기 전에 반드시 누이동생을 쓸데없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겨우 배운 말을 이용할 것임을 확신한다. 누이동생에게 화제가 돌면 작은 조카는 으레 화제에 뛰어들면서 "작아요, 작아."라고 재미없다는 듯이 고함을 친다. 이 '작은' 아기가 순조롭게 성 37 유년기에 체험했던 죽음의 사건은 가정 안에서 바로 잊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신 분석적 탐구는 이 죽

<sup>37</sup> 유년기에 체험했던 죽음의 사건은 가정 안에서 바로 잊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신 분석적 탐구는 이 죽음의 사건이 후년의 신경증에 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뚜렷이 가리키고 있다.

<sup>38</sup> 아이들이 동료나 양친의 한 쪽에게 표시하는 본래부터의 적대적인 태도에 관해서는 많이 보고되어 있고, 정신 분석학의 문헌 속에 기재되어 있다. 작가 슈피텔러(Spitteler)는 자신의 유아기의 이 전형적인 태도를 특히 현실적으로 또 소박하게 묘사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아돌프(Adolf)가 있다. 작은 놈이었다. 사람들은 이놈이 나의 동생이라고 말했다. 동생은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나로서는 알 수없었다. 아니 모두들 이놈을 나와 같이 중히 여기는 것은 더욱 모를 일이었다. 나만이면 되는데 무슨동생이 필요하다는 걸까?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방해가 된다. 내가 할머니에게 알랑거리면 그놈도 할머니에게 아양을 부린다. 내가 유모차를 타면 그놈이 앞자리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발과 발이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장해서 이 오빠의 경멸을 벗어날 수 있게 된 두서너 달 동안에, 그는 누이동생이 '그렇게 주의할 가치 없는 존재다'란 의견을 이번에는 다른 근거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곁의 사람에게 "아기는 이가 없다."고 주의를 촉구한다. <sup>38</sup> 또 다른 나의 형제자매 중의 한 사람의 맏딸의 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섯 살 될 때에 이 맏딸이 삼십 분 동안 곁에 있는 이모들에게 증언을 얻은 한 사건이다. 즉 그 아이는 "루시(Lucie)는 아직 그런 것을 몰라요."라고 말하고, 상 대방에게 그렇다고 긍정하게 한다. 루시는 두 살 반 아래의 경쟁 상대자인 동생의 이름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부인 환자 중의 어느 한 사람을 보아도. 형제자매가 죽는 내용의 엄청난 적개심을 보이는 꿈을 발견하지 못한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하나만이 예외였으나 이것도 조금만 해석을 달리하면 규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부인 을 분석 치료하고 있을 때에. 그 부인의 증세로 보아서 설명해 두어야 하겠다고 생 각한 사정, 즉 여기에 여태까지 설명해 온 형제자매에 대한 적개심과 그 밖의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바. 이 부인 환자는 그런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다고 말하여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다른 꿈 하나를 기억해 냈다. 겉으로는 지 금 화제가 되어 있는 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꿈인데. 이 꿈은 네 살 때 처음으로 꾼 것이고, 그 뒤에 되풀이하여 꾸고 있다고 그 여자는 말하였다. 이 꿈을 처음에 꿨을 때, 그 여자는 막내딸이었다. 많은 아이들, 모두 나의 오빠·언니, 사내 조카. 계집애 조카들인데. 풀밭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모두 날개가 생겨서 날아서 어디로 인가 가 버렸다. 이 꿈의 뜻을 그 여자는 몰랐다. 그러나 여기에 검열 때문에 조금 변경되어 있기는 하나. 형제자매들이 모두 죽는다는 본래의 꿈을 발견하기에 그다 지 어렵지 않다. 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었다. 그 아이들 중의 한 사람이 죽 었을 때—형제 둘이 이때 함께 양육되었다—아직 네 살 밖에 되지 않았던 이 부인 환자는, 누구인지 어른에게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되면 날개가 생겨서 천사가 된다는 답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sup>39</sup> 세 살 반이 된 한스(Hans)는 같은 말로써 자기의 누이동생에게 부정적 비판을 내린다(上記 당해(當該) 부분 참조), 그는 누이동생에게 이가 없기에 동생이 말 못 하는 줄로 알고 있다.

뒤에 꿈속에서 언니 오빠는 모두 천사와 같이 날개를 가지고—여기가 중요하다—날아가 버린다. 꿈에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천사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자기만 남는다. 그렇게 많던 아이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는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아이로서는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를 알 것이다. 아이들이 날아가기전에 풀밭에서 뛰어논다는 것은 나비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치 이것은 이 아이를 인도한 사상의 결합이 고대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여신 프시케에 나비의 날개를 붙인 사상 결합과 똑같은 것이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다고 하 더라도. 마치 모든 책과(責過)가 다만 죽음에 의해서만 배상된다는 듯이 경쟁상대 나 자기보다 힘센 친구의 죽음을 바랄만큼 사악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기 느가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아 이들의 관념이 어른들의 관념과는 다르며 다만 '죽음'이란 말만 공통될 뿐이고, 양 자 간에 거의 공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두기 바란다. 아이는 죽은 뒤의 썩는 비참. 영원한 허무의 공포 등을 모른다. 그러나 어른은 죽은 뒤의 나라에 관한 일 절의 신화가 증명하듯이. 이 영원한 허무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지 곤란해진다. 이 문제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없는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란 무서운 말을 쉽게 입에 담고, 다른 아이에게 "한 번만 더 해 보아라, 저 프란츠(Franz)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다."라고 위협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머니는 탄생하는 사람의 반 이상이 아이 때에 죽는다는 것을 잊고 있지 않으므로 몸서리를 친다. 여덟 살의 아이마저도 박물 표본과(博物標本 館)에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가 죽으면 엄마 를 박제로 만들어서 이 방에 두고. 엄마를 언제나 볼 수 있게 할 테야."라고 말한 다. 죽는다는 것에 관한 아이들의 관념은 우리들 어른의 관념과 닮은 점이 별로 없 다 40

40 아버지가 갑자기 죽은 후에 열 살 되는 영리한 사내아이가 이런 말을 해서 나를 놀라게 하였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저녁때에 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지요? 이것을 나는 모르겠어요."—이 테마에 관한 이 이상의 재료는 폰 후크 헬무트 박사 부인이 편집한 잡지 《이마고》의 '동 심(童心)' 란(欄)(《신경증학에서의 정신 분석응용 잡지》제1권—제5권. 1912~1918년)에 있다.

죽는다는 것은, 죽기 전의 괴로움을 직접 보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가 버렸다', 남은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것을 뜻한다. 어떻게 가 버렸는가? 여행·해고·소원, 또는 죽음에 의해서이냐에 관한 차별은 아이에게는 없다. <sup>41</sup> 기억할 나이가되지 않은 한 아이는 유모가 휴가를 얻어서 가고 좀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이 두 사건을 겹쳐서 하나로 기억한다. 이 사실은 분석이 가리키는 바이다. 아이는 부재의 사람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몇 주일 동안의 피서 여행에서집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어떻더냐고집을 지킨 사람에게 물으면,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란 답에 어머니는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어머니가정말로 '아무도 되돌아오지 않는' 죽음의 나라로 여행해 버리면 아이들은 처음엔어머니의일을 잊어버린 것같이 보인다. 늦게서야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부재를 바라면 그 아이는 이 소망을 단도직입적으로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죽었으면 좋을 텐데.'의 소망 꿈에 대한 심적 반응은,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아이의 소망이 결국 어른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형제자매가 죽기를 바라는 아이의 감정이 그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형제자매를 경쟁 상대자로 생각하게 하는 아이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해명된다면 부모에 대한 '죽으면 좋을 텐데.'란 소망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애정을 쏟아 주는 사람이고, 아이의 많은 욕구를 채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이의 이기주의적인 여러 동기에서라도 부모의 생존을 바라는 것이 마땅한 이야기가 아닐까.

부모가 죽는 꿈의 십중팔구는 양친의 어느 한쪽의 죽음이고, 그 한쪽은 그 꿈을 꾼

41 정신 분석에 통달한 한 아버지의 관찰은, 지혜가 발달한 네 살의 딸이 '가 버렸다'와 '죽어 버렸다'의 두 경우를 구별한 순간을 파악하였다. 이 딸은 식사 중에 투덜대었을 때 하숙의 시녀 하나가 자기를 불쾌한 눈초리로 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요제프네는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왜 죽어야 하니? 가 버리면 되지 않니." 하고 달랬다. 아이는 "아니에요, 가 버리면 또 돌아오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아이의 제한 없는 자기애(나르시시즘)에는, 일체의 장해는 언제나 하나의 권능(權能) 장해이고, 준엄한 드라콘의 입법과 같이 아이의 감정은 그런 죄과에 대해서 단 하나의 참작할 여지없는 형벌, 사형을 선고한다.

본인과 성을 같이하는 편이다. 즉 남자면 아버지의, 여자면 어머니의 죽음을 꿈꾼다. 이런 경험에서 위에서 제기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마련되었다. 이 현상은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한 계기에 의해서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말하면 성적 편애라고 할 것이 일찍부터 나타나서, 남자는 아버지를, 여자는 어머니를 각기 자기의 연적으로 보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없애 버리면 자기의 이익이 증가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독자들은 이 생각을 당치 않은 소리라고 해 버리기에 앞서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이곳에서 다시 주목하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부모를 경애하라는 문 화의 요청이 이 관계를 바라는 것과. 일상의 견문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서 표시 하는 것과를 분리시켜야 한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 중에서 아이가 부모에 대 하여 가지는 적개심의 계기는 얼마든지 있다. 검열을 통과하지 않는 여러 가지 소 망이 생길 수 있는 많은 조건은 도처에 얼마든지 있다. 우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데, 우리들이 모세의 십계명에 대해서 승인한 신성 때문에, 현실을 인식할 때의 우리들의 눈은 흐려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섯 번째의 계명 의 준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를 누구에게나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인간 사회의 귀천도비(貴賤都鄙)의 각층에서, 부모에 대한 경애가 다른 이해의 관 심 앞에서는 미미하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신화나 전통 속에 인류의 원시 시대부터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뜻이 애매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의 절대적 권력과 그 권력이 행사될 때의 잔혹성을 전해 준다. 크로노스(Kranos) 는 마치 아비 돼지가 어미 돼지의 뱃속의 새끼를 삼키듯이. 자신의 아이들을 삼켜 버리고. 제우스(Zeus)는 아버지를 거세하고. 42 지배자로서 자신을 그 아버지의 자 리에 앉힌다. 고대의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그 위세를 떨치면 떨칠수록 그 세습 후 계자인 자식은 아버지의 적(敵)의 위치에 쫓기게 된다. 아버지의 죽음에 의하여 스 스로가 지배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식의 초조는 그만큼 맹렬해졌을 것이다. 현

<sup>42</sup> 적어도 약간의 신화적 표현에서는 그러하다. 이외의 표현에 따르면 크로노스(Kranos)는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Uranos)를 거세하였을 뿐이다. 이 주제의 신화적 해석에 관해서는 오토 랑크의 〈영웅 탄생 신화〉(〈응용 심리학 논문집〉제5호 1909년)과 동(同)저자의 《문학과 전설에서의 근천상간의 모티프》 (1912년) 제9장 2절을 참조.

대 사회의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자식에 대하여, 그가 자주적으로 인생행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고, 자식의 독립에 필요한 생활 수단을 주기를 거부하여 적개심이 자연스레 싹트도록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는 참으로 빈번하게 아버지를 잃은 자식의 슬픔이 드디어 손에 넣게 된 자주독립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큰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아버지는 누구나 현대 사회에서는 곰팡이가 쓴 가장권의 잔재를 손에 경련을 일으키면서도 꽉 붙잡으려고 하는 형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원시적 상극(相剋)을 작품의 전경에 내어놓는 시인은 누구나 그 작품에서 성공을 거둔다. 어머니와 딸이 상극하는 동기는 딸이 성장하여 어머니를 자기의 감시인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데에 있다. 즉 딸은 성적 자유를 욕구하나 어머니는 딸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요구를 단념할 시기가 자기에게 온 것이라고 깨달을 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 누구의 눈에도 뚜렷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효도를 옛적 부터 신성불가침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부모가 죽는 꿈을 우리들 로 하여금 설명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또 우리들은 이미 서술한 여러 견해에 의 해서 양친이 죽었으면 하는 소망이 극히 어린 시절의 유년기에 연유하고 있는 것 을 알고 있다. 이런 추측은 신경병 환자를 정신 분석해 보면 모든 의심을 버릴 수 있는 확실성을 가지고 실증된다. 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 이의 성적 소망이 각성되는 시기가 매우 이르다는 것—성적 소망이 싹트는 상태를 '성적 소망'이란 말로 불러도 좋다면—또 여자 아이의 첫 애정이 부친에. 남자 아 이의 첫 애정은 어머니에게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여자아이의 연적이 된다. 그리고 아이가 이런 느낌을 얼마나 쉽게 죽음 의 소망으로 옮겨놓는가는, 형제자매를 논할 때에 이미 기술한 바이다. 성적 선택 은 이미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 속에 나타난다. 자연스러운 추세(趨勢)로 아버 지는 어린 딸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아들 편에 선다. 부모는 성의 마력이 아이들의 판단을 그르치기 전에 아이를 엄격히 교육하려고 하지만 역시 그런 경향은 생긴 다.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뚜렷이 느끼고, 자기를 특히 사랑하지 않는 쪽에 반항한다.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이들 측에서 보면 특별한 욕구의 만족일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만사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가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는 자기 자신의 성욕 충동에 맹종하고, 또 그와 동시에 아이가 양친에 대하여 행한 선택이 그 양친 자신의 것과 같은 뜻으로 행해지면, 아이는 본래 양친에서 온 자극을 경신(更新)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징후의 대부분은, 보통 쉽게 간과된다. 그 징후의 얼 마는 유아시절을 지나서도 눈에 띌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여덟 살의 소녀는, 어 머니가 밥상을 떠나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가 어머니의 후계자임을 선언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엄마야. 카를(Karl) 씨, 야채를 좀 더 드시지 않겠어요? 어서 더 드셔요."라고 말한다. 특히 영리하고 활발한 네 살 난 소녀는 이 소녀에 의해서 유아 심리의 한 토막을 더 명백하게 간취(看取)할 수 있다. "어머니는 언제 어디에 가 버릴는지 알 수 없어. 그러면 아버지는 나와 결혼하는 거야. 나 아버지의 엄마 가 되고 싶어."라고, 유아 생활에서는 이런 소망이 그 아이가 어머니를 마음부터 사랑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여행 중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머 니의 옆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면 도로 제 방으로 가 서 어머니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수고로 잠자야 하는 경우, 자기가 언제나 순하고 예쁜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어디엔가 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이 소망이 달성되는 한 수단은 아버지가 죽는 일이다. 아이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 수단을 자기의 경험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같이 '죽은' 사람은 언제나 부재이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에 대한 이상과 같은 관찰이 내가 제창한 판단(幼年觀)에 아무런 무리 없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관찰은 충분한 확신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그것은 어른의 신경증 환자를 정신 분석함으로써 비로소 얻어진다. 이런 학설의 꿈을 보고함에 앞서 여기서 말해 둘 것은 이들 꿈은 소망 꿈으로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는 한 부인이 슬프게 우는 것을 보았다. 그 부인은 나에게, "나는 이제 친척들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면 몸서리칠 겁니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전에 꾼 꿈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이 여자는 그 꿈의 의미를 물론

모르고 있었다. 그 꿈은 네 살 때의 꿈이었다. 산고양이인지 여우인지, 그렇게 보이는 동물이 지붕 위를 걷고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아래로 떨어진다. 내가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그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운반되어 나갔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 꿈은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보고 싶다는 유년 시절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고, 또 친척들도 당신을 보면 몸서리를 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꿈 때문이라고 내가 말하자 그 여자는 이꿈 해석의 실마리가 되는 재료를 끄집어냈다. 그 여자는 어렸을 때 '산고양이의 눈'이란 욕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네 살 때에 기와가 어머니의 머리위에 떨어져서 큰 출혈을 보았다.

나는 전에 여러 심적 상태를 겪은 한 젊은 여자를 자세히 조사한 일이 있다. 이 환 자의 병은 조광성(躁狂性)의 착란에서부터 시작되다. 이 상태에 빠지면 환자는 자 기의 어머니를 특히 증오하고 어머니가 침대에 가면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언니에게는 순하고 얌전하다. 이 상태가 지나면 수면 장해를 수반하는 정신은 맑지만 다소 감각이 없는 상태에 빠진다. 나는 이런 단계에 있는 이 환자의 치료를 떠맡고 꿈을 분석하였다. 꿈의 대부분은 다소 은폐되어 있으나, 어머니의 죽음을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어떤 늙은 부인의 장례식에 입회하거나 언니와 함께 상복을 입고 밥상에 앉아 있는 꿈이다. 이런 꿈의 의미에는 아무런 의 심할 점이 없었다. 조금 병세가 나아질 무렵에 히스테리성 공포증이 나타났다. 그 공포증을 겪으면서 환자를 제일 괴롭힌 것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까 하는 불안 · 공포였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발작이 일어나면 급하게 집으로 돌 아가서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이 예는 그 밖의 나의 경 험과 비교해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이 예는 동일한 자극적 표상에 대한 심 적 기구(機構)의 여러 반응 방식이, 말하자면 여러 언어로 표현된다. 내가 평상시 에는 억압된 첫 심적 심급에 의한 둘째의 심적 심급의 억압으로 해석하고 있는 착 란 상태에 있어서는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인 적개심이 자동적으로 세력을 증가 하였다. 그리고 첫 안정기가 시작하고 마음의 소요가 진압되며 심급의 세력이 부 활하면, 이 적개심이 어머니의 죽음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영역은 꿈 뿐이었다. 마음과 몸이 정상 상태에 되돌아가면 히스테리성의 대비물 반응과 저항 현상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병적 걱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히스테리증의 소녀 가 왜 수시로 어머니를 병적으로 걱정하는가를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남자 환자의 무의식적인 심적 생활을 깊이 탐구할 기회도 있었다. 이 남자는 강박 신경증 때문에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길을 걷지도 못하고 있었다. 왜 나하면 서로 스쳐가는 통행인을 모두 자기가 죽여 버릴지 모른다는 걱정에 괴로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거리에서 살인이 생겨 그로 인하여 자기가 고소 될 경우의 준비로 알리바이의 증거를 정리하면서 보내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도 의심도 있고 훌륭한 교양도 있는 사람이었음은 말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분석을 통해 이 견딜 수 없는 강박 관념의 원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살인 충 동이라는 것을 밝혀 낼 수 있었다. 이 충동은 환자가 일곱 살 때에 의식적으로 나 타나서 환자를 대단히 위협했으나, 물론 멀리 유년 시절에 발단한 것이었다. 아버 지가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세상을 뜬 후, 환자가 서른한 살이 되었을 때, 위에서 말한 강박 비난(强迫非難)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비난은 공포증의 형식으로 (부친 이 아니라) 낯모를 사람에게 옮겨갔다. 육신의 부친을 산꼭대기에서 골짜기 밑으 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심정이 되어본 사람이면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 을 함부로 대할 것이라고 쉽게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자기 방에 틀 어박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여태까지의 수많은 경험에 의하면, 나중에 신경증에 걸린 사람의 소아기의 심적 생활에 있어서는 양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친의 한쪽에 대한 연정과 다른 쪽에 대한 증오는 유년 시절에 형성되고 후년의 신경증의 증세에서는 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적 흥분의 재료의 움직일 수 없는 실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신경증 환자가 아주 새로운 어떤 것, 그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어, 다른 정상적인 사람과 극명하게 구별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모에 대한 연정과 증오가 과대하게 강조되어 있는 데에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정상적인 아이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전설이 고대세계에 하나 있다. 이 전설의 철저하고도 보편타 당한 영향력은, 유아 심리에 관해서 위에서 전제한 유사적 보편타당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즉 오이디푸스(Ödipus) 왕의 전설과 소포클레스(Sophokles)의 같은 이름의 연극 이 그것이다. 테베(Thebe) 왕 라이오스(Laïos)와 왕비 요카스테(Jokaste)의 아들 오이디푸스는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는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라는 신탁이 부왕에 게 내려졌기 때문에 낳자마자 내버렸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어떤 사람에게 구 제되어 다른 나라의 궁정에서 왕자로 양육되어 자라났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 고 싶어서 신에게 물었다. 그는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야 하므 로 고향을 피하라."라는 신탁을 받는다. 오이디푸스는 고향으로 생각했던 나라를 떠났다. 길을 가는 도중에 아버지인 줄 모르는 라이오스 왕을 만나게 된다. 우연한 계기로 심한 싸움이 벌어졌다. 오이디푸스는 그를 죽였다. 그리고는 테베에 이르 렀다. 이곳에서 길을 막는 괴상한 짐승 스핑크스(Sphinx)가 던진 수수께끼를 오이 디푸스는 풀었다. 테베 사람들은 이것을 덕으로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추대하고 요 카스테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평화롭고도 엄숙하게 나라를 다스리 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이녀를 얻었다. 어느 때 나라 안에 나쁜 병 이 유행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신탁을 애걸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여기서 시 작된다. 사자(使者)는 신탁을 받아가지고 온다. 라이오스를 살해한 사람이 테베에 서 추방될 때에 유행병은 그칠 것이라는 신탁이다. 그러나 그 범인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어디에 있나? 그 낡은, 죄의 분간하기 어려운 검은 흔적은 (도너(Donner)역(譯), 109행).

연극의 한 줄기는—정신 분석과 비슷하게—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오묘하게 넓어져 가며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라이오스 왕 살인범은 오이디푸스이고, 더욱이이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와 요카스테 사이의 아들임이 폭로된다. 모르고 범한 죄

의 극악스러움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고국을 등진다. 이렇게 하여 신탁이 실현된다.

《오이디푸스 왕》은 소위 운명 비극이다. 이 극의 비극적 효과는 신들의 절대 의지와 불행에 좇기는 인간의 허무한 반항 사이의 대립에 있다고 한다. 이 극을 보고 깊이 감동하는 사람은 이 비극 속에서, 신의에의 귀의,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근대 작가들이 이와 같은 대립관계를 자기가 고안한 이야기와 섞어서 같은 비극적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근대 작가들의 붓으로 된 인간들은 주술이나 신탁이, 최 없는 그들의 운명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 조금도 감동하지 않는다. 근세의 운명 비극은 모두 저 고대의 비극과 같이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는다.

《오이디푸스 왕》이 당시의 희랍인들과 같이 오늘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 까닭은 이 연극의 효과가 운명과 인간의 의지의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 어 그 대립을 증명하고 있는 소재의 특이성에서 구하여야 하는 사실에 있다. 우리 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프란츠 그릴파르처의 '조비(祖妣)', 또는 이 밖의 다른 운명 비극에서와 같은 사건의 경과를 우연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거부할 수 있 는 반면에, 오이디푸스 왕의 운명의 압박력을 승인하려는 소리가 틀림없이 있다. 사실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 중에도 그런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운명이 우 리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은 우리들도 그의 전직을 밟을는지도 모르고, 우리들이 탄생하기에 앞서 내려진 신탁은 그에 대한 것과 같이 우리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 최초의 성적 감정을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고, 최 초의 증오와 폭력적인 소망을 아버지에게 퍼붓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들 전체의 운 명의 섭리였을는지도 알 수 없다. 우리들이 꾸는 꿈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 하고 있다.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 요카스테를 아내로 삼은 오이디푸스 왕은 우리들의 유년 시절의 소망 충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이다 푸스 왕보다 다행하게도. 신경증 환자가 되지 않은 한, 성적 충동을 어머니에 대한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아버지에 대한 우리들의 질투심을 잊는 데에 성공하고 있 다. 저 원시적인 유아소망을 채워주는 인물 앞에서 우리들은, 그때부터 이 소망이 우리들의 안에서 받고 있는 억압의 모든 힘에 놀라서 물러간다. 이 시인은 작품 속에 오이디푸스의 죄를 폭로하면서 억압되어 있더라도 의연히 존재하는 근친상간의 충동이 잠재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심중을 인식시키지 않고는 그냥 두지 않는다. 합창단이 무대를 떠날 때 이렇게 대립을 노래한다.

……여러분들 보시라, 이것이 오이디푸스이다. 힘든 수수께끼를 풀고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권세를 누렸던 사나이, 그 행복을 인민(人民)들이 모두 찬양하고 부러워했으나 보시라, 여러분들, 불행한 소름끼치는 파도의 물거품에 삼켜진 그를!

이 경고는 유년 시절부터 분별을 더해오고 현명하고 힘 있는 자가 된 우리들 자신에, 그리고 우리들의 오만 위에 던져진다. 우리들도 오이디푸스와 같이 자연이 우리들에게 과한 도덕을 손상시키는 소망을 모르게 품고 살아 있다. 그리고 이 소망이 폭로되면 우리들은 누구나 모두 유년 시절의 여러 장면에서 눈을 돌리려고 한다. 43 오이디푸스 전설은 양친에 대한 관계가 성욕의 최초의 움직임 때문에 불쾌하게도 교란된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단히 낡은 꿈 재료에서 나왔다는 명백한 증거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의 원문에 있다. 요카스테는 아직 사태를 명백히 모르나 신탁의 말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오이디푸스를 위안하고 자기가 꾼 꿈이야기 하나를 하여, 신탁도 꿈과 같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꿈을 많은 사람들이 꾸지만 거기에 아무런 뜻이 없다고 그 여자는 말한다.

## 왜냐하면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43 정신 분석적 연구가 밝힌 조사(調査) 사실 중에서 무의식계 속에 보존되어 있는 이 유아적 근친상간의 경향의 증명과 같이 신랄한 반대, 격적인 항변 그리고 우스꽝스럽고 빗나간 비평을 일으킨 것은 없었다. 최근에는 근친상간을 모든 경험을 무시하고 '상징적'인 것으로만 인정하려는 시도까지 있다. 페렌치는 《이마고》(제1권, 1912년)에서, 쇼펜하우어의 서간의 한 구절에 의거하여 오이디푸스 신화를 교묘하게 고쳐서 해석하고 있다. (꿈의 해석)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그 후에 연구의 진행에 따라 종교 도덕의 발전 등의 이해에 뜻밖에도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토템과 타부》(1913년)를 참조)

어머니와 자는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955행 이하)

어머니와 성교하는 꿈은 옛적 희랍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꾸는 꿈이다. 그 사람들은 이 꿈에 격분하고 이를 저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명백하게 이 꿈은 이 비극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열쇠이고 아버지가 죽는 꿈을 보충하는 존재이다. 오이디푸스 전설은 이 두 전형적인 꿈에 대한 공상의 반응이며, 그런 꿈이성인들에게는 혐오감과 함께 체험되는 것처럼 오이디푸스 전설도 공포와 자아징벌(自我懲罰)을 그 내용에 끄집어들여야 한다. 오이디푸스 전설의 그 뒤의 형태도이 재료를 종교적 의도 때문에 유리하게 하려는 오해(誤解)적 · 이차적인 해석에의한다(노출 꿈의 재료 참조). 신의 만능을 인간의 책임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이재료에서도 다른 모든 재료에서와 같이 실패로 끝날 것은 틀림없다.

《오이디푸스 왕》과 똑같은 지반(地盤)에 근거하는 또 하나의 대비극으로는 셰익스 피어의 《햄릿》이 있다. 그러나 재료가 같아도 그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문화 시기의 심리 생활의 큰 차이, 즉 인류의 정의 생활에 있어서의 억압의 몇 백 년에 걸친 진보가 나타나 있다.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유아의근본적인 소망 공상이 꿈에서 대단히 명백해지고 실현되었다. 《햄릿》에서는 그 소망 공상이 억압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소망 공상의 존재를—마치 신경증의 경우와 같이—다만 그 공상에서 생기는 저지 작용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주인공 햄릿의 성격을 아주 뚜렷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작품의 압도적 효과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 극(劇)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수(復讐)의 임무를 다할 것을 햄릿이 조금씩 지연시킨다는 점에 성립된다. 그러면 그가 주저하는 근거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본문은 고백하지 않는다. 또 수많은 햄릿론도 이때까지 이점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아직 지배적인, 괴테가 처음으로 내세운 의견에 의하면, 햄릿은 그 생생한 행동력이 사고 활동의 과잉한 발달에 의해서 마비된 인간의 유형을 표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셰익스

피어는 신경 쇠약의 영역에 떨어진 병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묘사하려고 했다 고 한다. 그런데 이 연극을 보면 누구도 알 수 있듯이, 햄릿은 행동할 수 없는 인간 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가 두 번 단연히 행동하는 것을 본다. 한 번은 신속하게 눈 에 띄는 격정 속에서 벽의 포장 뒤에서 엿듣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또 한 번은 계 획적이라고 할, 아니 교활하다고 하리만큼 문예 부흥 시대의 왕자답게 태연한 태 도로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신하 둘을 죽인다. 그러면 도대체 그를 저지하고 부 왕의 망령이 그에게 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임 무가 특히 곤란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햄릿은 무엇이든 지 하려면 할 수 있었다. 다만 백부를 죽이는 일만은 하지 못했다. 백부는 아버지 를 죽이고 어머니 곁에서 죽은 아버지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 백부는 햄릿 의 유년 시절의 억압된 원망(願望)의 실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햄릿으로 하 여금 복수하게 할 증오감은 햄릿의 마음속에서 자기 비난. 양심의 가책과 바꾸어 져, 이 자기 비난과 양심의 가책이 그에 대해서, "너 자신은 네가 죽이려는 백부 보다도 더 좋은 인간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햄릿의 마음속에서는 무의식이 었던 것을 내가 의식적인 것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햄릿을 히스테리증 환자 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나는 위에서 말한 나의 판단에서 나온 추측으로서만 승 인할 수 있다. 그리고 햄릿이 오필리어(Ophelia)와의 대화 속에서 말한 성적 혐오 도 이상의 견해와 조화된다. 이 성적 혐오는 그 뒤에 셰익스피어 자신의 마음속에 서 점점 높아져서, 그는 드디어 《아테네(Athen)의 타이몬(Timon)》을 썼다. 햄릿 이란 인물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은 물론 시인 자신의 마음의 내막이다. 브란 데스(Georg Brandes)는 그의 셰익스피어론(1896년)에서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사후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의 몰년(沒年)은 1601년) 즉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 는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에게 대한 유아 시의 감정(이라고 하 여도 좋을 것이다)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저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의 요 절한 아들의 이름이 햄닛(Hamnet)—이것은 Hamlet와 같다—이었음도 알려져 있 다. 《햄릿》이 양친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취급한 데 대하여. 《햄릿》보다 나중에 쓴 《맥베드》는 자식 없는 인간을 테마로 삼고 있다. 보통 모든 신경증의 증세뿐만 아 니라, 꿈마저도 다시 해석되듯이, 아니 다시 해석되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듯이, 모든 진정한 학술적 작품도 작가의 심리 생활에 있어서의한 개 이상의 동기와 흥분에서 생긴 것이고, 하나 이상의 해석 방법을 허용한다. 여기서 나는 창조적인 시인의 가장 깊은 층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흥분만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sup>44</sup>

나는 근친자의 죽음을 내용으로 삼은 전형적인 꿈에 관한 논의를 끝내기 전에, 이 런 전형적인 꿈이 꿈 이론에 주는 의미에 대해 몇 마디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런 꿈들은, 억압된 소망에 의하여 형성된 꿈 사상이 모든 검열을 피해서 그대로 꿈에 나타나는 매우 이상한 경우를 실현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 준다. 이런 일이 가능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꿈을 꾸기에 적합한 조건을 다음 두 가지의 동기에서 발견한다. 첫째, 이보다 더 우리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소 망은 없다. 우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다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우리 는 말한다. 그러므로 꿈 검열은, 솔론(Solon)의 율법에 부친 살해에 대한 벌이 없 듯이, 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그러나 바로 이 때. 억압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소망을 매우 빈번하게 낮의 잔재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근심한다는 식으로 맞이한다. 이 근심은 같은 내용의 소망을 이용하지 않 으면 꿈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 소망은 낮에 활동하던 걱정의 탈을 쓸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이 비교적 쉽게 진행되고. 그들이 낮에 시작했던 모든 것을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친척들이 죽는 꿈은 꿈 해 석과의 관련을 잃게 되고, 쉽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에 불필요하게 집착하는 것이 된다.

이 꿈들과 불안 꿈과의 관계를 추적하는 일도 유익하다. 억압된 소망은, 친척이 죽는 꿈에서 검열을, 그리고 검열 때문에 생기는 왜곡의 손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sup>44 《</sup>햄릿》을 정신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술한 암시를 나중에 요네스(E, Jones)가 더 철저히 만들고, 문헌에 나타난 이것과는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 위의 나의 의견을 변호했다. ((햄릿 문제와 오이디 푸스 콤플렉스》 1911년). 《맥베드》의 분석에 관한 이외의 연구에 관해서는 나의 논문 〈정신 분석적으로 연구된 성격 전형의 몇 가지〉 (《이마고》 제4권, 1916년)과 예켈스(L, Jekels)의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이마고》 제5권, 1918년)을 참조.

길을 발견한다. 이 경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은 꿈에서 뼈저린 감정을 맛보게 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불안 꿈은 검열을 전면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 정복할 때에만 성립한다. 또 한편 불안이 이미 적극적인 자극으로서 신체적 원천으로부터 주어질 때에, 그것은 쉽게 검열을 정복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검열이 어떤 경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꿈을 왜곡하는지 알 수 있다. 검열은 아마 불안 혹은 그 외의 형식의 고통감이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위에서 유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주의에 관해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그렇게 한 것은 꿈도 그런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연관성을 독자들도 알아주기 바라서였다. 꿈은 모두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다. 모든 꿈에는, 변장하고 있을지언정 '귀여운' 내가 등장한다. 꿈에서 충족되는 소망은 보통 이 '자기'의 소망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어떤 꿈을 불러일으킨 것같이 보일지라도 그 것은 표면상일 뿐이다. 나는 여기서 이 주장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에 부석을 가하려고 한다

하나, 네 살도 채 되지 않은 사내아이의 꿈.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구운 고기와 야채를 담은 큰 접시를 보았다. 구운 고기를 갑자기 그대로—자르지도 않고—먹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먹은 사람을 그는 보지 못했다. <sup>45</sup> 그런 큰 고기를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 점을 전날의 체험이 밝혀줄 것이다. 이 아이는 며칠 전부터 의사의 지시로 우유만 먹고 있었다. 전날 밤에 이 아이는 지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받지 못했다. 전에도 한 번 이런 공복(空腹) 치료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잘 해냈다. 그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말을 하지 않았다. 교육의 효과가 이미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기시작한 것이다. 교육의 효과는 이미, 꿈 왜곡의 시초를 표시하는 이 꿈에 나타나고

45 꿈속의 큰 것, 지나치게 많은 것, 도를 넘은 것, 극단적인 것도 유년 시절의 한 특색일 것이다. 아이는, 커서 어른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이외의 강렬한 소망을 모른다. 아이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모른다. 마음에 든 것은 되풀이해서 구한다. 아이들이 '절도를 지킨다', 분에 만족한다, 단념한다 따위의 일을 배우려면 교육에 의하여야 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신경증 환자도 역시 무제한과 극도에로 기울어지기 쉽다.

있다. 그런 풍부한 음식, 특히 구운 고기를 바라는 인물은 이 아이 자신이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아이는 구운 고기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배를 곯은 아이가 꿈에서 행하듯이 (나의 딸 안나의 딸기 꿈 참조) 자신이 밥상에 앉으 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운 고기를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둘, 나의 꿈. 서점의 진열장에, 언제나 내가 사들이는 총서(叢書)의 신간 호화판 한 권이 있었다(예술가 평전, 제목별 세계사, 저명한 미술사적 등) 새로운 총서의 명칭은 '저명연설가(著名演說家)(혹은 연설)'이고, 그 첫 권에는 레허 박사(Dr. Lecher)의 이름이 있다.

의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지연하는 연설을 주로 하는 레허 박사의 명성이 꿈에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 사정은 이렇다. 나는 며칠 전에 새로운 환자 몇의 치료를 담당했다. 그 때문에 열 시간에서 열한 시간 동안 매일 말해야 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런 지연연설가(遲延演說家)인 것이다.

셋, 나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내가 알고 있는 대학 교수는 "나의 아들이 근시(近視) 이다."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짧은 대화가 오가고, 다음에 나와 나의 아들이 나오는 꿈의 셋째 부분이 나타난다. 이 꿈의 잠재 내용으로 볼 때, 아버지 · 아들 · 선생은 나와 나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인물일 뿐이다. 나는 이 꿈을 다른 하나의 특색 때문에 후장에서 다시 취급할 예정이다.

넷, 다음 꿈은 상냥한 염려 뒤에 감추어진, 참으로 비열한 이기주의적 감정의 한 예다. 나의 친구 오토의 건강이 좋지 않다. 얼굴이 흙빛이고 눈이 튀어나왔다.

오토는 나의 가정의이고 몇 년 전부터 나의 아이들을 진찰해 주었으며, 병에 걸렸을 때에는 훌륭하게 치료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어 주었다. 이 오토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하고 있다. 꿈의 전날에 역시 오토가 집에 왔었다. 아내는 그가 아주 지친 것같이 보인다고 했다. 나의 꿈에서 그는 바제도(Basedow)병의 증세를 조금 나타냈다. 꿈 해석에서 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면 이 꿈을 내가 친구의 건강을 걱정하는 꿈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나의 걱정이 꿈에서 실현됐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것은, 꿈은 소망 충족이라는 주장에 어긋날 뿐 아니라 꿈은 이기적 심정밖에 모른

다는 주장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왜 내가 오토에게 바제도병을 걱정하는가(그의 표면상으로는 그런 진단을 내릴 아무런 까닭도 없다) 등의 여러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나의 분석은 이것과는 달리 6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재료를 찾아낸다. 우리들 일행 소수는 (R 교수도 그중에 있다) 캄캄한 N 숲속을 마차로 지나갔다. N은 우리들의 피서지에서 두서너시간 걸리는 곳에 있었다. 마차꾼은 조금 술기운이 있었다. 마차가 언덕 밑에 굴렀다. 아무도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 대신에 그날 밤은 근처의 요리 집에서 지내야만 했다. 우리들의 뜻하지 않은 재난 소식이 대단한 동정을일으켰다. 바제도병의 뚜렷한 증세를 보여 주는 한 귀족이—그러나 꿈에서의 얼굴같이 피부의 흙빛과 눈만 튀어나와 있었고 갑상선종(甲狀腺腫)은 전혀 없었다—나와서, 부탁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말해 달라고 한다. 그때 R 교수는 평상시와 같이활발하게 "잠옷을 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고 말했다. 친절한 상대방은 "대단히 죄송하나 그것은 저로서는 좀 곤란합니다."라고 하면서 가 버렸다.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바제도(Basedow)가 의사의 이름인 동시에 저 유명한 교육자의 이름인 것에 생각이 미쳤다. (깨고 난 지금,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가 의심스럽다) 친구 오토는 갑자기 나의 신상에 무엇인가 일어날 경우에 나를 대신해서 아이들의 신체상의 교육, 특히 사춘기(그러므로 잠옷이란 말이 나온다)의 감독을 부탁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꿈에서 친구 오토에게 저 친절한 귀족의 병 징후를 부여한 것은, 그것에 의하여 내가 분명히 나의 일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L 남작이 그 친절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것처럼 나의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꿈의 이기주의적인 성격은 이제 명백해졌을 것이다. 46

그러나 어디에서 이 꿈의 소망 충족이 발견되는가? 소망 충족은 친구 오토에 대한 복수(그는 나의 꿈에서 학대를 받는 운명에 있다)에 있지 않고 다음의 점에 있다.

<sup>46</sup> 어니스트 존스(Ernest Jones)가, 미국인의 청중이 모인 어떤 학술 강연회에서 꿈의 이기주의를 논했을 때, 어떤 교양 있는 부인은 이 비학술적인 일반화에 대해서 항변하고, "당신은 오스트리아인의 꿈에 관해서 논하는 것은 좋으나 미국인의 꿈에 관해서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나의 꿈은 모두 아주이타적인 것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즉 내가 오토를 꿈에서 L 남작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즉 R 교수와 동일시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건이 있었을 때 R이 L 남작에게 요구한 것같이 오토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R 교수는 나와같이 학교 밖에서 독자적으로 그의 앞날을 개척하였고, 상당한 나이가 된 후에 비로소 몇 해 전에 교수의 칭호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이 꿈에서도교수가 되고 싶어 하고 있다. '상당한 나이가 되어서' 자체가 하나의 소망 충족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나의 아이들의 사춘기까지를 함께 경험할 만치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시험(試驗)의 꿈

졸업 시험을 치르고 김나지움 과정을 끝낸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시험을 내용으 로 하는 불안한 꿈을 꾼다. 시험에 낙제하고 다시 한 번 원급(原級)을 되풀이하여 야 한다는 등의 꿈이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꿈은 좀 변해서 자기가 구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들은 잠자면서 그것에 항의를 제출한다. 나는 벌써 몇 해 전부터 개업하고 있다든가. 현재 대학의 무급 강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라든가, 관청의 과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항의한다. 그 러나 그런 항의도 소용이 없다. 이 시험에 낙제하는 꿈은 우리들이 유년 시절에 행 하여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기에 받은 벌에 대한 없앨 수 없는 기억이다. 이 기억 은 우리들의 수업기(修業期)의 두 접합점에서, 즉 엄격한 시험이라는 분노의 날이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된다. 신경증 환자의 '시험 공포'도 또 유아 시절의 공포에 의해서 강화된다. 우리들이 학교 생활을 끝마친 뒤에 우리들 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우리들을 훈육하는 부모나 학교 선생이 아니다. 이후에 우 리들의 교육을 맡는 것은 인생의 용서 없는 인과의 연쇄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 하지 않고 깨끗이 다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또는 책임의 중압을 느끼게 될 때마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 이나 대학 졸업 때의 구술 시험의 꿈을 꾼다는 말이 된다. 시험을 치를 때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는 자는 많지 않을 테니까.

나는 정신 분석에 통달한 한 동료가 지적해 준 덕분으로 시험 꿈을 한층 깊이 설명할 수 있다. 이 동료는 한때 학문상의 토론에서, 그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험 꿈은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이런 꿈을 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후에 점점 확실해진 일인데, 다음 날에 어떤 책임 있는 일과 그것으로 인한 비난의 가능성을 예기하고 있을 때에 꾸는 불안한 시험 꿈은 이런 이유로 큰 불안이 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일의 성과에 따라서 불안이 해소되었던 일을 과거에서 찾고 있는 것일는지 모른다. 이것은 깨어 있을 때의 검문소에 의해꿈 내용을 오해하는 극히 뚜렷한 실례이다. 꿈에 대한 분노로 생각되는 항의는, 즉 "그러나 나는 이렇게 벌써 박사가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은, 실제로 꿈이 선사하는 위안이고 그 본뜻은 이럴 것이다. "너는 내일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생각하여 보면, 너는 옛적에 졸업 시험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였으나 아무렇지도 않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너는 벌써 박사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꿈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불안은 낮의 잔재에서 유래한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의 경우나 다른 사람의 경우에 실행할 수 있었던 이 꿈의 해석의 시도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모두 성공적이었다. 예컨대 나는 법의학의 박사 시험에 실패했다. 나는 이 일을 나의 꿈에서 한 번도 꿈꾸어 본 적이 없었다. 이에 반해서 나는 때때로 식물·동물·화학의 시험 꿈을 꾸었다. 이 모든 과목 시험에 자신없이 임했으나, 운이 좋았었는지 시험관의 동정에서였는지 벌을 피했다. 김나지움시험의 꿈에서 나는 꼭 역사 시험의 꿈을 꿨다. 당시 역사 시험에는 당당하게 합격하였으나, 이것은 나의 친절한 역사학 교수—다른 꿈에서는 외눈의 자선가—가 세문제 중에서 둘째 문제를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는 표시로 손톱으로 그어 놓은 것을 내가 간과하지 않았던 탓이다. 나의 환자 중의 한 사람은 김나지움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지 않고 퇴학하였다가 나중에 추가 시험에 합격하고, 또 그 뒤에 사관 시험에 낙제하여 사관이 되지 못했는데, 그는 앞의 시험 꿈을 자주 꾸었으나 뒤의 시험 꿈을 꾼 적은 없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시험 꿈도, 꿈의 해석에 관해서 내가 앞에서 많은 전형적 꿈의 한 특색이라고 말한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그 난점을 가지고 있다. 꿈을 꾼 당사자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연상 재료는 꿈의해석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들은 이런 꿈들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실례를수집하여야 한다. 최근에 나는, "너는 이제 박사이다."라는 항변이 위로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난을 암시하고 있다는 확실한 인상을 받았다. 그 비난은 이런 것이다. 즉 "너는 이젠 벌써 늙었어. 인생에서 오래 살아왔어. 그런데도 아직 어리석은 일, 아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자기 비판과 위안의 혼합이 시험 꿈의 잠재 내용에 좀 더 잘 일치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과 '아이같은 일' 때문의 비난은 앞에서 분석한 실례의 몇 가지에서 질책을 받은 성적 행위의 반복과 관련된다고 해도 그것은 의심할 바 못 된다.

졸업 시험에 관한 꿈을 처음 분석한 슈테겔(W. Stekel)은 이 꿈이 대개 성적인 시도와 성적인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는 경험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꿈의 작업

# 제 6 장 꿈의 작업

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타의 시도는, 기억에 남겨진 현재적 꿈 내용과 직접 연결시켜서 그 꿈 내용으로부터 꿈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거나, 혹은 만일 그 시도가 해석을 단념케 할 경우 그 꿈의 판단의 기초를 꿈 내용에 의해서 공급된 증거에 두려고 애를 썼다. 우리들만 아주 다른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들은 꿈 내용과 우리들의 관찰의 여러 결과와의 사이에 하나의 새로운 심적 재료를 삽입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방법에서 얻어진 잠재적 꿈 내용, 또는 꿈 사상(思想)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심적 재료인 셈이다. 현재적 꿈 내용에서가 아니라 잠재적 꿈 내용에서 우리들은 꿈의 해결을 전개시켜왔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때까지 없었던 하나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잠재 내용에 대한 현재 내용의 관계 및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잠재 내용이 현재 내용으로 변화되는가를 좇는 일이다.

꿈 사상(思想)과 꿈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두 개의 언어로 진술하는 것과 같다. 혹은 더 훌륭히 말하자면, 꿈의 내용은 어떤 꿈 사상을 다른 표현 방법으로 번역한 것과 같은 것이며, 그 기호나 조립 법칙을 우리들은 원전과 번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꿈 사상은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내기만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꿈 내용은, 말하자면 문자의 기호가 일일이 꿈 사상의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상형문자로 표현된다. 사람들이 이 상형문자 기호를 그 기호의 뜻에 따라서 읽으려 하지 않고 그 형상 가치에 따라서 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컨대 내 앞에 그림 수수께끼가 있다. 그 속에 한 채의 집이 그려져 있고, 그지붕 위에 보트 한 척이 있다. 그리고 글자 하나가 있고,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머리가 없고 대신에 생략 부호가 찍혀 있다 등등. 그 그림 수수께끼를 액면대로 받아들인다면 물건의 이런 조립이나, 각 부분에 아무 뜻이 없다는 비평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보트가 지붕 위에 올려질 이치도 없고, 머리 없는 사람이 될 리 없다. 그리고 사람이 집보다 크게 그려져 있는 것도 이상

하다. 이 전체가 어떤 경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거기에 씌어져 있는 각기의 글씨 등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자도 풍경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물건들을 반대로 이 그림의 전체와 그 세부에 관해서 지금 말한 대로 흠을 잡지 않고, 그림의 하나하나를 하나의 철자나, 어떤 뜻에서든 거기에 그려져 있는 형상을 표현 가능한 말로 바꾸어 놓는다면 비로소 이 그림 수수께끼는 올바르게 해석된다. 이렇게 치환된 말들은 이미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깊은 시의 한 구를 표현할 수 있다. 꿈은 이런 그림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꿈 해석의 영역에서의 우리들의 선배들은 수수께끼 그림을 정직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해석하려는 과오를 범했다. 이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면 이런 수수께끼 그림은 물론 그들의 말대로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 1. 압축 작업

꿈의 내용과 꿈의 사상을 비교할 때 연구자에게 밝혀지는 첫째의 것은, 거기에 대규모의 압축 작업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꿈은 거대하고 내용이 풍부한 꿈 사상에 비하면 간단하고 빈약하고 말이 적다. 꿈은 반 페이지를 메울 정도이나, 꿈 사상을 포함한 분석은 그 여섯 배, 여덟 배, 열한 배의 페이지를 요한다. 물론 이 비례는 꿈에 따라서 다르나, 내가 조사한 범위 안에서 보면 이 비례라는 경향은 늘 있게 마련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표면적인 꿈의 내용을 완전한 재료로 생각하고, 거기에 작용되는 압축의 정도(量)를 과소평가하기 쉬우나, 더욱 상세히 분석하여보면 꿈 뒤에 숨겨진 새로운 사상이 얼마든지 나타난다. 우리들은 앞에서도 말한바 있는 어떤 꿈을 완전히 분석했다는 확신에 도달할 수는 절대로 없으나, 이것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흠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때에도,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뜻이 같은 꿈에서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압축의 분량은 엄밀히 말해서 정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꿈의 내용과 꿈의 사상 간의 불일치 때

무에 꿈을 형성할 때의 심적 재료에 대단히 압축이 가해진 것으로 생각하다." 이에 대해서 일견하여 그럴싸한 반박론이 제기된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 즉 우리들은 하루 밤새도록 대단히 많은 꿈을 꾼 것같이 생각하나. 그 대부 분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들이 꾼 꿈 전체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꿈 사상과 같은 분량이 될 것이나, 우리는 그 꿈 전체의 한 잔재만을 깨어서 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반대론의 일부는 확실히 옳다. 사실 사람들은 깨어서 바로 꿈을 생각하면 상당히 상세하게 복원할 수 있으나. 꿈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 감에 따라서 점차 구멍이 많아진다. 그러나 한편 생각한 이상으로 더 많은 꿈을 꾸 었다는 느낌은. 실상 하나의 착각에 기인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 착각의 원인은 나중에 설명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꿈 작업에서도 압축을 전제하는 것은 꿈이 잊어진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 전제는 꿈 하나하나에 보존되어 있는 부분에 속한 표상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이다. 꿈의 대부분이 사실상 잊어 지고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들에게는 꿈 사상의 어떤 새로운 일련의 길을 더듬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기억에서 빠져나가 꿈의 여러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낸 꿈 사상에만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이유 없는 기대라 고 할 것이다.

분석에서 주어지는 꿈 내용의 요소 하나하나에 관한 많은 관념에 관하여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의심을 일으킬 것이다. 즉 꿈 분석에서 나중에 생각나는 일절의 사실을 꿈 사상으로 간주할 것이냐의 여부, 즉 그 일체의 사상은 이미 잠자고 있는 동안에 활동적이 되어서 꿈의 형성에 협력하느냐, 혹은 분석하는 동안에 꿈의 형성에 참가하지 않았던 새로운 여러 사상의 연결이 생기지는 않느냐의 여부이다. 나는 이 의문을 조건부로만 인정한다. 사상의 결합 하나하나가 분석될 때에 비로소 생긴다는 사실은 물론 옳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여러 결합은 다른 방법으로이미 꿈 사상에서 연결된 사상 사이에서만 형성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새로운 결합들은 다른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결합 방법의 존재에 의해서 가능한,

<sup>1</sup> 많은 꿈 연구가는 꿈에서의 압축을 지적하고 있다. 뒤 프렐은 한 곳에서 다음의 사실을 표명하고 있다. 즉 꿈에서 표상 계통의 압축 과정은 절대로 확실하다고,

말하자면 사잇길·지름길과 같은 것이다. 분석할 때에 새로이 발견된 대량의 사상집단은 꿈을 형성할 때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것은 꿈의 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듯 보이는 여러 사상을 더듬어 가면 갑자기 한 사상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즉 꿈의 내용 중에도 어떤 형식으로 나타난 사상이자, 더욱이 이것 없이는 꿈의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리고 저 관념 연쇄에 발단을 구하지 않고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하나의 관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면 위에서 인용했던 식물학 연구 논문의 꿈을 독자들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그 꿈을 끝까지 분석하지 못했으나 그 꿈은 꿈의 놀라운 압축 작업이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꿈에 앞선 수면 중의 심적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모든 꿈 사상은 병존하는 것일까? 혹은 그 여러 사상이 순서에 따라 나타 날까? 또는 여러 생각이 각기 중심점의 주변에 한꺼번에 모여서 나중에 합류하는 것일까? 우리들이 여기서 꿈을 형성할 때의 심적 상태를 밝힐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서 무의식적 생각이 문제이며, 그 사고 과정은 우리들이 고의로나 또는 의식의 지배 밑에 반성·사색함으로써 우리들의 내부에서 인지하는 사고 과정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꿈 형성이 하나의 압축 작업 위에 성립된다는 사실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이 압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밝혀 낸 꿈 사상 중에서 일부의 꿈 사상만이 그 사상의 관념 요소의 하나에 의해서 꿈에 표현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압축은 생략의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꿈이란 그 꿈 사상의 충실한 번역도 아니고 일점일획도 등한(等閒)하지 않는 투영도(投影圖)가 아니라, 대단히 불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우선 우리들은 이 견해에서 이렇게 물어보자. 즉 전체의 꿈 사상 중의 일부의 것만 이 꿈 내용 중에 채용된다면 어떠한 조건이 그 선발을 결정하느냐고.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찾고 있는 여러 조건을 틀림없이 충족 시켜 줄 꿈 내용의 여러 요소를 주목하게 된다. 꿈을 형성할 때에 특별히 강한 압 축의 조력을 얻어서 형성된 꿈이 이 조건을 찾는 데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될 것이 다. 그리하여 나는 위에서 보고했던 식물학 연구 논문의 꿈을 선택하려 한다.

### (1) 〈식물학 연구 논문의 꿈〉

꿈 내용. 나는 어떤 식물(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의 종류에 관한 한 연구서를 썼다. 그 책이 나의 앞에 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거기에 있는 한 장의 채색도판(彩 色圖版)을 보고 있다. 이 책에는 그 식물의 건조 표본(乾燥標本) 한 장이 붙어 있다. 이 꿈의 가장 뚜렷한 요소는 식물학 연구 논문이다. 이것은 전날 인상과 관계가 있 다. 나는 어떤 책방의 진열장에서 실지로 '시클라멘과(科)에 관한 연구서'를 목격했 다. 꿈에서는 연구서와 그 식물학과의 관계만이 나타나고, 시클라멘은 나오지 않 는다 '식물학 연구서'는 바로 나의 코카인에 관한 연구와 결부된다. 코카인에 유래 된 관념 결합은 한편 축하 논문집이나 대학 실험실에서의 몇 가지 사건들로 연결 되고, 또 한편 코카인을 이용하는 데에 공헌이 있는 친구 안과의사 쾨니히슈타인 (Königstein) 박사에게로 이른다. 이 박사는 또, 전날 저녁의 나와 쾨니히슈타인 박사와의 대화와 그 대화의 중단을 연상하게 하고, 또 의사 동료 간에 진찰을 받았 을 때에 보수를 어떻게 해야 좋으냐는 복잡한 생각을 연상시킨다. 사실 이 대화가 본래의 적극적인 꿈의 자극 원천이다. 시클라멘 연구서도 똑같이 하나의 현실성을 가지지만 부차적 성질의 것이다. 내가 본 바와 같이 꿈의 '식물학 연구서'는 낮 동 안의 인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꿈에 채용되고, 또 자유자재의 연상 결합에 의해서 심적으로 의미 깊은 한 체험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합성 관념인 '식물학 연구서'뿐 아니라 그 합성 관념의 구성 요소인 '식물학' 과 '연구서'란 두 가지도, 각기 여러 결합에 의해서 본래의 꿈 사상의 미궁 속에 깊숙이 들어간다. '식물학'에, 게르트너(Gärtner) 교수와 그 '꽃같이 핀(blühende)' 부인 플로라(Flora: 꽃이란 뜻)란 이름의 나의 여성 환자, 그리고 내가 잊혀진 '꽃'이야기를 한 저 부인 등에 대한 기억이 겹쳐지고 있다. 게르트너는 여기서 또 새로이 실험실이나 쾨니히슈타인과의 대화를 연상시킨다. 쾨니히슈타인과의 대화에서 두 여성 환자가 화제에 올랐다. 예의 꽃의 부인부터 관념의 길은 곁으로 갈라져서

나의 아내의 좋아하는 꽃으로 옮아간다. 이 아내의 꽃에 통하는 길의 또 하나의 다른 출발점은 낮에 본 연구서의 표제('시클라멘과(科)')에 있다. 이 밖에 '식물학'은 나의 김나지움 시절의 한 삽화나 대학 시절의 어떤 시험을 생각하게 하고, 쾨니히 슈타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나의 도락(道樂)이란 새로운 테마는, 내가 농담으로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말한 조선계(朝鮮薊)를 매개로 하여 잊어진 꽃에서 시작된 관념 계열에 결합된다. '조선계' 뒤에는 한편 이탈리아의 생각, 또 한편 그것으로 내가 아주 얼굴을 익힌 서적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소년 시절의 한 장면의 생각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식물학'은 꿈속에서 무수한 관념 계열이 맞닿는 교차점이다. 그 관념 계열이 저 대화에서 정당하게 연락되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우리들은 직공(職工)이 솜씨 있는 기술을 보이듯이 어떤 관념 제작 공장(觀念製作工場)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대체로 사상이란 공장도 방직 공장과 같은 것이고, 한발 디디면 천만 개의 실이 움직여서 북은 왔다 갔다 한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실은 흐른다. 한 번 때리면 천 개의 결합이 생긴다.

꿈속의 '연구서'는 나의 연구가 한쪽에 치우친 것과 나의 도락에 돈이 든다는 것의 두 테마와 관계한다.

이 첫 음미(吟味)에서 사람들은 '식물학'과 '연구서'란 두 요소가 꿈 내용에 채용된 이유는 많은 꿈 사상과 자유자재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란 인상을 받는다. 이 두 요소는 대단히 많은 꿈 사상이 집합할 수 있는 '교차점'을 표현하고, 꿈 분석으로 말하자면 다의적이고, 여러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또 이 설명의 밑 바닥에 있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즉 "꿈 내용의 여러 요소는 중복 결정되며, 꿈 사상 속에서 여러 번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꿈의 나머지 구성 성분들이 꿈 사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면, 우리들은 그 성분에 관해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내가 펼쳐 보는 채색도판은, 나의 연구에 관한 동료들의 비평이란 새로운 테마, 나의 도락, 그리고 이미 꿈속에 표현된 테마, 그 밖에 채색도판의 어떤 책의 페이지를 찢어 버린 나의 유년 시절의 기억과 결부되고, 식물 건조 표본은 건조 표본집에 관한 김나지움의 체험과 결합되며, 그 기억을 특히 강조한다. 그리하여 나는 꿈 사상과 꿈 내용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꿈의 여러 요소가 꿈 사상에 의해서 '여러 번' 결정될 뿐아니라, 하나하나의 꿈 사상 역시 꿈에서 각기 여러 요소들에 의해 표현된다. 연상의 길은 꿈의 한 요소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꿈 사상에 이르고, 하나의 꿈 사상에서 수많은 꿈 요소에로 도달한다.

그러므로 마치 어떤 선거구민들에게서 의원 한 사람이 선출되는 것과 같이, 꿈 형성은 개개의 꿈 사상이나 한 덩어리의 꿈 사상이 각기의 꿈 내용에 생략된 것을 제공하면, 그 다음의 꿈 사상이 또다시 다른 생략된 것을 제공하는 식으로 꿈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체 꿈 사상이 어떤 식으로든 가공된 다음,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요소들이 두드러지면서 꿈 내용에 들어간다. 마치 후보자 명단에의한 대의원 선거 제도와 비슷하게 꿈 내용 속으로 들어갈 자격을 획득한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꿈을 분석해 보아도 나는 다음과 같은, 언제나 같은 원칙이 실증되는 것을 발견한다. 즉 꿈 요소는 꿈 사상의 전체에서 구성되고, 각기 꿈 요소도 여러 꿈 사상과 관련하여서 나타나고 여러 번 결정되어 나타난다.

지금 여기서, 꿈 내용과 꿈 사상 사이의 상호 관계가 오묘하게 엉켜 있는 새로운 예 하나를 들고, 이 예에 의해서 꿈 내용과 꿈 사상과의 관계를 실증해 보는 일도 헛된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예는 내가 옥내 공포증(밀폐된 장소 안에서의 공포)을 치료했던 남자 환자의 꿈이다. 특히 오묘한 이 꿈에 내가 왜 다음과 같은 표제를 붙일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곧 판명될 것이다.

## (2) (아름다운 꿈)

꿈 내용. 그는 많은 사람과 함께 마차를 타고 x가(街)로 달렸다. x가에는 자그마한 요리점이 있다(이것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 요리점에서는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 그는 구경꾼이 되었다가 배우가 되었다가 한다. 일행은 드디어 또 옷을 바꾸어 입고 거리로 외출하라는 말을 듣는다. 몇 사람은 흙바닥의 자리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2층에 배당된다. 그러자 싸움이 벌어졌다.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린다. 그의형은 2층에, 그는 아래층에 있다. 그는 매우 혼잡했기에 형에게 화를 냈다(이 부분은불명). 게다가 또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위층과 아래층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다음에 그는 x가에서 거리로 통하는 언덕을 혼자 넘어간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움직일 수 없을 만큼 걷는 것이 힘들고, 대단히 고생스러웠다. 한 중년의 신사가 그에게 가담하여 이탈리아 왕을 욕한다. 드디어 언덕을 넘어섰을 때에는 전보다훨씬 안락하게 되었다.

걷고 있을 때에 경험한 고생을 대단히 뚜렷이 느꼈기 때문에, 잠을 깬 얼마 동안 꿈인지 생시인지 의심할 정도였다.

현재 내용만 보자면 이 꿈은 추천할 꿈이 못 된다. 평상의 방법과는 달리 나는 꿈 꾼 당사자가 가장 뚜렷이 느낀 부분부터 분석을 시작할 것이다.

꿈을 꾸고, 또 아마 꿈꾸는 동안에 실제로 체험한 쓰라림, 즉 호흡 곤란을 동반한 괴로운 등반은 이 환자가 수년 전에 실제로 보인 증세의 하나이고, 이 증세는 다른 여러 증세와 겹쳤으며, 당시 결핵증(히스테리성의 위장(僞裝)이었던 것 같다)에 원인이 있었다. 우리들은 이미 노출 꿈에서 이런 꿈에 고유한 보행 저지의 상태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우리들은 이 보행 저지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한 재료로서 어떤 것을 표현할 목적에 이용되는 것도 알 수 있다. 등반이 처음엔 곤란하다가 언덕의 고비에서 쉬워지는 꿈 내용의 한 부분은, 이 꿈을 환자로부터 듣고 있을 때는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가 쓴 《사포(Sappho)》의 유명하고 당당한 서두를 나에게 상기시켰다. 이 소설에서는 어떤 젊은 남자가 애인을 안고 층계를 올라간다. 처음엔 애인의 몸은 마치 새털과 같이 가벼웠으나 올라감

에 따라 점점 그의 팔이 힘에 겨워진다. 이는 남녀 관계의 경과를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 장면은 신분이 낮고 배경이 의심스러운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도데가 청년들에게 경고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이 환자가 최근에 어떤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다가 얼마 안 되어서 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나의 해석이옳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사포》에서의 상태는 꿈에서의 상태와 거꾸로 되어 있다. 꿈에서는 등반이 처음엔 곤란하고 나중엔 쉬워졌다. 소설속에서는 처음엔 편리하다고 생각된 것이 끝에서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되는 것은, 다만 상징 때문에 쓰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환자가 자기는 전날 밤에 본극(劇)의 내용이 이 해석과 꼭 들어맞는다고 말하기에 나는 놀랐다. 그 연극은 이랬다. 〈비엔나의 변두리〉라는 것이고, 한 처녀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처녀는 처음엔 단정했으나 다음에 신분이 높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즉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매춘부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점차로 몰락한다. 이 극은 나의 환자에게 몇 년 전의 다른 연극을 화상하게 했다. 그것은 〈층계에서 층계로〉란 제목의 연극이었고, 그 광고에 몇 개의 계단이 그려져 있었다.

조금 더 해석해 보기로 하자. x가(街)에는 실지로 그가 최근에 깊은 인연을 맺은 여배우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x가에는 요리점이 없다. 그러나 그가 이 부인을 위해 여름의 일부분을 비엔나에서 보냈을 때, 비엔나 교외의 작은 호텔에 묵었다 (absteigen, '위에서 내려오다'라는 뜻도 있음). 호텔을 떠날 때 마차를 타고 그는 마차꾼에게 "적어도 이(風)에 물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어."라고 말했다. (이에물리는 것도 그의 공포증 대상의 하나였다.) 그랬더니 말몰이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숙박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호텔이 아니라 실은 여인숙인데요."라고 말했다. 이 여인숙이란 말에서 환자는 시 한 구절을 기억해 냈다.

신기하고 부드러운 여인숙, 나는 최근에 그 손님이 되었다.

2 시인의 이런 표현을 평가하기 위해서 꿈 상징의 장(章)에 보고한 '계단의 꿈'의 뜻을 생각하기 바란다.

이 루트비히 울란트(Ludwig Uhland)의 시에 있는 여인숙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 이다. 사고의 흐름은 두 번째 인용구가 계속하여 이끈다.

파우스트(색시와 춤을 추면서) 언젠가 내가 꾼 '아름다운 꿈' 사과나무 한 그루, 반짝이는 아름다운 사과 둘 매혹되어 기어올랐다

미인(美人) 그거야 천국의 예부터 그대들이 탐내는 사과 감격하고 기뻤다 나의 뜰에도 열려 있다

사과나무와 사과가 무슨 뜻인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유방이야말로 여배우가 나의 환자를 포로로 잡았던 많은 매력 중의 으뜸이었다.

분석의 결과에 따라, 우리들은 이 꿈이 유년 시절의 한 인상으로 환원되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이 옳다면 이 꿈은 지금 곧 서른 살이 되는 남자의 유모와 관계가 있음은 틀림없다. 아기에게는 유모의 젖이 실상 여인숙이다. 도데의 사포 뿐 아니라 유모도 최근에 버린 애인의 암시로서 나타난다.

꿈 내용 속에 환자의 형도 나타난다. 그리고 형은 위층에 있고 동생인 환자 자신은 아래에 있다. 이것도 사실을 거꾸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형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를 잃었는데, 나의 환자는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꿈을 말할 때에 형은 위에 있고 자기는 흙바닥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기피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과오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엔나에서는 사람이 재산이나 지위를 잃으면 '아래로 내려간다'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영락(零落)했다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흙바닥'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실제의 사실이 꿈에서 거꾸로 된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 거꾸로 됨은 또 꿈 사상과 꿈 내용과의 사이에 있는 관계에도 틀림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 '거꾸로 됨'을 해석할 끄나풀이 있다. 이 끄나풀은 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 꿈의 마지막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사포》의 상황과는 거꾸로 되어 있다. 꿈속의 전도의 의도가 쉽게 알려진다. 즉 《사포》에서 남자는 자기와 성적 관계에 있는 여자를 안고 있는데, 꿈 사상에서는 거꾸로 남자를 껴안고 있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다만 유년 시절에서만 생길 수 있으므로, 이것은 확실히 또 젖먹이를 무거운 듯이 껴안은 유모와 관계된다. 이런 식으로 이꿈의 결말은 사포와 유모를 동일한 암시로 표현하는 데에 오묘하게 성공한 셈이다.

시인 도데가 사포(Sappho)란 이름을 동성애 풍습과 무관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듯이, 사람들이 위와 아래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꿈의 부분은, 이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억압된 소망으로 그의 신경증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성적 내용의 공상을 말하고 있다. 꿈에 표현된 것이 공상이고 실제로 있던 일의 기억이 아니란 것을 꿈 해석 자체로서는 표시할 수 없다. 꿈 해석은 우리들에게 다만 사상 내용을 제공할 뿐이고, 그 사상 내용의 현실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결정에 맡긴다. 현실적인 사건과 공상적인 사건은 꿈에서, 그리고 꿈에서 뿐 아니라 꿈보다 더 중대한 심적 소망을 창조하는 데에서도 우선 똑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큰 회중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비밀을 의미한다. 형은 '소원 공상작용(溯源空想作俑)'에 의해서 아이 시절의 한 장면 속에 놓인 후년의 모든 연적의대표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탈리아 왕을 조롱하는 신사라는 삽입된 인물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최근의 사소한 체험을 매개로 상류 사회에 끼어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마치 도데가 청년에게 주는 경고를, 젖먹이에 알맞은 비슷한 경고와비교하는 듯하다 3

3 꿈꾼 본인의 유모와 관계가 있는 상황의 공상적 성질은 이 환자의 경우, 유모가 어머니였다는 사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모의 젖을 빨 수 있었던 상황을 좀 더 이용 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이야기하며 아쉬워한 젊은 남자의 일화를 상기하기 바란다. 이런 아쉬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꿈을 형성할 때의 압축을 연구하기에 편리한 제3의 예로서, 나는 정신 분석의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중년 부인의 꿈을 부분적으로 분석한 것을 인용하고자 한다. 심한 공포증으로 괴로워하는 당연한 결과로서, 이 부인의 꿈에도 성적인 관념 재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알고 이 환자는 처음엔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다. 나는 이 꿈을 철저히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꿈 재료가 뚜렷한 관련성 없이 몇 그룹으로 갈라지는 듯이 보일 것이다.

#### (3) 〈딱정벌레의 꿈〉

꿈 내용. 그 여자는 상자 속에 딱정벌레 두 마리를 넣어 두었던 것을 상기했다. 그 벌레는 밖으로 내어놓지 않으면 질식할 것이다. 뚜껑을 열었다. 벌레는 기운이 빠져 있었다. 한 마리는 열려 있던 창을 통해 밖으로 날아갔다. 또 한 마리는 누군가의 요구로 그 여자가 창문을 닫을 때에 창틀에 눌려 터졌다(혐오감의 표면화).

분석. 이 여자의 남편은 여행 중이다. 열네 살 난 딸이 옆의 침대에서 잠자고 있다. 그 여자의 컵 속에 한 마리의 모기가 빠졌다고 잠들기 전에 딸이 어머니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모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잊고 다음날 아침에 모기가 죽은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전날 밤에 그 여자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그 고양이가 실룩거리는 것을 묘사한 이야기를 읽었다. 이 두 가지는 변변치 않은 꿈을 만드는 데에 계기가 되었다. '동물학대'라는 테마가 그 여자의 마음을 점령한다. 딸은 그들이 몇 해 전에 어떤 곳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동물을 심하게 학대했다. 딸은 그 당시 나비를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비소(砒素)를 달라고 졸랐다. 모기가 몸에 핀이 꽂힌 채로 오랫동안 방안을 날아다니는 때도 있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여자는 변형 작용을 알기 위해서 기르고 있던 유충(幼蟲)의 아사(餓死)를 찾아냈다. 이 딸은 비교적 어렸을 때 딱정벌레나 나비의 날개를 자르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무참한 일을 도저히 하지 못할 것이지마는, 대단히 마음씨

움이 아마 이 꿈의 원천일는지 알 수 없다.

부드러운 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이것을 마음속에서 대조해 보았다. 이 대조는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아담 베데(Adam Bede)》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외관'과 마음 사이에 있는 대립 · 모순을 생각하게 했다. 아름다우나 허영심이 강하고 매우 어리석은 소녀, 흉하나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녀, 어리석은 소녀를 유혹하는 귀족, 깨끗한 마음씨에 깨끗한 행동의 노동자, 겉과 안은 다른 법이다. 그녀가 육욕적인 욕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겉만으로 알 수 있을까?

딸이 나비 수집에 착수한 같은 해에, 이 지방 일대는 5월 딱정벌레 재앙 때문에 고생했다. 아이들은 화가 나서 그 벌레를 처참하게 눌러 으깼다. 그때 이 여자는 딱정벌레의 날개를 찢고 몸집을 먹는 사내아이를 보았다. 이 여자는 5월생이고 5월에 결혼했다. 결혼 사흘째에 그 여자는 부모에게 자기는 행복하다는 편지를 써보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꿈을 꾼 전날 밤에 이 여자는 옛 편지를 끄집어내서 진실한 것과 우스운 내용의 편지를 아이들에게 읽어 주었는데, 그 중에는 처녀 시절에 접근해 온 피아노 교사의 대단히 우스운 편지와 그 여자가 숭배한 귀족의 편지도 있었다. <sup>4</sup>

그 여자는 딸 하나가 모파상(Maupassant)의 '나쁜'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자책했다. <sup>5</sup> 딸이 전에 바라던 비소(砒素)는 그 여자에게 《나바브(Nabab)》 중의 듀 모라공(公)에게 청춘의 힘을 소생시킨 비소(砒素)의 환약(丸藥)을 상기시켰다. '자유를 주다'라는 부분에서 그 여자는 《마적(魔笛》》의 한 구절을 상기했다.

사랑을 그대에게 강요하지 못하나 그대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리라.

딱정벌레'에 관해서는 케트헨(Kätschen)의 한 구절<sup>6</sup>이 생각났다.

- 4 이것이 본래의 꿈 자극 원천이다.
- 5 이렇게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런 책은 젊은 처녀에 해롭다."고. 그 여자 자신이 젊은 처녀 때에 금단(禁斷)의 책을 많이 읽었다.
- 6 이어지는 같은 사고의 흐름은 같은 시인의 《펜테질레아(Penthesilea)》에로 통했다. 즉 애인에 대한 잔

그대는 나에게 딱정벌레처럼 반했도다.

그 사이에 《탄호이저(Tannhäuser)》의 "그대는 사악한 욕정에 불타 있기에……." 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그 여자는 출타 중인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나날을 보냈다. 여행에서 예기하지 않았던 재난이 남편에게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는 낮 동안에 많은 공상으로 나타났다. 조금 전에 그 여자는 분석 치료 중에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 중에서 남편의 '늙음'에 불만을 가진 것을 알았다. 이 꿈에 감추어져 있는 소망 사상은, 내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써 두면 가장 뚜렷하게 독자에게 이해되리라고 생각된다. 즉 그 여자가 이 꿈을 꾼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마음속에 한 명령이 떠올랐다. 그리고 놀랐다. 그것은 자기의 남편에 대한 명령이었다. "목을 졸라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으나, 이 일이 일어나기 두서너 시간 전에, 남자가 교살당할 때는 음경(陰莖)이 빳빳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떤 책에서 읽었다. 이 발기의 소망이 일시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놀라우리만큼 변장되어 밖으로 목을 내밀었다. "목을 졸라라."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음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와 같은 의미이다. 《나바브(Nabab)》 중의 젠킨스(Jenkins) 박사의 비소환약도 역시 음경 발기를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여환자는, 또가장 강력한 성욕 자극제가 딱정벌레를 으깨서 만든 것(소위 스페인 파리)임을 알고 있다. 이 꿈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즉 이런 일을 겨냥한 것이다.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 여자는 남편과 늘 말다툼을 한다. 그 여자는 창문을 열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남편은 창을 닫고 자는 것을 좋아한다. 기운 빠진 것은 요새 그 여자가 불만을 느끼는 남편의 주요한 증세이다.

이상에서 보고한 세 실례에서, 나는 꿈 요소의 다면적인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각 각의 꿈 요소가 꿈 사상 속에 재현되는 부분에 아래에 점을 찍어 표시했다. 그러 나 위의 세 꿈이 모두 분석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꿈 내용과 꿈 사상과의 다

인(殘忍).

면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상세하게 보고된 꿈을 예로 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다시 한 번 이르마의 꿈을 인용하려고 한다. 이 꿈을 관찰하면 꿈을 형성함에 있어서 압축 작업이 한 가지 이상의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 쉽사리 파악된다.

꿈 내용의 주인공은 여환자 이르마이고, 이는 평상시 모습의 이르마이며, 따라서 꿈에 먼저 나타난 이르마는 그 여자 자신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자를 창가에서 진찰할 때의 그녀의 자세는 다른 인물의 기억에서 온 것이다. 그 인물은 꿈 사상이보여 주듯이, 내가 이르마를 그 사람과 바꾸고 싶어 하는 다른 여자이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만딸과 같이 이르마가 디프테리아성(性)의 백태를 보이는 범위 안에서는, 이르마는 나의 이 딸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나의 딸의 배후에는 중독으로 죽은 여환자의 모습이,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결합되어서 감추어져 있다. 꿈이 더 진행됨에 따라서 이르마의 인물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다(그러나 꿈속의 이르마의 모습은 본래 그대로이다). 이르마는 우리들이 소아 진료소에서 외래 치료를 해주는 아이들 중의 한 사람이 된다. 그 치료에서 나의 동료들은 각각 정신적소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동(移動)은 확실히 나의 딸의 관념을 통해서 생겼다. 입을 벌리기를 싫어하는 데에서 이르마는 내가 전에 진찰한 다른 부인을 암시하고, 또 같은 관련에서 나의 아내를 암시하고 있다. 그 위에 그 여자의 목에서 발견된 병적인 여러 변화 속에서 나는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암시를 종합하였다.

이르마를 추구하는 도중에 내가 만난 이 모든 인물은 꿈에서 현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인물들은 꿈속의 인물인 이르마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르마는 물론 서로 모순되는 여러 특성을 갖춘 하나의 종합 상(綜合像)으로 만들어진다. 이르마는 압축 작업 때문에 내버려진 다른 몇 인물의 대표자가 되고, 나는 나대로 몇 인물에 대한 이런저런 모든 생각의 원인을 이르마란한 사람에게로 돌린다.

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인물의 뚜렷한 특성을 하나의 꿈 형상 속에 통합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꿈의 압축을 위해서 한 개의 종합 인물을 만들 수 있다. 나의 꿈에 나타나는 M 박사는 이렇게 하여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물론 이 인물은 M 박사란이름을 가지고, M 박사와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하지만, 그의 신체 특징이나 병적 증세는 실은 다른 인물, 즉 나의 큰형이다. 창백한 얼굴만은 M과 맏형에 실제로 공통되는 점이므로 이중으로 규정된다. 나의 '백부의 꿈'에 나오는 R 박사도 역시이와 비슷한 혼합 인물이다. 그러나 R의 경우, 꿈속의 모습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한쪽의 인물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을 다른 쪽의 인물의 특징과 결합하는데, 이 결합은 그 인물들의 기억으로부터 특징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갈튼(Galton)이 가족 사진을 만들 때에 취한 방법, 즉 두 개의 상(像)을 겹친 것이다. 그 때문에 양자에 공통된 특징은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일치하지 않는 특징은 서로 없어져서 그 복합(復合) 사진에서는 희미해진다. '백부의 꿈'에서 엷은 갈색 수염은 하나의 강조된 특징으로서 두 사람에 속하고, 따라서 이 수염은 희미하게 된 머리카락이 희어진다는 관계를 매개로 나의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

종합 인물과 혼동 인물의 제작은 꿈 압축의 주요한 작업 수단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다른 관련에서 취급할 기회가 곧 마련될 것이다.

'주사에 관한 꿈' 중의 '적리(赤痢·Disenterie)'란 생각은 한편 디프테리아 (Diphtherie)의 착오적(錯誤的) 동음성(同畜性) 때문에, 또 한편 히스테리증으로 오진되어서, 나 때문에 동양으로 여행을 떠난 저 환자와의 관계 때문에, 역시 여러 모로 규정된다.

같은 꿈에서 프로필렌(Propylen)이 나오는 것도 압축의 흥미 있는 실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꿈 사상 중에 있던 것은 프로필렌(Propylen)이 아니라 아밀렌 (Amylen)이었다. 그것은 꿈을 만들 때의 단순한 이동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그런 이동인데, 이 이동은 다음의 보조적 분석에서알 수 있듯이 압축의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 내가 잠시 이 프로필렌이란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이와 비슷한 프로필레엔(Propyläen)이란 말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러나 프로필레엔이란 건물은 아테네 뿐 아니라 독일의 뮌헨에도 있다. 이 꿈을 꾸기 1년 전에 나는 당시 중병에 걸린 친구를 병문안하러 뮌헨을 방문했다. 꿈

에서 프로필렌(Propylen)에 곧 이어서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이란 말이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친구의 일이 꿈 사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꿈의 경우이거나 다른 꿈의 경우이거나 꿈을 분석해 보면, 그 가치의 정도를 매우 달리하는 여러 관념이, 마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이 취급되면서 관념 결합을 하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사실을 상세히 다루는 것을 그만두고, 꿈 사상에서의 아밀렌(Amylen)이 꿈 내용에서의 프로필렌 (Propylen)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좀 더 명확히 살펴 보기로 하자.

한편 나의 친구 오토를 중심으로 한 관념군이 있다. 오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아밀렌 냄새가 나는 리큐르를 나에게 준 사람이다. 또 한편 베를린의 친구 빌헬름을 중심으로 한 관념군이 있다. 그는 나의 방법을 옳다 고 이해해 준 사람이고, 내가 대단히 많은 귀중한 보고, 특히 성적 사상에 관한 보 고로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관념군은 대조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고 있 다.

오토의 관념군에서 특히 무엇이 나의 주의를 끌 것인지는 꿈을 일으키는 최근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밀렌은 꿈 내용에 미리 이용되게 되어 있는 특별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다. 풍부한 관념군 빌헬름은 바로 오토와의 대조 관계에 의해서 생기를 띠었고, 그리고 그 관념 속에 오토에서 환기된 이 요소를 생각나게 하는 여러 요소가 나타나 있다. 이 꿈 전체에서 나는 물론 나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한인물을 떠나서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인물에 의지하고, 나의 대항자와 대항할나의 친구를 불러낸다. 그리하여 오토군(群)에서의 아밀렌은 빌헬름군(群) 중에서도 화학의 문제 범위에서 여러 기억을 일으킨다. 즉 트리메틸아민은 여러 면에서지지되어 꿈 내용 속에 도달한다. 아밀렌도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꿈 내용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밀렌은 빌헬름군의 세력에 눌린다. 한편 빌헬름(Wilhelm)이란 명칭이 덮고 있는 모든 기억 범위로부터 아밀렌을 이중으로 규정하는 요소가 선출된다. 아밀렌의 측근에는 프로필렌의 연상이었고, 빌헬름의 범위로부터 뮌헨(München)이 프로필레엔(Propyläen)과 함께 이

를 마중하러 나타났다. 두 관념 범위들은 프로필렌—프로필레엔에서 서로 만난다. 다음에 마치 타협한 것 같이 중간적 요소가 꿈 내용에 도달한다. 여기서 여러 규정을 허용하는 하나의 '중간적 공통자'가 만들어진다. 여러 겹의 규정이 쉽게 꿈 내용에로 꿰뚫고 들어가게 해야 함을 우리들은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중간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의력은 주저 없이 본래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연상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이동한다.

주사에 관한 꿈을 음미함으로써 우리들은 이미 꿈을 형성할 때에 생기는 압축 과정을 다소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은 여러 모양으로 꿈 사상에 나타나는 요소의 선택과, 새로이 통일된 형상(종합 인물·혼합 형성물)과, 중간 공통자의 생성등이 압축 작업의 개개의 특색임을 알았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압축이 행해지는가, 또 압축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를, 우리들은 꿈 형성의심적 여러 과정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기회가 올 때까지 미루어 두자. 우리들은 지금 꿈 사상과 꿈 내용 사이의 주목할 만한 한 관계로서의 꿈 압축을 확인하는 데에 만족하자.

꿈의 압축 작업은 이 작업이 압축하려는 대상에 대한 말과 명칭을 선택하였을 때에 가장 잘 이해된다. 대체로 꿈은 때때로 언어를 사물과 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언어는 사물의 표상과 같이 종합·이동·고체화, 그리고 또 압축을 행한다. 우스운 그리고 기묘한 조어(造語)는 그런 꿈의 소산이다.

① 어느 때 동료의 한 사람이 나에게 그의 논문 하나를 보내왔다. 이 논문에서 내가 보는 바에는 그는 근세의 생리학상의 어떤 발견의 가치를 과대히 평가하였고, 특히 과대한 언사로 자신을 나타냈다. 다음 날 밤에 나는 뚜렷이 이 논문과 관련이 있는 한 문장의 꿈을 꾸었다. "이것은 아주 노렉달한(norekdal) 문체이다." 처음 나는 이 합성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지를 몰랐다. 이것은 '거대한(kolossal)'과 '훌륭한(pyramidal)'이란 형용사의 최상급을 농락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언어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이 기묘한 말은 입센(Ibsen)의 유명한 희곡(戲曲) 두 편에 나오는 '노라(Nora)'와 '엑달(Ekdal)'이란 명칭에서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꿈에서 그렇게("이것은 아주 노렉달한 문체이

다."라고) 비평했던 사람이 어느 신문에 발표한 입센 론을 전에 내가 읽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 ② 나의 한 여환자는 짧은 꿈 하나를 알려 줬다. 그 꿈은 무의미한 말로써 결합된 것이다. 그 여자가 남편과 어떤 시골 농부제(農夫祭)에 갔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즉 "모두 Mai—stollmütz가 되고 말아요." 당시 이 여자는 꿈에서 그것이 옥수수(Mais) 과자의 일종인 Polenta일까 생각하고 있었다. 분석은, 이 말을 옥수수(Mais)—미친(toll)—남자 미치광이(Mann—stoll)—올뮈츠(Olmütz 지명)로 분해했다. 이 말은 모두 식사 때에 친척들과 나는 대화의 잔재였다. 옥수수(Mais)의 배후에는 바로 지금 개최된 농부의 암시 이외에 마이센(Meißen, 새를 나타낸 Meißen산(產)의 도자기), 미스(Miß, 그 여자의 친척인 영국 부인은 Olmütz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미스(Mies, 농담에 쓰이는 유대인의 속어인 '구역질날 정도로 싫은')와 같은 말들이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 기묘한 말의 덩어리의 각 철자로부터 일련의 관념이나 연상 맥락(聯想脈絡)이 줄줄이 나왔다.
- ③ 한 젊은이가 저녁 늦게 한 남자의 방문을 받았다. 이 남자는 초인종을 누르고 명함을 두고 갔다. 젊은이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 어떤 사무원이 밤늦게 옥내 전신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 사나이가 간 뒤에도 전신기는 계속적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울리고 있다. 하인이 그 사나이를 또 데리고 온다. 남자는 말한다. "부단히 투텔라인(tutelrein)인 사람들이 이런 고장을 고치지 못한다니 이상한데요."라고.
- 이 꿈의 무의미한 원인이, 꿈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 원인에 의미가 부여된 것은, 이 남자가 옛날에 했던 체험과 관계를 갖게 되면서이다. 옛날에 그가 했던 체험이란 것만으로는 큰 뜻이 없으나, 이 남자의 공상에 의해 대표적 의미가 주어진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지난 유년 시절에 그는 어느 때잠자다가 컵의 물을 마루에 엎질렀다. 이 때문에 전화 줄이 젖었다. 그래서 '전화벨이 계속적으로 울려서' 아버지의 잠을 방해했다. 계속적으로 울린 전화벨 소리는 젖는다는 것과 연관지어,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로 묘사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tutelrein이란 단어는 세 방면으로 해석되고, 꿈 사상에 나타난 내용을 대

표하는 세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투텔(Tutel)은 쿠라텔(Kuratel)로서 '후견'을 뜻한다. 다음에 투텔(tutel, 아마 tuttel)은 여자의 유방의 속된 표현이다. 라인(rein, '청결한'을 뜻함)은 마루를 젖게 하는 것과 관계가 깊고, 또 이 사나이의 가족 한 사람의 이름을 암시하는 Zimmerrein(실내 청결)이란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옥내 전신기(Zimmertelegraph)의 첫 철자 옥내(Zimmer)를 사용한 것이다.

- ④ 내가 꾼 혼란한 긴 꿈 중에서 배 여행을 중심점으로 한 꿈이 있다. 다음 기항지 (寄港地)는 히어징(Hearsing)이고, 그 다음은 플리스(Fließ)였다. 이 플리스는 베를 린(Berlin)에 살고 있는 나의 친구의 이름이고, 나는 흔히 이곳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히어징은 비엔나의 근교의 몇 가지 지명(Hietzing, Liesing, Mödling(옛 이름은 Medelitz이며, 라틴어로는 meae deliciae이고, 이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다))과 영어의 hearsay(風說)의 합성일 것이다. 영어의 hearsay에는 비방의 뜻이 있고, 또 낮 동안의 자세한 꿈 자극 원천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자그터 하터게 자그트(Sagter Hatergesagt)란 이름의 욕설가가 쓴 《플리겐데 블레터(Fliegende Blätter)》지(誌)에 실린 한 시였다. 어미 철자 -ing와 플리스(Fließ)라는 이름과의 관계에 의하여 플리싱엔(Vlissingen)이라는 말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내 동생이 실제로 영국에서 올 때 통과하는 기항지의 이름이다. 이 플리싱엔(Vlissingen)
- 7 철자를 이렇게 분석하고 합성하는 것은—이것이야말로 진짜 철자의 화학이다—우리가 깨어 있을 동안 농담할 때에 잘 쓰는 수단이다. "제일 값싸게 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포플러(은백양 Silberpappeln인데 Silber는 은, pappeln은 '지껄이다'의 뜻으로 합쳐서 포플러가 된다)가서 있는 길에 가서, 지껄이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지껄이기(pappeln)가 그치면 뒤에 남은 은을 가지면 된다." 처음으로 나의 이 저서를 읽은 비평가는 "이 책에 나오는 꿈을 꾼 본인들이 지나치게 슬기가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비난은 이 비평가 외의 독자도 되풀이하고 싶은 비난일 것이다. 이 비난은 꿈을 꾼 당사자에 관한 한에서는 올바른 비난이나, 이것이 꿈을 해석하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나는 그 평을 실제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는 보통 슬기가 부족한 사람이고, 나의 꿈이 슬기가 풍부하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슬기가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심리학적 여러 조건에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슬기에 찬 것', '우스꽝스러운 것'의 이론과 밀접한관계가 있다. 꿈이 슬기로운 것은, 그것에 자기의 사상을 똑바르게 그리고 솔직하게 표명하는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꿈은 부득이 슬기로울 수밖에 없다. 나의 환자들의 꿈은 나 자신의 꿈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슬기롭고 농담조의 인상을 줄 것이다. 언제나 이 비난은 나에게 슬기의 기묘를 꿈의 작업과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나는 1905년에 《슬기와 그것의 무의식과의 관계》(1912년 제11판)를 간행하게 되었다.

을 영어로 말하면 플러싱(flushing, 얼굴을 붉히다)가 되고, 이 단어는 내가 치료하고 있는 '적면(赤面) 공포증'의 여성 환자를 연상하게 하고, 또한 내가 읽고 화를 냈던, 이 신경증에 관해 쓴 베히테레프(Bechterew)의 최근의 논문을 연상케 했다. ⑤ 또 어느 때에 나는 꿈을 꿨다. 이 꿈은 서로 다른 두 부분들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은 '아우토디다스커(Autodidasker)'란 뚜렷이 기억에 남아 있는 한 단어이다. 두 번째 부분은 "다음에 N 교수를 만나면, '전날 당신에게 병의 증세를 상담받았던 그 환자에게 실제로 당신이 추측한 대로 신경증에 걸려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해야겠다."고 며칠 전 생각했던 짧고 단순한 내용의 나의 공상과 일치한다. 이 신조어 아우토디다스커(Autodidasker)는, 압축된 의미를 내포하거나 혹은 대신해야 하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N 교수에게 사의를 표명해야겠다고 누차 다짐했던 계획과도 잘 관련돼 있어야 한다.

이제 아우토디다스커(Autodidasker)는 Autor(저술가) · Autodidakt(독학 자) · Lasker(사람 이름)로 분해된다. 이 라스커(Lasker)라는 이름에는 라살레 (Lassalle)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결합되다. 이 단어들 중 첫 번째 것은 꿈의 (이번 에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즉 나는 나의 아내에게 어떤 유명한 저술가의 서적의 부록을 주었다. 나의 동생은 이 저술가와 안면이 있었다. 또 들은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탄생지가 나와 같다(다비트(J. J. David)이다). 어느 날 밤에 아내는 다비 트의 단편 소설에 묘사된 재주 있는 사람이 영락(零落)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받은 인상에 관해 나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볼 수 있 는 재능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옮겼다. 그녀는 바로 다 읽었던 소설에서 전적으 로 영향을 받고는 아이들에게 대한 근심을 털어놓았으나. 나는 바로 교육을 통해 서 그런 걱정은 피할 수 있다고 아내를 위로했다. 그날 밤에 나의 생각은 한층 더 진전되어 아내의 걱정에 더해 다른 여러 가지 일과 엉키게 되었다. 이 시인이 결혼 에 관해서 나의 동생에게 말한 의견은. 나의 생각이 꿈에서 표상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하나의 샛길을 보여 주었는데, 이 길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친절했던 한 부인 이 결혼했던 부레슬라우(Breslau)로 이끌었다. 내 꿈 사상의 핵심을 형성한 것은 여자 때문에 몸을 망친다는 걱정이었고, 그 실례를 부레슬라우에서 라스커와 라살 레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 두 예는 재앙을 가져오는 이 영향의 두 길을 동시에 나에게 표시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요약하고 있는 "여자를 선택하라."는 것은 위의 말과는 다른 뜻에서 아직 미혼인 나의 동생 알렉산더(Alexander)를 생각하게 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알렉산더를 짧게 말하면 보통알렉스(Alex)라고 하는데, 알렉스는 라스커를 거꾸로 한 것같이 들린다. 그리고 이 계기는 나의 생각이 부레슬라우에 이르도록 샛길을 제시해 주는 데 협력했음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내가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이름과 철자와의 희롱은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그 희롱은 더욱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써 동생을 위해 행복한 가정 생활을 바라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나의 꿈 사상과 내용적으로 가까운 것에 틀림없는 졸라 (Zola)의 예술가의 인생에 관한 소설 《창작(L'œuvre)》에서, 졸라는 자신과 그 가족의 행복을 뚜렷이 삽화식으로 묘사하고, 그 속에서 산도(Sandoz)란 이름으로 자신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이 별명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것이 틀림없다. 졸라(Zola)를 (아이들이 흔히 즐겁게 행하듯이) 거꾸로 쓰면 알로즈(Aloz)이다. 그것을 그는 너무나 뚜렷한 것으로 생각하였음인지, 알렉산더란 이름의 머리철자이기도 한 알(Al)을 알렉산더(Alexander)의 세 번째의 철자 산드(Sand)와 바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도즈(Sandoz)가 되었다. 즉 나의 꿈속의 아우토디아스커(Autodidasker)도 역시 이런 식의 신조어이다.

내가 N 교수에게 우리 둘이 진찰한 환자가 단지 신경증을 앓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공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꿈에 들어온 것이다. 즉 나의 연구 연한이 끝나기 조금 전에 나는 도저히 진단을 내릴 수 없는 환자를 받았다. 아마 척수의 병적 변화로 추측되는 심한 기관적 질환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될 수 없었다. 나는 만일에 이 환자가 성적 질병의 기왕력(既往力)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 진술이 없으면 신경증이라고 진단할 수 없다) 신경증으로 진단하고 모든 곤란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나는 난처해져서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의사

<sup>8</sup> 라스커(Lasker)은 진행성 뇌연화(腦軟化), 즉 여자에게서 옮겨진 전염병(매독)의 결과로 죽었다. 라살 레는 다 알다시피 한 부인 때문에 결투하다 생명을 잃었다.

(이분은 나 외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았다)에게 구원을 청했다. 나는 그를 또 학자로서도 가장 중하게 생각했다. 그는 나의 말을 듣고 옳다고 말하고,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조금 더 관찰해 보시오. 자칫하면 신경증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신경증의 병원학에 관해서 내 의견과는 달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삼갔다. 그러나 나의 불신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후 며칠 지나서 나는 환자에게, 힘에 겨우므로 다른 의사를 찾을 것을 그에게 권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환자는 나를 속인 것을 사죄하고 너무 부끄러웠기에 아무말도 하지 못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것을 듣고 비로소 신경증이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성적 병의 원인의 지점을 나에게 고백해 주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부끄러웠다. 나는 내가 상담했던 N교수가 환자의 기왕의 병세의 진술과는 관계없이 사태를 나보다 훌륭하고 올바르게 관찰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수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바로 내가 꿈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어떤 소망이 충족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다. 나는 나의 걱정이 군걱정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혹은 아내가 그런 걱정을 품고 있었기에 나까지도 그것을 꿈에서 나의 걱정으로 삼았으나, 나는 그런 아내의 걱정이 군걱정이기를 바랐다. 꿈에서 옳다 그르다와 관계된 테마는 꿈 사상에 실제로 관계되는 것과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성생활을 통한 상해이냐, 기관적 상해이냐 또는 기술적인 것이냐의 양자택일, 즉 진행성 뇌연화증인가 신경증인가가꿈의 주제였다. 그런데 라살레의 파멸의 방식이 라스커에서보다 느리게 신경증에 관계한다.

확고하게 수립된 (그리고 잘 해석하면 뜻이 명백해지는) 이 꿈에서 N 교수는 단지 이 유사성과, 잘못이기를 바라는 나의 소망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부 레슬라우와 여기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진찰과 결부된 다음과 같은 작은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N 교수는 앞서 말한 의견에 의해 의사의 임무를 다한 뒤에 개인적인 것을 묻기 시

작했다. "지금 아이가 몇입니까?"—"여섯입니다."—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딸인가요, 아들인가요?"—"마침 셋씩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재산이기도합니다."—"그러나 조심하세요. 딸은 대체로 문제없으나 남자는 키우는 데 곤란한일이 있습니다."—이 말에 대해서 나는 여태까지는 키우기가 순조로웠다고 대답했으나, 실상 금방 앞에서의 "그 환자는 신경증이 아닐까."란 N 교수의 추측의 경우와 같이, 나의 사내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두 번째 진단을 받고 속으로 좀 불안해졌다. 이 두 인상이 그 근접 관계와 체험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나는신경증의 이야기를 꿈에 채용함으로써 그 이야기에 교육에 대한 대화를 대립시켰다. 이 교육 이야기는 나중에 나의 아내가 덮어 둔 걱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은 (신경증의 이야기보다) 꿈 사상과 더 밀접하게 관계한다. N 교수가 사내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곤란에 관해서 말한 것이 옳았으면 하고 바라는 나의 불안마저, 나의 걱정이 잘못이었으면 하는 나의 소망 표현의 배후에 숨어버림으로써 역시 꿈 내용 속에 나타난다. 이 공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두 개의 대립된 양자택일을 표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⑥ 마르치노프스크(J. Marcinowski)에 의한 한 실례. "오늘 일찍이 나는 반수반성(半睡半醒) 상태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언어 압축을 경험하였다. 거의 기억나지 않는 많은, 조각조각이 된 각기의 꿈이 진행될 때, 나는 자신의 눈앞에 마치 쓰인 것 같기도 하고 인쇄된 것 같기도 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고 놀랐다. 그것은 에어체필리슈(erzefilisch)이다. 이것은 나의 의식적 기억 중에서는 다른 여러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한 문장 중의 단어이다. 그 문장은 "그것은 성적 감각에 erzefilisch하게 작용한다."이다. 나는 이것이 본래 erzieherisch(교육적으로)이어야 옳다고 생각하면서, 한편 몇 번이나 에어치필리쉬(erzifilisch)가 더 옳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였다. 이때에 매독(Syphilis)이란 말이 떠올랐다. 나는 여전히 반수반성의 상태에서 해석을 시작하면서, 이 질병과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상으로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도 어떻게 그 단어, 에어첼리리슈(erzehlerisch)가 충분히 나의 꿈으로 들어왔을까 하고 고심했다. 그러자 다음에 나에게. 대신 들어간 e를 설명하는 동시에. 내가 어젯밤 매춘 문제의 이야기를

나의 여가정교사 에어치어린(Erzieherin)에게서 청을 받은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에 나는 실상 아주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그 여자의 감정생활에 교육적인 (erziehrish)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다음에 해세(H. Hesse)의 저서 《매춘론》을 빌려 주었다. 그때, 매독(Syphilis)이란 단어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취해지지 않고 성생활과의 관계에서 '독(毒・Gift)'을 대신하여 쓰여진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논리적이 된다. "나는 나의 설명(Erzählung)에 의해서 나의 여가정교사 에어치어린 (Erzieherin)의 감정생활에 교육적으로(erzieherisch) 감화를 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동시에 유해하게(독을 주듯이, vergiftend) 작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걱정했다. '에어체필리슈(Erzefilisch)'는 '에어체(erzäh-)'와 '에어치 (erzieh-)'의 합성어였다."

꿈의 어변조(語變造)는 파라노이아(Paranoia, 편집증)에서 생기는 것이나, 히스테 리증과 강박 관념에서도 발견되는 어변조와 대단히 비슷하다. 사실상 일정한 때에 언어를 어떤 물건과 같이 취급하고, 또 새로운 언어나 인위적인 문장 구조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말 기술은 이런 뜻에서 신경증에 있어서와 같이 꿈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원천이다.

꿈에서의 아무런 의미 없는 언어의 형성을 분석하는 일은 꿈 작업을 압축하는 능력을 표시하기에 특히 알맞다. 독자들은 이런 일이 드물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나, 예외적으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반대로 이것은 대단히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꿈 해석은 정신 분석적 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극히 적은 실례가 주목되어 보고되고, 또 그 보고된 분석도 대체로 다만 신경증 병리학의 전문가에게만 이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일은 아마 대단히 빈번할 것이다.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신조어 '스핑눔 엘피(Svingnum elvi)'를 포함한 폰 카르핀스카(L. von Karpinska) 박사의 꿈이 (《국제 정신 분석학 잡지》제2권, 1914년) 그것의 한 예이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즉 그 경우란, 그 자체가 매우 깊은 뜻을 가진 언어가 꿈에서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총괄하고, 그 본래 언어는 마치 의미 없는 말

과 같이 다른 의미와 관계하는 경우이다. 타우스크(V. Tausk)가 보고한 열 살 난 사내아이의 범주의 꿈이 그것이다.(《유아 성욕의 심리학을 위하여》 《국제 정신 분석학 잡지》 제1권, 1913년). 이때 '범주(Kategorie)'는 여성 생식기를 의미하고, '범주에 넣다(kategorisieren)'는 방뇨(放尿)를 뜻한다.

특히 사상과 구별되는 대화가 꿈에 나타날 때에, 꿈속의 이야기가 꿈 재료 속에 기억되어 있는 대화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예외 없는 법칙으로서 타당하다. 대화의원문은 손상을 받지 않은 채 간직되거나, 또는 표현의 과정에서 조금 변하거나 할뿐이다. 때때로 꿈에서의 대화는 여러 대화의 기억에서 조각조각으로 이어지고,이때 원문은 본 그대로이나, 그 의미는 변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있다. 꿈에서의 대화는 종종 기억된 대화가 이뤄졌던 한 사건을 단순히 암시하는데에 쓰인다.

# 2. 이동(移動) 작업

우리들이 꿈 압축의 실례를 수집하는 동안에, 이와 다른 아마 적지 않게 의미 있는 관계가 이미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꿈 내용 속에 여러 본질적 성분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가 꿈 사상에서는 결코 동일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립적 생각으로서 사람들은 또 이 명제를 뒤바꾸어 볼 수도 있다. 꿈 사상 중에서 뚜렷이 본질적 내용인 것이 반드시 꿈에 나타나야 되는 법은 없다. 꿈은 말하자면 꿈 사상과는 다르게 집중적이고, 꿈 내용은 하나의 중심점으로서 꿈 사상과 다른 여러 요소의 주변에 배열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식물학 연구 논문의 꿈'에서의 꿈 내용의 중심점은 뚜렷이 식물학이란 요소

9 강박 관념에 걸렸으나, 그 이외의 기능은 정상적이고 지적으로도 대단히 발달한 한 젊은 남자에게서, 나는 최근에 상술한 법칙의 유일한 예외를 발견하였다. 그 남자의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서 들은 것이거나, 혹은 스스로가 행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깨어 있을 동안에 다만 변형되어 서 의식에 오른 그의 강박 관념의 왜곡되지 않은 문구와 일치하였다. 이다. 꿈 사상에서는 동업자 사이의 의무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내가 나의 도락(道樂)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 습관을 가졌다는 비난이 문제된다. 식물학이란 요소가, 만일에 그것이 대립적으로 막연히 그에 관계되지 않는다면 꿈 사상의 핵심에서 결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식물학은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연구 과목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환자의 '사포의 꿈'에서는 '승강(昇降)과, 상하층에 있는 것'이 중심점이 되어 있다. 그러나 꿈은, '낮은 신분'의 사람과의 성적 관계의 위험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꿈 사상의 여러 요소 중의 하나만이 어울리지 않게 확대되어 꿈 내용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이 보인다. '딱정벌레의 꿈'에서도 비슷하다. 이 꿈의 주제는 성욕의 잔인성에 대한 관계이고, 그 잔인성의 요소는 물론 꿈 내용 속에 다시 나타났으나, 다른 것과 결합하고 아무런 성욕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본래의 관계로부터 떠나서 아무런 인연이 없는 어떤 것으로 변형되어 있다. 그리고 또 나의 '백부의 꿈'에서는 이 꿈의 중심점으로 보이는 금빛 수염은, 우리들이 꿈 사상의 핵심으로 인정한 입신출세의 소망과 이론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따라서 이런 꿈들은 당연히 '이동'이 이뤄졌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실례와는 아주반대되는 것이 '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이다. 이 꿈은 개개의 요소가 꿈을 형성할 때에, 그것이 꿈 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똑같은 위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보여 준다. 꿈 사상과 꿈 내용 사이에 있는 이런 새롭고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관계를 알면 우리들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리들이 한 관념을다른 많은 관념 속에서 골라 내고,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특별한 생기를 얻게 되는사실을 정상적인 어떤 심적 과정에서 발견한다면 이 결과를 우리들은, 승리한 관념이 특별히 높은 정도의 심적 가치(어느 일정한 관심)를 가진다는 사실의 증명으로 간주하기 쉽다. 꿈 사상에서 어느 것이 가장 가치 높은 요소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문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판단이 그것을 직접 우리들에게 말해 주기 때문이다. 꿈을 형성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강한 관심으로 강조되는 요소는, 마치 그요소가 가치 없는 요소와 같이 취급되고 꿈 사상에서는 확실히 가치도(價值度)가 얕은 다른 요소들이 꿈 내용에 나타난다. 이것으로써 우리들은 처음으로 개개의

관념의 심적 강도<sup>10</sup>가 아니라, 여러 관념의 다소 다면적인 피규정성(被規定性)만이고려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 사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 사상에 여러 번 되풀이되어 포함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꿈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면적 피규정성과 독자적인 가치라는 두 요인이 꿈 선택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꿈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은, 아마가장 빈번하게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관념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꿈 사상은 중심점에서와 똑같이 그 사상으로부터 빛을 내쏘기 때문이다. 그리고 꿈은, 특히 강조되고 여러모로 지지를 받는 요소를 거부하고, 다만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특색만을 가진 요소를 꿈 내용 속에 채용할 수도 있다.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꿈 내용의 다면적 피규정성을 음미할 때에 받는 다른 인상을 이용할 수 있다. 아마 이미 많은 독자들은 꿈 내용의 다면적 피규정성이 자명한 것이므로, 결코 중대한 발견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분석함에 있어서 꿈의 여러 요소들로부터 출발하고, 이 요소들과 결부되는 모든 생각을 기록한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관념 재료 중에 이런 여러 요소가 특별히 빈번하게 다시 발견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바 없다.

나는 위의 항의에 복종할 수 없지만, 이 항의와 조금 비슷하게 들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즉 분석이 뚜렷하게 만드는 관념 중에는 꿈의 핵심으로부터 동떨 어지고 어떤 정해진 어떤 목적 하나를 위하여 일부러 거기에 삽입된 것처럼 보이 는 관념이 많다. 우리들은 이 관념의 존재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이 관념들은 꿈 내용과 꿈 사상을 무리하게 혹은 일부러 결합시킨다.

만일 이런 요소들이 분석에서 제외되면, 꿈 내용의 구성 요소들의 피규정성뿐 아니라 때때로 꿈 사상에 의한 확실한 결정마저도 놓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꿈 선택을 결정하는 다면적 규정이반드시 언제나 꿈 형성의 일차 동기는 아니며, 종종 우리들이 알지 못한 어떤 마음

<sup>10</sup> 어떤 표상의 심적 강도, 가치도, 관심의 강조는 물론, 감성적 강도와 표상된 것의 강도와는 구별된다고 생각되어야 한다.

의 힘의 이차적인 소산일 때도 있다고. 그러나 다면적 규정은 여하튼 개개의 요소가 꿈속에 들어가는 데에 틀림없이 중대하다. 왜냐하면 그 규정은 그것이 꿈 재료로부터 원조 없이 생기는 경우에, 이의 생성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꿈 작업에 다음과 같은 어떤 심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심적으로 가치도가 높은 여러 요소를 헐벗기는 한편에, 다면적 규정성의 길을 통해서 가치도가 얕은 여러 요소로부터 새로운 가치 있는 여러 요소를 만드는 힘이 그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 새로운 여러 요소는 꿈 내용 속에 들어온다. 이런 실정이라면 꿈을 형성함에 있어서 개개의 요소의 심적 강도의 이동이 생긴 것이 된다. 꿈 내용과 꿈 사상의 액면의 차이는 바로 이 이동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곧 꿈 작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과정은 꿈의 이동으로 불리어도 좋을 것이다. 꿈의 이동과 압축은 두 직공(職工)과 같다. 이 직공의활동에 우리들은 꿈의 형성을 돌려도 좋을 것이다.

꿈 이동의 여러 사실에서 발휘되는 심적 능력은 쉽게 인식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이동의 결과로 꿈 내용은 벌써 꿈 사상의 핵심과 비슷하지 않으며, 꿈은 단지 무의식계의 꿈 소망의 왜곡만을 우리들에게 전해 준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꿈 왜곡에 관해서 알고 있다. 우리들은 꿈 왜곡을 관념생활 중에서 한 심적 심급이다른 심적 심급에 대해 행하는 검문의 결과라고 보았다. 꿈 이동은 이 왜곡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이익을 취하는 쪽이 그것을 행했다." 꿈 이동은 내부의 심적 방어인 저 검문의 영향에 의해 생긴다고 우리들은 긍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

11 나는 나의 꿈 이론의 핵심을 꿈 왜곡을 검열에 귀착시키는 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링코이스(Lynkeus)의 《어떤 현실주의자의 공상》(비엔나, 제2판, 1900년)에 수록된 〈깨어 있는 것 같은 꿈〉이라는 소설의 끝 부분 한 토막을 소개한다. 거기에는 나의 이론의 주요한 특성이 묘사되어 있다. "결코 무의미한 꿈을 꾼 적이 없는 이상한 성격의 남자에 관해서……." "너의 훌륭한 특성, 즉 깨었을 때와 같이 꿈꾼다는 특성은, 너의 덕·선의·공평·진리애(真理愛)에 의존하고 있다. 너에 관한 일체를 나에게 알리는 것은 너의 본성의 도덕적인 명확성(明確性)이다." 상대방이 대답한다.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모든 인간이 나와 같이 창조되었다고 거의 믿는다. 그리고 무의미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열(熱)에 의한 꿈이 아니고 나중에도 뚜렷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꿈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동·압축·피규정성 등의 여러 요소가 어떻게 섞여 있는 가, 또 어떤 요소가 주도적 요소가 되고 어떤 것이 종속적 요소가 되는가? 이 문제의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자. 우리들은 우선 꿈속에 들어오는 여러 요소가 채워져야 하는 제2의 조건으로 다음을 말해 두자. 즉 그 여러 요소는 저항의 검문을 뚫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들은 꿈 이동을 꿈 해석에서 의심 없는 사실로 간주하고 싶다.

### 3. 꿈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

우리들이 잠재적 관념 재료가 현재적 꿈 내용으로 변할 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던 꿈 압축과 꿈 이동의 두 조건 외에 연구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 다른 새로운 두 조건들을 직면하게 된다. 이 두 조건은 꿈속에 채용되는 재료를 선택하는 데에 확실히 영향을 끼친다. 먼저 나는 우리들의 연구를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꿈 해석을 완성시키는 여러 과정을 잠깐 더듬고자 한다. 만일여기서 내가 어떠한 꿈을 실례로 채용하고, 앞에서 '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에서 보였듯이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한 꿈을 실례로 들어 해석하고, 내가 발견해 낸 꿈사상들을 모아서 이들로부터 꿈 형성을 재편성하는, 즉 꿈 분석을 통해 꿈을 종합

있는 꿈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면 우스꽝스럽다. 모순된 것이 왜 하나에 통일될까? 시간과 공간이 혼돈되어 있으나 꿈의 본래의 내용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꿈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깨어 있을 때에도 그렇게되지 않는가? 동화나, 대단히 대담하고 뜻이 깊은 공상적인 산물을 생각해 보자. 그런 것에 대해서 머저리만이 '그런 것은 몰상식한 것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친구는 말했다. "네가나의 꿈을 해석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모두 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조금만 주의하면 그것은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것은 대체로 되지 않는가? 즉 당신들의 꿈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는 것 같다. 특별한 복잡하고 불순한 것, 생각해도 붙잡히지 않는 어떤 것이 당신들의 본성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꿈은 대체로 무의미하고, 때로는 아주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가장 깊은 곳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눈을 뜬 것도 꿈을 꾸는 것도 같은 사람이 행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 과정을 밝히고 반론에 대해 그것들이 믿을 수 있는 것임을 확신시키는 데 성공하는 방법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 일을 나는 나 자신의 많은 교훈적 실례를 들어가면서 완성해 왔으나,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심적 재료를 공정하게 숙고하고 분별하는 여러 사람의 타당한 숙고가 나에게 그런 설명 방법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숙고는 꿈을 분석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분석이 꿈의 복잡한 내부에 조금밖에 돌진하지 못하더라도, 분석은 여하튼 불완전하게나마 그 자신의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종합에 관해서는 분석이 독자에게 납득되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다만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꿈에 관한 완전한 종합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나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꿈에 관한 설명의 이 부분은, 내가 다른 곳에서 신경증을 심리학적으로 넓게 설명해서 그 설명이 우리들의 주제와 만날 때까지 보류될 것이다. 꿈 사상으로부터 꿈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통해, 나는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료들이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료의 일부는 본래 여러 꿈 사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꿈 사상은 만일 꿈에 검열이 없다면 꿈을 완전히 대리하고 꿈의 대용품이 될 것이다. 재료의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생각되기 일쑤다. 또한 이런 꿈 사상들이 전부 꿈 형성에 참여했다는 주장 역시 별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모든 꿈 사상이 꿈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했다기보다 도리어 꿈 사상 중에는 꿈을 꾼 뒤에 꿈꾼 시점과 해석하는 시점 사이의 여러 체험과 결부된 생각들이 섞일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적 꿈 내용에서 잠재적 꿈 사상으로 통하는 모든 결합의 길을 포함할 뿐 아니라, 해석하는 동안 꿈 내용과 꿈 사상을 매개하고 접근시키는 여러 연상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래의 본질적 꿈 사상이 전적으로 우리들의 관심사가 된다. 이 꿈 사상은 보통 우리들이 잠에서 깨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여러 사고 과정의 특성 일

<sup>12</sup> 나는 그 후에 두 꿈의 완전한 분석과 종합을 《어떤 히스테리 분석의 단편》(1905년)에서 행하였다. 비교적 긴 꿈의 완전한 꿈 해석으로서는 오토 랑크의 《자신을 해석하는 꿈》의 분석이 인정되어야 한다.

체를 갖춘, 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상과 기억의 복합체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중심에서 출발하나 접촉점을 결핍하고 있지 않는 관념 계열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사고 과정의 옆에는 거의 규칙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적대 행동이 존재하며, 양자는 이 대조 연상을 통해 결합되어 있다.

이 복잡한 형성물의 부분 하나하나는 여러 면으로 논리적인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그 개개의 부분은 전경이나 배경도 되고, 탈선적인 객담(客談)이나 주석도 되며, 조건도, 증명 과정도, 항변도 된다. 그리고 이 꿈 사상의 덩어리 전체가 꿈 작업에 억압을 받게 되어, 그 속의 부분들이 떠도는 얼음과 같이 서로 파괴되고 서로떠밀어지면 여태까지 결합하고 있던 논리적 유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우리들이 문장이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접속사, 즉 '만일에', '……때문에', '마치……과 같이', '……라 하여도', '……인가 또는 ……인가'와 이밖의 모든 접속사들은 어떻게 꿈에서 표현되는가?

우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를 표현할 능력을 꿈이 가지지 못했다고. 꿈은 개개의 꿈 사상 사이의 논리적 여러 관계를 표현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대부분의 경우, 꿈은 이 일체의 접속사를 무시하고 꿈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만을 취해서 가공한다. 그러므로 꿈 작업이 파괴한 관련을 복구하는 것은 꿈 해석의 몫이다.

꿈에서의 이 같은 표현 능력의 결핍은 꿈을 가공하는 심적 소재의 성질 때문이다. 언어를 쓰는 문학과 비교하여, 그림이나 조각 같은 예술은 꿈과 비슷한 표현의 제 한을 받는다. 그리고 그림이나 조각의 무능력의 원인은, 두 예술이 재료에 가공하 여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 재료 때문이다. 그림은 그것에 알맞은 표현 법칙을 인식하기 전까지 이 단점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옛 그림에서는, 그림 의 인물의 입 위에 종이 조각을 매달아 놓고 그 조각 위에 화가가 그림으로써 표현 할 수 없는 글을 표시했었다.

아마 여기서, 꿈이 논리적 관계의 표현을 처리할 수 있다는 논박이 제기될 것이다. 물론 꿈은 여러 가지이다. 즉 이 꿈들 속에는, 마치 깨었을 때와 같이 가장 복잡한 정신 작업에 의해서 증명되고 반박되며 익살을 부리고 비교되는 따위의 꿈들이 있 다. 그러나 이때에도 또한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꿈들을 해석해 보면 그 모든 해석이 꿈 재료일 뿐이지 결코 꿈속에서의 지적 활동의 표현이아님이 밝혀진다. 꿈에서 외관상의 사고에 의해 재현되는 것은 꿈 사상의 '내용'이지 꿈 사상들의 상호 관계가 아니다. 이 상호 관계가 확립될 때에 사고가 성립된다. 나는 이에 관한 실례를 들 것이다. 꿈에 나타남으로써 꿈이라고 명시되는 모든이야기가, 꿈 재료의 기억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이야기 그대로의 묘사이거나 혹은조금만 수식된 모방이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꿈에 나오는 이야기는 꿈 사상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건에 대한 암시에 지나지 않으며, 꿈의 의미는 이것과는아주 다른 것이다.

물론, 나는 꿈 사상의 재료를 되풀이만 하지 않고 꿈 형성에 참여하는 비판적 사고 작업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 요소의 영향을 이 책의 끝에서 밝 혀야 할 것이다. 그때에 이 사고 작업이 꿈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뜻에서 이미 완성된 꿈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꿈 사상 사이의 논리적 여러 관계가 꿈에서 특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말하여 두자. 예를 들면 꿈에 모순이 있을 때에, 그 모순은 꿈 자체에 대한 모순이거나 혹은 꿈 사상의 한 내용에서 비롯된 모순이다. 꿈 사상들 '사이'의 모순은 꿈 자체에 대한 모순과 매우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일치한다.

그러나 그림의 기술이 결국 표현된 여러 인물에서 묘사하려는 것, 적어도 그 인물들이 말하려는 의도, 그들의 애정·위협·경고 등을 펄펄 날리는 종이 조각 이외의 방법으로 묘사하는 데에 성공하였듯이, 꿈에도 그 꿈의 사상 사이의 논리적 관계들의 하나하나에 본래의 본질적 꿈 표현의 적절한 변경을 가함으로써 고려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관점에서 꿈이 제각기 다른 것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꿈은 전적으로 그 재료의 논리적 연결을 무시하며, 또 어떤 꿈은 그연결을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히 암시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꿈은 꿈에서 가공하고 있는 맥락과 다소 멀리 떨어진다. 꿈도 역시 만일에 꿈의 시간적 관계가 무의식속에서 형성되어 있으면 (예컨대 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과 같이) 이 역시 논리적 관계처럼 꿈마다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꿈 작업은 어떤 수단으로 표현이 곤란한 꿈 재료 속에서의 여러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가? 이 수단을 나는 하나씩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로 꿈은 이 재료를 한 상황 내지 한 사건으로서 종합 · 통일함으로써 꿈 사상의 모든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할 수 없는 관련을 대체로 올바르게 표현한다. 꿈은 시간의 동시성으로 논리적 관련성을 재현한다. 즉 그 그림을 보는 측에서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결코 아테네(Athen)의 광장이나 파르나소스 (Parnass) 산의 꼭대기에 있을 리 없는 개념상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없는 철학자나 시인을, 그림 속에 모두 함께 그려 넣는 화가의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꿈은 개개의 부분에서도 사용한다. 꿈이 두 개의 요소를 서로 접근시킬 때에, 언제나 꿈은 꿈 사상 속에 있는 여러 요소와 대응하는 것들 사이에 있는 긴밀한 관련을 증명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철자법에서와 같다. 즉 ab를 한 음절로 보고 한숨에 발음하여야 하고, a 있은 후 조금 간격을 두고 b가 쓰이면, a는 앞의 말의 끝의 글자이고 b는 뒤의 말의 처음 글자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꿈에서의 결합은, 꿈 재료의 임의대로의 동떨어진 여러 구성 성분이 아니라, 꿈 사상에서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여러 구성 성분들로 조합된다.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꿈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꿈 사상이 "이것은 이러이러하였기에 이러이러한 것이 일어나야 했었다."고 표현하는 데에 빈번히 사용하는 설명 방법은, 부문장(副文章, '……이므로')을 서두적(序頭的)인 꿈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에 주문장(主文章, '……이다')을 본론적인 꿈으로 덧붙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인과 관계의 설명의 훌륭한 실례를 어떤 여환자가 나에게 전해 주었다. 이 꿈에 대해서 나는 나중에 완전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다. 이 꿈은 짧은 서곡(序曲)과, 대단히 긴 본론으로되어 있는데, 이 꿈 부분은 참으로 잘 짜여져 있고, 아마〈꽃에 의해서〉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서두적인 꿈은 이렇다. 그 여자는 부엌에 있는 두 하녀에게 가서 '한두 입에 다 먹을 것을' 무얼 그렇게 우물거리느냐고 꾸짖는다. 이때 이 여자는 부엌에 대단히 많은 엉성한 접시가 마르게 뒤집힌 채 높이 쌓인 것을 본다. 하녀들은 모두 물을 길러 간다. 물을 긷자면 강 같은 어떤 곳에 들어가야 한다. 그 강 같은

것이 집의 바로 곁인지, 마당가에까지 와 있다.

다음에 꿈의 본론이 덧붙여진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 여자는 높은 곳에서 참으로 괴상하고 엉성한 난간을 따라 아래로 내려온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려올 때에 자기 옷이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꿈의 전주곡은 이 부인의 부모의 집을 나타낸다. 그 여자는 실제로 꿈에서의 잔소리를 어머니로부터 몇 번이고 들었다. 접시 더미는 동일한 집에 위치하고 있는 사기 상점에서 온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언제나 하녀들과 관계가 많았고, 홍수 때에—집은 강가에 접해 있다—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아버지와 관련된다. 서론적인꿈 뒤에 숨겨져 있는 사상은 다음과 같다. 즉, 나는 이런 집, 이런 조그마한 불쾌한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다. 본 줄기의 꿈은 똑같은 사상을 다시 취하고 그것을 소망 충족에 의하여 변화된 형식으로 가져온다. 즉, '나는 양가(良家)의 출신이다.' 그러므로 본래 사고는 이렇다. '나는 이런 낮은 신분의 출신이므로 나의 생애는 그렇고 그랬다.'

내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꿈이 불균등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부분의 사상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두 꿈에서 같은 재료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된 것같이 보이는 일도 종종 있다. 이것은 확실히 육체적 요구가 점차로 뚜렷한 표현을 취할 수밖에 없는 몽정으로 끝나는 일련의 밤 꿈엔 타당하다. 혹은 두 꿈이 꿈 재료의 서로 다른 중심에서 생기고, 내용이 서로 교차한다. 그래서 한쪽 꿈에서는 암시로 작용하던 것이, 다른 꿈에서는 중심이 된다. 그러나 어떤 꿈에서 비교적 짧은 서론적인 꿈과 비교적 긴 주된 꿈으로 분열되는 것은, 실제로 양자 사이에 있는 인과 관계를 의미한다.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재료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 사용된다. 이 방법은 사람이건 사물이건 한 상(像)이 다른 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꿈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만 인과 관계를 진지하게 주장할 수 있다. 단지 우리들이 어떤 것 대신에 다른 것의 등장을 인정할 때에 그 관계는 주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위에서 이 두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두 경우들에서 모두 원인은 계열적으로 표현되는데, 한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전후 관계들에서 모두 원인은 계열적으로 표현되는데, 한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전후 관계

로 표현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의 한 상(像)의 직접적인 변화로 표현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물론 인과 관계는 조금도 표현되지 않고, 꿈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요소의 전후 관계 속에 파묻힌다.

꿈은 대체로 '……든가 또는 ……든가'라는 양자택일을 표현할 수가 없다. 꿈은 양자택일의 두 항(項)을 마치 똑같은 자격인 양, 하나의 관련 속에 채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르마에게 주사를 놓는 꿈은 그것의 훌륭한 한 예이다. 그 주사에 관한꿈의 잠재 사상은 이렇다. 즉, 이르마가 여전히 괴로워하는 것에 대하여 나에게는책임이 없다. 그 책임은 그 여자가 해결책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그 자신의 반항에 있든가, 또는 나의 힘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불리한 성적 여러 조건 아래에 그여자가 살고 있다는 점에 있든가, 또는 그 여자의 고통이 대체로 히스테리성의 것이 아니라 기질적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꿈은 이런 모든 상호배타적인 가능성을 열거하고, 꿈 소망의 입장에서 제4의 해결책을 서슴지 않고 덧붙인다. 그리고 나는 꿈 해석을 끝마친 후에 '……든가 또는 ……든가'를 꿈 사상의 맥락 속에 끼어 넣었다.

그러나 꿈을 이야기하는 자가 자기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원이었든가 또는 방이었든가 ……." 등의 '……든가 또는 ……든가'를 쓰고자 할 때에는, 우리들은 아직도 더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꿈의 희미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자택일에 대한 해석 방식은 이러하다. 즉 외면상의 양자택일의 각 항(各項)을 서로 동등하게 취급하고, '그리고'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친구의 주소를 나에게 알려 주는 전보를 받는 꿈을 꾸었다. 전보용지 위에 붉은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데. 첫 글자가 분명하지 않다.

비아(Via)인지 또는 빌라(Vila)인지 혹은 카사(Casa)일지도 모른다. 둘째 낱말은 뚜렷이 세체르노(Sezemo)로 보인다.  $^{13}$ 

이탈리아 이름과 같이 발음되고 우리들의 어원학적 논의를 나에게 상기시키는 두 번째 낱말은 나의 역정을 표현한다. 이 역정은 그가 또 오랫동안 그의 거처를 나에

<sup>13</sup> via는 '~를 경유하여'란 의미. villa는 '별장'이고 Casa는 '집'의 의미. 세체르노는 '비밀'을 뜻하는 '세그 레토(segreto)'와 발음이 비슷하다.

게 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이름에 대한 삼자택일의 각 항을 분석해 보니, 관념 연쇄(連鎖)의 독립 적이고 동등한 출발점으로 인정된다.

나의 부친의 장례 전날 밤에 나는 인쇄된 게시판, 즉 하나의 플래카드 또는 인쇄된 종이의 조각—아마 기차 정거장의 대합실에 있는 금연을 알리는 종이인 듯한 물건의 꿈을 꾸었다.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읽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두 눈을 감으시기 바람.

이든가.

한 눈을 감으시기 바람.

이든가 이다. 이런 경우 나는 이것을 다음 형식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두/한 눈을 감으시기 바람.

이 두 글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꿈 해석에서 우리들은 특별한 길을 따라서 걷게 된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런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게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런 청교도식의 간소화에 찬성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런 간소화를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위의 한쪽 문장은 '한 눈을 감는다(ein Auge zudrücken: 이것은 '인내한다'의 뜻이다),' 즉 '관대하게 보아달라'고 된 것이다. 꿈사상 때문에 통일적이면서도 다의적인 문장을 만들려는 것은 꿈 작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이미 꿈 내용 속에서 두 개의 주요한 사상 계열은 서로 갈라졌다.

몇 가지 경우에, 꿈의 양분은 표현하기 어려운 이자택일을 똑같은 크기의 두 부분

으로 표현한다.

아주 뚜렷한 것은, 대립과 부정이란 범주에 대한 꿈의 태도이다. 꿈에서 이 범주는 아주 무시된다. 꿈에는 아니다가 아예 없는 것 같다. 꿈은 대립물을 특히 즐겨 통 일에로 환원하거나, 혹은 한번에 표현한다. 꿈은 또한 어떤 요소든지 꿈이 바라는 대립물에 의해서 표현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반대물을 가 질 수 있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그 요소가 꿈 사상 속에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 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처음에는 알 수 없다.⁴ 위에서 말한 한 꿈에서의 서론 적인 부분을, 우리들은 '나는 이런 신분의 출신이므로'라고 해석했다. 이 꿈에서 꿈 을 꾼 여자 본인이 난간을 내려온다. 이때에 그 여자는 꽃이 핀 나뭇가지를 두 손 에 들고 있다. 여기서 이 여자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천사(가브리엘)가 마리 아의 잉태름 고하는 (이 여자의 이름도 마리아이다) 그림에서 푸른 가지로 장식된 시가에서 천사가 백합꽃을 손에 들고 성체절(聖體節) 축일의 행렬에 참가하는 장 면이다. 그 꿈에서의 꽃가지는 틀림없이 성적 순결의 한 암시이다. 그러나 그 가지 에는 동백꽃 비슷한 붉은 꽃이 많이 피어 있다. 길이 끝날 즈음에는 그 꽃이 대부 분 떨어지고 만다. 그 후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월경에의 암시가 나타난다. 그러므 로 백합과 같이 처녀의 손에 기대듯이 쥐어 있는 이 작은 가지는, 동시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통 때에는 흰 동백꽃을 달고 있으나 월경 때에는 붉은 동백꽃으로 바 꾸는 춘희(椿姫)의 암시이다. 이와 같이 꽃이 핀 가지는 (괴테의 《방아 찧는 여인 의 노래》의 '아가씨의 꽃') 성적 순결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 반대도 표명한다. 순결 한 몸으로 인생을 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이 여자의 기쁨을 표현하는 이 꿈은, 또 몇 곳(예컨대 꽃이 떨어지는 곳)에서 자기가 성적 순결에 대한 여러 가지 죄를 여러 번 범하여 왔다는 (물론 유년 시절에) 반대의 생각을 보여 준다. 꿈을 분석함

14 아벨(K, Abel)의 《원시어의 반대 의미》(1884년)(연감II, 1910년에 게재된 나의 보고를 참조)에서 나는 이런 놀라운, 다른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해서도 확증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 즉 가장 오래된 언어는 이 점에서 꿈과 꼭 같다는 점이다. 고대 언어는 여러 질서 계열 또는 행위 계열의 두 극한에 있는 대립 물을 처음엔 단 한마디로 표현했다(강약·노소·원근·결합·분열). 그리고 공통의 원시어를 조금 바 꿈으로써 대립하는 두 극단을 나중에 각기 표현하게 되었다. 아벨은 이런 관계를 고대 이집트어에서 대규모로 지적하고 있으나, 또 동시에 셈 어(語)나 인도 게르만 어(印歐語) 중에도 같은 발전이 뚜렷이 남아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에 있어서 우리들은 뚜렷하게 이 두 사고 과정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두 과정 중의 위무(慰撫)적인 편은 표층(表層)에 있고, 비난하는 편은 심층(深層)에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양자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양자의 균등하나 정반대되는 여러 요소가 동일 한 꿈 요소를 통해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꿈을 형성하는 심리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여러 관계 중의 한 관계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유사성·합치성·접촉의 관계, 즉 '마치 ······같이'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꿈에서 다른 관계와는 아주 다르게 풍부한 수단으로 표현될 수 있다. <sup>5</sup> 꿈 재료 속에 있는 일치 및 '마치 ······같이'의 경우는 물론 꿈을 형성하는 첫 동기이고, 꿈 작업의 태반은 현존의 일치들이 저항·검열 때문에 꿈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 그러한 일치를 새로이 만든다. 꿈 작업의 압축 경향은 유사성 관계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꿈은 '유사성·합치·공통성'을, 꿈 재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통일성'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 통일성으로 집결시킴으로써 표현한다. 전자의 경우는 이것을 '동일화', 후자의 경우는 이것을 '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문제될 때에는 동일화의 수단이 이용되고, 사물이 통합의 재료가 될 때는 혼합화의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사람의 혼합화도 있다. 토지는 곧잘 인간과 같이 취급된다.

동일화의 본질은, 하나의 공통점에 의해서 결부되어 있는 몇 사람 중의 한 사람만이 꿈 내용 속에 나타나는 데 반하여, 제2·제3의 인간은 꿈에서 억제된 것 같아보인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나는 이 인물은 이 인물이나 혹은 여러 인물에 연유한 여러 관계와 여러 상황 속에 들어온다. 인물에 미치는 혼합화에서는 이미꿈 형상 속에 있는 여러 인물의 독특하나 공통적이 아닌 여러 특징이 있다. 이결과로 이 여러 특징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통일체, 하나의 혼합 인물이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혼합 자체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꿈속의 인물은 그것과 관계하고 있는 여러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빌려오나—그런 경우,우리들은 깨어 있을 때에 인식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인물 또는 저 인물의

<sup>15</sup> 꿈 점쟁이가 되는 자격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참조(이 책의 제2장 주(註) ②).

일이구나 하고 인식한다—얼굴의 모습을 다른 한 인물로부터 가져오는 일도 있으며, 또 꿈의 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쌍방의 인물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시각적 특징에서 합성되는 일도 있다. 제2 인물은, 시각적 특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2 인물의 몸가짐 · 표정, 그 제2 인물이 그 속에 던져지는 상황을 가지고 참가한다. 이 최후의 특징화에서는 동일화와 혼합 인물의 형성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또 이러한 혼합 인물의 형성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꿈의 장면은 한쪽의 인물에 돌려지고, 또 한쪽의 인물은—이편이 대체로 더중요한 인물이다—그 자리에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방관자로서 그곳에 등장한다. 꿈을 꾼 사람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 "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슈테켈)." 꿈 내용의 이런 요소는 입 밖으로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글자 기호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한정어(限定語)와 비교될 것이다.

두 인물을 통합하는 기초가 되는. 말하자면 통합의 계기가 되는 공통점은 꿈에 나 타나기도 하며,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대체로 동일화나 또는 혼합 인물의 형성은 바로 이 공통점의 묘사를 생략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A는 나에게 적의를 갖고 있 으며 B도 그렇다."를 되풀이하는 대신에, 나는 A와 B를 합쳐 하나의 혼합 인물을 만들어 낸다. 혹은 B의 특징적인 행동을 하는 A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렇게 만들 어진 꿈속의 한 인물은, 어떤 새로운 관계 속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한 인물이 A 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는 사정에서. 나는 꿈 판단의 그럴싸한 곳에 두 인물에 공통적인 것, 즉 나에 대한 적의를 끼어 넣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써 나는 때때로 꿈 내용에 대한 아주 특수한 압축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내가 이런 여 러 관계의 일부분에 똑같은 관계를 가진 제2의 인물을 발견할 수 있으면, 한 인물 에 속한 대단히 복잡한 여러 관계를 직접 묘사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화에 의한 그 런 묘사 방법이 꿈 작업을 참으로 가혹한 여러 조건에 결부시키고 있는 저항의 검 열을 회피하는 데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는 쉽게 이해될 것이다. 검열의 동기는 바 로 재료 중에서 그 인물과 결합하고 있는 저 여러 관념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제2의 인물을 발견한다. 이 제2의 인물은 문제의 재료에 대해서 첫 인물과 똑같이 여러 관계를 가지지만, 이 관계는 그 문제의 재료 중의 단지 일부분에 대 한 관계이다. 검열의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의 접촉은, 이제는 나에게 양쪽에서 무의미한 특징으로 규정된 한 개의 혼합 인물을 형성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혼합 인물, 그리고 동일화 인물은 자유롭게 검열을 통과해서 이제 꿈 내용 속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나는 꿈 압축을 이용하여 꿈 검열의 여러 요구를 만족시킨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표현되어 있는 꿈에서는, 공통점은 보통 다른 숨은 공통점을 찾는 하나의 암시이지만, 숨은 공통점은 검열에 걸려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여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통점이 이동하고 있다. 무의미한 공통점을 가진 혼합 인물이 꿈에 나타난다는 데에, 결코 다른 무의미하지 않은 공통점이 꿈 사상 속에 잠재하고 있다고 추측하여도 무방하다.

동일화 혹은 혼합 인물의 형성은 꿈속에서, (1) 두 인물의 공통점의 표현, (2) 이동 (移動)한 공통점의 표현, (3) 단지 소망된 공통점의 표현이란 여러 목적에 이바지한 다. 두 인물 사이에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은 종종 그 두 인물의 교환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교환 관계도 꿈속에서는 동일화에 의해 표현된다. 나는 이르마에게 주사 놓는 꿈에서, 이 여성 환자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기를 바라고, 따라서 마치 이르마가 나의 환자인 듯이, 다른 한 여자가 나의 환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 꿈은 그 이름이 이르마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 여성에 있어서만 그러한 위치를 볼 기회를 가진 그런 위치에서 진찰을 받는 한 인물을 나에게 보여 줄 때에 비로소 그 소망을 채워 준다. '백부의 꿈'에서의 중심점도 이 교환이다. 즉 나는 나를 장관과 동일화하고 나의 동료들을 얕게 취급하고 비난한다.

모든 꿈이 자기 자신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예외를 찾을 수 없었던 경험의 하나이다. 꿈은 철두철미하게 이기적이다. 꿈 내용에, 나의 '나'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나의 '나'가 동일화에 의해서 그 인물의 배후에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나'를 보충하여도 좋다. 나의 내가 꿈에 나타나는 다른 경우에도 '나' 뒤에 다른 한 인물이 동일화에 의해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알려진다. 꿈은 나에게서, 즉 꿈의 해석에 있어서 이 인물에 부착하고 있는 어떤 것, 즉 감추어진 공통점을 나 자신 위에 옮겨 준다고 경고한다. 나의 '나'가 다른 여러 인물과 나란히 나타나는 꿈도 있다. 이 여러 인물은 동

일화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나의 '나'로서 드러난다. 그때에 나는 이 동일화의 길을 통해서, 나의 '나'를, 검열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여러 관념들과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꿈에서 나의 '나'를 몇 겹으로, 즉 어떤 때에는 직접으로, 또 어떤 때에는 다른 인물들과의 동일화의 수단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몇 번이나 이런 동일화에 의해 대단히 풍부한 관념 재료가 압축된다. '6' 자기의 '나'가 어떤 꿈에 여러 번 나온다는, 또는 여러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은 의식적 사고에 있어서자기의 '나'가 여러 번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여러 장소 내지는 각각 다른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결코 의심할 것이 못 된다. 이러한 예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아이였는가를 내가 생각할 때'와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다.

동일화의 해소는, 고유명사로 호칭되는 장소에서는 꿈에서 권세를 부리는 '나'를 통한 방해가 없으므로, 인물에서보다도 그런 장소에서 더 쉽게 행해진다. 나의 여러 '로마 꿈' 중의 한 꿈에서, 내가 있는 곳은 로마가 된다. 나는 그곳의 어떤 길목에 독일어의 광고나 간판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독일어의 많은 광고나 간판은, 그것을 보면 바로 프라하를 생각하는 소망 충족의 하나이다. 이 소망자체는 오늘에는 벌써 극복된, 나의 젊은 시절의 독일 국수주의적인 시기에 유래한 것일 것이다. 그 꿈을 꾸었을 즈음엔 나는 프라하에서 친구를 만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로마와 프라하의 동일화는 바라던 하나의 공통점에 의해서 설명된다. 나는 나의 친구를 프라하에서보다 로마에서 만나고 싶었고, 이 회견(會見) 때문에 프라하와 로마는 교환되었다.

혼합물을 형성할 가능성은, 결코 지각 대상이 될 수 없는 여러 요소가 꿈 내용 속에 도입됨으로써, 여러 꿈에 종종 공상적 성격을 부여하는 여러 특색 중에서 으뜸을 차지한다. 꿈에 있어서의 혼합 때의 심적 과정은, 우리들이 깨어 있을 때의 반인반마(半人半馬)나 용 등을 생각하고 모조(模造)하는 때와 똑같은 과정임이 명백하다. 양자의 다른 점은, 깨었을 때의 공상적 창조에 있어서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인상 자체가 표준적인 것임에 반하여, 꿈의 혼합은 그 혼합의 형상 밖에 있는 계16 나는 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의 누구로부터 나의 '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때에. 보통이런 법칙에 따른다. 즉, 꿈에서 잠자고 있는 내가 지각하는 어떤 감정 아래에 굴복하는 인물은 그 배후에 나의 '나를 감추어 두고 있다.

기, 즉 꿈 사상 중의 공통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꿈은 참으로 잡다한 여러 방법으로 혼합된다. 한 사물의 여러 가지 특성만이 가장 꾸밈이 없이 자연 그대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것이 또 다른 한 대상에도 충당된다는 지식을 동반한다. 그것보다도 좀 더 정성을 들인 기교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여러 특색을 통합하여 새로운 형상을 형성하고, 이때 두 대상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사점을 오묘하게 사용한다. 새로 형성된 것은 아주 황당무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공상적이라고 할 만한 성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합성에 있어서의 재료와 기지에 따라 가능하다. 마땅히 하나의 통일체로 압축되어야 할 여러 대상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꿈 작업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여러 현실에 결부되어 있는 상당히 명료한 핵심을 가진 혼합체를 형성하는 데에 만족한다.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하나의 형상은 통합되지 못한다. 두 표현은 서로 겹치면서, 보이는 형상 사이의 다툼 같은 것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지각 형상을 가지고 여러 개념을 형성하려면, 그들은 하나의 그림 속에 그것과 비슷한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혼합물이 꿈에 넘쳐흐르고 있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두서너 예를 여 태까지 분석한 꿈에서 독자에게 보고해 두었으나, 이곳에서는 다른 것이 조금 덧붙여질 것이다. 한 여환자의 생애를 '꽃에 의해서' 혹은 '꽃으로 싼'으로 묘사한 꿈에서 꿈속의 나는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순결과 성적 죄과를 동시에 의미했던 꽃 핀 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가지는 꽃 핀 모양으로 보아서 특히 벚꽃을 떠올리게 한다. 꽃 자체는, 하나하나를 보아서는 동백꽃이고, 게다가 또 그 전체는 나에게 어떤 이국적 식물의 인상을 준다. 이 혼합 형성물의 여러 요소의 공통점은 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꽃이 핀 가지는 그 여자가 그것으로써 자신을 멋있게 했고, 또는 했어야 했던 여러 선물의 암시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유년 시절에 버찌가 그랬고, 후년에는 동백 줄기가 그런 선물의 암시였다. 이국적인 것은, 꽃 그림을 가지고 그 여자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어떤 자연 연구자, 여러 곳을 두루 여행한 자연 연구자에 대한 암시이다. 다른 여성 환자는 해수욕장에 있는 '해변가의 캐빈'과 시골의 변소와 도회지에 있는 아파트의 지하실로 되어 있는 혼합물

을 꿈에 형성했다. 첫 두 요소에 공통된 점은 사람이 피부를 드러낸 나체와 관련되 고, 또한 (그 여자의 유년 시절에는) 지하실이 사람이 피부를 드러낸 무대였음이. 셋째 번 요소의 결합에서 결론된다. 꿈을 꾼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는 두 곳을 섞 은 혼합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곳은 나의 진찰실과 그 환자가 처음으로 현재의 부 인과 알게 된 공개적 장소이다. 어떤 소녀는 오빠로부터 캐비아(Caviar)를 선물하 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오빠의 두 다리에 '검은 캐비어가 흠뻑 붙어 있는' 꿈을 꾸 었다. 도덕적 의미의 감염의 여러 요소와 다리에 검은 것이 아니라 빨간 알이 잔뜩 붙어 있는 것같이 보이는 유년 시절의 발진(發疹)의 기억이 이 꿈에서 캐비아로 결 합되어서, '그 여자 오빠로부터 받은 것'이란 새로운 한 관념을 만들었다. 인간 신 체의 각 부분은 다른 꿈에서도 그렇거니와 이 꿈에서도 물체와 같이 취급되어 있 다. 페렌치가 보고한 꿈은 한 의사와 한 필의 말로 되어 있는 혼합물이 잠옷을 입 고 있는 것이 꿈에 나타난다. 이 세 개의 구성 요인에 공통된 것은 잠옷이고. 이것 은 이 꿈을 꾼 여자의 유년 시절의 한 시기에 있어서의 아버지에 대한 암시라는 것 이 분석 끝에 알려졌다. 이 세 경우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여자의 성적 호 기심의 대상이다. 그 여자는 아이 때에 유모를 따라서 곧잘 육군의 종마(種馬) 사 육소(飼育所)에 갔었다. 거기서 그 여자는—그 당시 아직 아무런 억제를 받지 않았 다-자기의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시킬 기회를 가졌다.

나는 앞에서, 꿈이 부정 · 대립의 관계, '아니다'를 표현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대립으로서 총괄되는 경우의 일부는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같이, 단지 동일화에 의해서 교환, 즉 바꾸어 놓는 대비와 결합될 수 있을 때에는 꿈에서 표현된다. 우리들은 이 예를 거듭 표시했다. 꿈사상의 여러 대립 중의 일부는, 예를 들면 '거꾸로'나 '반대로'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대립 관계는 다음에서 설명되듯 참으로 기묘한, 거의 재치 있다고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으로 꿈에 표현된다. '거꾸로'는 그대로로는 꿈 내용에 들어가지 않으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이미 형성된 자명한 꿈 내용의 일부분이—말하자면 나중에—거꾸로 뒤집어짐으로써 꿈 재료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표시한다. 이 과정은 기술하는 것보다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편이 빠르다. 앞서 언급된 '위와 아래'

란 것에 관한 '아름다운 꿈'에서 상승의 꿈 표현은 꿈 사상 중의 본보기, 즉 도데 (Daudet)의 《사포(Sappho)》의 시초 부분과는 거꾸로 되어 있다. 그 꿈에서는 처 음에는 고생하고 나중에는 안락하게 되는데, 이 본보기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처음에는 쉽고 나중에는 괴롭다. 또 형에 관한 '위와 아래'도 꿈에서는 현실과는 거 꾸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꿈 사상 중의 재료의 두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거꾸로 내 지 대립의 관계. 유년 시절의 공상에 있어서 환자는 소설 중의 주인공이 그 연인을 껴안는 것과는 거꾸로 자기의 유모에게 안기는 것 속에 발견되는 거꾸로 내지 대 립 관계를 표시한다. M 씨에 대한 괴테의 공격이란 나의 꿈도(다음을 보라) 또 꿈 해석에 도달하기 이전에 우선 재정리되어야 하는 이런 거꾸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꿈에서 괴테는 M이란 젊은 남자를 공격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저명한 나 의 친구가 무명의 젊은 문필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꿈에서 나는 괴테가 죽 은 해부터 숫자 계산을 시작하나. 현실에서의 계산은 그 마비증 환자의 생년에서 부터 시작한다. 꿈 재료 중에서 지배적인 사상은, 괴테를 광인처럼 취급하면 안 된 다는 항의인 것이다. 그래서 이 꿈은 만일 당신에게 이 책이 이해되지 않으면 저자 가 아니라 당신의 머리가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모든 '거꾸로'의 꿈에서는 거기에 다 또 경멸적인 표현법(남에게 거꾸로의 면이나 결점을 보여 주는)에 대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듯 생각된다. '사포의 꿈'에서의 형에 관한 역전, 더 주목할 것은 억 압된 동성애적 충동에서 발하는 꿈에서 참으로 그런 역전의 수단이 빈번히 사용된 다.

역전·반대물에로의 전화(轉化)는 하여튼 꿈 작업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이용도가 높은 표현 수단의 하나이다. 역전은 우선 꿈 사상 중의 어떤 특정한 일요소(一要素)에 반대하여 소망 충족을 가능케 하려는 때에 사용된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은 어떤 싫은 생각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표현하는 최고의 말이다. 그러나 꿈의 역전은 그것이 꿈의 이해를 아주 마비시키는, 표현될 것의 왜곡을 만들어 냄으로써 검문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꿈의 뜻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꿈의 현재 내용의 특정한 여러 부분을 시험적으로 거꾸로 하여 보면 그 의미가 종종 단번에 해결된다.

내용상의 역전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역전도 있다. 어떤 사건의 결말이나 어떤 사고 과정의 결론을 꿈의 첫 머리에 내어놓고, 꿈의 끝에 그 결론의 여러 전제나 사건의 원인을 덧붙인다는 것은 꿈 왜곡이 보통 사용하는 수단이다. 꿈 왜곡의 이런 기술적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꿈 해석의 문제에 절망을 느낀다. "실제로 우리들은 흔히 여러 관계에 따라서 꿈 내용을 몇 번씩이나 거꾸로 뒤집어놓을 때 비로소 꿈의 뜻을 파악한다. 예를 들면 강박 신경증 환자의 꿈에서는 무서운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아이의 소망의 기억이 다음과 같은 꿈의 배후에 숨져져 있다. 즉 그의 아버지는 그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고 야단친다. 그러나 정신 분석 치료와 꿈을 꾼 당사자의 생각을 통해 이 꿈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처음 표현하고자 한 것은 '그는 아버지를 미워한다.'이며, 다음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안에서 '너무 일찍(즉 너무 빨리)'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편이 더 좋았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소망과 같다. 요컨대 꿈을 꾼 본인은 아버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을 때에 어떤 사람을 성희롱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처벌의 위협을 받았다. "두고 봐, 아버지가 돌아오실 테니!"

만일 우리들이 꿈 내용과 꿈 사상의 여러 관계를 더듬어 보려면, 우리들은 꿈 자체를 우리들의 출발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꿈 표현의 어떤 공식적 성격이 꿈 사상에 관해서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꿈에서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이 공식적 특성에는 무엇보다 꿈의 개개의 부분이나, 꿈 전체와 다른 꿈 사이의 명료성 차이다. 개개의 꿈 형상의 강도상 차이는 사 히스테리의 발작은 진의를 검열의 눈에서 감추기 위하여 이런 시간적 역전의 기술을 때때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어떤 소녀 히스테리 환자는, 발작이 일어나면 작은 소설의 줄거리를 몸짓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그 여자가 전차 속에서 만난 사람에 따라서 무의식중에 공상한 것이다. 상대편의 남자는이 여자의 다리의 곡선미에 매혹되어서 독서에 빠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여자는 그 남자와 함께 가서 미쳐 날뛰는 듯한 하룻밤을 체험한다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이다. 이 환자의 발작은 신체 수반을 동반한 '연애 장면'의 묘사부터 시작되어 (이때 키스하듯이 입술을 움직이고 껴안듯이 팔로 포용한다)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고 다리를 보이려고 옷을 걷어 올리고 책을 읽는 척한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건넨다(나에게 답한다). 이에 관해서 아르테미도로스(Artemidorus)의 주의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꿈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선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좇고, 다음에 거꾸로 끝에서 처음으로 더듬어야 한다……"

람들이—확실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현실의 명석(明析)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어 하는 날카롭고 명석한 것부터, 우리들이 꿈의 특징으로 표현하는, 화가 날 정도의 애매한 것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 애매성은 우리들이 때때로 현실의 대상 속에서 지각하는 여하(如何)한 정도의 불명료성과도 완전히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들은 보통 애매한 꿈 대상으로부터 받는 인상을 '흐리멍덩'이란 말로 표현하고, 반면 보다 뚜렷한 꿈 형상에 관해서는 그형상이 또 상당히 오랫동안 인식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꿈 내용의 개개의 부분들의 어떤 조건들이 꿈 내용 각 부분의 생동성의 차이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수면 중의 실제의 여러 자극도 꿈 재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전제할 것이다. 즉 "꿈의 이 여러 요소는 특별한 강도로 꿈 내용 속에서 뚜렷해진다."라고. 혹은 거꾸로, "꿈에서 특히 뚜렷히 나타나는 것은 현실의 잠자는 동안의 여러 자극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는 이것은 거짓이다. 잠(신경 자극) 속에 일어나는 현실적 여러 인상의 파생(派生)인 꿈의 여러 요소가 감성적 현실인 점에서 여러 기억에서 생기는 다른 여러 요소와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실에서의 계기는 꿈 형상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에 쓸모가 없다.

또 우리들은 개개의 꿈 형상의 감성적 농도가 꿈 사상 중의 그 꿈 형상에 일치한 여러 요소의 심적 강도와 관계가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다. 후자에 있어서 강도는 심적 가치와 일치한다. 가장 강력한 요소는 실상 꿈 사상의 중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요소가 바로 검열에 의하여 꿈 내용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역시 그 요소들을 대리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요소들의 파생물은 꿈에서 상당한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파생물이 꿈을 표현하는 중심점을 이룰 필요가 없이 상당한 강도를 자아낼 수는 있다. 이런 추측도 역시 꿈과 꿈 재료를 비교하고 고찰하여 보면 부정될 수밖에 없다. 한쪽의 여러 요소의 강도는 다른 쪽의 여러 요소의 강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꿈 재료와 꿈 사이에는 실제로 완전한 '모든 심적 가치의 가치 전도(轉倒)'가 행해진다. 꿈의 좀 더 강한 형상에 의하여 덮어 씌

워지기 쉬운 사소한 한 요소 속에야말로, 우리들은 때때로 꿈 사상 속에서 지배적으로 세력을 떨친 것의 유일한 직접적 대변자를 발견할 수 있다.

꿈의 여러 요소의 강도는 다른 제약을 받고 나타나며, 더욱이 두 개의 서로 독립하여 있는 계기에 의해서 제약된 대로 나타난다. 먼저 소망 충족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특히 세차게 표현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분석은 꿈의 가장 생생한 여러 요소에서 가장 많은 사고 과정이 출발한다는 것, 가장 활발한 여러 요소가 동시에 가장 훌륭하게 제약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우리들은 경험에서 얻어진 이 명제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의미는 같다. 즉 최대의 강도를 표시하는 것은 그 형성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압축 작업이 행해진 꿈의 여러 요소이다. 이 조건과 소망 충족의 다른 조건은 또 단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들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다룬 문제는 개개의 꿈 요소의 강도나 명료성이라는 문제인데, 나는 이문제가 꿈 전체나 혹은 꿈의 각 부분의 여러 명료성과 관계되는 다른 문제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자에서 명료성은 애매성과 대조되지만, 후자에서는 명료성이 혼란스러움과 대조된다. 여하튼 두 계열의 높고 낮은 정도가 서로 비례하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꿈의 일부분은 대다수의 경우에 심적으로 강도가 높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 불명료한 꿈은 거꾸로 그다지 강하지 않는 여러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견상의 명료로부터 불명료—혼란에까지 이르는 계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꿈 요소의 선명도 차이의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 문제는 나중에 기술할 여러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논구(論究)하기 어렵다. 우리들이 어떤 꿈에서 받는 명료성 혹은 애매성의 인상은 대체로 꿈을 형성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고, 이 인상은 꿈 재료의 한 구성 요소로서 꿈 재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들은 적지 않게 놀란다. 예를 들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꿈 중에, 잠을 깨고 나서도 아주 잘 짜이고 빈틈없는 꿈이라고 뚜렷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이 꿈은 아직도 꿈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중에서도 내가 압축과 이동(移動)의 기구(機構)에 지배되지 않고 '수면 중의 공상'이라고 규정하여도 좋을 새로운 꿈 범주 하나를 세워 보기로 결심했을 정도로 명료했던 꿈이다. 그러나 자세히 음미하니, 이 명료

한 꿈도 다른 여러 꿈과 같이 그 구조 중에 분열과 비약이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다시 꿈 공상의 범주를 포기하였다. 꿈을 요약하면, 내용인즉 내가 친구에게 남녀 의 성욕에 대한 오랫동안 밝히려던 곤란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이론(꿈속에는 보고되지 않는다)이 명석하고 흠 없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사실은 꿈의 소망 충족 작용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완결된 꿈의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생각한 것은 꿈 내용의 일부분, 확실히 꿈 내용의 본질적인 일부분이었 다. 꿈 작업은 이때, 깨어나서 한 첫 생각에까지 이르게 하고, 꿈에서 상세히 설명 하지 못했던 꿈 재료의 일부분을 꿈에 관한 판단으로서 나에게 전달하였다. 나는 이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실례를 어떤 여환자로부터 얻었다. 이 환자는 분석에 필 요한 꿈을 처음에는 나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그 꿈이 대단히 애 매하고 혼란하였기' 때문이다. 겨우 되풀이하여 묻는 가운데에서 그 여자의 설명 의 확실성으로 이런 것이 판명되었다. 즉 그 꿈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바뀌면서 나 타났다. 그 여자 자신, 그 여자의 남편, 그 여자의 아버지 등, 그리고 그 여자로서 는 남편이 아버지인지. 어느 분이 도대체 아버지인지 또는 남편인지 분간하지 못 했다. 이 꿈과 분석 치료를 받고 있을 때의 그 여자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이 꿈은 틀림없이 흔히 있는 하녀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문제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이 하녀는 임신하였는데, "누가 도대체(뱃속의 아이의) 아버지인가."8라고 의심받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꿈의 불명료성은 이때에도 꿈을 일 으킨 원천인 재료 중의 일부분이었다. 이 내용의 일부분이 꿈의 형식으로 표현되 었다. 꿈이나 꿈이 꾸어지는 형식은. 참으로 놀랄 만큼 때때로 숨겨진 내용을 표현 하는 데에 이용된다.

꿈에 대한 주석, 꿈에 대한 얼핏 보아서 타의 없는 변명(辯明) · 보충 · 거절은 때때로 꿈 내용의 일부분을 참으로 오묘하게 감추는데 사실 그런 주석 · 보충 · 거절이꿈 내용을 폭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꿈을 꾼 본인이 "여기서 꿈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한다. 분석한 결과, 이것은 어떤 사람이 용변을 본 뒤에 밑을 닦는 것을 몰래 보던 유아 시절의 기억의 잔재임이 판명되었다. 상세히 보고해 둘 값어치

<sup>18</sup> 수반(隨件)적인 히스테리 증세, 월경 정지와 심한 우울, 이것이 이 환자의 주요한 괴로움의 증세이다.

있는 다른 한 예를 보이련다. 어떤 젊은 남자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되는 그의 유년 시절의 공상을 상기시키는 뚜렷한 꿈을 꾸었다. 그는 밤에 피서지의 여관에 있었다. 방의 번호를 잊고 한 늙은 부인과 두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침대에 들어가려고 옷을 벗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꿈에 약간의 찢어진 틈이 있다. 무엇이모자란다. 마지막에는 한 남자가 방 안에서 나를 방 밖으로 밀어내려고 한다. 나는 그남자와 싸운다. 이 환자는 이 꿈이 뚜렷하게 암시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공상의 내용과 의도를 회상하려고 하나 헛수고였다. 그러나 드디어 찾으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꿈의 애매한 곳을 이야기 했을 때의 말 중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다. 찢어진 틈은 잠자려는 부인들의 생식기의 찢어진 곳을 의미한다. '그곳에무엇이 모자란다'라는 말은 여자 생식기의 주요한 성격을 묘사한 말이다. 이 환자는 그 당시 여자 생식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몹시 알고 싶어 하고 있었고, 여자에게도 음경이 붙어 있다는 유아의 생식기 이론에 붙잡혀 있었다.

이와 아주 비슷한 다른 한 환자의 기억 잔존도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즉 나는 K 양과 공원 안의 요리점으로 간다……, 이 뒤는 단절되어서 대단히 애매하다. 그 다음에 나는 매춘부 집의 살롱에 있다. 거기에서 나는 두서너 여자를 보고 있다. 그 중 한 여인은 슈미즈(Chemise)와 드로어즈(Culotte)만 입고 있었다.

#### 분석

K 양은 그의 전 상사의 딸이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의 누이의 대용 인물이다. 그는 K 양과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그 때 마치 "나는 남자이고 너는 여자이다." 하고 말하듯이, 말하자면 서로서로의 성별을 뚜렷이 인식하는 것으로 느꼈다. 꿈에 나오는 요리점에는 단 한 번 그의 의형(義兄)의 누이동생과 함께 간 적이 있다. 이 매씨(妹氏)에 대해서는 그는 아주 무관심하였다. 또 다른 때에 그는 세 사람의 부인과 함께 이 요리점의 입구에까지 온 적이 있었다. 이 부인 셋은 매씨와 의자(義姉)와 위에서 말한 의형의 누이동생이다. 이 세 여성은 모두 그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존재들이었으

나 모두 자매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매춘굴에 가는 일이 드물다. 아마 그때까지 두서너 번 정도 갔을 뿐이었다. 분석은, 꿈속의 '애매한 곳', '중단된 곳'을 기초로 그가 아이다운 호기심에서 두서너 번, 그러므로 드물게 두서너 살 아래의 여자동생의 생식기를 검사해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다. 그 후 이삼일 지나서 꿈에서 암시된 누이동생의 생식기의 검사란 행위에 대한 의식적인 기억이 되살아났다.

같은 날 밤에 꾼 모든 꿈은, 그 내용상 모두 하나의 꿈에 속한다. 꿈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고, 그 부분 속에서의 그룹이나 그 부분의 수량은 모두 의미가 있으며 잠재적 꿈 사상을 전달하는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여러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꿈이나 같은 밤에 꾼 각기의 꿈을 해석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여러 가지의 전후 관계 속에서 꾼 꿈은 동일한 일을 이야기해 주며, 동일한 마음의 움직임을 개개의 재료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꿈에서 시간적으로 앞선 꿈은 때때로 그 뒤에 꾸는 꿈보다는 더 한층 왜곡되고 수줍은 꿈이고, 나중의 꿈은 앞의 꿈보다 과감하고 뚜렷하다.

요셉이 해석한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왕의 이삭과 암소의 꿈은 이런 종류의 것이다. 이 꿈은 성경보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의 (《유대 고사(古事)》 제2권 제5·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왕은 첫째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이 첫 꿈을 꾸고 난 뒤에 나는 불안한 나머지 눈을 뜨고, 대체 이 꿈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았다. 이러는 중에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앞서보다 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때문에 나는 한층 더 두려움과 당황에 빠졌다."고.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요셉은 "대왕이여, 당신이 꾸신 꿈은 겉으로 보아서는 두 가지 꿈이올시다. 그러나 실상 이 두 꿈은 합해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융(C. G. Jung)은 그의 《풍설(風說)의 심리학에의 기여》에서, 한 여학생의 감추어진 색정(色情)적 꿈이 꿈 해석을 거치지 않고 그 여자 친구들에게 바로 이해되자모양을 바꾸면서 그 꿈을 계속 꾸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꿈과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말한다. 즉 "긴 일련의 많은 꿈 형상 중의 결론적인 사상은, 이미 이 계열의

첫 형상 속에, 이미 앞에서 표현되려던 같은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검열은, 이 콤플렉스를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언제나 다시 새롭게 되는 상징적 은폐·전이,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의 변화에 의해서 연장시키고 있다"고(《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1권, 1910년).

세르너는 꿈 표현의 이 특성을 잘 알고, 이 특성을 그의 기관 자극설의 관련에서 하나의 특별한 법칙으로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마침내 공상은 특정한 신경 자극으로부터 생기는 일체의 상징적 꿈의 형성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법칙으로 관찰된다. 즉 공상은 꿈이 시작될 때에는 극히 애매하게 자극 대상을 암시할 뿐이지만, 그림과 같은 표현 방법이 소진되는 끝에 이르면 자극 자체, 혹은 자극이 관계하는 기관 내지 그 기관의 기능을 노골적으로 표시한다. 그 결과 꿈은 자기의 기관적 동인(動因) 자체를 폭로하면서 끝난다……"라고.

오토 랑크는 그의 저서 《자신을 해석하는 꿈》에서, 이 셰르너의 법칙을 훌륭하게 확인했다. 그가 그곳에서 보고한 한 소녀의 꿈은 같은 밤에 시간적으로 떨어진 두 꿈으로 되어 있다. 그 꿈의 둘째 것은 몽정(夢精)으로 끝난다. 이 몽정 꿈은 꿈을 꾼 본인의 설명이나 그 밖의 도움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해석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꿈 내용 사이의 풍부한 여러 관계는, 첫 꿈이수줍은 표현으로 둘째 꿈과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둘째 꿈인 몽정 꿈이 첫 꿈을 완전히 해명하는 데 대단히 유익하였다. 이한 예로써 랑크는 참으로 올바르게 꿈 이론 일반에 대한 몽정 꿈의 의의를 논한다. 꿈의 명료성이나 혹은 혼란성을 꿈 재료의 확실성으로 또는 불확실성으로 해석할수 있는 경우란, 나의 경험으론 그다지 많지 않다. 나는 나중에 꿈을 형성하는 여 태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한 요인을 논하고자 한다. 그 요인은 꿈 성질의 범위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어떤 상황과 무대를 잠시 고집하는 몇 가지 꿈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써 기술된 여러 중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즉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은 같은 시간에 한 장소가 다른 장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긴다." 이와 같이 꿈의 본궤도를 중단시키나, 잠시 후에 본궤도가 또다시 계속되는 것은 꿈 재 료 중의 부문장이나 삽입된 사상으로 판명된다. 또 꿈 사상 중의 조건 '······하면'과 '······때에'는 꿈에서는 동시성으로 표현된다.

거의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꿈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몸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일은 무슨 의미인가? 그곳으로부터 떠나려고 해도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고, 무엇을 해 보려고 하나 계속적으로 그것이 방해되어서 완수되지 않는다. 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뒤쫓으려고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모욕에 응수하려고 손을 올리고자 하나 손이 말을 듣지 않는 따위이다. 우리들은 이미 노출 꿈의 조항에서, 꿈에서의 이런 느낌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그 의미를 충분하게 논하지는 못했다. 이에 상기한 감각을 통해서 알려지는 신체적 마비가 꿈에 있다는 설명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편리하나 충분하지 않다. 우리들은 왜 끊임없이 그런 저지당하는 꿈을 꾸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결국 우리들은, 잠 속에서 언제나 환기될 수도 있는 이 감각은 표현의 어떤 목적에 봉사하며, 또 그 감각이 꿈 재료에 주어진 표현을 욕구함으로 써만 환기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한 감각으로서 언제나 반드시 꿈에 나타나지 않고, 다만 꿈 내용 중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난다. 나는 이런 경우가 꿈의 필수품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밝혀 주기에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내가 도적으로 고발되는 듯 보이는 꿈을 간추려 보고하려고 한다. 장소는 어느 사설 치료소와 살림집들이 몇 채 섞여 있는 곳이다. 어떤 하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부른다. 꿈에서 나는 분실된 물건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는지 조사받는 것임을 알았다. (분석의 결과 조사는 두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과, 의학적인 검사의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나는 자기의 무죄와 이 집에서의 주임 의사로서의 역할을 뚜렷이 알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인을 따라갔다. 문에서 다른 하인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가리키면서 "이 분을 데리고 왔습니까? 이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말한다. 다음에 나는 그 하인과 떨어져서 다른 방으로 갔다. 이 방에는 기계가 있고, 이 기계는 인간의 죄과를 책하는 지옥을 연상하게했다. 나는 이 기계의 하나에, 다른 때 같으면 나를 위해서 염려해 줄 친구 한 사람이 붙잡혀 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온 것 따위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기색이

다. 얼마 후 나는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나의 모자를 찾지 못해 갈 수 없다. 내가 결백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가도 좋다는 것은 확실히 소망 충족이다. 그러므로 꿈 사상 속에는 꿈 사상에 대한 반대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틀림 없이 있다. 내가 가도 좋다는 것은 나의 면소(免訴)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꿈이 끝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을 막는 한 사건을 제공한 것을 우리들은 이 반대의 억압된 재료가 이 모습으로 자신을 주장한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모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역시 청렴결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꿈의 '……할 수 없다'는, 반대의 표명인 '아니다'이고, 따라서 꿈은 '아니다'를 표현할 수 없다는 앞의 주장은 정정되어야 한다. <sup>19</sup>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다만 상황으로서가 아니라 감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다른 여러 꿈에서는, 이와 똑같은 반대는 반대 의지에 대결하는 한 의지로 움직임을 저지당하고 있다는 것보다 강력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동작이 저지되었다는 느낌은 한 의지의 갈등을 표현한다. 수면 중의 운동 마비야말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의 심적 과정의 기본적 여러 조건의 하나라는 것이 나중에 판명될 것이다. 그런데운동의 궤도 위에 옮겨지는 충동은 다름 아닌 의지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틀림없이 수면 중에 이 충동을 저지된 것으로 느끼는 것은 이 전(全) 과정으로 하여금 의욕과 그 의욕에 대항하는 하나의 '아니다'를 표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의지 저지의 감각이 불안에 대단히 가까우며, 여하간 그 감각이 꿈에서 불안감과 결합하기 쉽다는 것은 내가 앞에서 불안에 관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쉽게이해될 것이다. 불안은 무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의식(前意識)에 의해서 저지되는 하나의 리비도적 충동이다. 그러므로 꿈에서 저지의 느낌이 불안과 결부되면.

<sup>19</sup> 이 꿈을 완전히 분석하니 다음 사정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유년 시절의 한 채험의 한 관계가 명백해졌다. —무어(Mohr) 인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무어 인은 떠나갔다. 여기서부터 농담의 질문, "할 일을 다 한 때에 무어(Mohr)는 몇 년이었는가? 일 년. 그러면 떠나도 좋다" (내가 탄생했을 때는 검은 곱슬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에, 나의 젊은 어머니는 나를 작은 무어 인이라고 불렀다.)—모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낮의 체험에서 온 것이고, 그것이 여러 뜻으로 이용되고 있다. 물품을 잘 간수하는 여급(女給)이 모자를 어디에 간수했다. —이 꿈의 끝의 배후에는 또 슬픈 죽음의 사상의 거부도 감추어져 있다. 즉, 나는 아직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바로 그 앞에서 본 괴테의 꿈과 마비중 환자의 꿈에서 보이는 탄생과 죽음이란 테마.

전에 리비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의욕, 하나의 성적 충동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

때때로 꿈을 꾸는 동안에 "이것은 꿈일 뿐이다."와 같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며, 이 생각을 어떤 심적 힘에 돌릴 것인가에 관하여 나는 다른 곳에서 논하기 로 한다. 여기서 미리 말해 두려는 것은 그런 생각이 꿈을 꾼 것의 가치를 없애기 위한 것이란 점이다. 이와 비슷한 흥미로운 문제로 한 내용이 꿈에서 '꿈꾼 것'으로 써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슈테켈은 '꿈 중의 꿈'이라는 이런 수수께끼를 약간의 설 득적 실례를 통해 분석하고, 나와 유사한 의미로 해명하고 있다. 꿈속의 '꿈꾼 것' 은 당연히 다시 그 가치를 약탈당하고 현실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꿈속의 꿈'으로 부터 깨어난 뒤에 꿈에서 꾼 것을, 꿈 소망은 부정된 현실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 므로 이렇게 감정할 수 있다. 즉 '꿈꾼 것'은 현실의 표현, 실제의 기억을 포함하는 데, 이와 반대로 그 뒤에 계속 꾼 꿈은 단지 꿈꾼 본인이 바란 것의 표현을, 소망된 것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어떤 내용이 '꿈 중의 꿈'에 포함된다는 것 은, 이렇게 꿈 그 자체 속에서 이것은 꿈일 뿐이다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원래 일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의미한다. 말을 바꾸면 만일에 어떤 한 사건이 꿈 작업 자체에 의해서 하나의 꿈으로 구성된다면, 이것은 이 한 사건의 현실성의 가장 명 백한 증명, 그 한 사건의 가장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 꿈 작업은 꿈을 꾸는 것 자체 를 거부의 한 형식으로 이용하고 이 형식을 가지고 꿈이 하나의 소망 충족이라는 견해를 증명한다.

## 4. 표현(表現) 가능성에 관한 관찰

우리들은 여태까지 꿈이 여러 꿈 사상 사이에 있는 많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 가의 문제를 논하여왔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꿈 재료가 꿈 형성의 여러 목적에서 어떤 변화를 받는가란 한층 더 넓은 주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은

이제 꿈 재료가 그 여러 관계의 대부분을 잃고 하나의 압축 밑에 놓이는 동시에, 이 꿈 재료의 여러 요소 사이의 강도 이동(强度移動)이 이 재료의 심적 가치 전도를 강제하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들이 관찰했던 이동은 어떤 특정한 관념이 그 관념에 가까이 있는 연상 속에서 바뀌는 교환으로 표명되었다. 그리고 이 이동은 압축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이런 방법으로써 두 요소 대신에 그 두 요소 사이에 있는 중간적 공통물 하나가 꿈에 채용되었다. 다른 종류의 이동에 관해서 우리들은 한 마디도 이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분석에서, 그런 다른 이동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사상의 '언어적 표현의 교환'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이 두 경우 다 연상 연쇄를 따르는 이동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과정은 같지만 일어나는 심적 영역은 다르다. 이동의 결과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의해 대체되거나, 한 요소가 자신의 언어 표현을 다른 언어 표현과 교환하는 것이다.

꿈을 형성할 때에 나타나는 둘째 종류의 이동은, 지대한 이론적 관심을 부를 뿐 아니라, 꿈을 변장시키는 공상적인 황당무계한 외양(外樣)을 밝히는 데 특히 잘 어울린다. 꿈은 이런 외관을 이용해 자신을 우장한다. 일반적으로 이동은 꿈 사상의 빛깔 없는 추상적 표현이 형상적이고 구체적인 표현과 교환되는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이 바꿈의 이점과 의도는 명백하다. 꿈에서 형상적인 것은 표현이 가능하고, 신문의 정치 논설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렵듯이 추상적 표현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적합하다. 그러나 표현 가능성뿐 아니라 압축과 검열의 관심도 이 교환에서 얻는 바가 크다. 만일 우선 추상적으로 표현된 쓸모없는 꿈 사상이구체적인 언어로 변화된다면 이 새로운 표현과 그 밖의 꿈 재료 사이에서 꿈 작업이 요구하고, 또 꿈 작업이 없는 곳에서도 꿈 작업이 만들어 내는, 접촉점이나 동일성은 전보다 쉽게 생긴다. 왜냐하면 구체적 용어는 모든 언어 속에서 그 언어 발전에 따라 추상적인 언어보다 풍부하게 다른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는 꿈 사상을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고 통일적인 표현에 의해서 꿈에 집약하려는 꿈 형성에서의 중간 작업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개개의 사상의 적당한 언어의 변형 개조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다른 여러 이유에서 한 사상의 표현이 확립되어 있는 그런 사상은, 그때에 분할되거나 취사(取捨)되면서 다른 사상을 표현할 수 있게끔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아마 처음부터 그럴 것이고, 시인들이 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이다. 만일에 운시(韻詩)의 본질이 그 구절에 있다면 제2의 압운구(押韻句)는 두 조건에 매이게 된다. 즉 이 구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뜻을 표현하여야 하고, 이 구의 표현은 시의 음과 같아야 한다. 가장 훌륭한 시는, 음에 맞추어졌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고, 두 사상이 처음부터 서로 유인되어서 언어 표현을 자연히 선택하고, 나중에 조금만 손질하면 압운의 관계가 생기는 시일 것이다.

몇 가지 경우, 표현 교환에 의해 하나 이상의 꿈 사상을 표현하는 언어의 결합을 발견함으로써 꿈 압축이 더 용이하게 이뤄진다. 이런 식으로 언어유희는 모든 영역이 꿈 작업에 봉사하게끔 된다. 꿈을 형성할 때에 언어가 맡는 역할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여러 관념의 교차점으로서의 언어는, 말하자면 예정된 다의성이다. 신경증(강박 신경증·공포증)은 언어가 압축과 변장을 제공하는 이점을 꿈에서와 같이 서슴지 않고 이용한다. 20 꿈 관념의 표현이 이동할 때에 꿈 왜곡도 함께 덕을 본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중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언어가, 한 의미를 가진 (의미가 명백한) 두 개의 언어 대신에 놓이면 물론 사람들은 혼동한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수수하게 사용되는 표현방법이 형상에 의한 표현으로 바뀌면 우리들의이해는 방해를 받는다. 특히 꿈이 우리들에게 표시하는 여러 요소가 문자 그대로해석될 것인가, 혹은 비유적으로 해석될 것인가, 또 꿈 재료에 직접 관계할 것인가, 또는 삽입된 문구를 매개로 관계할 것인가에 대하여 꿈은 아무것도 말해 주지않기 때문에, 대체로 어떤 꿈 요소를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다음과 같이 양자택일적으로 한다.

- (가) 적극적인 뜻에서 해석될 것인가, 소극적인 뜻에서 해석될 것인가?(대립 관계)
- (나) 역사적으로 해석될 것인가?(기억의 잔존)
- (다) 상징적으로 해석될 것인가?
- 20 《슬기와 그것의 무의식과의 관계》 1905년 (제1판, 1912년) 및 신경증세의 해결에서의 '발(言)의 다리 (橋)를 참조,

(라) 혹은 그 해석이 문자에서 시작될 것인가?

이런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는 꿈 작업의 표현은, 아마 옛날의 상형 문자 필자들이 그들의 독자에게 준 이상으로 번역자에게 곤란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다.

표현의 애매성에 의해서 지탱되는 꿈 표현의 실례를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 다(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에서의 "입을 크게 벌린다."와 바로 앞서 예로 든 꿈에 서의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나의 꿈을 보고하려는데 그 꿈의 분석에서 는 추상적 사상의 형상화가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꿈 해석과 상징에 의한 꿈 해 석과의 차이는 언제나 명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상징적으로 꿈을 해석할 때에 상 징화의 열쇠는 꿈 해석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데 반하여, 언어의 변장이란 우리들 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열쇠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확립된 언어 관습으로부 터 주어진다. 만일 우리들이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기회에 자유롭게 처리하면, 우 리들은 이런 꿈을 당사자의 설명 없이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부인이 이런 꿈을 꿨다. 즉 그 여자는 오페라 극장에 있다. 연극은 아 침 8시 15분 전까지 계속된 바그너(Wagner) 작품의 공연이었다. 극장의 앞바닥과 뒷 좌석에 테이블 몇 개가 있어서 사람들은 마시고 먹고 한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사촌 동생이 새로운 부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 곁에 귀족 한 사람이 있다. 이 귀 족은 시촌 형제의 새 부인이 마치 신혼여행에서 모자를 사 가지고 돌아오듯이. 신혼 여행지에서 공공연히 데리고 온 사람이란 것이다. 극장 앞좌석의 한가운데에 높은 탑 이 있다. 그 꼭대기 위에 철책으로 둘려져 있는 플랫폼이 있다. 그 높은 곳에 한스 리 히터(Hans Richter)의 모습을 가진 지휘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 철책 안을 계속 뱅 뱅 돌고 있다. 땀을 흠뻑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높은 곳에서 탑의 밑바닥의 주 변에 배치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그 여자 자신은 여자 친구(나도 안면이 있 는 사람)와 좌석에 앉는다. 그 여자의 누이동생이 앞바닥에서 큰 석탄 덩어리 한 개를 주려고 했다. 그 여자는 이렇게 오래 계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언니는 지 금쯤 상당히 추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마치 긴 연극의 상연 중에는 좌석이 난방이 되어야 하겠다는 듯이.

이 꿈은 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으나 아주 황당무계한 꿈임에 틀림없다. 앞좌석의 가운데에 있는 탑에서 지휘자가 가극을 지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생이 언니에게 주려는 석탄! 나는 의도적으로 이 꿈의 분석을 사양하였다. 그러나 이 부인의 신상을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꿈의 몇 부분은 그 여자의 설명이나 생각을 기다리지 않고도 해석될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어느 음악가를 사랑하고 있었으나, 이 음악가는 젊었을 때 정신병에 걸려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앞좌석의 탑을 문자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다음은 이렇다. 그 여자가한스 리히터의 지위에 그를 올려놓고 싶었던 그 남자는, 가극의 다른 부원들보다 '탑 높이'만큼 우월하다. 이 탑은 동격에 의한 혼합 형성물로 생각된다. 탑은 그 밑으로 하여금 이 음악가의 위대성을 표현한다. 또 이 음악가가 죄수같이 혹은 둥우리의 동물과 같이(이 불행한 음악가의 이름과 관계가 있다) 움직이고 있는 위의 철책은 이 음악가의 후년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이 두 사상을 결합시킬 수 있는 말은 아마 '광인의 탑(塔)'일 것이다.

이와 같이 꿈의 표현 방법이 발견된 후에, 우리들은 둘째 번의 표면상의 황당무계성을, 즉 누이동생이 전하는 석탄의 사건을 같은 열쇠로 해결할 수 있었다. '석탄'은 '비밀의 사랑'을 의미한다.

불도 석탄도 뜨겁게 타지 않는다. 남모르는 비밀의 사랑 같이는

그 여자 자신과 그 여자의 친구는 '앉은 대로였다.' 이제부터 결혼하여야 하는 누이동생은 '이렇게 오래 계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석탄을 주려고 했다. 무엇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는지는 꿈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라면 바그너의 가극 상연이라고 우리들이 보충할 것이나, 꿈에서는 우리들은 이 문구에 그대로 주목하고 이 문구를 애매하다고 치고 '시집갈 때

까지에'라고 덧붙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밀의 사랑'이란 해석은, 새로운 부인과함께 바닥에 앉아 있는 조카의 말과, 이 새로운 부인에 대한 공공연한 연애 관계에의해서 지지된다. 비밀 사랑과 공공연한 연애 관계, 그의 뜨거운 마음과 젊은 새로운 부인의 깨끗함이란 대립 관계가 이 꿈을 지배하고 있다. 여하간 양쪽의 경우에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은 귀족과 전도(前途)에 큰 희망이 기대되는 음악가와의중간어로서 존재한다.

우리들은 이상의 변론에서 드디어 세 번째 계기를 발견했다. 이 계기가 꿈 사상이 꿈 내용으로 변화하는 데에 참가한다는 사실은 결코 낮게 평가될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계기란 꿈이 이용하는 본질적 · 심적 재료의 시각적 형상으로의 표현 가능성에 관한 고려이다. 즉 본질적인 꿈 사상과 관련된 여러 종속적 관념 중에서 시각적 표현을 허락하는 표현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그리고 꿈 작업은 이 형식이 극화될 수 있게 하고, 비좁은 생각에 의해서 생기는 심리학적 걱정을 끝내는 한 확고한 사상을 먼저 다른 언어 표현에, 그것이 이상한 형식이건 아니건 간에 옮기는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사상 내용을 다른 한 형식 속으로 옮겨 넣는 일은 동시에 압축작업에 협력하는 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다른 한 사상과의 여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다른 한 사상 자체도 아마 여러 관계를 받아들일 목적으로 미리 자기 본래의 표현을 바꾸었을는지도 알 수 없다.

헤르베르트 질베러(Herbert Silberer)는 꿈을 형성할 때에 사상이 형상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이러한 꿈 작업의 계기를 끄집어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피로와 수마(睡魔)에게 침범된 상태에서 어떤 사고 노력을 시도하면, 그 사상이 그에게서 살짝 빠져나가고, 대신 시상의 대용물로 인식되는 하나의 형상이 종종 나타났다. 질베러는 이 '대용물'을 '자동 상징적' 대용물이라 불렀다. 여기서 나는 그의 연구로부터 실례 몇 가지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관찰된 현상의 특성 몇 가지 때문에 다시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제 하나. 나는 어떤 논문의 매끄럽지 못한 곳을 정정하려는 계획을 생각해 본다.

#### 상징, 나는 나무를 대패로 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예제 다섯. 나는 지금 내가 실행하려는 형이상학적 연구의 목적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한다. 이 목적은, 우리들이 여러 존재 근거를 찾고, 점차로 높은 의식 형식이나 또는 존재층(存在層)에로 돌진하는 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상징, 나는 마치 과자의 한 조각을 가지려는 듯이 과자 밑에 긴 칼을 집어넣는다.

해석. 칼을 취급하는 나의 움직임은 문제가 되어 있는 '돌진한다.'를 의미한다…… 상징적 근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나는 식탁에서 때때로 둥근 과자를 잘라서 한 사람씩 나누어 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는 길고 만만한 칼을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자른 과자의 한 조각을 가만히 깨끗이 집어내는 일이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다. 칼을 조심성 있게 그 조각의 '밑에 넣어야' 한다(밑에 도달하기 위한 느릿느릿한 돌진). 그러나 위의 형상에는 그 이상의 상징이 있다. 상징된 과자는 도보스 토르테(Dobos Torte)였다. 토르테를 자르는 칼이 몇 겹의 층을 침투하여야 한다(의식과 사유의 각 층).

예제 아홉. 나는 생각하는 도중에 그 생각의 실마리를 잃었다. 나는 그 실마리를 다시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나, 계기를 아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상징. 인쇄된 문장 한 조각. 그 마지막 한 줄이 빠져 있다.

말의 재치나 속담이나 노래나 격언 등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사고 생활에서 하는 역할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런 종류의 여러 변장이 꿈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제가 끈, 각기 다른 채소를 잔뜩 실은 마차는 꿈에서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배추와 갓(Kraunt und Rüben, 관용구로 '난잡함', '뒤죽박죽'의 뜻)'의 소망 대비(對比), 그러므로 '혼합'이고, 따라서 '무질서'를 의미한다. 나는 이 꿈이 단지 한 번밖에 보고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 알다시피 아유나 말의 대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보편타당한 꿈 상징은 몇몇 재료에서만 만들어져 있다. 게다가 꿈은 신경증이나 전설이나 민간 풍습과 함께 그런 상징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들은 꿈 작업이 대체로 이런 교환 방법을 가지고 독 창적인 것을 결코 실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꿈의 목적을 달성 할 경우, 검열의 억압을 받지 않는 표현 가능성을 위하여 꿈 작업은 그 작업이 무 의식적 사고 중에서 이미 열려 있는 길만을 걸으며, 그 꿈 작업은 또 희롱이나 야 유로서, 또 의식적이 될 수 있는, 또 신경증 환자의 모든 공상을 채우고 있는 억압 된 재료의 여러 가지 변화를 우대한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올바른 핵심을 내 가 다른 곳에서 변호한 셰르너의 꿈 해석에 대한 이해의 길이 열린다. 자기의 신체 에 관한 여러 공상은 결코 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꿈의 특색도 아니다. 나의 분석에 의하면, 이 공상은 신경증 환자의 무의식적 사고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행 하여지는 것이며, 그것은 본래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호기심의 대상은 젊은 남녀에게는 이성 또는 동성의 생식기 속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셰르 너와 폴켈트가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듯이. 집은 신체의 상징화에 이용되는 유일한 표상권이 아니다—꿈에서나 혹은 신경증의 무의식적 공상에서도 그렇지 않다. 그 러나 신체와 생식기(즉 성적 관심은 외부 생식기의 영역을 넘어서 널리 미치는 것 이다)의 구조적 상징에만 의거하고 《구약성서》의 〈아가서〉에 있어서와 같이,) 크 거나 작은 기둥을 다리로 하고 문을 신체의 개구부('구멍')로, 수도(水道)를 배뇨 기 관으로 생각하는 많은 환자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식물 생활이나 부엌의 표 상권 역시 성적 여러 형상의 은폐된 상징물로 선택된다.<sup>21</sup> 첫 경우에는 언어 관례, 가장 옛 시절의 공상 비교의 침전(沈澱)이 이미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다(주님의 '포도원', '씨앗', 여인의 '정원' 등은 〈아가서〉에 있는 말이다. 일견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부엌일의 암시 속에서 성적 생활의 가장 추악하고 가장 친밀한 하나하나가 생각되고 공상된다. 그리고 히스테리의 여러 증세는 만일 일상적인 것과 눈에 띄 지 않는 것의 배후에 성욕의 상징이 (가장 훌륭히 숨는 곳으로서) 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아주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신경증에 걸린 아이가 피나 생육(生 肉)을 보기 싫어하고 계란이나 국수를 토할 때나, 또 인간에 고유한 뱀에 대한 공

<sup>21</sup> 이에 관한 풍부한 증거의 사례는 에드워드 푹크스(E. Fuchs)의 《그림 풍속사》의 3권의 보충본(란겐 (A. Langen) 서사사장판(書肆私藏版), 뮌헨).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포심이 신경증 환자에게 있어서 극도로 강해질 때에는 참으로 뚜렷한 성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신경증이 그런 복면을 이용하는 어느 경우에서도, 신경증은 전 인류가 옛 문화 시대에서 시작했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런 길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은 언어 관례나 미신(迷信)이나 습관을 다소 자세히 관찰하면 쉽게 밝혀질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이미 예고한 나의 여자 환자의 '꽃의 꿈'을 삽입하고자 한다. 이 꿈이 성적으로 해석될 곳은 괄호로 표시되었다. 이 아름다운 꿈은 해석한 뒤에 꿈을 꾼 여자 본인에게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다.

- ⓐ 전몽(前夢) 그 여자는 부엌의 두 식모에게 가서, 하녀들이 '몇 숟갈을 먹기에' 아직도 식사를 끝내지 못했느냐고 꾸짖는다. 이때 이 여자는 말리기 위해서 엎어 둔 많은 접시를 본다. 조제의 사기그릇들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본다. (나중의 보충) 두 하녀는 물을 길러 간다. 그러나 물을 길러 강 같은 곳에 들어가야 한다. 강이 집 속 또는 정원 앞까지 와 있다.
- ⓑ 본몽(本夢)<sup>22</sup> 그 여자는 높은 곳에서 묘한 난간이나 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온다.<sup>23</sup> 그 담은 격자 모양이고 작은 사각의 엮은 것으로 되어 있다.<sup>24</sup> 그 장소는 본래 사람이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을 디디기가 어렵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옷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또 옷이 흐트러진 모습을 하지 않고 지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sup>25</sup> 그때 그 여자는 손에 큰 가지 하나를 들고 있다.<sup>26</sup> 본래 나무 같은 것인데 빨간 꽃이 잔뜩 피어 있다. 작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있다.<sup>27</sup> 그때 벚꽃이란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나 만발한 동백나무와 같이 보인다. 이것은 물론 나무에 핀 것은 아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그 여자로 처음엔 하나를, 다음에 갑자기 둘, 나중에 또 하나의 가지

<sup>22</sup> 그 여자의 경력.

<sup>23</sup> 높은 문벌(門閥), 전몽(前夢)에 대한 소망 대조.

<sup>24</sup> 두 장소, 즉 그 여자가 나중에 그 여자의 공상의 대상이 된 남자 형제들과 함께 놀았던 아버지 집의 지붕 아래 방과, 그 여자를 곧잘 희롱했던 음침한 아저씨의 정원을 통합한 혼합 형성물.

<sup>25</sup> 아저씨의 정원에 관한 현실적 회상, 즉 그 여자가 곧잘 수면 중에 벌거숭이가 되었던 회상에 반대되는 소망.

<sup>26</sup> 마리아에게 백합 가지를 알리는 천사와 같이.

<sup>27</sup> 이 혼합 형성물의 설명에 관해서 전술(前述)한 순결 · 월경 · 춘희(椿姫)를 참조.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를 들고 있다.28 그 여자가 아래에 내려왔을 때, 가지의 아래쪽 꽃은 벌써 상당히 떨어 져 있다. 그 여자가 아래로 내려와 보니 하인 한 사람이 있다. 이 하인은 같은 가지 하 나를 가지고 빗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다. 즉 한 장의 나무 조각으로 그 나무에서 이 끼같이 늘어져 있는 푸석푸석한 털 뭉치를 빗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은 같은 가지를 정원에서 베어 가로(街路) 위에 던진다. 가지는 그 근처에 굴러 있다. 그래서 많은 사 람들이 그 가지를 가진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이 옳은가, 자기도 "하나 꺾어도 좋 ·은가?" 하고 묻는다.<sup>29</sup> 정원 속에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 여자가 아는 외국 인이다.) 이 남자에게 다가선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어떤 가지를 어떻게 하면 그 여 자 자신의 정원에 옮겨 심을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 30 젊은 남자는 그 여자를 껴안는 다. 그 여자는 이에 반항하고, 도대체 사람을 그렇게 껴안아도 좋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그 남자에게 묻는다. 남자는 이것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고 허락되어 있다고 말한다.3 그리고 그는 그 여자와 함께 다른 정원으로 가서 그 여자 에게 심는 법을 가르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고, 그 여자에게 무엇인가 말한다. 이 말 을 그 여자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3미터(나중에 그 여자는 제곱미터 라고 말한다) 혹은 3클라프터(Klafter. 1클라프터=약 182센티미터)의 땅이 없다"고 말 한다. 그는 자기의 친절에 대해서 그 여자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바라는 듯이. 혹은 그 여자의 정원에서 손해를 배상하려는 듯이, 혹은 그 여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거기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듯이 어떤 규칙을 속이는 것같이 한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실제로 무엇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그 여자는 모른다.32

이 상징적인 요소들을 위하여 강조된 전몽(前夢)은 전기적인 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꿈은 정신 분석에 있어서는 흔하나 정신 분석 이외의 경우엔 드물 것이

<sup>28</sup> 그 여자의 공상에 이바지하는 많은 인물들.

<sup>29 &</sup>quot;하나 꺾어도 좋은가?"는, 즉 "수음(手淫)해도 좋습니까?"이다.

<sup>30</sup> 가지는 일찍부터 남자 생식기의 대용물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그 여자의 성에 대한 암시를 대단히 뚜렷하게 포함하고 있다.

<sup>31</sup> 다음 사항과 같이 부부 생활 상의 주의할 점과 관계된다.

<sup>32</sup> 꿈 상징을 위한 실례 중에서 제3의 실례로서 보고해 둔 꿈도 비슷한 '전기적' 꿈이고, 더욱이 랑크가 상세히 보고한 '자기가 스스로 꿈 해석을 하는 꿈'도 그렇다. '거꾸로' 해석해야 하는 어떤 꿈에 관해서 는 슈테켈의 논문 486면 참조.

다.

물론 나에게는 이런 예의 재료가 넘쳐흐를 만큼 많이 있다. 그 재료의 보고는 신경 증과 매우 깊은 여러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 들은 꿈 작업에서 영혼을 상징하는 특별한 활동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꿈은 무의식적 사고 속에서 이미 형성되고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징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상징화가 그 표현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열의 통과 능력 때문에 꿈 형성의 여러 요청에 대해 다른 것보다 잘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꿈에서의 상징에 의한 표현—전형적인 꿈속(續)

만일 우리들이 성적 재료가 꿈에서 표현될 때에 상징이 풍부하게 이용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들은 많은 상징이 마치 속기술의 '기호'와 같이 언제나 일정한 의미를 가지느냐의 여부를 묻게 된다. 그리고 암호 해독법에 따라 꿈에 관한 새 책하나를 고안해 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런 상징적 표현은 꿈의 전유물이 아니고 무의식적 표상 작용, 특히 일반인의 무의식적 표상 작용의 독특한 것이고, 꿈에서보다 민간 전설, 즉 어느 민족의 신화·전설·언어·격언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이 상징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상징의 개념과 결부된 무수한 미해결된 문제를 논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꿈 해석의 과제에 멀리 이탈할 수밖에 없다.<sup>33</sup> 여기에서 우리들은 여기서 다음 사실을 제한해서 말하고자 한다. 즉 상징에 의한 표현은 간접적 여러 표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33 상징에 관해서는 블로일러(E, Bleuler)와 취리히(Zürich) 학파(메더(A, Maeder), 아브라함(K, Abraham) 등)의 연구 및 그들이 관계한 의료계 밖의 저술가(클라인파울(R, Kleinpaul) 등)을 참조. 이 주제에 관한 훌륭한 의견은 랑크(O, Rank)와 한스 작스(H, Sachs)의 저서 《정신 과학에 대한 정신 분석의 의의》(1913년) 제1장에서 발견된다.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은 다른 종류의 간접적 묘사와 구분되는 특징들을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파학하지 못한 채, 이 상징에 의한 표현을 차별 없이 다른 종류의 간접적 표현과 뒤섞어서는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만을 밝히고자 한다.

상징과 상징되는 본질적인 것 사이의 공통점은 뚜렷하기도 하고, 은폐되어 있기도하다. 후자의 경우 이 상징적인 것이 왜 선택되는가는 수수께끼처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경우 상징 관계의 궁극적 의미가 밝혀질 수 있음에 틀림없다. 그 것들은 이 상징 관계가 발생사적(역사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오늘날 상징적으로 결합된 것도 아마 옛적에는 개념적 동일성에 의해서 결합되었을 것이다. 상징 관계는 과거의 동일성의 잔재이고, 표식(標識)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우리들은 상징 공동체가 언어 공동체를 벗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슈베르트(Schubert)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다. 34 수많은 상징 중에는 언어가 생겼을때에 생긴 낡은 것도 있고, 또 현대에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다(예컨대기구·체펠린).35

대체로 꿈은 그 잠재 사상을 변장해서 표현하려고 할 때에 이 상징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용된 상징 중에는 언제나 반드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물론 많다. 그 반면에 우리들은 심적 재료의 본질적 유연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징은 때때로 충분히 꿈에서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그 본래의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경우에 꿈을 꾼 당사자는 특수한 기억 재료로부터 보통 그렇게 응용되지 않는 가능한 모든 것을 성욕적 상징으로 쓰는 권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여러 상징이 내용에게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은 그 상징을 정하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이 상징은 역시 그 상징 이전의 사상 재료와 구체적으로 관계할 수 있

<sup>34</sup> 예컨대 몇 형가리 인의 오줌 마려운 꿈에서 물 위를 항해하는 배가 나타난다. 형가리 어에는 '소변 본다'의 의미를 가진 독일어의 Schiffen('배로 가다', '오줌을 누다'의 양의(兩意))에 해당되는 말이 없다 (폐렌치 참조). 프랑스 인 이외의 라틴 민족의 꿈에는 독일어 '여자(Frauenzimmer)'에 해당되는 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房)은 여자의 상징적 표현이 된다.

<sup>35</sup> 기구(Luftschiff)는 '공기(Luft)'와 '배(Schiff)'의 합성어로 하늘을 나는 배, 즉 기구(氣球)를 뜻하고, 체펠린(Zeppelin)은 체펠린 백작치 고안한 기구의 일종으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음을 표명하고, 따라서 전형적으로 통용되는 동기와 함께 개인적인 동기를 허용한다.

셰르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꿈에 관한 연구는, 꿈 상징을 의심할 수 없는 사 실이나, 엘리스(H. Ellis)마저 꿈은 상징에 가득 차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그 반면에 또 꿈 해석의 문제는 꿈속에 상징이 있다는 사실 때문 에 확실히 쉬워지기도 되었으나 어려워지기도 했다. 꿈을 꾼 당사자의 자유 연상 에 의거한 꿈 해석법으로도 꿈 내용의 상징적 여러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슈테켈의 거친 꿈 해석 속에, 부활한 듯이 보였던 해석자의 주관(主觀)에 게 자유로운 발언을 허용한다는 낡은 꿈 해석법에 되돌아가는 방법은 학문적 차원 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상징적으로 파악할 꿈 내용 중의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둔다면. 한편으로는 그 꿈을 꾼 본인의 자유 연상에 의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해석자의 상징 이해로 보충하는 종 합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상징을 해석함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특 히 뚜렷한 꿈의 실례를 가지고 여러 상징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평행된 연구를 행 하지 않으면 그 꿈 해석이 주관적 해석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또 현재로서 는 꿈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활동이 확실하지 않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한 편 우리들의 꿈 인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금후의 끊임없는 연구 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결점이다.) 또 한편 그것은 실상 꿈 상징의 몇 가지 특성 자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꿈 상징의 의미는 때때로 넓다. 아니 그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애매한 것이 많다. 그래서 마치 중국의 문장에서와 같이 전후좌우를 관련시켜서야 비로소 그때그때의 올바른 의미가 밝혀지는 성격의 것이다. 지나친 해석을 허용하거나 때때로 그 성질상 매우 다른 여러 사상 형식과 소망 충동을 하 나의 꿈 내용 속에 표현하는 꿈의 능력이, 여러 상징의 그러한 다의성과 결합한다. 이상의 사실을 미리 알고 난 다음에 꿈의 상징에 언급하기로 하자. 황제와 황후(왕 과 여왕)는 대체로 꿈을 꾼 본인의 양친(兩親)의 상징이다. 황태자와 황녀는 본인 들 자신이다. 황제에게 주어지는 존엄성은 위대한 여러 인물들에게도 역시 주어진 다. 그러므로 많은 꿈에서 위대한 인물, 예컨대 괴테 같은 인물이 아버지의 상징으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로서 나타난다(히치만(Hitschmann)), 길게 뻗친 물건, 지팡이 · 대 · 양산(음경의 발기에 비할 수 있는 팽창성 때문일 것이다) 등이나. 길고 뾰족한 모든 무기(칼 · 단도 · 창)는 남자 생식기를 나타낸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남자 생식기의 상징으 로서 종종 손톱을 문지르는 줄이 등장한다(비비기 때문일까)—작은 상자 · 두꺼운 상자·큰 상자·서랍·난로 이외에 동혈(同穴)·배·용기류 일체는 여자의 신체 를 상징한다—꿈속의 방은 대체로 여자이고. 여러 출입문까지 표현되면 위의 해석 은 어긋나지 않는다. 36 '방이 열렸다'든지 '닫혀 있다'는 관심은 이와 관련시키면 쉽 게 이해될 것이다 (《어느 히스테리증 분석의 단편》에서의 도라(Dora)의 꿈을 참 조). 어떤 열쇠가 그 방문을 열어 주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울란트(Uhland)는 〈에버슈타인 백작(Grafen Eberstein)〉이란 시에서 자물쇠와 열쇠란 상징을 품위 있는 외설적 음담에 시도하였다. 줄지어 있는 방 앞을 지나가는 꿈은 유곽이나 규 방의 꿈이다. 그러나 이 꿈은 작스(H. Sachs)가 훌륭한 실례로서 표시하듯이 결혼 생활의 상징에도 이용된다(대조물)—처음에 하나이던 방이 두 방으로 나뉘는 꿈, 또는 그 반대의 꿈은 유아의 성욕 탐구심과 흥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아는 여자 국부(局部 · 엉덩이)에 단 하나의 구멍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유아적 총배설강이론(總排泄腔理論)). 이 신체적 부분이 두 개의 구멍과 입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은 나이가 좀 들면 알려지는 사실이다.—계단·사다리, 특히 그런 것을 오 르락내리락하는 행동은 성교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sup>37</sup>—미끈미끈한 벽

<sup>36 &</sup>quot;하숙에서 생활하는 한 환자가 꿈을 꾸었다. 하녀를 만나서 너는 몇 번이지 하고 물었다. 14번이라는 답에 그는 놀랐다. 그는 사실 꿈에 나온 하녀와 관계가 있어서 그의 방에서 몇 번이나 밀회하였다. 그 여자도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궁의 전날에 어떤 빈 방에서 밀회하자고 그에게 말했다. 그 빈 방은 정말로 14번이었다. 꿈의 여자는 14번이었다. 여자와 방과의 동일화에 대한 이보다 명백한 증거는 없다(존스, 《국제 정신 분석학 잡지》제2권 1914년)." (알르테미도로스 《꿈의 상징》(크라우스 (F.S. Krauss) 역, 비엔나, 1881년, 110면. "그러므로 예를 들면 침실은 정치(正妻)가 집에 있는 경우 엔, 정처를 의미한다.")

<sup>37</sup> 이에 관해서 나는 다른 곳('정신 분석 치료의 장래의 기회'((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1권 1910년 제 1·2호)에서 말한 것을 되풀이하련다. 최근에 알았던 것이지만, 우리들과는 인연이 먼 심리학자가 우리들 중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꿈의 감추어진 성적 의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 나는 참으로 빈번히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꾸지만 거기엔 성적인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이런 비난 에 의해서 주의가 환기되어서 꿈에 나타나는 계단 사닥다리 등을 조사하면, 나는 계단이나 그 외의 비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을 기어오르거나 집의 정면의 벽을(종종 대단히 불안하게) 내려오는 때의 그 벽의 정면은 똑바로 선 사람의 신체를 상징한 것이고, 아마 꿈에서 그 어린아이 때의 양 친이나 유모 등의 몸에 기어오른 기억을 되풀이한 것일 것이다. '미끈미끈한 바깥 벽'은 남자이다. 꿈에서 불안을 느끼고 집의 '쑥 나온 부분'을 붙잡는 일이 종종 있 다-식탁이나 테이블이나 병은 다 같이 여자를 나타낸다. 아마 이것은 이때의 몸 의 만곡(彎曲)을 없애는 대조성 때문의 일일 것이다. '재목(材木)'은 대체로 그 언어 적 여러 관계로 보아서 여성적 소재의 상징인 것 같다. 포르투갈 어의 섬 이름 마 데이라(Madeira)는 '재목'의 뜻이다. '식탁과 침대'는 결혼 생활의 부수물(附隨物) 이기 때문에, 이 둘은 꿈에서는 결혼 생활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성적인 표상군은 음식 표상으로의 전치(轉置)가 된다. —몸에 걸치는 것 중 에서 부인 모자는 우선 대체로 남자 생식기를 의미한다. 똑같이 외투도 음경의 상 징이다. 외투가 남자 생식기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외투(Mantel, 이 말은 남자 Mann의 음에 통한다)라는 말의 음향이 어느 정도 힘을 미치는가에 관 해서는 잠시 묻지 않기로 하자 남성이 꾸는 꿈에서는 곧잘 넥타이가 음경의 상징 으로서 사용되는데, 그것은 넥타이가 길게 드리워 있어서 남자만이 넥타이를 매 는 까닭 이외에, 우리들은 넥타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데 자기의 유경을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는 본래 남자에게 주어 져 있지 않다.<sup>38</sup> 이 상징을 꿈에서 사용하는 남자는 실생활에서는 때때로 넥타이를

숙한 것에 성교가 상징되고 있음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다. 왜 계단이나 언덕길이 성교를 상징하게 되느냐는 쉽게 설명되리라고 믿어진다. 음률적인 간격을 두고 점차로 호흡의 곤란을 증가시키면서 어떤 고도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두서넛의 갑작스러운 비약으로써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성교의 음률이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 속에 재현된다. 언어 관용을 참조할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올라간다'는 그대로 성행위의 대용 명칭에 사용된다. 보통 남자는 '오르는 사람' 또는 '나중에 오른다'로 불리고 프랑스어로서 계단은 마르슈(La marche)이고 '여색에 빠진 노인(Un vieux marcheur)'은 독일어의 '늙은 등반자(Ein alter Steiger)'와 완전히 같다.

38 《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제2권 675면 중의 열아홉 살의 여성 편집증 환자가 그린 그림을 참조, 소녀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뱀을 넥타이로 맨 한 사내의 그림, 또 〈수줍은 사나이〉(《안트로포피테이아》 제 6권 334면)에 의하면 목욕실에 한 부인이 들어온다. 거기에 신사 한 분이 있다. 그는 거의 옷을 걸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대단히 부끄러워서 바로 옷의 앞부분으로 목을 가리고 이렇게 말했다. "용서하시오, 넥타이가 없어서."

큰 사치로 쓰지 않으면서 넥타이를 모은다—꿈에서의 복잡한 기계나 기구의 십중 팔구는 모두 생식기를 의미하고 대체로 남자 생식기이다. 이 꿈 상징은 온갖 방법 으로 묘사하는데 남자 생식기를 말을 익살을 부리듯이 묘사하고, 권태를 느낄 줄 모른다. 끊임없이 모든 무기나 도구가 남자의 음경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는 것도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가래 · 장도리 · 총 · 권총 · 단도 · 칼 등. 똑같이 꿈에 나 오는 풍경, 특히 다리가 있고, 숲으로 덮인 산의 풍경은 생식기를 묘사하는 것임이 쉽게 발견된다. 마르치노프스키(Marcinowsky)는 꿈을 꾼 본인이 그 속에 나타나 는 풍경이나 장소의 모양을 표시하는 그림을 그리고, 자기들의 꿈을 설명한 흥미 깊은 실례를 많이 수집하고 있다. 이 그림들은 꿈에서의 현재적 의의와 잠재적 의 미와의 차이를 대단히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것은 조감 도(鳥瞰圖)나 지도와 같으나, 조금 음미하면 그 그림은 참으로 인체의 조직도, 생 식기나 그 외의 여러 것을 그린 그림이고. 이렇게 봄으로써 비로소 꿈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 피스터(O. Pfister)의 은어나 수수께끼 그림의 연구를 참 조) 또 이해할 수 없는 신조어도 성적 의미를 가진 여러 요소로 된 합성어라 해도 무방하다. 꿈에 나오는 아이는 대체로 생식기이다. 현재 성인 남녀는 곧잘 자기들 의 생식기를 애무적으로 '나의 작은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아이 와 함께 논다. 작은 자식을 때린다. 등은 때때로 수음(手淫)이 꿈으로 표현된 것이 다.—거세(음경 절단)를 표현하는 상징에는 벌거숭이, 단발, 이 빼는 것, 목 자르 는 것이 사용된다. 꿈에 사용되는 음경 상징의 하나가 둘 또는 더 많이 나타나면. 그것은 거세에 대한 항의로 해석된다. 꿈에 나오는 도마뱀도—꼬리가 잘려도 또 나오는 동물이다—같은 의미를 가진다(前述). 신화나 민간 전승 중에 생식기의 상 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동물은 꿈에서도 그대로의 역할을 한다. 생선·달팽 이 · 고양이 · 쥐(생식기의 털 때문에), 특히 남자 생식기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뱀 이 그렇다. 작은 동물 독사는 작은 아이들. 예를 들면 죽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 하는 동생이나 누이동생의 상징이다. 벌레들이 몸에 득실거리는 상태는 때때로 임 신을 나타낸다. 남자 성기의 아주 새로운 꿈 상징의 하나는 비행선이다. 비행선은 그 비행의 관계에 의해서도, 또 때로는 그 형태로 보아서 음경의 상징이 될 자격이 있다. 슈테켈은 부분적으로 역시 충분히 증거하지 못한 일련의 다른 상징의 실례를 펴놓았다. 슈테켈의 저서, 특히 그 《꿈의 언어》에는 부분적으로 날카롭게 추측되는 상징적 해석이 풍부히 수집되어 있다. 또 거기에는 나중에 음미하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죽음의 상징의 일장과 같은 많은 실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슈테켈의 불충분한 비판과, 반드시 일반론으로 끌어가려는 태도때문에 그의 해석은 의심스러운 것이 되거나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슈테켈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나는 약간의 실례로 그치려고 한다.

슈테켈에 의하면 꿈에서의 '오른쪽과 왼쪽'은 도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른쪽의 길은 언제나 정의의 길, 왼쪽 길은 죄의 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왼쪽 길은 동성애·근친상간·성도착을, 오른쪽 길은 결혼·매춘부와의 교제 등을 의미한다. 꿈을 꾼 본인의 도덕적인 개인적 입장에서 언제나 그렇다." '친척들'은 꿈에서 대체로 생식기의 역할을 한다. 나로서는 여기서 단지 아들·딸·누이동생에게만 그런 의미를 인정하고 싶다. 즉 '작은 것'의 범위 안에만 적용시키고 싶다. 이에 반하여 확정된 실례에 의하면 자매는 유방의 상징이고, 형제는 대뇌의 상징임이 알려진다. 슈테켈은 차(車)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쫓아갈 수 없는 나이 차(差)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행의 짐은 그 무게에 괴로워하는 죄의짐이다. 그러나이 여행의 짐은 때때로 틀림없이 자기의 생식기의 상징이 된다. 슈테켈은 또 꿈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고 있으나, 이 해석은 충분한 증거가 못 되고, 또 대체로 맞지 않는 듯 생각된다. 다만 3이란 숫자가 남자 생식기의 상징임은 여러 면에서 확인된다.

슈테켈이 일반화시킨 것 중 하나는 성기 상징의 이중의 의미와 관계된 것이 있다. "만일 공상이 조금이라도 이것을 허락한다면—남성적과 여성적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없는 상징이 어디에 있을까!" 슈테켈은 이렇게 쓰고 있으나, 이 '만일'이란말이 들어감으로써 무엇보다도 그 주장의 가치를 크게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공상은 그것을 반드시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해도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나의 경험에 의하면 슈테켈의 일반적 명제는 좀 더 다양

성을 인정하면 의미를 상실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남자성기를 표현한다면 똑같이 여자 생식기를 표현하는 상징 외에, 주로 또는 전적으로 두 생식기의 한쪽만을 표현하는 상징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다만 남성적 의미 또는 여성적 의미만이 알려진 상징도 있다. 긴 단단한 물체 · 무기 등을 여자 생식기로 쓰거나, 혹은 오므라든 물체(상자, 두꺼운 종이 상자, 갑)를 남자 생식기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꿈이나 무의식적 공상이 성적 상징을 양성(兩性)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에 있어서 일종의 유아기적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이다. 유년 시절은 남녀 생식기의 차이를 아직 모르고, 유아는 남자건 여자건 모두 같은 생식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많은 꿈에서 일반적으로 남자 생식기가 여자 생식기에 의해서 표현되거나, 또는 그 반대된다는 것을 잊으면, 남녀의 양성적 성 상징이라고 오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꿈은 예컨대 남자가 되고 싶다는 여자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음경은 손・발, 여자 생식기의 찢긴 곳(음문)은 입·귀·눈 등으로 표현되듯이, 생식기는 꿈에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표현된다. 인체의 분비물—가래·눈물·오줌·정액 등은 서로 대신된다. 이러한 슈테켈의 견해는 전체적으로 옳으나 라이틀러(R. Reitler)의 견해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국제 정신분석학 잡지》제1권, 1913년). 정액 등 중요한 분비물이 사소한 것으로 대신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상으로 대단히 불완전하게 꿈 상징을 열거했으나, 이로써도 한층 면밀한 수집적 연구로 열어 주는 길이 되었을 것이다.<sup>39</sup> 이보다 훨씬 상세한 꿈 상징의 설명을 나 는 《정신 분석 입문》(1916~1917년)에서 시도했다.

이제 나는 꿈에서의 그런 상징을 사용하는 실례를 조금 더 덧붙여 보련다. 이 실례는, 만일 우리들이 상징에 의한 꿈 해석을 거부한다면 꿈 해석이 얼마나 곤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 또 한편 꿈을 취급하고 있으면 많은 경우에 꿈 상징이 필연 39 셰르너의 꿈 상징론과 위에서 전개된 꿈 상징론과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셰르너야 말로 꿈 상징의 본래의 발견자이다. 정신 분석학의 여러 경험이 옛적(1861년)에 공표되었으나, 세간에서는 황당무계한 것으로 평을 받았던 그의 저서의 명예를 회복하였다고 나는 강조해야 하겠다.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지사로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절박하여지는가를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꿈 해석을 상징의 해석으로 한정하고, 꿈을 꾼 본인의 자유 연상을 음미하는 방법을 버리는 식으로 꿈 해석에 대한 상징의 의미를 과대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말해 두고자 한다. 꿈 해석에서의 이 두 방법은 서로 보완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최초에 설명한 방법, 즉 꿈을 꾼 본인의 자유 연상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방법에 우선권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에 의하여 인정된 상징의 번역은 보조 수단이다.

## (1) 남자(남자 생식기)의 상징으로서의 모자40

(유혹적인 공포 때문에 광장공포증에 걸린 젊은 부인의 꿈 한 토막)

여름에 나는 산보에 나섰다. 묘한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의 복판이 위로 부풀어 올라 있다. 그 모자의 양쪽은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 (이야기는 이곳에서 더듬어진다) 더욱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처져서 드리워져 있다. 기분은 명랑하고 침착하다. 젊은 사관의 한 떼와 마주 지나쳤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손을 내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여자는 꿈속의 모자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못 하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즉 그 복판이 위로 부풀어 오르고 양쪽이 드리워 있는 모자는 아마 남자 생식기일 것이라고. 모자가 남자라는 것은 묘하게 들릴는지 알 수 없으나, 세상에서는 시집가는 것을 "모자의 밑으로 들어간다."고도 말한다. 모자의 양쪽이 불균등하게 드리워져 있는 세부야말로 꿈 해석에 가장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이 부분의 해석은 일부러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즉, 만일 내가 이런 훌륭한 생식기를 가진 남자를 남편으로 한다면 나는 사관들에 대해서 아무런 공포도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본래 당신의 유혹 공상 때문에 동반자 없이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라고 말했다. 그 여자의 공포에 대해서 나는 이때까지여러 번 되풀이하여 다른 재료를 쓰면서 이런 설명을 하였다.

40 〈꿈 해석의 보유(補遺)설〉(《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1권 제5 · 6호, 1911년).

그런데 매우 흥미 있는 것은 이 꿈 해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었다. 그 여자는 앞에서 말한 모자의 묘사를 철회하였다. 양쪽이 쳐진 것을 기억한 일이 없다고 그 여자는 말한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그렇게 들었고, 나의 말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용기를 내면서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즉 나의 남편의 고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처져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남자는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이것으로써 그 모자의 묘한 모양은 뚜렷이 밝혀지고, 이 꿈 해석의 전체를 그 여자가 인정했다. 이 여성 환자가 나에게 위의 꿈을 보고하였을 때, 나는 모자의 상징을 알고 있었다. 이것보다도 더 애매한 다른 약간의 경우에서 나는 모자가 또 여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sup>41</sup>

(2) 작은 것은 생식기이다—차에 치는 것은 성교의 상징이다 (같은 광장공포증 여환자의 또 다른 꿈)

어머니가 자기의 작은 딸을 혼자 걷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낸다. 그 뒤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기치를 타고 가는데, 그 작은 딸이 찻길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걸으면 차에 깔릴 것이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 불쾌해지지만 놀라지는 않는다.) 그리고 창문에서 목을 내밀고 사방을 살펴본다. 몸의 부분이 뒤에서 보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머니에게 딸을 혼자 내보낸 것을 책망한다.

## 분석

지금의 상태로는 이 꿈은 쉽게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 꿈 덩어리의 하나이고, 다른 꿈과 관련되어서만 올바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상징이 있음을 증거하기에 필요한 재료만을 뽑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환자는 처음 이기차 여행을 실제로 있었던 신경증 요양소에서 돌아오는 여행의 암시로 해석될 수 11 키르히그라버(F. Kirchgraber)의 보고(《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3권 1912년)에 있는 일례를 참조. 슈테켈(《연감》 제1권)은 가운데 비스듬히 서 있는 날개털의 모자가 성적 불능의 남자를 상징하는 하나의 꿈을 보고하였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 요양소의 소장에게 이 여자는 반한 상태였다. 어머니가 그 여 자를 데리러 왔다. 소장도 정거장에 전송 나와서 작별 인사로 이 여자에게 꽃다발 을 내밀었다. 그는 여자 어머니에게 이런 장면을 보이는 것을 유쾌히 생각하지 않 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는 그 여자의 연애 방해자로서 등장한다. 실 상 엄격한 어머니는 이 딸의 처녀 시절에 언제나 방해자의 역할을 하였다—환자 의 다음의 생각은 아래의 문장과 관계가 있다. 즉 몸의 부분이 뒤에서 보이지나 않 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사방을 살펴본다. 이것이 현재 내용의 일이고 보면, 말할 나 위도 없이 차에 치어 산산조각이 된 작은 딸의 몸의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여 자는 아주 다른 것을 생각하였다. 그 여자는 전에 한 번 목욕실에서 벗은 아버지 를 뒤에서 본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성(性)의 차이를 말한다. 특히 남자는 뒤에 서도 생식기가 보이나 여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관계 에서 지금 그 여자는 작은 것은 생식기이며. 그 여자의 작은 딸(사실 네 살 난 딸 이 있었다)을 그 여자 자신의 생식기로 해석하였다. 그 여자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가 그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생식기를 지니고 있지 않는 인 간이기라도 한 듯이 살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어머니에게 그 여자가 항변하는 것 이고, 이 비난 · 항변은 꿈의 첫머리('어머니가 자기의 작은 딸을 혼자 걷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내보낸다'.)에서 다시 발견된다. 그 여자의 공상 중에서 바깥에 혼 자 나간다는 것은 "남자를 하나도 갖지 않는다. 성적 교섭을 갖지 않는다(라틴어 'coire'<sup>42</sup>는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그 여자에게는 불만이었다. 그 여 자의 말에 의하면, 사실 딸 시절에는 아버지에게서 특히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질 투에 괴로움을 받았다.

이 꿈의 한층 깊은 해석은, 같은 날 밤에 꾼 다른 꿈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다른 꿈에서 그 여자는 자기를 동생과 동일화한다. 실제로 그 여자는 남자와 같은 딸이 었다. 잘못해서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때때로 들었다. 그러면 동생과의 동 일화에 관련해서 '작은 것'이 생식기를 의미한다는 것은 더 한층 명백해진다. 어머 니는 그(그 여자)를 거세하려고 위협한다. 거세란 음부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대

<sup>42</sup> 성교를 뜻하는 독일어 coitus는 라틴어 coire에서 나왔다.

한 벌이다. 그러므로 이 동일화는 그 여자 자신이 아이 적에 수음(手淫)한 일이 있었음을 표시한다. 그런데 그 여자는 여태까지 동생을 볼 때에만 수음이 기억난다. 남자 생식기에 대한 지식은 그 뒤에 잊었으나, 이 두 번째의 꿈에서 보면 그 여자는 그 지식을 일찍이 갖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두 번째의 꿈은, 여자는 남자가 거세되어서 (음경이 절단되어서) 된 것이란 유아적 이론을 표명한다. 이유아들의 이런 생각을 그 여자에게 들려주었더니, 그 여자는 곧 다음과 같은 일화를 말하면서, 이 생각의 정당성을 실증하였다. 즉 사내아이가 계집아이에게 묻는다. "잘라 버렸어?"라고. 이 물음에 대해서 그 계집아이는, "아니 전부터 이렇게되어 있었어."라고 대답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꿈에서의 작은 것, 생식기를 홀로 보내는 것은 거세의 위협과도 관계된다. 결국 그 여자는 어머니에게 자기를 남자로서 낳아 주지 않은 것을 분개 한다.

'차에 치인다.'가 성교의 상징이란 것은, 아마 이 꿈에서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수많은 다른 재료를 훑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 (3) 건물 · 계단 · 동굴에 의한 생식기 표현

(아버지 콤플렉스에 의하여 억제된 젊은 남자의 꿈)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어떤 곳을 산책하고 있다. 확실히 비엔나의 프라터 공원이다. 왜냐하면 앞에 작은 '앞채'가 있고, 그 건물에 계류기구(繁留氣球)가 있는 '둥근 건물'이 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대단히 '늘어져' 보인다. 아버지가 그에게,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묻는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일단 설명한다. 그리고 둘은 안마당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큰 함석판 한 장이 있다. 아버지는 그것을 찢기 전에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가 하고 주변을 두루 살핀다. 그는 아버지에게 "감시하는 사람에게 말만 하면 손쉽게 찢어집니다."라고 말한다. '층계' 하나가 안마당으로부터 '동굴' 같은 곳을 통하고 있다. 이 갱도(坑道)의 벽은 마치 가죽을 씌운 안락의자와 같이 부드러운 것으로써 채워져 있었다. 갱도의 끝에 상당히 긴 플랫폼이 있고,여기에서 또 새로운 '갱도'가 시작된다.

### 분석

이 꿈을 꾼 본인은 치료하기에 만만치 않은 환자의 종류에 속한다. 어느 점까지는 쉽게 분석되나, 이 점을 넘으면 이 환자는 강력하게 저항한다. 환자는 거의 혼자 힘으로 이 꿈을 "둥근 건물은 나의 생식기이고, 그 앞의 기구는 나의 음경이며, 나는 나의 음경이 처져 있는 것으로 곤란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더 자세히 번역하면 둥근 건물은—아이가 대체로 성기라고 생각하는 엉덩이이고, 그 앞에 나온 건물은 음낭이며, 아버지의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란 물음은, 생식기의 목적과 조직에 관한 질문이다. 이 사태를 거꾸로, 즉 환자가 아버지에게 묻는 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아버지가 물을 리가 없으므로, 우리들은 꿈 사상을 소망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건이란 '만일 내가 아버지에게 성적 설명을 구했다면'이다. 이 생각의 계속은 곧 다른 곳에서 소개하게 될 것이다.

함석판이 깔려 있는 안마당은 처음엔 상징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의 일터와 관계한다. 비밀을 지킨다는 이유에서 나는 '함석판'을 그 아버지가 취급하는 다른 재료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다고 하여 꿈의 줄거리가 변할 걱정은 없다. 꿈을 꾼 본인은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그리고 일찍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던 이익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술책을 매우 불쾌하게 느꼈었다. 그러므로 위의 꿈 사상의 계속은 이렇게 된다. '(만일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면) 그는 그 고객을 기만하듯이 나를 속였을 것이다.' 거래상의 전말을 묘사하는 말 '찢는다' 등은 환자 자신이 다시 설명하여, 그것은 수음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바의 해석일 뿐 아니라, 수음의 비밀이 그 정반대물로 표현된다(공공연하게 드러내도 무방하다)는 것에 참으로 잘 들어맞는다. 이것은 다음으로 첫 꿈의 장면에서의 질문과같이, 수음 행위가 다시 아버지의 신상의 일로 되어 있다는 일체의 기대에 일치한다. 꿈의 당사자는 또 즉시로 갱도를 부드러운 것으로써 속을 넣은 벽이라는 점에서 질(腟)이라고 해석하였다. 내려간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과 질 속에 음경을 넣는 것을 묘사한 것임은, 다른 지식에 의하여서도 보조적인 설명으로서 덧붙일 수 있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다(《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1권 제1호, 1910년에서의 나의 註).

첫 갱도 속에 긴 지면이 있고, 거기에서 새 갱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자기 생활의 역사에서 해석한다. 그는 얼마 동안은 성교가 가능했으나 그 뒤에 많은 장해 때문에 이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 치료를 받고 다시 성교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꿈은 끝에서 흐려진다. 이것은 틀림없이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추측하게 한다. 즉 이 꿈의 제2 장면에는 이미 어떤 다른 테마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테마는 아버지의 장사, 아버지의 기만적인 행동, 갱도로 표현된 질 등에 의해서 암시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들은 여기에 어머니에 대한 한 관계를 상상할 수 있다.

(4) 남자와 생식기는 인물로, 여자와 생식기는 풍경으로 상징된다 (경찰 남편을 둔 어떤 서민 여인의 꿈, 다트너(B. Dattner)의 보고)

······그리고 누구인가 집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여자는 무서워서 순경을 부른다. 그러나 순경은 두 '방랑객'과 사이좋게 한 교회<sup>43</sup> 속에 들어왔다. 교회에는 많은 계단<sup>44</sup>이 있었다. 교회의 뒤에 산<sup>45</sup> 하나가 있고, 이쪽에 울창한 숲<sup>46</sup>이 있었다. 순경은 헬멧을 쓰고 린즈라겐(Rindsragen)을 가슴에 대고 외투<sup>47</sup>를 입고 있다. 그는 갈색의 수염을 뺨에 기르고 있다. 순경과 사이좋게 걸어가는 두 방랑객은 허리에 부대자루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sup>48</sup> 교회 앞에는 산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이 길의 양쪽은 풀과 덩굴로 덮여 있고, 이것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 점점 울창해지고 산꼭대기에 진짜 숲이 있다.

<sup>43</sup> 혹은 예배당이고 질(膣)이다.

<sup>44</sup> 교접(交接)의 상징.

<sup>45</sup> Mons veneris (음부(陰阜)).

<sup>46</sup> Crines pubis(음모(陰毛)).

<sup>47</sup> 외투와 두건을 쓴 정령(精靈)은, 한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남근(男根)적인 것이다.

<sup>48</sup> 양쪽 고환.

### (5) 아이들의 거세 꿈

- ⓐ 3살 5개월의 사내아이.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서 불쾌하게 되풀이하여 이렇게 묻는다. 즉, "왜 아버지는 목 을 쟁반 위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어젯밤에 아버지는 자기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 져왔다.
- ⑤ 오늘 심한 강박 신경증에 고민하는 학생은 그가 여섯 살 때의 이런 꿈을 여러 번 기억하고 있다. 즉 그는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깎는다. 이때 무서운 얼굴에 몸집이 큰 여자가 자기에게로 와서 그의 머리를 자른다. 그 여자를 어머니로 그는 인식한다.

#### (6) 오줌 상징에 관하여

다음의 삽화는 페렌치(Ferenczi)가 헝가리의 만화 잡지 《피디부스(Fidibusz)》에서 발견한 것인데, 꿈 이론을 설명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토 랑크는 〈프 랑스 보모의 꿈〉이란 제목이 붙어 있는 이 그림을 각성 꿈에서의 상징 퇴적(堆積)에 관한 그의 연구에 이미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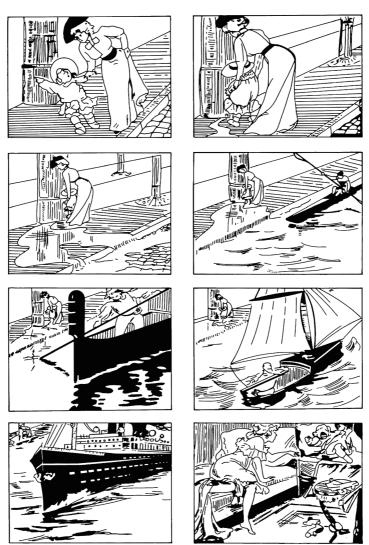
아이의 울음소리로 보모가 잠을 깨는 것을 표시하는 마지막 그림에서야 그 앞의일곱 장의 그림이 어떤 꿈의 양상을 표현함을 우리들은 알게 된다. 첫 번째 그림은 나중에 보모의 눈을 뜨게 하는 자극의 존재를 인정하게 한다. 아이는 소변이 마렵다며 어떤 도움을 요구한다. 그러나 꿈은 침실에서의 상황을 산책하는 상황으로 바꾼다.

두 번째 꿈에서 그 여자는 아이를 어떤 구석으로 데리고 간다. 아이는 오줌을 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옆에서 잠을 계속 잘 수 있다. 그러나 잠을 깨우는 자극은 계속된다. 아니 더 강해진다. 돌보아 주지 않는 것을 안 아이는 점점 큰소리로 운다. 보모가 눈을 뜨고 자기 쪽으로 오기를 아이가 열렬히 바랄수록, 보모의 꿈은 사태에 이상이 없으니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점점 강력하게 보증한다.

동시에 꿈은 이때 잠을 깨우는 자극을 상징 세계로 번역한다. 아이가 누는 오줌은 점점 불어서 네 번째 그림에서 벌써 작은 배를 띄울 정도로 늘고, 다섯 번째 그림 에서 그 작은 배는 곤돌라가 되고, 여섯 번째 그림에서는 범선으로 변하고, 일곱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번째 그림에서는 드디어 기선이 된다. 이기적 수면 욕구와 그칠 줄 모르는 잠을 깨우는 자극 사이의 투쟁이 여기서 슬기로운 방법으로 장난을 좋아하는 만화가에 의해서 그려졌다.



### (7) 계단 꿈

(오토 랑크의 보고와 분석)

이(齒)의 자극 꿈을 보고한 친구의 덕분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비교적 뚜렷한 몽정 꿈을 보고할 수 있다.

나는 계단 입구에서 나에게 무엇을 행한 작은 소녀를 벌하려고 그 뒤를 쫓아서 '계단'을 내려간다. 다 내려간 곳에 누구인가 (혹은 여자일까) 아이를 붙잡아 주었다. 내가 아이를 붙들고 때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갑자기 계단의 목판에 머물고, 그 여자 아이와 (공중에 떠 있듯이) 성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의 성교가 아니라 나는 나의 음경을 그 여자의 외음부에 비비대고 있을 뿐이다. 이때에 나는 그 여자의 생식기와 그 여자의 옆으로 젖혀진 머리카락을 뚜렷이 보았다. 성교 중 나는 왼쪽위에(공중에 떠 있듯이) 두 장의 작은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가장자리에 둘러 있는 한 채의 집 풍경화이다. 둘 중 작은 쪽 그림에는, 보통 화가의 이름이 쓰인 곳에 마치이 그림이 나의 생일 선물로 정해진 듯이 나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리고 이두 장의 그림 앞에 종이 한 장이 걸려 있는데, 그 위에는 "더 값싼 그림들도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나는 앞에서와 같이 매우 희미하게, 마치 계단 중간의 층계참에 있는 침대 위에서 내가 잠자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물에 젖은 느낌으로써 잠을 깨었다. 넓적다리 사이가 젖은 것은 몽정 때문이었다.

#### 해석

꿈을 꾼 본인은 꿈을 꾸기 전날 저녁에, 어떤 책 소매상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걸려 있는 두서너 장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꿈에서 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거기에 있었다. 특히 마음에 든 작은 그림 한 장 곁에 가까이 가서 화가의이름을 보았으나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같은 날 밤늦게 그는 보헤미아 출신의 하녀와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 여자에게서 자기의 사생아가 '계단 위에서 생겼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꿈을 꾼 본 인은 이 비정상적인 사건의 세부를 물어보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 즉 이 하녀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남자의 부모들의 집으로 갔다. 성교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흥분한 남자는 계단 위에서 여자와 성교했다. 꿈을 꾼 본인은 이 일에 대해서 포도주 밀조자에게 흔히 하는 음흉한 욕설을 희롱조로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는 그야말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이상은 상당히 강하게 꿈 내용 속에 들어와, 꿈을 꾼 사람에 의해서 쉽사리 기억된 낮 동안의 체험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똑같이 쉽게 꿈에서 사용된 유아 시절의 기억의 낡은 단편을 기억한다. 계단 있는 집은 꿈을 꾼 사람이 그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내고, 특히 성의 여러 문제를 처음으로 알게 된 집이다. 그는 이 계단의 앞턱에서 곧잘 놀았다. 그때에는 손잡이에 타고 위에서 아래로 곧잘 미끄럼을 탔다. 그때 그는 성적 흥분을 느꼈다. 꿈에서도 그는 지금 그전과 똑같이 매우 빨리 계단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자신도 말하듯이 몇 계단을 밟지 않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날아서 아래'로 내려온다. 혹은 활주한다.—이계단 입구와 이것과 연결된 거실에서 꿈을 꾼 본인은, 또 이웃 아이들과 함께 종종 성적 놀이를 했었다. 그때 그는 꿈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느 졌었다.

우리들이 프로이트의 성적 상징에 관한 여러 연구(《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제1권참조)로부터 꿈에서의 계단이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거의 예외 없이 성교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꿈의 의미는 완전히 명백하다. 이 꿈의 원동력은 그 결과인 몽정이 보여 주듯이 순수한 성욕적 성질의 것이다. 잠의 상태에서 성적 흥분은 (꿈에서는 '급하게 내려온다'—'활주한다'로 표현된다) 자각되고, 붙잡기놀이 위에 성립하는 성적 흥분의 사디즘적 성격은 아이를 쫓는 것과 업혀 눕히는 것에 암시되고 있다. 리비도적 흥분이 높아지고 성적 행위로 돌진한다(이것은 꿈에서 아이를 붙잡고 계단의 복판으로 데려온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꿈은 여기까지는 순전히 성적 상징성의 것이고, 훈련이 부족한 꿈 분석가에게는 알기가 매우 힘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징적 만족만으로는 너무나도 강렬한 성적 흥분에게는 불충분한 것이고, 이 정도의 상징으로 만족한다면 잠을 깨우지 못한다. 흥분은 쾌감의 극치에 도달하고, 계단 상징 전체가 성교의 대용물로 드러난다—만일 프로이트가 계단 상징을 성적 의미로 이용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양자의

행위에 공통되는 율동적 성격을 보여 준다면, 이 꿈은 프로이트의 의견을 매우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된다. 그 까닭은 이렇다. 꿈을 꾼 본인의 명석한 진술에 따르면, 그의 성행위의 율동이나 비비대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이 꿈 전체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지의 그 뜻을 제쳐놓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두그림에 관해서 한마디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꿈 내용에 있어서 큰 (어른) 여자와 작은 여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문제가 되어 있는 사실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다. 또 더 값싼 그림들이 있다고 딱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매춘부 콤플렉스와 관계하고, 한편 작은 그림 위에 있는 꿈을 꾼 본인의 이름과 자기의 생일 선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양친 콤플렉스를 표명한다(계단 위에서 낳는다=성교해서 낳는다).

꿈을 꾼 사람이 바로 층계참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알고 축축함을 느낀다는 희미한 끝 장면은, 유년 시절의 수음의 경험을 넘어서 더 먼 유아 시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몽정과 아주 비슷한 오줌 싸는 쾌감을 느끼는 장면을 모형으로 삼은 것이 될 것이다.

## (8) 색다른 계단 꿈

나의 환자 한 사람 중에 심한 금욕가가 있었다. 그의 공상은 어머니에 고착되어 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는 꿈을 여러 번 꾸었다. 나는 이 환자에 적당한 수음이면 무리한 금욕보다도 해가 적으리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이 말이 자극되어서 그는 이런 꿈을 꾸었다.

피아노 선생이 그에게, "너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고 있네. 모셸레(Moschele) 의 에튜데(Etüde)도, 클레멘티(Clementi)의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Gradus ad Parnassum)도 치지 않고 있어." 하고 꾸짖었다.

그는 이 꿈에 관해서 그라두스(Gradus)는 말할 것도 없이 계단이고, 피아노의 건 반 자체는 음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계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적 사실과 소망의 표현을 거절할 아무런

표상권이 없다고.

### (9) 현실감과 반복의 표현

(현재 35세의 남자가 네 살 때에 꾸었다는 잘 기억하고 있는 꿈.)

아버지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이—이 남자의 아버지는 그가 세 살 때에 죽었다—큰 배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그는 그중 하나를 먹었다. 또 하나는 거실의 창 틀 위에 놓여 있다. 그는 지금 꾸고 있는 꿈을 현실이라고 믿고, 어머니에게 하나 더 달라고 졸랐다. 창문의 틀 위에 있지 않느냐고 어머니에게 말하자, 어머니는 웃기만 했다.

#### 분석

공증인은 쾌활한 노인이고, 그가 믿고 있는 기억에 의하면 실제로 한 번 배를 가져온 일이 있다. 창문의 틀도 꿈에서 본 것 그대로이다. 그 외의 것은 이 남자의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다. 무리하게 생각해 내자면, 최근 어머니가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해준 일이다. 어머니의 머리 위에 새 두 마리가 앉았다. 어머니는 언제 날아갈까하고 생각한다. 날아가기는커녕 새 한 마리가 그 여자의 입 속으로 날아와서 입을 빨았다.

환자에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상징 대용을 통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두 개의 배—사과 혹은 배—는 그에게 젖을 준 어머니의 두 유방이다. 창문의 틀은 집의 꿈에서의 발코니와 똑같이 가슴의 튀어나온 부분이다. 잠을 깬 뒤의 그의 현실감은 옳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실제로 그에게 젖을 먹였다. 더욱이 보통 같으면 젖을 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였다. 그러므로 또 젖을 먹여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꿈의 번역은 이렇다. 즉 어머니, 나에게 한 번 더 젖을 주셔요(보여주셔요), 옛적에 내가 빨았던 젖을. 이 '옛적'은 한쪽의 배를 먹는 것으로 '또 한 번'은 또 다른 배 하나를 바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어느 행위의 '시간적 반복'은 꿈에서 흔히 어떤 물건의 '수적 증대'가 된다. 상징이 네 살의 아이에서 이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물론 주목할 만한 것이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나,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상징을 표현수단으로 사용한다. 인간이 꿈 이외의 세계에서도 얼마나 일찍부터 상징적 표현수단을 썼는가를 다음에 인용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현재 27세의 부인의기억이 가르쳐 줄 것이다. 즉 당시의 그 여자의 나이는 세 살과 네 살 사이였다. 아이를 보는 보모가, 그 여자와 열한 달 아래인 사내 동생 및 이 누이와 동생의 중간나이의 사촌 여동생, 세 사람을 산보에 데리고 나가는 준비 때문에 화장실에 데리고 간다. 그 여자는 최연장자로서 보통의 변기에 앉고 나중의 두 아이는 항아리에용변한다. 그 여자는 조카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도 '돈지갑'을 가지고 있어? 발터(Walter)는 '소시지'를 가지고 있어. 나는 '돈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사촌 여동생은 "네, 나도 돈지갑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보모는 웃으면서 이것을 듣고 있다가 조금 후에 이야기를 부인에게 말한다.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엄격히 책망했다.

여기서 한 꿈을 삽입하여 둔다. 이 꿈은 상징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꿈 꾼 여인의 조그마한 진술로써 쉽게 풀린다.

### (10) 건강한 사람의 꿈에서의 상징 문제에 관하여 49

정신 분석에 반대하는 사람은 종종 다음과 같은 반박을 우리들에게 가했다—최근의 것으로서는 엘리스의 것이 있다. 50 즉 꿈 상징은 아마 신경증 환자의 마음의 산물일 것이지, 결코 건강한 사람에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대체로 정신 분석적 연구는 정상의 심적 생활과 신경증적 심적 생활 사이에 원리적인 차별을 두지 않고 양적 차이만을 인정한다. 물론 꿈에서는 건강한 사람에서나 환자에서나 똑같이 억압된 콤플렉스가 활동하고 있거니와, 꿈의 분석은 상징의 표현이라는 메커니즘이 양자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것임을 가르쳐 준다. 그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은 신경증 환자의 꿈들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더 투명하며 더 고유한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에서는 상징은 건강한 사람에서보다도 강

<sup>49</sup> 알프레트 로비체크의(Alfred Robitsek) 보고(《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2권 1911년).

<sup>50 《</sup>꿈의 세계》, 런던, 1911년.

렬하게 움직이는 검열과, 거기에서 초래되는 대규모의 꿈 왜곡 때문에 종종 어둡고 애매하여 해석을 곤란하게 한다. 다음의 꿈은 이 사실을 해명해 줄 것이다. 이꿈은 신경증에 걸려 있지 않은, 일찍이 무정하고 겸양한 성격의 소녀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녀가 약혼한 몸이지만 결혼을 늦추는 많은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 그 여자는 자진해서 다음과 같은 꿈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

나는 어느 생일을 위해 한 식탁의 복판에 꽃을 장식한다. 나의 질문을 받고 그 여자는 "저는 꿈에서 제 집에 있는 것같이 느꼈으며(그 여자는 지금 자기의 가정을 갖고 있지 않다),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보통' 상징이 나로 하여금 그 꿈을 번역할 수 있게 한다. 꿈은 결혼하고 싶다는 그 여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중앙에 꽃을 장식한 테이블은 그 여자 자신과 생식기의 상징이다. 그 여자는 아이의 탄생을 생각함으로써 미래의 소망을 충족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그 여자는 꿈에서는 이미 결혼하고 있다.

내가 그 여자에게 '식탁의 복판'이라는 표현법이 특이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시인한 것을 나는 그 이상 직접 물을 수도 없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상징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고, 다만 이 꿈의 세부에 대하여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고 그 여자에게 물어보았을 뿐이었다. 그 여자의 소극적인태도는 분석하는 도중에 해석의 뚜렷한 관심과 이 대화의 진실성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솔직한 태도로 바뀌어졌다—그것이 어떤 꿈이냐는 나의 물음에, 그 여자는 처음에는 "상당한 값 아니면 못 사는 비싼 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음에 "골짜기・백합꽃·오랑캐꽃과 패랭이꽃·카네이션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꿈의 백합꽃(lily)이란 말이 보통 뜻으로 순결의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추측하나, 그 여자도 릴리(백합꽃)란 말에 대해서는 '순결'이란 말을 생각한다고 하여 나의 추측에 찬성했다. '골짜기'는 빈번하게 나오는 여성의 꿈 상징이다. 이런 까닭으로 독일어의 마이그뤽켄(maiglöckchen)에 해당되는 영어의 골짜기 백합꽃(lily of the valley)은 두 상징을 우연히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그 여자의 귀중한 처녀성—값비싼 꽃들, 상당한 돈이 아니면 못 사는 꽃—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

되고, 또 미래의 남편이 자기를 올바르게 값을 쳐주면 좋은데 하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값비싼 꽃' 운운의 주석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지만, 세 개의 꽃 상징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견하여 성적인 아무런 것도 갖지 않은 오랑캐꽃의 본뜻을 나는—내가 생각해도 좀 억지이지만—프랑스어의 강간(viol)에 대한 무의식적 관계로 설명하려고 했다. 놀랍게도 이 꿈을 꾼 여자는 '강간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violate'를 우연히 생각해냈다. 오랑캐꽃(violet)과 강간하다(violate)란 두 말의 우연적인 큰 유사성을—영어에서는 이 말의 사이에 악센트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처녀막 파괴 Defloration(이 단어 역시 꽃 상징을 이용한다)의 폭력에 대한 생각과 이 처녀의 마조히즘적인 성격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꿈에 이용된다. 이것은 낱말이란 다리를통해 깊이 무의식계로 통하는 것을 표시하는 훌륭한 예이다. 여기에서 돈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이 경우 그 여자가 아내가 되어 생활하는 것과 어머니가 되는 것을 위하여 치러야 하는 생활의 경험을 의미한다.

그 여자가 나중에 카네이션(carnation)이라고 말한 패랭이꽃(pinks)을 나는 '육체적인 것'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 말에 대해 '빛깔 (colour)'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카네이션이 그녀의 애인이 '때때로' 또 '대량'으로 그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화의 끝에서 그 여자는 자발적으로 갑자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빛깔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취함(incarnation)'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내가 예상하였던 말이었다. 그리고 빛깔이라고 했어도 이때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육색(內色)이란 뜻으로, 즉 동일한 복합체로 규정되었다. 이 여자의 거짓말은 이곳에서 최대의 저항이었다. 또 이 일은 여기서 상징이 뚜렷하였고, 리비도와 억압 사이의 투쟁이 이 성욕적 테마에 있어서 가장 컸다는 사정에 알맞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꽃이 애인에게 빈번하게 보내온 것이라 함은, 카네이션이란 단어의 두 뜻과 함께 이 단어의 꿈에서의 성욕적 의미도 가르쳐 준다. 꽃 선물이라는 낮 생활의 계기는, "나는 나의 처녀성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넘쳐흐르는 애정 생활을 기대합니다."란 성적 선물과 그 답례란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용되었다. 여기에서도 또 '값비싼 꽃, 돈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의—실제로 경제적인—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그러므로 꿈에서의 꽃 상징은 처녀인 여성 상징과 남성 상징, 폭력으로 처녀성을 빼앗기는 것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평소에 대단히, 또 참으로 널리 퍼져 있는 성적 꽃 상징은, 인간의 여러 생식 기관을 꽃이나 식물의 생식 기관으로 상징하고 있는 사실에 주의해 두고 싶다. 애인 사이의 꽃 선물은 아마 대체로 이런 무의식적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그 여자가 꿈에서 준비하는 생일은 아기를 낳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여자는 자기를 애인(남자)과 동일화하고, 그 애인이 여자에게 아기를 낳게 하는, 즉, 성교하는 남자 애인을 표현한다. 잠재 사상은 이런 것이다. 즉 "만일 내가 그 남자라면 나는 기다리지 않고, 상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처녀성을 빼앗고, 폭력을 써서 '성교하고 말' 터인데." 강간(violate)이란 말이 이미 이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다즘적인 성애(性愛)의 요인도 역시 표현되고 있다.

"나는 식탁을 장식한다." 등은 꿈의 한층 더 깊은 곳에서 자기 성애적인, 그러므로 유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여자는 또 다만 꿈에서만 그녀 자신의 신체적 빈약을 인식한다. 그 여자의 신체는 마치 식탁과 같이 평평하다. 그만큼 '복판(그 여자는 다른 때에 '꽃의 복판'이라고 말한다)', 즉 그녀의 처녀성을 강조한다. 또 식탁이 평평한 것도 상징에 한몫할 것이다. 이 꿈의 집중성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낱말 하나하나가 상징적이다.

그 여자는 나중에 이 꿈에 대해서 다음 같이 보충하였다. 즉 "나는 꽃을 오그라든 푸른 종이로 장식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말에 덧붙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통화분을 싸는 종이라고. 또 그 여자는 이렇게 말을 계속한다. "얼른 보기에 예쁘지도 않고 불결한 것, 깨어진 틈이라든가 꽃과 꽃 사이의 작은 틈 따위를 감추기 위하여", "종이는 벨벳이나 이끼같이 보인다."고 말했다.—'장식하다(decorate)'에 관해서 그 여자는 예상한 대로 우미(優美)·애교(愛嬌)(decorum, 몸가짐이 단정함)를 연상하였다. 녹색이 주였는데, 그녀는 희망을 연상하였다. 이것도 임신과의 한관계를 표시한다.—꿈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와의 동일화가 지배적이 아니라,

수치와 솔직이란 관념이 나타나 있다. 그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자기를 깨끗이 하고, 또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는 자기의 육체적인 결점을 고백하고 있다. 벨벳·이끼라는 생각은 확실히 음모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꿈은 그 여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동안, 거의 깨닫지 못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관능욕과 육체의 여러 기관에 관한 생각이다. 즉 그 여자는 "생일을 위해 준비되었다." 즉 남자에게 성교를 당한다. 처녀성을 잃는 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아마 쾌락을 동반하는 수고도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신의육체적 결함을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그 여자가 처녀란 것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결함을 보상하려고 한다. 그 여자의 수치심은 정욕을, 아이를 목표로 삼는다는 핑계로 변호하고 있다. 이 연애하는 처녀와는 상관없는 물질상의 여러 걱정도 이 꿈에 표현되어 있다. 단순한 꿈의 효과—행복감—는 이 꿈에서 강렬한 감정 콤플렉스가 만족되어 있는 것을 고하고 있다.

페렌치는 올바르게도 '아무런 선입견도 없는 사람들의 꿈'이야말로 얼마나 쉽게 상징의 의미와 꿈의 의미를 관찰하게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들의 주목을 촉구하고 있다(《국제 정신 분석학 잡지》 제4권, 1916~7년).

나는 다음에, 현대의 역사적 한 인물을 제시하고 그의 꿈을 분석하려는데, 이 꿈에서는, 이것 이외의 경우에도 음경의 대용물로서 적당한 어떤 재료가, 어떤 부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명백하게 성욕의 상징으로서 특징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승마용 채찍의 '무한한 연장(延長)'은 음경의 발기를 뜻하지 않고 무엇을 의미하랴. 그 뿐만 아니라 이 꿈은 진실한, 성적인 것과는 거의 관계없는 관념이 어떻게 유아적 '성적 재료에 의해 표현되는가에 대한 좋은 예이다.

## (11) 비스마르크(Bismarck)가 꾼 꿈

## (한스 작스 박사에 의거함)

《나의 사상과 추억》제2권 중에서, 비스마르크는 1881년 12월 18일에 그가 독일황제 빌헬름(Wilhelm)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를 제시하였다. 그 편지 속엔 다음과같은 구절이 있다. "폐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다음과 같은 꿈을 하나 말씀드릴 마

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63년의 봄, 저는 대단히 난국에 처하여 진퇴양난에 빠 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이 꿈을 아내와 그 밖의 사람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저는 말을 타고 오른편에 깊은 골짜기를, 왼쪽에 절벽을 가진 알프스의 좁은 산길을 지나갑니다. 산길은 점차로 좁 아져서 말도 드디어 움직이지 않고 장소에 여유가 없었기에 되돌아설 수도 없고. 말 에서 내릴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왼쪽 손에 들고 있던 채찍으로 절벽을 때 리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채찍은 늘어나서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절벽 은 마치 무대와 같이 열려지고 그 뒤로부터 한 줄기의 넓은 길이 열리고 보헤미아에 서 보이는 언덕이나 숲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군기를 든 프로이센의 부대가 보였습니 다. 거기에서 나는 또 꿈속에 있으면서 폐하에게 이것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생각 했습니다. 꿈은 이것으로 끝나고 저는 기력을 회복하여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의 줄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비스마르크는 제1부에서 궁지에 몰리 고, 제2부에서는 그 궁지로부터 구출된다. 인마가 투입된 곤란한 상황은 이 정치 가의 투입된 위기 상태의 꿈에서의 표현이고, 이것은 일목요연한 것이었다. 그는 그 전날 밤에 자기의 정책의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위기 상태를 평상보다 통 절히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비스마르크 자신은 꿈에 표현하게 된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당시의 그의 위치의 절망을 위의 편지 속에서 묘사한다. 그러므로 그 절망 은 비스마르크에게는 철두철미 잘 알려지고 명백하였다. 이것을 우리들은 또 질베 러의 '기능적 현상'의 훌륭한 예라고 생각한다. 생각에 의하여 시도된 모든 해결에 있어서도 넘어설 수 없는 장애에 마주치나, 그렇다고 그 미해결의 여러 문제를 버 려 둘 수도 없는 마음속의 여러 과정은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과 말에 의해서 대단 히 적절하게 표현되었다. 양보 혹은 후퇴를 금하는 자존심은. 꿈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말에서 내릴 수도……없다.'란 말로 표현된다. 남의 행복을 위해 괴로워 하는, 언제나 긴장하는 행동자로서의 자격에서 비스마르크가 자신을 한 필의 말과 비교한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또 여러 기회에서, 예를 들면 저 유명한 "기운 있는 말은 그 마구를 단 채로 죽는다."란 말로 자신을 말에 비교하였다. 이 렇게 해석하면 "말은 이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피곤한 그가 현재의 수 고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가 지금 막 잠과 꿈을 통해서 현실성 원리의 쇠사슬에서 해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부에서 표현된 소망 충족은 제1부 중에서 이미 '알프스의 산길'이란 말로 준비되어 있다. 비스마르크는 그때 이미 다음 휴가를 알프스 산 속에서—즉 가슈타인(Gastein)에서—지내려고 생각했었다. 비스마르크를 알프스 산 중의 사람으로 만든 꿈은, 그러므로 그를 한꺼번에 번거로운모든 국사에서 해방시킨다.

제2부에서 비스마르크의 소망은 이중의 방법으로—적나라하고 뚜렷하게, 그 위에 또 상징적으로 중족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상징적으로는 저지하는 절벽이 없 어지고, 그 대신에 넓은 길—즉 가장 편한 형식으로 찾아진 나아갈 길—이 나타남 으로써 또 전진하는 프로이센 군대를 적나라하게 봄으로써 우리들은 이 예언적 환 상을 설명하는 데 시비적인 여러 관계를 조금도 생각할 필요는 없다. 프로이트의 꿈은 소망 충족 이론으로써 충분하다. 당시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내분(內紛) 에서 최상의 탈춤구가 오스트리아와 싸워서 무찌르는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 었다. 그는 프로이센 군대가 보헤미아, 즉 적국 속에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것을 보지만, 이 사실에 의해서 이 꿈은 프로이트의 말대로 그의 소망이 충족된 것으로 표시된다. 다만 개인적으로 흥미 깊은 것은, 비스마르크가 꿈에서의 소망 충족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의 소망 충족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정신 분석에 밝은 사람은 '무한하게 길어지는' 승마용 채찍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채찍 · 단잡 · 창. 이밖에도 이것과 비슷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음경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위에 이 채찍이 음경의 가장 뚜렷한 특색인 길게 늘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거 기에는 거의 의심할 것이 없다. '무한히' 연장한다는 발기 현상의 과장은 유아적 과 중 에너지 부착을 의미하는 것 같다. 채찍을 '손에 든다.'는 수음의 뚜렷한 암시이 다. 그러나 비스마르크가 그때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것이 훨씬 먼 옛일이 되어 버린 유아 때의 쾌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 서 슈테켈 박사에 의해서 채용된 해석, 즉 꿈에서 왼쪽은 사도(邪道), 금단(禁斷)의 일, 지옥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양친의 금지 를 어져서 행하는 소아의 수음에 매우 알맞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장 은 밀한 유아적인 충(層)과, 정치가인 비스마르크가 직면한 목전의 여러 문제를 가진 가장 높은 충 사이에 또 하나의 중간층의 존재가 지적되는 것이다.

이 중간층은 위에서 말한 두 개의 층과 관련이 있다. 구원의 손으로서의 신을 부 르고. 바위벽을 때려서 궁지로부터 기적적으로 탈출한다는 사건 전체는 모세가 목 마름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위를 때리고 물을 솟게 했다는 성경 중의 한 장면을 상기시킨다. 성경을 믿는 신교도(新敎徒) 가정에서 자라난 비스마 르크는, 물론 성경 속에 있는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곤궁에 빠진 비스마 르크는 쉽사리 자기 자신으로. 자기와 마찬가지로 대중으로부터 반항과 증오와 망 상으로 대가를 받은 지도자 모세와 비교했다. 이로 인해서 현실의 소망에 대한 계 기가 주어진다. 한편 또 이 성경 구절은 수음 공상에 매우 훌륭하게 이용될 수 있 는 많은 점을 가지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지팡이를 잡았다.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벌하고. 모세는 약속된 나라의 흙을 밟지 못하고 죽어 야 했다. 금지된 지팡이—꿈에서도 확실하게 남근(男根)을 의미하는—지팡이를 들 었다는 것—지팡이로 때려서 액체를 솟게 하는 것과 죽음의 위협—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유아기 수음의 특징을 종합할 수 있다. 하나는 천재적 정치가의 마음에 서 유래되고, 또 하나는 원시적인 유아의 영혼에서 유래된 이 두 개의 이질적인 형 상을, 성경의 저 구절을 매개하여서 결부시킨 가공 작업, 이때 이 작업은 모든 고 통스런 요소를 성공적으로 없앰으로써 더욱 흥미롭게 된다. 지팡이를 잡는 것이 하나의 금지된 반역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그 행위를 한 것이 왼손이라는 점을 통 해서만 상징적으로 암시된다. 그러나 그때 현재적 꿈 내용 속에서는 마치 금지나 비밀에 관한 연상을 외면적으로라도 거절하려는 듯이 신의 이름이 불린다. 너는 약속된 나라를 볼 것이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신이 모세에게 준 두 가 지 예언 중에서, 한쪽만은 실현된 것으로서 뚜렷이 표현되고(언덕과 숲을 볼 수 있 다는 것), 또 하나의 대단히 괴로운 예언은 아주 묵살된다. 물은, 이 장면과 앞 장 면을 효과 있게 통합하려는 제2차 가공 작업의 희생이 되었고, 물 대신에 바위벽 자체가 떨어진다.

금지의 동기가 되는 유아적 수음 공상의 종말은, 아이가 자기의 주위의 권위적 인물들이 이것을 몰라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꿈에서 이 소망은 반대물, 즉 이 사건을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소망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런데 이바뀜은 맨 위에 있는 꿈 사상에서와 현재적 꿈 내용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승리적 공상에 진실로 아주 눈에 띄지 않게 결합된다. 이런 승리나 정복의 꿈은 에로틱한 정복 소망의 덮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돌진하는 사람이 저항물에 부딪치거나, 또는 자연히 길게 뻗는 막대기를 이용한 끝에 넓은 길 하나가 나타나는 바와 같은 꿈 하나하나의 특색은 그런 해석을 용허하지만, 그러나 그 특색은 그 해석으로만 이 꿈을 관통하는 특별한 사상의 방향과 소망의 방향을 철저히 측정하기에 아직 불충분하다. 여기서 우리들은 아주 성공한 꿈 왜곡의 전형적인 한 예를 볼 수있다. 불쾌한 것은 잘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불쾌한 것을 보호하는 덮개로서 그위에 확대되어 있는 면직물의 표면은 아무 데서도 솟아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안 · 공포가 억압되어서 나타나지 못한다. 이것은 검열에 의한, 상처 없이 성공한소망 충족의 이상적인 한 예이고, 우리들은 이 꿈을 꾼 본인이 이 꿈으로부터 즐겁게 원기를 회복하고 눈을 뜬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어느 화학자의 꿈을 가지고 이 장을 끝내려고 한다.

## (12) 화학자의 꿈

여성과의 성교에 의해서 수음의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한 젊은 남자의 꿈이다.

## 전경(前景)

꿈을 꾼 날 밤의 전날에 그는 한 대학생에게 그리나르(grignard) 반응을 설명하였다. 이 반응에서 마그네슘은 요오드의 영향을 받고 순수한 에테르로 용해된다. 이틀 전에 이 반응의 폭발로 인해서 한 인부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

#### 꿈

(1) 그는 페닐마그네슘브로미드(Phenylmagnesiumbromid) 취화물(臭化物)을 만들어

야 한다. 장치가 매우 뚜렷이 눈앞에 보였으나, 자기 자신을 마그네슘으로 잘못 알았다. 이제 그는 특이하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으로 된다, 잘 되어간다, 나의 발은 벌써 분해되고 있다, 무릎은 부드러워졌다."라고. 다음에 그는 손을 펴고 발을 만지며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나) 그의 발을 플라스크에서 끄집어내고 다시 이렇게 말한다. 즉 "이래서는 안 되겠어—아니야, 그것으로 잘됐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잠에서 조금 깨었다. 그는 꿈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반수 상태 동안에 매우 흥분하고 자꾸 "페닐, 페닐(Phenyl, Phenyl)"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2) 그는 전 가족과 함께……도중(ing)에 있었다. 열한시 반에 어느 부인과 쇼텐토어 (Schottentor)에서 만날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열한시 반에야 잠을 깼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젠 너무 늦었어, 거기에 들어서면 열두시 반이 된다"고. 다음 순간에 그는 온 가족이 밥상에 모여 있는 것을 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어머니와 국 접시를 든 하녀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는 "자, 식사가 끝나면 외출할 수 없게 되는데……" 하고 중얼거린다.

## 분석

이 꿈은 만날 상대방 부인과의 밀회의 전날 밤의 꿈이다. 그가 가르치는 대학생은 특히 욕지기가 나는 녀석이다. 그는 이 대학생에게 말한다. 즉 마그네슘은 아직 조금도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론 안 된다고. 그러자 그 대학생은 그런 일은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듯이, 물론 이것으론 안 된다고 대답했다. 꿈에서는 그 자신이 이 대학생이 된 듯하다. —그는 마치 이 학생이 '합성(合成)'에 냉담했듯이 자기의 '분석'에 냉담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한 듯하다. "꿈에서 실험하는 '그'는 바로 나이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에 냉담한 그는 나에게 얼마나 욕지기나는 녀석으로 보일 것인가"라고.

또 한편 그는, 그것으로 분석(합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치료의성공 여부다. 꿈에서의 발은 전날 밤의 한 인상을 연상하게 한다. 그는 무용 교습소(舞踊教習所)에서 부인을 만났다. 그는 이 부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 보려

하고 있다. 그는 그 부인이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 부인을 강력하게 껴안았다. 그가 그의 다리를 상대방의 허벅다리에 밀어붙이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에, 그는 그여자가 남자의 두 넓적다리를 강하게 누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꿈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여자는 겨우 승낙을 해 준 (일이 잘 된) 플라스크 속의 마그네슘이다. 그는 나와의 관계에서는 여성이고, 여자에 대해서는 남성이다. 이 부인 쪽이 잘 되면 치료도 잘 된다. 무릎을 만지는 느낌은 수음을 의미하고, 전날부터의 피로에도 부합한다—밀회의 약속 시간은 사실 열한시 반이었다. 지나치게 자서 만나는 일을 망쳐 버렸고, 집에서의 성적 대상(즉 수음)에 머무르고 싶다는 소망은 그의 저항과 일치한다.

'페닐'이라는 이름의 반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보고한다. 즉 자기는 전부터 모두 벤젤이나 아세틸같이 '-일(-yl)'로 끝나는 화학의 기근(基根)을 좋아했으며 사용하 기에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슐레밀(Schlemihl)'<sup>51</sup>이란 기근을 제안하니 그는 크게 웃고. 그가 여름 동안 에 프레보(Marcel Pre vost)의 책 한 권을 읽었던 바. 이 책의 〈애정의 엑스클루스 (Les exclus de l'amour)〉란 한 장에서 '운 없는 사람들(Schlemiliés)'이 문제가 되 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곳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에게 "이것은 나의 경우와 같다." 라고 말했다. — 그가 밀회의 기회를 놓쳤더라면, 그것은 또 슐레밀이었을 것이다. 성적 꿈 상징은 이미 직접 실험적으로 확증된 듯이 보인다. 철학 박사 슈레터는 1912년에 헤르만 스보보다의 시사(示唆)에 따라서 최면술로 깊이 잠든 사람에게 암시를 걸고 꿈을 꾸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암시는 대부분의 꿈 내용을 규정하였 다. 만일 암시가 정상적이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성교를 꿈꾸는 지시를 받으면, 꿈 은 이 지시들을 실행하고, 또 한편 꿈은 성적 재료 대신에 정신 분석적 꿈 해석에 서 알려진 상징을 제정한다. 예를 들면, 한 여자 친구와 동성 연애의 성교 꿈을 꾸 라는 암시에 따라서 꾼 꿈에서. 이 여자 친구는 하나의 낡은 '여행 가방'을 손에 들 고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가방 위엔 '부인 전용'이란 말이 씌어져 있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 꿈꾼 여자는 이제까지 꿈에서의 상징과 꿈 해석에 관해서 조금도

<sup>51</sup> 히브리어에서 온 말로 불운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란 뜻.

알지 못하는 여자이다. 유감스러우나 이 의미 있는 연구의 평가는 슈레터 박사가 그 뒤 얼마 안 되어서 자살하는 불행한 사정에 의해서 방해되었다. 그의 여러 꿈 실험에 관해서 《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에 잠정적인 보고가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꿈에서의 상징을 인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앞에서 중단되었던 전형적인 꿈에 대해 계속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꿈을 대체로 두 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갖는 것과, 내용이 같거나 비슷 하여도 의미가 아주 다른 것들이다. 전자의 예로서는 우리들은 앞에서 '시험의 꿈' 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두었다.

기차를 타는 데 늦은 꿈들은, 그 비슷한 인상 때문에 시험 꿈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음미는 이 접근을 시인한다. 이것들은 잠자는 동안에 느껴진 다른 불안의 움직임, 즉 자기가 죽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에 대한 위안의 꿈들이다. '여행'은 그 원인이 가장 잘 구명되어 있는 가장 빈번한 '죽음의 상징'의 하나이다. 꿈은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한다. 즉 "진정하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시험의 꿈이 "너는 두려워 말라, 이번에 너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위안해 주듯이. 이 두 종류의 꿈 이해가 곤란하게 보이는 것은 불안의 감정이 다름 아닌 '위안의 표현'과 결합되어 있기때문이다.

내가 나의 환자로부터 때때로 충분히 분석하여야 했던 '이(齒)의 자극 꿈'에 대해서 나는 오랫동안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으레 너무나 큰 저항이 꿈을 분석하 는 나에게 부딪쳐 와서 나를 놀라게 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다음과 같은 엄청난 증거가 겨우 뚜렷해졌다. 즉 남성의 경우에, 사춘기의 수음 욕망만이 이런 꿈들의 원동력이 된다. 나는 이런 꿈의 두 개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동시에 또 '비행 꿈'이다. 양자는 한 사람의 꿈이었고, 그 본인은 강한 현실 생활에서 저지된 강한 동성애를 가진 젊은 남자이다.

그는 오페라를 극장의 관람석에 L과 나란히 앉아서 가극 〈피델리오(Fidelio)〉를 구경하고 있다. L은 좋은 인물이다. 그는 진심으로 이 L과 친하고 싶어 한다. 그는 갑자기 관람석의 끝에까지 비스듬히 날아가서 입안에 손을 넣고 이 두 개를 뽑았다.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그는 이 비행을 마치 그가 공중에 '던져진' 것 같다고 표현한다. 〈피델리오〉의 상연이 문제되어 있으므로 다음 시가 연상된다. 즉,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사람은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손에 넣는 것이 이 꿈의 본인의 소망은 아니다. 도리 어 그의 소망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은 다음 두 시구이다. 즉.

한 친구의 친구가 되는 '깨끗이 채인 사람'

꿈은 이 '깨끗이 채임'을 표현하나 그 채임만이 소망 충족은 아니다. 그 채인 뒤에는 또 다음과 같은 괴로운 생각이 감추어져 있다. 즉 자기는 우정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여태까지 여러 번 불행을 맛보았다. 즉 채였었다. 그리고 공포, 즉 그가 〈피델리오〉를 같이 구경한 그 젊은 남자에게서도 이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숨겨져 있다. 거기에다 감수성이 날카로운 꿈을 꾼 당사자에게는 전에 한 친구에게 거절을 당한 뒤에 연정의 나머지 정욕이 넘쳐서 수음을 두 번 계속했다는 부끄러운 고백이 결부된다.

또 하나의 꿈은 이렇다. 즉 그가 알고 있는 두 대학 교수는 나 대신에 그를 진찰한다. 한 교수는 환자의 음경을 만진다. 그는 수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떨고 있다. 또 한 교수는 이 한두 개를 뽑고자 철봉을 그의 입 속에 넣고 쑤신다. 그는 네 장의 견포(絹布)로 묶여 있다.

이 꿈의 성적 의의는 진정으로 명백하다. 견포는 그의 친구인 동성애의 남자이다. 그는 여자와 성교한 경험이 한 번도 없고, 또 실제로 남자와도 성교한 적이 없는 이 남자는, 전에 사춘기 때 알았던 수음을 모형으로 성교를 상상하고 있다.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서 이가 뽑히는 전형적인 이 자극 꿈의 빈번한 변형도 위에서와 똑같은 설명으로 밝혀지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sup>52</sup> 그러나 도대체 왜 '이 자극'이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빈번한 자리 바꿈에 독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이 자리 바꿈은 성 억압에 봉사한다. 또 이 자리 바꿈의 덕분으로 히스테리증에서 생식기를 암시할 여러 감정이나 지향이 적어도 다른 장애가 없는 신체의 각부(各部)에서 실현될 수 있다. 무의식적인 생각의 상징에서 생식기가 얼굴로 바뀌는 것은 이런 자리 바꿈의 한 예이다. 언어 관용(言語慣用)도 이 현상에 공헌하는데, 이것은 언어 관용이 '엉덩이'를 뺨의 동족어로서 인식하고, '음진 (陰唇)'을 입의 찢어진 곳을 둘러싼 입술과 나란히 부를 때, 코는 무수한 암시에서 음경과 대등한다. 음경의 뿌리에 털이 있는 것과 코 밑에 수염이 있는 것이 양자의 유사성의 도(度)를 강화한다. 다만 하나의 형상만이 비교의 가능성 밖에 있다. 그 것은 이(齒)이다. 그리고 이 일치와 배치의 공존이야말로 이(齒)를 성 억압의 중압 밑에서의 표현이란 목적에 적용시킨다.

나는 이것으로써 수음 꿈에서의 '이 자극 꿈'을 (이것이 옳음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나) 완전히 뚜렷하게 해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sup>53</sup> 나는 설명할 때에 알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할 뿐이고, 미해결의 것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언어적 표현 속에 포함된 다른 관련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하나 잡아 뽑는다" 혹은 "하나 때려누이다"란 수음 행위를 의미하는 좋지 못한 표현이 있다. <sup>54</sup> 이 표현이 어디서 오고, 어떤 형상이 그 표현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첫 표현에는 '이'가 아주 잘 합치할 것이다. <sup>55</sup>

- 52 다른 사람에게 이를 뽑히는 것은 대체로 거세를 상징하는 것이다(이발사가 머리를 깎는 것도 같다)(슈 테켈). 예를 들면 코리아트(I, H, Goriat)(《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3권)가 보고하듯이, 치과 의사의 꿈과 이 자극의 꿈은 구별되어야 한다.
- 53 용의 한 보고에 의하면, 부인이 꾸는 '이 자극 꿈'은 출산의 꿈을 의미한다. 어니스트 존스(E. Jones)는 이것을 훌륭하게 증명한다. 위의 의견과 이 해석과 공통되는 점은, 그 두 경우에(거세—출산) 신체에서 그 일부가 이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데 있다.
- 54 이에 관해서는 전술한 '전기적인' 꿈을 참조.
- 55 민간 신앙에서는 이를 뽑거나 이가 빠지는 것은 근친자의 죽음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신 분석은 이

전형적인 꿈의 제2의 그룹에는. 비행하거나 뜨거나 떨어지거나 헤엄치는 등의 꿈 런 해석에 대해서 위에서 해석한 풍자적(諷刺的)인 뜻에서만 그런 의미를 허용하므로 나는 여기서 오 토 랑크가 제공한 하나의 '이 자극의 꿈'을 삽입해 둔다. 이 자극이란 주제에 관해서 얼마 전부터 꿈 해 석의 여러 문제에 매우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한 동료가 보고해 준 꿈을 나는 인용하련다. 전에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치과 의사가 나의 아랫니의 속을 파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쑤셨기에 이가 못 쓰게 되었다. 그는 핀셋으로 그 이를 내가 놀랄만큼 쉽게 뽑아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이것은 지금 치료하 고 있는 이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하면서 그 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이는 윗니의 문치 (門齒)인 것 같았고, 여러 층으로 분열했다. 나는 치료대를 떠나서 호기심으로 옆에 다가서면서 의학 적인 질문을 했다. 치과 의사는 이상스럽게 흰 이의 부분을 나누고, 어떤 도구로 그것을 깨뜨리면서 (분말로 만들면서), "이것은 사춘기와 관계가 있군, 이는 사춘기 이전이 아니면 이렇게 깨끗이 빠지지 않는데, 부인이면 이렇게 쉽게 이를 뺄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는 아이를 낳는 일이지."라고 설명해 주 었다. 나는 그 후에 (반수 상태였다고 생각되나) 꿈 동안에 몽정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꿈의 어느 부 분에서 몽정하였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이를 뺀 때인 것 같았다. 다음 나는 계속해서 어떤 사건 을 꿈에서 보았다. 물론 그 사건은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 끝 부분은, 나는 누가 나중에 웃을 가져다주 겠지 생각하고, 모자와 웃옷을 어디인가(아마 치과 의사가 휴대품을 두는 곳)에 둔 채로 외투만을 걸 치고, 곧 떠나게 될 기차를 타려고 급히 나섰다. 겨우 뒤 찻간에 뛰어올랐으나 거기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 나는 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편한 자세로 여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몸을 편히 하 고자 노력했었다. 그러는 중에 긴 턴넬에 들어갔다. 그때 반대 쪽에서 열차가 둘이 마치 우리들의 기 차가 턴넬인 양 돌진해 왔다. 나는 바깥에서 안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꿈의 분석 재료 로서 다음과 같은 전날의 사건과 관념을 들 수 있다. (1)나는 얼마 전부터 치과 의사를 사실상 찾아다 녌다. 그리고 이 꿈을 꾸었을 때 아랫니가 언제나 아팠다. 바로 이 이를 꿈에서 치과 의사가 이리저리 만졌다. 실상 의사도 내가 불리하게 생각하리만큼 오랫동안 이를 만지작거렸다. 꿈을 꾼 전날에도 이 가 아파서 의사에게 갔었다. 의사는 치료 중의 이가 아픈 것이 아니고 다른 이에서 아픔이 오는 것 같 다고, 치료 중의 이와 같은 턱인데 이것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이는 이제 막 나오려는 어금니였 다. 나는 이 기회에 의사에게 이 치료에 관해서 그의 의사로서의 양심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였 다. (2)같은 날의 오후, 나는 한 부인에게 이가 아프고 기분이 나빠서 라면서 사죄하여야 할 일이 있었 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자기도 이가 아주 부서져서 뿌리가 빠지지나 않을지 두렵다고 말했다. 그 여 자는 이를 뽑는 것도 안치(眼齒)(Augenzähnen)라면 특히 아프고 위험하다고 했다. 친구가 이 여자에 게 윗니(이것이 그 여자의 경우였다)가 아랫니보다 쉽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여자에게 전 에 마취를 받고 다른 이를 뺐다고 말해 주었다. 이것을 듣고 그 여자는 꼭 해야 하는 수술에 점점 무 서워졌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에게, "안치란 구치(臼齒) 또는 견치(犬齒)입니까, 또 그런 이에 대해서 보통 무엇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한편 보통 전해지는 어떤 것 이 미신적인 것이었다는 것과, 또 한편 속신(俗信)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 다. 이에 대해서 그 여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대단히 오래되고 곧잘 일반에게 알려져 있는 미신이 있다고 말했다. 즉 그것은 '임신한 여자가 치통을 느끼면 남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③이 와 같이 속담에서도 이와 남근(사내아이)과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므로, 이 속신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제2판에서 보고된 수음의 대용으로서의 이 자극 꿈의 유형적인 꿈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퍽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꿈의 해석》의 당해 부분을 다시 읽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발견

이 있다. 이런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에는 일반적인 답을 할 수가 없다. 하였다. 이 프로이트의 설명이 나의 꿈에 준 영향이 쉽게 인식되는 것은, 상기의 두 체험의 영향과 같 다. 프로이트는 꿈 자극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다. "이 꿈들의 원동력은 남자에서는 다름 아닌 발정기 의 수음 욕망이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서 이를 뽑히는 따위의 전형적 이 자극의 꿈의 빈번한 변형은 같은 설명으로써 이해되다. 그러나 왜 이의 자극이 그런 뜻을 가지느 나는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래에서 위로'의 대단히 빈번한 '벼위(變位)(전술한 꿈 에서는 아래턱에서 위턱으로의)'에 나는 주의한다. 이 변위는 성욕을 억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 이 있음으로써 히스테리증에 있어서 생식기를 암시할 일체의 감정이나 지향(志向)이 적어도 다른 이 의 없는 신체의 부분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하나의 언어 표현 속에 포함된 관 련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음 행위에 대한 야비한 말. 한 대 뽑는다. 또는 한 대 찢는다란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은 나의 아이 시절부터 수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점에서 숙련된 꿈 분석가는, 이 꿈의 밑바닥에 있을는지도 모르는 유아시절의 재료로 들어가는 입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뽑힌 뒤에는 위의 이가 문치(門齒)로 변하는 이가 꿈에서 쉽게 빠졌다. 이 쉽게 빠지는 것은 나로 하여금 유년 시절의 한 사건, 즉 흔들리고 있던 '위의 전치(前齒)'를 쉽게 고통도 느끼지 않고 '나 혼자서 뽑은' 기억을 환기시켰다. 오늘 날에도 자세 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한 사건은, 의식적으로 처음으로 수음해 본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다(은 폐 기억). 이 자극이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융의 한 보고를 프로이트가 취한 것 과, 임신 중의 여자의 치통의 의의에 관한 민간 신앙은, 꿈속에 있어서의 남자에 대해서 여자의 의의 를 대환(對還)시킬 계기를 주고 있다. 이에 관해서 나는 옛적에 꾼 꿈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치과 의 사로부터 돌아와 얼마 안 되어서 꾼 꿈인데, 이제 금방 끼운 금니가 빠진 꿈이었다. 겨우 끼운 금니라 생각하니 매우 화가 났다. 그 금니의 비용을 마련하기에 나는 당시 상당한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현 재 나는 이 꿈을 어떠한 사건과 관련시켜서, 비용이 드는, 대단히 불리한, 상대방이 있는 정사에 대해 서 비용이 들지 않는 수음의 장점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임신 중의 여자의 치통의 의 미에 관한 저 부인의 보고는, 그런 생각을 다시 나의 마음속에 환기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은 나 의 친구가 꾼 꿈이고, 또 친구 자신이 행한 꿈 해석의 대강인데, 대단히 명백하고 비난할 곳이 없는 것 으로, 나는 이에 꿈의 뒷부분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의미에 관해 한 마디 말해 두고자 한다. 그 것은 이(zahn—이를 뽑는다 zahn-ziehen—기차 zug) 또 '뽑다' reisen—'여행하다' reesin는 비슷하 게 통하는 말이다)란 언어 연상을 매개로 해서 수음에서 정상의 성교(턴넬, 그곳을 빠져서 기차가 각 각 반대쪽으로 들락날락 한다)에로의 이행, 일견해서 모든 곤란을 무릅쓰고 실행된 이행과 성교에 따 르는 위험(임신·외투)을 표현한다. 이에 반해서 이 꿈은 나에게는 이론적으로 두 면에서 흥미롭다. 첫째로 이 꿈은 꿈속에서의 사정(射精)이 이를 뽑는 행위 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프로이트가 발견한 관 련을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건 간에 몽정이란 것을 기계적 자극을 주지 않고 성취하는 한 개의 수음적 만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때 몽정에 의한 성욕 만족이 보통 때와 같이 가공의 대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히 말한다면 무대상이며, 순수하게 자기성 애적(自己性愛的)으로 기껏해야 동성애적 특징(치과 의사)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한 사정이 덧붙여져 있다. 나에게 강조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2의 점은 다음과 같다. 이 꿈 내용을 이용 하는 데에 전날의 여러 경험으로써 충분하므로, 프로이트식 생각은 이때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항의가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치과 의사를 찾는 것, 부인과의 대화, 《꿈의 해석》을 읽은 것

이 꿈들은 나중에 언급될 것이나, 그 꿈들이 포함하고 있는 감각의 재료가 언제나 동일한 원천에서 유래한다.

우리들이 정신 분석을 통해서 보존하고 있는 보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즉 이 꿈도 역시 아이 시절의 여러 인상을 되풀이한다. 즉 아이에게 가장 재미있는 요동(搖動) 놀이와 관계가 있다. 어른은 작은 아이를 방 속에서 던지거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갑자기 무릎을 열고 아이를 아래로 떨어뜨리는가 하면, 두 팔로 아이를 높이 쳐들고 갑자기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기뻐하고 두려움과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때에는 더욱 집요하게 몇 번이나 그런 짓을 되풀이하려고 한다. 다음에 아이들은 세월이 지난 뒤에 꿈에서 아이 시절의 유희를 반복하지만, 그 시절 자기를 지지해 주던 손들이 꿈에 나온다. 그 때문에 자기들의 몸이 공중에 쉽게 뜨거나 떨어진다. 그네와 시소와 같은 놀이를 작은 아이들이 펄 즐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들이 서커스에서 곡예를 볼 때, 옛 기억이 새로워진다. 아이(남자)의 히스테리적 발작이 대단히 오묘하게 완성되는 여러 요술을 재연하는 데에서만 성립된다. 그 자체에 해가 없는 이러한 운동의 유희에서 성적 감각이 각성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5% 이것을, 우리들에게서 잘 쓰은 밤에도 치통에 고통 받는 인간이 이런 꿈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은 밤에도 치통에 고통 받는 인간이 이런 꿈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잠을 방해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걱정되는 고통의 느낌을 성욕으로써 없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픈 이를 뽑아버린다는 표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런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이 꿈을 꾼 본인이 고백하듯이(한 대 뽑는다), 이를 뽑는 것과 수음과의 관련이 이전에 이 본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프로이트의 설명을 읽기만 해도 그 관련이 이사람의 음 속에 만들어지거나, 혹은 또 현실로 이 관련이 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그 부인과의 대화와 함께, 이 관련이 작용하게끔 한 것은 그가 《꿈의 해석》을 읽었고, 구명한 이유로써 이를자극하는 꿈의 이런 전형적 의의를 진심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과연 이런 모든 종류의 꿈에 관한프로이트의 말이 타당한가를 알고 싶다는 소망을, 이 사람이 나중에 말한 사실에 의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꿈은 적어도 그의 개인에 관한 한도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에게, 왜 그가 이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가를 표시했다. 즉 이 꿈은 이 의미에서도 또 하나의 소망 충족—그런 프로이트의 의견의 유효 범위와 신빙성을 믿고 싶다는 소망 충족이다.

56 이에 관해서는, 신경증이 나은 한 젊은 동료가 나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나는 나의 체험에서 다음의 사실을 알았다. 즉 나는 전에 그네에서 내려올 때에 큰 무게를 느끼는 순간 진정한 성욕을 느꼈다. 이성욕은 그것이 나에게 유쾌한 것이 아니었으나, 쾌감으로 규정될 수 있다."—여러 환자들로부터 나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다. 그 환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쾌감을 가지는 첫 발기는 어린 시절의

이고 위와 같은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말로써 말한다면, 그것은 아이 시절의 '꼬리 잇기(Hetzen)'이다. 이 놀이는 비행·추락·어지러움 등의 꿈이 되풀이하고, 이 놀이의 쾌감은 이제 불안으로 변한다. 어머니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아이들의 '꼬리 잇기' 놀이는 실제와 빈번히 충분한 싸움과 울음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 설(說)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의 우리들의 피부 감각의 상태나, 우리들의 폐의 움직임의 자극 등은, 비행과 추락의 꿈들을 불러일으킨다. 도리어 그 자극 자체는 꿈이 관계하는 기억에서 재현되고, 따라서 그 자극들은 꿈 내용이지 꿈 원천이 아니다.

여러 운동 감각의 이와 같이 동질적이고 동일한 원천에서 유래하는 재료는 이제여러 종류의 꿈 사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비행이나 떠다니는 대단한 쾌감을 수반하는 꿈은 필연적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매우 잡다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며,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자체가 유형적인 성질로 해석되기를 요구한다. 나의한 여환자는 땅에 몸이 닿지 않고 어떤 공간 속을 떠다니는 꿈을 빈번히 꿨다. 그여자는 키가 작았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모든 불결을 싫어했다. 그여자의 떠다니는 꿈은 이 두 소망을 채우고 있다. 이때 이 꿈으로 인해서 발은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가 높은 곳에 솟아난다. 꿈을 꾼 다른 여자의 경우에 날아다니는 꿈은, 만일 내가 작은 새가 되었더라면 하는 동경을 의미한다. 또 다른 여성들은 낮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음으로써 밤에 천사가 되었다. 날아다니는 것이 새의관념과 밀접하게 결부되면, 남자들에 있어서의 비행 꿈은 대체로 상스러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이해된다. 우리들은 이런저런 꿈을 꾼 사람들이 언제나 그들이 날수 있는 것을 대단히 자랑한다고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비엔나의) 파울 페더른(Paul Federn) 박사는 대단히 재미있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즉 날아다니는 이러한 꿈의 대부분은 음경이 발기하는 꿈일 것이라 한다. 발기라고 하는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공상을 활동하게 하는 현상은 중력(重力)의 지양(止揚)으로서 우리에게 일종의 감명을 주고야 만다는 것이다

기어오르는 것에서 나타났다.—정신 분석의 확신에 의하면 첫 성욕 발동은 유년 시절의 잡아당기기 눌이나 비비는 놀이에 뿌리박고 있다. (옛 사람들은 날개 돋친 음경을 상상하였다).

꿈 해석을 싫어하는 비공상적 꿈 실험가 모리 볼드(Mourly Vold)도 떠다니는 꿈을 성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목된다(《꿈에 관해서》 제2권). 그는 성욕을 '떠다니는 꿈의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부르고, 이 꿈들을 동반하는 몸 안의 거센 진동 감과, 그리고 이 꿈들이 발기나 혹은 몽정과 빈번하게 결합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추락의 여러 꿈은 비행의 꿈인 경우보다 더 한층 빈번히 불안을 동반한다. 여성의 경우에, 이런 꿈의 해석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추락의 꿈은 성적 유혹으로의 굴복을 달리 표현한, 추락의 상징적 이용을 거의 예외 없이 채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또 추락의 꿈의 유아적 원천을 충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아이는 때때로 위로 추켜올려지고 내려지면서 애무된다. 밤에 침대에서 떨어지면 돌봐 주는 사람이 그 사이를 이불 속으로 넣어 준다.

헤엄치는 꿈, 예를 들어 유유히 파도를 헤치면서 헤엄치는 꿈을 꾼 사람은 아이 때에 곧잘 잠자리에서 오줌을 싼 사람이고, 이미 오랫동안 부득이 단념해온 쾌감을, 헤엄치는 꿈속에서 되풀이한다. 헤엄치는 꿈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나중에 실례를 들어서 해석할 것이다.

불타는 여러 꿈의 해석은, 아이들이 밤 사이에 오줌을 싸지 않도록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의 하나에서 그 발단을 찾는다. 또 이런 꿈의 밑바닥에는 유아 시절의 야뇨증의 기억도 남아 있다. 나는 《어느 히스테리증 분석의 단편》 (1905년) "에서, 이 꿈을 꾼 여환자의 병 과정과 관련하여서 불의 꿈을 완전히 분석하고 종합하며, 이 유아적 재료가 성년에 달한 뒤에 어떤 충동을 표현하는 데 이용되는가를 표시하였다.

만일 우리들이 전형적 꿈 중에서, 여러 꿈을 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현재적 꿈 내용의 빈번한 되풀이란 사실을, 예컨대 좁은 길을 지나가는 꿈이나, 방이 많이 있는 앞을 걸어가는 꿈이나, 신경질의 사람이 잠들기 전에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 꿈이라든지, 야수(목우(牡牛) · 말(馬))에 쫓기는 꿈, 칼 · 단검이나 창 등에 위협을 받 57 전집 제5권 1909년.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는 꿈을 이해한다면 이 재료의 전문적 연구도 유익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만을 써 두고자 하는 바, 그 두 사실은 물론 전형적 꿈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꿈 해석에 종사할수록 어른들의 대다수의 꿈이 성적 재료를 취급하고, 성적 소망을 표현하는 사실을 승인하려는 심정이 강해진다. 꿈을 실지로 분석하는 사람만이, 즉 꿈의 현재적 내용에서 잠재적 꿈 사상으로 돌진하는 사람만이 꿈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권리를 가지나, 예를 들면 성적 꿈의 연구에서 네케(B. Näcke)와 같은, 현재 내용을 기록하는 데에만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 우리들은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놀라움이 되지 않고 꿈을 설명하는 우리들의 근본 원칙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 두자. 성 충동이 그 충동의 많은 성분 속에서 억압되듯이, 성 이외의 충동은 반드시 유아 시절부터 대단히 많은 억압을 받은 것은 아니며, 55 어떠한 충동이라 할지라도 성 충동처럼 많은 강렬한 무의식적 소망들을 남기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적 콤플렉스의 이런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것도 아니다.

주도면밀하게 해석하면, 우리들은 많은 꿈에서 그 꿈들이 동성애적 충동, 즉 그 꿈을 꾼 본인의 정상적인 성적 행위와는 반대되는 충동을 실현하는 하나의 거부할수 없는 제2차 해석을 성립시킴으로써 그 꿈들 자체가 양성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슈테켈<sup>®</sup>이나 아들러<sup>®</sup>가 주장하듯이, 모든 꿈이양성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감히 주장할수 없고 또 논증할수도 없는, 그리고 있을수도 없는 특수한 경우와 보편화인 듯이 생각된다. 나는—가장 넓은 의미에서—성적 욕구 이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꿈들, 즉 공복(空腹)의 꿈, 목마른 꿈, 편리한 꿈 등이 많이 있다는 명백한 현실을 부정할수 없다. "모든 꿈의 배후에는 죽음의 약속이 발견된다(슈테켈)."라는 의견이나, 모든 꿈은 "여성적인면에서 남성적인면에로의 전진"이라고 인정하는 견해(아들러)는. 나에게는 꿈 해

<sup>58 《</sup>성 이론에 관한 세 논문》, 1905년, 제3판을 참조.

<sup>59 《</sup>꿈의 언어》, 1911년.

<sup>60 〈</sup>현실과 신경증에 있어서의 심적 양성체〉, 〈의학의 진보〉1910년 제16호 및 《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1호, 1910~11년)에 게재된 후기의 제(諸) 논문.

석의 권한을 훨씬 넘는 것으로 생각된다.—'모든 꿈'이 (그것에 대해서 문헌으로 어디까지나 반대론이 제출되는) '하나의 성적 해석을 요구한다.'는 주장은 문헌을 통해 끊임없이 반대론이 제기되는 주장인데, 나의 꿈 해석에는 낯선 것이다. 이 주장은 나의 《꿈의 해석》의 제5판의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꿈의 해석》의 다른 내용과는 뚜렷이 모순된다.

특히 '악의 없는' 꿈이 실지로 대담한 욕정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위에서 도 주장한 바와 같이, 무수한 새로운 예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면으로나 평범하고 의미 없는 꿈들 또한 분석 결과, 뜻밖에도 확실한 성적인 욕망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석하기 전에는 아무도 다음과 같은 꿈에서 성적 욕망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꿈을 꾼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즉 두 개의 웅장한 궁전 사이의 약간 들어간 곳에 작은 집한채가 있고, 그 문이 닫혀져 있다. 아내가 그 작은 집에까지 길을 안내하면서 나를 데리고 간다. 아내는 문을 밀고 열었다. 그러자 나는 재빨리 아주 쉽게 비스듬히 언덕있는 안마당으로 미끄러져들어간다.

꿈을 번역한 경험 있는 사람은 좁은 공간을 밀고 들어간다든지, 닫힌 문을 연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대단히 일반적인 성적 상징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고, 이 꿈에서 쉽게 뒤로부터의 성교의 시도(여자 몸의 웅장한 엉덩이 두 골짜기사이에)를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좁고 비스듬히 올라가는 통로는 물론질(腟)이다. 이 꿈을 꾼 본인의 아내에게 맡겨진 (길을 안내한다는) 조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해석하게 한다. 즉 아내를 생각한 나머지 그와 같은 성교의시도를 현실적으로는 단념한다고. 또 그 남자는 이렇게 알렸다. 즉 꿈을 꾼 전날에젊은 여자가 이 집에 고용되었다. 그는 이 여자에 마음이 쏠려서 위에서 말한 방법을 쓰면 이 여자도 과히 싫어하지 않을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 두 개의 궁전 사이의 작은 집은 프라하의 흐라트신(Hradschin)의 기억과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프라하 출신의 여자와 역시 관계된다.

내가 화자들에게,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와 성교하는 오이디푸스 꿈을 빈번히 꾼다 고 강조하면, 그들은 그런 꿈을 꾼 일이 없다고 보통 대답한다. 그러나 즉시 희미 한, 특히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종종 되풀이해서 꾸었던 꿈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 리고 이것이 같은 내용의 꿈. 즉 오이디푸스 꿈임이 분석된다. 나는 어머니와 성교 를 위장한 꿈이 솔직한 꿈보다 몇 배나 빈번하게 꾸는 꿈임을 증명할 수 있다. 61 풍경 또는 장소에 관한 꿈 가운데 우리들이 여기에 한 번 온 적이 있다는 느낌이 뚜렷한 꿈이다. 이 '온 적이 있다'는 느낌은 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경 우 그곳은 언제나 어머니의 생식기이다. 사실 '온 적이 있다'와 같이 뚜렷하게 단언 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말고 또 있을까. 단 한번 나는 어느 강박 신경증 환자가 꾼. "나는 전에 '두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집을 방문했다."라는 꿈의 보고에 접하고. 그 해석에 헤맨 일이 있다. 이 환자는 상당히 오래 전에 나에게 그의 여섯 살 때의 일 하나를 말해 주었다. 그는 여섯 살 때 한 번 어머니의 침대 속에서 잤는데. 그 기회 를 이용하여서 잠자고 있는 어머니의 음문에 손가락을 밀어 넣은 적이 있었다. 불안과 공포를 수반하는 좁은 곳을 통과하거나 물속에 머물러 있는 따위를 내용으 로 하는 많은 꿈의 밑바닥에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의 생활이나, 모태 내의 생 61 나는 이런 위장된 오이디푸스 꿈의 대표적인 한 예를 《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의 제1호에 발표하였다. 또 같은 잡지 제4호에서 오토 랑크는 다른 한 예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눈(眼)의 상징이 나오는 다른 위장된 오이디푸스 꿈에 관해서는 랑크(《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1권 1913년)를 참조. 동권(同卷)에 서 또 에더(Eder) · 페렌치 · 라이틀러(Reitler)의 '뉴의 꿈' 및 뉴의 상징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오 이디푸스 전설에 있는 실명은 다른 경우와 같이 거세의 대용이다. 여하튼 고대인에게도 뚜렷하게 오 이디푸스 꿈의 상징적 해석이 알려져 있었다. (랑크, 《연감》 제2권 참조). 거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Julius Casar)에 관해서 어머니와의 성교의 꿈이 전해지고 있다. 이 꿈은 꿈 해석자들에 의해서 대지 를 소유하는 길조로 해석되었다('대지 에더(Erde)는 즉 어머니인 대지 Mutter-Erde'). 똑같이 타르퀴 니아(Tarquins) 시민들에게 주어진 신탁도 유명하다. 즉 "타르퀴니아 시민 중에서 최초로 '어머니와 키스하는 자'의 손에게 로마의 지배가 위임될 것이다." 이것을 브루투스(Brutus)는 '어머니의 대지'로 해석하였다(《리비우스(Livius)》 제1장 참조), 이에 관해서는 헤로도투스(Herodot)(제6장)에 있는 히피 아스(Hippas)의 꿈을 참조. "그러나 히피아스는 외국인들을 마라톤에 데리고 갔으나 그 전날 밤에 그 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즉 히피아스는 어머니와 함께 자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 꿈을 자 기가 고향 아테네로 돌아가서 다시 지배권을 쥐고 늙어서는 고향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신화와 해석은 올바른 심리학적 인식에 의거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특히 사랑받고 우대받은 사람은 실제의 인생에서 왕왕 영웅적으로 보이고, 실제의 성공을 거두는 이상스러운 자신, 확고한 낙천주의

(樂天主義)를 표시하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활, 출산 등에 관한 공상이 있다. 다음의 묘사하는 꿈에서 나는, 공상 속에서 양친의 성교 행위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자궁 속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한 젊은 남자의 꿈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는 깊은 갱 속에 있다. 그 갱에 있는 젬머링(Semmering) 터널에서와 같은, 이 창문을 통해서 그는 먼저 광막한 풍경을 본다. 다음에 그는 그 창문 속에 금방 본 광경 하나를 그려 넣고 빈 곳을 채운다. 이 광경은 밭을 표현하고 있다. 그 밭은 쟁기로 깊이 파헤쳐진다. 산뜻한 공기, 그 밭에서의 철저한 작업이란 생각, 푸른빛이 도는 거무스레한 흙덩어리가 아름답게 표현된다. 다음에 그는 교과서가 펼쳐져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이 아이의 성적 감정에 깊은 주의가 기울어지는 것에 놀라며나를 떠올린다.

특히 치료에 이용된 어느 여환자의 아름다운 물의 꿈도 있다.

호반에서 피서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자는 어두운 물속에 떨어진다. 물속엔 희고 푸른 달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런 종류의 꿈은 아이를 낳는 꿈이다. 이 꿈을 성공적으로 해석하려면 현재 내용으로서 보고된 사실을 거꾸로 보면 된다. 물속에 떨어지는 대신에—물에서 나온다. 말하자면 '낳는다'고 해석하면 된다. <sup>62</sup> 프랑스 말의 '달'의 익살맞은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나온 곳을 알 수 있다. 다음에 푸르스름한 흰 달은 아이가 자기들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상상하는 흰 엉덩이이다. 그런데 그 피서지에서 '낳고 싶다.'는여환자의 소망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내가 꿈을 꾼 여자에게 물었더니, 그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즉 "말하자면 나는 치료로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하고. 이렇게 이 꿈은 치료를 그 피서지에서 계속하는, 말하자면 그 여자에게 피서지를 방문하라는 초대의 뜻을 가진다. 이 꿈은 또 아마 자기가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매우 수줍게 토로한 것일 것이다. <sup>63</sup>

- 62 물의 탄생의 신화적 의미에 관해서는 랑크의 《영웅 탄생 신화》(1909년)를 참조.
- 63 모태 내 생활에 관한 공상과 무의식적 사상과의 의미는 나중에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공상이나 사상은 생매장된다는 극히 많은 사람의 기묘한 불안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포함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탄생 전의 이 불안스러운 생활의 미래에로의 투영을 나타내는 데 불과한, 사후 생명의 가장 깊은 무의식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여하튼 낳는다는 행위는 최초의 공포 체험이고, 따라서 불안 감

또 다른 탄생의 꿈을 존스(E. Jones)의 한 꿈 연구와 해석에서 빌리려고 한다. 그 여자는 바닷가에서 자기의 아이 같은 작은 사내아이가 물속을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는 깊은 곳으로 점점 걸어가서 이제는 머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머리가 물의 표면을 오르락내리락한다. 장면은 어느 호텔의 손님으로 혼잡한 홀로 변했다. 남편이 그 여자 옆에서 떠났다. 그 여자는 낯모를 남자와 이야기한다.

분석으로 드러난 이 꿈의 뒤 절반은, 남편에서의 도피와 제3자와의 은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현된다. 앞의 절반은 뚜렷이 출산의 꿈이다. 신화에서나 꿈에서나 다 양수에서의 아기 분만은 보통 전도된 표현을 통해 아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도니스(Adonis) · 오시리스(Orisis) · 모세(Moses) · 박카스(Bacchus)의 탄생은 이 밖의 수다한 예와 함께 예부터의 주지(周知)의 예증이다. 물속에 머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그 여자가 단 한번 임신 중에 알았던 태아의 움직임의 느낌을 즉시로 연상하게 했다. 물속에 들어가는 사내아이란 관념은 여러 환상을 일으킨다. 그 여자는 자기가 물속에서 사내아이를 끄집어내어 몸을 닦아 주고 옷을 입히고 끝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본 일이 있었다.

"뒤 절반은 감추어져 있는 꿈 사상의 첫 절반과 관계하는, 탈출에 관한 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꿈의 첫 절반은 뒤 절반의 잠재 내용, 즉 출산 공상과 일치한다. 앞에서 말한 전도 표현 이외에도 이 꿈 속에는 몇몇 전도 표현이 간취(看取)된다. 앞 절반에서 아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머리는 물 위에 흔들린다.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꿈 사상에서는, 처음에 태아의 움직임이 떠오르고, 다음에 그 아이는 물에서 떠난다(이중 전도). 뒤 절반에서는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간다. 그러나 꿈 사상에서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난다(오토 랑크 역)."

아브라함은 출산을 앞둔 한 젊은 부인의 출산 꿈을 보고했다. 방 마룻바닥의 한곳에서 땅속의 개천이 직접 물로 이어진다(출산로—양수).

그 여자는 마룻바닥의 판자를 쳐들었다. 그리고 거의 해표(海豹)와 같은 갈색의 모 피에 싸인 생물이 나타났다. 이 생물은 곧 꿈을 꾼 여자의 남동생으로서 정체를 나

정의 원천 및 모범이다.

타냈다. 이 동생에 대해서 그 여자는 옛적부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 랑크는 일련의 꿈에서, 출산 꿈이 오줌 자극의 꿈과 같은 상징을 사용한다고 시사 한다. 성욕 자극은 이 꿈들에 오줌 자극으로 표현된다. 이 꿈의 중복된 의미는 유 년 시절부터의 상징의 의미 변천과 상응한다.

여기서 앞에서 잠시 중지했던 소재로 되돌아가도 좋을 것이다. 즉 꿈 형성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기관 자극의 역할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 여러 영향 아래 성립된 꿈은 소망 충족의 경향과 편의의 성격을 밝힐 뿐 아니라, 또 매우 빈번하게 그의미의 뚜렷한 상징을 표시한다. 이것은 어떤 자극의 만족이 상징적 위장에 의하여, 이미 꿈에서 '시도되어도 주효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극이 사람을 잠에서 깨게하려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몽정 꿈에 또 오줌이나 대변의 자극으로서 일어나는 꿈에 알맞다. 몽정 꿈의 독특한 성격은 벌써 전형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맹렬한 반박을 받고 있는 몇몇 성적 상징의 가면을 직접 박탈할 뿐 아니라, 동시에 또 우리들로 하여금 다음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 즉 겉보기에 악의 없는 꿈상황의 대다수는 다만 적나라한 성적 장면을 상징하는 서곡에 지나지 않으나, 대체로 이 장면은 비교적 드문 몽정 꿈에서만 직접 표현되는데, 한편 그 장면은 때때로 충분히 불안 꿈으로 변하여 잠을 깨운다.

'오줌 자극 꿈'의 상징은 그 의미하는 바가 특히 뚜렷하며, 옛적부터 알려진 것이다. 이미 히포크라테스에 의하면 분수나 샘의 꿈은 방광의 장애를 의미한다(엘리스). 셰르너는 오줌 자극 상징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또 이미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한층 심한 오줌 자극은 언제나 생식기 국부의 자극 및 그 자극의 상징적 형성물로 옮겨진다. ……오줌 자극은 때때로 동시에 성욕 꿈을 대신한다.

내가 이곳에서 따르고 있는 랑크의 '잠을 깨려는 꿈 상징의 중첩'에 관한 연구 중의

상논(詳論)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증명한다. 즉 '오줌 자극 꿈'의 대부분은 본래 성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성 자극은 우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요도성애(尿道性愛)의 유아적 형식으로 충족되려고 한다고. 이렇게 구성된 오줌 자극이 잠을 깨우고 오줌을 누게 하되, 꿈이 계속되고 그 욕구가 이제 적나라한 성 욕적 형상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특히 많다. <sup>64</sup>

장(膓) 자극 꿈은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그 꿈에 속하는 상징을 폭로하고, 그때 민속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확증할 수 있는 황금과 대변의 관계를 증명한다. 65 "예를 들면, 한 부인은 장의 상해(傷害) 때문에 의사의 진단을 받는 중에, 한 보물 상인의 꿈을 꾸었다. 이 보물 상인은 시골의 뒷간과 같이 보이는 작은 오두막집 근처에서 '보물'을 파헤친다. 꿈의 뒷부분은 그 여자가 '대변을 흘려서' 엉덩이를 더럽힌 자기의 아이, 즉 작은 딸의 엉덩이를 씻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구조의 꿈은 출산의 꿈과 연결된다. 구조, 특히 물속에서의 구조는 꿈을 꾼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을 의미하고, 남성인 경우에는 의미를 다소 달리한다(피스터의 《정신 분석적 수양과의 심병의 치료의 한 예》、《복음 교회의 자유》(1909년)에서의 그런 꿈을 참조》. '구조'의 상징에 관해서는 저자의 강연 〈정신 분석적 치료의미래〉(《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제1호, 1910년, 전집 제8권)과, 〈연애 생활의 심리학에의 기여〉중의 〈제1, 남성에서의 대상 선택의 특수한 형태에 관해서〉(《정신 분석학 연감》제2권, 1910년, 전집 제8)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66

도둑과 밤의 강도와 유령을 우리들은 잠자기 전에 두려워하는데, 이들은 때로는 실제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아직도 남아 있는 유아 시절의 기억에서 유

- 64 "유아적 의미에서 방광(膀胱) 몽(夢)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동일한 상징 표현은 '최근'의 뜻에서 전적으로 성욕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물—오줌—정액—양수, 배 Schiffer'소변을 보다.'의 뜻의 '배에 타다.' Schiffen=자궁 Fruchtbehälter('상자' Kasten), 젖다=오줌을 누다=성교=임신, 헤엄치다=방광 충만=미생아의 태 안에서의 생활, 비=오줌을 누다=회임 상징, 여행에 떠나다(차에 타다=차에서 내리다)=침대에서 나오다=성교하다('가다', 신혼여행), 소변을 누다=정액을 뽑다(몽정)(랑크, 同書)."
- 65 프로이트: 〈성격과 항문성애(肛門性愛)〉, 랑크: 〈상징의 중첩〉, 닷트너: 《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제1 권 1913년, 라이크: 《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제3권 1915년,
- 66 또 랑크의 〈구조 공상의 여러 증거 자료〉(《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제1권 1910년), 라이크 《구조 상징 에 관해서》(同書), 랑크의 《꿈과 문학》 중의 〈조산(助産) 공상〉(《국제 정신 분석학 잡지》제2권 1914년).

대한다. 이것들은 아이가 오줌을 싸지 않도록 요강을 대어 주려고 아이를 잠에서 일으키는, 또는 잠자고 있는 아이가 두 손을 어디에 두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불을 가만히 들쳐 보는 밤의 방문자이다. 이 불안 꿈 몇 가지를 분석하고자 나는 이 밤의 방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도둑은 언제나 반드시 아버지이고 유령은 대체로 흰 잠옷을 입은 여자와 일치했다.

### 6. 여러 설명의 실례—꿈에서의 계산과 대화

꿈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동기 중의 네 번째 동기를 적절한 자리에서 논하기에 앞서, 나는 나의 수집한 꿈에서 몇 가지 실례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 실례는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세 가지 동기의 공동 작업을 설명해 주는 한편, 여태까지그 증거를 굳건히 하지 못했던 여러 주장에 관해서 설명을 보충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부정할 수 없는 추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꿈 작업의 여태까지의 서설(序說)에서 내가 얻은 결론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는 일이란 대단히 곤란한 일이었다. 개개의 명제의 실례는 한 꿈 해석과 관련하여서만 증명의 힘을 가질 수 있고, 그실례들은 본래의 관련에서 벗어나면 그 위대성을 잃고 만다. 그리고 꿈을 조금이라도 깊이 해석하면 곧 그 설명에 봉사하여야 할 논의의 실마리를 잃을 정도로 그꿈 해석은 넓어진다. 다만 앞 장의 본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연결되는 것을 지금 펴놓을 뿐인데, 독자께서는 위에 말한 기술적 곤란을 고찰하여 본장에서의 나의 태도를 널리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는 다음에 특히 꿈에서의 독자적인 표현 방법, 혹은 이상한 표현 방법의 실례 몇가지를 들고자 한다. 어떤 부인의 꿈이다. 방에서 시중드는 계집애가 창문 유리를 닦기라도 하듯이 사닥다리 위에 있고, 침팬지와 고릴라 고양이(이것은 나중에 앙골라 고양이로 정정되었다)를 한 마리씩 안고 있다. 하녀는 그 여자에게 이 동물들을 던진다. 침팬지는 그 여자의 곁을 쫓아간다. 그것은 대단히 불쾌하다. 이 꿈은 어떤 속답을 문자 그대로 취하고, 문자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극히 간단한 수단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동물 이름들이 대체로 그렇거니와, '원숭이'란 말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꿈 상황은 "모욕하는 말을 퍼뜨린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곧 꿈 작업에서의 이 단순한 응용의 실례를 많이 열거할 것이다.

다음 꿈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대단히 모양이 우스운 머리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한 부인. 뱃속에 있을 때의 위치 때문에 아이의 머리가 이런 모양이 되었다고, 이 아이에 관해서 이 부인은 전에 말했다. 의사는 압축하면 더 좋은 모양이 되나 그렇게 하면 뇌수(腦髓)에 해가 있다고 한다. 아직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다지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그 여자는 생각한다. 이 꿈은, 꿈꾼 여자가 정신 분석 치료를 설명하는 말 중에서 들었던 유아의 여러 인상이란 추상적 개념을 조소(彫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꿈 작업은 다음의 예에서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 꿈은 그라츠(Graz) 부근 의 힐름타이히(Hilmteich) 연못으로 소풍간 기억을 포함하고 있다. 바깥은 대단히 일기가 나쁘다. 보잘것없는 호텔, 벽에 물이 밴다. 침대는 축축하다. (이 끝 부분은 내 가 여기서 표현한 것보다 실제로 꿈에서는 더 희미하다.) 이 꿈은 '과잉한' 것을 의미 한다. 꿈 사상 속에 있는 추상어는 처음엔 무리할 정도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아마 '남아 흐른다'란 말로서나 혹은 '흘러넘친다'란 말로 대체된 다음, 같은 종류 의 인상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다. 바깥의 물, 안벽의 물, 침대가 젖는 물, 모두 물 과 같이 흐르고. '지나치게' 흐르고 있다. 꿈 표현을 위하여 정철법(正綴法)이 발음 보다 훨씬 덜 중요시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예를 들면 운(韻)에게 똑같은 자 유 행사가 허용된다. 랑크에 의해서 보고된 자세하고 대단히 철저하게 분석된 한 젊은 부인의 꿈은 이러하다. 즉. 그 여자는 들로 소풍가서 보리나 밀의 아름다운 이삭을 벤다. 젊은 남자 친구가 저쪽에서 온다. 이 여자는 이 남자를 피하려고 한 다. 분석한 결과로 문제는 경의를 표하기 위한 키스(Kuss in Ehren, Ehren-명예, Ärhe(이삭)과 발음이 같음)에 있음이 판명된다(《정신 분석학 연감》 제2권). 뜯기 지 않고 베일 이삭(Ähre)은, 이 꿈에서 그런 이삭과 경의를 표하는(Ehrungen) 것 과 결합하여 일련의 다른 관념을 표현하는 데에 이용된다.

이에 대해서 언어는 꿈으로 하여금 꿈 사상을 매우 쉽게 표현하게 한다. 언어는 대 단히 많은 단어를 자유롭게 처리하는데, 이 단어들은 본래 형상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현재에는 구체성을 잃고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꿈 은 이 언어에게 그 언어의 옛적의 충분한 의미를 돌려주거나, 혹은 언어의 의미 상의 변천 속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 기 동생이 상자 속에 들어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하자. 해석하면 상자(Kasten)는 장 (欌·Schrank)과 바뀐다. 그렇게 되면 이 꿈 사상은 말하자면 자기 대신에 그의 동생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einschränken)'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꿈을 꾼 사 람이 산에 올라가서 훌륭한 '조망'을 즐긴다. 그는 이때 극동(極東)의 여러 관계를 취급하는 《전망(展望)》이란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형과 자기를 동일화하고 있다. 《푸른 하인리히(Der Grüne Heinrich)》 중의 꿈에서, 기운 센 말[馬]이 아주 잘 익 은 귀리 밭 속을 굴러다닌다. 그러나 귀리 알 하나하나는 "맛있는 편도(扁桃)나 건 포도 또는 새로 나온 동전(銅錢)이며 함께 붉은 명주에 싸여서 돼지 털로 붙잡아 매어져 있다." 시인(혹은 꿈꾼 본인)은 곧바로 이 꿈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석해 준 다. 즉 말은 기분이 매우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귀리가 나를 찌른다."라고. 헤젠(Henzen)에 의하면, 고대 북방의 전설에는 특히 성구(成句)나 언어 익살의 꿈 이 풍부하게 이용되었고, 또 그 꿈들은 이중의 뜻이나 언어의 익살이 없는 것이 거 의 없다고 한다.

- 이런 표현법을 수집하고, 그 밑바닥에 있는 여러 원리에 따라 표현을 정리하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에는 거의 익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만일 꿈꾼 사람 자신이 표현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표현은 절대로 추측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우리들은 가지게 된다.
- (1) 자기 이름을 묻는 꿈을 꾼 한 남자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남자는 이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즉 '그것은 나로서는 꿈에서도 생각나지 않는 일이다.'의 뜻이다.
- (2) 여성 환자가 꿈 이야기를 한다. 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별히 크다고. 이여자는 자신이 어렸을 때 당시 어른들이 모두 굉장히 커 보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의 어떤 한 사건이 문제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 꿈을 설명한다. 그 여자 자신은 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유아 시절로 되돌아가는 꿈은 시간이 공간으로 바뀌면서, 다른 꿈에서는 다르게 표현된다. 우리는 해당되는 인물이나 장면을 마치 먼 거리인 것같이 먼 길의 끝에 있는 것으로 보거나, 오페라 관람용 안경을 반대로 들고 보는 것처럼 보는 식이다.

- (3) 곧잘 농담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즐기는 남자가, 어떤 관련에서 이런 꿈을 꾸었다. 마침 열차가 도착하고 있다. 그런데 열차는 서었고, 플랫폼이 열차를 향해 다가간다. 이것은 현실적인 사건의 놀라운 전도이다. 이 세세한 부분은 꿈 내용에서 어떤 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경고하는 표시이다. 이 꿈은 분석 결과, 물구나무서기를 해서 손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그림 책을 본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 (4) 동일인이 다른 기회에 수수께끼 그림의 기술을 생각하게 하는 짧은 꿈을 이야 기한다. 큰아버지가 자동차(Automobil) 안에서 그에게 키스를 한다—그는 즉시, 자기성애(自己性愛· Autoerotismus)라는 꿈 해석을 덧붙였다. 나로서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했을 해석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농담이 무색할 정도이다.
- (5) 어떤 남자가 침대 뒤에서 여자 한 사람을 빼낸다(hervorziehen). 이 의미는 그가 그 여자를 우대한다(Vorzug)는 뜻이다('우대'의 독일어는 '빼어 낸다'는 뜻).
- (6) 그는 사관으로서 황제와 함께 식탁을 가운데 두고 마주(gegenüber) 앉아 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대립(Gegensatz)한다는 뜻이다.
- (7) 그는 어떤 사람의 골절(骨折·Knochenbruches)을 치료한다. 분석한 결과, 골절의 '절(Bruch)'은 간통(Ehebruch)의 표현임이 밝혀졌다.
- (8) 하루의 시간은 꿈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유년 시절의 생활의 각 시기를 나타낸다. 예. 어떤 꿈에서의 아침 5시 15분은 동생이 탄생한 중대한 시점인 5세 3개월의나이를 의미한다.
- (9) 꿈에서의 생활 시기의 또 하나의 다른 표현 즉, 한 부인이 1년 3개월 차이의 작은 여아 둘을 데리고 간다. 그 여자의 친지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부인이 없다. 그여자 자신은 이렇게 해석한다. 두 아이는 그 여자 자신이고, 이 꿈은 그 여자의 유

년 시절의 두 외상(外傷的) 사건이 바로 이 시간적인 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그 여자에게 가리키고 있다(즉 3세 6개월과 4세 9개월).

- (10) 정신 분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정신 분석의 꿈을 꾸고, 분석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관념이나 기대의 모든 것을 꿈에 표현하기 쉽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다. 치료는 대개 복잡한 새로운 교통 기관으로서의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형상으로 묘사다. 이때 자동차의 속도는 치료받는 사람이 무엇을 조소하는 데 사용된다. 이 깨어 있는 생활 중의 여러 관념 요소로서의 '무의식적인 것'이 마땅히 꿈에서 표현된다면, 이 무의식적인 것은 매우 적절하게도 '지하'로 장소가 바뀌고, 정신 분석 치료와 관련 없이 나타날 때에는 여자 신체와 모태를 의미한다. 꿈에서 '아래'는 아주 빈번하게 생식기와 관계하고, 또 그 반대로 '위'는 얼굴 '입·가슴과 관계한다. 꿈속에서 '맹수(猛獸)'는 대체로 꿈꾸는 본인이 두려워하는 타인의 정열적 충동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정열적 충동을 의미한다. 또 조금 이동시켜서 그런 정열적 충동의 소유자인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맹수·개, 사나운 말 등은 무서운 '아버지'의 다소 토템적인 꿈 상징이다. 여러 맹수는 자기가 무서워하는, 즉 억압에 눌려지는 리비도(libido)를 표현하는 데 이용된다. 또 노이로제 자체, 말하자면 '병든 사람'은 때때로 꿈꾼 본인에 의하여 분열되어서 꿈에서 독자적인 인간으로서 설명된다.
- (11) "우리들은 《꿈의 해석》에서 꿈 작업이 어떤 언어나 어떤 어법을 감성적·구상적으로 표현할 여러 길을 알고 있음을 알았다. 예컨대 꿈 작업은 표현된 언어나 뜻이 애매하다는 사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중의 의미를 '전철기(轉轍器)'로 이용하여꿈 사상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 대신에 두 번째 의미를 현재적 꿈 내용 속에 채용할 수 있다.
- 이 사실은 최근의 적절한 낮의 인상들을 재치 있게 정시의 자료로 이용한 다음의짧은 꿈에서 볼 수 있다.

나는 꿈꾼 전날에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저녁에 침대 속에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밤 동안에 침실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꿈은 내가 보기에 다만 낮일을 계속하는 것같이 나에게 생각되었다. 즉 나는 전날의 낮에 신문 조각을 스

크랩북에 붙였는데, 그 하나하나의 적당한 장소를 찾기에 무척 고생했다. 꿈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한 장의 조각을 스크랩북에 붙이려고 한다. 그런데 조각이 그 책에 잘 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나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다.

나는 눈을 뜨고 꿈에서의 괴로움이 계속되어서 실제로 복통이 되었고, 또 이 때문에 나의 결심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꿈은 나에게, '잠의 수위(守衛)'로서 침대 속에 있고 싶은 나의 소망 충족을 '조각이 그 책에 잘 오르지 않는다.'란 말의 표현에 의해서 기만(欺瞞)했다(작스(H. Sachs)에 의함)."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즉 꿈 작업은 꿈 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깨었을 때에 비판에 견딜 수 있는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그 작업에 접근해 오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꿈 작업은 꿈 해석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꿈을 해석해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의혹이나 조소(嘲笑)를 받는다. 슈테켈의 《꿈의 언어》에는 이런 실례가 특히 많다. 그러나 슈테켈의 무비판적 태도와 기술상의 자의(恣意)는 선입견을 갖지 않는 사람마저 불안하게 하므로, 나는 슈테켈의 저서에서 증명 재료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

- (12) 타우스크(V. Tausk)의 〈꿈 표현에 봉사하는 의복과 빛깔〉(《국제 정신 분석학 잡지》 제2권, 1914년)로부터의 인용)
- 1) A의 꿈. 그는 옛적의 부모가 검은 무명옷(Lüsterkleid)을 입은 것을 본다. 옷은 허리에 착 붙어 있다. 이 꿈의 의미는, 이 꿈을 꾼 사람이 그 여자를 '몹시 욕심낸다 (lüstern).'는 것을 뜻한다.
- 2) C는 꿈속에서, X국도에서 한 소녀를 본다. 소녀는 '흰(weiß)' 빛에 둘러싸이고 '흰 (weiß)'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C는 X국도에서 처음으로 '바이스(Weiß)' 양과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 3) D 부인의 꿈, 이 여인은 '노(老) 브라젤(alter Blasel)(비엔나의 80세 된 배우)'이 긴침대 의자 위에 '완전히 무장하고(volle Rüstung)'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식탁과의자 위를 뛰어 넘고 칼을 빼들고,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가상의 적과 싸우는 듯이 칼을 공중에 휘둘렀다.

꿈을 꾼 여인은 '오랜 방광병 환자(altes Blasenleiden)'이다. 그 여자는 정신 분석 치료 때에 긴 의자에 눕는다. 또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나이와 병에 비해서 아직도 대단히 '튼튼하다(sehr rüstig)'고 생각하고 있다.

## (13) 꿈속의 '대사업(Grosse Leistung)'

꿈을 꾼 남자는 자기가, 임신한 여자가 되어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본다. 이 상태는 그에게는 매우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이렇다면……'하고 고함을 지른다.(분석 과정에서 그는, 어떤 간병인의 기억을 더듬어 '돌을 깨라(Steine klopfen)'는 말이었다고 보충한다.) 침대 뒤에 지도 한 장이 걸려 있다. 그 아래쪽은 '나무틀(Hotzleiste)'로 고정되어 있다. 그는 이 나무틀의 두 끝을 쥐고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때에 나무틀은 비스듬히 부러지지 않고 두 개로 길고 잘게 찢어졌다. 이것으로 그는 안심하고 아이를 쉽게 낳았다.

그는 혼자 힘으로 '나무틀(Leiste)'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을 하나의 큰 '사업 (Leistung)'으로 해석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는 여자로서의 자기 위치로부터 자신을 끊음으로써 그 불쾌한 상황(치료에 있어서의)에서 자기를 해방시킨다. …… 나무틀이 가로로 부러지지 않고 세로로 찢어지는 기괴한 세부는 꿈의 본인이 '파괴를 수반하는 배화(倍化)는 거세의 암시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음으로써 설명된다. 꿈은 대단히 빈번하게 반항적인 소망 반대 속에 있는 거세를 두 음경상징의 존재로 표현한다. '나무틀(Leiste은 물론 서혜부(鼠蹊部·Leiste)와 동의어이다)'은 생식기에 가까운 인체의 일부분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그는 이 꿈을, 자기는 자신을 여자의 위치에 둔 거세의 위협을 극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4) 내가 프랑스어로 행한 분석에 의하여 해석된 꿈 하나가 있다. 이 꿈에서 나는 코끼리가 되었다. 나는 꿈을 꾼 본인에게 왜 내가 코끼리로 표현되었는가를 물었다. 본인은 "선생은 나를 속이고 있다(Vous me trompez)."라고 대답한다(trompe 는 '코끼리 코'라는 뜻).

꿈 작업은 종종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관계를 무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마치 고유명사와 같은, 이렇다 할 특색 없는 재료를 성공적으로 표현한다. 나의 꿈 67 《국제 정신 분석학 잡지》제2권 1914년.

중의 하나에, 노(老) 브뤼케 선생은 나에게 문제 하나를 내셨다. 나는 표본 하나를 만들어서 꼬깃꼬깃 꾸겨진 은종이와 같이 보이는 어떤 것을 벗겨 낸다라는 꿈이 있다 (이 꿈에 관해서는 나중에 논하겠다). 이 꿈의 뜻은 처음에는 알기 어려웠으나, 문제는 '은박(銀箔・Stanniol)'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겨우 알았다. 그제야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슈타니우스(H. Stannius)란 저술가의 이름임을 알았다. 이 이름은 내가 옛적에 경탄하는 마음으로 보았던, 물고기의 신경 조직에 관한 논문에 씌어져 있던 것이다. 나의 선생이 나에게 준 최초의 학문상의 과제는, 실제로 있는 물고기, 즉 아모코에테스(Ammocuetes)의 신경 조직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이름은 확실히 수수께끼 그림 속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여기서 나는 서슴지 않고 또 하나의 기묘한 내용의 꿈을 끼어 넣으려고 한다. 이 꿈은 소아의 꿈으로서도 재미있는 것이고, 분석을 가하면 그 의미도 대단히 쉽게 밝혀진다. 어떤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즉, "나는 아이 때에 되풀이하여 꾼 꿈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끝이 뾰족한 모자를 머리에 쓰고 계신 꿈입니다. 즉 나는 밥을 먹을 때에 그런 모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자를 쓰면 다른 아이들이 지금 나누어받는 요리를 얼마만큼 내가 받았는가를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내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어도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 작업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꿈 작업이 그 자료를, 즉 꿈 사상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알려면, 꿈에서의 숫자나 계산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 꿈에서의 숫자는 미신적으로, 특히 예언적인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런 예 몇 가지를 들어보기로 하자.

(1) 치료를 끝내기 바로 전의 어떤 부인의 꿈에서.

그 여자는 무엇인가 지불하려고 한다. 이 여자의 딸은 지갑에서 3플로린(Florin) 65크로이처(Kreuzer)를 끄집어낸다. 그 여자는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니 무엇을 하길래. 21크로이처면 될 텐데. 나는 꿈을 꾼 여자의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여자의 자세한 설명 없이도 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부인은 외국인이었고 딸이

비엔나의 여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 부인은 딸이 비엔나에 있는 동안 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3주일 후에 딸이 졸업함에 따라서 그 여자의 치료도 끝날 예정이었다. 이 꿈을 꾸기 전날에 그 여자는 교장으로부터, 1년 더 딸을 학교에 둘 수 없느냐는 말을 들었다. 그 여자는 딸을 학교에 1년 더 두면 자기도 1년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꿈은 이 점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1년은 365일, 졸업과 치료 마지막 날까지의 3주간은 일수로 고치면 21일이다(물론 21일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꿈 사상 중의 숫자는 꿈에서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별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간은 황금이다."이기 때문이다. 365크로이처는 여하튼 3굴덴(Gulden) 65크로이처이다. 꿈에 나타나는 금액의 수가 적은 것은 뚜렷한 소망 충족이다. 소망은 학비 및 치료비를 축소시켜 보이고 있다.

(2) 다음 꿈의 숫자는 조금 복잡하다. 젊은 기혼 부인은 자기와 거의 동년배의 친구 엘리제 L(Elise L.)이 최근 약혼했다고 들었다. 그 뒤에 그 여자는 이런 꿈을 꾸었다. 즉 이 여자는 남편과 극장에 앉아 있다. 관람석 한쪽은 아주 비어 있다. 이 여자의 남편은 그 여자에게 말한다. 즉 엘리제 L과 그 약혼자는 극장에 오고 싶어 했으나 1플로린 50크로이처의 3등석이란 나쁜 좌석밖에 없었기에 오지 않았다고. 그 여자는, 그래도 불행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이 1플로린 50크로이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은 꿈을 꾼 전날의 사소한 계기에서 온 것이었다. 의매(養妹)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서 150플로린의 용돈을 얻어가지고 서둘러서 장신구를 샀다. 150플로린은 1플로린 50크로이처의 백 배임을우리들은 알수 있다. 극장 좌석 3등석의 3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엘리제 L은 약혼자보다 나이가 3개월 아래이다. 그러면 관람석 한쪽이 아주 비었다는 것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농을 하는 계기가 된 한 작은 사건과 관련된다. 그 여자는 1주일동안 광고된 극장 공연에 가기로 며칠 전에 결심하고 용의주도하게 예약표를 샀다. 입장권에 따로 예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들이 극장에 왔을 때 좌석의 한쪽이거의 비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는 '그다지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 꿈을 꿈 사상으로 바꾸면, "내가 너무 일찍이 결혼한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었다. 나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엘리제 L의 예에서 나는 내가 지금이라도 남편을 가질 만큼 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기만' 했더라면(의매(義妹)가 서두르는 것과는 반대로), 확실히 '백배'나 더 나았을 텐데(남자·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지참금)이면 그런 남자 셋은 넉넉히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우리들은 이 꿈에서 숫자가 앞의 꿈에서 취급된 것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와 관계를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꿈의 개변(改變) 작업과 왜곡 작업은 이곳에서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것은 여러 꿈 사상이 표현되기까지에는 그 사상이 상당히 강력한 내심(內心)적 저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들은, 이 꿈에서 알 수 없는 한 요소, 즉 '두' 사람이 '세' 좌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련다. 꿈 내용의 이 알 수 없는 세부는, 꿈 사상 중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사상, 즉 그렇게 서두르는 결혼이란 바보짓이라는 (알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다른 쪽 남녀 두 사람의 부수적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셋(나이 차가 3개월)'은 이 꿈에 필요한 바보짓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묘하게 이용되었다. 현실의 150플로린이 1플로린 50크로이처로 축소된 것은, 이 꿈을 꾼 여인의억압된 사상 속에 있는 '남편(혹은 재산)'에 대한 경시(輕視)이다.

(3) 꿈이란 믿을 수 없다는 속견(俗見)을 만들어 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다른 꿈속의 계산을 들어보자. 한 남자의 꿈. 그는 B집에 앉아 있다. (B가(家)는 그의 옛 친구의 집.) 그는 이렇게 말한다. 즉, "당신이 말리(Maii)를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 몇 살이냐고 묻는다. 1882년생이라는 대답이다. "아. 그러면 28세로군." 하고 그는 말한다.

이 꿈은 1898년의 일이었으므로, 물론 계산 착오이다. 꿈을 꾼 사람의 계산 불능은, 만일 이것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다면 마비증 환자의 계산 불능과 비교될 수있을 것이다. 나의 남자 환자는 어떤 여자를 보든지 바로 그 여자에게 반해 버리는 사람에 속한다. 내 치료소에 규칙적으로 몇 달 동안 그 남자의 뒤를 이어 들어오는한 부인이 있었다.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면 때때로 물어보고, 그 여자의 앞에서는 철저하게 은근하였다. 이 여성의 나이를 그는 28세로 짐작했다. 28이란 숫자는 이 정도의 계기뿐이다. 그런데 1882는 이 남자가 결혼한 해이다. 그는 또 나의

집에서 만난 다른 두 여자와 친해지려고 꽤 애를 썼다. 이 두 여자는 결코 젊지 않았고, 교대로 이 남자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들이 자기와 친해지려는 생각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여성들이 자기를 나이 먹은 (자리 잡힌)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납득시켰다.

(4) 다트너(B. Dattner) 씨가 해석과 함께 보고한 또 하나의 숫자 꿈은 뚜렷한 제약(制約), 아니 오히려 다면적 제약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나의 하숙집 주인인 시청에 근무하는 경관의 꿈이다. 그는 거리에서 근무한다(이것은 소망 충족이다). 이때에 감찰관이 그에게로 온다. 감찰관은 금장(襟章)에 22, 62, 혹은 26의 숫자를 달고 있었다. 여하간 2란 숫자 몇 개가 있다. 꿈을 다시 생각하였을 때에 2262란 숫자를 갈라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한다. 즉 구성 분자는 각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전날 근무처에서 자기들의 재직 연한을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냈다. 62세로 퇴직한 한 감찰관이 이 화제의 계기가 되었다. 꿈을 꾼 본인은 아직 재직 22년이므로, 9할의 연금을 받기에는 앞으로 2년 2개월이나 더 근무해야 한다. 이꿈은 우선 감찰관이란 오랜 동안의 희망을 그에게 보여 준다. 2262란 번호를 붙인상관은 그 자신이고, 그는 오랫동안 바라던 가두(街頭)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제 2년 2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저 62세란 상관과 같이 완전 연금을 받고 원만히 퇴직할 수 있는 것이다. <sup>68</sup>

만일 우리들이 이런 예와 이와 비슷한 예(나중에는 할 것임)를 종합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꿈 작업은 옳건 그르건 간에 대체로 계산하지 않는다. 꿈 작업은, 꿈 사상 속에 생기는 표현할 수 없는 재료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도움이 되는 숫자를 계산이란 형식으로 모아서 맞출 뿐이다. 이때 꿈은, 숫자를 꿈의 의도를 표현해 줄 재료로 다른 모든 관념, 예를 들면 언어 관념으로 알려진 대화 문구와 이름을 취급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용한다고.

왜냐하면 꿈 작업은 대화를 역시 새로이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에 줄

68 숫자 꿈의 다른 예는 융(Jung), 마르치노프스키(Marcinowski), 그 밖의 사람들의 분석을 참조. 이 꿈들은 종종 대단히 복잡한 숫자의 조작을 전제하고 있으나, 꿈을 꾼 당사자들에 의해서 어이없을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완성된다. 또 존스의 〈무의식적 계산의 취급에 관해서〉(《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2권, 1912년)를 참조,

거리가 서 있건 없건 간에, 꿈은 여러 꿈 사상으로부터 실제로 이루어진 혹은 들은 담화의 단편만을 빌어서 아주 제멋대로 다룬다. 이것은 분석에 의해서 명백하다. 꿈은 그 재료를 그 본래의 종합에서 벗기고, 조각으로 잘라서 그중의 하나를 취하고 다른 것을 버릴 뿐 아니라, 때때로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묶는다. 그 결과로 분석할 때에는 종합된 것으로 보였던 꿈에서의 한 담화는, 셋 혹은 네 그룹으로 분열하기도 한다. 이 새로운 담화를 편성함에 있어서 그 꿈은 꿈 사상 속에 가지고 있던 뜻을 버리고 그 대신에 본문으로부터 아주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다. 역 자세히 관찰하면, 꿈의 문구에는 비교적 명백하고 틈이 없는 요소와, 마치 우리들이 탈락된 문자와 철자를 보충하듯이 책을 읽을 때 다만 결합의 수단으로서 아마 보충되어야 할 요소가 구별된다. 그러므로 꿈속의 담화나 문구는 굳은 중간물에 의하여 큰 조각을 교합해서 된 각력암(角礫岩)과 같이 여러 재료로 이루어진 구조와 같은 것이다.

69 신경증도 꿈과 같이 행동한다. 나의 한 여성 환자는 노래와 그 가사의 단편을 환상적으로 듣는다. 스 스로 듣자는 것은 아니나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그뿐 아니라, 노래의 뜻이 자신의 내적 생활과 어 떤 관계인지 조금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람은 편집증은 아니다. 분석해 보면 그 여자는 그런 노래 의 텍스트를 어떤 자의(恣意)에 의해서 남용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조용하, 조용하, 경건하 곡이 여(Leise, leise, fromme Weise)."라는 문구는 그 여자의 무의식계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경 건한 고아여(Fromme Waise)", 즉 그 여자는 고아였다. "오! 그대는 성스러운. 오! 그대는 즐거운 (O du selige, O du fröhliche)"은 어떤 크리스마스의 노래의 서두이나, 바로 그 뒤의 "크리스마스 때 (Weihnachtszeit)'라 문구를 잘라 버리고 이 노래를 신부의 노래로 바꾸어 버리는 것도 그것이 다.— 또 같은 왜곡 공작은 환상 등이 없이 단지 기억 속에서 잘 발견되는 것이다. 한 환자는 아이 시절에 배 웠음에 틀림없는 하나의 시의 기억을 좇아간다. 이 시는 이렇다. "Nächtlich am Busento lispeln(밤 에 부센토(Busento)에 속삭인다)······" 왜냐하면 그의 공상은 다음의 이 시구 중의 일부로 충족되었 기 때문이다. "Nächtlich am Busen(밤에 가슴(Busen)에서)……." 부센토(Busento)는 이탈리아의 하 천(河川) 명(名), 독일어는 가슴, 젖을 뜻한다. - 풍자적인 작용은 이런 잔꾀를 부리는 것이 보통이다. 〈플리겐텐 블레터(Die Fliegender Blätter)〉지(誌)는 옛적 고전 작가의 시에 대한 만화 속에, 실러의 〈승리의 축연〉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을 덧붙였으나, 그 그림이 첨부되어 있는 원서 인용구는 절단되 어 있었다.

"Und des frisch erkämpften Weibes(이리하여 새로이 얻은 여자를) Freut sich der Atrid und strickt(아트리드(Atrid)는 기뻐하며 껴안았다)." 원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Um den Reiz des schönen Leibes(아름다운 육체를) Seine Arme hochbeglückt(그의 팔은 감격하여서)."

엄격한 뜻에서 이 설명은, 대화의 어떤 감각적 성격을 지니고 '대화'로서 기술되는 꿈속에서의 대화를 위해서만 타당하다. 들은 것, 혹은 말한 것으로서 느껴지지 않 는, 즉 꿈속에서 청각적 또는 운동적 억양을 갖지 않는 대화는 우리들이 깨어 있을 때에 활동하는 사고 중에 나타나고. 변함없이 여러 꿈속에로 들어가는 사상에 지 나지 않는다. 꿈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는 대화의 재료를 위해서. 독서는 풍 부하게 흐르고 끝을 알 수 없는 원천을 교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대화 로서, 꿈에 뚜렷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자기가 행한 또는 들은 이야기로 환원된다. 그런 꿈이나 대화의 출처의 예를 우리들은 다른 목적 때문에 보고되었던 여러 꿈 을 분석할 때에 이미 발견했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단순한 시장의 꿈'의 대 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품절이다."라는 말은 자신을 푸줏간과 동일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말. 즉 "나는 그런 것을 몰라요. 그것을 사지 않겠어요." 는 악의 없는 꿈을 만드는 과제를 완성한다. 이 꿈을 꾼 여인은, 즉 전날 여요리사 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런 것, 나는 몰라요. 좀 더 조심해요."라고 책망했다. 이 말로부터 들리는 첫 부분이 꿈에 채용되어서 뒷부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뒷부 분은 이 꿈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공상에 대단히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 공상의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많은 실례 대신에 비슷한 예 하나를 들어 두 자.

시체를 태우는 큰 정원 하나, 그는 말한다. "나는 저쪽에 가야겠어. 보고 있을 수가 없어(Da geh' ich weg, das kann ich nicht sehen)." (뚜렷한 말이 아니다.) 그러자 그는 푸줏간 녀석을 만났다. "맛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 한 녀석이 대답한다. "아니, 맛이 없었어요. 사람의 살코기 같은 걸요(Na. nöt gut war's)."라고.

이 꿈의 단순한 계기는 이렇다. 그는 저녁식사 후에 아내와 함께, 튼튼하나 결코 '식욕을 일으키지' 않는 이웃집을 방문했다. 손님에 친절한 늙은 부인은 마침 저녁 식사 중이고, 꼭 함께 식사하자고 조른다(nötigen). (이 '조른다(nötigen)'의 말 대신에, 남자들 사이에서는 성적 뜻을 가진 합성어인 이 단어(Notzüchtigen=성적으로 '강요한다', '강간한다'는 뜻)가 농담조로 사용된다.) 그 남자가 식욕이 없다고 거절하자, "이까짓 것 무엇 그래요, 드세요." 혹은 이와 비슷한 말(weggehen에는

'저쪽에 간다.'와 '이까짓 것 무얼 그래요.'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가 없어서 먹은 다음에 상대편에게 요리를 칭찬했다. "참 맛이 있습니다."라고. 아내와 다시 단둘이 된 그는, 이웃의 늙은 여자의 극성스러운 요구와, 그가 맛을 본 음식 솜씨를 욕한다. 꿈에서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저런 것은절대 사절이야."란 말은, 그를 권유한 부인의 신체적 매력과 관계있는 사상이고, 그 말은 그가 "그런 여자는 절대 사절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사상을 갖고 있다.

다른 또 하나의 꿈 분석은 더 흥미 깊은 것이다. 이 꿈을 내가 여기서 인용한 까닭 은, 이 꿈의 중심점을 이루고 있는 매우 뚜렷한 말 때문인데, 이 꿈의 해명은 나중 의 꿈에 있어서의 감정의 평가의 부분에서 하기로 한다. 이것은 나 자신의 꿈이다. 매우 명확한 꿈이었다. 나는 밤에 브뤼케(Brücke) 교수 실험실에 갔다. (고인이 된) 플라이슐(Fleischl) 교수의 조용한 노크로 문을 열었다. 교수는 네다섯 명의 낯모를 사 람들과 함께 들어와서 두서너 마디 말하고 자기 책상에 앉았다. 이곳에서 두 번째 꿈 이 계속된다. 친구 F1이 7월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비엔나에 왔다. 나는 역시 나 의 친구 (고인이 된) P와 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간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작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끼고 마주앉고, 나는 그 책상의 좁은 쪽 앞에 앉아 있다. FI은 자기 누이동생이 45분 만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이 비슷한 말을 덧붙인다. P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터온 나에게 자신 의 일을 어느 정도 P 군에게 이야기했느냐고 묻는다. 나는 어떤 기묘한 감정에 사로 잡혀서 P는 (아무것도 모르나, 그는) 벌써 죽었으니까 하고 F1에게 말하고자 했다. 그 러나 나는 자기의 잘못을 알아차리면서도 "Non vixit."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P를 뚫어지게 보았다. 내가 보는 동안에 P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서 몽롱해지고. 그의 눈은 병적인 푸른 빛깔이 되었다. 드디어 그의 모습은 사라졌다. 이것을 나는 대단히 기뻐하였다. 에른스트 플라이슐(Ernst Fleischl)도 망령이나 환상에 불과했다고 이해한 다. 그리고 이런 인물은 다른 사람이 그 존재를 바라는 동안에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고, 소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없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볼만한 꿈에는, 꿈 내용의 불가사의한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 있지 않다(Non vivit)."는 말 대신에 "살아 있지 않았다(Non Vixit)."라고 말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꿈꾸는 중의 자기비판이라든가, 꿈 자체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 죽은 사람과의 자유로운 담소라든가, 논증의 황당무계성이라든가, 그 논증이 나에게 주는 비상한 만족감—이러한 불가사의한 여러 성격이 이 꿈속에 있으므로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이 꿈의 완전한 해명을 보고해 두고 싶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여기서 내가 꿈에서 행한 일을 다시 해 보일 수는 없다. 즉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들을 나의 욕망의 희생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나로서는 이 꿈의 참뜻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감춘다면 꿈의 참 의미는 손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우선 여기서나 또는 나중에 이 꿈의 몇 가지 요소만을 분석하는 데 만족하려고 한다.

이 꿈의 중심부는 내가 P를 노려보아 죽이는 한 장면이다. P의 눈은 그때 참으로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푸른 빛깔이 되었다가 사라졌다. 이 한 장면은 실제로 경험한 정경의 틀림없는 반복이다. 나는 옛적에 생리학 연구소의 실험관이었다. 근무시간은 이른 아침이었는데 때때로의 나의 지각이 브뤼케 교수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느 때 그는 정각에 연구소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은 간명한 내용이었다. 그 말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압도한 것은 나를 쏘아 보는 그 교수의 푸른 눈동자였다. 나는 교수의 눈총으로 땅에 꺼질 지경이었다. 마치 꿈속의 P와 같았다. 고맙게도 꿈에서는 내가 눈총을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으나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선생의 눈을 기억할 수 있고, 더욱이 노했을 때의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당시의 이 젊은 죄인의 기분을 쉽게 잘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꿈에서의 자기비판인 "살아 있지 않았다(non vixit)."의 유래를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그러나 드디어 나는 생각이 떠올랐다. 즉 이 두 말은 들은 것이나 말한 것이 아니라 본 것으로서 꿈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그 출처가곤 발견되었다. 비엔나의 황제의 궁전(Hofburg)에 요제프 황제(Kaiser-Josef) 기념비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비문이 있다. 즉.

조국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Saluti patriae vixit) 오래지는 않았으나 마음을 다해서(non diu sed totus)

나는 나의 꿈 사상 속에 있는 일련의 악의 있는 관념에 알맞은 "저런 녀석은 입을 닥치게 할 테야. 이젠 살아 있지 않으니까."를 의미하는 말을 이 비문에서 끄집어 냈다. 그러면 이 꿈은 대학의 아케이드 안에서 플라이슐 교수 기념상(記念像) 제막식이 지난 며칠 후에 꾼 꿈이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다시 브뤼케 교수의 상(像)을 보았고, 학문에 몰두한 대단히 우수한 머리를 가진 나의 친구 P는 그의 요절 때문에 이곳에 동상을 세울 권리를 잃은 것을 (무의식중에)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꿈에서 P에게 동상을 세워 준 것이다. 나의 친구 P의 이름은 오스트리아 황제와 같은 요제프였기 때문이다.

꿈 해석의 법칙에 의하면,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Non vivit'를 요셉 황제 기념비를 기억한 탓으로, 'Non vixit'로 바꾸어 놓은 근거가 아직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전자가 후자와 바꾸어지는 데 힘이 된 꿈 사상 중에 다른 요소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꿈의 한 장면에서, 친구 P에 대한 악의와 우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전자는 표면화한 것이고 후자는 은폐된 것이나, 이 두 감정이 'Non vixit'란 동일한 구절을통해 한 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학문에 공헌한 바가 있었기에, 나는 그에게 동상을 세워 준다. 그러나 그가 저 악한 소망(꿈의 끝에 표현되어 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없애 버렸다. 이때 나는 이상하게 들리는 한 문장을 썼는데, 이 문장에서 어떤 표본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이와 비슷한 대립, 동일한 인물에 대한 정반대의 두 태도, 그 어느 것이나 다 정당성을 요구하고, 더욱이 양자가 병존하고 서로 방해되지 않는 관계는 어디서 발견될 것인가?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여러 곳 중의 한 곳인,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줄리어스 시저(Julius Cäsar)》 중의 브루투스(Brutus)의 변명 연설, 즉 "시저는 나를 사랑하였기에 나는 그를 위해 울었고, 시저는 행복하였기에 나는 그를 위해 기뻐했고, 시저는 용맹하였기에 나는 그를 존

경하지만, 그가 권세를 얻으려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쓰러뜨렸다." 이것은 내가 발견했던 꿈 사상 중의 것과 꼭 같은 문장 구조와 사상 대립이 아닌가? 즉 나는 꿈에서 브루투스를 연기한 것이다. 내가 이 놀라운 부차적인 결합을 위해서 다른 확실한 근거를 꿈 내용 중에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음의 것이 그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친구 F1은 7월에 비엔나에 온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나의 친구는 내가 알고 있는 한에는 7월에 그가 비엔나에 있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7월(Juli)이란 이름은 율리우스 카에사르(Julius Cäsar)에 의해서 작명된 것이고, 따라서 7월은 내가 브루투스의 역할을 한다는 중간적 사상에 대해서 내가 찾고 있는 암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70

이상하게도 나는 실제로 한 번 브루투스와 시저의 장면을 아이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연기한 적이 있었다. 나는 당시 열네 살, 시저 역의 조카는 열다섯 살이었 다. 이 조카는 당시 영국으로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다. 따라서 이것 역시 하나의 유령이다. 왜냐하면 이 조카와 함께 떠오른 것은 아이 시절에 장난치던 친구였기 때문이다. 나는 만 세 살이 될 때까지 이 조카와 함께 살았다. 서로 사이좋게 지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다. 이미 한 번 말한 것처럼, 이 아이 때의 관계는, 후년 에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의 나의 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카 존 은 그때부터 여러 번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꿈에 나타나서, 나의 의식 중에 사라지 지 않고 정착하면서 어느 때에는 그의 본성의 일면을, 또 다른 때에는 다른 일면을 재현하였다. 때로는 나를 꽤 못살게 굴었다. 나는 그의 폭군다운 점에 굳세게 대 항했어야 했던 것 같다. 그에게는 아저씨에 해당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너는 왜 존(John)을 때리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때의 내 대답을 나는 나중에 어른들에게서 때때로 들었다. 그것은 아직 두 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의 말이다. 즉. "저 애가 나 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때렸지요."하고. 이 어린 시절의 광경이, '살아 있지 않다 (Non vivit)'를 '살아 있지 않았다(Non vixit)'로 바꾸게 한 원인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좀 더 큰 아이들은 '때린다(schlagen)'의 말을 '구두약을 칠한다

<sup>70</sup> 그 위에 시저 · 카이제르(Kaiser · 황제)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wichsen)<sup>77</sup>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꿈 작업은 이런 관련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용한다. 많은 점에서 나보다 우수하고, 또 그러므로 유아 시절의 장난 친구 (존) 의 개정판(改訂版)인 친구 P에 대한 나의 이유 없는 적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저조카 존에 대한 복잡한 유아적 관계에까지 소급된다. 이 꿈은 나중에 다시 취급하겠다.

### 7. 황당무계한 꿈—꿈에서의 지적 업적

이때까지의 꿈 분석에서 우리들은 몇 번이나 꿈 내용의 '황당무계성'에 부딪쳤다. 그러므로 이 황당무계성이란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구명을 이 이상 더 연장할 이유는 없다. 이 황당무계성이야 말로 많은 꿈 이론가들에게, 꿈은 약한 정신 활동의 무의미한 산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유력한 근거를 제공한 것임을 상기하여 주기 바란다.

나는 몇 가지 실례로부터 시작코자 한다. 이 실례 속에서 꿈 내용의 황당무계성은 외양에 지나지 않는다. 더 깊이 파고들면 이미 그 내용은 꿈속에 소멸한다. 아래의 몇 가지 꿈은—모두들 생각하듯이 우연히—돌아가신 아버지를 취급한 것들이다.

# (1) 6년 전에 아버지를 잃은 한 환자의 꿈

아버지의 신상에 큰 재난이 닥쳐왔다. 밤차의 탈선 때문에 좌석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왼쪽 눈썹 위에 세로로 상처 하나가 있었다. 그는 부친이 재난을 당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때에 죽었으니까하고 그는 꿈 이야기에서 보충했다.) 아버지의 눈은 대단히 맑았다.

흔히들 하는 해석에 따른다면, 사람들은 이 꿈 내용을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즉 이 꿈을 꾼 남자는, 그의 아버지의 재난을 묘사하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71 vixit와 발음이 비슷하다.

먼 옛날에 죽은 것을 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이 진행하는 중에 그 기억이 소생 되어, 그가 꾸는 꿈을 의심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이런 설명을 통 한 이해가 전혀 소용없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이 꿈을 꾼 본인은 아버지의 흉상 (胸像)을 어떤 조각가에 의뢰했는데, 이 꿈을 꾸기 이틀 전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는 흉상을 만든 솜씨로 보아 아버지에게 '재난이 닥쳤다'란 생각을 했다. 조각가는 그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사진을 보고 제작한 것이다. 꿈을 꾼 전날 에 이 효자는 옛적부터 집에 있는 하인을 조각가의 조각실로 보냈는데, 그 까닭은 이 하인이 그 흉상의 머리에 관해서, 즉 조각의 이마의 옆넓이가 너무 좁다는 그의 느낌과 같은 인상을 받느냐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였다. 이 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억의 재료가 또 있다. 아버지는 업무상 걱정이나 집안의 근심이 그를 괴롭 히면, 마치 커지는 머리를 억눌러서 좁히려는 듯이 두 손으로 이마 양쪽을 누르는 습과이 있었다. 네 살 때 이 꿈을 꾼 본인은. 우연히 탄환을 잰 권총이 발사(發射) 되어 아버지 눈을 검게 그을리게 한 사건을 목격하였다.(눈은 대단히 맑았다.)— 꿈에서 본 아버지의 상처 있는 곳에, 생전에 아버지는 가슴에 고뇌가 있을 때나 깊 이 생각할 때에 언제나 깊은 주름살을 세로로 지었다. 이 주름살이 꿈에서 하나의 상처로 대리된다는 것은 꿈의 두 번째 계기를 표시한 것이다. 꿈을 꾼 본인은 전 에 자기의 작은 딸의 사진을 찍었다. 건판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 건판에 금 이 간 것을, 다시 주웠을 때에 알았다. 이 금은 수직의 주름살과 같이 딸의 이마에 서부터 세로로 눈 위에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미신적인 불안을 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어머니를 찍은 건판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서 깨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꿈의 황당무계성이 흉상과 아버지의 사진을 구분하지 않는 언어 표현의 부정확한 소산물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누구나, "너는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흔히 말한다. 이 꿈에서의 애매성의 외관은 쉽게 피해질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 한 번의 경험으로써 감히 판단을 내려도 무방하다면, 이 황당무계성 의 외관은 허용된 혹은 의도된 외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와 매우 비슷한 두 번째 사례는 나의 꿈이다 (나의 아버지는 1896년에 사망)

아버지는 사망 후에 마자르 족(族) 사이에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로써 그들을 통일시켰다. 이에 대해서 나는 희미한 정경 하나를 목격한다. 즉, 국회 회의 중인 것과 같이 사람이 많다. 하나 혹은 두 의자 위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이 있다. 나는 임종에 있었던 아버지가 가리발디(Garibaldi)를 매우 닮았었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 기대가 사실이 된 것으로 매우 기뻐하였다.

이것은 의회의 의사 방해 때문에 헝가리가 무법 상태에 빠지고, 콜로만 셸 (Koloman Széll)의 덕분으로 겨우 모면했던 위기 때에 꾼 꿈이다. 꿈의 장면이 작은 여러 형상들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이 꿈을 해명하는 데 중요하다. 보통 우리들이 꿈에서 관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경우 실물과 크기가 같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나의 꿈 화면은, 그림이 있는 오스트리아 역사의 본문 중에 삽입된 목판화의 복제(複製)이다. 이 목판 그림은 프레스부르크(Preussburg)의 제국 의회에 참석한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를 묘사한 것이다. 즉 〈우리들은 왕(마리아 테레사)을 위하여 죽으련다(Moriamur pro rege nostro)〉의 유명한 장면이다. 건 이 그림 중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같이 지금 군중이 꿈속에서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 또는 두 의자 위에 서 있다. 즉 '의자(Stuhl) 위에 앉은 재판장(Stuhlrichter)'이 되었다. (그는 그들을 '통일'했다—여기서, "우리들에겐 재판관(Richter)이 필요 없다."란 일반적인 화법이 개재된다.) 아버지가 임종때에 가리발디와 닮았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실제로 목견한 바다. 아버지는 사후 체온 상승 증상을 보였다. 그의 두 뺨은 점점 빨개졌다……그리고 무심히 우리들은 이렇게 말한다

<sup>72</sup> 엄청나게 작은 사람들의 모습이 잔뜩 모여 있는 꿈에 관해서 기록한 사람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꿈은 전날에 본 자크 캘로(Jacques Callots)의 동판화 하나가 꿈의 계기가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캘로의 그림은 여하튼 수많은 작은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림의 한 줄기에는 30년 전쟁의 참상이 그려져 있다.

그의 뒤 실체 없는 빛 속에서 우리들을 모두 억제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의 이런 사상의 앙양(昂揚)은 바로 이 '평범한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였다. 체온의 '사후' 상승에서 '사후'란 말은 꿈 내용의 '그의 사후'란 말에 상응한다. 병고에서 그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최 후의 몇 주일에서의 완전한 장폐색(膓閉塞·Obstruktion 방해)이었다. 이 관념에 여러 가지 불손한 관념이 결부된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 중에 김나지움 시절에 아 버지를 잃은 소년이 있었다. 나는 그때 깊이 충격받아 그에게 우정을 베풀었다. 이 소년은 언젠가 어떤 친척 여자의 괴로움을 비웃으면서 말했다. 이 친척 여자의 아 버지는 노상에서 죽어 집으로 운반되어 왔다. 옷을 벗겨 보니 절명의 순간이었는 지 사후였는지 배변을 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 여자는 이 일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 각하였다. 그 결과로 이 불쾌한 일은, 그 여자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방 해하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위의 꿈속에서 구체화된 소망에까지 이르렀 다. '그의 사후' 깨끗하고 위대하게 자기의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을 누가 바라지 않 을까. 그렇다면 이 꿈의 비합리성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비합리성의 외견은 다음의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우리들에게 관용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용구는 그 구성 요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비합리성을 무시하는데. 이 관용 구가 꿈에서는 고지식하게 충실히 표현되는 데 있다. 이때에도 우리들은 비합리성 의 외견이 꿈을 꾼 본인이 바라고 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킨 외견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73

73 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와 행동하고, 우리들과 교섭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 빈번성은 필요이상의 놀라움을 일으켰으며, 꿈에 대한 우리들의 몰이해가 뚜렷하게 알려지는 기묘한 설명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런 꿈은 실상 간단하게 설명된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상상하는 상황에 우리들은 종종 처해 있게 된다. '만일에·····'를 꿈은 어떤 일정한 현재적 상황에 의해서 표현하는 이외의 길을 모른다. 예컨대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젊은 남자는 돈을 지나치게 쓴다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조금만 받으면 할아버지가 살아나서 젊은 사나이에게 석명(釋明)을 요구하는 꿈을 꾼다. 우리들이 그 꿈에 대한 항의로 생각하는 것, 즉 꿈에 나온 그 인물은 벌써 죽었다는 우리들의 올바른 지식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항의는, 실상 지금 죽어서 이 세

### (3) 인용하는 예에 의한 꿈 재료

나는 지금 인용하는 예에 의한 꿈 재료 속에서는 아무런 계기도 되지 않는 황당무 계성을 꿈 작업이 어떻게 제멋대로 제조하는가에 관하여 지적할 수가 있다. 이것은 내가 휴가 여행을 하기 직전에 툰(Thun) 백작과 해후(邂逅)했기 때문에 생긴 꿈이다. 나는 1두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정거장으로 갈 것을 명한다. "선로 위를 자네

상에 없는 인간이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위안의 기분을 의미하든가, 혹은 그 인물이 죽었기 때 문에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만족감을 의미하든가, 어느 한쪽이다. 이와는 다른 이미 죽은 가족들이 나타나는 꿈의 황당무계성은. 조소와 비웃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거부, 즉 사람들이 그것 을 생각할 수 없기에 보여 주기 싫어하는 어떤 억압된 관념의 표현에 사용된 것이다. 꿈은 요구된 것 과 현실적인 것을 조금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런 꿈의 정체는 쉽게 밝혀진다. 예를 들면 병중인 아버지를 간병했지만 끝내 돌아간 아버지를 크게 슬퍼하는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사후 곧 이런 꿈을 꾸었다. 아버지는 생전과 같이 건강하고, 일상 때와 다름없이 그와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뚜렷했다. 아버지는 죽었다.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이 꿈은 '실상 죽었는데'의 뒤에 '이 꿈을 꾼 본인의 소망의 결과'를 보충하고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의 뒤에 '꿈을 꾼 본 인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충하면 뚜렷이 이해된다. 아들은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몇 번 이나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즉 아버지의 괴로움을 죽음이 빨리 결말지어 주었으면 하는 본래의 위안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아버지의 죽음 뒤의 슬픔 속에서는 이 위안의 소망마저도. 자기 가 그런 소망을 품고 있기에 아버지의 생명이 축소되지나 않았는가 하는 무의식적 비난이 되었다. 초 기의 유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반항적 감정의 환기에 의해서 이 비난을 꿈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 다. 이 꿈은 그 동인과 꿈 사상 사이의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성 때문에 이렇게 이치에 어긋난 황당무 계한 것이 되어 버렸다(이에 관해서는 《정신 분석 연감》 1911년 제3호. 〈정신 현상의 두 원칙에 관한 요약〉 참조), 사랑하는 인간의 죽음에 관한 꿈은 대체로 꿈 해석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 의 해결은 반드시 만족스럽지도 않다. 꿈을 꾼 본인의 사자(死者)에 대한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특히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감정쌍가성(感情双價性)에서 그 까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에서 사 자는 처음엔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취급되고, 거기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 되고, 더욱이 꿈의 계속 에서는 또 살아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극히 보통의 구조이고, 이것이 우리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 와 같이 생(生)과 사(死)가 교대되는 것은 그 꿈을 꾸는 인간의 (사자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는 것으 로 나는 추측한다. ('그 사람이 살아 있건 죽어 있건 간에 자신에게는 같다.') 물론 이 무관심은 현실적 무관심이 아니고, 본인에 의해서 바라지는 무관심이며, 꿈을 꾸는 본인의 극히 강렬한, 종종 정반대 의 감정을 부정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그 쌍가성(双價性)의 꿈 표현이 된다. 사자와 교 섭하는 다른 꿈에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많다. 즉 그 꿈에서 사자가 죽었다 는 기억이 환기되지 않으면 꿈을 꾼 본인은 자기를 사자와 동일화한다. 즉 그는 그 자신의 죽음을 꿈 꾼다. 꿈에 갑자기 나타나는 반성이나 놀라움, "그러나 이 인간은 먼 옛적에 죽었는데."는 이 동일화 에 대한 하나의 항의이고, 꿈을 꾼 본인에게 죽음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꿈 해석이 이런 내용을 가진 꿈의 비밀을 완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억제할 수는 없다.

와 갈 수는 물론 없네."라고 나는 마부에게 말한다. 이 말은 내가 그를 지나치게 피곤 하게 하는 듯이 그가 비난한 다음에 한 것이다. 보통 같으면 그때 기차로 가는 정도의 거리를 나는 벌써 이 마차로 달려온 것 같은 기분이다. 이 혼란한 무의미한 이야기 를 분석하면, 이렇게 밝혀진다. 즉 전에 1두 마차를 세내어 도른바흐(Dornbach) 의 어떤 먼 가도(街道)를 가야만 했다. 그러나 마부는 그 길을 몰랐다. 내가 그에 게 길을 가리켜 줄 때까지 그는 언제나 이런 착한 사람들의 풍습대로 태평하게 아 무 길이나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두서너 마디의 핀잔을 그에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부에 의한 연상의 실마리는 뒤에 만나게끔 되는 귀족들에게로 이어 진다. 첫째로 귀족들이 즐거이 마부의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들은 우리네 평민의 주목 대상이 된다는 암시이다. 툰 백작만 해도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는 마차를 몰 고 있는 셈이다. 꿈속의 둘째 번의 문장은 내가 1두 마차의 마부와 동일화한 나 의 동생과 관련하고 있다. 그 해에 나는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하려는 동생의 권유 를 거절했다. ("선로 위를 자네와 갈 수는 물론 없네.") 그리고 이 거절은 내가 동 생을 그런 여행으로써 '피곤하게 하는' 버릇이 있다는 동생의 이전의 불평에 대한 벌이었다. 이것은 그대로 꿈에 나타났다. 이 불평은 하루에도 장소를 빨리 바꾸면 서 명승지를 구경하자고 내가 그에게 요구한 데에 연유한다. 그날 저녁 동생은 나 를 정거장까지 보내주었다. 그러나 동생은 정거장 바로 앞의 시내 전차 서쪽 정류 장(Westbahnhof)에서 전차로 푸르커스도르프(Purkersdorf)로 가기 위하여 마차 에서 뛰어내렸다. 그가 시내 전차가 아니라 서부선 철도(Westbahn)로 푸르커스 도르프(Purkersdorf)에 가면, 조금 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 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내가 '보통 철도로 갈 거리를 마차로' 달리는 형식으로 꿈 에 나타난다. 실상은 그 반대이다. (그리고 '마차를 탔다는 것도 거꾸로 된다.') 나 는 동생에게. "네가 시전(市電)으로 갈 거리를 나와 함께 서부선 철도(Westbahn) 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 꿈이 혼잡된 것은 '시전' 대신에 '마차'를 꿈속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또 마부와 동생을 하나로 묶 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나는 이 꿈속에 아무런 뜻이 없는 엉뚱한 것이 들어 왔음을 알았다. 이것은 거의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앞에서의 나의 말("선 로 위를 자네와 함께 갈 수 없네.")과 모순된다. 그러나 나는 시전과 1두 마차를 혼동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인가? 우리들은 이제 꿈의 황당무계가 무슨 의미이며, 어떤 동기에서 그 황당무계가 허용되고 작성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나는 표현을 바라는 어떤 판단 하나를 꿈 사상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 '타고 간다(Fahren)' 는 것과 관련한 비합리적인 어떤 것을 꿈에서 필요로 한다. 이 꿈의 다른 한 장면에서, '가정부'로 등장하는 손님을 좋아하고 머리가 좋은 어느 부인의 집에서 지낸어느 날 밤에, 나는 수수께끼를 두 가지 풀어야만 했는데, 나로서는 풀 수 없는 것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답을 찾으려는 나의 모습은 매우 우습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뒤따라온다 (nachkommen은 또 후손의 뜻을 가지고 있다)'와 '앞서 간다(vorfahren은 선조의의미가 있다)'라 두 말로 만든 말장난이었는데, 이런 것이었다고 기억된다

주인이 명령한다 마부가 실천한다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묘 속에서 쉬고 있다(선조(先祖))

두 번째 수수께끼의 앞 절반은 제1의 것과 같으므로 조금 혼동되었다.

주인이 명령한다 마부가 실천한다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요람 속에 자고 있다(후손(後孫))

툰 백작이 아주 당당하게 '앞으로 타고(vorfahren)' 가는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피가로(Figaro)적인 기분이 되었다. 즉 귀족이 위대하다는 것은 다만 귀족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자손이다) 뿐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되었다. 내가 그런 기분이되었을 때, 위의 수수께끼는 꿈 작업에서 중간 사상이 되었다. 귀족은 마부와 혼동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는 마부를 '형(의형제)'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꿈의 압축 작업은 나의 동생을 동일한 표현 속에로 집어넣었다. 그 뒤에 작용하고 있는 꿈 사상은 이렇다. 즉 '자기의 선조를 자랑하는 것은 우수운 일이다. 도리어 나 자신은 앞에 탄 사람, 선조가 되고 싶다.' 이 '그런 것은 우습다.'란 비판이 있기 때문에, 꿈속에 황당무계함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꿈의 애매한 부분의 마지막 수수께끼, 즉 나는 마부와 함께 벌써 '미리 마차를 달리게 했다.' 즉 마부와 함께 '앞에 타고 있다.'란 것도 해석된다.

그러므로 꿈은, 사상에 포함된 요소 중 한 요소를 황당무계하다고 판단할 때, 즉 비평과 조소가 대체로 꿈꾼 본인의 무의식적 사고 과정의 한 동기가 될 때 황당무계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황당무계한 것은 꿈 사상과 꿈 내용 사이의 재료 관계의 거꾸로 됨이나 뒤집어놓은 운동적인 감각 장해의 이용과 같이, 꿈 작업이 모순을 표현하는 여러 수단의 하나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꿈의 황당무계는 단순한 '아니다'로 번역되지 않고, 동시에 그 모순을 조소하거나 혹은 웃어 버리려는 지향을 표현해야 한다. 이 의도에서만 꿈 작업은 우스운 어떤 것을 공급한다. 이때에도 꿈작업은 "잠재 내용의 한 부분을 현재적인 형식으로 바꾼다."

실상 우리들은 이미 황당무계한 꿈의 의미를 뚜렷하게 깨닫게 해 주는 한 실례를 만났다. 지휘자가 지휘대 위에서 관현악단을 지휘하고, 아침 7시 45분까지 계속된 다는 바그너(Wagner)의 연극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뚜렷한 꿈은 '뒤틀린 세상이고, 미친 세간이다.'라고 뚜렷이 표시하고자 한다. 공로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소유한다는 생각으

<sup>74</sup> 그러므로 꿈의 작업은, 어떤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상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우스운 것과 관련 시켜서 그 사상을 비꼰다. 하이네(Heine)가 바이엘른(Bayern) 왕의 서투른 시를 조롱하려는 때의 방 법과도 같다. 즉 그는 바이엘른 왕의 시보다 더 서투른 시를 극작해서 원시(原詩)를 조롱하였다. 루트 비히 씨(Ludwig)는 대시인 그가 시를 읊으면 아폴로(Apollo)도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그만두어, 그 렇지 않으면 정신이 돌겠어."

로써, 저 꿈을 꾼 여인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조카의 운명과 비교하여 생각하였다. 첫째로, 꿈의 황당무계성의 실례로 망부(亡父)를 재료로 삼은 위의 꿈이 우리들에게 제공한 것은, 또한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꿈에 황당무계한 여러 꿈을 작성하는 여러 조건이 전형적 방법으로 집중된다. 아버지가 독차지하는 권위 · 권력은 일찍부터 아이에게 비평의 정신을 일으켰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제출하는 엄격한 요구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안락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약점을 찾으려는 결과를 유치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을 강화시킨다. 이 고인을 아끼는 마음은 꿈의 검열을 날카롭게하고, 이 검열은 위에서 본 아버지에 대한 비판의 외화(外化)를 쫓아내고, 그것을 의식에까지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 (4) 죽은 아버지에 관한 황당무계한 새로운 꿈

1851년에 어떤 발작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원해야만 했던 입원료에 관한 통지서 한 장이 나의 탄생지의 동회(洞會)에서 나에게 보내왔다. 나는 이것을 재미있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나는 1851년에는 탄생하지도 않았고, 둘째로 이 일과 관계있는 나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옆 방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일을 얘기했다. 아버지가 1851년에 한 번 술에 취해서 검속(檢束) 또는 보호를 받은 적이 생각나서 나는 놀랐다. 이것은 아버지가 T가(家)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도 술을 드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또 "곧 결혼하셨습니까?"라고도 물었다. 나의 계산으로는, 나는 물론 1856년에 탄생했다. 그것이 그 사건의 바로 뒷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꿈이 과시하는 그 여러 황당무계성의 뱃심은, 이때까지의 논의에서 결론을 지으면, 꿈 사상에 존재하는 특히 강렬하고 정열적인 반감의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 큰 놀라움을 가지고 이 꿈에서 반감이 때때로 노출되고, 아버지가 조소의 대상이 된 인물로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런 노출성은 꿈 작업에서의 꿈 검열에 관한 우리들의 여러 전제와 모순되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꿈에서 아버지는 다만 하나의 표면상으로 사용된 인

물일 뿐이다. 한편 투쟁의 상대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판명에 큰 도움을 준다. 꿈은 어떤 사람에 대한 반항을 취급해도 실상 그 사람의 배후에는 아버지의 존재 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 꿈은 거꾸로 되어 있다. 아버지는 다른 인물 들을 나타내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꿈은 그렇게 보통 숭상되는 인물을 노 골적으로 우롱한다. 그 까닭은 이 인물이 실제로 아버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꿈의 동기를 생각함으로써 이런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꿈은, 내가 어떤 옛 동업자—그의 비판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믿어지고 있다-가 나의 환자 한 사람이 이미 5년이나 정신 분석 치료를 받고 있 으면서도 낫지 않는다는 말에 놀라움과 이상함을 표현하는 것을 들은 뒤에 내가 꾼 꿈이다. 꿈의 서론적인 부분은, 이 동업자가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완수하지 못 하였던 여러 의무(비용 지불 · 입원)를 잠시 인수한 사실을 뚜렷한 변장 밑에서 지 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 사이의 우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나는 아 버지의 전날의 여러 행위에 관해서 부자간의 오해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감정의 갈 등에 빠졌었다. 여러 꿈 사상은, 내가 이 환자의 치료로부터 다른 여러 일에 이르 기까지 더 빨리 정진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매섭게 분석한다. 도대 체 이 동료는 그것을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병은 보통 불치병이고, 일생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가? 여하튼 치료를 받고 있던 동안은 상당히 평안했던 것을 생각한다고 해도 일생에 비하면 4, 5년이 어떻 다는 것일까?

황당무계성의 인상은, 꿈 사상의 여러 영역에서 나온 말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데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 방에 있는 그에게 간다.' 등의 문장은 그앞의 문장과 관계있는 테마를 버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나의 멋대로의 결혼을 이야기했던 환경을 다시 나타낸다. 그리하여 꿈은 나의 늙은 아버지가 그 당시 보여 주었던 점잖은 공정한 태도를 나에게 상기시키고 이 태도를 어떤 다른 한 인물의 태도와 비교하려고 한다. 이제 나는 이 꿈이, 나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모범적인 인물로 꿈에서 표시하고 있으므로, 감히 아버지를 비웃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둔다. 사람들이 금지된 일에 대해서 진실보다도 오히려 허위를 말

하는 것은 모든 검열의 본질 때문이다. 다음 문장, 즉 나의 아버지가, 어느 때 술 에 취해서 그 때문에 검속된 일을 기억한다는, 실제로 나의 아버지와 관계있는 것 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버지가 감추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는 다름 아 닌 저 위대한 테오도르 마이네르트(Theodor Meynert)이다. 이 분의 뒤를 나는 대 단한 존경심을 갖고 좇았으며,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한참 동안은 대단히 호의적 이었으나, 나중에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변했다. 이 꿈은 그의 젊은 시절에 '클로로 포름(chloroform)으로 자신을 마취시키는' 습관에 젖어서. 그 때문에 정신 요양소 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의 진술을 나로 하여금 회상하게 했다. 이 꿈은 또 마이네르 트가 죽기 바로 전에 그와 나와의 사이의 두 번째 경험을 상기시킨다. 나는 남자 히스테리에 관해서 그와 맹렬하게 필전을 벌였는데, 그는 남자 히스테리를 부정했 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임종의 병상을 방문하고 병세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용태 를 상세히 설명하고.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즉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언제나 남 자 히스테리증의 완전한 하나의 케이스였다."라고. 그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고집 하던 것을 이렇게 승인한 것은 나를 놀라게 했으며 만족하게 했다. 그러나 내가 이 꿈 장면에서 나의 아버지에게 마이네르트의 대리를 시킬 수 있은 것은, 아버지와 마이네르트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꿈 사상 중의 한 조건문을 간결 하지만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문은, 자세히 말하면 이렇다. 즉 "그렇지. 만일 내가 대학 교수나 어떤 궁중 고문관의 자식이었더라면. 물론 나는 빨리 출세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꿈에서 나의 아버지를 궁중 고문관과 대학 교 수로 만든다. 이 꿈의 가장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황당무계성은 1851년이란 연호의 취급이다. 나는 1851년과 1856년의 차이를 '마치 5년이란 차이가 전혀 의미 없는 듯이' 무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꿈 사상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4년에서 5 년까지', 이것은 처음 말한 동료(마이네르트)의 후원을 내가 받은 연월이고, 또 내 가 나의 약혼녀에게 결혼을 기다리게 한 연월일이며, 또 사상에 의해서 즐거이 이 용된 우연한 부합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장 친한 환자에게 완전한 치료를 기다리 게 한 해이다. "5년이 어떻다는 거야?" 하고 꿈 사상은 묻는다. "그것은 나에게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안중에 없다. 나에겐 시간이 충분하다. 당신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 정말이 된 것 같이, 나는 이것도 어떻게든지 정말로 해보려고 할 것이다." 이외에, 그러나 연호에서 절단된 51이란 숫자는 다른 의미, 더욱이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꿈에 여러 번 나타난다. 51(세)은 남자의 액년(厄年)이다. 나는 51세에 죽은 동료들을 보았고, 그중에 또 오랫동안 기다려서 겨우 교수로 임명되었다가 며칠 후 죽은 사람도 있다.

## (5) 숫자로 농(弄)하는 황당무계한 다른 꿈 하나

지인 M 씨는 다름 아닌 괴테로부터 한 논문에서 우리 모두 부당하다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신랄한 공격을 받았다. M 씨는 물론 이 논란에서 두드려 맞았다. 그는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를 매우 탄식했다. 그러나 그의 괴테에 대한 존경심은 개인적인 이 사건 때문에 손상되지는 않았다. 나로서는 시간적 관계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었기에,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밝히려고 했다. 즉 괴테는 1832년에 죽었다. M에 대한 괴테의 공격은 1832년 이전의 일이어야 하므로 M은 그 당시 아주 젊었을 것이다. 아마 M 씨는 열여덟 살 가량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이 몇 년인지 나에겐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계산 전체가 희미해져 버렸다. 여하간 괴테의 공격은 그 〈자연(Natur)〉이란 제목의 저명한 논문에서 행해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 꿈의 황당무계성을 증명할 수단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회식 석상에서 나와 알게 된 M 씨는 '마비증의 정신 착란'의 증세가 보이는 동생을 좀 봐 달라고 최근 나에게 부탁했다. 과연 추측대로였다. 그런데 왕진하여 대화하는 도중 환자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형의 젊었을 때의 장난'을 이야기해서 형을 당황하게 만든 난처한 일이 있었다. 나는 환자에게 출생 년도를 물었고, 또 그기억력의 감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간단한 계산을 몇 가지 시켜 보았다. 환자는이 시험을 무사히 치렀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나는 내가 그 꿈에서 마치 마비증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현재 몇 년인지 나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꿈 재료는 최근 다른 한 원천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의 지인인 어떤 의학 잡지의 편집인은 그 잡지 속에, 베를린에 있는 나의 친구 편의 근작(近作)에 대해서

'전멸시키는 듯이' 대단히 날카로운 비평을 실었다. 그런데 이 비평은 아직 매우 젊고 능력이 부족한 비평가의 글이었다. 나는 이 사건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편집인에게 변명을 구했다. 편집인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나 정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잡지에 대한 나의 관계를 끊고 나의 사임상(辭任狀)에서 "우리들의 개인 관계는 이번 사건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표현했다. 이 꿈의 세 번째 원천은 남동생의 정신병에 관한 한 여성 환자의당시의 생생한 기억이다. 이 동생은 "자연, 자연."이라고 고함치면서 미쳐 날뛰었다. 의사들은 이 고함이 아름다운 '괴테의 논문'을 읽은 데에 원인이 있으며, 환자의 지나친 자연 철학 연구에 연유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성적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성적인 의미에서 '자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불행한 환자가 나중에 자기의 음경을 끊어 버린 사실은, 적어도 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듯 보였다. 이 환자는 열여덟 살 때부터 미쳤었다.

그렇게도 혹독한 비평을 받은 나의 친구의 저서(다른 한 비평가는 "저자가 미쳤는 지, 혹은 우리가 미쳤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어질 지경이다."라고 말했다.)가 '생명의 시간적 관계'를 취급하고, 괴테의 생애의 길이를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수의 몇 배에 돌린다는 사실을 덧붙인다면, 내가 그 꿈에서 친구의 위치에다나를 두고 있는 사실은 쉽게 이해된다.('나는 시간적 관계에 관한 어떤 설명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마비증 환자와 같이 행동하고, 꿈은 황당무계해졌다. 즉, 꿈 사상은 빈정대서 이렇게 말한다. "물론(natürlich) 그는 바보이고 미치광이다. 그리고 당신네는 사물을 잘 분별하는 천재이다. 혹은 그 반대일까?" 그리고 이 '바꿈(전이(轉移))'은 꿈 내용 속에서 충분히 표현된다. 즉 괴테가 젊은 남자를 공격하였으나, 이것은 황당무계한 것이다. 반대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매우 젊은 남자가 불감(不感)의 괴테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꿈에서 나는 괴테의 몰 년(歿年)을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이 마비증 환자에게 계산하게 한 것은 그 탄생의나이였다

나는 어떤 꿈일지라도 이기적인 마음의 움직임 이외의 것에 의해서 생기지는 않

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꿈에서 친구의 일을 나 자신의 일로 삼고, 내가 친구의 대신이 되어 있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깨어 있을 때의 나의 비판적 확신은 여기서는 소용이 없다. 그러나 열여덟 살의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환자의 "자연"이란 고함 소리에 관한 여러 해석은, 내가 신경증 환자에 대하여 성적 병원을 주장함으로써 내가 여러 의사와 대립되었던 관계를 암시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의 친구에 대한 비평이 너 자신에게도 가해질 것이다. 아니 벌써 부분적으로 그런 비평이 너에게 가해져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꿈 사상 중의 '그'를 '우리들'로 바꾸어도 좋다. "그렇다, 너희들은 옳고 우리들은 바보이다." 괴테의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작은 논문의 언급은 강력히 나에게 "중한 것은 나 자신의 일이다(mea res agitur)."를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김나지움 졸업반에서 아직 결정짓지 못했던 장래의 방향을 자연 과학의 연구에로 나를 밀어준 것은 일반 공개 강연회에서의 이 논문의 당독이었기 때문이다.

### (6) 내가 꿈속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나의 꿈 하나

내가 꿈속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나의 꿈 하나에 관해서, 그 꿈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표명할 의무를 나는 지니고 있다. 나는 앞에서 M 교수가 "나의 자식, 저 근 안(近眼)이……."라고 말한 짧은 꿈을 언급하였고, 이 꿈이 내가 다른 역할을 맡는 어떤 꿈에 이르는 서론적인 꿈(前夢·Vortraum)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음에 본론적인 꿈을 소개한다. 이 꿈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황당무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형성을 설명한다.

로마에서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도망쳐야 했다. 정경(情景)은 문, 옛날식의 이중문 앞이다(나는 꿈을 꾸면서 '이것은 시에나(Siena)에 있는 포르타 로마나(Porta Romana)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어떤 분수(噴水)의 가장자리에 앉아서 매우 비통하여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한 여자(보모인지 수도녀인지)는 두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넘겨준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버지는 아니다. 두 아

이 중의 나이 많은 아이는 뚜렷이 나의 맏아들이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는 그 아이에게 이별의 키스를 요구한다. 부인의 코가 빨간 것이 특징이다. 사내아이는 키스를 거절하나 이별의 표시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우프 게제레스(Auf Geseres)."라고, 그리고 우리 둘에게(라고 할까, 우리들의 한쪽에게라고나 할까) "아우프 운게제레스(Auf Ungeseres)."라고 한다. 나는 나중의 인사가 더 성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꿈은 극장에서 본 〈새로운 유대인 마을(Das neus Ghetto)〉이란 연극에 자극된 여러 관념의 덩어리 위에 형성되어 있다. 유대인의 문제, 조국이 주어지지 않는 나 의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근심과, 아이들이 자유로운 이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 육하려는 걱정 등은 이 꿈에 속하는 꿈 사상 속에서 쉽게 지적된다.

"바빌론의 물가에 앉아서 우리들은 울었다."—시에나는 로마와 같이 그 많은 아름다운 분천(噴泉)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나는 이 꿈에서 로마 대신이 되는 유명한장소를 찾아야 한다. 시에나의 포르타 로마나 근처에서 우리들은 밝게 비쳐진 큰집 한 채를 보았다. 우리들은 그것이 마니코미오(Manicomio), 즉 정신 병원인 것을 알았다. 이 꿈을 꾸기 조금 전에, 나는 유대인 의사 한 사람이 고생 끝에 얻은어떤 국립 정신 병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야기를 들었다.

'아우프 게제레스(Auf Geseres)'란 말은 우리들의 흥미를 끌며, 꿈속에서 형성된 상황으로 보아서 '아우프 비더제엔(Auf Wiedersehen "안녕히 가십시오."의 뜻— 역자註)'이어야 한다. 그 반대의 뜻인 '아우프 운게제레스(Auf Ungeseres)'에 관해 서도 사정은 같다.

언어학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게제레스(Geseres)'는 정진정명(正真正銘)의 히브리어이고, 동사(動詞) '고이제르(goiser)'의 전어(轉語)이며 '명령받은 고뇌, 재액(災厄)'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적합하다. 언어의 변천에 따라서 그것이 '슬픔과 신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운게제레스(Ungeseres)'는 나 자신이만들어 낸 말이고, 첫째로 나 자신의 주목을 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해석되지않는다. '게제레스'가 '운게제레스'에 비하여 우우(優遇)를 의미한다는 꿈의 끝에서의 작은 생각은 여러 가지 착상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캐비아(kaviar)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소금에 절이지 않은 캐비아(ungesalzen)'가. '소금에 절 인 것(gesalzen)'보다 높이 평가된다. 캐비아는 일반인에게는 진품이다. 이 생각 속에는 내 가족의 한 사람에 대한 익살맞은 희롱이 숨겨져 있다. 나는 나보다 젊은 그에게 나의 아이들의 장래를 돌보아 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 또 나의 집 에 있는 다른 한 사람, 즉 우리들의 용감한 보모가 꿈의 보모(혹은 수도녀) 속에 뚜 렷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금에 절인—안 절인. 그리고 게제레스—운게제레 스의 두 쌍의 말 사이에는 하나의 매개적인 경과가 결핍되어 있다. 이 경과는 '효 모가 들어 있는. 효모가 없는(gesäuert와 ungesäuert)' 속에 있다. 이스라엘 자손 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치다시피 탈출했을 때에 빵에 넣은 효모가 발효할 시간의 여 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부활제 때에는 그것을 기념하여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습관이 있다. 여기에서 나는 또 갑작스러운 생각이 꿈의 이 부분을 분석하던 중에 갑자기 염두에 떠오른다. 즉 나는 최근 부활제에 베를린의 한 친구 와 함께 낯선 동네 브레슬라우(Breslau)를 두루 다닌 일을 생각했다. 작은 소녀가 나에게 어떤 동네에로의 길을 물었다. 나는 미안하나 모른다고 대답하고, 옆의 친 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즉 저 작은 소녀는 언젠가 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리 라고 생각하는 상대를 선택할 때에는 좀 더 동안(烔眼)이 되어 주지 않으면 곤란하 다고. 그리고 조금 후에 간판 한 장, 즉 "헤로데스(Herodes) 박사 진찰 시간……" 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이 동업자가 소아과 의사가 아니기를 바랐다. 그 동안에 나 의 친구는 나에게 '양측의 균형(均整)'의 생물학적 의미에 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 고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 어떤 의견을 말한다. 즉 "만일 우리 인간이 눈이 하나 인 괴물 키클로페스(Zyklop)와 같이 얼굴의 복판에 눈 하나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전반의 꿈속에서의 M 교수의 말, "나의 자식, 저 근안(近眼)이"에 도달한 다. 그리고 나는 이로써 저 게제레스(Geseres)의 본거지에 도달했다. 지금은 훌륭 한 사상가로서 활약하고 있는 이 M 교수의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때에. 그러니 이제는 먼 옛날의 일이나 이 아들은 역시 의사로부터 눈병에 조심해야 한다고 주 의를 받았다. 의사는 한쪽 눈만이면 걱정 없으나 이것이 또 한쪽에 옮겨지면 좀 심 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쪽의 눈병은 아무런 나쁜 결과 없이 회복되었으나,

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그 증세가 실제로 다른 눈에 나타났다. 놀란 그 어머니는 바로 의사를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시골 피서지로 오게 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이 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제안했다. 즉 "당신은 왜 이렇게 야단법석(게제레스)을 하십니까. 한쪽이 회복되었으니 다른 쪽도 나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어머니를 야단 쳤다. 사실 또 그렇게 되었다.

이젠 나와 나의 가족들과의 여러 관계. M 교수의 아들이 처음 공부한 책상은 어머니로부터의 선사품으로서 나의 아들의 소유로 양도되었다. 나는 꿈에서 맏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했다. 이 양도와 관계가 맺어지는 여러 소망의 하나는 이제 쉽게 설명된다. 그러나 이 책상의 구조는 또 근시(近視)가 되거나 한쪽에 치우치는 것에서 아이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졌다. 여기서부터 꿈에서의 근시(거기에다 kyklop)와 좌우 균형의 논의가 나왔다. 한쪽에만 쏠리는 것에 대한 걱정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몸의 좌우 불균형 이외에도 지적 능력 발달의 불균형이란의미가 있다. 물론 저 꿈 장면이 그 황당무계성에서 이 걱정을 부정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 않는가. 아이가 한쪽을 향하여 작별 인사한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향해서 마치 평형을 되찾는 것같이 그와는 반대로 말한다. "아이는 말하자면 좌우 균형에 주의하면서 행동하고 있다."

꿈이 가장 어리석은 것같이 보일 때에 그것은 종종 가장 의미가 깊다. 무엇인가를 말해야하나 그것을 위험 없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곧잘 도화사(道化師)의 가면을 쓰는 버릇이 있다. 말하고 싶어도 못 하는 말을 듣는 청자는, 만일 그가 웃어 버리고, 또 불쾌하게 들릴 그것을 어리석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하면 이도화사 같은 가면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꿈도 머저리 노릇을 해보여야 하는 연극의 왕자와 같이 행동한다. 그러므로 햄릿이 본래의 여러 조건을 익살적으로나 알 수 없는 여러 조건으로 바꾸면서 자기에 관해서, "나는 북북서풍이 불 때에는 형편없는 미치광이지만, 남풍이 불면 나는 매와 솔개의 구별은 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은, 그대로 꿈에도 들어맞는다."

75 이 꿈은 "같은 밤의 몇 가지 꿈이 기억 속에서 산산이 흩어져 있더라도, 동일 관념 재료의 바탕에서 생겼다."는 저 보편타당한 명제에 대한 한 개의 좋은 예이다. 내가 아이들을 로마 시에서 도망시킨다는 꿈의 상황은, 여하튼 나의 소아 시절과 비슷한 한 사건에 대한 소원(溯源)적 관계 때문에 왜곡을 받고 그러므로 나는 꿈의 황당무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다. 즉 꿈 사상은 절대로 황당무계하지 않다는 사실—적어도 정신이 건전한 사람의 꿈에 관해서는 그렇다—그리고 만일 꿈 사상 중의 비평·조소·욕설이 꿈 작업에 의해서 표현하는 형식대로 나타낼 수가 있다면, 꿈 작업은 어리석은 꿈과 모든 어리석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꿈을 만든다. 이제 내가 지적하는 것 중에서 남은 것이란 다음의 사실이다. 즉 그것은 대체로 꿈 작업의 이미 말한 세 요소—그리고 이제부터 말하려고하는 네 번째 요소의 공동 작업에 의해서 생긴다는 사실, 또 꿈 작업이 그 네 가지요소가 명령하는 것을 충실히 지키면서 꿈 사상을 번역하는 이외의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 우리들의 마음이 꿈속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이냐, 혹은 다만 그 일부분의 힘을 가지고서만 활동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잘못 설정되고, 그리고실제의 여러 사정에서 빗나간다는 사실이다. 꿈의 내용이 판단되고, 비평되고, 인정되고, 그리고 꿈의 개개의 요소에 대한 놀라움이 나타나고, 설명이 계획되고 논의되는 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여러 현상으로부터 유리(遊離)되는 여러 항의를 몇 가지 선택된 실례를 들어서 처리해야 한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비판 기능의 활동으로서 생기는 꿈속의 모든 것은, 꿈 작업의 사고 활동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꿈 사상의 재료에 속한 것이고, 꿈 사상으로부터 현재적 꿈 내용 속으로 완성을 끝낸 형성물로써 도달한 것이다. 나는 우선 나의 명제를 아직 과장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깬 뒤에' 기억하고 있는 꿈에 관해서 내리는 여러 비평과 그 꿈의 재생이 우리들 속에 환기되는 여러 감정에 관해서도 그 대부분 잠재 내용에 속하고 있으며, 꿈 해석에 이어 맞추어진다.

(1) 이에 대한 뚜렷한 예 하나를 나는 이미 들었다. 한 여성 환자는 꿈이 '지나치게 희미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꿈에서 어떤 인물을 보았는데, 그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둘째 번 꿈이 계속된다. 이 꿈속에서 '쓰레기통(Misttrügerl)'이 나타났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젊은 가정부인은 집에 자주 드나든 한 젊은 친척 앞에

있다. 이미 몇 해 전에 자기의 아이들을 다른 토지에로 이주시킨 기회를 얻은 친척을 내가 질투하는 것이 나의 진심이다. 서 한 번 익살스럽게, 지금의 걱정은 새로운 쓰레기통 하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여자에게는 마그례헨 꽃을 잔뜩 넣은 쓰레기통이 보내어져 왔다. 이 꿈 토막은 '나 자신의 쓰레기로 양육되지 않았다(nicht auf meinem eigenen Mist gewaschen).'란 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들이 분석을 완성한다면, 어떤 딸이 '본래 누가 그 아버지인지 뚜렷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는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의 영향이 꿈 사상 속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꿈 표현은 여기서 깨었을 때의 사고를 침범하고, 깨었을 때 꿈 전체 위에 내려진 판단으로 꿈 사상의 한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 (2) 비슷한 케이스. 나의 한 환자는 그에겐 재미있어 보이는 꿈을 꾸었다. 왜냐하면 그는 꿈으로부터 깨어나 곧, 이것을 나는 의사 선생에게 말씀드려야 하겠다고 혼자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이 꿈을 분석하면, 그가 나의 치료를 받는 동안에 시작된 관계와, 그가 '아무것도 나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암시한다. 76
- (3) 나 자신의 경험에서 생긴 셋째 예. P와 함께 나는 집과 정원이 늘어선 곳을 지나서 병원으로 간다. 이때 나는 이곳을 벌써 몇 번이나 꿈속에서 본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이곳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그 남자는 나에게 길 하나를 가리킨다. 이 길은 모퉁이를 돌면 요리 집으로 통한다. (응접실이 있으나 정원이 없다.) 거기서 나는 도니(Doni) 부인에 관해서 물었더니, 세 아이와 함께 안방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벌써 나의 작은 딸 둘을 데리고 있는 어떤 희미한 사람을 만난다. 나는 거기에 좀 더 서 있다가 딸을 데리고 간다. 딸들이 그런 곳에 있었다는 나의 아내에 대한 일종의 비난.

잠에서 깨었을 때에 나는 큰 만족을 느낀다. 이 만족의 원인은 분석의 결과에서, "나는 전에 그것을 꿈꾸었다."란 관념의 의미를 알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석은 이 점에 관해서 나에게 가르치는 바가 없었다. 분석은 만족이 잠재적 꿈 내용에 속

<sup>76</sup> 정신 분석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꾼 꿈에 나타난 "이것은 선생님에게 말씀해 두어야 하겠습니다."란 경고, 또는 결심은 반드시 꿈을 보고하는 데에 대한 큰 저항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런 꿈은 나중에 흔히 깨끗이 잊어버려진다.

<sup>77 《</sup>철학 잡지》의 최근 수호(數號) 속에서 전개된 대규모의 논쟁 제목('꿈에서의 기억 착각')이 그것이다.

하고, 이 꿈에 관한 비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에게만 표시할 뿐이다. 그것은 '내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이다.' P는 잠시 동안 나와 같은 인생항로를 걸었으나, 그 후에 사회적 · 물질적으로 나를 훨씬 능가했지만 아이 없이 그 여자와의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 꿈의 두 계기는 완전한 분석에 의한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전날 나는 신문지상에서 '도나 (Dona)' A……y(여기서 나는 '도니(Doni)'라는 이름을 만들어 냈다)부인이 해산하는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광고를 읽었다. 나는 아내에게 이 도나란 부인에게 가 있은 조산원이 나의 아래 아이 둘을 돌보고 있는 동일한 사람임을 듣고 알았다. 도나란 이름은 나의 주의를 끌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는 이 이름을 영국의 어떤 소설 속에서 처음 발견했었기 때문이다. 이 꿈의 또 하나의 계기는, 이 꿈을 꾼 날에 원인이 있다. 이 날은 나의 시적 재능을 가진 듯한 맏아들이 탄생한 전날 밤이었다.

(4) 이와 똑같은 만족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마자르 족에 정치적 역할을 하였다는 우스꽝스러운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나에게는 남아 있었다. 그 만족감은 저 꿈의 마지막 부분, 즉 '나는 그가 임종의 침대에서 가리발디를 매우 닮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기뻐한다.(또 계속되나 나머지 부분은 잊어버렸다.)'에 엉킨 감정의 계속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한 결과로 나는 이 꿈의 빈틈을 채울 수 있었다. 그것은 소년 시절, 특히 영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부터 나의 관심을 끌었던 역사상의 한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붙여 주었던 나의 둘째 아들이다. 나는 기대되는 아이가 아들인 경우, 이 이름을 사용할 것을 결심하고 1년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나는 사내아이가 나오자마자 '대 만족감'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였다. 아버지의 억제된 출세욕이 어떻게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아이들 위에 옮겨져 있는가는 쉽게 알려질 것이다. 우리들은 물론 다음 것을 믿고 싶을 것이다. 이것은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출세욕의 억제가 생기는 여러 길 중의 하나라고. 이 아이가 이 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를 얻는 것은 당시 자기의 속옷을 더럽히는 똑같은 불행—아이에서나 임종(臨終)의 사람에서 가볍게 용서될 수 있는—이 그 아이에게 생긴 데에 원인이 있

다.

- 이에 관해서, '재판관'의 암시와 아이들 앞에서는 '위대하며 순결하고' 싶다는 꿈소망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만일 내가 이제 꿈 자체 속에 머물러 있고, 깨었을 때의 사상 속에서 계속되지 않고 그 사상 속으로 옮겨지지 않는 비평의 언사를 찾아야만 한다면, 내가 이미 다른 의도에서 보고한 꿈 몇 가지를 여기서 이용할 수 있음을 나는 큰 도움으로 생각한다. M 씨를 공격한 괴테의 꿈은 많은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적 관계를 조금 밝히려고 한다." 이것은 괴테가 나의젊은 남자 친구를 글로써 공격한다는 황당무계성에 관해서 비판적인 자극과 비교되지 않을까. "그가 열여덟 살이란 것은 나에게는 그럴듯하다." 이것은 여하튼 어리석은 계산의 결과같이 들린다. 그리고 "지금이 몇 년인지 나에겐 뚜렷하지 않다."란는 꿈속의 불확실이나 의심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 꿈의 분석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즉 꿈에서 비로소 행해지는 것같이 보이는 비판 행위는 그 비판의 원문 속에서 해석을 허용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그 행위가 꿈을 해석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며, 동시에 다른 모든 황당무계성이 피해진다. "나는 시간적 관계를 조금 밝히려고 한다."는 문장을 가지고실제로 인생의 시간적 관계를 해명하려는 나의 친구와 나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하여 이 문장은 선행하는 여러 부분의 무의미에 가해진 판단의 의미를 알고 있다. "나에게 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의 삽입은 뒤의 "그것은 …… 그럴듯하게 믿어진다."와 서로 관계한다. 거의 똑같은 말로, 나에게 자기 동생의 병력을 말하는 부인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자연, 자연!" 하고 외치는 것이 괴태와 약간 관계가 있는 "나에게 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외침은 당신도 알고 있는 성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그럴듯하게 믿어진다."고. 여기서 어떤 판단이 꿈 사상에 의해서 기억되고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은 꿈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려진다. 꿈 내용은 이 판단을 꿈 사상의 다른 어떤 토막과 같이 전용(轉用)한다.

꿈속의 판단과 불가해(不可解)하게 결합하고 있는 18이라는 수는 전후 관계에서

찢긴 현실 판단의 흔적을 아직 보존하고 있다. 끝으로 "지금이 몇 년인지 나에겐 뚜렷하지 않다."는 마비증 환자와 나와의 동일화를 표시하고 있다. 이 계기는 그 환자의 시험에서 실제로 생긴 것이다.

이런 표면상의 꿈 판단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꿈에서 구성된 여러 꿈 요소의 관계는 그럴싸한 비본질적인 것이라 제쳐 두고, 각각의 꿈 요소의 원천 자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규칙을 상기할 수 있다. 꿈은 여러 가지가 섞인 하나의 덩어리이고, 이 덩어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요소가 해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들은 꿈속에 하나의 심적인 힘이 나타나고, 이 힘이 표면상의 관련을 만들고, 그 때문에 꿈 작업에 의해서 얻어진 재료에 제2차적 가공을 치르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 힘은 꿈을 만들 때에 참가한 여러 요소 중의 네 번째 요소이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6) 나는 이미 소개한 꿈속에서 판단 작업의 다른 실례를 찾고자 한다. 동회(洞會) 의 서신(書信)에 관한 알 수 없는 꿈속에서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리고 곧 당신은 결혼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1856년에 태어난 것을 확실히 계산해 보았다. 이것은 바로 내 뒤를 따라 나타난다."

이것이 추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아버지는 그 발작 뒤 1851년에 바로 결혼했다. 나는 맏아들로 185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계산에 맞는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결론이 소망 충족 때문에 일그러진 사실, 즉 여러 꿈 사상에서 지배적인 문장이 '4년 또는 5년이란 시간이 뭐야. 세월은 문제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추론의 모든 토막은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서 꿈사상의 지배 아래에서 다르게 결정된다. 즉 문제는, 치료가 끝나면 곧 결혼할 생각인 나의 동료가, 환자의 인내에 대하여 불평을 토하는 바로 그 환자에게 있다. 꿈에서 내가 아버지에 응대하는 모습은 심문 또는 시험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한대학 교수를 생각하게 한다. 이 선생은 학생이 강의를 신청할 때에 학생의 신원을 꼬치꼬치 조사하는 습관이 있었다. 언제 탄생했지? 1856년. 아버지는?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첫 이름을 라틴어의 어미를 붙여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궁중 고문인 이 선생이 학생들의 아버지의 첫 이름으로부터, 그 첫

이름이 언제나 허용할 것 같지도 않은 어떤 추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이에 의하면, 저 꿈속의 '추론을 끌어내는 것'은 꿈 사상 속에서 재료의 한 토막으 로 나타나는 '추론을 끌어내는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알게 된다. 만일 꿈 내용 속에 한 추론이 나타나면, 그 추론은 물 론 확실하게 꿈 사상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추론은 기억된 재료의 일부분으로서 꿈 사상 속에 포함되거나 혹은 논리적 접합제로서 일련의 꿈 사상을 서로 연결시 킬 수 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꿈의 추론은 꿈 사상에서의 추론을 표명한다. 78 이 꿈 분석은 여기서 계속될 것이다. 교수의 심무은 (당시 라틴어로 씌어진) 대학 생 명부의 기억과 나아가서는 나의 연구 과정의 기억과 연결된다. 의학 연구에 마 련된 5개년은 나에게는 너무나 짧았다. 나는 아랑곳없이 예정된 5개년보다도 더 오랫동안 공부를 계속했다. 내가 막연히 재학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학업을 마 칠까 하고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서 시험을 치르기로 결 심하고, 이러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학업을 끝냈다. 내가 그런 비판자들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대한 꿈 사상은 새로이 강화된다. "내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끄니 까 당신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나는 언젠가는 결말을 낼 거야. 곧 끝내 보일 테니까. 여태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했었다."

이 꿈의 첫 토막에는 논거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몇 개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논증은 결코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고, 깨어 있을 때의 생각에도 속할 수 있다. 나는 꿈에서 동회(洞會)의 서신을 우습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첫째로 나는 1851년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둘째로 이 서류와 관계있는 나의 아버지는 그때에는 이미 죽었었기 때문이다. 이 두 사실은 매우 정확한 것일 뿐 아니라, 만약 내가 그런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생각되는 현실의 논의와도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앞의 분석에 의해서 이꿈이 분개와 조소를 띤 꿈 사상을 기반으로 생긴 것임을 알고 있다. 또 우리들이 검열의 동기가 매우 강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들은 꿈 작업이 꿈 사상에 포 10년 여러 귀결은 약간의 점에서 나의 이전의 '논리적 여러 관계의 표현'에 관한 견해를 정정한다. 나는 어떤 곳에서 꿈 작업의 일반적 방법을 기술하였으나 꿈 작업의 미묘하고 용의주도한 일을 고려하지 않았다.

함되어 있는 모형(模型)을 따라서 무의미한 추측에 대한 흠 없는 논박을 가할 충분 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꿈 분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시 해 준다. 즉 이 사건에서 꿈 작업에 아무런 자유로운 모방의 부담이 지워지지 않았 고, 꿈 사상 중의 재료가 그 때문에 이용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것은 마치 어떤 대 수방정식(代數方程式)에서, 숫자 이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부호, 멱(冪) 부호나 근(根) 부호가 있는 것과 같으며. 또 이 방정식을 쓰는 사람이 그 부호의 의미를 아 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호를 숫자와 꼭 같이 쓸 뿐 아니라. 부호와 숫자를 혼합 하는 것과 같다. 저 두 논증은 다음과 같은 재료에 환원될 수 있다. 내가 많은 신경 증을 심리학적으로 해소시키는 밑바닥에 두고 있는 여러 전제가 처음부터 알려져 있다면, 의심과 조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는 불쾌한 일이 다. 그래서 이미 생후 두 살 때의 여러 인상이 이미, 아니 심지어 한 살 때부터의 여러 인상이 나중에 신경증환자의 감정생활 속에 흔적을 계속적으로 남긴다는 사 실, 또 이 여러 인상이—기억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과장되더라도—히스 테리 증세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이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보통 나에게서 얻은 그들의 새로운 지식을 조롱하는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의 여러 기억을 찾 으려고 한다고. 이와 비슷한 태도는 여성 환자들의 가장 이른 성적 여러 충동에서 연출되는 아버지의 예상 밖 역할을 한다는 발견을 할 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 의 근거 있는 확신에 의하면, 지금 내가 말한 두 가지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아 이가 매우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사별한 몇 가지 예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 고 나중의 설명할 수 없는 실례가 보여 주는 바에 의하면. 그 아이는 일찍이 자기 의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나의 두 주장이 논란될 수 있는 추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따라서 꿈 작업이 논박 받을까 두려워하는 바로 이 '추론'의 재료가 '흠 없는 추론'을 끌어내는 데 이용된다 면, 그것은 하나의 소망 충족의 성과이다.

(7) 내가 여태까지 간단하게 언급했던 꿈의 서두에서 예기치 않게 드러나는 주제에 대한 놀라움이 뚜렷하게 표현되는 것이 있다.

노(老) 브뤼케는 나에게 어떤 문제를 부과했었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문제는 나 자신의 하반신과 골반과 두 다리를 연구 재료로서 마련하는 것과 관계한 다. 그리고 이것들을 나는 마치 해부실 속에서 보듯이 나의 앞에서 보고 있으나. 몸이 절단되었다는 기분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루이제(Louise) N. 부인이 가까이 서 있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 골반에서 장부(臟腑)가 끄집어 내어진다. 골반의 상하가 보이고. 그 둘이 혼합되어 보이고. 두터운 육색(肉色)의 덩어리가 보인다. (그것을 보 고 나는 꿈속에서 치질을 생각한다.) 그 위에 꼬깃꼬깃한 은종이 같은 것이 있다. 그 것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sup>79</sup> 그러는 중에 나는 나의 두 다리를 다시 도로 찾아 서 마을로 가기 위하여 마차를 세낸다. 놀랍게도 마차는 어떤 저택의 문을 지나간다. 문이 열리고 아무런 말없이 마차는 길을 지나간다. 끝으로 길이 끊어지고 넓은 들이 나온다. 끝으로 나는 짐을 등에 진 알프스 산의 안내자를 데리고 변화 많은 경치 사 이를 거닌다. 어떤 곳에서는 피로해서 그의 등에 업힌다. 땅은 늪과 같다. 우리들은 가장자리를 걸어간다. 사람들은 땅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이 속에 젊은 여자 한 사람 이 끼어 있다. 검둥이다. 집시 같기도 하다. 나는 앞서서 미끄러운 길을 걸어간다. 해 부한 뒤에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음에 계속해서 나는 놀란다. 드디어 우리들은 열려 있 는 문으로 끝나는 작은 나무 토막집에 도달했다. 안내인은 나를 거기 내려놓고 미리 준비된 두 나무판자를 창 문지방 위에 놓았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낭떠러지에 다리 를 놓아 창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나는 내 다리가 걱정되었다. 건너가기를 기 대하는 대신에, 나는 토막집의 벽 위에 있는 나무 벤치에 누워 있는 두 어른을 보았 다. 두 어른 옆에 아이들 같은 것이 있다. 판자가 아니라. 이 두 아이들이 건너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놀라서 잠을 깨었다.

꿈 압축이 자유롭게 변화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꿈을 분석하는 데 많은 페이지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행히 나는 '참으로 이상하게도'란 삽입구 속에 나타나 있는 꿈에서의 놀라운 예 하나만을 인용하겠다. 꿈의 계기를 알아보자. 이 계기는 꿈에서 도와 준 루이제 N. 79 은박(銀箔)—독일의 생물학자 스탄니우스의 어류의 신경 조직에 대한 암시.

<sup>80</sup>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 입구의 광경. 거기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유모차가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관계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부인이란 부인의 방문이다. 그녀는 "읽을 것을 좀 빌려 주시오."라고 말한다. 나는 그 여자에게 라이더 해거드(Rider Haggard)의 저서 《그 여인》을 주었다. "이상한 책이지만 의미심장한 책이다."라고 나는 그 여자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또 "영원 히 여성적인 것, 우리들의 정열의 불멸……."이라고 설명하자, 그녀는 나의 말을 막고,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쓴 것은 없나요?"—"없습니다. 아직 불 멸의 작품은 아직 쓰지 못했어요."-"그러시면 당신이 약속하시는, 우리들도 읽을 수 있는 당신의 최후 해설은 언제 나옵니까?"라고 그녀는 조금 비꼬는 듯 묻는다. 나는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그녀의 입을 빌려서 나를 독촉하는 것임을 알고 입을 다물었다. 나는 '꿈에 관한 연구'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극복해야 하 는 노력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나 자신의 개인적 비밀을 얼마나 많이 폭 로해야 하는가.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어린 아이와 부인들에게 말해서 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꿈에서 내가 '자기 자신의 몸'을 해부 재료로 삼는 것은. 자기의 꿈을 보고할 때 반드시 동반하는 '자기분석'이다. 노(老) 브뤼케 교수의 등 장도 이유가 있다. 나의 학무 연구의 초기에 이미 내가 방치해 두 어떤 발견을 브 뤼케 교수의 강력한 명령에 못 이겨서 내가 공포한 일이 있었다. 루이제 N. 부인 과 나와의 대화에서 시작되는 그 후의 다른 이런 류의 사상은 의식할 수 없으리만 큼 너무 깊이 들어갔다. 그 사상은, 때때로 라이더 해거드의 《그 여인》을 언급함 으로써 나의 마음속에 환기된 재료가 원인이 되어 빗나갔다. "참으로 이상하다"는 비평은 이 책과, 그리고 같은 저자의 제2의 책 《세계의 심장》과 관련이 있으며, 또 이 꿈의 무수한 요소는 이 두 책의 공상적인 소설에서 채택된 것이다. 내가 업혀 서 건너가 늪, 널빤지로 건너려는 심연(深淵) 등은 《그 여인》에게서 온 것이고, 인 디안·소녀·나무집은 《세계의 심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 두 소설의 주인공은 한 여인이고. 테마는 위험한 여행이다. 《그 여인》은 선인미답(先人未踏)의 미발견지 를 탐험하는 도정(道程)을 테마로 삼고 있다. 피로하다는 토막은 이 꿈을 꿀 때에 기록해 둔 비망록에 의한 것이고. 당시 실제로 느낀 것이었다. '피곤한 다리'는 아 마도 피곤한 기분과. "내가 아직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란 의심을 표현하고 있 다. 《그 여인》은 주인공인 여자가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불로불사를 가져오는 대 신에 신비적인 불꽃에 타죽는다는 모험으로 끝난다. 이런 불안은 분명히 꿈 사상속에 움직이고 있다. '목조(木造)의 집'은 분명히 관(棺)과 묘(墓)이다. 그러나 꿈작업은 모든 사상 중에서 가장 환영할 바 못 되는 죽음을 소망 충족이란 수단을 빌어서 표현함으로써 걸작을 연출했다. 나는 전에 한 번 무덤 속에 있은 일이 있다. 이 묘는 오르비에토(Oriveto) 근처에 있는 발굴된 에트루리아 인의 것으로, 그 묘의 벽가까이에 돌로 된 벤치 두 개가 있는 작은 방이었다. 돌 벤치 위에는 두 어른의 해골이 눕혀 있었다. 꿈에 나온 목조 건물의 내부와 똑같다. 다만 꿈에서는 돌대신에 목재로 되어 있다. 이 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네가 벌써 묘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에트루리아 인의 묘일 것이라고. 이 전가(轉嫁)를 통해서 이 꿈은 가장 슬픈 기대를 참으로 바라는 기대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꿈은 감정을 동반한 관념을 그와 반대된 것으로 바꿀 수 있으나, 언제나 반드시 감정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강제된 뒤에 '공포감'과함께 잠에서 깨었다. 그 생각이란 아이들이 아버지들이 못다 한 것을 아이들이 이루게 되리라는, 말하자면 한 인물의 동일성이 이천 년에 걸치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간직된다는 내용의 저 기묘한 소설의 새로운 암시에 이른 것이었다.

(8) 꿈에서 체험되는 것을 경탄하는 기분이 엿보이는 또 다른 꿈이 있다. 그러나이번에는 이 경탄이 기이하고 억지이면서도 총명한 설명의 시도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가령 꿈이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꿈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 7월 18일 밤부터 19일에 걸친 나의 남부 철도 여행 도중의 잠 속에서 "홀트후른 (Hollthurn)까지 10분."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곧 홀로투리엔(해서(海鼠)·Holothurien)—어떤 자연 박물관—을 생각했다. 이곳은 용감한 사람들이 국가의 고관들의 사병들과 싸워서 패한 땅이라고도 생각하였다.—물론 오스트리아의 반종교 개혁 운동!—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가 아니면 티롤(Tirol)의 어느 곳인 듯하다. 작은 박물관이 희미하게 보인다. 이 박물관 속에는 저 용감한 남자들의 해골이나 전리품이 보존되어 있다.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주저한다. 플랫폼 위에 과일을 든 여자가 서 있다. 땅에 주저앉아서 손님이라도 부르듯이 과일 바구니를 앞으로 밀

어 놓는다. 나는 시간이 있을까 하고 주저한다. 우리들은 여전히 서 있다. 갑자기 나는 다른 첫간에 있었다. 좌석은 사람들의 등이 직접 좌석의 팔 얹는 곳에 부딪칠 정도로 집다. 나는 잠이 든 채 다른 첫간으로 바꾸어 탄 것에 놀랐다.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영국인의 형제자매들이 있다. 벽에 있는 선반 위에 뚜렷이 책이 나란히 있다. 두텁게 클로스로 장정된 《국부론》·《물체와 운동(맥스웰(J. C. Maxwell) 제)》이 보인다. 남자가 실러의 책을 찾으면서 여동생에게, 너는 그것을 잊은 것이 아니냐? 하고 묻는다. 그것은 내 책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의 것 같기도 하다. 이때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확증하거나 그들의 말을 지지하려고 한다……. 그러다 나는 전신에 땀을 흘리면서 깨어났다. 창문이 모두 닫혀져 있었다. 기차는 마르부르크 (Marburg)에 정거했다.

이 꿈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기억이 생략하고자 한 꿈의 일부분이 있었다. 나는 형인 듯한 사람과 여동생인 듯한 사람에게 어떤 책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에서."라고 말하다가, "그것은……에 의해서."라고 말을 정정했다. 형은 누이동생에게 저이의 말이 물론 옳다고 주의를 시켰다.

이 꿈은 나의 잠을 아주 불완전하게 깨게 하였을는지 알 수 없는 정거장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마르부르크라고 말할 것을 홀트후른이라 했다. 역원(驛員)이 부르는 '마르부르크'란 소리, 혹은 그 뒷소리가 나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꿈속에서의 실러의 말로 증명된다. 실러는 슈타이어(Styria)주(州)의 마르부르크는 아닐지라도 마르부르크에서 탄생했다. <sup>82</sup> 그런데 나는 이번에는 일등 열차로 여행하는데도 매우 기분이 나쁘다. 차는 초만원이다.

나는 그 일등 찻간에서, 신분이 높은 것 같으나, 나란 틈입자(闖入者)에 대한 불쾌 감을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감추려는 예절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런 예법을

<sup>81</sup> 이 기록은 나 자신에는 이해되지 않으나, 나는 기초할 때에 나의 머리에 떠오른 말로써 꿈을 재현한다는 근본 원칙에 따르려고 한다. 말의 표현 자체가 꿈 표현의 일부분이다.

<sup>82</sup> 실러가 마르부르크(Marburg)란 도시에서가 아니라 마르바흐(Marbach)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김나지 움 학생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고의에 의한 변조의 대용으로써 다른 곳으로부터 섞여 들어오고, 내가 그 설명을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속에서 시도했던 잘 못의 하나이다.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신사 한 사람과 숙녀를 만났다. 나의 정중한 인사에는 반응이 없었다. 남녀는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앉아 있었 다. 그러나 이 부인은 나의 면전에서 자기의 양산을 재빨리 창가의 빈자리에 놓고 점령했다. 문은 곧 닫혀졌다. 창을 열면 곤란하다는 듯한 말이 오가고 한다. 아마 내가 신선한 공기에 굶주린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던 모양이다. 무더운 밤이었다. 이렇게 사면이 닫혀서 찻간의 공기는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나의 여행 경험으로 서는 이런 교만한 태도의 승객은 으레 무료 승차자나 할인 승차자에 한정되어 있 다. 차장이 왔길래 나의 값비싼 차표를 보였는데, 숙녀는 버릇없이 거의 위협적인 어조로 남편이 무료 패스를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다. 용모는 훌륭하나 얄미운 듯 한 얼굴의 여자이고,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가는 나잇살이나 먹은 여인이었다. 남 편은 말이 없고 몸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잠자려고 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이 좋지 못한 손님에게 심한 복수를 해 준 것이다. 꿈의 앞 절반 의 단편 뒤에는 얼마나 악랄한 비방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 할 것이다. 우선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찻간을 바꾸려는 제2의 욕구가 꿈에 나타난다. 꿈에서는 장면이 빈번하게 바뀌나, 그런 장면 전환 때문에 꿈이 말하 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므로 나는 그 손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 장 좋은 친구와 바꾸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상관없다. 그러나 장면을 바꾸 는 데 항의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 그 변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는 어떻게 하여 갑자기 다른 칸으로 갔을까? 바꾸어 탄 일은 없다. 그래서 설명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말하자면 나는 틀림없이 자면서 그 찻간을 나왔다. 드문 일이지만 신경증 학자라면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정신 이상의 상 태를 폭로하지 않고 몽롱한 상태로 기차 여행을 하다가, 도중의 어떤 정거장에 이 르면 갑자기 제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자기 기억 속의 공백에 스스로 놀라는 사람 들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아직 꿈을 꾸면서 나 자신의 상태를 '무의식적인 이동 (Automatisme ambulatoire)'이라고 설명한다.

분석은 다른 해석 방법을 허용했다. 만일 내가 다른 해석을 꿈 작업에 기인시킬 수 있다면, 나를 매우 놀라게 하는 설명의 시도는 독창적이 아니고 나의 한 환자의 신

경증의 복사(複寫)이다. 나는 앞에서 벌써 실제 생활로부터 감정에로 통하기 쉬운 교양 있는 한 남자에 대해서 기록했었다. 이 남자는 양친이 돌아가신 뒤, 바로 자 기가 살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경향을 억제하고 살인하지 않을 수단에 고심했다. 이것은 지성의 기능이 충분히 보존된 상태에서 일어난 무거운 강박 관념의 한 사례이다. 처음에 그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했다. 만나는 사람 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증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했다. 뒷모습이 갑자기 그의 시 야에서 사라지면 내가 죽였기에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괴로워한다. 이 강박 관 념 뒤에는 카인의 환상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동포(同胞)'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그는 소풍을 단념하고 네 벽 사이에 파묻혀서 일생을 보내 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방으로 바깥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보도를 신문이 전했 다. 그의 양심은 그 스스로가 밖에서 찾고 있는 살인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되어 그에게 붙어 다녔다. 그가 물론 몇 주일 전부터 그의 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확실성 이 잠시 이 비난에서 보호해 주었지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무의식 상태에서 외 출하여' 아주 의식 없이 살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르렀다. 그때 부터 그는 현관을 언제나 자물쇠로 걸어두고 열쇠를 늙은 가정부에게 맡기고 "가 령 주인인 내가 달라고 해도 절대로 주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내가 무의식 상태에서 차를 바꾸어 탔다는 설명을 시도했던 것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이 시도는 꿈 사상의 재료 중에서 그대로 (곧이곧대로) 꿈속에 운반되어서, 뚜렷하게 나를 저 환자와 동일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의 기억은 내속에서 뚜렷한 연상에 의해서 환기되었다. 나는 3주일 전에 이 환자와 함께 야간열차로 여행했다. 그는 병이 나아서 나를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시골로 안내했다. 그의 친척은 나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그와 찻간 하나를 차지하고 밤중에도 창문을 다 열어 놓은 채,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둘이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 환자의 병의 원인이 어린 시절로부터 성적 재료와 관련해서 적대적 충동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자기를 그와 동일화시켜서 나 자신에게 어떤 비슷한 것을 고백하고자 했다. 저 꿈의 두 번째 장면은 사실 기괴한 공상, 즉 손님의 중년 부부가 밤중

에 성교하려고 생각했는데, 나라는 방해물이 난입했기에 못 하게 되어서 나에 대해서 그런 배타적인 태도로 나왔다는 공상으로 변화했다. 이 공상은 성적 호기심에 충동된 아이가 부모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소리로 침실에서 쫓겨나는, 아주 어렸을 때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이 이상 더 실례를 인용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모든 실례는 꿈에서의 판단 행위가 전형적인 꿈 사상으로부터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미 인용한 실례에서 확증할 것이다. 대체로 그것은 부적당한 관련 속에도입된 온당치 못한 반복이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우리들의 마지막 실례에서와같이 대단히 오묘하게 이용되어서 꿈속에서 독립된 사고 활동이라는 인상을 준다.이제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을, 꿈의 형성 시에는 으레 언제나 협력하지 않은 듯하나, 협력할 때에는 언제나 그 유래를 서로 달리하는 여러 꿈 요소를모순 없이 현명하게 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심적 활동에 돌려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들은 꿈에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을 끄집어 내고, 주목하고, 그 여러표현을 분석하여 꿈 사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감정과 비교해 보는 것을 급선무로생각한다.

## 8. 꿈속의 감정

슈트리커(Stricker)의 날카로운 고찰은, 꿈의 감정 표현이 잠에서 깨었을 때에 우리들이 꿈 내용을 버리는 식으로 손쉽게 버려질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들의 주목을 환기시켰다. "만일 내가 꿈에서 도둑을 무서워한다면 도둑은 물론 공상적으로 존재하나, 그 공포감은 현실의 것이다." 내가 꿈에서 기뻐할 때도 같은 것이다. 우리들의 감각이 증명하는 바에 따르면, 꿈에서 체험한 감정은 깨어 있을 때에 같은 강도로 체험되는 감정보다 그 값어치에 있어서 절대로 뒤지지 않으며, 꿈은 그 표상 내용에 의해서보다도 그 감정적 내용에 의해서 더 정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현실적 여러 체험 속에 흡수되기를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깨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떤 표상 내용과 관련시키지 않고는 한 감정을 심리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과 표상이 그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때의 우리들의 판단은 혼란을 일으킨다.

꿈은 언제나 이상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왜냐하면 꿈의 표상 내용이 우리들에 의해서 깨어 있을 때의 사고 속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감정적 활동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슈트륌펠은, 꿈에서는 여러 표상이 그 심적 여러 가치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꿈은 감정을 표출할 만한동기가 없는 듯이 보이는 내용에서 강력한 감정 표현이 나타나는 반대 현상도 나타난다. 꿈에서 무섭고 위험하고 싫은 상태에 있으나, 전혀 공포나 염오(厭惡)를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때때로 해롭지 않은 일을 무서워하고 어린에 같은 일에 기뻐한다.

꿈의 이 수수께끼는 만일 우리들이 현재 내용에서 잠재적 꿈 내용으로 옮겨가면 아마 꿈 수수께끼의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갑자기, 그리고 또 더 완전하게 우리들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그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수께끼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준다. 즉 감정은 변하지 않고 본래 그대로이나, 표상 내용은 반대로 이동하고 대체되었다. 꿈 왜곡에 의해서 변화된 표상 내용이 본래 그대로 남아 있는 감정과 맞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석이올바른 내용을 본래의 자리에 앉힌다면 놀랄 것은 하나도 없다.

83 내가 그다지 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면 생후 20개월이 된 나의 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꿈은, 그 꿈과 하나인 감정이 수면 시에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있었는데, 꿈 작업은 그 재료를 하나 의 소망 충족으로 바꾸는 데에 성공한 것을 가르쳐 준다. 손자는 아버지가 출정(出征)하는 전날 밤에 울면서 "빠빠 빠빠—베비."라고 소리쳤다. 이 말은, "빠빠와 베비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 의 뜻일 것이다. 그런데 손자의 울음은 절박한 작별의 불가피함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이 아이는 그 때 작별이란 개념을 이미 표현할 수 있었다. '가 버린다(fort)(이 말은 독특한 억양이 붙여진, 길게 끈 오(oooh)란 소리로 대리되었다).'는, 이 아이가 일찍이 입에 담을 수 있은 말의 한마디였다. 그리고 이 첫 꿈의 몇 달 전에 자기의 장난감에 대해서 '가 버린다'의 말을 쓰고 있었다. 이 사실은 "어머니를 가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저항하는 검열의 세력에 굴복하는 심적 복합체에서, 감정은 우리들을 올바른 보충으로 안내하는 불굴의 요소이다. 이 관계는 꿈에서보다도 신경증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신경증에서는 감정의 강도가 신경증적 주의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지만, 감정은 적어도 그 성격에 관한 한에서는 언제나 옳다. 히스테리증환자가 자기가 쓸데없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강박 관념에 괴로워하는 환자는 역시 매우 소소한 일을 강력한 자기 비난의 계기로삼는 것에 놀란다. 양자는 모두 표상 내용을—사소한 것 내지 무의미한 것—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고, 히스테리환자는 강박관념환자가 이 표상 내용을 그들의 사고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보호하나 양자는 모두 헛수고를 한다. 정신 분석은 처음으로 감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감정에 속하고 대리에 의해서 억압된 표상을 찾음으로써 위의 두 환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이때 감정의 발생과 표상 내용은 불가분리한 유기적 통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은 서로 용접될 수도 있고 또분석에 의해서 서로 떨어지기도한다. 꿈 해석은 이것이 실제의 경우임을 보여 준다.

나는 우선 실례 하나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 실례에서 분석은 감정을 일으킬 만한 표상 내용에 대해 감정이 표면상 나타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할 것이다.

- (1) 그 여자는 사막에서 사자 세 마리를 본다. 그중의 한 놈은 웃고 있다. 그 여자는 사자가 조금도 무섭지 않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나중에 무서워서 도망쳤는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무 위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그 여자의 조카딸, 프랑스어 여교사가 먼저 올라가 있었다.
- 이 꿈을 위해서 분석은 다음의 재료를 제공해 준다. 즉 이 꿈의 사소한 동기는 그 여자의 영어 숙제의 한 문장이었다. 갈기는 사자의 장식물이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갈기같이 옆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여자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여교 사는 미스 라이온즈(Miss Lyons)(Linos=Löwen=사자들)이다. 남자 친구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뢰베(Loewe, 사자란 뜻)의 역시(譯詩)를 보내왔다. 이것이 바

버리게 한다."란 극히 일찍 성공한 자기 극복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로 사자 세 마리였다. 그 여자는 왜 이 사자 세 마리를 무서워하여 도망쳐야 했던 가?--그 여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폭동을 일으킨 흑인 한 사람이 사냥개에 쫓 겨서 나무에 올라가 살아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매우 방종한 기분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억 한 토막이 계속된다. 그 하나는 〈플리겐데 블레터(Fliegenden Bltättern)〉지에 있는 사자를 잡는 법이다. 이에 의하면, 우선 사막을 잡고 채로 걸 러내라. 그러면 사자들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무 우습고 얌전치 못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떤 관리가 너는 왜 상관에게서 환영을 못 받는가 하고 꾸지 람을 듣자. 나도 그곳에 비벼 올라가 보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선착자가 자기보다 '벌써 위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실은 이 부인은 그 꿈을 꾼 전날 남편의 상관을 영접했다. 이것으로써 전 재료의 의미는 밝혀진다. 이 상관은 그 여자에게 지나치 게 정중하고 그 여자의 손등에 키스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큰 동물(명사(名士)의 뜻도 있다)"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나라의 수도에서 "사교계의 사자(獅子)"의 역 할을 다하고 있었는데도, 그 여자는 이 사람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자는 곧 목수 슈노크(Schnock)로서 정체를 나타내는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오 는 사자와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꿈속의 사자는 세 마리이다. 그 앞에서는 두 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자이다.

(2) 두 번째 실례로서 나는 언니의 작은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는 소녀의 꿈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때 그녀는 고통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덧붙여 둔다. 이 꿈은 애인을 다시 만나려는 소망을 감추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감정은 그 소망에 조화되고 있으며, 그것의 은폐 재료에 조화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

몇몇 꿈에서는 감정은 적어도 본래 그 감정에 적합한 표상 내용을 대신하는 다른 표상 내용과 결합된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 그 밖의 꿈에서는 콤플렉스의 이완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감정은 그것의 본래의 표상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감정은 또 꿈속의 어떤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거기에서 꿈의 여러 요소의 새로운 질서에 적응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꿈 판단 행위에 관해서 알았던 것과 같다. 만일 꿈 사상 속에 뜻있는 결론이 있다면 역시 꿈도 그런 결

론을 포함한다. 그러나 꿈에서의 결론은 아주 다른 재료로 이동(移動)될 수 있다. 적지 않게 이 이동은 대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생긴다.

- 이 최후의 가능성을 나는 다음의 실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내가 가장 상세하게 분석해 본 꿈의 실례이다.
- (3) 해변가의 성, 나중에 이 성은 바닷가가 아니라 바다에 이르는 좁은 운하 바로 옆에 서 있다. P는 사령관이다. 나는 P와 함께 세 개의 창문이 붙어 있는 넓은 방에 서 있다. 그 넓은 방 앞에는 벽의 돌출부가 성벽의 첨벽(尖壁)과 같이 삐어져 나와 있다. 나는 해군 지원 사관과 같이 이 수비대에 배속되어 있다. 전쟁 상태에 있었기에 적의 군함의 내습이 염려되었다. P는 이 성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우리들이 걱정하는 사태가 생길 때에 취할 태도를 가르쳐 준다. 그 남자의 병든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이 위험에 빠진 성 안에 있다. 포격이 시작되면 이 넓은 홀은 비기 마련이다. 그 남자는 무거운 숨을 쉬고 방을 떠나려고 한다. 나는 그를 만류하며, 필요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무엇인가 중얼거렸으나 바로 죽었다. 내가 그런 질문을 했었기에 그를 지나치게 피곤하게 했었는지알 수가 없었다. 그의 죽음은 나에게 각별한 인상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미망인이 앞으로도 성내에 머무를 것인지, 총사령관에게 P의 죽음을 보고하고 차석자로서 성 안의 지휘를 맡을 것인가 하는 따위를 생각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통과하는 배를 감시한다. 상선뿐이다. 검은 물 위를 대단한 속도로 달려간다. 몇척의 배는 몇 개의 연통을 가지고, 다른 배는 푸른 갑판을 갖고 있다. ('언급되지 않았던' 전몽(前夢) 속의 정거장 건물과 흡시하다.) 형이 나의 곁에 와서 함께 운하를 지켜 본다. 한 척의 배를 보고 우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군함이다." 하고, 그러나 그 군함은 내가 알고 있는 배가 돌아오는 것이었다. 거기에 조그마한 배가 온다. 우스운 모양으로 잘려져 있다.—이 때문에 복판부터 뒤의 선체가 거의 없다. 갑판 위에는 이상한 모양의 컵 혹은 작은 상자와 비슷한 것이 있다. 우리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아침 식사의 배다." 하고 고함을 질렀다.

배의 빠른 움직임, 물의 검푸른 색깔, 연통에서의 갈색 연기, 이것들은 모두 서로 가까워져서 한 개의 긴장한 음울한 인상을 형성한다.

이 꿈속의 장소는 여러 번 여행한 아드리아 해(海)에서 얻은 것이다(미라마레 (Miramare), 두이노(Duino), 베니스(Venedig), 아퀼레아(Aquileja)), 짧았으나 유쾌한 나의 형과의 아퀼레아(Aquileja)에로의 부활제 여행(이 꿈의 몇 주일 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미국과 스페인의 해전과 결부된 미국에 있는 친척의 신 상에 관한 염려도 이에서 나온다. 감정 활동은 이 꿈에서 두 번 나타난다. 그 하나 에서 감정은 마땅히 발동해야 하는데도 발동하지 않는다. 사령관의 죽음은 나에게 아무런 인상도 주지 않는다고 꿈은 뚜렷이 말한다. 내가 군함이 다가온다고 믿는 부분에서 '깜짝 놀란다.' 수면 상태에서도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잘 구성된 이 꿈 속에서 감정이 대단히 오묘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뚜렷한 모순은 일체 피해진다. 내가 사령관의 죽음에 놀라야 할 까닭도 물론 없거니와, 또 내가 성의 지휘관으로서 군함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분 석은 이것을 입증해 준다. P는 나 자신의 대리물에 지나지 않는다(꿈에서는 내가 P의 대리물이다). 내가 갑자기 죽는 사령관이다. 꿈 사상은 내가 갑자기 죽은 뒤의 가족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다른 고통스러운 생각은 꿈 사상에 없다. 군함의 발견과 결부된 놀람은 군함을 본 것에서 벗어나서 가족들의 장래와 결부되어야 한 다. 분석은 취급한 꿈 사상의 영역이 즐거운 회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밝혀 낸다. 이 회상은 1년 전의 베네치아에서의 일이었다. 우리들은 맑은 어느 날 리바 시아보 니(Riva Schiavoni)의 우리들 방 창가에 서서 전보다도 지금 더 번창하게 움직이 는 푸른 환초(環礁)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한 환영을 받기로 되어 있는 영국 군 함이 오게 되어 있었다. 갑자기 아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기 영국의 군함이 왔어요!" 하고 환성을 올렸다. 꿈에서 이와 같은 말에 나는 놀랐다. 우리들은 다시 꿈속에서의 이야기가 일상생활의 이야기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 중의 '영국의'란 하나의 요소도 꿈 작업에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곧 밝히 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꿈 사상과 꿈 내용 사이에서 기쁨을 놀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바꿈 자체가 잠재적 꿈 내용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할 필 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실례는, 꿈 작업이 감정을 일으키는 계기를 감정과 꿈 사 상과의 여러 결합으로부터 박탈하고, 임의로 꿈 내용의 어떤 다른 곳에 자유롭게 넣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여태까지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태를 꿈속에서 불합리하고 무의미하게 끝내 버리게 한 그 '아침식사의 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할 기회를 나는 이제 얻게 되었다. 나중에 꿈 요소를 좀 더 자세히 관찰했을 때에 이런 사실이 생각났다. 즉 그 배는 꺼멓고 배꼬리의 가장 넓은 곳에서 끊겨 있었다. 이 배는 우리들을 에트루리아 시(市)의 박물관에서 흥겹게 해 주었던 물건과 대단히 비슷했다. 그것은 검은 흙으로 된 손잡이 두 개를 합친 네모진 접시인데, 그 위에 커피 잔인가 홍차 잔인가가 얹혀 있었다. 현대의 '조반 식탁'에 펴놓는 그릇과도 비슷했다. 그것은 이런에트루리아의 부인들의 화장 도구이며, 얹혀 있는 것은 분(粉)과 발분(髮粉)의 소거(小質, Toilette=화장대, 의상, 화장, 변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농담으로 이런 물건을 아내의 선물로 가져가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이 꿈속의 배는—검은 화장(schwarze Toilette), 즉 상복을 의미하고, 죽음을 직접 가리킨 것이다. 이 배의 한쪽 끝은 언어학자인 친구가 가르친 바에 의하면 희랍어의 '시체'라는 말에서 유래한 '작은 배(Nachen)'를 연상하게 한다. 옛적에는 죽은 사람을 이런 작은 배에 싣고 바다에 띠워서 수장했었다. 왜 배가 이 꿈속에서 되돌아 왔는가? 이 문제는 다음의 것과 관련이 있다.

구조된 배를 타고 노인은 조용히 항구로 돌아간다.

이것은 파선(破船·Schiffbruch) 뒤의 귀환이다. '아침밥(Frühstück)의' 배도 그 옆구리가 깨어진 것같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배의 이름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여기에 우리들이 군함 이야기 때에 남겨두었던 '영국의' 한요소가 나온다. 아침밥은 영어로 'breakfast'이고, 그 의미는 '단식을 깨뜨린다 (Fastenbrecher)'이고, 이 말 중에 포함된 '깨뜨리다(brechen)'는 거꾸로 '파선 (Schiffbruch)'과 관계된다. '단식(Fasten)'은 상복(검은 화장)과 결부된다.

그러나 이 아침밥의 배의 이름은 단지 꿈에 의해서 새로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 실물은 실지로 있으며, 최근 나의 여행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의 하나를 생 각하게 한다. 아퀼레아에서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들은 괴르츠 (Görz)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갔으며, 이스트리아(Istria) 산 포도주 한 병을 사가지고 작은 정기 증기선이 델르 메(delle Mee) 운하를 천천히 지나서 '그라도 (Grado)'를 향해 쓸쓸한 호수 안쪽으로 가는 동안, 유일한 승객인 우리들은 좋은 기분으로 갑판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이렇게 맛 좋은 아침밥을 먹어 본 적이 없었다. 말하자면 이것이 아침식사의 배이고, 가장 유쾌한 생활 향악의 연상 뒤에는, 꿈은 미지에 대한 음울한 생각을 감추고 있다.

감정이 표상군에서 분리되는 것, 말하자면 그 감정을 일으킨 표상군에서의 분리 는, 꿈을 형성할 때에 그 감정 위에 생기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지만, 그 감정이 꿈 사상에서 현재적 꿈에로의 도상에서 받는 유일하거나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다. 꿈 사상의 감정을 꿈속의 감정과 비교하면 즉시로 이런 것이 밝혀진다. 즉 꿈속에 한 감정이 있으면 역시 꿈 사상 속에서도 이것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와 거꾸로 되 는 일은 없다. 일반적으로 꿈은 그 가공에서 꿈이 생기는 심적 재료보다도 더 감정 을 결핍하고 있다. 만일 내가 꿈 사상을 재편성하면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보통 꿈 사상 중에서 가장 강한 마음의 충동이 이와 날카롭게 대립하 는 다른 충동과 싸우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내 가 꿈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 꿈이 무색하고 한층 높은 감정을 갖지 않는 사실을 종 종 알게 된다. 나의 사상의 내용뿐 아니라 감정의 고동은 꿈 작업에 의해서 무관심 을 표현하기까지 된다. 나는 꿈 작업에 의해서 여러 감정의 억제가 달성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학 연구 논문을 그 예로 들어보자. 이 꿈에는 다음과 같은 항의가 있다. 즉 그것은 사고 중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절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자기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나의 자유에 대한 정열적인 항의이다. 여기 서 생기는 꿈은 무관심하게 들린다. 나는 논문 한 편을 썼다. 그것이 나의 앞에 있 다. 색도판(色圖版)이 들어 있고, 건조 표본은 각 면에 다 있다. 그것은 싸움터의 고요함과도 같다. 격투의 기색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결과로 그칠 수도 있다. 꿈 자체 속에 활발한 감정 표출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선 다 음과 같은 확실한 사실에 머무르자. 즉, 깊은 감정 없이 꿈 사상에 깊이 들어갈 수 는 절대로 없는데도 많은 꿈 자체는 냉담하다는 사실이다.

이곳에서 꿈이 활동하는 동안의 감정 압박을 완전히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는 없 다. 그 해명에서는 감정의 이론과 억압의 메커니즘에 관한 가장 신중한 연구가 전 제되어야 한다. 나는 다만 두 의견을 제출해 둔다. 나는—다른 몇 가지 이유 때문 에—감정의 발생을 운동(運動)이나 분필(分泌)의 신경 분포의 여러 과정과 비슷하 게 신체 내부를 지향하는 어떤 원심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잠자는 상태에서는 운동의 충동이 외계로 발산되지 않은 듯이 보이는 바와 똑같이. 감정 의 원심적인 환기도 수면 중의 무의식적 사고 때문에 방해될 수 있을 것이다. 꿈 사상이 경과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은 그것 자체로서는 미약한 움직 임이다. 그러므로 꿈속에 도달하는 움직임은 더 강한 움직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의 억제'는 꿈 작업의 성과가 아니라. 잠든 상태의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으나 전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동시에 우리들은 복잡한 꿈이란, 마음의 여러 힘의 갈등이 타협한 결과였다는 인 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한편 소망을 형성하는 사상은 검열을 행하는 법정의 항의와 싸우지 않을 수 없고, 또 한편 무의식적 사고 자체 안에서 어떤 사상 경향이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반대 사상과 결합하는 사실을 빈번히 보 아왔다. 이런 모든 사상 경향은 감정을 띨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 체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도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즉 우리들은 감정의 억압을, 대 상이 서로 억지하는 방해의 결과로, 또는 검열이 검열에 의해서 억지된 여러 노력 에 대해서 실행하는 방해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의 저지는 마 치 꿈 왜곡이 꿈 검열의 첫 성과였던 것과 같이. 꿈 검열의 제2의 성과가 될 것이 다.

나는 꿈의 한 예를 삽입하겠는데, 이 꿈에서는 꿈 내용의 무관심한 감정적 고동(鼓動)을 꿈 사상과의 대립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인용하는 짧은 꿈을 독자 여러분들은 혐오감을 가지고 읽으실 것이다.

(4) 어떤 언덕 위의 야외 변소와 같은 곳. 대단히 긴 벤치, 그 한쪽 끝에 큰 배변구. 뒤끝은 오래된 또는 새로운 크고 작은 여러 똥 덩어리가 가득하다. 벤치 뒤에는 덤불이

있고, 나는 벤치 위에서 소변을 본다. 소변의 긴 줄기가 모든 오물을 씻어 내린다. 말라붙은 똥 덩어리는 쉽게 씻어져 똥통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것같다.

나는 이 꿈에서 왜 구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은, 분석이 보여 주듯이 이 꿈의 형성에는 가장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생각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석할 때에 나는 바로 헤라클레스(Herkules)가 청소한 '아우기아스(Augias)의 외양간(Augiasstall)'을 연상했다. 이 헤라클레스가 나다. 언덕과 덤불은 현재 아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아우스제(Aussee)이다. 나는 신경증의 발병 원인이 유아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덕에, 아이들을 그 병에 걸리 지 않게 했다. 벤치는 (물론 배변구 이외의 점에서는) 어떤 친절한 부인 환자가 내 게 보내 준 가구의 충실한 묘사였다. 이 선물은 나의 환자들이 얼마나 나를 존경하 고 있는가를 나에게 생각하게 한다. 저 인분 진열품마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실물을 보면 구토증을 일으킬 것이나. 꿈속의 그것은 아름 다운 이탈리아의 추억이었고,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는 주지한 바와 같이 화장 실은 이 꿈속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양이다. 모두 씻어 내리는 소변 줄기 는 틀림없는 위대성의 암시이다. 예를 들면, 저 걸리버(Gulliver)는 소인국에서 큰 불을 같은 방법으로 껐다. 그는 그 때문에 소인국의 작은 여왕의 미움을 샀다. 그 러나 라블레(Rabelais)가 그린 거인 '가르강튀아(Gargantua)'는 노트르담(Notre-Dame) 사원을 거쳐서 파리의 동네에 오줌을 갈김으로써 파리인들에게 복수한다. 나는 이 꿈을 꾼 전날 밤 잠들기 전에 '가르니에(Garnier)'의 붓으로 된 라블레의 이야기 삽화를 보았다. 그러므로 소변의 줄기도 역시 거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파 리에 있을 때 나는 곧잘 노트르담 사원의 플랫폼에 다니곤 하였다. 일이 없는 한가 한 오후에 나는 이 사원의 탑 위에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괴수나 악마 위로 올라 가거나 그것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모든 오물은 한 줄기의 빛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것은 즉 '그것들은 흩어졌다.'가 아닌가. 이것은 언젠가 내가 나의 히스테리증 치 료법의 1장에 써 보려던 라틴어의 한 구절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꿈을 일으킨 계기들을 살펴보자. 더운 여름의 오후였다. 나는 저녁 강

의에서 히스테리증과 성도착과의 관련을 논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나는 피곤했다. 자기의 곤란한 일에 조금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오점 속을 이렇게 들추는 것을 멈추고 아이들이 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로 가고 싶었다. 이런 기분으로 강당에서 다실(茶室)로 나갔다. 정원의 탁자에 앉아서 무엇을 좀 먹으려고 생각했다. 식욕은 아주 없었다. 그러나 한 수강자가 나를 따라와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있는 동안에 함께 있게 해 달라고 말한다. 그는 나에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선생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느니, 지금 만사를 아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느니, 선생은 신경증학의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찬 아우기아스 외양간을 청소하였느니 하면서, 요컨대 선생님은 대인물이라는 것이었다. 나의 기분은 이상대방의 찬사에 응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나는 염오의 정과 싸우고 이것을 벗기위해서 일찍이 집에 돌아오고, 그래도 잠자기에 앞서 라블레의 페이지를 넘기고, 마이어(C. F. Meyer)의 단편 소설 《소년의 괴로움》을 읽었다.

저 꿈은 이 재료에서 나온 것이다. 마이어의 소설은 이에 또 소년 시절의 추억을 덧붙여 준다 (툰 백작의 꿈의 마지막 장면 참조). 염오와 피로, 낮 동안의 기분은 꿈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조사한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꿈속에 가져와졌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그것과는 반대의 강력한 과장이기도 한 자기 강조의 기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낮부터 나를 둘러싼 우울한 기분을 없애 버렸다. 그 때문에꿈 내용은 동일한 재료를 써서 열등감과 자기 과대평가란 두 개의 상반된 것을 표현하도록 조립될 수밖에 없었다. 소망 충족의 이론에 의하면, 이 꿈은 만일 압복(壓伏)은 되었으나 쾌감을 가진 과대망상의 대립적인 생각이 염오의 생각에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것이 꿈속에 표현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꿈 사상 중의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동시에 어떤 소망충족의 가면이 될 수 있는 한에서만 꿈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꿈 작업은 꿈 사상이 가진 감정을 그대로 허용하거나 혹은 무로 돌리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감정을 취급할 수가 있다. 즉 꿈 작업은 그 감정을 '그 반대 물로 바꿀 수도 있다.' 분석하여 보면 꿈의 여러 요소에는 액면대로 받아들여도 좋 을 때와, 뒤집지 않으면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이나, 우리들은 일견하여 그 어느 쪽이 그 요소의 정체라고 결정할 수는 없 다. 앞뒤를 검토한 연후에 비로소 액면대로인지 또는 꼬집은 것인가의 결정이 가 능하다. 대중은 이 점을 느끼고 있고, 항간에 유포된 꿈 판단서는 전적으로 대조 원리에 따라서 꿈을 점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반대물에로의 그러한 바 꿈은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 한 사물의 표상을 그 사물의 반대물의 표상에 붙잡아 매어 두는 긴밀한 연상적 결합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이외의 모든 이동과 같이 바꿈은 검열의 여러 목적에 봉사한다. 그러나 때때로 바꿈은 소망 충족의 작업이 된다. 왜 냐하면 소망 충족은 바라지 않는 일을 그 반대물로 바꾸는 데에 그 본질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 사상이 가지는 여러 감정도 사물의 표상과 똑같이 꿈속 에서 그 반대물로 바꾸어져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바꿈은 실상 대개 꿈의 검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듯하다. 감정 억제나 감정 바꿈은 꿈 검열과 아주 비슷한 사회생활에서 특히 변장(사람의 눈을 속인다)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테면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실은 그를 욕하려고 생각해도 사양해야 하는 따위 의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려는 말투를 부드럽게 하기 보다는 나의 내심의 감정의 발현을 그 사람 앞에서 감추는 편이 더 중요하다. '물 론 말씨가 불순하지 않다.'고 해도 거기에 증오나 경멸의 눈초리나 태도를 동반시 킨다면, 내가 의도한 그 사람에 대한 효과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경멸을 노출시킨 때와 다름없을 것이다. 그래서 검열은 무엇보다도 나의 감정을 압박하라고 나에게 명령한다. 내가 변장의 명인이었으면 노하고 싶을 때에 미소를 짓고. 죽여 버리고 싶은 때에 위안하는 정반대의 감정으로 나를 위장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미 꿈에서의 이런 감정이 꿈 검열에 봉사하는 뚜렷한 실례를 알고 있다. '백부의 수염'의 꿈에서 나는 꿈 사상이 친구 R을 좀 모자란다고 꾸짖는 데 반해, 실제로는 대단한 친애감을 가진다. 우리들은 감정 바꿈의 이 일례를 통해서 비로소 어떤 검열이 있음을 알았다. 우리들은 꿈 작업이 이런 반대 감정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 낸다고 여기서 상상할 필요는 없다. 꿈 작업은 보통 꿈 사상의 재료 속에 이미 그것과 반대되는 감정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반대 감정을 거부 계기의 심적 에너지로써만 높여서 그 감정이 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력하게 한다. 앞에서 언

급된 백부의 꿈에서의 친애의 반대 감정은 아마 어린 시절에 그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이 사실을 그 꿈의 계속이 증명하듯이). 왜냐하면 백부와 조카의 관계는, 내가 매우 일찍 겪은 유년 시절의 여러 체험의 특수성에 의해서 나에게는 일체의 우애의 마음과 일체의 증오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페렌치는 그런 감정의 바꿈에 관해서 훌륭한 보고를 하고 있다. <sup>84</sup> 어느 중년 남자가 자면서 너무 큰 소리로 웃기에 그 아내는 걱정하며 이 남자를 깨웠다. 남편은 나중에 이런 꿈을 그때에 꾸었다고 말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으려니까, 아는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다. 불을 켜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는다. 몇 번이나 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는 침대에서 나와서 나를 도우려고 했으나, 아내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자기의 잠옷 바람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돕는일을 그만두고, 다시 침대로 들어갔다. 이런 모든 것이 우스워서 크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웃으시지요?"라고 말하나, 웃음이 그치지 않아서 드디어 눈을 떴다. 그 다음 날 이 남자는 의기소침했고, 고통에 괴로워했다. 그는 "너무 웃었기에 어떻게 된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분석해 보면 이 꿈은 유쾌한 것이 아니다. 방에 들어온 '신사 친구'는 잠재적 꿈사상에서는 '한층 위대한 낯선 사람'으로서의 전날 일깨워진 '죽음'의 형상이다. 동맥경화증에 걸린 이 중년 남자는 꿈을 꾼 전날에 어떤 일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억제하기 어려운 웃음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의 울음이나 흐느낌과 바뀌어졌다. 그가 어찌할 수 없었던 불은 그가 이미 어쩔 수 없는 생명의 빛이다. 이 슬픔은 최근에 생각은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성교의 시도와 결부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잠옷 바람의 아내의 도움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이미 내리막길임을 인정했다. 꿈 작업은 음경 발기 불능과 죽음이란 슬픈생각을 어떤 우스운 장면으로 바꾸고 울음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

특히 '아유(阿諛)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 충족 이론의 토대를 뒤흔든 꿈 하나가 있다. 힐퍼딩(M. Hilferding) 부인이 비엔나 정신 분석학 협회에서 토론 용지로 제출한 다음과 같은 페터 로제거(Peter Rosegger)의 꿈 보고를 보고, 나는 이

<sup>84 《</sup>정신 분석학 중앙 잡지》 제4권 1916년.

런 종류의 꿈에 주목하게 되었다.

로제거는 '인연을 끊는다(Fremd gemacht)'는 이야기(《숲의 고향(Waldheimat)》 제2권)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전에 단잠을 잤으나 때로 안면할 수 없는 밤을 몇 번이나 보낸 일이 있다. 즉학생 생활 및 문인 생활과 함께 진실한 재단사 생활의 그림자를, 끊을 수 없는 도 깨비와 같이 여러 해 동안 끌고 왔다.

내가 종일 머릿속에서 옛날 일만을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이 아니다. 속세를 벗은 천지의 대 개혁자는 그런 일 외에 할 일이 있다. 그러나 안일한 어린 시절에는 거 의 밤 꿈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여러 가지를 회상하는 데 익숙해진 후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혹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속된 사람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 작했을 때에 비로소. 내가—꿈을 꾸면 반드시—재단사의 시절에 되돌아가는 것은 웨일일까? 또 나는 참으로 재단사로서 오랫동안 사장(師匠) 곁에서 일만 계속하는 꿈을 꿔왔을까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주인 곁에서 바느질하고 다리미질하면서도. 나는 본래 이런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도회지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인 간이란 것을 뚜렷이 의식하고 있었다. 휴가는 연중행사이며, 기분 좋은 피서지에 도 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꿈을 꾸면 역시 반드시 주인을 돕는 꿈이었다. 때로는 대단히 불쾌했다. 시간의 손실이 아까웠다. 그만한 시간만 있으면 더 유익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애석하게 생각했다. 첫 수대로나 모양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심한 잔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 급료의 이야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캄캄한 일터에서 허리를 구부리 고 일하는 나는, 이 직업과 인연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한 번 실제로 그 렇게 말해 보았는데, 주인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또 나는 주인 곁 에서 옷을 꿰맸다.

이런 지루한 꿈 뒤에 잠을 깨었을 때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금후 또 다시 이런 불쾌한 꿈을 꾸면, 강제로 그 꿈을 버리고 큰 소리로 '그런 일은 사기가 아닌가? 나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한다.'고 소리 지르기로 결심했다 ...... 그런데 다음 날 밤 꿈에도 또 일하는 방에 앉아 있다.

기쁘건 나쁘건 규칙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꿈은, 언제나 나에게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밤의 꿈은 이렇다. 나와 주인은 내가 최초로 연기(年期) 도제(徒弟)로서 근무한 농가 알펠호퍼(Alpelhofer)의 곁에서 일하고 있다. 주인은 나의 일에 특히 불만을 표시했다. 곧 일어서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 거야.' 하고 말하고 주인은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나는 일어나서 '나는 다만 호의로 주인 곁에서 일할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박차고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를 않았다. 주인은 도제(徒弟) 한 사람을 고용하고는, 조금 옆으로 움직여서 새로 들어온 녀석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라고 내게 명령했다. 나는 명령대로 하였다. 나는 구석으로 돌아가서 바느질을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직공이고용되었다. 그는 19년 전에 우리들과 같이 일하였고, 당시 술집에서 돌아가는 길에 개천에 떨어졌던 보헤미아 출신의 녀석이었다. 그가 앉으려고 했으나 벤치에는 자리가 없었다. 나는 묻는 듯이 주인을 쳐다보았다. 주인은 나에게 '너는 재단사가될 재주가 없는 놈이야, 나가도 좋아. 너하고는 인연이 끊겼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다.

아침의 박명(薄明)이 말끔한 창문을 통해서 나의 친밀한 방에 들어왔다. 예술품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취미가 좋은 서가(書架)에는 영원한 호메로스(Homer), 거인과 같은 단테(Dante), 비할 바 없는 셰익스피어(Shakespeare), 영광에 찬 괴테(Goethe)—훌륭하고 불후의 모든 사람들의 작품이 나의 손에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웃 방에서 눈을 뜨고 어머니와 함께 떠들고 있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들렸다. 나는 이 목가적으로 감미롭고, 평화적이고 부드러우며, 시취(詩趣)가 풍기는 맑고 정신적인 생활, 정관적인 인간의 행복을 몇 번이나 깊이 느낀 이 생활을지금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내 쪽에서 먼저 선고하지는 못하고주인이 먼저 해고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꿈속에서 주인이 나하고 '인연을 끊었다'고 한 그날 밤부터 나는 쪽 안면할 수가 있어서, 참으로 명랑하고 느릿느릿한 재단사 시절의 저 옛날의 꿈을 두 번 다시 꾸지 않았으나, 그 뒤의 삶에 대단히 긴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이다."

젊은 시절에 재단공이었던 시인의 꿈 계열에서 소망 충족의 지배를 인정하기는 매 우 곤란하다. 모든 유쾌한 것은 현실 생활 속에 있는 데 반하여. 꿈은 겨우 극복된 불쾌한 과거의 망령적인 그림자를 끌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같은 종류의 꿈 몇 가지에서 이런 꿈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나는 박사 학위를 획득할 때까지 상당 히 오랫동안 화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화학 연구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가능성은 시간이 흘러도 짙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깨어 있는 동안에 나의 학구 생활의 불쾌한, 소용없었던 한 시기를 즐거운 기분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이에 반해서 나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분석하는 등, 많은 것을 경험하는 꿈을 빈번 하게 꾸게 되었다. 이 꿈들은 시험의 꿈과 같이 불쾌하고 또 결코 뚜렷한 꿈은 아 니었다. 이런 꿈 하나를 분석하고 나서 나의 주의는 드디어 '분석'이란 주의를 기울 이게 되었고 이것이 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 뒤에 나는 알다시피 '분석가' 가 되었다.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세상 사람이 칭찬을 할 만한 분 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알았다. 즉 나는 현재 행하고 있는 분 석을, 낮 동안의 깬 생활에서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연구한 것으로 자랑하 고 싶은 마음을 가지나, 밤의 꿈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다른 실패한 분석을 나 의 눈앞에 내어놓는다. 즉 이 꿈은 나중에 명성이 높은 시인이 된 양복장이의 꿈과 같이, 벼락부자를 벌하는 꿈이다. 그러나 벼락부자의 자기 자랑과 자기 비평 사이 의 갈등에서. 꿈은 왜 자기 비평에 도움이 되고. 허용되지 않은 소망 충족 대신에 분별의 경고를 그 내용으로 하였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이 문제 의 해답이 곤란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우리들은 처음 불손한 명예심의 공상이 꿈의 밑바닥을 마련하였으나. 그 대신에 공상의 감퇴와 수치가 꿈 내용이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들은 그런 역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마조히즘 적인 경향이 영혼 생활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남이 이런 종류의 꿈을 형벌 꿈으로서 소망 충족 꿈과 구별하더라도 나는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남이 그 렇게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말해온 꿈 이론의 타당성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의 것이 합치되는 현상을 기묘하게 보는 입장을, 술어 상으로 승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꿈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이 밖에

도 여러 가지가 알려진다. 나의 화학 실험실의 한 꿈의 뚜렷한 부수적 내용 속에는 의사로서의 생활 중에서 가장 음울하고, 업적에 있어서 가장 미미하였던 연령의 내가 나타난다.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았고. 나의 생활을 어떻게 지탱하여야 할 것 인지도 알지 못했던 내가. 몇몇 부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결혼해야 할 일이 갑자 기 생긴다는 꿈을 꾼 일도 있었다. 이 꿈속의 나는 젊을 때의 나였고, 신산(辛酸)을 나와 함께 하여온 아내도 젊다. 이렇게 해서 나이 먹은 남자의 마음을 항상 괴롭히 고 있는 여러 소망 중의 하나가 무의식적인 꿈 자극원으로서 나타났다. 허영심과 자기 비평 사이의 다른 여러 심층에 있는 맹렬한 투쟁은 확실히 꿈 내용을 결정하 였으나. 청년 시에 깊이 뿌리박은 소망이 이 내용을 꿈으로서 가능하게 하였다. 우 리들은 깨어 있을 때에도 흔히 이렇게 말한다. 즉, 그것은 현재 모두가 지극히 순 조롭다. 그리고 옛날은 괴로웠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좋았다. 너 또한 젊었었고. 나 자신에게서 때때로 발견하였고. 또 위선적인 것으로서 내가 인정한 다른 일군 (一群)의 꿈은, 이미 우정을 잃은 사람들의 화해를 그 내용으로 삼은 꿈이다. 분석 은 꼭 하나의 계기를, 즉 전 친구들을 최후까지 돌보지 않고 그들을 다른 사람이나 적과 같이 취급하도록 나에게 요구하는 계기를 폭로한다. 그러나 꿈은 그 반대의 관계를 그리는 데 만족하고 있다.

어떤 시인이 보고하는 꿈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 시인이 방해로 느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꿈 내용의 각 부분을 시인의 꿈 묘사로부터 제거한다는 사실을 종종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의 꿈은 꿈 내용이 정확하게 재현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는 수수께끼를 우리들에게 과한다.

랑크는 그림(Grimm)의 동화 《용감한 작은 양복 재단사》나 혹은 《일격에 일곱》에 벼락부자의 아주 비슷한 꿈 이야기가 있다고 나에게 일러주었다.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된 재단사는 왕녀, 즉 그의 아내와 동침한 날 밤에 옛적 직업에 대한 꿈을 꾸었다. 아내는 의심스러워 다음 날 밤에 무장한 신하들을 세워 놓고 그들에게 꿈을 꾸는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남편의 전신(前身)을 알려고 하였다. 그러나 작은 재단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충분히 꿈을 정정할 수 있었다.

꿈 사상의 감정이 꿈의 감정으로 되는 과정에서 폐기(廢棄) · 감소 · 역전 등의 복

잡성은 완전하게 분석된 꿈을 적절하게 다시 구성하면 일목요연하게 된다. 나는 여기에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에 관한 실례를 몇 가지 더 취급하고자 한다. 이 꿈들은 이상 논한 몇 경우의 약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5) 노(老) 브뤼케가 나에게 과한, 나 자신의 허리를 해부하라는 특별한 문제에 관한 꿈에서, 나는 이 꿈에 속하는 공포를 꿈 자체 속에서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은 여러 의미에서 소망 충족이다. 해부는 말하자면 내가 이 꿈의 연구서를 통해서 완성할 자기 분석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자기 분석은 이미 완성된 원고의 인쇄를 일 년 이상 연장한 만큼 나에게는 실제로 괴로운 것이었다. 그런데 내 속에서이 억지된 감정을 극복하려는 소망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꿈속에서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다른 의미의 공포를 또 맛보지 않고 지내고 싶다. 실제로 나의 머리카락은 꽤 희어졌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흰 빛깔이 되었다."도 똑같이 책의 발간을 너무 연장시키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물론 나는 어려운 여행 끝에 목적지로의 도달을 아이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 꿈의 끝에서 우리들은 알 수 있다.

충족의 표현을 잠깬 바로 뒤 순간까지 연장한 두 꿈 중에서, 충족의 첫 동기는 "벌써 그것을 꿈꿨다."가 의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리라는 기대이다. 그리고이 충족은 실제 첫 아이의 출산과 관계돼 있다. 둘째 동기는 '예조(豫兆)에 의해서 고지된 것'이 지금 현실화되리라는 확신이다. 이 충족은 둘째 자식을 낳을 때에 맛본 충족감과도 같다. 이 꿈에서의 꿈 사상 중에서 지배적이었던 여러 감정이 그대로 꿈 내용 속에 나타나는데 이런 간단한 꿈은 흔한 것이 아니다. 이 두 분석을 좀 더 상세히 조사해 보면 다음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즉 검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충족은 검열을 무서워하는 한 원천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이 원천의 감정은 만일 그 감정이 문제없이 통과된 것 같은 중류의 만족 감정(Befriedigungsafftekt)에 의해서 검열이 허락한 원천으로부터 감추어지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그 감정이 만족 감정 뒤에 숨어서 가만히 기어 나오지 않는다면 확

<sup>85</sup> 독일어에서 Graun이라는 낱말에는 〈공포〉이외에 〈백발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 후자는 회색 (Grau)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실히 검열과 충동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꿈의 실례를 들어 증명하지 못함은 참으 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의 이 소견을 다른 영역의 실례 하나가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 경우를 전제해 보자. 나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다. 나는 그를 미워한다. 그래 서 그에게 불행이라도 생기면 나는 속으로 매우 좋아했다. 그런데 나의 도의심은 이런 기분을 긍정하려고 들지를 않는다. 나는 감히 저주의 소망을 나타내지 못한 다. 우연히 그 사람의 신상에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그것에 대한 나의 충족감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불행을 생각하는 말을 하며 나의 기분에도 이것을 강제할 것이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부정 (不正)에 대해서 벌이라도 받는다면. 그때에야말로 나는 정당하게 받은 벌에 대해 서 나의 충족감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애증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자기도 이 점에서 같은 의견이라고 뚜렷하게 말한다. 그러나 나의 충족감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는 한층 강력한 것임을 나는 내 주변에서 관찰 할 수 있다. 나의 충족감은, 감정 방출이 속마음의 검열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방해 되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져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게 된 나의 증오심이란 원천에서 에너지의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런 사정은 반감을 가진 인물이라든가 세 상에서 싫어하는 소수당에 속한 사람이 어떤 죄를 자기 신상에 초래할 때에 보통 잘 보이는 세간사이다. 이런 경우, 그들이 받는 형벌은 보통 그들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것이긴 하나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악의 보탬 죄란 것과 일치 한다. 처벌자들은 이때 뚜렷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저 지른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애써 지켜온 압박이 이제 야 제거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충족감이 생기고. 그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 때 문이다. 이런 경우 감정은 그 성격에 있어서는 정당하나, 그 정도에 따르면 그렇지 가 않다. 그리고 첫째 점에서 자기 비평이 진정되면 그 뒤에 따르는 둘째 점의 검 토는 아주 쉽게 무시된다. 일단 문이 열리면 맨 처음 입장하리라고 생각했던 이상 의 많은 사람들이 속속 들어온다.

감정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신경증 환자에게는 질적으론 정상적이지만 양적으로 이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뚜렷한 특색은, 그 특색이 대체로 심리학적으로 설명되 는 한에 있어서는, 이 방법에 따라서 설명된다. 그러나 그 양적 과잉은 그때까지 억제되어서 무의식 상태로 멈추고 있던 감정 원천에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 원 천은 현실적 계기와 연상적 결합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감정의 방출 에는 아무런 요구를 갖지 않는 감정 원천에게 소망대로의 길을 열어 준다. 억제를 가하는 심적 검문소와 억제를 당하는 심적 힘 사이에 언제나 서로 방해하는 관계 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한다.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검 문소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서로 강화하는 까닭으로, 병적인 어떤 현상이 생기 는 경우도 약간 있다는 점은 똑같이 주목된다. 나는 꿈의 감정 표출을 이해하기 위 해서 심적 기구에 관한 이상의 암시적 의견을 응용해 보고자 한다. 꿈속에 나타나 고, 또 꿈 사상 속에서 으레 발견되는 하나의 충족감은 위의 증명만으로는 반드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 충족감에 대해서 보통 꿈 사상 속에 있는 제 2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제2의 원천은 검열의 압박을 받으므로 이 원 천은 보통 충족감이 아니라 충족감과는 반대되는 감정을 일으킨다. 제1의 꿈 원천 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천은 만족감을 억압의 지배로부터 탈출시키고, 다른 원 천에서 오는 만족감에 대하여 그 만족감을 보강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여 꿈속의 여러 감정은 흘러들어 온 수많은 물건을 합성한 것으로서 나타나며. 또 꿈 사상의 재료에 관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감 정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감정 원천은 꿈 작업 때에 그 동일한 감정을 만들기 위 해서 동시에 일어난다.<sup>∞</sup>

"Non vixit"가 중심을 이룬 아름다운 꿈의 분석에서, 우리들은 이 복잡한 여러 관계를 조금 알아 볼 수 있다. 이 꿈에서 여러 성질의 감정 표출은 현재적 내용의 두곳에서 엉키었다. 적대적이고 고통스러운 움직임(이것은 저 꿈 자체 속에서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혀서"라고 불리었다)은 내가 친구의 적을 두 마디 말로 무찌르는 곳에서 서로 겹쳐진다. 나는 꿈의 끝에서는 매우 기뻤고, 깨었을 때에는 황당무계한 것으로서 인식된 가능성, 즉 사람들의 단순한 소망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망령이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꿈의 동기를 아직 보고하지 않

<sup>86</sup> 나는 고의적인 얕은 슬기의 대단히 강력한 쾌감 효과를 이와 비슷하게 설명해 두었다.

았으나, 이 동기는 실상 본질적인 것이고 이 꿈을 깊이 이해하게 한다. 나는 베를 린에 있는 친구(이 사람을 나는 F1이라고 했었다)에게서, 그가 수술을 받았고 그 뒷일을 비엔나의 친척이 나에게 보고해 줄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수술 뒤의 첫 보고는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되고 나를 걱정하게 하였다. 될 수만 있으면 문병하려 고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픔을 느끼는 병에 걸 려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꿈 사상 속에서 내가 친애하는 친구의 생 명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친구의 단 하나의 누이동생(내가 만난 적은 없지 만)은 젊었을 때에 사소한 병으로 죽었다 (꿈속에서는 FI은 동생의 이야기를 하 고 동생이 45분 만에 죽었다고 했다.) 나는, 그의 몸도 죽은 동생보다 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베 를린으로 떠난다--너무 늦게 도착한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가책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이다. 87 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비난은, 나의 대학생 시절에 존경한 브뤼케 선생이 푸른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그 한 장면 속에 표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장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곧 판명될 것 이다. 꿈은 장면 자체를 내가 본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 꿈은, 푸른 눈을 그 사람 에게 그대로 남겨 둔다. 그러나 꿈은 나에게 나를 무찌르는 역할, 즉 확실히 소망 충족의 결과가 되는 하나의 역전을 부여한다. 친구의 생명에 대한 걱정, 문병 여행 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나의 수치(그는 눈에 띄지 않게 비엔나에 있는 나 의 친구에게 왔다). 병을 빙자하여 변명하려는 나의 의향. 이런 모든 것이 합쳐서 감정의 폭풍을 만들고, 그 폭풍은 잠 속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지며, 꿈 사상의 저 영역에서는 미친 듯이 날뛴다.

그러나 이 밖에도 꿈의 동기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게 정반대의 영향을 끼쳐 주었다. 수술 뒤의 경과가 좋지 못한 친구의 소식에는 누구에게든 침묵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붙어 있었다. 이 주문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왜냐하면 너는 입이 가벼운 자식이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친구가 그렇게 non vixit 대신에 명령적인 non vivit를 바라는 것은, 무의식의 꿈 사상에 근거한 이 공상이다. "너는 너무 늦게 왔어. 그는 살아 있지 않다." 꿈의 현재적 상황도 또 non vivit를 목적하고 있다는 것은 본역서 392면에 표시하였다.

청할 리 없고. 이 사건을 나에게 알려온 사람의 부주의나 또는 신경과민에서 온 것 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숨겨져 있는 비난은 나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했다. 왜냐하 면 이 비난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비 난 이외의 다른 비난은 다 알다시피 사람의 기분과 관계가 없으며, 자극적인 힘 을 갖는 것이 아니다. 친구의 경우가 아니라, 내가 아직 젊었을 때의 일인데,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친구(Freunden)도 나를 자기들의 '친구(Freunden)' 로 취급해 주어서 나는 체면을 유지하였으나. 이 친구의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비난한 것을 내가 경솔하게도 다른 쪽에 옮겼다. 그때 들은 비난을 나는 잊지 않 고 있다. 내가 당시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했던 두 사람의 한쪽이 플라이슐 (Fleischl) 교수였다. 다른 한쪽은 요제프(Josef)란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이다. 꿈속에 나오는 나의 친구이고 적인 P도 역시 이 요제프란 이름이었다. 내가 입이 가볍다는 비난을 꿈속에서 입증하는 것은 '가만히'란 요소와. "너는 나 의 일을 P에게 어느 정도 말했느냐?"란 F1의 물음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억 의 혼성물이다. 이 혼성물은, 지각한 것에 대한 비난을 지금으로부터 내가 브뤼케 의 연구실에 있던 당시로 옮겨 놓았고, 꿈의 설명에 나오는 제2의 인물 요제프란 사람과 바꾸어 놓음으로써 "내가 지각한다."는 첫 비난뿐 아니라 동시에 또 더 강 하게 억압된 제2의 비난, 즉 내가 입이 가볍다는 비난을 표현하는 데 성공한다. 꿈 의 응축(凝縮) 작업과 이동(移動) 작업 그리고 이것들의 동기는 이제 명백하다. 그러나 일체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경고에 대하여 당장의 변변치 않은 분개심은, 마 음의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 가는 모든 원천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서 실제로 사랑하 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적개심의 흐름의 높이에까지 이른다. 에너지를 가져오는 원 천은 어렸을 때의 것 속으로 흘러들어 간다. 내가 이미 위에서 말했던 바이지만. 같은 나이에 대한 나의 따뜻한 우정이나 적개심은, 나보다 한 살 위인 조카와 아이 들과의 교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아이들의 교제에서 조카는 우월자(優越者)였 으나 나는 일찍이 조카의 공격에 대한 방어술을 배워야 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함 께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때로는 연장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서로 붙들고 싸우며, 그리고 서로 고자질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최초 의 친구는 모두 옛적에 한 번 '나의 희미한 시야에 나타난' 이 첫 인물의 화신들이고 망령이다. 조카는 청년 시절에 다시 나의 신변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당시 카이사르(Cäsar)와 브루투스(Brutus)의 역할을 연출했다. 언제나 친한 친구와 증오하는 친구는 나의 감정생활의 필연적인 요구였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늘 새로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나는 때때로 어린 시절의 이상에 가까이 접근해서, 나의 어린 시절의 경우와 같이, 물론 동시적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적으로 몇 번이나 뒤바뀌면서 친구와 적을 같은 사람 속에 합쳤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관련에서 어떤 방법으로 최근의 감정 계기는 유년 시절에까지 되돌아가서 감정 활동을 위해서 감정을 바꿀 수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여기서 이 이상 더 추구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무의식적 사고의 심리학의 문제이고 신경 증의 심리학적 해명에서 취급될 것이다. 우리들은 꿈의 해석이란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제하자. 즉 어떤 유년 시절의 기억 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기억이 아마 공상 위에 형성될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즉 두 아이들이 어 떤 물건을 서로 빼앗고 싸운다. —우리들은 기억 내지 기억 착오가 어떤 특정한 물 건을 생각할 것이로되. 그 물건이 무엇인가는 지금 묻지 않기로 한다.—제각기 "내 가 먼저 왔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가 선취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로써 싸움 이 생긴다. 힘은 이치에 이긴다. 꿈의 암시에 의해서 나는 자기 쪽이 옳지 않았던 것(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때 더 강자였으며 승리를 차지했다. 패자는 아버지 또는 존경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나를 일러바친다. 나는 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익숙한 말로 자신을 변호한다. "이 아이가 나를 때렸 으므로, 나도 이 아이를 때렸어요."라고, 그러므로 분석 과정에서 나의 주목을 끄 는—나의 현재의 지식으로는 그 까닭을 모르나—이 기억이나 또는 공상은 샘이 흘 러들어 오는 물의 흐름을 모으듯. 꿈 사상 속에 포함하고 있는 감정적 자극을 수집 하고, 여러 꿈 사상의 하나의 중개물이 된다. 이곳에서 꿈 사상은 다음과 같은 길 을 따라서 흐른다. 즉, 네가 나에게 장소를 비워 주는 것이 너에게 좋을 터인데, 왜 너는 거꾸로 나를 그 장소로부터 쫓아내려고 하느냐? 너는 소용없어, 나는 너와 같이 놀지 않을 테야, 다른 놀이 친구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과 놀 테야, 등등. 그리고 이 사상이 다시 꿈 표현 속으로 흘러들어 오는 길이 열린다. 나는 당시 "내가 앉겠으니 길을 비켜라." 하고 고인이 된 친구 요제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의 뒤를 따라 브뤼케 연구소에 들어왔으나, 이 연구소에서의 자격 승진은 참으로 느린 것이었다. 두 조수는 모두 그 지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안절부절못했다. 나의 친구 요제프는 상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초조한 기분을 입 밖에 내서 나에게 알렸다. 그 상관은 중환자였으므로 그 상관이 비켜 주었으면 하는 소망은 "그러면 나는 승진한다."란 뜻밖에 어떤 부도덕한 부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나에게도 몇 년 전에 공석을 메우려는 소망이 요제프보다도 훨씬 심하게 움직였다. 예부터 위계나 승진이란 것이 있는 한, 억압을 필요로 하는 소망으로의 길은 열려져 있는 것이다. 셰 익스피어의 왕자 할(Hal)은 병든 부왕의 침대 곁에서 왕관이 자기에게 맞는지 써볼 유혹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꿈은, 쉽게 이해되듯이 이런 불순한 소망의 벌을 나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가한다.

"그는 야심가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자리를 비워 주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그 자신이 쫓겨난다. 나도 대학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 세워진 기념비 제막식에 출석한 바로 뒤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 꿈속에서 느낀 나의 만족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즉, 이것이 정당한 벌이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 친구의 장례식 때에 한 젊은 남자가 이런 경우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즉, "저조사(弔辭)를 낭독한 사람은 마치 고인이 없으면 이 세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젊은 사나이의 마음속에는, 과장에 의하여 슬픔을 막는 정직한 한 사람의 반항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설에 여러 꿈 사상이 결부된다. 즉 "실상 대치할 수 없는 사람이란 없다. 오늘날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덤으로 전송해 왔던가.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아 있다. 나는 그들 뒤에 살 8 요제프란 이름이 얼마나 나의 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백부의 꿈 참조)를 독자는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제프란 이름의 여러 인물의 배후에 나의 '자아'를 나는 쉽게 꿈에서 감출 수 있다. 왜냐하면 요제프는 또 성경 속에서도 알려진 꿈 해석자이기 때문이다.

아남아 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요구한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갔을 때 그 친구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벌써 만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순간에 일어나고, 그 생각이 다시, "나는 이번에도 죽은 사람보다 더 살아서 기쁘다. 죽은 것은 내가 아니고 그였다. 나는 저 먼 옛적의 공상적인 유아 시절과 똑같이 여전히 세상의 자기 자리를 계속 주장한다."는 격식으로 발전한 것은 당연한일이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주장해 온 것에 대한 유아 시절에서 유래하는 만족감은, 꿈속에 나타나는 감정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 나는 내가 생존자임을 기뻐하고, 이 감정을 나는 "우리들 중에서 누가 죽으면 나는 파리로 옮겨간다."고 그의아버지에게 말한 일화에 나오는 남편의 소박한 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싶다. 내가그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자기 자신의 꿈을 분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는 데는 곤란한 자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고결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유일한 악한 사람으로 폭로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유령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동안에만 존재한다는 것, 또 유령이 소망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구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런 이유로 나의 친구 요제프가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유령은 나의 유년 시절의 친구들이 차례차례로 등장한 화신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 인물들을 되풀이하여 내 자신과 바꾸어 놓는 것에 만족한다. 당장 잃으려고 하는 친구 대신이 될 인간도 이미 발견될 것이다. 바꿀 수 없는 인간은 없다.

여기서 꿈 검열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꿈 검열은 가장 조야(粗野)한 이기주 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항의하고, 이 사고방식에 딱 달라붙은 만족감을 극도의 불쾌감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나는 동일한 인물에 대한 비난의 여지 없는 다른 사고방식이 똑같이 만족되고, 그리고 그 만족감으로 저 금지되어 있는 유아적 원천에서 생기는 감정을 감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나는 저 기념비 제막식 때에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음을 통해서이 친구를, 혹은 친구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저 친구를, 실로 많은 귀중한 친구를

잃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 대신으로 딴 사람을 발견한 것,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더 귀중하고 새로운 친구로 만들기에 쉽지 않은 나이에, 이제부터 영원히 꼭 붙들 한 사람을 얻었다는 것은 진실로 아름답다." 잃어버린 많은 친구 대신을 찾았다는 만족감을 나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꿈속으로 끌어넣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유년적인 원천에서 유래된 적의의 만족이 숨어 있다. 유아적 친애감은 뚜렷이 현재의 정당한 친애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유아적 증오는 역시 꿈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꿈에는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사고방식에 대한 뚜렷한 암시가 있다. 나의 친구는 조금 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딸을 낳았다. 나는 그가 옛날 어려서 죽은 맏딸을 생각하며 슬퍼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죽은 딸에 대한 애정을 이번에 낳은 아기에게 쏟을 것이며, 이 아기는 보충할수 없었던 손실을 너로 하여금 잊게 할 것이라고 편지로 써 보냈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 역시 다시 잠재적 꿈 내용의 중간 사상과 결부된다. 그리고 이 잠재적 꿈 내용으로부터 여러 가지 길이 여러 방면으로 서로 갈라진다. "바꿀 수 없는 인간은 없다. 보시오, 이것도 저것도 다 유령이다. 우리들이 잃었던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그리고 여러 꿈 사상의 상반된 여러 요소를 맺는 연상의 유대는, 나의 친구의 작은 딸이 젊었을 때에 나와 함께 놀던 동갑의 소녀로, 나의 친구 중의 가장 나이 많은 친구이며 적인 그 누이동생과 똑같은 이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 나는 파울리네(Pauline)라는 이름을 듣고 만족했다. 그리고 이 일치를 암시하기 위해서 나는 꿈속에서 한 요제프를 다른 요제프로 바꾸고, 플라이슐과 F1이란 두 이름의 같은 두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나의 아이들의 작명에 하나의 연상이 덧붙는다. 나는 아이들의 이름이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의 이름은 아이들을 유령(幽靈)으로 만든다. 그리고 끝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멸에로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

꿈의 감정에 관해서 나는 다른 관점으로부터 몇 가지 소견을 덧붙여 둘 것이다. 잠

자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감정적 경향—즉 흔히 말하는 기분—이 지배적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종종 꿈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 기분은 깨었을 때의 생활 의 여러 체험이나 생각에서 유래한 것이고. 육체적 원천을 가지기도 한다. 어느 경 우에도 기분은 그 기분에 알맞은 생각에 인도되는 것 같기도 하다. 꿈 사상의 그런 표상 내용은 어느 때에는 일차적으로 감정 경향을 제약하고, 또 어느 때에는 이차 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감정 소질에 의해서 환기된다. 이런 것은 꿈을 형성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꿈 형성은 언제나 소망 충족만을 나타낼 수 있 으며. 다만 소망에서만 그 마음의 추진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제한 밑에 있다. 실제 적으로 존재하는 기분은 무시되거나 혹은 어떤 소망 충족의 의미로 해석되는. 잠 자는 동안에 실제로 떠오르는 자극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 고통을 겪는 많은 기분은 꿈을 추진시키는 여러 힘이 되는 한편. 꿈이 마땅히 충족 시켜야 하는 강렬한 소망을 환기시킨다. 고통의 기분이 붙어 있는 재료는 오랫동 안 가공되어서 소망 충족을 표현하는 데 이용될 수 있게 된다. 꿈 사상 중의 괴로 우 기분의 요소가 갓렬하고 지배적일수록 그만큼 한층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억압 된 소망의 여러 움직임은 바깥으로 나타날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 망의 움직임은 그 움직임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던 증오의 적극적 존재를 통해서 그 움직임을 나타내려는 작업의 대부분을 이미 끝낸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여러 의논에 의해서 우리들은 꿈을 완수하기 위한 한계점으로서 명백 해질 불안의 꿈 문제를 다시 취급하기로 하자.

### 9. 제2의 가공

끝으로 꿈의 형성에 참여하는 네 번째 계기를 지적할 단계에 우리는 도달하였다. 우리들이 여태까지의 방법을 가지고, 꿈 사상 속에 뚜렷이 나타나는 꿈 내용의 근 원을 검토함으로써 꿈 내용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들은 꿈 요소를 해명하기 위하 여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에 부딪치게 된다. 나는 우리들이 꿈 속에서 이상하게 느끼고 반항하는 여러 경우, 더욱이 꿈 내용의 일부분 자체를 향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꿈속에서의 비판 행위는 대부 분이 꿈 내용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맞은 실례로써 증명하였던 것과 같이 꿈 재료부터 그대로 인수되어서 적합하게 이용된 여러 부분임이 증명된다. 그러나 약간은 그 유래를 달리하고 있다. 즉 그 비판에 대한 상관 개념은 꿈 재료 속에서 발견되지를 않는다. 예를 들면, 꿈속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 비판. "이건 꿈 에 불과하다."는 무슨 뜻일까? 이런 비판은 깨어 있는 생활 속에서도 행할 수 있 는. 꿈에 대한 실제의 비판이다. 이 비판은 또 잠을 깨우는 전조이며. 더욱 빈번하 게 꿈 상태임을 확인함으로써 사라지는 고통의 감정이 비판에 선행한다. 꿈을 꾸 는 동안의 "이것은 꿈이었다."란 비판은 오펜바흐(Offenbach)의 가극 중의 아름 다운 헬레나(Helena)의 입을 빌어서 무대 위에서 공공연하게 표현되는 것과 똑같 은 것을 노리고 있다. 이 비판은 바로 꿈에서 체험한 것의 의미를 깎아 내리고, 앞 의 꿈 내용을 견딜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 비판은 그 순간에 바로 발동해서 꿈 혹 은 그 장면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 어떤 검열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한낱 꿈이니까." 잠을 계속하거나 꿈을 견디는 편이 깨는 편보다는 안락하다. 절대로 아주 잠드는 일이 없는 검열이 이미 허가한 꿈의 불시의 습격을 느낄 때에야말로 저 "기껏해야 꿈이다."란 업신여기는 비판이 꿈 자체 속에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꿈 자체를 억제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러므 로 검열은 공포 혹은 꿈 위에 퍼지는 고통감을 가지고 그런 사태에 대비한다. 그것 은 마음의 검열 측에서 이루어진 '일이 지난 다음 느끼는 둔함(esprit d'escalier)' 의 표현이다.

이 실례에서, 우리들은 꿈에 포함된 모든 것이 반드시 꿈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들의 깨어 있는 생활과 구별되지 않는 어떤 심적 기능이 꿈 내용에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해서 논쟁할 여지없는 증명 하나를 얻은 셈이다. 이제 이런 일이 아주 예외적으로만 생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만 검열로서만 활동하는 심적 검문소가 꿈을 형성하는 데 반드시 참가하고 있느냐가 문제이

다.

우리들은 거리낌 없이 후자의 견해가 맞다고 결정해야 한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검열하는 검문소가 꿈 내용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만 생각하 여 왔으나, 검문소가 꿈 내용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거나 또는 꿈 내용을 증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이런 삽입물은 때때로 쉽게 이해되고. 조심스럽게 보고되고. '마치……와 같이'로 도입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별하고 고귀한 구상성(具象性)을 가지지 않으며, 꿈 내용의 두 부분을 결합하거 나 꿈의 두 부분 사이의 관계를 개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언제나 마련 된다. 그 삽입물들은 꿈 재료의 순수한 자손보다 덜 오랫동안 기억된다. 만일 꿈이 잊어지면 이 삽입물들은 제일 먼저 잊어진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를 꿈에서 보 았는데, 대부분을 잊었고, 남은 것이란 조각조각의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 리들의 호소의 근거가 바로 이 접착제의 역할을 다하는 부분이 곧 떨어지는 데 있 다고 믿는다. 완전히 분석하면, 이 삽입물들은 그 삽입물에 대한 재료가 꿈 사상 속에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 종종 분명해진다. 그러나 나는 신중히 음미한 결과, 이 런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것임을 알았다. 대체로 이런 삽입 사상은 끊임없이 꿈 사상 중의 재료에 환원되나, 그 재료는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서나 또는 그 다면적 창조 성에 의해서나 꿈속에 채용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꿈을 만들 때의 심적 기능은. 일견 극히 극단적인 경우에만 새로운 창조를 행 하는 듯하다. 이것이 또 가능한 한 이 심적 기능은 유익한 것을 꿈 재료 속에서 택 하여 이용하다

꿈 작업의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 경향이다. 이 기능은 시인이 음흉하게 철학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때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이 기능은 꿈 작업의 찌꺼기를 가지고 꿈의 구조 속의 간격을 메워 버린다. 꿈이 황당무계성과 지리멸렬성의 겉모양을 잃고 합리적인 체험의 표본으로 접근하는 것은, 꿈작업이 노력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 노력이 언제나 충분히 결실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얼핏 보아서 비난할 여지없이 논리적이고 올바른 여러 꿈이 생긴다. 이런 꿈들은 어떤 가능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모순되지 않게 변경하면서 이 상황을

발전시키고, 드문 일이나 그 상황을 이상하지 않은 결말로 인도한다. 이 꿈들은 깨어 있을 때의 생각과 비슷한 마음의 기능에 의해 아주 철저히 가공되었다. 이런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진 듯하나, 이 의미는 꿈의 실제적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꿈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들은 여기서 제2의 가공이 재료를 대단히 자유롭게 다루고, 재료가 본래 갖고 있던 여러 관계를 거의 보존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런 꿈들은 우리들이 깨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벌써 해석된 꿈들이다. 또 다른 여러 꿈에서는 이런 경향을 가진 가공은 다만 일부에서만 성공적이다. 이 관련이 우세하게 보이면, 그때 꿈은 합리성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다시 자신을 나타내고자 황당무계해지거나 흔란스러워 진다. 다른 꿈들에서는 가공은 대체로 거절된다. 우리들은 할 수 없이 내용의 덩어리의 무의미한 퇴적 앞에 서게 된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진 힘으로서 나타날, 꿈을 형성하는 네 번째 힘—이 힘은 사실상 네 개의 꿈을 형성하는 힘 중에서 우리들에게 친밀성을 주는 단 하나의 힘이다—이 제4의 요소가 꿈에게 창조적인 새로운 기여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단호하게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확실히 이 영향은 다른 힘의 영향과 같이 꿈 사상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음의 재료를 특별히 대우하거나 선택하는 속에 확실하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즉 이런 경우에서 힘은 대체로 꿈에다 소위 건축물의 앞 벽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둔다. 그것은 그런 건축이 꿈 사상의 재료 속에 이용되기를 기다리나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꿈 사상의 요소를, 나는 흔히 '공상'이라고 부른다. 만일 내가 지금 곧 그 유사한 사물로서 깨어 있는 생활로부터 백일몽을 지적한다면, 나는 아마 쓸데없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요소가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작용하는 역할은 정신병 의사들에 의해서 아직 완전히 인식되지도 않았으며, 밝혀지지도 않았다. 베네딕트(M. Benedikt)가 처음으로 이 장래가 유망한 문제를 취급했다. 백일몽의 의미는 아직도 여전히 시인들의 그릇된 동찰(洞察)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바브(Nabab)》에서 보조 인물들의 한 사람의 백일몽을

<sup>89</sup> rêve(꿈), petit roman(이야기)—day-dream(백일몽), story(이야기).

그린 알퐁스 도데(A. Daudet)의 묘사는 일반에게 잘 알려진 것이다. 신경증 환자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놀라운 정도로 알려 준다. 즉 이 공상이나 백일몽은 히스테리증의—적어도 여러 중세의 계열 전체의—첫 단계이다. 히스테리증의 중세는 기억 자체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억의 기반 위에 세워진 공상에 달려 있다. 의식적인 백일공상이 빈번히 나타남으로써 이 여러 형성물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적인 공상이 존재하듯이, 그 내용과 그 억압된 재료에서의 유래 때문에 무의식에 머물러야 하는 무의식적 공상이무수히 나타난다. 이 백일몽 공상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면, 우리들의 밤의사고 소산이 지니고 있는 똑같은 명칭, '꿈'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 형성물의 것이되는가를 알 수 있다. 백일몽의 여러 특성은 대부분이 밤의 꿈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백일몽의 연구는 우리들에게 본래 밤의 꿈을 이해하기 위한 제일 가까운 최상의 입구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꿈과 같이 백일몽도 소망 충족이고, 대체로 유아기의 여러 체험의 인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꿈과 같이 백일몽도 그 꿈의 창조를 위해서 검열을 약간 늦추는 덕을 입는다. 우리들이 그 구조를 검사하면 우리들은 백일몽의 생산 활동 속에 작용하는 소망 동기나, 그것에 의해서 백일몽이 만들어지는 재료 등이 어떻게 혼합되어 질서를 바꾸어 하나의 새로운 전체로 합성되는가를 알 수 있다. 어렸을 때의 백일 몽의 기억에 대한 관계(백일몽은 여기에 환원된다)는, 로마가 많은 바로크 궁전의 고대 유적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같은 것이다. 고대 유적의 돌이나 원주(圓柱)는 근대 형식의 바로크 건축에 대해서 재료를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꿈 내용에 대해 꿈을 형성하는 넷째 번의 요소로 돌렸던 '제2의 가공' 속에서, 우리들은 백일몽을 만들 때 다른 영향의 방해 없이 나타나는 동일한 활동을 다시 발견한다. 우리들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이 제4의 계기는 자기에게 제공된 재료를 갖고 '백일몽과 같은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나 그런 백일몽이 이미 꿈 사상의 관련 속에서 형성되었던 경우, 꿈 작업의 이 요인은 그 백일몽을 기꺼이 조정할 것이고, 그 꿈을 꿈 내용 속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백일공상, 즉 아마 인식되지 않은 채 공상의 반복으

로만 되어 있는 꿈도 있다. 예를 들면 트로이의 영웅들과 전차에 동승한 사 내들 의 꿈이다. 나의 꿈 아우토디다스커(autodidaske)의 뒷부분은, 그 자체로서는 악 의 없는 N 교수와 나의 교제에 관한 백일공상을 충실히 되풀이한 꿈이다. 비교적 빈번하게 발견되는 공상이 다만 꿈의 일부분만을 만들어내는 사실과, 혹은 공상 의 일부분만이 꿈 공상으로부터 꿈 내용으로 관통하는 사실은. 꿈이 생길 때에 감 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조건의 복잡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대체로 공상은 잠 재 재료 이외의 모든 요소와 같이 취급되나. 종종 꿈속에서 여전히 전체로서 인식 된다. 나의 몇 가지 꿈속에 남아 있는 부분과는 구별되는 인상에 의해서 명백해지 는 여러 부분이 나타난다. 이 부분들은 똑같은 꿈의 다른 부분보다 더 유창하고 더 잘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더 빠르고 허무한 것같이 생각된다. 나는 이것이, 관련 에 의해서 꿈속으로 들어온 무의식적인 공상임을 알고 있으나, 그런 공상을 고정 시키는 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 이 공상은 꿈 사상 의 다른 일체의 요소와 같이 혼합되고 압축되어서 일자(一者)가 타자(他者)에 의하 여 덮어 감추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상이 거의 아무런 변함없이 꿈 내용을, 혹은 적어도 꿈의 정면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의 변화도 있고, 이와 정반대로 그 공상이 갖는 여러 요소 중의 단 하나만의 요소. 혹은 그 요소의 넌짓한 암시만이 꿈 내용 에 나타나는 따위 등, 여러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상이 검열이나 압축 강제의 여 러 요구에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때 꿈 사상 속에 있는 공상의 운명은 확실히 결정된다.

꿈을 해석할 때에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무의식적 공상이 큰 역할을 다하는 꿈의실례를 선택하는 것을 피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요소를 의논 속으로 끌어넣으면 무의식적인 사고의 심리를 광범위하게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나는 다음과 같은 관련 속에서 '공상'을 피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공상이 때때로완전히 꿈속에 도달하고, 더 빈번하게 꿈을 통해서 그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이제 하나만 더 꿈을 인용하고자한다. 이 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리고 서로 각기의 장소에서는 일치하는 공상과 연결된 것 같이 보이는 꿈이다. 그 한쪽의 공상은 표면적이고 다른 한쪽은 말하

자면 그 표면적인 공상의 해석으로 되어 있다. 90

그 꿈은—이것은 내가 자세히 기록해 두지 않았던 유일한 꿈이다—대략 이러하다. 꿈을 꾼 사람은 젊은 남자이다. 그는 잘 다니던 요리집에 앉아 있다. 요리집은 실물 그대로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중 나왔다. 그중의 한 사람이 그를 붙들려고한다. 그는 같은 식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올 터이니 나중에 지불할 것이라고말한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비웃으면서, 그런 수에 넘어가질 않는다. 누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 한 손님이 그의 뒤에서, 또 한 사람이 간다고 고함을 지른다. 그리고 그는 비좁은 대폿집에로 끌려간다. 아이 하나를 껴안은 여자가 있다. 그를 끌고 가는 한 사람이, "이분은 뮐러(Müller) 씨이다."라고 한다. 순경인지 또는 어떤관리와 같은 사람이 서류 또는 종이 뭉치를 뒤지면서 끊임없이 "뮐러, 뮐러, 뮐러"라고 되뇐다. 끝으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가 여자 쪽을 돌아보자 여자가 길게 수염을 기르고 있음에 눈이 갔다.

여기서 두 부분이 쉽게 구별된다. 표면은 체포 공상인데, 이것은 꿈 작업이 새로 만들어낸 것 같다. 그러나 그 뒤에 꿈 작업에 의하여 다소 바꾸어진 재료로서 결혼 공상이 잠겨 있다. 양자에 공통된 듯한 특징은 갈톤(Galton)의 포갠 사진과 같이 특히 부각된다. 단골 요리점으로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때까지의 독신자의 약속, 이때까지 몇 번이나 속였기에 비꼬이게 된 친구의 불신 "또 혼자 간다(결혼하고 말 터이다)."란 뒷소리, 이런 것들은 또 한 편의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 특정이다. 관리에 주는 그렇다는 대답도 같다. 같은 이름을 되풀이하면서 서류 더미를 샅샅이 뒤지는 것은, 잇달아 배달되는 같은 내용의 많은 축하 전보를 낭독하는 결혼식 소동에 으레 따르기 마련인 부수적인 하나의 뚜렷한 특색과 일치한다.

<sup>90</sup> 나는 《어느 히스테리증 분석의 단편》(1905년)에서, 여러 공상이 겹쳐서 이루어진 꿈의 좋은 예를 분석 하였다. 그 근저(根柢)가 되어 있는 것이 백일몽인 것은 드문 일이고, 대체로 논쟁이나 사상적 갈등이 그런 것과 같이, 나 자신의 꿈만을 취급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꿈 형성에 대한 그런 공상의 의미를 실 제 이하로 평가했다. 다른 사람의 꿈에서 백일몽에 대한 밤 꿈의 완전한 유사성이 종종 더 쉽게 입증 된다. 히스테리증 환자에 대해서는 꿈으로 하여금 히스테리 발작의 대리를 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들은 이 두 심적 형성물에는 백일몽이 제일 첫 단계임을 쉽게 확신할 수 있다.

그뿐일까? 이 꿈에는 신부가 실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덮어씌워 있는 체포 공상은 결혼 공상에 패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신부가 수염을 길렀다는 것은, 어떤 이야 기를 듣고서야 뚜렷해졌다. 그러나 분석되지는 못했다. 즉 이 남자는 전날, 결혼하기 싫어하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금발의 미녀에 친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저런 미인이 할머니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같은 수염이나 나지 않았으면" 하고 말했다.

물론 이 꿈속에도 뚜렷한 꿈 왜곡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나는 나중에 지불할 터이다."란 말은 지참금의 이야기이고, 신부의 아버지가 가질는지 모르는 태도를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뚜렷한 여러 가지 염려는, 이 사나이를 기분 좋게 결혼 공상에 잠기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걱정의 하나, 결혼하면 자유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모양을 바꾸어서 체포하는 장면으로 표현되었다.

꿈 작업이 꿈 사상을 재료로 새로운 공상을 화합하는 대신에, 완성되어 손앞에 있는 공상을 즐거이 이용하는 사실로 다시 한 번 되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 통찰에 의해서 꿈의 가장 재미있는 수수께끼 하나를 풀 수 있다. 나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모리의 꿈을 인용하였다. 모리는 작은 나무 조각으로 목에 매를 맞는, 대혁명 시대의 이야기 전체에 해당하는 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 꿈은 앞뒤가일치하고, 잠자는 사람은 각성 자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각성 자극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들은 다만 다음과 같이 생각할 도리밖에 없다. 즉 풍부한 내용을 가진 이 꿈 전체는 나무 조각이 모리의 목뼈 위에 떨어지는 것과 이에 맞은 것으로써 모리가 억지로 잠에서 깨어난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고 생긴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들은 깨어 있을 때의 사고가 그렇게도 신속하게 활동하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꿈 작업의 진행의 주목할만한 신속화야말로 꿈 작업의 특권으로 인정된다.

급속히 일반화한 이런 추측에 대해서 새로운 학자들(르 로랭(Le Lorrain), 에제 (Egger) 등)은 활발하게 이의를 제창한다. 그들은 한편으로 모리의 보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또 한편으론 사람들이 꿈의 업적 능력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허용하는 바보다 더 큰 각성적 사고의 신속성을 보여 주려고 한다. 원리적인 여러 문제

에 논쟁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여러 문제의 해결은 나의 임무가 아닌 것 같으나 나 는 이렇게 말해 두고자 한다. 예컨대 에제와 같은 인식에는 다름 아닌 모리의 단두 대의 꿈에 관해서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다. 나는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서라도 증명 하고 싶다. 즉 모리의 꿈은 수년 전부터 완성된 형식으로 그의 기억에 보존되어 있 고, 그 공상을 각성 자극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환기된 것이다—나는 주악(奏樂)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을까? 대단히 긴 이야기를 매우 짧은 시간에 만드는 곤란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해결된다. 그 이야기는 미 리 작성되어 있었다. 만일 그가 깨어 있을 때에 작대기가 모리의 목을 때렸다면 아 마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즉. 이것은 정말로 마치 단두대에 걸린 것 같다고. 그러나 잠자코 있을 때였으므로 꿈 작업은 그 자극을(이것은 전적 으로 비유적으로 취급될 것이다) "마치 책을 읽고 있는 이러이러한 시간에 내가 만 들어 놓은 소망 공상을 현실화하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듯이. 신속하게 하 나의 소망 충족을 이룩하는 데 이용한다. 꿈 이야기는 한 청년이 강한 인상의 영향 밑에서 쉽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말은 나에게는 의심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 정화(精華)인 귀족 남녀가 얼마나 맑은 마음을 지니고 죽을 수 있는가를 표 시하고, 처참한 최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선한 기지와 우아한 생활양식을 보존 한 저 공포 시대의 묘사에 누가—특히 프랑스 사람이고 문화사가(文化史家)라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숙녀의 손에 작별의 키스를 하고, 태연스럽게 단두대에 올 라간 저 젊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공상하고. 그 시대에 몸을 두어 보면 이 것은 얼마나 매혹적일까! 혹은 아마 다음과 같은 야심은 공상의 주요한 동기였을 것이다. 즉 당시 인류의 마음이 경련(痙攣)적으로 약동하고 있던 도시 파리를 다만 그 사상의 힘과 불을 뿜는 변설(辯舌)의 힘으로만 지배하고, 확신(確信)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하여 유럽 개조(改造)의 문호를 개방하고. 더욱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며칠 내에 단두대의 칼날 밑에 스스로의 목을 놓을 인물들, 예컨대 지롱드(Girond) 당원이나 당통(Danton)과 같은 인물 등, 이런 강력한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바꾸어 놓는 야심(野心)이다. 모리 의 공상이 이런 명예심이었다는 것을,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군중에 둘려 싸여

서"란 한 구절이 표명해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일찍이 완성된 이 공상 전체는 다시 잠 속에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가볍게 스치면' 충분하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다. 즉 몇 가지 소리가 나서 누가 《돈 후안(Don Juan)》속에서와 같이, 아, 저것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다 하면, 기억이 갑자기 내 속에서 떠오른다. 그러나 그 기억을 나는다음 순간에 하나도 의식하거나 회상하지 못한다. 그 계기의 한 말은 하나의 전체를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Eindruchsstation) 점화점(點水點)과 같은 역할을 다한다. 무의식적 사고의 경우도 다름이 없다. 각성 자극은 전체의 단두대 공상에로의길을 열어 놓고 마음의 상태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이 공상은 수면 중에서가 아니라 깬 상태의 기억 속에서 전개된다. 전체로서 간주되었던 공상의 세부는 깨어나서 생각난다. 실제로 꿈을 꾼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단은 아주 없다.우리들은 각성 자극이 흥분 상태에서는 하나의 전체로서 이미 완성된 공상이라는설명을 각성 자극 위에 나타난 다른 꿈에, 예컨대 지뢰 폭발과 앞에서 본 나폴레옹의 전투 꿈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

쥐스틴 토보볼스카(Justine Tobowolska)가 외관상의 시간 단속에 관한 학위논문 중에 수집한 꿈속에서 나는 마카리오(Macario)(1857년)가 극작가 카시미르 봉주르(Casimir Bonjour)에 관해서 보고한 꿈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한 다. <sup>91</sup>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 작품 하나의 초연을 보려고 생각했으나, 너무 피곤해서 무대 뒤의 자기 자리에서, 막이 올라갈 때에 잠이 들어 버렸다. 그는 꿈속에서 자기의 극 전(全) 5막을 본 뒤에 개개의 장면에서 구경꾼들이 보여 준 감동의 표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극이 끝난 뒤에 구경꾼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을 좋은 기분으로 듣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진짜 극의 첫 장면의 첫 대사가 비로소 진행되고 있음에 놀랐다. 그러므로 그가 잔 것은 2분에 지나지 않았다. 2분 동안에 연극의 5막 전부를 본 뒤에, 개개의 장면에서의 관중의 반응을 본 것은 수면 중의 새로운 극작이라기보다 도리어 상술(上述)한 의미에서의 공상이 이미 완결한 일을 되풀이하였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닐

<sup>91</sup> 토보볼스카 53면

것이다. 토보볼스카는 다른 학자들과 함께 가속(加速)적인 표상 과정을 가진 꿈의 공통 성격으로서 그 꿈들이 다른 꿈과는 아주 달리, 특히 수미상응(首尾相應)하는 사실, 그리고 그 꿈들의 기억이 세부적인 기억이라기보다 훨씬 전체적인 기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말한 바가 있는 꿈 작업이 뒤섞인, 이미 만들어지고 공상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여러 특징일 것이고, 여러 학자들이 확실히 내리지 않은 결론일 것이다. 나는 깨었을 때의 모든 꿈이 이렇게 설명된다든가 혹은 꿈속에서의 가속적인 표상 과정의 문제가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해결된다든가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꿈 작업의 여러 요인에 대한 꿈 내용. 제2의 가공 관계를 불가 피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예컨대 꿈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 압축 노 력. 검열에 대한 양보의 강제. 꿈의 심적 여러 수단을 위한 표현, 가능성에 관한 고 려 등이 우선 첫째로 재료에서 하나의 잠정적인 꿈 내용을 형성하여서. 이 감정 내 용이 나중에 개조되고, 이것이 제2 검문소의 여러 요구를 될 수 있는 대로 만족시 킨다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도리어 이렇게 상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검문소의 여러 요구는 당초부터 꿈이 채워야 하는 여러 조 건의 하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조건은 압축의 조건, 저항검열(抵抗檢閱)의 조건, 표현 가능성의 조건 등과 같이 꿈 사상의 큰 재료에 대해서 유발적인 동시에 선택 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꿈을 형성하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나중에 인식 된 제2의 가공업이란 조건은 그 여러 요구가 꿈에서 가장 강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조건이다. 소위 꿈 내용의 제2의 가공을 가하는 이 심적 기능이 깨었을 때의 우리 들의 사고 작업과 일치하는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고려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우 리들의 깨어 있는 (전의식적) 사고는 임의의 지각 대상을 향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기능이 꿈 내용에 대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 깨었을 때의 우리들의 사고가 지각의 재료를 정리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그 재료를 어떤 합리적 관련의 여러 기대에 복종시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참으로 우리들은 당연하다기보 다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요술쟁이의 요술은 이런 지성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기 만한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감정적 여러 인상을 합리적 으로 종합하려는 노력 때문에, 우리들은 때때로 가장 큰 과오를 범하거나, 심지어우리들이 우리들 앞에 가진 재료의 진리를 일그러뜨리기까지 한다. 이것을 입증하는 사례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므로, 이곳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옳은 것을 착각하면서도 의미를 흐리게 하는 오식(誤植)을 읽고 지나간다. 널리 읽히는 한 프랑스 신문의 편집인은, 하나의 긴 기사의 문장 하나하나에 '앞에서부터' 혹은 '뒤에서부터'란 말을 써넣고 이것을 독자가 느끼느냐의 여부를 내기하였다 한다. 이 내기에 그는 이겼다. 몇 해 전에 틀린 관련의 우스운 예 하나가 신문에서 나의 눈을 끌었다. 프랑스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무정부주의자가 의장에 폭탄을 던졌을 때에, 뒤프이(Dupuy)는 대담하게, 회의 계속이라고고함처 불안을 진정시켰다. 방청객들은 증인으로서 암살 계획에 관한 그들의 인상에 관해서 심문을 당했다. 그중에 시골사람이 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물론 그연설이 끝난 뒤에는 무엇인가 큰 소리가 났는데, 연설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터뜨리는 것이 국회에서의 습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미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다음, 그 사람은 조금 바꾸어서 그런 발포가 특히 훌륭한 연설 뒤에 칭찬의 의미로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꿈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하면서, 꿈 내용을 제1차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꿈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오해를 일으키는 심적 검문소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정상적인 사고활동이다. 우리들의 꿈해석상의 규칙은, 어떤 경우에도 꿈의 외적 관계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명철한 것이건 혼란한 것이건 일체 상관치 않고 꿈 재료로의 같은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혼란에서 명석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꿈의 질적 단계가 근본적으로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제2의 가공이 어떤 것을 완성할 수 있었던 저 꿈 부분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고, 이 활동력을 잃었 던 부분은 혼란스러워 보인다. 혼돈된 꿈 부분이 대체로 뚜렷한 윤곽이 아니기 때 문에 우리들은 제2의 꿈 가공이 개별적 구조의 조소(彫塑)적인 명석에 공헌할 의 무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정상적인 사고 활동 밑에서 생긴 꿈의 결정적인 형성을 위해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만 한다면, 〈플리겐데 블레터〉지가 그 독자들을 오랫동안 재미있게 한 수수께끼 같은 말 이외에는 적당한 것이 없다. 이는 독자들이, 대조하기 위해서 방언 속에 쓰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묘한 의미를 가진 어떤 한 문장 앞에 감추어져 있는 라틴어 명문(銘文)을 찾도록 기대하게끔 의도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어구의 문자는 그 문자 결합부터 떨어져서 새로이 정돈된다. 때때로 거기에는 진정한 라틴어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에 생략된 라틴어로 생각되는 것도만들어진다. 또 명문의 다른 곳은 바람과 비 때문에 판독할 수 없게 된 부분이나, 탈락된 부분같이 보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글자의 무의미에 의미가 있는 듯한 느낌을 일으킨다. 만일 우리들이 이 희롱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명문을 찾는 것을 단념하고, 우리들이 보는 대로의 글자를 통해서 그것이 제공된 순서와 관계없이 우리들의 모국어로 구성해야 한다.

제2의 가공은 대부분의 학자에게 인정되고, 그 의미의 평가를 받은 꿈 작업의 한 요소이다. 엘리스(H. Ellis)는 이 한 요소의 완성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다.

"우리들은 이것을 사실상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잠잘 때에 의식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기에 주인이 온다. 깨었을 때의 의식이니 이성이니 논리이니 등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서둘러라.—주인이 와서 무대를 독점하기 전에 물건들을 붙들고 정돈하라. 무엇이든지 정리만 되면 그만이다.'라고."

이 작업법과 깨었을 때의 사고방식의 동일성은 특히 들라크루아(H. Delacroix)에 의해서 뚜렷이 주장된다.

"그런 해석 기능은 꿈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깨어 있는 동안의 우리들의 감각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똑같은 작업이다."

제임스 설리와 토보볼스카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환각의 불연속 관계에 관해서 정신은 깨어있는 동안 여러 자극에 대하는 것과 똑같이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정신은 한 공상적 연결을 가지고 산산이 흩어진 공상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 사이에 있는 지나치게 큰 틈을 메

우려고 한다."

몇 연구자들은 이런 정리하고 해석하는 활동이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시작되고, 깨었을 때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폴랑(F. Paulhan)의 의견이 그렇다. 즉, "그러나 나는 일종의 꿈의 변형, 아니 도리어 개조가 기억 속에 있다고 종종 생각한다. …… 상상력이 체계화하는 경향은, 잠자는 동안에 대략 그린 것을 깬 뒤에 완성한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실제의 속도는 깬 뒤의 상상에 의한 완성 때문에 외관상으로 증대된다."

베르나르 르루아(Bernard Leroy)와 토보볼스카는,

"이에 반해서 꿈속에서는 해석과 정리는 다만 꿈의 소여(所與)의 도움에 의할 뿐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의 소여의 도움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그리고 꿈 형성의 이 한 요소만이 과대평가됨으로써 꿈은 이 한 요소로서만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고블로(E. Goblot), 그리고 이보다 더 대규모로 푸코(M. Foucault)에 의하면 꿈은 잠을 깨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 이 두사람은 수면 중에 나타나는 사상에서 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깨었을 때의 사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르루아와 토보볼스카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꿈을 각성의 순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면 시의 사고에 존재하는 형상을 가지고 꿈을 만들어 내는 기능이 깨었을 때의 사고에 속하는 것이라 했다."

제2의 가공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는 꿈 작업에 새로이 도움이 되는 질베러의 정밀한 관찰을 지적할 수 있다. 질베러는, 다른 곳에서도 언급했듯이 피로와 졸음 상태에서 정신적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사상이 형상으로 바뀌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때 가공된 사상이 그에게서 꺼지고 그 자리에 한 환상이 나타난다. 이 환상은 대체로 추상적인 사상의 대용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 실험에서, 그때 떠오르는 한 꿈 요소와 동일시될 형상이, 가공을 기다리고 있는 사상 이외의 다른 어떤 것, 즉 피로자체, 이 실험에 대한 불쾌감, 혹은 실험을 귀찮게 하는 기분, 즉 이 실험의 노력대상 대신에, 노력해서 실험을 완수하려는 본인의 주관적 상태와 기능 방법을 표현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질베러는 그가 빈번히 경험한 그런 경우를 그때 기대

되었던 '재료적' 현상과 구별하여 '기능적 현상'이라고 불렀다.

"예1—나는 어느 날 오후에 대단히 졸려서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일부러 철학적 문제를 생각했다. 나는 칸트 · 쇼펜하우어의 시간에 관한 생각을 비교하려고 했다. 졸려서 두 사람의 의견을 뚜렷이 대조시킬 수 없었다(비교하려면 우선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 헛수고를 거듭한 뒤에 나는 다시 한 번 의지를 다해서 칸트의 결론을 나의 마음속에 새겨 놓고, 다음에 그것을 쇼펜하우어의 문제 설정에 작용시키려고 시도했다. 그 다음에 나는 쇼펜하우어에 주의를 돌렸다. 그 뒤에 다시 칸트에로 돌아오려고 할때, 칸트는 나의 염두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한 번 다시 칸트를 생각하려고 했으나 헛일이었다. 나의 머릿속에서 숨어 버린 칸트의 문헌을 찾으려는 이 무진한 수고는, 눈을 감으면 갑자기 꿈속에서와 같이 뚜렷한 모양의 어떤 상징으로서 나타난다. 즉 나는 무뚝뚝한 사무원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 사무원은 책상 위에 몸을 꾸부리고는 내가 집요하게 말해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얼굴이다. 그리고는 반쯤 몸을 일으키고, 자리로 돌아가라는 듯이 나를 노려본다."

수면과 각성 사이의 동요에 관한 실례들도 있다.

"예2—여러 조건: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바로 꾼 꿈을 생각하면서, 얕은 잠의 상태. 그 꿈을 말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꿈을 꾼다. 또 끝까지 꿈을 꾸면서 나는 내가 각성 의식에 점차로 접근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조금 더 잠에 있고 싶다. 정경(情景): 나는 한쪽 발로 개울을 건너려고 하나 개울을 건너지 않고 바로 개울 속에 발을 디디고 이쪽에 있으려고 한다."

"예6—상황: 제4의 예(그는 지나치게 자지 말고 조금만 더 자려고 한다)와 같은 조건. 나는 조금 더 잠에 들려고 한다."

정경(情景): 누구와 헤어지면서 그에게(혹은 그 여자에게) 다시 곧 만나자고 약속한다.

질베러는 '기능적' 현상, "대상적인 것 대신에 상태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대체로 참드는 것과 깨는 것의 두 사정 밑에서 관찰한다. 꿈 해석에서는 후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질베러는, 적절한 실례에 의해서, 각성이 직접 발꿈치를 맞대고 있는 것 같은 많은 꿈의 현재 내용의 끝 부분이 다름 아닌 깨려는 의도 혹은 깬다는 행동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한다. '문지방을 넘는다(문지방의 상징).' '다른 방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에서 나온다.', '여행', '귀가', '동행자와 갈라진다.', '물속으로 들어간다.' 등이 이 의도를 표현한다. 그러나 나는, 저 '문지방의 상징'과 관계시킬 꿈 요소는 내 자신의 꿈에서도, 또 내가 분석한사람들의 꿈에서도, 바로 질베러의 보고에 의해서 기대되는 것 보다 훨씬 드물게만났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이 '문지방의 상징'이 어떤 꿈과의 관련에서, 예를 들면 깊은 잠과 꿈을 깨뜨리려는 경향 사이의 동요가 문제되는 곳에서는, 여러 요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나,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실한 예증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빈번하게, 다면적 제약성은, 그 재료적 내용을 꿈 사상의 구조로부터 꺼내는 꿈의 한 곳이, 그 위에 더 심적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상태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 이용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같다.

질베러의 대단히 흥미 있는 기능적 현상은, 발견자로서의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남용이었다. 즉 꿈을 추상적·상상적으로 해석하려는 예부터의 경향이 이 현상에 자기의 한 거점을 발견했다. '기능적 범주'는 많은 학자들이 꿈 사상의 내용 속에 지적 활동이나 혹은 감정 활동이 나타나면, 무엇이든지 기능적 현상으로 취급하리만큼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넓게 과대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 재료는 각성시의 잔재물로서 꿈속으로 들어갈 자격을 다른 모든 것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질베러적 '현상'이, 깨어 있을 때의 사고 쪽에서 꿈을 형성하는 제2의 기여(寄與)를 설명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제2의 기여는, '제2의 가공' 이란 명칭으로 우리들의 이론 속으로 도입된 제1의 기여보다도 항상성에서 열등하

고 또 의미도 작다. 낮 사이에 활동하는 주의력의 일부분이 수면 중에도 꿈을 향하여 통제하고, 비판하고, 중절시키는 힘을 보류하고 있음을 나는 앞에서 표시했다. 꿈의 형성에 끼치는 매우 강력한 제한적 영향을 가지는 검문관을 깨었을 때의 심적 검문소 안에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었다. 질베러가 공헌한 여러 관찰은, 환경에 따르는 그때그때의 일종의 자아관찰이 함께 작용해서꿈 내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철학자에 있어서 우세하게 될 수있는 이 자기 관찰적인 검문소의 내부 심리적 지각, 감시 망상·양심, 꿈의 검문관에 대한 개연적 관계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sup>92</sup>

이제 나는 꿈 작업에 관해서 늘어놓았던 논증을 요약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마음 이 그 모든 능력을 발동시켜 꿈을 완전히 형성하는가. 혹은 그 모든 능력의 제한된 일부분만을 사용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우리들의 연구는 우리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우리들의 사정에 적당하지 않은 무제의 설정을 거절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해답할 때, 문제가 우리들을 몰아넣은 그 지반 위에 머물러야 한다 면, 우리들은 표면적으로 반대되고 서로 배타적인 두 견해에 동의하여야 한다. 꿈 을 형성할 때의 마음의 작업은 두 기능, 즉 꿈 사상의 형성과 꿈 사상을 꿈 내용으 로 변조하는 것으로 나뉜다. 꿈 사상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이용하여 아주 정확하게 형성된다. 꿈 사상은 의식되지 않는 우리들의 (전의식적) 사상에 속하며, 이 사상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변조를 통해서 의식된 우리들의 사상이 또 생긴다. 가령 이런 사상이 인식할 가치가 있고 수수께끼에 깊이 묻혀 있더라도. 이런 수수 께끼는 꿈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꿈 문제와 관련시켜서 취급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무의식적 사상을 꿈 내용으로 바꾸는 꿈 작업의 다른 일부분 은 꿈 생활의 고유한 활동이며, 그 생활에 독특한 것이다. 본래의 꿈 작업은, 심적 작용이 꿈을 형성할 때에 저하한다고 과소평가하는 결정론자들이 생각했던 것보 다 깨었을 때의 사상의 표준과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 꿈 작업이 깨어 있을 때 92 《나르시즘 입문》 · 《정신 분석 연감》 제6권 1914년, (전집 제4판 1918년).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의 사상보다 날림이며 부정확하고, 잊기를 잘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꿈 작업은 깨었을 때의 생각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아주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꿈 작업은 깨었을 때의 사고와 비교될 수 없다. 꿈 작업은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판 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변조에 제한된다. 만일 우리들이 꿈 작업의 산물에 의해 서 채워져야 하는 여러 조건을 주목한다면 꿈 작업을 충분히 묘사할 수도 있다. 이 산물(꿈)은 무엇보다도 검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꿈 작업은 심 적 강도의 전위를 이용해 모든 심적 가치의 가치를 전환한다. 사상은 전적으로 또 는 주로 기억의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흔적(痕跡)의 재료에 재생되어야 한다. 이 요 구에서 꿈 작업은 표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새로운 전위에 의해서 이에 대응 한다. 아마 밤의 꿈 사상 속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강도(强度)보다 더 큰 강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다. 이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꿈 사상의 여러 성분을 가지 고 시작하는 풍부한 압축 작업이다. 사상 재료의 논리적 여러 관계는 그다지 고려 되지 않고, 결국 꿈의 형식적 여러 특성 속에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꿈 사상의 여 러 감정은 꿈 사상의 표상 내용보다 변화가 덜하고 대체로 억압된다. 그 감정이 본 래대로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표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동질성에 따라서 다른 감정과 결합한다. 학자들이 꿈을 형성할 때의 전 활동에 관하여 주장해 보려고 노 력했던 견해는 꿈 작업의 극히 적은 일부분, 즉 부분적으로 자각되는 각성 시의 사 고에 의한 유효 범위 내의 불안정한 가공이었다.



꿈 사상의 심리학을 위하여

#### 제 7 장

## 꿈 사상의 심리학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보고로 알게 된 꿈 중에서 여기서 꼭 말해 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여성 환자가 이야기해 준 것으로, 그 여자는 꿈에 관한 어떤 강연에서 그 꿈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나는 이 꿈의 출처는 모른다. 그러나이 여자는 이 꿈 내용에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까닭에 이 꿈을 '나중에 다시 꾸었다.' 즉 그 꿈의 여러 요소를 자신의 꿈속에서 되풀이하고, 이 꿈을 옮김으로써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일치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본보기가 된 꿈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어떤 아버지가 밤낮으로 병든 자식의 침대 곁에서 간병하였다. 그 아이가 죽은 후에 아버지는 이웃 방에서 쉬었는데, 문을 열어 놓았다. 큰 촛불에 둘러싸인 관 속에 있는 유해를 방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 노인이 관 옆에서 유해를 지키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아버지는 두서너 시간 잠이 든 사이에 이런 꿈을 꾸었다. 즉, 아이가 자기 침대 옆에 서서자기의 팔을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불에 데는 것을 못 보셔요?" 하면서 비난을 퍼붓는다.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다. 유해가 있는 방에서 이쪽으로 빛이 흘러들어 온다. 급히 그쪽 방으로 갔더니 지키고 있던 노인은 잠들고 타고 있던 촛불이 관 위에 넘어져서 그 관의 덮개와 한쪽 팔이 탄 것을 그는 발견하였다.

이 감동적인 꿈의 설명은 매우 쉽고, 또 나의 환자가 이야기하듯이 강연자에 의해서도 올바르게 해석되었다. 밝은 불빛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이웃 방에서 잠든 아버지의 눈에 전해져 초가 넘어져서 시체의 옆에서 작은 불이 일어났다는 결론을 그에게 내리게 했을 것이고, 이 결론은 아버지가 깨어 있어도 그러했을 것이다. 지키는 이가 늙었기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걱정을 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미리 가졌을 것이다.

우리들도 이 해석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덧붙여 보고 싶다. 즉 이 꿈 내용은 여러모로 제약되어 있을 것이고, 아이의 말은 그 아이가 생전에 한 말, 그 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중대한 일을 결부시키는 말로 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예를 들면 "불에 덴다."는 호소는 그 아이가 그 때문에 죽은 열병과 결합되고, "아버지 못 보셔요?"란 말은, 우리들은 모르나 강한 감정에 사로잡힌 다른 한 사건과 결합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꿈을 하나의 뜻있는 심적 사상의 관련 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한 현상으로 인식해 왔기에, 이처럼 빨리 깨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꿈이 성립됐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들은 이 꿈이 또한 소망 충족을 결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꿈속에서 그 아이는 산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아버지를 경고한다. 아이가 침대에 와서 팔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마 꿈이 아이의 이야기의 첫 부분을 끄집어 낸 그 기억 속에 했던 행동과 같은 것일 것이다. 이러한 소망 충족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잠을 잠시 더 연장시킨다. 이 꿈은 이 꿈이 아이가 다시 한 번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깨었을 때의숙고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졌다. 만일 아버지가 먼저 눈을 뜬 연후에 판단하고 유해가 있는 방으로 급히 갔다고 하면, 아버지는 말하자면 그 순간만큼 아이의 생명을 짧게 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 작은 꿈이 어떤 특징에 의해서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뚜렷할 것이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주로 꿈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어떤 길을 통해서 발견되는가, 꿈 작업은 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가를 연구하여 왔다. 꿈 해석의 여러 문제는 이때까지 우리들의 시야의 중심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해석하기에 아무런 곤란도 없고, 그 뜻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꿈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역시 이 꿈이 우리들의 깨어 있을때의 사고와 뚜렷이 구별되고, 우리들에게 설명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본질적인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해석 작업에 관계한 모든 것을 배제한 뒤에 비로소 우리들의 꿈 심리학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으로 새로운 길에 오르기 전에, 우리들은 걸어오는 도중에 어떤 중요한 것을 떨어뜨리지나 않았는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이었음을 밝혀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에게 큰 잘못이 없었으면 여태까지의 길은 모두 빛으로, 해명으로의 완전한 이해 에 통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꿈을 꿀 때의 마음의 여러 과정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려는 순간부터 모든 길은 암흑으로 통할 것이다. 우리들은 꿈을 마음 의 과정으로서는 해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명하는 길은 미지의 것을 기지(旣知) 의 것으로 추적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꿈의 설명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기초가 될 만한 그런 심리학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들은 심 적 기구(機構)의 구조(構造)와 그 구조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힘의 움직임을 추측하게 하는 새로운 가설 몇 개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가설이 가장 소박한 논리적 연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가설의 가치가 불확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추리할 때에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논리상 생기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요소를 설 정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완전 때문에 계산이 아주 틀려 버릴 위험이 있다. 인간의 마음이란 도구의 구조와 작용은, 꿈 또는 이 밖의 개개의 일을 아무리 신중히 연 구해도 해명되지도 않고 구명되지 않으며, 도리어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일련의 심 적 일을 비교 · 연구할 때에 언제나 필요하다고 판명된 것을 모두 수집해야 할 것 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꿈의 여러 과정의 분석을 통해 얻는 여러 심리학적 가정은, 다른 측면에서 동일한 문제의 핵심으로 돌진하려는 다른 여러 연구의 성과들과 연 계될 때까지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한다.

## 1. 꿈의 망각

그러므로 나는 여태까지 불문에 붙였으나, 이를 통해 꿈 해석에 관한 우리들의 노고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반론이 존재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고자 한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해석하려는 꿈을 실상 조금도 모르며, 있는 그대로의 꿈을 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반론이, 이때까

지 여러 방면에서 우리들에게 제기되었다. 우리들이 꿈에 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꿈을 해석하는 기술이 발휘하는 꿈 내용은, 첫째로 꿈 내용을 보존하 는 데 각별히 무능력하고 성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기억력에 의해서 기형으로 만들 어졌고. 꿈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실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우리들 이 꿈에 주의를 돌리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실상 많은 것을 꿈꾸었는데도 단편만 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기억마저 확실치 않다고 여러 번 탄식을 되풀이한다. 둘째 로, 그러나 우리들의 기억은 꿈을 단편적으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날조해서 성실 치 못하게 재현하는 것 같다. 한편 꿈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조각조각의 애매한 것인지의 여부도 매우 의심스럽거니와, 또 한편 우리들이 꾼 꿈이 나중에 이야기로 전할 정도로 앞뒤가 맞는 것인지의 여부, 즉 우리들이 나 중에 꿈을 재현하려고 시도할 때에 본래 거기에 있던 틈이나 망각 때문에 생긴 틈 을 제멋대로 선출한 새로운 재료로 채워 메우고. 꿈을 장식하여 조절하게 되어 결 국 꿈의 본래의 내용은 구명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학자들(슈피타 · 푸코 · 타네리(M. P. Tannery))에게서와 같이 우리들은 질서와 관련성을 꿈에 재현하려 함에 있어서, 나중에 꿈속으로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는 다고 추측한다. 이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그 값어치를 결정하려고 한 대상 자체 를 우리들의 손에서부터 약탈당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우리들은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경고를 여태까지 듣지 않았다. 아니 반대로 우리들은 꿈의 극히 적은, 아주 눈에 띄지 않고 대단히 부정확한 내용·성분을 뚜렷하고 확실한 성분과 똑같이 꿈 해석에 있어서의 중요한 재료로 보았다. 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에는 "나는 '급히' 박사를 불러온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만일 이 첨가물이 어떤 특별한 원천에서 온 것이 아니었더라면 그것이 꿈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가 '급히' 연장자의 한 동료를 그 침대에 불러왔던 저 불행한 여성 환자의 이야기에 이르렀다. 51과 56이란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양으로 취급했던, 외관상 부조리하게 보이는 꿈에서 51이란 수가 몇 번이나 나타난다. 이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은 여기에서 51이란 수로 인도한 잠재 내용 중의 제2의 사고 과정을 추측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한층 더 더듬어 본 길은, 51세를 생명의 한도로 간주한 공포심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과대하게 생명에는 한도가 없다는 중심적인 사고와 가장 날 카롭게 대립한 것이었다. 'Non vixit'의 꿈에서 나는, 내가 처음에 간과했던 눈에 띠지 않은 삽입 문구로서 "P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자 F1은 나에게 묻는다." 등의 삽입절을 발견했다. 그리고 분석이 막혔을 때에 나는 다시 이 한 구절을 주목하고 그 구절에서 매개적인 연락점으로서 꿈 사상에 나타나는 어린 시절의 공상으로의 길을 발견했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시구를 통해 가능했다.

그대가 나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나 역시 그대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렸을 때에만 우리들은 서로 이해했다.

분석 하나하나가 극히 변변치 않은 꿈의 요소들이 꿈의 해석에 얼마나 불가결하며, 또 이런 것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 해결이 얼마나 늦어지는지는 여러 실례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꿈을 해석할 때와 똑같이 꿈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언어 표현의 모든 뉘앙스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심지어 무의미한 혹은 불충분한 표현이, 마치 꿈을 올바른 형식으로 번역하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같이 우리들 앞에 놓이더라도 우리들은 그러한 언어 표현의 결점을 또중대하게 생각하였다. 요컨대 다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마음대로 만들고 당황 속에서 급하게 만들어낸 즉흥적인 것으로 간주된 것들을 우리들은 성서처럼 다뤘다. 이 같은 모순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설명은 우리들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다른 학자들을 그르다고 하려는 것은 아니다. 꿈의 발생에 관해서 우리들이 새로이 얻은 지식에서 볼 때, 모순은 완전히사라진다. 우리들이 재현을 시도할 때에 꿈은 왜곡되는 것은 틀림없다. 거기에서우리들은 다시 정상적인 사고의 검문소가 꿈을 이차적으로 가공하고 또 때때로 곡해되게 가공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왜곡 자체는 꿈 사상이 꿈 검열 때

문에 반드시 입게 되는 가공의 일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은 현 재적으로 작용하는 꿈 왜곡의 일부를 예상하거나 또는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 정체를 한층 파악하기 어려운, 훨씬 자유로운 왜곡 작업이 숨겨져 있는 꿈 사상을 통해 꿈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들은 다음 점에서 틀렸다. 즉, 그들은 꿈이 나중에 생 각나서 말로 표현될 때에 거치는 수정의 일부를, 임의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꿈을 그릇되게 인식토록 하는 것 으로 생각하는 점이다. 그들은 심적인 것의 다면적 제약성을 과소평가한다. 우리 들의 심적 생활 속에는 마음대로의 것이란 하나도 없다. 제2 사상의 움직임이 제 1 사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채 남겨진 요소의 결정을 곧 받아들이는 사실은 아주 일반적으로 표명된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를 아주 마음대로 생각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수는 나의 순간적인 결심과 관계가 없는 나의 속에 있는 여러 사상에 의해서 뚜렷하게 필연적으로 규정된다. 1 이와 같이 깨 어 있을 때의 편집의 대상이 되어 꿈이 겪는 여러 변화도 결코 임의대로의 것이 아 니다. 그 여러 변화는 내용과 연상적인 결합 관계에 있고, 그 내용의 대신으로 나 타난 것이고, 이 내용에 이르는 길을 우리들에게 표시해 주는 역할을 다한다. 또 그 내용 자체는 다른 어떤 내용의 대리품일는지도 알 수 없다. 나는 환자를 상대로 한 꿈의 분석에서 곧잘 다음과 같은 것을 반드시 주장했고, 늘 성공적이었다. 즉 어떤 꿈의 보고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우면 나는 상대방에게 그 꿈의 보고를 다 시 한 번 되풀이하도록 부탁한다. 두 번째의 보고는 첫 번 보고와 같은 말로써 되 풀이되는 일은 드물다. 두 번째의 보고에서 말을 변경한 곳이야말로 꿈을 위장하 는 데 성공하지 못했던 지점이다. 그러한 지점은 나에게는 《니벨룽겐 전설》 중 지 크프리트(Siegfried)의 옷의 등에 꽂힌 표지가 하겐(Hagen)에게 갖는 의미와 같은 뜻을 지닌다. 이런 지점에서 꿈 해석은 시작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달라는 나의 요구에, 상대방은 그 꿈의 해석에 내가 특별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경계심을 갖고 저항성의 충동을 느끼며, 나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아

<sup>1 《</sup>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제1판, 1901과 1904년, 제5판, 1917년 참조.

무런 생각이 없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꿈의 위장이 약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나는 그들이 삭제한 표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꿈 해석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보고, 나는 그 꿈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신중히 옷을 만들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우리들이 꿈에 관해서 내리는 판단에 대하여 다른 학자들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의심을 한다. 이 의심에는 뚜렷한 어떤 지적 보증이 결여돼 있다. 우리들의 기억 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대체로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 단된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기억이 주는 자료를 부지불식간에 믿게 된다. 꿈 또는 꿈의 개개의 사실이 올바르게 재현될까 하는 의심은 역시 꿈 검열. 즉 꿈 사상이 의식 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저항에서 생기는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저항 은 그 저항이 실시한 이동이나 바꿈으로 언제나 소진되지는 않는다. 저항은 그 뒤 에도 일단 통과했던 것에 다시 의심으로서 남게 된다. 이런 의심은 조심성 있고 꿈 의 강렬한 여러 요소를 결코 문제시하지 않고, 다만 미약하고 애매한 여러 요소에 만 달라붙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은 오인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 꿈 사상과 꿈 사이에 모든 심적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왜 곡은 가치 박탈에 의해서 가능하고, 항상 가치 박탈로 표현되고, 때로는 그것에 만 족한다. 꿈 내용 중 애매한 요소에 의심이 생길 때에 이 의심 속에는 추방된 꿈 사 상의 직접적인 파생물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고대 혹은 르네상스 시대의 공화국에서의 대변혁 이후의 상황과 같다. 한때 나라를 지배했던 권세 있 는 귀족들이 이제 추방되고, 모든 현직(顯職)은 벼락감투를 쓴 자들에 의해서 점령 되었다. 겨우 도회지에 남게 된 사람들은 타도된 자들의 먼 일당이거나 혹은 영락 (零落)한 잔당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공민권을 갖고 있지는 않 다. 그들은 불신의 눈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불신 대신에 의심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꿈의 분석에 있어서 확실도를 아주 문제 삼지 않고, 이런저런 것이 꿈속에 나타난다는 식으로 극히 미약한 가능성도 완전 한 확실성과 똑같이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꿈 요소를 구명할 때에, 이와 같 은 생각, 즉 확실도에 대한 단념을 결심하지 않으면, 그 분석은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 당해(當該)의 요소를 경시하면, 그 꿈의 분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요소의 배후에 있는 바라지 않는 표상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심리적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결과는 본래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 혹은 저런 일이 꿈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나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떠오른다."고 누가 말했다면, 그것은 조금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분석을 방해하는 의심의이 결과야말로 의심이 심적 저항의 파생물이고 도구임을 밝혀 준다. 정신 분석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정신 분석의 규칙의 하나는 이렇다. "언제나 분석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저항이다."

꿈의 망각 또한 심리적인 검열의 힘을 고려하지 않는 한 설명되기 어렵다. 잠자는 동안에 꾼 많은 꿈이 기억에 남은 것이 적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즉 꿈 작업이 밤새껏 작용하여서 기억에 남은 짧은 꿈만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 외에 꿈은 또 잠에서 깬 뒤에 시간이 자나감에 따라서 점점 잊힌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열심히 꿈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나 때때로 잊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망각의 범위를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과 똑같이, 꿈의 탈루와 결부된, 꿈에 관한 지식의 상실을 또 과대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꿈 내용에서 망각 때문에 잊힌 것이 모두 분석에 의해서 환원되는 일도 종종 있다.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조각조각으로 남은 단편에서 모든 꿈 사상은 물론 본래의 꿈 전체라고 말할 수 없으나—꿈 자체는 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분석에는 주의력과 자기 극복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것은 꿈의 망각에 있어서 적대적인 의도의 작용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꿈 내용의 고립적인 한 요소로의 위축 현상과 동시에 일어나는 꿈속의 의심과 불확실성의 의미를 표시하는 한 예로서, 나는 나의 저서 《정신 분석 입문》(1916년) 속에 게재한 것을 여기에 인용하련다. 이꿈의 분석에는 시간이 좀 걸렸으나, 결국 분석에 성공했다. 어떤 회의적인 여자 환자가 비교적 긴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나의 저서 《익살》을 말해 주고, 이 책을 대단히 칭찬했다. 다음에 '운하'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아마 그것은 다른 책의 제목인 듯한데 그 책 속에 운하

꿈을 망각하기 이전의 단계를 분석하면, 꿈 망각<sup>3</sup>은 저항을 도와주기 위한 고의적인 것임을 훌륭하게 증명할 수 있다. 꿈을 분석하는 중에 그때까지 망각되었으리라고 생각된 한 탈락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빈번히 발견된다. 그런데 망각에서 되찾은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 한 부분이다. 내가 이 책의 곳곳에서 표시한꿈에 관한 실례 중에 꿈 내용의 일부를 나중에 추가해서 삽입한 꿈이 있다. 그것은여행하는 꿈이다. 이 꿈에서 나는 불쾌한 동반자들에게 복수를 했는데, 이 꿈 내용의 일부가 상스러운 것이었으므로 거의 해석하지 않고 제외시킨 것이다. 그 제외된 부분은 이러하다. 나는 실러의 어떤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로부터의(It is from……)", 그러나 틀린 것을 알고 "그것은……의(It is by……)"이라고 정정했다. 오빠는 여기서 누이동생에게 "그가 물론 그것을 옳게 말했다."고 가르쳐 주

에 관한 것이 실려 있는지, 혹은 운하와 관계있는 것이 있는지 그 여자는 모른다. .....그것은 아주 불 투명하다. 자, 여러분들은 이 '운하(Kanal)'란 요소가 막연해서 해석할 수 없다고 믿을 것이다. 여러 분들이 이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써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인은 우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나도 물론 말할 건더기가 없었다. 잠시 후에, 정확히 말해서, 그 여자는 다음날 어떤 일이 생각이 났다. "아 마" 운하와 관계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적 있다는 일종의 "농담"이었다. 도버 해협과 칼레로 가는 배 위에서 어떤 유명한 저술가가 한 영국인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 영국인은 말을 하는 도중에 "장엄(莊嚴)에서 익살은 한 걸음이다(Du sublime au ridicule il n'y a qu'un pas)." 라 불란서 문구를 인용했다. 저술가는 이에 대해서 "그렇소, 칼레에서 단 한 걸음이요(Oui, le Pas de Calais) "라고 불란서말로 말했다. 즉 불란서는 장엄하고, 영국은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칼레 해협(Pas de Calais의 Pas는 한 걸음의 뜻도 된다)은 다름 아닌 우하, 도버 해협 이다. 독일어로서는 Ärmelkanal이고. 불란서어로서는 Canal de Manche이다. (Ärmel과 Manche는 소매의 뜻), 이 생각이 꿈과 관계가 있을까? 그렇다. 나는 이 생각이 수수께끼 같은 꿈 요소를 해결하 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이 익살이 이미 꿈을 꾸기 전에 '운하'란 요소의 무의식에 있었던 것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익살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 습니까? 즉 이 생각은 그 여자에 있어 억누를 수 없던 감탄 뒤에 숨어 있는 의심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저항은 아마 두 일에 대한 공통의 이유이다. 즉 이 생각이 주저하면서 생겼다는 것과, 이에 대응하 는 꿈 요소가 그렇게도 막연한 모습을 띠었다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이유이다. 여기서 무의식에 대한 꿈 요소의 관계를 보기 바란다. 꿈 요소는 이 무의식의 한 조각과 같은 것이고, 또한 무의식적인 것에 대 한 하나의 암시와 같은 것이다.

3 망각 일반에 관한 의도에 대해서는 나의 작은 논문 〈잘 잊어버리기의 심적 메커니즘〉((정신병학 및 신경병학 월간 잡지) 1898년)을 참조. 이 논문은 나중에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 속에 게재되었다.

었다.4

여러 학자들에게 대단히 의심스럽게 보이는 꿈속에서의 자기 정정은 문제되지 않 는다. 나는 그것보다도 꿈에서 저지르는 언어 오류에 대한 본보기를 나의 기억을 더듬어 보여줄 것이다. 나는 19세에 처음으로 영국에 가서 하루 종일 아일랜드의 바닷가에 있었다. 나는 파도가 남긴 바다의 동물을 잡는 데 열중해서 불가사리 한 마리를 만지고 있는데(꿈은 해서(海鼠)· Hollthurn-Holothurien)로 시작된다), 예쁜 소녀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그것은 "불가사리지요, 그것(it)은 살아있어요?" 라고 묻는다. 나는 "응. 그(he)는 살아있고말고 "라고 대답하였으나. 말의 부정확 을 깨닫고는 다시 한 번 올바른 표현으로 대답하였다. 내가 이때에 범했던 언어의 잘못 대신에 그 꿈은 다른 언어상의 잘못을 남겼다. 이것은 독일인들이 범하기 쉬 유 잘못이다. 즉 "이 책은 실러의 저서이다(Das Buch ist von Schiller)."란 글 중 의 '의(von)'는 영어로 말하면 by이고 from이 아니다. 그런데 영어의 from은 독 일어의 fromm('경건한'이란 뜻)과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큰 압축을 가능하게 하므 로. 꿈 작업이 이 대용물을 바꾼 것은. 꿈 작업의 여러 의도나 수단 선택에서의 교 만한 태도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해 변에 관한 악의 없는 기억이 이 꿈의 관련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그 기억은 대단 히 악의 없는 한 실례에 의거해서. 내가 성의 구별을 표시하는 말을 틀린 장소에 사용하는 사실을, 즉 성적인 것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성적인 말(he)을 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여하튼 이것은 이 꿈을 해결하는 열쇠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위 에 《물질과 유동('Ma'tter and 'Mo'tion)》이란 책 이름의 유래를 들은 적이 있는 사 람은 (몰리에르(Molière)의 《공상병자(Malade Imaginaire)》 중에 "대변은 양호한 가?(La 'ma'tière est-elle laudable?)"의 문구가 있다—창자의 움직임(a 'mo'tion of bowels)) 여기에 결핍되어 있는 것을 쉽사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나는 꿈의 망각의 대부분이 저항의 짓이라는 것을 어떤 뚜렷한 증거로써

<sup>4</sup> 꿈에서 이렇게 외국어의 사용을 정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정정은 종종 다른 사람이 행한다. 모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때 어떤 사람에게 "나는 어제 너를 방문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서 "I called for you yesterday."라고 하자, 상대방은 "I called on you yesterday."라고 올바르게 답했다.

증명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자기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모두 잊어 버렸다. 나중에 보면 꿈꾸지 않은 것과 매한가지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와 환자는 치료를 계속한다. 나는 어떤 저항에 부딪치고 환자를 납득시킨다. 어떤 불쾌한 사상과 화해하도록 설복하거나 장려하도록 환자를 돕는다. 그러면 그때에 환자는 "이제 내가꿈꾸었던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함친다. 이날의 치료 중에 그를 방해하였던 저항이 또 그의 꿈을 잊게 하였다. 이 저항을 극복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꿈을 생각해 내게 하기에 성공했다.

이와 똑같이 환자는 분석 치료의 어떤 곳에서 사나흘 또는 그 이전에 꾼 꿈으로써 그때까지 아주 잊었던 꿈을 갑자기 생각해낼 수 있었다.<sup>5</sup>

정신 분석의 경험은 꿈의 망각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생각되고 있는 각성 상태 와의 사이의 이반(離反) 관계보다도 오히려 저항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에 대 한 다른 증명 하나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듯이. 어떤 꿈 을 꾸었기 때문에 잠을 깨었고 바로 깬 뒤에 우리들의 모든 사고 활동을 가지고 꿈 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은. 나에게 뿐이 아니라 다른 분석가들에게나 또 분석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종종 일어난다. 나는 그런 경우에, 때때로 내가 그 꿈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분석을 중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 을 꾸고 그 꿈을 해석했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깬 뒤에 해 석 작업과 더불어 꿈 내용을 완전히 망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 꿈은 정신 활 동에 의해서 기억에 남겨두는 데 성공하기보다 훨씬 빈번하게 해석 작업의 결과를 망각 속으로 끌어넣었다. 그러나 이 해석 작업과 깨었을 때의 사고와의 사이에는 학자들이 꿈의 망각을 전적으로 설명하려는 저 심리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튼 프린스(Morton Prince)가 나의 꿈 망각에 관한 설명에 반대하여서 "그것은 다만 '분열한 심적 상태'에 대한 망각의 특별한 경우이고. 이런 특수한 망각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다른 형태의 망각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프로이트의 설 명이 그런 분열 상태의 설명으로서 가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

<sup>5</sup> 요네스(E. Jones)는 이와 비슷한, 때때로 나타나는 경우를 기록했다. 즉 한 꿈을 분석하는 중에, 같은 날 밤에 그때까지 망각되었던,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둘째 번 꿈이 생각에 떠오르는 경우이다.

는데, 이를 통해 우리들 독자는 그 자신이 그런 분열 상태를 기술함에 있어서 전에한 번도 이런 여러 현상에 대한 역동적인 설명을 발견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시도를 했더라면, 그는 억압(혹은 억압에 의해서 생긴 저항)이 그런 분열과 그 심적 내용에 대한 망각의 원인이기도 함을 발견했을 것이다.

꿈이 다른 심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망각되지 않고. 기억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 어 있는 점으로 봐서 다른 심리적 업적과 아주 동일시된다는 사실은, 내가 이 논문 을 작성하면서 겪었던 나의 경험이 보여 준다. 나는 나의 비망록 속에 당시 어떤 이유로서 불완전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었거나. 혹은 아주 분석할 수 없었던 많은 꿈을 보존하고 있다. 그것들 중의 일부에서 이제 나는 1, 2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 에야 비로소 나의 논문을 설명할 재료를 만들려는 뜻에서 새로이 꿈 해석을 시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시도는 예외 없이 성공했다. 물론 나는 그 꿈들을 아주 새로이 체험했던 당시보다도 훨씬 나중에서야 그 꿈이 아주 쉽게 해석된다는 사실을 주장 하고 싶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당시 나를 방해하고 있 었던 여러 저항을 나의 마음속에서 능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나 중의 여러 해석에서 당시의 꿈 사상의 여러 귀결을 더 한층, 풍부한 오늘날의 여러 귀결과 대체로 비교했다. 그래서 당시의 것이 조금도 변함없이 오늘의 것 속에 포 함되고 있음을 다시 발견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환자가 나에게 때때로 말해 준 전 부터의 꿈들을 마치 전날 밤의 꿈인 양. 같은 방법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놀람을 곧 없앴다. 내가 처음으로 이 런 시도를 계획하였을 때. 나는 꿈이 이 점에서도 신경증적 증세와 아주 똑같이 취 급되어야 한다고 정당하게 기대하였다. 이를테면 내가 한 신경증 환자, 즉 히스테 리증을 정신 부석에 의해서 취급할 때에. 나는 이미 사라진 최초의 병적 증세를 이 화자로 하여금 나를 방문하게 한 아직도 존재하는 병적 증세와 똑같이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첫 과제가 오늘의 절박한 과제보다도 해결하기 쉽다는 것을 알 았다. 이미 1895년에 발간된 《히스테리 연구》 속에서 나는 40세를 넘은 한 부인이 열다섯 살 때에 처음으로 발작한 히스테리의 해명을 보고할 수 있었다. 아이의 첫 시절에 꾸고도 몇 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꿈은, 그 꿈을 꾼 사람의 인간적 발전과 신경증을 이해하는 데 거의 언제나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 꿈의 분석은 의사들을 이론적으로도 혼란시킬 수 있는 오류나 애매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나는 여기서 순서 없이 꿈 해석에 관해서 말해야 할 몇 가지를 써 두고자 생각한다. 이것은 자기의 꿈을 판단해 보고 나의 설(說)을 음미해 보려는 독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자신의 꿈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석되리라고 기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적 여러 현상이나 이밖에 보통 주의되지 않는 여러 감각을 지각하는 데에 아무리 저 항하는 심리적 동기가 없더라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몇 배나 소위 '원 치 않는 표상'을 파악하는 일이 더 힘들다. 이 일을 행하려는 사람은 이 논문 중에 씌어져 있는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충족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제출한 여러 규 칙을 지키면서 일체의 비판, 일체의 선입견, 일체의 감정적 혹은 지적 당파심(黨 派心)을 일하는 중에는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클로드 베르나르(Claude Bernard)가 생리학 연구소의 실험자에게 준 주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바보같이 일하라(Travailler comme une bête)." 즉 그는 인내하면서 그러나 또 결과에 관 해서는 무관심하게 하라고 말한다. 이 충고를 따르는 사람은 우리들의 과제를 벌 써 곤란하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꿈의 해석은 또 반드시 한꺼번에 수행 될 수도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러 연상의 연쇄를 더듬어 가면 자신들의 노 동 능력이 소진되어 있는 것을 자주 느낄 것이다. 이런 날에는 꿈은 아무것도 말 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중지하고 다음 날에 다시 착수할 일이다. 이 렇게 하면 꿈 내용의 다른 일부분이 주의에 끌려서 꿈 사상의 새로운 층으로의 입 구가 발견된다. 우리들은 이것을 '분할된' 꿈 해석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꿈 해석의 초학자(初學者)가 뜻이 통하며 시종일관되고. 꿈 내용의 모 든 요소를 설명하는 완전한 꿈 해석을 완수하였다고 해도. 그것으로써 그의 임무 를 완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그에게 이해시키는 일이다. 이밖에도 그 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같은 꿈의 다른 해석, 즉 더 깊은 해독이 가능하다. 표현 되기를 바라는 풍부한 무의식적 사고의 과정을 우리들의 사고 속에 형성하는 일이지만, 동화 속의 양복 재단사 직공과 같이 소위 언제나 한꺼번에 파리 일곱 마리를 잡듯이 아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써 여러 가지를 단번에 나타내는 꿈 작업의 묘미를 믿는 일이나 모두 쉬운 일은 아니다. 독자들은 저자인 내가 너무나 얕은 꾀를 부린다고 비난할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터득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나는 처음에 질베러에 의해서 제창된 주장, 즉 모든 꿈—혹은 상당 히 많은 그리고 어떤 그룹의 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더욱이 서로 긴밀한 관계 를 가진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 질베러가 정신 분석적이 라고 부른 이 두 해석 중의 한쪽의 해석은 많은 경우에 꿈에 대해서 어떤 임의대로 의 유아적·성적 의미를 꿈에 부여한다. 또 한쪽의 해석, 질베러의 이른바 신비적 해석이 더 중요한데. 이 해석은 꿈 작업이 소재로서 받은 더 진실하고 때때로 의미 깊은 사상을 보여 준다. 질베러는 직접 일련의 꿈을 두 방향에서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실증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실 상 많은 꿈은 '더 깊은 해독'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신비적 해석에 견디지 못한 다. 꿈 형성의 기본적인 여러 관계를 은폐하고 우리들의 관심을 그 충동의 근원으 로부터 일탈하려는 어떤 경향이 거기 함께 작용하고 있음이 질베러의 이론에서 다 른 근년(近年)의 이론적 여러 노력에서와 똑같이 인정된다. 약간의 경우에 나는 질 베러의 의견을 실증할 수 있었으나, 분석을 통해 나는 꿈 작업이 깨었을 때의 생활 속에서 직접 표현할 수 없는 극히 추상적인 여러 사상의 한 계열을 하나의 꿈으로 변화시키는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꿈 작업은 이 임무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추상적 표현과 그다지 긴밀하지 않은, 종종 비유적이라고 불리는 관계에 있고, 동시에 표현을 더 쉽게 하는 다른 하나의 사상 재료를 얻어가지고 임무를 다 한다. 이렇게 생긴 꿈은 꿈꾼 본인에 의해서 직접 추상적으로 해석된다. 바뀐 재료 는 이미 알려진 기술적 여러 수단에 의해서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모든 꿈이 해석될 수 있느냐의 물음에는 아니라고 대답된다. 꿈을 해석함에 있어 서 꿈을 왜곡하는 마음의 여러 힘이 우리들에게 저항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 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지적 관심이나, 자신의 자기 극복의 능력이나, 꿈해석에 있어서의 자신의 지식이나 연습에 의하여 내적 저항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힘 관계의 문제이다. 언제든지 조금씩 진보할 수는 있다. 꿈은 하나의 의미를 가진 형성물이라는 확신을 얻고, 또 대체로 그 의미를 희미하게 관찰할 정도로 진보할 수 있다. 어떤 꿈에 주어진 해석이 그것에 잇달아 꾼 다른 꿈에 의해서 확증되고 또 해석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몇 주일 혹은 몇달에 걸쳐서 꾸는 모든 계열의 꿈은 공통의 기반 위에 서고 서로 연계하여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꾸는 꿈에 관해서 나중의 꿈에서 가볍게 암시되었던 것이 앞의 꿈에서 중심점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그 거꾸로 되는 현상을 종종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두 꿈은 합쳐서 하나로 해석된다. 하룻밤 사이에 꾼 몇 가지 꿈은 대체로 하나의 전체로 취급될 것임은 이미 실례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잘 해석된 꿈일지라도 어떤 곳은 때때로 해결되지 못한 채 버려두어져야 한다. 이 것은 그곳에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꿈 사상의 엉킴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이 엉킴은 꿈 내용에 그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로 판명된다. 말하자면 꿈의 배꼽, 꿈이 미지의 것 위에 앉아 있는 곳이다. 꿈을 해석할 때

이제 다시 꿈 망각으로 되돌아가자. 우리들은 아직 이런 여러 사설에서 중요한 결론을 추출해 내지 못했다. 깨어 있는 생활이 밤에 형성된 꿈을 깬 뒤, 바로 아주 잊거나 혹은 낮 사이에 천천히 잊으려는 뚜렷한 의도를 표시한다면, 그리고 이런 망각의 주된 원인이 이미 밤중에 꿈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다한 마음의 저항임을 인정한다면, 이 저항을 거역하고 꿈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우리들은 마치 꿈이 일어나지 않았던 듯, 깨어 있는 생활이 꿈을 다시 없애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동시에 만일 우리들이 마음의 여러힘의 활동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또 만일 저항이 낮에서와 똑같이 밤중도 지배 하

우리들이 부딪치는 꿈 사상은, 대체로 말해서 미완결한 것으로 존재하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방에 통하는 우리들의 관념 세계의 그물의 눈과 같은 미궁에 통하고 있다. 이 편물(編物)의 비교적 두꺼운 곳에서 꿈 소망은 마치

버섯이 식물체에서 나오듯이 나타난다.

고 있다면, 꿈은 아예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결론은 저항이 밤사이에 그 힘의 일부를 잃되. 그런 저항이 밤사이에 아예 침묵을 지키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꿈을 만드는 데 저항이 참가함을 꿈 왜곡 의 현상으로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항력이 밤중에 약해지고. 그런 저항 감퇴 때문에 꿈이 형성될 가능성을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우 리들은 저항이 우리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충분한 힘을 되찾아서 그 세력이 약했을 때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로 다시 없애 버린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술적 심리학은 꿈을 만드는 조건이 마음의 수면 상태임을 우리들에게 가 르쳐 준다. 이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에 덧붙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다. "수면 상태는 마음속의 검열의 위력을 감퇴시킴으로써 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꿈 망각의 여러 사실에서의 단 하나의 가능한 결론으로 보고. 이 결론에서 잠과 각성 사이의 에너지 관계에 관한 몇 가지의 추측을 끄집어내려는 유혹을 우 리들은 느끼지만, 일단 여기서 멈추기로 하자. 우리들은 꿈의 심리학 속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꿈을 만드는 일의 성공을 위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 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꿈 사상의 의식화에 대한 저항은 아마 저항 자체의 세력을 줄이지 않아도 피해질 수 있다. 저항의 세력을 줄이는 것과 그 세력을 회피 하는 꿈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두 계기가 수면 상태에 의해서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지기는 하나. 우리들은 여기서 잠시 중지하고 조금 뒤에서 다시 이 의논 을 계속하기로 하자.

꿈 해석에서의 우리들의 처리에 대해서 다른 일련의 이의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여기서 취급하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즉 보통 우리들은 우리들의 반성고려(反省考慮)를 지배하고 있는 목적 표상(Zielvorstellung)을 모두 버리고 개개의 꿈 요소에 우리들의 주의를 돌리고 다음에 그 요소에 대해서 생각나는, 바라지 않는 관념을 모조리 기록하여 간다. 다음에 꿈 내용의 바로 뒤에 따르는 성분을취하고 이 성분에 관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그 관념들이 움직여 가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 관념들의 뒤를 따라서 지엽(枝葉) 끝까지 이른다. 이때에 우리들은 드디어 수고하지 않아도 꿈을 낳은 꿈 사상에 부딪칠 것이란 안심감을 포함한 기

대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꿈의 개개의 요소에서 출발해서 어디엔가 도달할 것임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항의가 있다. 즉 모든 관념에 어떤 것이 연상적으로 결 합된다. 문제는 목적 없고 제멋대로의 이 관념의 움직임이 바로 꿈 사상에 이르게 되냐는 것이다. 아마 이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일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요소에서 출발하여 연상의 연쇄를 더듬어 가다보면 어떤 이유로 연쇄가 끊어지는 것을 깨닫 게 된다. 이 다음에 사람들은 제2 요소를 취하는데, 이때 연상의 본래의 무제한성 은 당연히 제한을 받는다. 이때 앞선 관념 연쇄는 아직 기억 속에 있으며, 따라서 그 연쇄는 제2의 꿈 표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제1 연쇄에서의 생각과 다소 공통된 개개의 생각에 전보다 쉽사리 부딪친 다음에. 사람들은 두 개의 꿈 요소 사이에서 하나의 연결점을 표현하는 관념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은 관념 결합의 모든 자유를 허용하고, 평소 사고 시에 작용하는 한 표상으로부터 다른 표상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배제하기 때문에 일련의 중간 사상으로부터 그들 이 꿈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양조(釀造)해 내는 일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닐 것 이다. 그들은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을 아무런 보증 없이 심적 대용물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멋대로이고 우연을 재치 있게 보이도록 이용한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이런 무익한 수고만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아무 꿈에서나 제멋대 로 해석을 거듭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들이 실제로 우리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들은 이 비난에 대한 방어로서 꿈 해석의 인상을 내세울 수 있으며, 또 개개의 표상을 뒤쫓는 동안에 생기는 다른 꿈 요소와의 놀라운 여러 결합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꿈 해석 중의한 해석과 같이 꿈을 남김없이 포착하고 해명하는 어떤 것이 미리 만들어진 심리적 결합을 뒤쫓을 때와 다르게 얻어지리라는 비현실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들은 또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히스테리증을 없애는 경우의 방법과 같다는 사실을 인용하여, 우리들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히스테리증을 없앨 경우, 우리들의 방법의 정당성은 증세의 출현과 소멸에 의해 그 즉석에서 증명된다. 즉 텍스트의 해석이 삽입되어 있는 도해(圖解)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아무런 목표 없이 진행하는 관념 연쇄를 뒤쫓음으로써 어떻

게 미리 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없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꿈을 해석하는 작업에서와 같이, 우리들의 반성숙고를 버리고 원치 않는 여러 표상을 떠오르게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의 목적 없는 표상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긴다는 비판은 분명 부당한 것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목적 표상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목적 표상이 멈추자마자 바로 미지 —정확하지 않은 말로 표현하면 무의식—의 목적 표상은 곧 세력을 얻어서 원하지 않는 표상들의 과정을 결정한다. 대체로 목적 표상을 갖지 않는 사고는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생활 위에 발휘하는 어떤 세력을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것이 마음의 교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나도 모른다. 6 정신병 학자는 이

6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이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점에 관해서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을 알 게 된 것은 상당히 나중의 일이었다. "예술 창조에서의 무의식적인 것의 역할을 검토하는 김에 (《무의 식 철학》 제1권 제2부 제5장) 하르트만은 무의식적 목표 표상에 인도되는 관념 연합의 법칙을 매우 뚜 렷하게 표현하였으나, 그는 이 법칙의 통용 범위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에 있어서 문제는 '감정적 여 러 현상의 모든 구성이 순전히 우연에 일임되지 않고 거꾸로 어떤 일정한 목적에 도달할 것이면, 무의 식적인 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일정한 사상 결합에 대한 의식적 관심이 가능한 수많은 표상 중에서 목적에 알맞은 표상을 찾도록 무의식을 자극하는 한 자극임을 증명하는 것에 있었다. 관 심의 여러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그리고 감성적 표상 작용으로서의, 혹은 예술적 결합 작용으로서의 추상적 사고에서의, 그리고 익살맞은 생각에서의 관념 결합에 타당하다. 그러므 로 순수 연상 심리학의 의미로서 관념 결합을 유발적 표상이나 유발된 표상에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 다. 그런 제한은 '인간이 모든 의식적 목적에서만 아니라, 또 모든 무의식적 관심, 모든 기분의 지배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가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날 때에만 실상 정당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신의 관념 연속을 일견 완전히 우연에 맡긴다 하더라도. 혹은 공상의 자연적인 꿈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때에도, 언제나 역시 어떤 때에 는 다른 때와는 다른 주요한 관심, 중심적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반드시 관념 연 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무의식 철학》 제11판 제1권).' 반무의식적인 몽상에서는 언제나 순 간적(무의식적)인 주요 관심에 알맞은 표상만이 나타난다(上揭書). 자유로운 관념 연속에 대한 감정의 영향의 강조는 정신 분석의 방법적 처리를 하르트만의 심리학적 입장으로부터도 완전히 근거 있는 것 으로서 나타난다(포호릴레스(N. E. Pohorilles), 《의학적 정신 분석학 국제 잡지》 제1권 1913년)."—뒤 프렐은 우리들이 도저히 생각해 내지 못했던 이름이 갑자기 불의 중에 생각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중에 의식 속에 들어오는 어떤 무의식의, 그러나 목표를 지향하는 사고가 있지는 않는가 하고 추론한다(《신비주의 철학》).

점에서 너무 빨리 심리적 체제의 견고성을 포기하였다. 나는 목적 표상을 결여한통제 없는 관념의 흐름이 히스테리와 파라노이아의 테두리 안에서와 똑같이 꿈을만들거나 없앨 때에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아마 그것은 안에서 생기는마음의 감정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심지어 정신 착란자의 섬어(譫語)증은, 뢰레(F. Leuret)의 날카로운 추측에 따르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다만 그 말의탈락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런 것을 관찰할 기회가 주어졌을때에 언제나 나도 같은 확신을 얻었다. 섬어증은 이미 자기의 지배를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미통제를 갖지 못하도록 개조하는데 협력하는 대신에, 자기의마음에들지 않는 것을 무엇이든지 용서 없이 삭제하고, 그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런연관성이 없게 되는 검열 작업이다. 이 검열은 외국 신문을 새까맣게 칠해서 국내독자에게 넘겨서 외국의 정세와 그 밖의 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러시아 국경에서의 신문 검열과 매우 비슷하게 활동한다.

연상의 자유로운 연쇄에 따르는 표상의 자유로운 활동은 아마 뇌가 악성 기관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신경증 환자에게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감추어진 목적 표상에 의해서 전경으로 옮겨지는 일련의 관념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통해 늘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떠오르는 여러 표상 혹은 형상이 소위 표면적 연상의 유대에 의해서 서로 결합 되는 경우에, 이를테면 유사음(音), 이중의 의미를 가진 말, 내적인 의미의 관련성이 없는 시간적인 합치,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익살이나 말의 끝 잇기 등의 놀이에서 곧잘 이용하는 모든 연상을 통해서 결합되는 경우, 목적 표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연상의 틀림없는 하나의 표시로 간주되었다. 이런 표시는 우리들을 꿈 내용의 여러 요소로부터 중간 관념으로 인도하고, 이 중간 관념에서 본래의 꿈 사상으로 인도하는 관념 결합에도 나타난다. 이에 관한 놀라운 많은 실례는 우리들의 꿈 분석에서 발견된다. 이때 어떤 결합이나 익살도 한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의 다리로서 봉사하지 않을 정도로 느리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관대성의 올바른 이해는 어렵지가 않다.

<sup>7</sup> 이에 관해서는 융이 분석한 조발(早發)성 치매증에 관해서 제기한 그런 주장의 훌륭한 증명을 참조 (《조발성 치매증의 심리학에 대한 기여》 1907년).

"하나의 심적 요소가 다른 요소의 미움을 사는 표면적인 연상 관계를 통해서 다른 요소와 결합될 때에는 언제나 검열의 저항에 복종하는 이 양자 사이에 심층적이고 타당한 결합이 또 존재한다.

표면적 연상의 우위는 목적 현상들을 버림으로써가 아니라, 검열의 압력 때문이다. 표면적인 연상은 표현상으로, 검열이 이 정규의 결합 과정을 통과시키지 않을때에는 심층적인 연상을 대리한다. 이것은 예컨대 마치 홍수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고 산 속의 크고 넓은 길이 소용없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보통사냥꾼이나 겨우 걸어갈 수 있는 불편하고 험한 좁은 길을 걸어서 교통을 유지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본래 하나이다. 그 첫 번째 경우에 검열은 두 관념의 관련에만 항의한다. 그러나 이 두 관념은 서로 떨어져서 검열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 이런 때에 이 두 관념은 시간을 두고 의식면에 나타나지마는 두 관념 자체는 은폐된 그대로이다. 그러나그 대신에 양자 간에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지 못했던, 또 대체로 억압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결합이 출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표상군의 한구석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표면적 결합이 우리들의 눈에 띤다. 그 다른 한쪽의 경우에 두 관념은 본래그 내용 때문에 검열에 걸린다. 이때 두 관념은 본래의 형식과는 달리, 변경된 대용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대용된 두 관념은 그 속에 두 관념의 대리인이 서 있는 표면적 연상에 의해서 본래의 결합 관계를 다시 나타내도록 선택된다. 이 두 경우에서 검열의 압력 밑에 성설하고 정상적인 연상으로부터 불합리하게 보이는 표면적 연상으로의 이동이 생긴다.

우리들은 그러한 이동 현상의 존재를 알고 있으므로 꿈 해석에 있어서 표면적 연 상을 아주 주저하지 않고 신뢰한다.  $^8$ 

8 이와 같은 생각은 물론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알맞다. 즉 예를 들면, 모리가 보고하고 있는 두 꿈 (《꿈의 해석》, 순례(pèlerinage)—펠르티에(Pelletier)—삽(pelle), 킬로미터(kilomètre)—킬로그램 (kilogramme)—질롤로(Gilolo)—로벨리아(Lobelia)—로페스(Lopez)—복권(Lotto))에서와 같이 표면 적인 연상이 꿈 내용 속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경중 환자의 치료에서 나는 어떤 잔존 기억이 그런 표현 방식에 의해서 표현되는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춘기의 호기심에 불타는 대부분의 사

표상 유출의 지배가 의식적인 목적 표상을 포기하는 동시에 감추어진 목적 표상으로 옮겨간다는 것과, 표면적인 연상은 억압된 더 깊은 연상을 바꾸어 놓은 대용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명제를 정신 분석학은 신경증 환자를 취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실로 정신 분석은 이 두 명제를 그 치료하는 기술의 근본적인 초석으로 간주한다. 내가 환자에게 모든 반성사고를 버리고 마음에 떠오른 것을 무엇이든지 나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할 때에, 나는 환자가 치료하는 목적 표상을 버릴 수 없다는 전제에 굳게 매달린다. 또 나는 환자가 나에게 보고하는 표면상의 가장 의미 없고 제멋대로 된 것이 실상은 그 환자의 병적 상태와 관련된다고추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다른 목적 표상은 나라는 인물의 목적 표상이다. 이 두 설명의 상세한 증명과 충분한평가는 따라서 치료법으로서의 정신 분석적 기술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꿈 해석이란 제목에서 고의로 이탈해도 상관없는 접촉점의 하나에 도달하였다.

제기된 여러 반론 중에서, 한 가지 옳고 타당한 것이 있다. 즉 그것은 해석 작업의모든 생각을 밤중의 꿈 작업 속으로 옮겨 놓을 필요가 없다는 비난이다. 다 알다시피 우리들은 깨었을 때의 해석 작업에서는 꿈 요소로부터 꿈 사상으로 역행하는길을 더듬어간다. 꿈 작업은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걷는다. 이 길을 거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도리어 우리들은 낮 동안에 새로운 관념 결합 위에서부터 견갱(堅坑)을 아래로 파내려 가면 어느 때엔 여기서, 또 다른 때는 저기서 중간 사상이나 꿈 사상에 이르는 것으로 증명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들은 낮 동안의신선한 관념 재료가 어떻게 해석 계열 속에 끼어드는가를, 그리고 밤사이에 증대되어서 나타나는 저항을 억제하여서 새롭고 한층 먼 우로(迂路)를 만들게 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낮 동안에 그렇게 엮어 내는 부대적 사상의 수나종류는, 만일에 그 부대적 사상이 우리들을 목표하는 꿈 사상으로만 안내하여 준립들이성적 수수께끼를 해명하려는 욕구를 백과사전(아무 사전이나)을 뒤져봄으로써 만족시킨 일이

다.

<sup>9</sup> 여기서 서술한, 그러나 당시에는 신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들렸던 명제는, 나중에 융 및 그 제자들의 '진단학적 연상 연구'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증명되고 이용되었다.

다면 심리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 2. 역행

이제 우리들은 여러 이의에 대해서 우리들의 소견을 변호하고 혹은 적어도 어디에서 우리들의 방어의 무기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앞에서 준비해 둔 심리학적 연구에 착수할 것을 이 이상 더 미룰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들이 연구한 성과를 총괄하여 보자. 꿈은 매우 중요한 마음의 소산물이고 마음의 활동이다. 꿈의 원동력은 언제나 예외 없이 충족될 소망이다. 꿈의소망이 뚜렷하지 않거나 괴상하거나 황당무계한 것은 꿈이 형성될 때에 받은 검열의 영향에 기인한다. 이 검열을 피하려는 요구 이외에, 꿈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심적 재료의 압축의 강제, 감각적 형상에 의한 표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그리고 언제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꿈의 상(像)의 합리적이고 지적인 외관에 대한 고려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 명제 중의 어떤 명제에서도 길은 멀리 심리학적 가정과 추론에 통하고 있다. 소망 동기와 위의 네 가지 조건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이 네 조건 사이의 상호관계가 우리들의 연구 제목이다. 꿈은 마음 생활의 관련속에 편입된다.

우리들은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는 몇 가지 수수께끼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꿈 실례를 이 장(章)의 선두에 게시하였다. 불에 타고 있는 아이의 꿈에 관한 해석은 완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큰 곤란을 느끼게 하지도 않는다. 우리들은 이 경우에 눈을 뜨는 대신에 왜 꿈을 꾸었는지 물음을 던졌고, 아이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망이 꿈을 꾼 한 동기라고 인식했다. 이때에이 밖의 소망도 중요한 역할을 연출하고 있음은 나중에 판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잠잘 때의 사고 과정을 꿈으로 바꾼 범인은 다름 아닌 저 소망 충족이었다고 전제한다.

이 소망 충족을 제거하면, 나중에 심적 사상의 두 종류를 구분 짓는 한 가지 특성만 남을 뿐이다. 꿈 사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즉 유해를 둔 방에서 빛이 보인다. 촛불 하나가 넘어져서 죽은 아이가 타고 있다.—꿈은 이인식의 결과를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재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여러 감각을 가지고 마치 깨었을 때의 한 체험과도 같이 파악되는 상황 속에 표현된다. 그러나이것은 꿈 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뚜렷한 심리학적 성격이다. 즉 어떤 사상이나 관념, 대체로 소망하는 사상·관념이 꿈속에서는 객관화되고 한 장면으로서 표현되고 혹은 우리들이 생각하듯 체험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꿈 작업의 그러한 특징적인 속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더 겸손하게 말해서—그것을 어떻게 마음의 여러 과정의 맥락 속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

더 자세히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파악된다. 즉 이 꿈의 발현 형식 속에는 서로 거의 관계없는 두 개의 성격이 나타난다. 한 편의 성격은 '아마도'란 말을 제외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묘사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성격은 관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과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꿈 사상 속에 표현된 기대가 현재 속에 놓여짐으로써 경험하는 변화는 아마도 바로 이 꿈에서는 그다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소망 충족의이 꿈에서의 특수한 본래의 이차적인 역할과 관계있다. 꿈 소망이 수면 중의 자신을 깨었을 때의 관념의 계속과 구별하지 않는 다른 꿈, 예컨대 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을 인용해 보자. 이 꿈에서 묘사되어 있는 꿈 사상은 문법에서의 가정법이다. '오토에게 이르마의 병의 책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 소망이다. 꿈은 이런 가정법을 물리치고 간단한 현재형으로 대체한다. 물론 이르마의 병은 오토의 책임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왜곡에서 독립된 꿈이 꿈 사상에 착수하는 여러 변경 중의 첫번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꿈의 이러한 첫 특성을 오래 논의할 생각은 없다. 우리들은 이 특성에 대해 의식적인 공상이나 자기의 표상 내용을 똑같이 취급하는 백일몽을 언급함으로써 논의를 마치도록 하자. 알퐁스 도데의 작품 속에 나오는 주아이외즈(Joyeuse)의 딸들은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고 믿고 있는데 반해서, 아버지는 직업 없이 파리의 거리를 헤매어 다니고 있을 때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는 꿈을 현재형으로 꾼다. 그러므로 꿈은 백일몽과 같은 방법, 같은 권리로서 현재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현재형은 소망이 충족된 것으로서 표현되는 시제(時制) 형식이다.

백일몽과는 달리, 꿈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은 관념 내용이 생각되지 않고 도리어 감성적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두 번째 성격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감성적 형상 을 믿고 이것을 체험한 것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꿈이 바로 관념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여 두자. 다만 관념으로만 되어 있 고. 그 때문에 꿈의 본질이 의심스럽게 되지 않는 꿈이 있다. 나의 '아우토디다스 커(Autodidasker)—N 교수와의 낮 동안의 공상'의 꿈 등은, 내가 낮 동안에 생각 한 이상의 내용, 거의 감성적 여러 요소가 혼합되어 있지 않는 꿈이다. 또 상당히 긴 꿈에는. 모두 감성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행하지 않고 깨었었을 때 습관적으로 하듯 생각하고 알려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또 이곳에서 말해 둘 것은, 그런 관 념에서 구체적인 형상으로의 변화가 꿈에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예름 들면 독 립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혹은 신경증의 증세로서 나타나는 환각이 나 환상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이 구명하 고 있는 관계는 이 관계가 어떤 방향을 향하더라도 하나의 전일적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꿈의 그러한 성격은. 그것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들로서는 이 성격을 꿈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서 제외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자면 대단히 많은 논의를 거듭할 필요 가 있다.

우리들이 여러 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꿈 이론에 관한 의견 중에서 한 의견을, 나는 우리들과의 관련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싶다. 위대한 페히너는 그의 저서 《정신 물리학》 제2부에서 그가 꿈에 바친 약간의 논의와의 관련에서, "꿈의 무대는 깨었을 때의 표상 생활과는 다른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것 이외의 어떤 가정도 꿈의 영위의 독특한 여러 성질을 이해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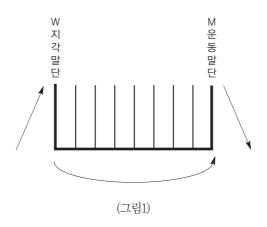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우리들에게 이용되는 이데(Idee)는 '마음의 위치성'의 이데이다. 지금

문제가 된 마음의 기구가 우리들에게 또 해부학적 재료로서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 들은 아주 도외시하고, 우리들은 마음의 위치성을 예컨대 해부학적으로 규정한다 는 유혹을 신중히 피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심리학적 기반 위에 머무르고. 마음의 여러 업적에 봉사하는 도구, 예를 들면 조립된 현미경이라든지 사진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라는 요구에만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 마음의 위치성은 마음속에서 영상의 여러 전제 단계 중의 하나가 성립하는 기계 내부의 한 장소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다 알다시피. 현미경이나 망원경에 그 기계의 어떤 구체적인 구 성 부분이 들어 있지 않은, 관념적인 장소나 구역과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는 확 실히 불완전하다. 이런 비유는 우리들이 마음의 여러 업적을 분해하고. 그 개개의 업적을 마음이란 기계의 개개의 구성 부분에 귀착시킴으로써 마음의 업적의 복잡 성을 뚜렷하게 하려는 시도에서만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준다고 생각된다. 마음이 란 도구의 조립을 그런 분해에서 추측하려는 시도는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여 태까지 없었다. 나는 이런 시도가 해롭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이때 우리들이 냉정한 파다력을 잃지 말고 골격을 전체의 구조로 잘못 생각하지만 않으면 자유롭 게 추측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미지의 것에 한발 내디디기 위해서 우리 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조 관념이기에, 가장 조잡하다고 알려진 가설일지라도 이것 을 다른 모든 가설보다 우리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란 기계를 하나의 조립하는 도구로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도구의 여러 부분품을 여러 '심급' 혹은 구체적으로 여러 '조직(System)'이라고 불러 두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기대를 품게 된다. 즉 이 여러 조직은, 아마 예를 들면 망원경의 여러 렌즈의 조직이 순서로 나란히 있듯이, 서로 어떤 일정한 공간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은 실제로 심적 여러 조직의 '공간적인' 순서란 가설을 세울 필요는 없다. 어떤 심적 과정에서는 여러 조직이 일정한 '시간적' 선후 관계 속에서 흥분이란 파도를 잇달아서 받아감으로써 하나의 확실한 순서 관계를 만든다면 이것으로써 만족한다. 이 순서는 다른 여러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받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은 미해결대로 남겨진다. 마음이란 기계의 여러 구성 부분을, 말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딱-조직'이라고

불러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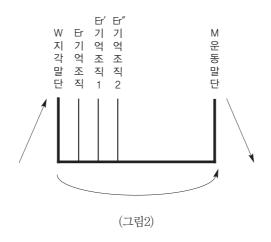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첫 것은, 그런 복수의  $\Psi$ -조직에서 조립된 마음이란 기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의 심적 활동은 모든 (내적 혹은 외적) 자극에서 시작하여 신경 지배로 끝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기계에 지각 말단과 운동 말단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각 말단에는 지각을 받는 한 조직이 있고, 운동 말단에는 다른 조직이 있어서 운동력의 수문을 열어 놓는다. 심적과정은 대체로 말해서 지각 말단에서 운동 말단으로 경과한다. 마음이란 기계의가장 일반적인 도식으로서 그림1과 같은 것이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기구가 반사 장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우리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믿어졌던 요구 충족에 지나지 않는다. 반사 과정은 또 모든 심적 업적의 전형인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지각 말단에서 첫 분화가 생긴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우리들에게 도달하는 여러 지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을 우리들은 '기억 흔적(Erinnerungsspur)'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기억 흔적에 관계하는 기능을 우리들은 '기억력'이라고 부른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마음의 여러 과정을 여러 조직에 결부시키려 하면 기억 흔적은 그 여러 조직의 각 요소에서 지속적인

여러 변화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거기에 만일 동일한 조직이 자기의 모든 요소가 받은 여러 변화를 충실히 지키고, 더욱이 변화로의 새로운 계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선하고 섭취(攝取)적으로 적응하여야 한다면, 자연히 여러 곤란이 생길 것은 확실하다. 나는 이것을 미리 별도로 말해 두었다. 우리들의 시도를 안내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 두 업적을 서로 다른 두 조직으로 나눌 것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가정한다. 즉 마음이란 기계(機械)의 첫 조직 하나는 지각 자극을 받아들이지마는, 그것을 보존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그 조직 하나는 기억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이 첫 조직의 배후에 둘째 조직이 있다. 이 둘째 조직은 첫 조직의 순간적 흥분을 지속적 흔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란 기계는 그림2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우리들이 지각(W) 조직에 작용하는 감각을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 이 지각 '내용'과는 다른 어떤 것을 동시에 계속적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들의 여러 지각은 기억 중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고, 더욱이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발생의 동시성 때문인 것도 증명된다. 우리는 이것을 '연상'의 사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만일 지각(W) 조직이 전혀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조직은 또 어떤 연상에 대한 흔적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기억 조직(Erinnerungssystem)의 개개의 요소는, 만일 어떤 새로운 지각에 대해서 그 이전의 결합의 잔재가 세력을 발휘했으면 그 기능은 매우 손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연상의 기반으로서 기억 조직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상의 사실은 저항이 감퇴한 결과로, 그리고 기억 조직의 여러 기억 조직(Er 요소) 중의한 요소가 진로를 개척한 결과로, 흥분이 세 번째 기억 조직의 요소를 향하기보다는 도리어 두 번째의 기억 조직의 요소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뤄진다.

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런 기억 요소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정할 필연성이생긴다. 지각(W) 요소를 지나 계속된 정서가 이런 요소들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고착된다. 어쨌든 이 첫 번째 기억(Er) 조직은 어떤 경우보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관계에 의한 연상을 고착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멀리 떨어져 존재하고 있는 기억(Er) 조직 속에서 동일한 흥분(興奮) 재료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일치에따라 배열된다. 그 때문에 아마 유사성 같은 관계는 뒤쪽 조직들에 의해서 표현될 것이다. 물론 그런 조직의 심적 의미를 일부러 주장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조직의 성격은 기억 재료의 여러 요소에 대한 여러 관계의 긴밀성에 있을 것이다. 즉 만일 우리들이 더 깊은 이론을 끄집어내려고 생각하면 그 성격은 이 여러요소를 향하는 유도(誘導) 저항의 정도(程道) 속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일반적인 의견을 하나 삽입하자. 이 의견은 아마 중요한 것을 표명할 것이다. 변화를 보존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즉 기억력을 가지지 않는 지각(W) 조직은 우리들의 의식에게 여러 가지의 감성적 성질을 제시한다. 그런데 거꾸로 가장 깊이 인각(印刻)된 것을 포함한 우리들의 기억은 본래 무의식적이다. 그것들은 의식화될 수 있으나, 기억된 것이 무의식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로 작용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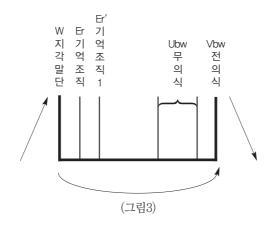
우리들이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이란, 우리들이 외계나 내계에서 받는 여러 인상의 기억 흔적 위에서 성립된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작용하는 여러 인상은 우리들의 소년 시절의 그것이고, 거의 절대로 의식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된 것이 다시 의식화되면 그것들은 여러 지각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한 특

질만을 지니거나 혹은 감각적인 특질을 전혀 보이지 않거나 한다. 그래서  $\Psi$ -조직에서 기억과 의식을 특징짓는 질이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이 실증되면, 신경 흥분의 조건들을 인식할 수 있는 유망한 통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지각 말단에 있는 심적 기구의 조립에 관해서 가정하면서, 꿈과 꿈에서 유도되는 심리학적 설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이란 기계의 다른 일부분을 이해하려는 때에 꿈은 우리들에게 증거의 근원이 되어 준다. 우리는, 그 한쪽이 다른 쪽의 활동에 비판을 가하고 그 결과로 의식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개의 심적 심급을 가정하지 않았다면 꿈의 형성이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비판을 가하는 쪽의 심급은 비판이 가해지는 심급보다도 의식에 대해서 한층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었다. 전자는 후자와 의식과의 사이에 병풍과 같이 서 있다. 또 우리는 깨어 있을 때의 생활을 지휘하고 우리 마음대로의 의식적인 행동에 결정을 짓는 것과 비판을 가하는 심급을 동일시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설에 따라서이들 심급을 조직들로 대체해 놓으면, 위에서 말한 인식에 의해서 비판을 가하는 조직은 운동 말단 근처에 있는 것으로 상상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조직을 (그림 3)과 같이 도식에 끼워 넣고, 의식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명칭을 부여할 것이다.

운동 말단에 자리 잡은 여러 조직 중의 최후의 것을 우리들은 '전의식(前意識·das Vorbewußt·Vbw)'이라고 명명한다. 만일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강도에 이르고 주의력이라 불리어질 기능을 배분하는 등 특정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여러 과정들이 지체 없이 의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전의식이란 말을 선택했다. 그것은 동시에 자의적인 운동성에 이르는 열쇠를 쥐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 조직의 배후에 위치하는 조직을 우리들은 '무의식(無意識·das Unbewußt·Ubw)'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전의식을 통과하는 것 이외에는' 의식에 통하는 어떤 길도 없기 때문이다. 전의식을 통과할 때에 그 흥분 과정은 여러 가지 변경을 감수해야 한다.<sup>10</sup>

<sup>10</sup> 이 線(선)의 도식을 더 자세히 만들려고 생각하면, 다음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전의식(前意 識)에 계속되는 조직은, 우리들이 의식을 거기에 귀속시켜야 하는 조직이고, 말하자면 지각 말단=의 식(W=Bw)이다.



이상의 여러 조직 중의 어느 조직으로부터 우리들은 꿈 형성에 대한 동인을 구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무의식(Ubw)의 조직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은데, 꿈 형성이 전의식의 조직에 속하는 꿈 사상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논의할 생각이다. 또 우리는 꿈 소망을 논하는 다른 곳에서 꿈의 원동력은 무의식에 의해서 주어짐을 알 것이다. 그리고 이 최후의 계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의식의 조직을 꿈 형성의 출발점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꿈 흥분은 그 밖의 모든 관념 형성과 똑같이 전의식 안에 침입하고, 전의식에서 의식에 로의 입구를 얻으려는 노력을 표시할 것이다.

경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 즉 깨어 있을 동안의 꿈 사상에 대해서 전 의식을 통과하여 의식에 이르는 이 길은 폐쇄되어 있다. 꿈 사상은 밤이 되면 의식에로의 통로를 타개한다. 그러나 어떤 방법, 어떤 변화의 덕택으로 그것이 가능한 가의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만일에 이것이 꿈 사상으로서 무의식과 전의식 사이에 있는 어떤 경계선에서 감시하고 있는 저항이 밤에 그 힘을 잃음으로써 가능하다면,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인 환각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여러 표상 재료로 성립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식(Ubw)과 전의식(Vbw)이란 두 조직 사이에 있는 검열의 무력화

##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는, '아우토디다스커(Autodidasker)'의 꿈과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문제로서 이 논문 머리에 두었던 '화상(火傷) 입는 아이'의 꿈같은 것은 설명할수 없다.

환각적인 꿈에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려면 흥분이 역행하는 길을 취한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흥분은 마음의 운동 말단 쪽으로 이동하는 대신에, 감각 말단 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지각 조직에 도달한다. 심적 과정이 무의식에서 깨었을 동안에 진행하는 방향을 전진적(progredient) 방향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들은 꿈에 관해서 꿈이 역행적(regredient)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역행은 명백히 꿈 과정의 심리학적 특징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식적 상기(想起)나 추고(追考)나 우리들의 정상적 사고의 부분적 여러 과정은 어떤 복잡한 표상 행위로부터 그 행위의 밑바닥에 있는 기억 흔적의 재료로의 심적 기구 안에서의 역행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역행은 깨었을 동안에는 결코 기억 형상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이 역행은 지각 형상을 환각적으로 만들 수 없다. 왜 꿈에서는 사정이 달라지는가? 우리들이 꿈의 압축 작업을 논했을 때, 우리들은 꿈 작업에 의해서 여러 표상에 결부되어 있는 강도(强度)가 꿈 작업에 의해 전이된다는 가설을 피할 수 없었다. 지각 조직(W)으로 하여금 반대 방향으로, 즉 사고에서 출발하여 완전한 감성적 현실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인 심적 과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같다.

나는 우리들이 이 논의의 유효 범위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즉 우리들이 행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하나의 명칭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꿈에서 표상이 전에 나왔던 감성적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역행'

11 역행의 계기를 처음으로 암시한 것은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에서 발견된다. 그에 의하면, 상상력은 뚜렷한 대상의 보존된 형상으로부터 꿈을 만든다. 이 과정은 깨었을 때와는 거꾸로 수행된다(디프겐(P. Deipgen)에 의함).—흡스(T. Hobbes)는 말하고 있다(《리비이어던 (Leviathan)》 1651년). "요컨대 꿈은, 깨었을 때의 공상의 거꾸로이다. 깨었을 때에는 한쪽의 끝에서 시작하는 운동이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다른 한쪽에서 시작한다(엘리스에 의함)."

이라고 부른다. 이런 명명에 관해서도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 명명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왜 명칭을 붙이곤 하는가? 역행이라는 명칭은, 이 명칭이 우리들에게 기지의 사실을, 어떤 방향을 가진 심적 기구의 도식과 결부시키는 한도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나는 생각하고, 이런 도식은 여기서 비로소 의미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꿈을 만드는 또 하나의 특성은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이 도식의 도움을 빌림으로써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꿈 현상을, 우리들이 가정한 심적 기구 안에서의 한 역행으로 볼 때에, 다음과 같은 경험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곧 설명된다. 즉 꿈 사상의모든 사고 관계는 꿈 작업에 있어서 잊어지거나 혹은 겨우 표현된다. 이 사고 관계는 우리들의 도식에 따르면 처음의 조직 중에서가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앞쪽에 있는 여러 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고 관계는 역행 시의 지각 영상을 제외하곤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꿈 사상의 구조는 역행할 때 해체되고, 그 본래의 재료로 돌아간다.

그러나 낮 사이에 불가능한 역행이 어떻게 변화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추측으로 끝을 맺으려고 한다. 아마 개개의 조직의 에너지 부착(附着) 상태에서의 여러 변화가 문제일 것이다. 이 에너지의 부착 상태에 의해서 개개의 조직은 흥분의 통로에 대해서 문을 여닫는다. 그러나 마음과 같은 모든 기구에 있어서의 흥분의 통로에 끼치는 똑같은 효과는 그러한 여러 변화 중의 한 종류 이상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물론 곧 수면 상태와 그리고 수면 상태가 마음의 지각 말단에서 불러일으키는 에너지 부착의 여러 변화를 생각한다. 낮 동안에 지각 말단(W)의 포-조직에서 운동력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흐르는 조류(潮流)가 있다. 이 조류는 밤에는 정지하고, 흥분의 역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해를 가할 수 없는 것 같다. 몇몇 학자들이 꿈의 심리학적 여러 성격이라고설명하는 '외계로부터의 격절(隔絕)'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꿈의역행을 설명하려면 병리학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역행 현상들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들에서 방금 우리들이 행한 설명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 전진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감각적 조류(潮流)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역행 현상이 생긴다.

히스테리나 파라노이아의 환각,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는 환영 등은 사 실상 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그것들은 형상으로 변화된 사상이고, 이때 억압 된 기억 내지 무의식 그대로 멈추어 있는 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상만이 그 런 변화를 경험한다. 예를 들면 내가 취급한 히스테리 환자 중에서 가장 나이 적은 12세의 사내아이는, 잠들 때에 '붉은 눈을 한 푸른 얼굴'이란 환각에 방해된다. 이 아이는 여기서 위협을 받아 편히 잠들 수가 없다. 이 현상의 근원은 현재 억압되었 으나 한때 의식하고 있던 어느 소년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이 소년 환자는 4년 전 에 그 아이와 함께 종종 놀았다.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소년다운 장난의 무서운 표 본을 보여 주었다. 그 중에는 수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년 환 자는 지금 늦게나마 이 수음을 자책하고 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당시에 예의 나쁜 아이가 푸른 얼굴색을 하고 있어서 붉은 (즉 가장자리가 붉은) 눈을 하고 있 다고 일러 주었다. 여기에서 위와 같은 무서운 환각이 생긴 것인데, 이 환각은 그 런 소년이 백치가 되어서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빨리 죽는다는 어머니 의 예언을 그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소년은 어머니의 예언의 일부분을 실현시킨다. 그는 김나지움에서의 성적이 나빴고, 또 그가 바라지 않는 생각의 몇 몇을 그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결과로 판명된 바와 같이. 예언의 일부가 실현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올렸고 소년은 잠잘 수 있게 되었으며, 그의 불안은 사라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김나지움을 졸업하였다. 여기서 나는 환각이 사라진 예를 열거할 수 있다. 이것은 40세가 된 히스테리 부 인 환자가 건강하였을 때에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이다. 어떤 날 아침 눈을 뜨니 방 안에 그 부인의 오빠가 있었다. 그러나 이 오빠는 그 여자도 알고 있듯이 지금 정신 병원에 있다. 이 여자의 작은 아들은 같은 침대에서 그 여자 옆에 자고 있었 다. 이 아이가 아저씨를 보고 놀라서 경련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여자는 이불을 아 들에게 덮어 주었다. 그랬더니 환각이 사라졌다. 이 환각은 이 부인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개조한 것이다. 이 기억은 물론 의식적인 것이었으나 그 여자의 내심의 모 든 무의식적 재료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전에 이 여자의 유모는, 일찍이 돌아가신 이 여자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 이 여자는 겨우 1년 6개월이었다) 간질병이나 혹은 히스테리증의 발작으로 고생하였는데, 그 병은 이 어머니의 오빠(이 환자의 '외삼촌')가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신이라고 하면서이 여자를 놀라게 하였을 때의 충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 여자에게 말해 주었다. 오빠의 출현, 이불, 충격, 그 영향 등 이 환각은 그 여자의 기억과 똑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새로운 관계에서 조립되어 다른 인물들에게로 옮겨진다. 이 환각의 뚜렷한 동기, 이 환각에 의해서 대리되고 있는 사상은, 그 여자의 작은 아들(몸의 소질이 외삼촌과 매우 닮았다)이 행여나 외삼촌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이상의 두 실례는 수면 상태와 아주 관계없는 것이 아니므로, 아마 지금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증명에는 적당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환각을 동반한 파라노이아의 분석<sup>12</sup> 및 신경증 심리학에 관한 나의 발표되지 않은 연구의 여러 성과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그것들은 역행적 관념 변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억압된 기억, 혹은 무의식 그대로의 기억,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아적인 기억의 영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기억은, 이 것과 관련되고 그 기억의 표현을 검열 때문에 저지당하고 있는 관념을 역행 작용속에, 즉 이 기억 자체가 심적으로 존재하는 저 표현 형식 속으로 끌어넣는다. 내가 여기서 히스테리증 연구의 한 결론으로서 "유아기의 여러 사건들(기억이든 공상이든)은 이것을 의식화하는 데 성공하면 환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이야기할때에 비로소 환각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기억이보통 시각적이 아닌 사람에게마저 가장 이른 유아 시절의 기억은, 감성적 현실성을 나중에 이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유아기의 체험이나 또는 그것에 의거한 공상이 꿈 사상에서 어떤 역할을 다하는 가, 때때로 얼마나 유아기의 체험 일부가 꿈 내용 속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가, 꿈 소망 자체가 얼마나 종종 유아 시절의 체험에서 유래되는가를 우리들이 상기한 다면, 관념의 시각적 형상으로의 변화도 재현되기를 바라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sup>12 〈</sup>방어 신경증에 관한 그 후의 견해〉(《신경증학 기관지》 1898년 제10호)

기억이 표현을 구하면서 의식에서 단절된 관념에 끼치는 색인 작용의 결과라는 추정이 꿈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꿈은 또유아기의 장면이 최근의 것으로 옮겨가서 변화된 대용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아기의 체험은 그대로 현재에 부활되지 않는다. 그것은 꿈으로서 부활되는 데 만족해야 한다.

꿈 내용에 대한 유아기의 장면(혹은 그 공상의 되풀이)의, 어떤 뜻에서 모범적인 뜻의 지적은 셰르너와 그 지지자들의 내부 자극 원천에 관한 가설을 쓸모없게 만 든다. 셰르너는 꿈이 시각적 여러 요소의 독특한 해명성이나 또는 시각적 여러 요 소의 특별한 풍부성을 표시할 때에. '시각 자극' · 시각 기관에서의 내적 흥분의 한 상태를 가정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가정에 반항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흥 분 상태를 단지 시각 기관의 심적 지각 조직에서만 확인하는 데 만족해도 좋으나. 이 흥분 상태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초의 현재적이었던 시각 흥분의 경신 (更新)인 듯한 흥분 상태라고 나는 주장하고자 한다. 나는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서 그러한 영향에 대한 좋은 실례를 내 경험 속에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나 자신의 꿈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꿈보다 감성적인 여러 요소를 결여하고 있으 나, 최근 몇 해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현실미가 풍부한 꿈에서, 나는 그 꿈 내 용의 환각적 명석(明晳)성을 최근이나 또는 가까운 과거에서 받았던 여러 인상의 감성적 특질로 환원시키는 데 쉽게 성공했다. 나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검푸른 물 의 빛깔, 배의 연통에서 나오는 연기의 갈색, 내가 본 건물의 음울한 갈색과 붉은 색 등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꿈을 기록했었다. 내 자신이 꾼 꿈으로서 시각 자 극에 착목(着目)하여 해석될 것이 있다면. 이 꿈이 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나의 시각 기관을 그런 자극 상태에 옮겨 놓았는가? 그것은 일련의 낡은 인상과 하나가 된 최근의 한 인상이었다. 내가 본 여러 빛깔은 첫째로 장난 감의 빛깔이었다. 꿈꾼 전날에 아이들이 나에게 보여 주고 나를 감탄케 하기 위해 서 장난감으로 큰 집을 만들어 보여 주었다. 그 장난감에는 꿈의 빛깔과 같이 음산 한 붉은색이 있었고 작은 장난감에는 푸른색 · 갈색이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 이탈 리아 여행 도중에 받았던 빛깔의 인상, 이손초(Isonzo) 강이나 호수의 아름다운 푸 른색, 알프스 산의 바위의 갈색 등이 참가했다. 꿈의 색채의 아름다움은 기억 속에 보인 색채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았다.

꿈이 그 표상 내용을 시각적 형상으로 바꾸어 만드는 꿈의 특성에 관해서 우리들 이 경험한 것을 여기에 요약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 꿈 작업의 한 특색을 뚜렷이 해명했거나. 심리학의 주지의 여러 법칙에 환원시킨 것은 아니고. 도리어 미지의 여러 사정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역행적' 성격이란 이 름 아래 강조한 데 불과하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 이 역행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정상적인 과정에 있는 관념이 의식 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저항의 결과이고. 또 감각성이 강한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기억 이 관념 위에 끼치는 동시적인 견인의 결과라고.13 또 꿈에는 역행을 용이하게 하 기위해서 낮 동안의 전진적인 지각 기관의 흐름이 정지할 것이다. 이러한 정지는 역행의 다른 여러 형식에 있어서는 그 많은 역행 계기를 강화함으로써 청산되어야 하는 보조적인 계기이다. 더욱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꿈에서와 같은 역행의 이런 병적 경우에는 에너지 전이 과정이 정상적인 마음의 영위의 수행에서와는 다르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전이 과정에 의해서 지각 조직의 완전한 환각적 변 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꿈 작업의 분석에 있어서 '표현 가능성으로의 고려'로서 설명한 것은 꿈 사상에 의해서 접촉된, 시각적으로 기억되어 있는 여러 장면의 선택적 견인과 관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역행이 신경증적 증세를 형성한 이론에서 꿈 이론에서와 같은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련다. 그때에 우리들은 역행의 세 가지 종류를 구별한다. 첫째, 여기서 전개시킨 Ψ-조직의 도식의 의미에서 지형학적 역행, 둘째, 과거의 심적 형성물을 되살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의 시간적 역행, 셋째, 원시적 표출 방법이나 그 묘사 방법이 보통의 표출 · 묘사 방법을 대체하는 경우의 형식적 역행, 그러나 이 모든 역행은 결국 같은 것이고, 많은 경우 하나가 되어 있다. 왜냐하

<sup>13</sup> 억압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상이 그 사상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개의 계기의 협동에 의해서 억압에 빠진다는 것이 상론(詳論)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상은 한편에서는 (의식의 검열 쪽에서는) 제거되고, 또 한방에서는 (무의식 쪽에서) 끌려진다. 마치 큰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갈 때와 같은 것이다(전집의 '억압'에 관한 논문 참조, 1918년).

면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은 동시에 형식적으로 원시적인 것이고, 심적 위치에서는 지각 말단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꿈에서의 역행이란 주제를 떠남에 앞서. 이미 몇 번이나 우리에게 임박 하였던 인상, 즉 신경증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서 새로이 강력해져서 되살아나는 인상에 대해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꿈을 꾸는 것은 대체로 그 본인의 가장 이른 여러 사정으로 부분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그의 유아기의 재생, 유 아기에 지배적이었던 충동의 움직임이나. 그때의 마구 부릴 수 있었던 표출 방법 의 재생이 아닐까 하는 인상이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유아기의 배후에는 계통 발 생적인 유년기의 모습—인류 발달의 모습인—을 보며, 개인의 발달이란 우연한 생 활환경에 영향 받고 축약된 인류 발전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니체 (Fr. Nietzsche)는, 꿈속에는 한 조각의 원시적 인간성이 계속 작용하고, 우리들은 이것에 거의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이 참으로 적절한 것임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꿈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원시적 유산, 심적으로 낳을 때부터 지녔던 인간 속의 것을 인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꿈과 신경증은 우 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인간의 마음의 낡은 면을 보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 므로 정신 분석은 인류의 시초의 가장 오래고도 가장 어두운 여러 단계를 다시 구 성하려는 여러 학문 중에서 하나의 높은 위치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다.

꿈을 심리학적으로 평가·주석하려는 우리들의 시도의 이 첫 부분이 그다지 만족 스럽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길을 내야했다 는 것으로 위안을 삼도록 하자. 만일 우리들이 전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접근 방법도 대체로 같은 영역에 틀림없이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 영역에 관하여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 3. 소망 충족에 관하여

화상 입은 아이의 꿈은 소망 충족설이 부딪치는 곤란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계기를 제공한다. 우리들은 꿈이 소망 충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접하게 되면 모두 의심하기 마련이다. 이 의심은 아마 단지 불안 꿈에서 비롯된 모순 때문만은 아니 었다. 분석의 첫 설명에 의해서 꿈의 배후에는 의미와 심적 가치가 감추어져 있다 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의미가 그렇게 뚜렷이 결 정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확하나 불충분한 규정 에 의하면 꿈은 수면 상태 속으로—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계속된다. 그런 데 우리들의 사고는 깨어 있는 동안에 판단 · 추리 · 반박 · 기대 · 의도, 그 밖의 여 러 가지의 심적 행위를 만들 것이나.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 사고는 밤중에. 다 만 소망만을 산출하는 데 그 활동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그것보다도 도리어 다른 종류의 심적 행위, 예를 들면 걱정과 같은 것을 꿈이란 형식으로 변경하는 꿈이 많 이 있지 않는가? 앞에서 인용한 아버지의 대단히 의미가 뚜렷한 꿈, 화상 입은 아 이의 꿈과 같은 것이 아닐까! 아버지는 잠자면서도 그의 눈에 들어오는 빛으로부 터 촛불이 넘어져서 시체가 타고 있을는지 알 수 없다는 걱정의 추측을 끄집어내 고 있다. 그는 이 추측에 감각적인 한 상황과 현재형이란 옷을 입힘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꿈으로 바꾸었다. 이때 소망 충족은 어떤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깨었을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상과 새로운 지각 인상에 의해서 생긴 사상과 의 어느 것이 여기서 우세하다고 생각될 것인가? 이것은 모두 옳은 것이다. 그러 므로 꿈에서의 소망 충족의 역할과 수면 속으로 계속되는 깨어 있을 때의 사상의 의미를 한층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바로 소망 충족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미 꿈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하였다. 확실히 소망 충족인 꿈과 그 소망 충족이 뚜렷하지 않고 때때로 모든 수단을 써서 은폐되 었던 꿈들이다. 우리는 후자의 꿈에서 꿈 검열의 작업을 발견했었다. 왜곡이 없는 소망의 꿈은 아이의 꿈에 많았다. 그렇지만 '짧고' 솔직한 꿈은 (나는 이 괄호의 부 분을 특히 강조하여 둔다.) 어른들 사이에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들은 꿈에서 실현되는 소망이 언제나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디에'를 우리들은 어느 대립 혹은 어떤 복잡성과 관계시키면 좋 을까? 대립이란, 즉 의식화한 낮 동안의 생활과 밤이 되어서 비로소 인정하게 되 는 무의식인 채로 머물러 있는 심적 활동과의 대립을 가리킨다. 나는 소망의 출처 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 소망이 낮 동안에 일어났지만, 외부 사정 때문에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억압된 소원으 로 남겨질 수 있다. (2) 소망은 낮에도 일어날 수 있으나 배척되었을 수 있다. 그 러면 우리들에게 충족되지 않았으나 억압된 소망이 밤에 남겨질 수 있다. (3) 소망 은 낮 생활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고. 밤에야 비로소 억압된 것에서 풀려나 활기 를 띠는 소망 중의 하나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들의 심적 기관 의 도식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첫 번째 종류의 소망을 전의식 조직에 위치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소망에 관해서 우리들은 그것이 전의식 조직에서 무의식 조 직으로 밀려나 가능한 한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세 번째 종류의 소망의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들은 그 움직임이 무의식 조직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원천에서의 여러 소망들이 꿈에 대 해서 똑같은 값어치, 꿈을 일으키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물음에 해답하기 위해서 제공된 꿈을 훑어보면, 우선 꿈 소망의 네 번째 원천으로서 목마른 자극, 성 욕구 등과 같은 밤중에 일어나는 적극적인 소망 충동을 덧붙여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우리들은 꿈 소망의 유래들이 꿈을 만드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나는 낮 동안에 중단된, 연못을 건너는 일을 꿈속에서 계속 시킨 나의 딸의 꿈이나, 이와 비슷한 아이의 꿈 등을 생각하게 된다. 이 꿈들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억압되지도 않았던 낮 동안의 소망으로 설명된다. 낮 동안에 억압된 소망이 꿈속에서 숨을 돌리는 사실에 대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종류의 가장 간단한 예 하나를 여기에서 보충하자. 다소 빈정대는 마음씨를 가진 한 부인의 젊은 여자 친구가 약혼하였다. 이 부인은 낮 동안에 친구의약혼자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

느냐는 친구들의 물음을 받을 때 마다 극구 칭찬의 대답을 하였고 자신의 본심은 드러내지 않았다. 즉 그 부인의 본심은 "그는 평범한 사람(Dutzendmensch)<sup>14</sup>이다."였다. 이 부인은 밤에 같은 질문을 받고, "추가로 주문하실 때에는 번호를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장사꾼이 공식적인 대답을 하는 꿈을 꾸었다. 왜곡되는 모든 꿈에서 소망은 무의식에서 생기고 낮 동안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수많은 분석의 결과로 알았다. 그리고 모든 소망은 당분간 꿈을 형성할 때에 동등한 값어치와 힘을 가지는 듯이 보인다.

나는 여기서 실제로 이것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나는 꿈 소망의 더 엄밀한 제약성을 가정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하다. 아이 꿈을 보 면, 낮 동안에 끝내지 못했던 소망이 꿈의 자극자일 수 있음은 의심할 바 없다. 그 러나 그것은 아이의 소망. 아이에게 특유한 힘을 가진 소망 충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낮 동안에 끝나지 않았던 소망이 어른에게서 밤의 꿈을 형성하느냐의 여부 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나는 우리들이 사고 활동에 의해서 충동 생활 을 점차로 제재하고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강렬한 소망의 형성이나 보유를 무익한 것으로서 점차로 단념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 어떤 사람은 다 른 사람들보다도 심적 여러 과정의 유아적 성격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있을 수 있는 개인차는, 본래 뚜렷이 시각적이었던 표상의 미약화에 있어서 도 역시 생각되었던 개인차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인들에게서 충족 되지 않은 채 낮부터 계속되어 나중에 남는 소망은 사실상 꿈을 만들어 낼 만한 충 분한 힘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의식에서 유래하는 소망의 움직임이 꿈 탄생에 어 떤 공헌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기꺼이 인정하나. 그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고 그 이 상의 것은 아니다. 만일 전의식적 소망이 어떤 다른 곳에서 강화되지 않는다면 꿈 은 확실히 생기지 않는다.

다른 곳이란 즉 무의식으로부터이다. 의식적 소망은 그것이 같은 내용의 무의식적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이 무의식적 소망에 의해서 자기를 강화하는 경우에만 꿈의

<sup>14</sup> Dutzendmensch에서 Dutzend는 원래 한 타스(12개)라는 의미로, "그는 평범한(Dutzendmensch)를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그런 사람은 1타스(12개)나 있다."라는 뜻이다.

자극자가 된다고 나는 추측한다. 이 무의식적 소망을, 나는 신경증의 정신 분석에서 얻은 암시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무의식적 소망은 이것이 의식에 생기는 어떤 움직임과 결합하고 낮은 강도(强度) 위에 높은 강도를 옮기는 기회를 얻으면 자기를 움직여서 언제나 나타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치 의식적 소망만이 꿈에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꿈의 구성에서 보이는 어떤 작은 특색이 무의식에서 온 강력한 보조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언제나 활동하고 있는, 말하자면 불감의 무의식적 소망은 일찍이 승리를 자랑하는 신들의 손에 의해서 무거운 거대한 바위를 시초부터 그어깨에 짊어지고 아직도 때때로 손이나 발이 마비되면서 그 바위를 들고 있는 전설의 거인 족(族)을 생각나게 하나, 이 억압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소망은 본래 신경증의 심리학적 탐구에 의하면 유아적인 것에서 유래한다 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꿈 소망의 유래가 어떻든지 상관없는 것이라는, 앞에서의 진술을 없애고 다른 말, 즉 '꿈에 표현되는 소망은 유아적 소망이어야 한다.'로 바꿔 놓고자 한다. 따라서 어른에 있어서 소망은 무의식에서 유래하고, 전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분리나 검열이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점차로 형성되고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깨었을 때의 생활이 충족 · 억압되지 않은 소망이다. 이 의견이일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나, 예기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의견이 때때로 증명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나는 꿈 형성에 대해서, 의식적인 깨어 있는 생활로부터 남겨진 소망 충동은 뒤로 밀어놓으려고 한다. 나는 이 역할을 꿈 내용에 대한 잠자는 동안의 적극적 감각 자극 재료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나는 이제, 낮 생활에서 남았으나 소망이 아닌 다른 심적 자극을 관찰할 때에, 이런 생각이 나에게 지시하는 선상에 머무르려고 한다. 우리들이 잠자려고 결심할 때에, 우리들은 깨었을 때의 사고의 에너지 부착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에는 언제나 잠잘 수 있는 사람이다. 나폴레옹 1세는 이런 종류의 모범적인 인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에 언제나 완전히 성공하지

는 못 한다. 미해결의 여러 문제, 걱정과 근심, 여러 인상의 강력한 영향은 잠자는 동안에도 사고 활동을 계속 시키고, 마음의 여러 과정을 우리들이 전의식이라고 부르는 의식 속에서 계속하게 한다. 잠자는 동안에 계속되는 이런 사고 활동을 분류하려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를 들 수 있다. (1) 낮 동안의 우연한 방해에 의해서 끝을 맺지 않은 것, (2) 우리들의 사고력의 이완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것, 미해결로 남은 것, (3) 낮 동안에 거부되고 억제된 것, 위의 세 그룹에 대해서 (4) 낮에 전의식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들의 속에서 활동된 것이 네 번째 그룹으로 덧붙고, 끝으로 (5) 무의미하고 따라서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낮 동안의 여러 인상이 다섯 번째 그룹으로 추가될 수 있다.

낮 생활의 이와 같은 잔재를 통해 특히 미해결의 것의 그룹으로부터 수면 상태에 이입되는 심리적 강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이런 흥분들은 밤에도 계속해서 표현되기를 바란다. 또 이와 똑같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수면 상태 가 전의식에서의 흥분 과정의 끊임없는 계속과 흥분의 의식화에 의한 그 흥분의 종결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여러 심적 과정을, 비록 밤중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의식할 수 있는 한에서는 우리들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면 상태가 전의식 조직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나 는 뚜렷이 말할 수 없다. 15 그러나 확실히 수면의 심리학적 성격은 본래 바로 이 조 직의 에너지 부착 상태의 변동에 구할 것이고. 이 조직은 또 동시에 잠자는 동안 에 마비되어 있는 운동력에로의 입구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과는 반대로, 잠은 무 의식 조직의 여러 사정 중에서 부차적인 변화만을 산출한다는 가정을 보증할 만한 것이 꿈의 심리학 속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전의식의 밤중의 흥분으로서는 무의식에서 비롯된 소망 충동이 걷는 길을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에 의존 하여 무의식적 충동이 걷는 우회로를 함께 걸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의식의 낮 동안의 잔재물이 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낮 동안의 잔재물은 확실히 풍부하 게 꿈속에 들어와서 꿈 내용을 이용하여 밤중에라도 의식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

<sup>15</sup> 수면 상태와 환각이 성립되는 여러 조건에 관한 지식은 나의 글 '꿈 이론에 대한 초심리학적 보유(《국 제 정신 분석학 잡지》 제4권 1916~8년)' 속에서 더 한층 깊이 구명되었다.

물론 낮 동안에 남은 것들은 꿈 내용을 지배하고 낮의 활동을 계속하도록 꿈 내용을 강제한다. 낮의 잔재물은 확실히 여러 소망의 성격과 아주 똑같이 그 밖의 여러 성격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나머지들이 꿈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가를 관찰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소망 충족론으로서는 결정적인 일이다.

우리들은 상술(上述)한 꿈 실례 중의 하나. 예를 들면 친구 오토가 바제도병에 걸 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을 인용하자. 나는 낮 사이에 오토의 외관을 보고 어떤 걱 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걱정은 이 사람에 관한 그 밖의 모든 것과 같 이 나를 괴롭혔다. 이 걱정은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쫓아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아마 나는 그의 어디가 나쁜가를 찾으려고 열중했을 것이다. 밤이 되어서 이 걱정 은 내가 보고한 꿈속에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 꿈 내용은 무의미했을 뿐 아니라 소 망 충족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낮 동안에 느낀 걱정의 부적당한 표현의 유래를 찾기 시작했다. 분석한 결과, 내가 오토를 L 남작으로 그리고 나를 R 교수 로 동일화시켜서 하나의 관련을 맺은 것이 발견되었다. 내가 낮의 사상 대신에 이 대용만을 선택해야 한 것에 관해서는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할 뿐이다. 나는 나 자 신의 R 교수와의 동일화를 무의식 속에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 것은 동일화가 불멸의 유아적인 소망, 즉 위대해지려는 소망의 실현을 의미했다. 나의 친구 오토에 관한 더러운. 낮이면 틀림없이 거부되었을 터인 여러 관념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가만히 함께 꿈속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낮 동안의 걱정도 꿈 내 용 속의 한 대용물을 통해서 어떤 표현 형식을 획득하게 되었다. 본래 소망이라기 보다도 걱정이었던 낮 동안의 사상은 어떤 통로를 거쳐서 유아적인, 지금은 무의 식에 억압된 소망과 어떻든지 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 낮 사이의 사상을 (이 사상은 이미 적당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의식에 대해서 '성립' 시켰다. 이 걱정이 지배적일수록 결합 관계는 그만큼 한층 더 강력해진다. 소망 내 용과 걱정 내용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또 우리들의 실례에 서도 그런 관련은 없었다.

꿈 사상 속에서 꿈에게 근거 있는 걱정이나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괴로운 의견과

같은, 소망 충족과는 철저히 상반되는 재료가 제공될 때에, 꿈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의 문제를 연구라는 형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마 뜻이 있을 것이다. 가능한 성과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즉, (1) 모든 고통스러운 생각을 반대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것에 속하는 불쾌한 걱정을 성공적으로 억누른다. 이 결과로 아주 만족스러운 꿈, 더 이상 논할 점 없는 듯이 보이는 뚜렷한 '소망 충족'이 생긴다. (2) 고통스러운 생각은 적건 크건 간에 다소 변경되기는 했어도 알아볼 정도로 현재적 꿈 내용 속에 나타난다. 이것은 꿈의 소망 이론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고 더 깊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고통스러운 내용을 가진 그런 꿈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또 고통스러운 감정 내용에 의해서 시인되는 듯이 보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거나, 혹은 불안감을 발전시켜서 잠을 깨우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에 의해서 이 불쾌한 꿈도 역시 소망 충족임이 증명된다. 무의식적이고 억압된 된 소망의 충족을, 꿈꾼 자아에 의해서 고통으로만 느낀 무의식적이고 억압된 그 소망은, 고통스러운 낮 사이의 잔재물에 의해서 그 소망에 제공되는 기회를 이용하고 그 잔재물을 지지하고, 이 지지에 의해서 그 잔재물이 꿈속에 채용되도록 한다. 그러나 (1)의 경우에는 무의식적 소망이 의식적 소망과 합치하는데, (2)의 경우에는 무의식인 것과의 사이의 분열—억압된 것과 자아와의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고, 요정이 부부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 세 가지 소원의 동화의 상황이 실현된다(下記). 억압된 소망 충족에 대한 만족감은 대단히 큰 것이므로 이만족감은 바로 낮의 잔재물에 덧붙어 있는 고통 감정을 상쇄한다. 그때 꿈은 물론, 일면 어떤 소망 충족이고, 또 일면 어떤 두려움이긴 하나 본래의 감정적 어조에서는 무관심한 것이다. 혹은 또 잠들고 있는 자아가 꿈 형성에 한층 풍부하게 참가하여, 억압된 소망의 충족에 대해 느끼는 만족에 강하게 반응하여 꿈을 불안감 아래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불쾌한 꿈과 공포의 꿈은 이론적으로는 원활한 만족의 꿈과 똑같은 소망 충족이다.

'형벌의 꿈(Straftraum)'도 또 불쾌한 꿈의 일종이다. 이런 형벌의 꿈을 허용하면 꿈 이론에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형벌의 꿈에 의해서 충 족되는 것은 역시 하나의 무의식적 소망. 즉 어떤 억압된 용서할 수 없는 소망 충 동에 대해서, 꿈을 꾸는 본인을 벌하고 싶다는 소망이다. 이 꿈들은 꿈 형성으로의 원동력이 무의식에 속하는 소망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나의 견해를 따르고 있 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한 심리학은, 이것과 다른 소망 꿈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한 다. (2)그룹의 경우에는, 무의식의 꿈을 형성하려는 소망은 억압된 것에 속한다. 형벌의 꿈에서도 역시 그것은 하나의 무의식적 소망이지만 우리들은 이 소망을 억 압된 것에가 아니라 '자아'에 기인시켜야 한다. 따라서 형벌의 꿈은 자아가 꿈을 형 성하는 데에 한층 넓게 참가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만일 우리들이 '의식' 대 '무의 식'이란 대립 대신에 '자아' 대 '억압 작용'이란 대립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꿈을 형 성하는 메커니즘이 대체로 훨씬 쉽게 동찰(洞察)된다. 이것은 신경증의 여러 과정 을 살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책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다 만 나는 형벌의 꿈이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낮의 잔재물이라는 조건에 얽매어 있 지 않다고 말해 두겠다. 형벌의 꿈은 낮의 잔재물이 만족을 주는 성질의 관념이긴 하지만, 그 잔재물이 용서될 수 없는 만족을 표현한다는 정반대의 전제 아래에서 가장 쉽게 생긴다. 이런 관념 중에서는 그 직접의 반대 관념 이외는 아무것도 현재 적 꿈 내용 속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은 (1)그룹의 꿈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므로 형벌의 꿈의 본질적 성질은 억압된 것(무의식 조직)에 대한 의식적 소망 이 꿈의 형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소망에 반대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 아 소속의. 그러나 무의식 (즉 전의식의) 형벌 소망이 꿈의 형성자가 되는 데 있 다.16

16 여태까지 기술한 몇 가지를 나 자신의 꿈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특히 꿈 작업이 고통스러운 기대의 낮 동안의 잔존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자. 발단은 확실치 않다. 나는 아내에게 말한 다. "당신에게 알릴 말이 있는데 특별한 일이다."라고. 아내는 놀라서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다. 나는 "그렇지 않아, 당신이 좋아할 일이야."라고 말하고, 아들이 속한 장교단(將校團)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내왔다(5천 크로네?)고 말을 시작한다. ……표창……분배……. 이때 나는 아내와 함께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저장실과 같은 작은 방에 들어간다. 갑자기 아들의 모습이 눈에 띤다. 군복 차림이 아니고 몸에 달라붙은 운동복(해표(海豹)와 같이?)을 입고 작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는 상자 옆에 놓인 바구니 위에 무엇을 넣으려고 하듯이 기어올랐다. 소리를 질렀으나 대답이 없다. 얼굴인지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다. 아들은 입 속에서 무엇을 고치고 있다. 무엇을 쑤셔 넣는다. 머리카락도 회색이다. 나는, 그놈이 그렇게도 피로했을까, 의치를 넣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부르려

나는 무의식적인 꿈이 꿈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를 이제 날카롭게 지시할 수 있다. 나는 꿈의 '자극'이 우세하게 혹은 전적으로 낮 생활의 잔재물에서 유래하는 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친구의 건강에 관한 걱정이 낮부터 지속되지 않았더라면, 언젠가는 한 번 조교수가 되리라는 나의 소망마저도 나를 밤에 고요히 잠들게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걱정만으로 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결과가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 꿈에 필요한 '원동력'은 어떤 소망에 의해서 주어져야 했다. 그런 소망을 꿈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실은 저 걱정거리의 관심사였다. 예를 들면 낮의 사상이 꿈에 대해서

고 소리를 내기 전에 나는 아무런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눈을 떴다. 심장이 뛴다. 시계는 밤 두시 반을 가리킨다. 완전한 분석 보고는 이번에도 불가능하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제한하고 밝혀 보기로 한 다. 꿈의 동기는 전날의 고통스러운 기대였다. 전선의 아들에게서 일주일 이상이나 소식이 없다. 부상 이나 전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꿈 내용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쉽게 발견된다. 꿈의 앞부분 에서 불쾌한 생각을 반대물로 바꾸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내가 보고할 것은 대단히 유쾌한 것이다. 송 금·표창·분배. (돈의 액수는, 의업(醫業)에서의 어떤 기쁜 일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꿈의 제목 에서 일탈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 아내는 무서움을 느끼고 나의 말을 듣 지 않는다. 변장은 너무 허술하다. 도처에 억압된 것과의 관계가 드러난다. 아들이 전사하다면 전우들 은 아들의 소지품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유류품을 형제자매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할 것이 다. 표창이란 '용감히 전사'한 장교에게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이 꿈은 그것이 처음에 부 정하려던 것을 직접 표현하려고 한다. 그때 소망 충족적 경향은 또 왜곡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정된다. (꿈에서의 장소 변경은 질베러가 주장하는 역(闕)상징으로 해석될 것이다.) 우리들은 물론 무엇이 이 꿈에 필요한 워동력을 주었는지를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넘어진 사람(전사자)'으로 나타나 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아들은 대담한 알프스 등산가이기도 했다. 구복이 아니고 우 동복을 입고 있다. 즉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부상자의 대신에 옛적 그가 스키 여행에서 넘어져서 다리 를 부러뜨렸을 때의 재난이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해표와 같은 복장의 모습이란 것은 바 로 우리들의 작은 익살맞은 손자를 연상하게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회색 머리카락은 이 손자의 아버지, 즉 우리들의 사위, 전쟁에서 큰 변을 당한 사람을 연상하게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그러 나 이것으로 끝내련다. 장소는 식료품 저장소를 연상하게 하고,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려는 상자 는(이것은 꿈에서는 무엇을 놓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서너 살이었을 때 내가 당한 재난의 뚜렷한 암 시이다. 나는 식료품 저장실에서 발판이 넘어져서 턱을 발판의 모에 부딪쳐서 이가 모두 빠질 뻔 했었 다. 여기에 하나의 경고의 소리, 마치 용감한 군인에 대한 적의적인 기분의 움직임과 같이 '그것은 너 에 대한 올바른 보복이다.'란 경고의 소리가 들린다. 좀 더 분석하면 자식의 불행한 재난으로 만족되 는, 숨은 기분의 움직임이 엿보인다. 그것은 늙은 사람이 인생에서 철저히 박탈당했다고 믿고 있는 젊 음에 대한 질투심이다. 그리고 고통의 강열(强烈)은 (그런 불행이 실제로 생겼다면) 그 질투심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그런 억압된 소망 충족을 유인하는 것은 확실하다.

'기업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소위 계획을 지니고 이를 현실로 옮기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는 자본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기업가는 자기에게 비용을 대어주는 '자본주'가 필요하다. 꿈을 위해 마음의 비용을 제공하는 이 자본주는 그 낮의 사상이 어떤 것이건 간에 무조건 '무의식에서 비롯된소망'이다.

다른 경우에는 자본주 자신이 기업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꿈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이다. 낮의 작업에 의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소망이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이소망은 꿈을 만든다. 여기에서 예로서 이용된 경제적 관계의 모든 다른 가능성과 꿈의 과정은 비슷하다. 그러므로 기업가 자신이 얼마의 자본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기업가 몇 사람이 같은 자본주의 도움을 찾기도 하고, 혹은 몇몇 자본주가 공동으로 기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대어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꿈소망에 의해서 생기는 꿈들과, 쉽게 간과될 수 있고 우리들의 관심을 끌지않는 많은 비슷한 변형들이 있다. 꿈 소망에 관한 이상의 논의의 불비한 점은 나중에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비유의 '비교 중심점(比較中心點)', 즉 적당한 배분량에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꿈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더 오묘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표명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꿈들은 감성적으로 특히 강도 높은 중심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소망 충족을 직접 표현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꿈 작업의 전위를 원상으로 되돌려놓으면, 우리들은 꿈 사상 요소들의 심적 강도가 꿈 내용 요소들의 감성적 강도에 의해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망 충족의 근처에 있는 여러 요소는 종종 그 소망 충족의 뜻과 전혀 관계없으며, 소망에 저항하는 고통스러운 사상의 소산임이 판명된다. 그러나 이 여러 요소는 그 중심적인 요소와 때때로 인위적으로 관련함으로써 그 요소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런 소망 충족의 표현력은 관련 있는 어느 일정한 범위에 뿌려지고, 그 표현력은 그 범위 안에서 높아져서 본래 힘없는 요소를 포함하여 모든 요소를 나타낸다. 몇 가지 강력한 소망을 가진 꿈에 있어서. 우리는 개개의 소망 충족의 범위를 쉽게 분간하고, 꿈속에 있는 틈은 경계

지대로서 때때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가 꿈에 대한 낮의 잔재물의 뜻을 앞에서 말한 대로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잔재물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헛수고가 아닐 것이다. 이 잔재물은, 여하튼 모든 꿈이 최근의 낮 동안에 얻은 인상과 그 가장 변변치 못한 것과의 결합 을 때때로 그 내용 속에 표명한다는 경험적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한 은. 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성분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꿈 혼합에의 이 추가의 필연성을 지금도 납득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이 필연성은 우리들이 무의 식적 소망의 역할을 확신하고 그 위에 신경증 심리학에 설명을 구할 때에만 올바 르게 이해된다. 그리하여 신경증 심리학은 무의식적 표상이 그 자체로서는 전의식 속에 들어갈 힘을 갖지 못하는 사실과, 또 무의식적 표상이 이미 전의식에 속하고 있는 무의미한 표상과 결합하여 그 위에 자기의 심적 강도를 옮기고 그 표상의 배 후에 모습을 감추는 경우에만 어떤 작용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 르쳐 준다. 바로 이것이 신경증 환자의 마음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여 주는 '전이(轉移)'의 사실이다. 이 전이는 그리하여 부당하리만큼 의 높은 마음의 강도를 소유하게 된 전의식 표상(前意識表象)을 그대로 두든지 혹 은 자신에게 전이하는 표상 내용으로부터의 변경을 강제하든지 한다. 나는 독자들 이 내가 일상생활로부터 비유를 구하기 좋아하는 것을 용서하기를 바란다. 그러 나 나는 억압된 표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의 치과 개업의와 같은 사정에 있다 고 말하고 싶다. 이 치과 의사는, 오스트리아 인으로서 정규의 면허장을 가지고 있 는 의사 이름을 간판으로 걺으로써 법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개업할 수가 없다. 미 국의 치과 의사와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의사 중에서도 가장 훌륭 한 의사가 아닌 것과 같이. 인간의 심적 생활에 있어서도 억압된 어떤 표상을 감추 기 위해서 선출되는 것은 전의식 중에서 작용하고 있는 주의를 충분히 자기에 끌 어넣지 못했던 전의식이나 또는 무의식적 표상에 한정된다. 기꺼이 무의식은 변변 치 못한 것이기에 주목되지 않았든가. 혹은 비난 때문에 이 주목을 약탈당하였든 가 어느 한쪽인 전의식의 인상이나 전의식의 표상들과 주로 결합한다. 한쪽과 대 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은 표상이 새로운 결합의 모든 그룹에 대해서 거의 거부적

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뚜렷이 증명된, 연상 학설의 알려진 한 정리이다. 이 정리에서 나는 한번 히스테리성 마비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켜 보았다. 신경증을 분석함으로써 억압 표상에게 전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 같은 것이 꿈속에도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이 가정은 꿈의 두 수수께끼를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꿈 분석이 최근에 받은 어떤 인상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는 수수께끼와, 또 하나는 이 최근의 요소가 가장 변변치 못하고 무의미한 종류의 것이라는 수수께끼이다. 우리들은 또 여기에 다음 것을 덧붙여 두자. 우리들이이미 다른 곳에서 배운 사실, 즉 최근의 무의미한 여러 요소는 그것이 동시에 저항검열을 가장 적게 두려워한다는 까닭으로, 꿈 사상 중에서 가장 오랜 여러 요소의 대용물로서 꿈 내용 속으로 때때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검열로부터의 자유는 단지 평범한 여러 요소의 우대를 설명하는 반면에, 최근의 요소의 연속성은 전이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 두 인상, 즉 무의미한 인상들과 최근의 인상들이 아직 연상 관계를 맺지 않은 재료를 바라는 억압된 것의 요구에 응한다. 전자는 광범위한 결합을 맺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후자는 그런 연상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무의미한 여러 인상을 귀속시킬 수 있는 낮의 잔재물이 꿈을 형성하는 데 참가할 때에, 단지 무의식으로부터 억압된 소망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빌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인상은 또 무의식에 대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즉 전이로의 필연적인 부착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마음의 여러 과정을 파고든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전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여러 흥분의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신경증 연구는 어차피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나, 꿈은 그것을 위한 계기를 주지 않는다.

낮 동안의 잔재물에 관하여 또 하나 언급하여 두자. 잠을 실지로 방해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이 낮의 잔재물이다. 꿈은 오히려 잠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시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자.

우리들은 여태까지 꿈 소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무의식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그 낮 동안의 잔재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잔재물 자체가 소망인 경우도 있 었고, 또 어떤 다른 종류의 심적 충동이기도 했으며, 단지 최근의 인상인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깨어 있는 사고 작업이 꿈을 여러 모양으로 형성하는 의미를 위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요구에 여지를 만들었다. 우리들의 일련의 사고를 근거로 하여 꿈이 낮의 작업의 후계자로서 깨어 있는 상태의 미해결 문제를 오묘하게 해결하는 극단적인 경우마저를 설명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실례만은 없다. 즉 그 실례를 분석함으로써 전의식 활동의 노력을 대단히 유리하게 강화했던 유아적 혹은 억압된 소망 원천을 나타내는 실례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왜 무의식이 잠을 자는 동안에 어떤 소망을 충족시키는 원동력 이외의 것을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한 걸음도 접근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바란다'는 마음의 성질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해결은 심적 기구의 도식의 도움으로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기구도 긴 발전의 길을 걸은 뒤에 오늘날의 완전에 도 달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심적 업적 능력의 첫 단계로 거슬러 올라 가 보자. 다른 곳에서 규정될 가정에 따르면, 우리들은 마음의 기구가 처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자극 없는 상태에 두려고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처음 의 구성에서 심적 기구는 바깥에서 마음에 도달하는 감각적 흥분을 바로 곧 운동 적인 길에서 방출할 수 있게 하는 반사 장치의 도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생활의 필 연은 이 간단한 기능을 교란시킨다. 마음이 그 뒤에 점차로 복잡하게 되는 것도 이 생활의 필연 때문이다. 생활의 필연은 처음엔 우선 강력한 육체적 욕구의 형식으 로 마음에 몰려온다. 내적 욕구에 의해서 주어진 흥분은 운동력 속에 배출구를 찾 을 것이다. 이 운동력을 '내적 변화' 또는 '정서 운동의 표출'이라고 규정할 수 있 다. 배를 곯은 아이는 할 수 없이 울거나 옴직옴직한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적 욕구에서 일어난 흥분은 순간적 폭발이 아니라 계속 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족 체험이 어떤 방법으로써—아이의 경우에는 이 체험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음으로써 경험되나—내적 자극을 제거 하기 위해서 경험될 때에 비로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체험의 본질 적인 한 구성 요소는 어떤 종류의 지각(소아의 예로서 말하면 젖이 주어지는 것) 이고, 이 지각의 기억 상(記憶像)은 그때부터 욕구 흥분의 기억 흔적과 연상적으로 결합되어 남게 된다. 이 욕구가 다음에 나타나자마자 먼저 성립된 결합 관계 때문에 하나의 마음의 흥분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의 흥분은 저 지각의 기억 상(記憶像)을 재생하고 지각 자체를 다시 구성하고 따라서 결국 첫 만족의 상황을 재현하려고 한다. 이러한 충동을 우리들이 소망이라고 부른 것이다. 지각의 재출현은 소망 충족이고, 욕구 흥분 측에서의 지각의 완전한 재현은 소망 충족으로의 가장 짧은 길이다. 이 길은 사실상 마음의 기구 속에서 시작되어, 바라는 것을 환각하는 데에서 끝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심적 기구의 원시적 상태를 가정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첫 심적 활동은 '지각 동일성(Wahrnehmungsidentität)'을, 이를테면 욕구의 충족에 결부되어 있는 저 지각의 반복을 목표로 삼는다.

어떤 가혹한 생활 경험은 아마 그러한 원시적 사고 활동을 한층 합목적적인 제2의사고 활동으로 바꿨을 것이다. 마음 안에 있는 짧은 길을 역행하여 지각 동일성이만들어져도, 다른 경우에는 바깥으로 부터의 같은 지각의 점령과 결합되어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충족은 이뤄지지 않고, 욕구는 그대로 계속된다. 내적지각의 점령을 바깥 지각의 점령과 같은 값어치로 만들기 위해서, 내적 지각의 점령은 그것이 환각성 정신병이나 배고픔의 공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똑바로 유지되어야 한다. 위의 정신병과 배고픔에서 심리적 활동은 소망된 대상을 '붙잡는 것'으로 소진해 버린다. 심적 힘을 목적에 좀 더 알맞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행이 기억 상(記憶像)을 넘어서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이 기억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길을 찾고, 끝으로 바깥 세계에서 닥쳐오는 바라던 동일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완전한 역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저지나 이에 계속되는 흥분의 방향 전환은 다음의 제2의 조직 과제가 된다. 이 조직은 자의적인 운동력을 통제하고 이 운동력의 업적에, 말하자면 전에 기억된 여러 목적을 향한 운동력의 이용이 처음으로 결합된다. 그러나 일체의 복잡한 사 고 활동, 즉 기억 상에서 출발하여 외계(外界)를 통해서 지각 동일성을 작성하기까 지에 계속해서 작용하는 사고 활동은, 결국 다만 경험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이루

<sup>17</sup> 말을 바꾸면, '현실 음미'의 시작은 필연지사로 인식된다.

어진 소망 충족에 이르는 우로(迂路)를 표현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18

즉 사고는 환상적 소망의 대용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꿈이 소망 충족 이면 소망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자명한 것이다. 자기의 여러 소망을 역행적인 지름길에서 채워 주는 꿈은, 이렇게 생각하면 심적 기구의 아무런 목적 없이 버려진 '제1차' 작업 방법의 표본을 우리들을 위하여 보존해 준 것일 뿐이다. 우리들이 아이들 방 속에서 내버려진 원시적 무기인 활이나 화살을 발견하듯이, 마음의 생활이 아직 젊고 무능력하였을 때에 한번 각성 속에서 지배하였던 것은 추방되고 밤 생활 속으로 나타난다. 꿈을 꾸는 것은 극복된 아이들의 영혼 생활의 한 토막이다. 정신병에 있어서는 깨어 있을 때에억압된 이 심적 기구의 활동 방식은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다음에 외계에 대한 우리들의 여러 욕구 만족에 대해서 무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무의식적인 소망 충동은 명백히 깨어 있을 때에도 활동하려고 노력한다. 전이의 사실과 똑같이, 정신병은 무의식적 소망 충동이 전의식의 조직을 통해서 의식과 운동력의 지배로 침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들이 어차피 꿈에서 승인하게 되는 무의식과 전의식 사이에 있는 검열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의 감시자를 승인하고 존경하여야 한다. 이 검열이 밤에 자신의 활동을 줄이고, 무의식의 억압된 여러 충동을 표현하게 되고, 환각적 역행을 다시 가능하게하는 것은 이 감시자의 태만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비판적인 감시자가 쉬러 갈 때에—그가 깊이 잠들지 못하는 증거는 몇 개 있다—운동력에 이르는 문 역시 닫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저지된 무의식에서 어떤 충동이 무대 위에 뛰어 오르더라도 내버려 두면 된다. 그것은 해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외계에 영향을 끼쳐서 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기관을 활동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수면 상태는 수호할 요새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힘의 이동(移動)이 비판적 검열의 힘의 소비에 있어서의 밖의 감퇴에 의해서가 아니

<sup>18</sup> 르 로랭은 올바르게 꿈의 소망 충족을 이렇게 찬양했다. "심한 피로 없이, 즉 바라는 쾌락을 소모하고 썩히는 완강하고 장기간의 싸움에 말려들어가지 않는."

<sup>19</sup> 나는 이 생각을 다른 곳에서(《심적 사상의 두 원리에 관한 요약' 전집》제3권, 1913년) 다시 전개하고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를 두 원리로서 수립하였다.

라. 검열의 병적 쇠약 또는 무의식적 흥분의 병적 강화에 의해서 생길 때에. 전의 식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운동력으로의 문호가 열려 있으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그때에 감시자는 압도되고 무의식적 흥분은 전의식을 자신의 아래에 굴복시키고. 이 전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이나 행위를 지배하든지 혹은 환각적 역행을 강행 하고, 지각이 우리들의 심적 에너지 배분에 끼치는 견인 작용에 의해서 자신을 위 해 정해진 것이 아닌 기계를 사용하든지 한다. 이런 상태가 정신병의 상태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의식과 전의식이란 두 조직을 도입함으로써 중단했던 심리학적 도식을 한층 더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꿈을 위한 유일한 심적 워동력 인 소망을 조금 더 논할 이유를 아직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즉 꿈이 무의식의 소산이므로 언제나 소망의 충족이고, 이 무의식은 그 활동에서 소망 충족 이외의 목적을 모르며, 그 처리에 있어서 소망 충동 이외의 다른 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광 범위하게 심리학적 사색을 전개시킬 권리를 조금 더 고집한다면, 그런 사색에 의 해서 우리는 다른 심적 형성물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 꿈을 배열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만일 무의식이란 조직이—혹은 우리들의 논의에 대해서 그것과 비슷한 어떤 것—존재한다면 꿈은 무의식의 유일한 출현일 수는 없다. 물론 꿈이 란 소망 충족일 것이나. 꿈과는 다른 이상한 소망 충족의 여러 형식도 있을 수 있 다. 그리고 실상 모든 정신 신경증적 증세에 관한 이론의 정점은. "그 여러 증세도 무의식의 소망 충족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라는 명제에 있다.20 꿈은 우리의 설 명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에게는 정신병학적 과제의 순수 심리학적 부분을 해결하 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련의 사항 가운데 첫 번째 것에 지나지 않는다. 21 소망 충족의 계열 중의 다른 여러 사항, 예를 들면 히스테리의 여러 증세 에 관해서, 나는 내가 아직 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본질적 성격을 알 고 있다. 위에서의 진술에서 때때로 암시된 여러 연구에 의해서 나는 히스테리적

<sup>20</sup> 정확하게 말해서, 중세의 일부분은 무의식적 소망 충족에 응하고, 다른 일부분은 소망 충족에 반항하는 반동 형성에 응한다.

<sup>21</sup> 휼링스 잭슨(Hughlings Jackson)은 이렇게 표현했다. 즉 "꿈의 본질을 발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람들이 발광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한 것이 될 것이다."

증세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들 마음의 활동에 있는 두 조류가 만나야 함을 알고 있 다. 증세는 단순히 실현된 무의식적 소망의 표현이 아니다. 또 이 증세와 동일한 증세에 의해서 충족된 전의식으로부터 소망이 덧붙여져 같은 증세에 의해 성취된 다. 그러므로 증세는 갈등 속에 있는 조직의 각각의 측면에서 각기 한 번씩, 적어 도 두 번 제약된다. 그 이상의 다면적 제약도 꿈에서처럼 아무 제한이 없다. 무의 식에서 유래되지 않은 제약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언제나 반드시 무의식적 소망. 예를 들면 자기 징벌에 대한 반동 관념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히스테리증의 증세는 두 개의 대립적 소망 충족이 각각 다른 심적 조직의 원천으로부터 하나의 표현에서 만났을 때에만 생긴다(이에 관해서는 논문 〈히스테리성의 공상과 그 양성구유(兩性具有)에 대한 관계〉(1908년, 전집 제 7권) 속에 있는 히스테리증의 여러 증세 발생에 관한 나의 최근의 총괄적인 견해 를 참조). 여기에 존재하는 복잡함에 대한 완벽한 해명만이 확신을 가져다주므로 실례를 든다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상과 같이 주장하 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고. 그 증명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구상성 때문에 예 하 나를 들고자 한다. 어느 여환자의 히스테리성 구토는 한편 사춘기에서 생기는 하 나의 무의식적 공상의 충족, 즉 늘 임신하고 싶다는, 수없이 많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이에 나중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나이들을 가지고 싶다'는 확대가 덧 붙는다—소망 충족으로 나타났다. 이 난폭한 소망에 대해서 힘센 반항 충동이 제 기되었다. 구토는 이 여자의 건강과 미를 빼앗고, 그로 인하여 어떤 남자에게도 마 음이 들지 않게 되면서, 이 증세는 동시에 또 징벌적인 생각의 움직임과도 일치하 여 두 방면에서 승인되고 현실화될 수 있었다. 파르티아(Parther)의 여왕이 로마 의 집정관 크라수스(Crassus)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도 이와 같은 소망 충족의 방 법이다. 여왕은 크라수스가 돈이 없어서 출병시킨 것으로 알고. 그의 시체의 입 속 에 녹인 황금을 부어넣었다. "자. 네가 바라던 것을 줄 터이니." 꿈에 관해서 여태 까지 우리들은, 꿈이 무의식의 소망 충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전의식은 소망 충족에 약간의 왜곡을 강제한 다음에 이 소 망 충족을 허용하는 듯이 여겨진다. 꿈 소망의 적(敵)의 역할과 같이 꿈속에서 실

현되는, 꿈 소망에 반대되는 관념의 움직임을 일반적으로 입증할 수는 사실상 없다. 다만 때때로 우리들은 꿈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동 형성물과 같은 것(예를 들면 상술한 백부의 꿈에서의 친구 R에 대한 친애감)에 부딪친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잃었던 전의식에서의 부속물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도권을 쥔 조직은 잠자려는 소망으로 후퇴하고, 마음의 기구 안에서 가능한 에너지 배분 변경을 통해 소망을 실현하고 마침내 잠자는 동안 이 소망을 계속해서 꼭 가지고 있는 동안, 꿈은 무의식에서의 소망을 갖은 왜곡을 통해 표현한다.<sup>22</sup>

전의식의 굳게 간직한 잠자려는 소망은 대체로 꿈의 형성을 쉽게 한다. 우리들은 시체실에서 비치는 촛불의 빛이. 시체가 불타고 있다고 추측하게 한. 저 아버지의 꿈을 생각해 보자. 빛 때문에 잠을 깨는 대신에, 아버지가 꿈속에서 그런 추측을 하게 된 심리적 힘의 하나는, 꿈에 나온 아이의 모습을 한 순간이라도 더 오랫동안 보고 싶다는 소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억압물에서 나온 그 밖의 여러 소망 은 우리의 눈을 피한다. 그것은 아마 우리들이 이 꿈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꿈의 제2의 원동력으로서 아버지의 잠자려는 욕구를 덧 붙여도 무관할 것이다. 꿈에 의해서 아이의 생명이 한 순간이라도 연장된 것같이. 아버지의 잠도 꿈에 의해서 한 수가 연장되다. 이 동기는 "그대로 꿈을 꾸어라. 그 렇지 않으면 나는 잠을 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꿈에서와 같이, 다른 모든 꿈에서도 잠들려는 소망은 무의식적 소망을 지지한다. 우리들은 위에서 뚜렷 이 편의(便宜)의 꿈이라고 생각되는 꿈 몇 가지를 보고하였다. 대체로 말해서 꿈은 편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잠을 계속하려는 소망의 활동 은 외적 감각 자극을 바꾸어서 그 자극을 잠의 계속과 타협할 수 있게 하는 각성의 꿈에서 가장 쉽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 각성의 꿈은 바깥의 자극을 꿈과 섞어서 그 자극이 외계에 대한 경고로서 만든 주장을 박탈한다. 그러나 잠을 계속하려는 이 러한 소망은, 다만 안에서부터 잠자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꿈을 형성하 는 데에 참가하는 것 같다. 꿈이 지나치게 방종할 때에, 전의식이 여러 경우에 의

<sup>22</sup> 나는 이 생각을, 현대의 최면술 연구의 진흥자인 리에보(A, A, Liébeault)의 수면 이론에서 차용했다 (《최면술 기타》 파리, 1889년),

식에게 주는 암시, "내버려 두어라 더 잠자라 그것은 기껏해야 꿈이니까."라는 말은, 또 말로서 바깥에 나타나지 않으나 대체로 우리들의 마음의 지배적인 활동 이 꿈꿀 때에 취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즉 우리 들은 모든 수면 상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있음과 똑 같이, 우리들이 꿈을 꾸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 우리들의 의식은, 우리가 꿈 을 꾸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 쪽으로는 결코 인도되지 않으며, 또 자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 쪽으로는 검열이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당하는 따위의 특별한 경 우에만 인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박 따위에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 에 반해서, 자기가 작가며 또 꿈꾸고 있음을 전적으로 의식하고, 따라서 꿈으로 인 도하는 일종의 의식적 능력을 뚜렷하게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 람은 어떤 꿈의 진행에 불만일 때에는 잠에서 깨지 않고 그 꿈을 깨어 버리고 꿈을 새로 시작해서 다른 꿈을 계속한다. 이것은 마치 관중의 소망에 따라서 자신의 극 을 더 한층 행복하게 끝내는 통속 작가와도 같은 것이다. 혹은 또 다른 경우에, 즉 그가 꿈속에서 예컨대 성적 흥분 상태에 놓이면, '이런 꿈을 이대로 계속해서 못정 으로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만한 정력은 오히려 현실을 위해서 저 장해 두고 싶다'고 잠자면서 생각한다.

에르베(d'Hervey) 후작(바시드(Vaschide), 139면)은, 자신이 꿈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꿈의 진행을 생각대로 빠르게 하고 마음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은 잠자려는 소망을 다른 전의식적 소망, 즉 자신의 꿈을 관찰하고 흥미를 느끼려는 소망에 한 걸음을 양보한 것 같다. 수면은 깨는 조건으로서의 어떤 제안과 타협하듯이 이런 소망 기도와도 타협하는 것이다. 보통의 꿈 많은 사람들의 꿈에 대한 관심이, 잠에서 깬 뒤에 기억되고 있는 꿈의 수를 대단히 증대시킨 것도 사실이다. 23

23 꿈을 꾸는 본인이 꿈을 인도하는 일에 대한 다른 관찰에 관해서 폐렌치는 이렇게 말한다. "꿈은 마음 의 생활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활동시키는 관념을 여러 측면에서 가공하다가, 소망 충족이 성공하지 못하고 끝날 위기에 처해서는 어떤 꿈의 상(象)을 버리고, 새로운 종류의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소망 충족을 계획하고, 심적 생활의 두 심급을 타협적으로 만족시키는 소망 충족을 만들어 낼 때까지 거듭해서 노력한다."

## 4. 꿈에 의한 깸, 꿈의 기능, 불안 꿈

전의식이 밤에 잠자려는 소망에 부응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우리 들은 꿈 과정을 더 한층 이해하고 추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은 꿈 과정에 관 한 여태까지의 우리들의 지식을 총괄하여 보자. 즉 깨었을 때의 사고 작업이 완수 되지 못했던 것이 낮 동안의 잔재물로서 남아 있고. 그 잔재물에는 또 에너지가 다 소 덧붙어 있는 경우. 혹은 또 낮 동안의 깨었을 때의 작업을 통해서 무의식적 소 망 하나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우, 혹은 또 이 두 경우가 하나가 된 경우, 우 리들은 지금 여기서 생각한 여러 가능성을 여태까지 이미 논해왔다. 무의식적 소 망은 이미 낮 사이에, 혹은 잠자는 상태의 성립을 기다려서 비로소 낮 동안의 잔재 물로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낮 동안의 잔재물로 옮겨놓는다. 이렇게 되면 최근의 재료에 옮겨진 한 소망이 생기거나 혹은 억압된 최근의 소망이 무의 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보급 받아 세력을 되찾는다. 이 소망은 전의식을 지나는 사 상 과정의 올바른 길을 걸어서 의식 안에 침입하려 한다. (이 소망의 일부분은 본 래 전의식의 것이다.) 그러나 이 소망은 또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검열에 부딪쳐서 검열의 압력에 굴복한다. 여기서의 소망은 이미 옮겨져서 가장 최근의 것 위에 덧 붙여지기 시작한 왜곡을 달게 받는다. 여기까지 보면 소망은 강박 관념 등과 비슷 한 것, 즉 전이를 통해 강화되고 검열을 통해 왜곡된 관념이 되어 간다. 그러나 이 제 전의식의 수면 상태는 그 이상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마 전의식은 그 여러 흥분을 가라앉힘으로써 침입을 막을 것이다. 그리하여 꿈 과정은 바로 수면 상태 의 독자성에 의해 타개되어 있는 역행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때 다음 조직들의 기호로 바뀌지 않고 다만 부분적으로 시각적인 에너지 부착으로만 존재하는 존재 하는 기억 집단이 발휘하는 흡익력에 견인되다. 꿈 과정은 역행하는 도중에 표현 가능성을 갖는다. 압축에 관해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자. 이제 꿈 과정은 몇 번이 나 곡절(曲折)을 검열한 경로의 제2부를 통과했다. 제1부는 무의식적 장면 혹은 공 상에서 전의식으로 전진하는 길이었으며, 제2부는 검열의 관문에서 다시 지각 쪽 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만일에 꿈 과정이 지각 내용이 되기만 하면, 그것은 검열과 수면 상태에 의해서 전의식 속에 놓인 방해물에서 벗어난 것이다. 꿈 과정은 주의를 자신 위에 끌어당겨서 의식의 인정을 받는 데 성공한다.

즉 우리들에게서 심리적 특질의 파악을 위한 한 감각 기관을 의미하는 의식은 깨 었을 때에는 두 곳을 통해서 자극될 수 있다. 첫째로 마음 전체의 주변, 즉 지각 조 직에서, 둘째로 에너지의 배치전환에 있어서의 거의 유일한 심리적 특질로서 마음 의 내부에 생기는 쾌·불쾌의 자극에서다. 평상시 Ψ-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 또 전의식 안의 사상에는 심리적 특질이 아주 결핍되어 있고, 이 때문에 그 특질이 의식에 대해서 지각될 쾌(快) 또는 불쾌를 제공하지 않는 한에는 의식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우리들은 '이 쾌·불쾌의 방사(放射)가 에너지 부착 과정의 경과 를 자동적으로 통제한다'는 가정을 인정하도록 결심해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더 욱 정교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표상 경과를 불쾌의 증세에서 한층 더 독립적 으로 형성해야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의식 조직은 의식을 끌 수 있는 독자적인 특질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런 독자적 질은 전의식 적 사상이, 언어 부호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기억 조직과 결합함으로써 획득되는 것 같았다. 이런 기억 조직의 여러 특질에 의해서 이전에는 다만 지각에 대한 감 각 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의식은 이제 우리들의 사고 과정의 일부에 대한 감각 기 관이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두 개의 감각 표면이 존재하게 된다. 즉, 한쪽은 지각 을, 또 한쪽은 전의식적 사고 과정을 향한 감각 표면이다.

나는 전의식을 향하고 있는 의식의 감각 표면이, 수면 상태에 의해서 지각 조직을 향하고 있는 감각 표면보다도 훨씬 자극을 덜 받는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밤의 사고 과정에 대한 관심의 포기는 물론 큰 의미가 있다. 전의식이 잠을 자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꿈이 일단 지각되면 꿈은 이제 획득된 여러 특질에 의해서 의식을 자극할 수 있다. 이 감각 자극은 바로 그 점에 그것의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완성한다. 말하자면, 감각 자극은 전의식이 처분할 수 있는 부착 에너지의 일부를 그 흥분 자극에 대한 주의의 형식으로 지휘한다. 그러므로 꿈은 언제나 잠을 깨운다. 즉 전의식의 쉬고 있는 힘의 일부를 활동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꿈은 이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관련과 이

해를 생각해서 제2 가공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꿈이 다른 모든 지각 내용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꿈은 그 재료가 허용하는 한, 동일한 기대 표상에 굴복한다. 꿈 과정이 꿈의 이런 제3부와 관련되는 한에는 여 기서 다시 그 움직임의 방향이 전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여러 꿈 과정에서의 시간적 여러 특성에 관하여 한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확실히 모리의 단두대에 관한 꿈의 수수께끼에 자극된 것 같은 고블로(Goblot)의 대단히 흥미 있는 생각은, 꿈이란 잠자는 것과 깨는 것 사이의 과도적 기간의 시간 외의 다른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깨는 데는 시간을 요한다. 이 시간 동안에 꿈이 꿔진다. 꿈의 최후 영상은 대단히 강력하고, 이 때문에 잠을 깬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상은 우리들이 최후 영상에서 잠을 깰 일보 전에 접근하고 있음으로써만 이 최후 영상은 대단히 강력했다고 고 블로는 생각한다. "꿈은 시작된 각성이다."

되가(Dugas)는 고블로 설(說)을 일반화하려면 많은 사실이 무시되어야 한다고 이미 강조했다. 잠을 깨지 않는 꿈도 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꿈내용으로 삼고 있는 많은 꿈이 그것이다. 꿈 작업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에 따르면, 꿈 작업은 잠을 깨기 위해 필요한 시간 안에서만 행하여진다는 의견이 승인되기어렵다. 거꾸로 꿈 작업의 첫 부분은 낮 사이의 이미 깨어 있는 동안에, 아직 전의식의 지배 밑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꿈 작업이 두번째 부분, 검열에 의한 변경, 무의식적 장면에 의한 견인, 지각으로의 전진 등은아마 밤새도록 계속해서 행하여진다. 그리고 그러는 한에는 무엇을 꿈꾸었는지를말할 수 없으나, 여하튼 하룻밤 동안 줄곧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꿈 과정이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은 시간적 순서를 의식화하기까지 꼭 지킨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첫째로 옮겨진 꿈 소망이존재하고, 다음에 검열에 의한 왜곡이 행하여지고, 그 위에 역행의 방향 전환이 계속되는 등등의 시간적 순서말이다. 설명의 필요상으로 그런 순서를 세워 본 것에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론 이 길 저 길의 동시적인 음미, 흥분의 거래가 있은 뒤에 흥분의 가장 합리적인 중첩에 의해서 어떤 군 구성(群構成)이 최종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나 자신은 개인의 몇 경험에 따라서 꿈 작업이 산물을 내기까지에는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믿으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꿈을 만드는 비범한 기술도 별로 놀랄 것이 못 된다. 지각상의 한 사상으로서의 '이해될 가능성'에 관한 사고마저도, 꿈이 의식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당기기 전에 활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의식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긴 뒤에 꿈 과정은 속도를 빠르게 한다. 왜냐하면 꿈은 이제 어떤 다른 지각된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 시간의 준비 끝에 순간적으로 점화되는 불꽃놀이의 불꽃과 같은 것이다.

꿈 과정은 꿈 작업에 의해서, 잠자는 시간이나 깊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의식을 자기 위에 끌어당기고, 전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충분한 강도를 획득하거나, 혹은 그 강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잠을 깨기 직전에 활발성을 증가한 주의가 꿈 과정에 향해지기까지 대기의 자세를 가진 대로 있거나, 어느 한쪽이다. 대부분의 꿈은 비교적 근소한 마음의 강도를 가지고 일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 꿈들은 각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경우, 우리들이 갑자기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에 대체로 꿈꾼 것을 지각하는 것도 설명된다. 그때 첫 일변(一瞥)은 자연히 깨었을 때와 같이 꿈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각 내용에 대향(對向)되고, 다음의 일변은 바깥에서 주어진 지각 내용에 대향된다.

그러나 보다 큰 이론적인 관심은 잠든 사람을 깨게 하는 꿈들에 있다. 우리들은 보통 도처에서 증명할 수 있는 합목적성을 염두에 두고, 왜 도대체 무의식적 소원인 꿈에는 전의식적 소망의 성취인 잠을 방해하는 권한이 허용되는가 하고 물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에너지의 관계에 원인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들은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아마 이런 것이 알려지지 않을까? 즉 우리들이 꿈을 묵인방치하고 있는 것과, 꿈에 대하여 파견된 약간의 주의력의 소비는, 무의식이 낮 동안과 같이 밤에도 결박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의 절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꿈은 같은 밤 동안에 되풀이하여 잠이 깨뜨려지려고 해도 잠과 잘 조화된다. 한 순간에 눈을 뜨나 바로 또 잠든다. 잠자면서 파리를 쫓는 것과 같다. 우리들은 '그 목적

으로' 눈을 뜬다. 잠을 계속할 때에 우리들은 이미 방해를 제거해 버린 것이다. 잠의 소망 충족은 보모의 꿈 등의, 다 알고 있는 예가 표시하듯이,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주의력의 약간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과 잘 조화된다.

그러나 여기서 무의식적 여러 과정의 더 좋은 지식에 의거한 항의 하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의식적 소망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깨었을 때에 인정될 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수면 상태가 존재하고, 무의식적 소망이 꿈을 형성하고, 그 꿈을 가지고 전의식을 눈뜨게 할 힘을 보여 주면, 일단 꿈이 지각된 뒤에 이 힘은 왜 침묵하는가? 오히려꿈이 쫓겨도 되풀이하여 날아오는 귀찮은 파리와 같이, 늘 새롭게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꿈이 수면 방해를 제거한다고 주장할까?

무의식적 소망이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대로이다. 이 소망은 어느 흥분량이 그것을 사용하려는 때마다 통과가 가능한 통로를 표현하고 있다. 무의식 적 여러 과정이 파괴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이 걸출한 하나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무의식 속에서는 아무것도 종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소멸되지 않고, 혹은 아 무것도 잊어지지 않는다.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증을 연구하면 무의식이 물론 그 런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발작 때의 방출을 촉진하는 무의식적 관념 통로는 적당량 의 흥분이 집적되자마자 즉시로 다시 통행 가능의 상태가 된다. 30년 이전에 받았 던 모욕이 무의식적 정념(情念) 원천으로의 길을 만들어내면, 그 30년 동안이 마 치 방금 받은 모욕인양 작용한다. 그 기억이 건드려질 때마다 모욕감은 다시 소생 하고. 한 발생에 있어서는 운동적 방출이 되어서 외화(外化)하는 흥분으로써 충족 된다. 바로 여기서 정신 치료학이 손을 써야 한다. 그 임무는 무의식적 과정을 위 하여 해소와 망각을 만드는 일이다. 즉 우리들이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간의 심적 기억 잔존물의 제1차적 영향이라고 설명하기 쉬운 기억 감퇴나. 이미 최근의 것이 되지 못한 여러 인상의 감정 약화 등은 사실상 고통스러운 노력의 결과로 만 들어진 제2차적인 변화이다.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전의식이다. 그리고 정신 치 료학은 무의식을 전의식의 지배하에 굴복시키는 이외의 방도를 정할 수 없다. 그

러므로 개개의 무의식적 흥분 과정으로서는 두 개의 출구가 있다. 스스로 자기를 처리하든가. 또는 전의식의 영향 밑에 놓이든가 둘 중의 하나이다. 첫째 경우에는 흥분 과정은 어디엔가 뚫고 들어가서 자신의 흥분에 그때그때의 운동력으로의 방 출구를 만들고, 둘째의 경우에는 그 흥분은 전의식에 의해서 방출되는 대신에 속 박된다. 그러나 후자는 꿈 과정의 경우에 생긴다. 에너지 부착은 의식 흥분에 의해 서 지도되기 때문에. 지각된 꿈에 대해 전의식 쪽에 주어지는 에너지 부착은 꿈의 무의식적 흥분을 구속하고, 이 무의식적 흥분을 방해로서는 무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꿈을 꾸는 당사자는 잠에서 깨어날 순간에 실제로 잠을 방해하려는 파리 를 쫓은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즉 무의식을 잠자는 모든 시간 중에 붙잡아 매어 두기보다는 무의식적 소망을 방임하고, 역행으로의 길을 자유롭게 밟게 하고, 꿈을 형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꿈을 전의식적 노력의 근소한 소비에 의해서 구속하고 처리하는 편이 실제로 합리적이고 안가(安價)하였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꿈은 본래 합목적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 음의 영위의 여러 힘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기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이 기 대된다. 이 기능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 꿈은 무의식의 자유에 방임되고 있는 흥분을 다시 전의식의 지배 밑에 두는 임무를 인수하고 있 다. 이때 꿈은 무의식의 흥분을 방출시키고, 무의식에 대해서 안전판으로서 봉사 하고. 동시에 깨었을 때의 활동력을 조금 사용하여서 전의식의 잠을 확보한다. 이 렇게 꿈은 같은 계열의 다른 심적 형성물과 똑같이 하나의 타협으로서 두 조직이 협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두 조직의 여러 소망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두 조직에 봉사한다. 앞에서 보고된 로베르트(Robert)의 '배설론(Ausscheidungstheorie)'을 살펴보면, 꿈 과정의 여러 전제나 평가에 관해서는 그에게 동조할 수 없으나, 꿈의 기능을 규정하는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이 저자가 말한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 다 24

24 이것이 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알퐁스 메더(A. Maeder)는, 꿈에 대하여 다른 '제2차적' 여러 기능을 인정하려고 한다. 그는 많은 꿈이 나중에 사실상 해결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따라서 깨었을 때 활동으로의 준비 훈련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올바른 관찰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꿈을 꾼다'는 것을 동물이나 아이들의

'두 소망이 서로 조화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한정은 꿈의 기능이 파탄에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다. 꿈 과정은 우선 무의식의 소망 충족으로서 허용된다. 만일에 이 시도된 소망 충족이 전의식을 너무 강하게 흔들어 놓아서 안정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꿈은 협정을 깨뜨리고 자신의 임무의 다른 부분을 다하지 못한다. 이때 꿈은 즉시 중단되고, 완전한 깸으로 대체된다. 보통 잠의 수호자인 꿈이 잠의 방해자로서 등장해도 이는 본래 꿈의 책임이 아니며, 이 때문에 우리도 꿈의 합목적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보통 때에는 합목적적인 장치가 그것의 성립 조건에 무엇인가 변화가 오자 합목적이 되지 않고 방해적이 된다는 것은 유기체에 있어서의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그리고 이때 방해는 적어도 거기에 일어난 변화를 알려주고, 이 변화에 반항하는 유기체를 규정할 수단을 깨우쳐 주려는 새로운 목적에 봉사한다. 물론 나는 불안 꿈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 나는 소망 충족론을 반박하는 이 중인을 기피하는 것같이 보이고 싶지 않으므로, 여기서 나는 적어도 암시적이나마 불안 꿈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발전시키는 심리적 과정이 하나의 소망 충족이 될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모순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 사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소망 자체는 무의식 조직에 속하는 반면에, 전의식의 조직은 이 소망을 거부하고 억제한다는 것을 통해 해명

유희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유희는 생득(生得)의 여러 본능의 연습 운동으로서, 다음의 진정한 행동 준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꾼다'는 '유희 기능'을 상정했다. 메더 보다 조금 이전에 꿈의 '예고' 기능이란 것이 아들러(Alfred Adler)에 의해서 강조되었다. (1905년 내가 공포한 한 분석에서는, 계획으로서 이해될 하나의 꿈이 매일 밤 그 실행에 이르기까지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꿈의 이 '제2차적' 기능은 꿈 해석의 범위 안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미리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해결의 시도를 입안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때에 따라서는 나중의 각성 시 생활 속에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나 이와 비슷한 많은 일은 정신의 무의식적 및 전의식적 활동의 소치(所致)이고, 정신의 무의식적 및 전의식적 활동은 또 '낮 동안의 잔존물'로서 수면 상태 속에 계속되고, 그 후에 무의식적 소망과 함께 꿈을 형성하는 데에 협력할수 있다. 그러므로 꿈의 예고적 기능은 오히려 그 소산(所産)이 꿈과 기타 여러 현상의 분석에 의해서 추찰(推察)할 수 있는 전의식적 각성 시의 사고의 한 기능이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꿈과 꿈의 현재 내용과를 혼동하여 왔으나, 지금은 또 꿈을 꿈의 잠재 내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sup>25</sup> 전의식에 의한 무의식의 지배는 완전한 마음의 건강 상태에서도 결코 철저한 것이 아니다. 이 억제의 정도가 우리들의 마음의 정상성의 정도를 결정한다. 신경증의 여러 증세는 두 조직이 서로 갈등 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며, 그 여러 증세는 이 갈등에 잠시 결말을 짓는 타협의 성과이다. 이것들은 일면으로는 무의식에 대해서 그 흥분의 방출구가 되고, 무의식에 배설구로서 봉사하고, 또 일면으로는 전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을 어느 정도 지배하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예를들면, 히스테리성의 공포증 또는 광장 공포의 의미를 고려하는 일은 참으로 유익하다. 어느 신경증 환자는 혼자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이 증세를 해소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공포의 발작이 생긴다. 이것은 노상의 공포 발작이 종종 광장 공포의 발생에 대한 계기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증세가 형성된 것이 공포의 폭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포증은 불안에 대해서 국경 요새와같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이 여러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우리는 논의를 이 이상 진행
- 25 "이와 똑같이, 미숙한 사람들이 등한시하기 쉬운 제2의, 더 중요하고 심각한 계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 다. 소망 충족은 물론 쾌락을 가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때에 그 쾌락을 누구에게 가져오는가의 문제 가 생긴다. 물론 그 소망을 가진 본인에게 가져온다. 그러나 꿈을 꾼 본인에 관해서, 그는 자기의 여러 소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 그는 그 소망을 비난하고, 이에 검 열을 가한다. 요컨대, 그 소망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소망 충족이 그에게 쾌감을 가져다 줄 리가 없다. 그 반대의 것이다. 어쨌든 경험은,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것이 공포라는 형식으 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본인은, 자기의 꿈 소망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뚜렷한 공통성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두 인물의 합계와 비슷하다. 더 설명하는 대신에 나는 여러 독 자들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하련다. 여러분들은 이야기 속에서 같은 여러 관계를 발견할 것이다. 친절한 요정은 어떤 가난한 부부 두 사람에게 처음의 세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기뻐서 무엇을 바랄까 하고 상담했다. 아내는 이웃집에서 풍기는 소시지에 유혹되어서 저런 것 두 개 를 바란다고 말했다. 곧 눈앞에 그것이 나타났다. 이것이 첫 소망 충족이다. 남편은 화가 나서, 이런 소시지는 너의 콧등에나 붙으라고 욕을 퍼부었다. 이 소망도 충족되어 콧등에 소시지가 드리워졌다. 이것이 제2의 소망 충족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편의 소원의 충족이었다. 이 소망 충족을 보고 아내는 기분이 나빠졌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 것이다. 둘은 결국 부부이기에 제3의 소망은 자 연히 아내의 콧등에 있는 소시지가 없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관련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두 의견이 일치를 보지 않을 때에는 한쪽의 소망 충 족이 다른 편의 불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설명으로서만 인용한다(《정신 분석학 입문》 제14장)."

할 수 없으나, 지금 여기서 그것을 충분히 논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세우려고 한다. 즉 무의식의 억제는 우선 무의식 속에 자유롭게 방임된 표상의 흐름이 본래 쾌락의 성격을 가졌으나, 억제의 과정을 지난 뒤에는 불쾌의 성격을 지니는 감정을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무의식의 억제는 이 불쾌의 발전을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예방에 성공한다. 표상 내용으로부터 불쾌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억제의 범위는 무의식의 표상 내용에까지 펼쳐진다. 이런 생각의 근거는 감정 발전의 성질에 관한 어떤 특정한 가정이다. 감정 발전은 그 때문에 무의식의 여러 표상 중에 신경 지배의 열쇠가 놓여 있는 운동적 또는 내분비 작용적 업적으로 간주된다. 전의식 측에서의 지배에 의해서 이 여러 표상은, 말하자면 탈각(脫殼)되고, 감정을 발전시킬 충동 방사(放射)가 저지된다. 그러므로 전의식 측에서의 에너지 교부가 중지되는 때의 위험은 무의식적 흥분이—그 이전에 행한 억압 때문에—오로지 불쾌감이나 불안으로서만 느껴지는 감정을 방출할 위험이 생긴다.

이런 위험은 꿈 과정이 향하는 대로 내버려 둘 때에 폭발한다. 이런 위험 폭발의 여러 조건은 억압이 끝났다는 것, 또 억압된 소망 충동의 힘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 여러 조건은 꿈 형성의 심리학적 테두리 바깥에 있다. 만일에 우리들의 주제가, 잠자는 동안의 무의식의 해방이란 한 계기에 의해서 불안감 발전이란 주제와 서로 관계하지 않았더라면 불안 꿈을 토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불안 꿈에 덧붙어 있는 모든 애매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이미 내가 되풀이하여 말한 것과 같이, 불안 꿈에 말한 것과 같이, 불안 꿈에 관한 이론은 신경증 심리학의 분야에 속한다. 나는 꿈속에서의 불안이 불안에 관한 문제이고 결코 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일단 불안의 꿈 과정과 주제와의 접촉점을 표시하였으므로, 이 이상 더 불안에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신경증적 불안이 성적 원천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성적 재료를 불안 꿈의 꿈 사상 속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불안 꿈을 분석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신경증 환자가 나에게 말해 준 꿈의 실례 전체에 언급하는 것을 단념 하고 젊은이의 불안 꿈만을 취급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자신은 몇 십 년 동안이나 본격적인 불안 꿈을 꾸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7, 8 세 때에 이런 꿈을 꾼 기억이 있다. 이 꿈을 나는 30년이 지나서 해석하였다. 이 꿈은 참으로 선명한 꿈이었다. 사랑스러운 어머니는 참으로 침착하고 졸리는 얼굴 을 하고 있다. 새 주둥이를 한. 두 (혹은 세) 사람에 의해서 어머니는 방 안에 운반 되어서 침대 위에 눕혀진다. 나는 울면서 눈을 뜨고 부모의 잠을 방해하였다. 이 상한 옷을 입고 대단히 키가 크고 새의 주둥이를 한 사람의 모습을 나는 '필립손 (Philippson)'의 성서의 삽화에서 취했다. 나는 이것을 이집트의 묘석의 솔개 머리 를 가진 신들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집 앞에 있는 잔디에서 친구들과 곧잘 놀곤 했던 가정 관리인의 품행이 좋지 못한 아이에 관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이 름이 '필립(Philipp)'임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이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성교를 뜻하는 저속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이 말을 쓰지 않고 라틴어 '성교 하다(coitieren)'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솔개 머리를 선택함으로써 뚜렷이 암시된다. 26 나는 이 말의 성적 의미를, 세상 경험 많은 학교 선생의 표정에서 추측 하였을는지도 모른다. 꿈속에서의 어머니의 얼굴은 할아버지의 얼굴이다. 나는 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코를 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꿈에서의 제2차 가공을 분석하면, '어머니'가 죽는다는 것이었을는지도 알 수 없다. '묘'의 조각 역시 이와 일치한다. 이런 불안 속에서 나는 눈을 떴고 부모가 일어날 때까지 이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았다. 마치 내가, 어머니는 역시 죽지 않았 구나 하는 안도감을 필요로 한 것같이.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때에야 갑자 기 기분이 평정을 찾았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 꿈의 이런 제2차 판단은 확실히 이 미 발전된 불안감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죽는 꿈을 보았기 때문에 나 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 아니다. 그렇지는 않고, 내가 이미 불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의식적 가공 속에 이 꿈을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불안 꿈은 억압에 의해서 꿈의 시각적 내용 속에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는, 뚜렷이 성적인, 어

<sup>26</sup> 저속한 말은 독일어 vögeln이고 이 말은 새를 뜻하는 vogel에서 유래된다.

떤 희미한 욕정에 환원된다.

1년 동안 심한 신경증으로 괴로워하는 27세의 남자는, 열한 살부터 열세 살 사이 에 강한 불안감에서 몇 번이나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한 사나이가 도끼를 들고 쫓아온다. 그는 뛰어 달아나려고 하나 마비되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 것은 흔히 있는, 그리고 틀림없는 성적 불안 꿈의 좋은 예이다. 분석 중에, 나는 환 자가 우선 먼저 시간적으론 나중이 되나 백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냈다. 즉 백부가 밤에 노상에서 의심스러운 남자에게 습격당한 이야기이다. 이 환자는 이 기억을 계기로 하여 다른 일 하나를 생각해 냈다. 즉, 그가 이 꿈 이야기를 들 은 때에, 이와 매우 비슷한 체험에 관해서도 들은 것 같다는 것이다. 도끼에 대해 서는, 그가 그 나이 때에 한 번 나무를 쪼개려고 하다가 '도끼'에 손을 다친 일이 있 었음을 생각해 냈다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동생에 대한 관계를 회상했다. 그는 곧 잘 동생을 놀리고 내어 던지곤 했으며, 특히 어느 때에는 동생의 머리를 장화로 때 려서 피를 흘리게 한 적도 있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섭다. 너는 어느 때엔가 는 동생을 죽일 거야."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냈다. 그가 이렇게 '난폭한 행위'라는 것에 붙잡혀 있을 때에, 갑자기 아홉 살 때의 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때 그가 잠 을 자는 체하고 있을 때에 부모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침대로 갔다. 그는 다음에 숨찬 소리와 소란함을 들었고 그는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그는 또 침대 속에 있는 부모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때 이후의 그의 여러 관념은 이런 부모의 관계 와 동생에 대한 자기와의 관계 사이에 어떤 상사점(相似點)을 만들었다는 것을 표 시한다. 그는 부모 사이에 일어난 것을 '난폭한 행위와 격투'란 개념으로 총괄하였 다. 이런 견해는 그가 어머니의 침대 속에서 종종 핏자국을 발견한 데에서 뒷받침 되었다

어른들의 성행위가 그것을 목격한 아이들에게는 불안스럽게 생각되고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성적 흥분에서 비롯된다. 이 성적 흥분은 아이들의 이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부모가 이 흥분에 관계하고 있으므로, 아마 아이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그러므로 불안으로 변했을 것이다. 아이가 더 어릴 때에는 양친 중의 어느

한쪽, 자기와 성을 달리하는 쪽에 대한 성적 충동은 억압에 부딪치지 않고 자유롭게 바깥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위에서 말했다.

빈번히 밤중에 아이들에게 환각과 함께 일어나는 불안 발작(야경증·Pavor nocturnus)에 관해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같은 설명을 적용하고 싶다. 여기에서 도 문제는 이해되지 않고 거부된 성적 흥분에 있다. 이 흥분을 기록해 보면 시간상으로 주기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리비도는 흥분된 여러 인상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점차로 나타나는 자동적인 여러 발달 과정에 의해서도 우연히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이 해명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관찰 재료가 결핍되어 있다. "또 한편 소아과 의사들은 완전한 일련의 여러 현상을 신체적인 면에서나 심적 면에서나 이해시킬 수 있는 관점을 결핍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이 의학적 신화라는 눈가림에얼마나 장님이 되어서 그러한 경우를 잘못 이해하는가의 우스운 실례로서, 내가드바케르(Debacker)(1881년)의 불안 발작(Pavor nocturnus)에 관한 명제 중에서발견한 실례 하나를 인용하고자 한다.

몸이 약한 열세 살이 된 사내아이는 신경질적이 되고 환상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의 잠은 불안스러워지고 거의 매주일 한 번씩 환각을 동반한 맹렬한 불안 발작으로 수면은 방해를 받았다. 꿈에 관한 기억은 아주 뚜렷했다. 이 아이는 '악마'가 자기를 향하여 "인제 너를 붙잡았어, 너를 붙잡았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역청과유황 냄새가 나고 불이 그의 피부를 태웠다고 꿈 내용을 설명했다. 이 꿈에서 놀라잠을 깨었으나, 이 사내아이는 처음엔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었다. 그러는 중에 소리가 나와, 이렇게 말하는 뚜렷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를 붙잡아서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혹은 또, "어서 놓아줘, 이제부터는 안 하겠어." 두서너 번은 이렇게도 그는 말했다. "알베르는 그런 짓을 하지않았어요."라고. 그는 나중에는 옷을 벗기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벗고 있을때에는 불이 그에게 붙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였던 이런 악마 꿈에 괴로움을 받다가 그는 시골로 보내졌다. 거기에서 1년 반 만에 건강이 회

27 이 재료는 전부터 정신 분석학의 문헌 중에 풍부히 제시되어 있다.

복되었다. 그 뒤 열다섯 살 때에 다시 한 번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즉 "제 스스로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지만 사실 언제나 '국부'에 아픔을 느꼈다. 이 때문에 드디어 짜증이 나서 창문에서 몸을 던지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sup>28</sup> 다음과 같이 추측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것이다.

- (1) 이 아이는 어릴 때에 수음을 하고는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를 아마 부인한 것 같다. 이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위협을 받았다. (그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의 부정 "알베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 (2) 사춘기 시절 수음의 유혹이 생식기가 간지러워지면서 다시 생겼으나, 지금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선 억압의 투쟁이 리비도를 억압하여 이를 불안으로 변화시켰으며, 이 불안은 당시 위협을 받은 벌을 늦게나마 생각나게 하였다.
- 이에 관한 저자의 결론을 들어 보자.
- "이 관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났다.
- (1) 몸이 약한 사내아이에 있어서 사춘기의 영향은 대단히 연약한 상태를 초래하고, 이때 '심한 뇌빈혈'을 일으킨다.
- (2) 이 뇌빈혈은 성격을 변화시키고 귀신의 환각이나 대단히 열렬한 밤의 또는 낮의 불안 상태를 낳는다.
- (3) 귀신의 환각과 소년의 자기비판은 아이 시절에 작용했던 종교 교육의 여러 영향에 원인이 있다.
- (4) 오랫동안의 전원생활의 결과로, 모든 현상은 육체의 단련과 정력의 회복에 의해서 사춘기를 넘기면서 없어졌다.
- (5) 우리는 아마 이 사내아이의 뇌 상태의 발생에 대한 소질적 영향을, 유전과 아버지의 오랜 매독에 원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우리들은 그런 관찰을 무열 신체 쇠약성(無熱身體衰弱性) 정신 착란의 종류에 넣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특수한 상태를 대뇌 국소 빈혈(大腦局所貧血)과 관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8 이 문중(文中)의 ' '로 표시한 부분은 필자(筆者)의 강조 부분.

## 5. 제1차 과정과 제2차 과정, 억압

내가 감히 꿈 과정의 심리를 더 깊이 꿰뚫고 들어가려는 때에 나는 나의 서술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한 과제에 부딪쳤다. 동시 발생하는 대단히 복잡한 관계를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게다가 전제조건 없이 모든 진술에서 그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은 나에게 힘겨운 일이다. 내가 꿈 심리를 서술할 때에 나의 견해의 역사적 순서를 무시한 사실이 이제 나에게 복수하고 있다. 꿈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관점이 신경증 심리학에 관한 선행된 여러 연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으나, 이 연구를 나는 여기서 끄집어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둘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반대 방향에서 꿈쪽으로부터 신경증 심리학으로 연결을 지어보려고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나는 독자들에게 많은 곤란을 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런 독자들의 곤란을 피할 방도를 모른다.

이런 사정에 불만스럽기에, 나는 나의 노고의 값어치를 높여 줄 것으로 보이는 다른 관점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나는 앞에서 주제 하나를 발견하였다. 제1장의 서두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이 주제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있었다. 우리들이 꿈에 관한 여러 문제를 처리한 지금 그 많은 모순도 이미 모순이 아니었다. '꿈은 무의미한 현상'이라는 것과 '꿈은 신체적 현상'이라는, 이미주창된 두 견해에 대해서 우리들은 단호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두 의견 이외의 서로 모순된 모든 의견에 대해서는, 복잡한 관련 속에서 그것이 있을 곳을 지시하고, 그 의견들도 각기 어떤 올바른 것을 파악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꿈이, 깨어 있는 생활의 자극과 관심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꿈 사상'을 발견함으로써 아주 일반적으로 실증되었다. 꿈 사상이란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의 관심을 강력하게 끄는 것에만 몰두한다. 꿈은 평범한 것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정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꿈은 낮 동안의 아무것도 아닌 찌꺼기를 취하고, 어떤 중요한 낮 동안의 관심이 깨었을 때의 사고 작업의 손에서 조금 떠날 때까지는 그것에 손을 대지 못한다고. 우리들은 또 이 같은 사정이 왜곡에 의해서 변화된 표현을

꿈 사상에 주는 '꿈 내용'에도 적합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꿈 과정은 연상 메커니즘 의 여러 이유 때문에, 깨어 있는 때의 사고 활동이 아직 착수하고 있지 않는 최근 의, 또는 사소한 표상 재료를 더 쉽게 나의 것으로 하고, 검열이 두려워서 심적 강 도를 중대하나 검열에 걸리는 것으로부터 그다지 의미 없는 것으로 옮긴다고 우리 들은 서술하였다. 꿈의 이상 기억력과 소아 시절의 재료 처리는, 우리들의 꿈 이론 의 초석과 같은 것이 되었다. 우리들은 꿈 이론에서, 유아적인 것으로부터 유래한 소망이 꿈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발동기의 역할을 함을 인정하였다. 물론 실 험적으로 증명된, 잠자는 동안의 외계로부터의 감각 자극의 의미를 의심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꿈 소망에 대한 관계에서 이 재료를 낮 동안의 작업이 남긴 관념 찌 꺼기와 똑같이 취급했다. 꿈이 객관적 감각 자극을 착각의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 는 데에 반대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들은 많은 학자들이 정하지 못한 대로 버려둔 계기를 이 해석에 덧붙였다. 즉 지각된 객체가 잠을 방해하지 않고. 소망 충족에게 이용될 수 있게 해석된다. 트럼벌 래드(Trumbull Ladd)에 의해서 증명된 듯 보이 느. 잠자는 동안의 감각의 여러 기관의 주관적 흥분 상태를 우리들은 물론 특별한 꿈 원천으로 정하지는 않으나, 그 상태를 꿈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기억 의 역행적 재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즐거이 꿈을 설명하는 중요점으로 여겨지 는 내적 · 기관적 여러 자극도 우리들의 견해로는 근소하나.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그 자극들은—낙하ㆍ부유(浮游)ㆍ저지된 것의 느낌—꿈 작업이 필요함 때마다 꿈 사상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는, 언제나 출동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재 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꿈 과정이 빠르고 순간적인 것임은, 의식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꿈 내용의 지각으로서는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생각된다. 꿈 과정에 선행되는 여러 단계로서는 느리고 파동적인 경과가 있음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다. 그리고 최단 시간 내에 아주 풍부한 꿈 내용이 압축되는 수수께끼의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심리적 활동의 형성물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그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 꿈이 추억에 의해서 왜곡되고 훼손된다는 점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으나, 그것 때문에 꿈 해석이

방해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꿈을 형성할 시초부터 작용하고 있는 왜 곡 작업의 최후의 현재적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밤에 잠자 는가, 혹은 낮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가 라는, 일견 이해할 수 없는 맹렬한 논쟁을 보고 우리는 양자를 전면적으로 다 찬동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시인하였다. 우리는 꿈 사상 중에 인간의 마음이 소유하는 거의 모 든 수단을 써서 일하는 극도로 복잡한 지적 작업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런 꿈 사 상이 낮 사이에 생긴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심적 생활의 수면 상태의 존재를 가 정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분적 수면설까지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면 상태의 특색을 심적 관계가 무너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낮 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심적 조직이 잠자려는 소망에 맞추어서 체제를 바꾸어 정비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했다. 외계로부터의 이반(離反)은 우리들의 견해로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유일한 계기로서가 아니라도 역행이 가능하도록 꿈 표현을 돕는다. 표상 경로의 자의적인 지휘를 단념하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 그러나 마음의 생활에 목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 표상을 포기하게 되면, 바라지 않는 목표 표상들이 지배력을 갖게 되기 때문 이다. 우리들은 꿈에서의 늦추어진 연상 결합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 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아울러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늦추어진 연상 결합이 또 다른 하나의 정확한, 의미 깊은 연 상 결합의 부득이하게 생긴 대용물인데 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우리들도 꿈은 역시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꿈의 실례는, 꿈의 황당무계성이 사 실은 꿈의 깊은 지혜에서 생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꿈에 관해 서 승인된 여러 기능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인정할 수 없다. 꿈이 공기를 바꾸는 장치와 같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는 것. 그리고 로베르트의 표현에 따르 면, 모든 종류의 해로운 것이 꿈속의 표상 작용에 의해서 해롭지 않게 만들어진다 는 것은, 꿈에 의해서 소망이 이중으로 충족된다는 우리들의 설과 밀접하게 일치 한다. 뿐만 아니라, 로베르트보다 우리가 그 의미를 한층 더 잘 이해한다. 마음 자 신의 여러 능력을 자유롭게 작용시켜서 착실하게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전의식의 활동에 의한 꿈의 방임"이다. "심령 생활의 꿈에서의 태생적 견지로의 귀환"과 엘리스의 "막연한 감정과 불완전한 여러 사상과의 태고적인 한 세계"란 말은, 낮에는 억제된 '원시적'인 작업 방식이 꿈을 형성하는 데에 참가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견해의 훌륭한 선배인 듯 생각된다. 설리의 주장, "꿈은우리들의, 순서대로 발달한 낡은 인격, 사물을 관찰하는 낡은 방법, 우리들을 옛적에 지배하고 있던 충동이나 반응 방법을 현재 속으로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그대로 우리들의 주장으로 삼을 수 있었다. 들라주와 같이, 우리들도 역시 '억제된 것'을 꿈꾸는 원동력으로 생각한다.

세르너가 꿈의 공상에 돌린 역할과 그의 여러 해석 자체를 우리들은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그것들을 세르너와는 다른 맥락에서 보아야 했다. 꿈이 공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공상 활동이 꿈 사상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꿈 사상의 원천에 관한 시사에 대해서 우리들은 셰르너에 힘입고 있다. 그러나 셰르너가 꿈 작업에 돌리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낮에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의 활동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고, 이 활동이야말로 꿈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것과 같이 신경증적 증세에 대해서도 자극을 준다. 우리들은 꿈 작업을 전혀 다른, 훨씬 제약이 많은 것으로서 이 활동과 구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끝으로, 우리들은 꿈이 마음의 여러 흐름과 관계하는 관련을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반 위에 한층 더 견고하게 세워 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이론의 새로운 것과 더 높은 통일성에 의해서, 여러 학자들의 잡다하고 서로 모순된 여러 결론을 우리들의 이론의 건물 속에 덧붙이고, 그 이론 중의 많은 것을 다르게 이용하고, 극히 일부만 완전히 떼내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론도 미완성이다. 우리들이 심리학의 암흑 속에 뛰어 들어감으로써 우리들위에 끌어들인 많은 불명료한 점을 도외시한다고 해도,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모순이 우리들을 억압하는 듯하다. 우리들은 한편, 꿈 사상을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적 작업에 의해서 성립시켰으나, 또 한편으론 여러 꿈 사상 속에, 꿈 사상에서 출발하여 꿈 내용 속에도 끼치는 극히 이상한 사고 과정의 한 계열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이상한 사고 과정을 우리들은 꿈 해석에 있어서 되풀이한다. 우리들이 '꿈

작업'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음의 여러 과정으로부터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꿈꾸는 것은 얕은 마음의 업적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가장 냉혹한 판단이 이상스럽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다만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감으로써만 설명하고 교정(矯正)하게 될 것이다. 나는 꿈의 형성을 인도하는 여러 정세 중의 하나를 끄집어내려고 한다. 우리들은 꿈이 우리들의 낮 생활에서 유래하고, 완전히 논리적으로 덧붙여진 다수 의 사상을 대리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사상들이 정상적인 정신생활에서 생긴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우리 자신들의 사상 전개를 존중하 는, 또 그것이 있음으로써 사상 전개가 높은 질서의 복잡한 여러 업적임이 알려진 모든 특성을, 우리들은 꿈 사상 속에서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이 사상 작업이 잠 자는 동안에 행해졌다고 가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이런 가정을 수립하면 마음 의 잠자는 상태에 관한 여태까지의 굳게 가졌던 우리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도리어 이 사상은 확실히 낮에 시작되었고, 그 사상이 생긴 후부터 우 리들의 의식에 알려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여 온 것이며, 우리들이 잠드는 것과 동 시에 완성품이 되어서 존재하였다. 우리들이 이 사정으로부터 어떤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가장 복잡한 사고 업적도 의식의 참가 없이 가능하 다는 증명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히스테리 화자나 강박 관념을 가진 사람의 정신 분석에 의해서 경험하여야 했던 것이다. 이 꿈 사상은 그 자체가 확실히 의식 속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꿈 사상이 낮 동안에 우리들에게 의식되 지 않는다면 이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의식화는 어떤 특정한 심적 기능이 나 주의력의 공급과 관련한다. 그리고 이 주의력은 일견하여 다만 일정한 양에서 만 소비되고, 이 일정한 양은 다른 목표에 의하여 당해(當該)의 사상 활동에서 방 향이 돌려질 것이다. 그러한 사상 활동이 의식에 오를 수 없는 경우의 다른 한 종 류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들의 의식적 반성에 의해서 주의력을 소비할 때에. 우리 들은 하나의 특정한 길을 좇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도상에서 비판에 견디지 못 하는 한 표상에 부딪치면, 우리들은 그 길을 중단하고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을 멈

춘다. 시작되었다가 중지된 사상 활동은, 만일에 이 사상 활동이 주의력을 강제하는 특별히 높은 강도의 어떤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주의력이 이 사상 활동으로 다시 향하지 않아도 계속 될 수 있는 듯 보인다. 사고 행위의 실제적 목적으로서 옳지 않다거나 혹은 쓸모없다거나 하는 판단에 의한 의식에 따른 최초의 각하(却下)는,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 과정이, 의식 모르게 잠들 때까지 계속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은 이런 사상 활동을 '전의식'이라 하고, 그 활동을 완전히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며, 이런 활동은 단순히 등한시되거나 중단되어 억제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이 표상 경과를 구체적으로 공상하는가를 명백히 말해 두자. 우리들은 한 목적 표상에서 '부착 에너지'라고 부르는 어떤 흥분량이, 이 목표 표상에 의해서 선출된 연상의 길을 따라 이동한다고 믿고 있다. '등한시된' 사상 활동은 이러한 에너지 부착을 받지 않았고, '억압된' 혹은 '각하된' 사상 활동으로부터 에너지 집중이 철회되면서, 이 두 사상 활동은 각각 자신의 흥분에 내맡겨진다. 목적 때문에 에너지 부착을 받은 사상 활동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의식의주의를 자신에게 끌수 있고, 그러면 그 의식을 매개로 하나의 '초(超)에너지 부착 (Überbesetzung)' 상태에 있게 된다. 우리들은 의식의 성질과 업적에 관한 우리들의 가정을 조금 뒤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의식 속에서 자극된 사상 활동은 스스로 소멸되기도 하고, 지속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과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즉 그 에너지는 에너지에서 생기는 모든 연상방향으로 방사되면서, 하나의 사상 연쇄 전체를 흥분 상태로 옮겨놓고, 이 흥분 상태는 잠시 동안은 지속되지만, 다음에 운반을 요구하는 흥분이 조용한 에너지 부착으로 변화하면서 소멸한다. 이런 식의 진행이 나타나면, 이 과정은 꿈을 형성하는 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의 전의식 속에는 무의식의, 그리고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소망이란 원천에서 나온 다른 목표 표상이 숨어서 망을 보고 있다. 이 목표 표상들은 자기에 일임된 사상권 내의 흥분을 제 것으로 만들고, 이 사상권과 무의식 소망 사이에 결합 관계를 만들고, 무의식적 소망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 사상권으로 옮기고, 이때부터 등한시되었던

혹은 억제되었던 사상 활동은, 가령 이런 자기 강화가 있더라도 여전히 의식 속에 넣어지지 않아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은 이때까지 전의식이었던 사상 활동이 이제 무의식 속으로 넣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꿈을 형성하기 위한 다른 상황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전의식의 사고 활동은 처음부터 무의식적 소망과 결합하고, 이 때문에 주도적인 목적 에너지 부착(Zielbesetzung) 쪽의 거절에 부딪친다. 혹은 하나의 무의식적 소망이 다른 (예 컨대 신체적) 여러 이유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서, 전의식으로부터 에너지 부착을 받고 있지 않는 마음의 잔존물에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옮기고자 한다. 이상의세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상 활동이 전의식 중에 성립한다는 하나의 현상 속에 종합된다. 그리고 그 사상 활동은 전의식적 에너지 부착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무의식적 소망으로부터는 에너지 부착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어떤 사상 계열은 정상적인 마음의 현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련의 변화를 받는다. 또 그 변화는 우리들에게 정신 병리학적 형성이라는 낯선 결과를 낳는다. 그 여러 변화를 열거하여 보자.

(1) 표상 하나하나의 여러 강도는 그것들이 가진 분량에 따라 방출되고, 한 표상에서 다른 표상으로 옮겨간다. 이 결과, 큰 강도로 마련된 표상 하나하나가 형성된다. 이 과정이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사이에, 하나의 사상 계열 전체의 강도가 결국 하나의 표상 요소 중에 집중된다. 이것은 꿈 작업 동안에 우리들이 배워서 알았던 '응축(Kompression)' 또는 '압축'의 사실이다. 이 압축 때문에 꿈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이 압축과 비슷한 것은 우리들의 정상적인 심적 생활이나, 의식이 접근할 수 있는 심적 생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또 여기에서 모든 사상 연쇄의 결합점 혹은 궁극적 성과로서 큰 심적 의의를 가지는 여러 표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가치성은 내적 지각에 대해서 명백한 성격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지각 속에 표상된 것은 절대로 더 강해지지 않는다. 압축 과정에서는 모든 심적 관련이 표상 내용의 강도와 바뀐다. 그 것은 마치, 내가 어떤 책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단어의 곁에 줄을 치거나, 굵은 활자로 표시하는 것과도 같다. 만일 그것이 강연이

면, 나는 그 말을 한층 드높이 소리를 내어 천천히 힘을 넣어서 발음할 것이다. 첫 비유는 직접 꿈 작업에서 가져온 한 예(이르마의 주사에 관한 꿈에서의 '트리메틸 아민(Trimethylamin)')로 인도한다. 미술사가(美術史家)는 최고의 역사적 조각들이 이와 비슷한 원칙에 의해서, 묘사되는 인물들의 지위의 고저를 조각의 크기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에 우리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왕은 신하나 패자의 2배 혹은 3배의 크기로 표현된다. 로마 시대의 어느 조각품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더 오묘한 수단을 쓰고 있다. 황제는 복판에 곳곳이 세워졌다. 그 표정은 특별히 고려되어 있다. 적(敵)은 황제의 발밑에 놓여 있으나 황제는 거인으로, 적은 난쟁이 같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하역(下役)이 상역(上役)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저 옛 묘사 원리의 잔존물이다.

꿈 압축이 전진하는 방향은, 한편 꿈 사상의 정확한 전의식적 여러 관계에 의해서, 또 한편 무의식에서의 시각적 기억의 견인에 의해서 규정된다. 압축 작업의 결과 는 지각 조직을 향해서 돌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 더구나 강도의 이러한 자유로운 전이 불능성에 의해서 압축에 도움이 되는 '중간 표상(Mittelvorstellungen)', 말하자면 타협이 형성된다(무수한 예를 참조). 또역시, 이것은 '정상적' 표상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올바른 표상 요소를 선택하고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들이전의식적 사상을 말로 표현하려는 때에는 매우 빈번히 혼합형성물·타협형성물이생긴다. 이것들은 일종의 '말을 잘 못하는 것(失言)'으로 인정된다.
- (3) 각기(各其)의 강도(强度)를 서로 옮기는 여러 표상은 가장 느슨한 여러 관계에 있고, 우리들의 생각이 멸시하는, 다만 익살의 효과를 내는 데 이용되는 따위의 연상에 의해서 결합된다. 특히 동음연상과 동의어연상은 다른 여러 연상관계와 똑같은 가치로 통한다.
- (4) 서로 모순된 사상은, 서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나란히 서 있다. 이 사상은 '아무런 모순이 없는 듯'이 때때로 서로 접근해서 압축의 산물을 만들거나, 혹은 우리들이 우리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종 허용하는 타협을 형성한다.

이것은 미리 합리적으로 형성된 꿈 사상이 꿈 작업의 과정에 덧붙여진 가장 뚜렷한 비정상적 과정의 몇 가지이다. 이런 여러 과정의 주요한 성격은 부착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고, '방출가능(放出可能)하게'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긴다는 점에 있다. 이 에너지가 부착하는 마음의 여러 요소의 내용과 본래의 뜻은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축과 타협의 형성이, 관념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될 경우에 역행을 위해서만 봉사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우토디다스커—N 교수와의 대담'의 꿈과 같은, 형상으로의 역행을 결핍하고 있는 꿈 분석—더 뚜렷하게 말하면 꿈의 종합—은 다른 꿈과 똑같은 이동 과정과 압축 과정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봉쇄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꿈을 형성하는 데에는 두 종류의 본질이 다른 심적 과정이 참가하고, 그 과정은 한편으로는 올바른 생각과 같은 가치가 있는 완전히 정확한 꿈 사상을 만들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꿈 사상들을 참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취급한다. 이 후자를 우리들은 이미 전장(前章)에서 본래의 꿈 작업으로서 제외했었다. 그런데 이 후자는 어디에서 유래된 마음의 과정일까?

이에 대한 답은, 만일에 우리들이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증의 심리학 속으로 조금 깊이 파고 들지 않았더라면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신경증 심리학에 의해서 우리들은 여러 히스테리 증세의 형성을 조종하는 것이 이와 같은 부정확한 심리학적 과정—그리고 또 아직 표시되지 않은 여러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히스테리증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우선 매우 부정확한 일련의 의식적 사상과 완전히 같은 가치를 지닌 사상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사상이 이런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다만 나중에 다시 구성해 보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수 있다. 그 사상이 어느 한곳에서 우리들의 지각에까지 도달하였을 경우 우리들은 완성된 증세의 분석으로부터, 이 올바른 사상들이 이상하게 취급되고 압축과 타협 형성물에 의해서 표면적인 여러 연상을 거쳐서 모순 속에 감추어지면서 때로는 역행의 길을 지나서 증세 속에 인도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꿈 작업의 여러 특성과 신경증적 증세로 끝나는 마음의 활동은 완전히 일치하므로, 히스테리증이 우

리에게 강제하는 결론을 꿈 위에 옮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들은 히스테리에 관한 이론에서 다음 명제를 빌게 된다. 정규의 사상 계열이 소아적인 생활에서 유래하는, 또 억압 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 소망이 전이될 때에만, 정규의 사상 계열의 이상한 심적 가공이 나타난다. 우리들은 이 명제에 의거하여 꿈 이론을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세웠다. 즉 원동력적 꿈 소망은 언제나 무의식에서 기인한다. 우리들 자신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여러 번 그 이름을 빙자하였던 '억압(Verdrängung)'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기초를 조금 더 구축해야 한다.

우리들은 원시적 마음의 기구의 상상도를 깊이 파고 들어갔었다. 그런 마음의 활동은 흥분의 퇴적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흥분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은 반사(反射) 장치(裝置)의 도식에 따라 구성되었다. 운동력, 첫째로 신체의 내부 변화로의 길은, 이 마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출로(路)를 만들었다. 이 결과로 우리들은 어떤 만족을 체험한 마음의 결과를 논했다. 동시에 우리들은 하마터면 다음과 같은 둘째 번의 가정을 유도할 뻔했다. 즉 "흥분의 퇴적은—우리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식에 의해서—불쾌로 느껴지고, 마음의 기구를 활동시켜서 만족의 체험을 재산(再産)하고 그 체험 속에서 흥분의 감소는 유쾌로 느껴진다."라고. 우리들은 불쾌에서 유쾌로 향하는 마음의 기구 속의 흐름을 소망이라고 부른다. 또 우리들은, 마음의 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소망뿐이고, 소망 속의 흥분의 경과가 불쾌와 유쾌의 지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규정된다고 말했었다. 인간 최초의 소망은, 만족 기억의 환각적 에너지 부착이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환각은, 만일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 간직되지 않는다면 욕구의 정지, 그러므로 만족과 결합된 유래를 끄집어 내는 데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활동 우리들 표현으로 두 번째 조직의 활동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활동은 기억 에너지 부착이 지각에까지 돌진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여러 힘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거꾸로 욕구 자극에서 출발하는 흥분을 우회의 길로 안

내한다. 그 우회로는 결국 자유로운 운동력을 거쳐서 만족 대상의 현실적 지각이나타나도록 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우리들은 대체로 이 정도까지 마음의 기구의 도식을 그려보았다. 두 조직은, 우리들이 무의식과 전의식으로서 아주 완성된마음의 기구속에 넣어 두는 것의 싹이다.

운동력에 의해서 외계를 목적에 알맞도록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 의 여러 조직에서의 대량의 경험의 집적과, 목표 표상에 의해서 이 기억 재료 속 에 환기되는 여러 관계를 여러 가지로 고정시키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우 리는 우리의 가정에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두 번째 조직의, 가지각색의, 더 듬는 에너지 부착을 내어보냈다가 다시 끌어들이는 활동은 한편 모든 기억 재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또 한편 만일 그 활동이 개개의 사고로(路) 위에 부착 에너지양을 많이 보내고, 그 양이 허다하게 흘러버려서 결국 바깥의 변화 때문에 필요한 양을 감소하게 되면, 그것은 헛된 소비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합목적성 을 존중하는 데에서, 두 번째 조직이 부착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지 않고 보존하고. 다만 극히 작은 부분만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에 성공한다고 생각하고자 한 다. 이 과정의 구조를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성심껏 취급하려는 사람은, 그것의 물리학적으로 비슷한 사물을 찾아서. 신경 흥분에서의 운동 과정을 명백히 하는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첫 번째 Ψ-조직의 활동은 '흥분량의 자 유로운 흐름'을 목표로 하며, 또 두 번째 조직은 자신에서 출발하는 부착 에너지에 의해서 그런 흐름을 저지하거나 혹은 수준을 높이면서 안전한 에너지 부착으로 변 화한다는 생각을 고집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두 번째 조직의 지배하에 있는 흥분의 경과가. 첫 번째 조직의 지배하에 있는 그것과는 아주 다른 기계적 여러 사 정과 결합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조직이 그 음미적 사고 작업을 끝내면 이 조직 은 또 여러 흥분의 '저지'를 중단하고, 여러 흥분으로 하여금 운동력을 향해서 흘러 버리게 한다.

만일 우리들이 두 번째 조직에 의한 흐름의 저지가, 불쾌 원리에 의한 통제와 관계하는 것에 눈을 돌리면 일련의 흥미 깊은 생각이 생긴다. 일차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체험과 닮은 대조물은 '외적 경악의 체험'이다. 고통 흥분의 원천인 지각 자극은

원시적인 마음의 기구에 작용한다. 다음에 이 심적 기구의 뒤에 무질서한 긴 운동 적 출현이 따르고, 결국 그 운동적 출현의 하나는 이 마음의 기구를 지각으로부터 묘사하는 동시에 고통에서 그 기구를 멀리한다. 그러나 지각이 다시 나타날 때에 이 운동의 출현은 바로 그 지각이 다시 사라질 때까지. 예를 들면 도주 운동으로서 반복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이때에 고통 원천의 지각을 환각적 형식으로나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다시 점령하려는 경향은 여기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만일 고통스러운 기억이 어떤 방법으로 각성되면 그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상(記憶像)을 즉시로 내버리는 경향이 마음의 첫 번째 Ψ-조직에 수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억의 흥분은 지각 쪽으로 넘쳐흘러서 확실히 불쾌를 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더 정확하게 말해서 산출하기 시작한다). 지각으로부터의 이전의 도주의 반복에 지나 지 않는 기억으로부터의 일탈은 기억이 지각과는 달리 의식을 흥분하게 하고, 그 것에 의해서 기억 자체에게 새로운 에너지 부착을 끌어당길만한 특질을 가지지 않 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촉진된다. 심적 과정이 쉽게 규칙적으로 행하는 이전의 고 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의 일탈은. 심적 억압의 모범상(模範像)과 첫 실례를 우리 들에게 표명한다.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의 이러한 일탈 이나 타조의 전술의 많은 부분은. 심지어 어른들의 정상적인 심적 생활 속에서마 저 쉽게 논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Psi$ -조직은, 불쾌의 원리 때문에 어떤 불쾌한 것을 사고 관련 속에 끌어넣을 수 있다. 이 조직은 바라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태가 그렇다면 경험 속에 가라앉았던 여러 기억을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두 번째 조직의 사고 작업은 방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열려있다. 하나는 두 번째 조직의 작업이 불쾌 원리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기억의 불쾌 등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쾌 기억에 대해서 불쾌감의 발생을 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덧붙이는 길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거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불쾌 원리는 두 번째 조직의 흥분 경과의 한 조정기(調整器)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 번째 조직이 한 기억의 흐름을 저지하고, 따라서 운동적 신경 지배에 비할 수 있는 불쾌의 발전을 위한 흐름을 저지하는 방

법으로 기억에 에너지를 부착시키는 두 번째 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두 가지 출발점, 즉 불쾌 원리에 대한 고려와 최소의 신경 지배 소비의 원리에서 우리들은 두 번째 조직에 의한 에너지 부착이 동시에 흥분의 흐름에 대한 하나의 저지라는 가정에 인도된다. 그러나 이런 것을 뚜렷하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이것이 억압 이론의 요점이다—두 번째 조직은 어느 표상에서 오는 불쾌 발전을 저지할 수 있을 때에만 그 표상 에너지를 덧붙일 수 있다. 또 이 저지를 벗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두 번째 조직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존재하고, 불쾌 원리에 의해서 바로 포기될 것이다. 그러나 불쾌의 저지는 완전할 필요는 없다. 불쾌가조금 나타나는 것은 내버려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번째 조직에게 그 기억의 성질과, 그 기억이 생각에 의해서 추구되는 목적에 너무나 소용없는 것임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조직이 단독으로 허락하는 심리적 과정을 나는 지금 '제1차 과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조직을 저지하는 데에서 생기는 과정을 '제2차 과정'이라고 부른 다. 나는 또 두 번째 조직이 어떤 목적 때문에 제1차 과정을 수정해야 하는지도 다 른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다. 제1차 과정은 그렇게 해서 누적된 흥분량을 가지고 '지각 동일성'을 만들기 위하여 흥분을 방출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제2차 과정 은 이미 이 의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사고 동일성'을 얻으려는 다른 의도를 가지 고 있다. 모든 사고는 목적 표시가 되어 있는 만족 기억으로부터 같은 기억의 동일 한 에너지 부착에 이르는 하나의 우회의 길에 지나지 않으며, 이 동일한 에너지 부 착은 운동적인 여러 경험의 도상에서 다시 얻어질 것이다. 사고는 여러 표상 '강도' 에 의해서 미혹되는 일 없이 여러 표상 사이를 결합하는 길에 관심을 가질 것은 확 실하다. 그러나 여러 표상 · 중간 형성물 · 타협 형성물의 압축은 확실히 이 동일성 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압축은 하나의 표상을 다른 표상과 대치시 킦으로써 시초의 표상으로부터 계속되던 길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 차 사고에서 신중히 방지된다. 불쾌 원리가 또 심적 유출에게 가장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더라도 사고 과정이 사고 동일성을 찾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 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사고 과정은 불쾌 원리에 의한 전일적 통제로 부터 점점 일탈하여야 하고, 감정 발전을 신호로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한다. 이런 활동의 섬세화(纖細化)는 의식이 가져오는 최근의 과대(過大) 에너지부착을 통해서 완성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섬세화가 정상적인 심적 생활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고, 우리들의 사고가 언제나 불쾌 원리의 훼방때문에 더러워지는 위험 속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심적 기구의 기능적 능력의 결핍이 아니다. 이 심적 기구를 통해서 이차 심적 작업의 재료를 형성하고 있는 사상은, 일차 심적 과정 속으로의 길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심적 기구의 형성을 가지고 꿈 및 히스테리증 증세로 인도해가는 작업을 우리들은 기술할 수 있다. 그런 불충분성의 예는 우리들 인간의 발달사에 포함되어 있는 두 계기의 합체에 기인한다. 이 두 계기 중의 한쪽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귀속하고 두 조직의 관계 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 한쪽의 계기는 그 활동력이 일정하지 않고, 기질에서 생기는 원동력을 마음의 생활 속으로 도입한다. 양자는 인류의 유아 시절에 그 근원이 있고, 유아 시절이래, 우리들의 심적·신체적 유기체가 경험했던 변화의 침전물이다.

내가 심적 기구 속에 있는 심적 과정의 한쪽을 '일차' 과정이라고 불렀을 때에, 나는 이것을 단지 지위의 상하나 업적 능력을 고려한 것만이 아니라, 명명(命名)에서의 시간적 관계를 동시에 표시하려고 했다. 1차 과정만을 가진 심적 기구는 물론우리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또 그런 뜻에서 한 이론적 가구(假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차 과정이 인간생활의 역사상에서 점차로 형성되었음에 반해서, 제1차 과정은 대체로 인간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주어져 있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제2차 과정은 제1차 과정을 저지하고, 그것을 감추고, 그리고 아마 인생의 정상을 결정할 무렵에야 비로소 완전히 제1차 과정을 지배하게 된다. 제2차 과정의 이러한 늦추어진 등장 때문에, 무의식적 소망 충동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본질의 핵심은, 전의식에 의해서 파악될 수도 없거니와 저지되지않는다. 그런데 이 전의식의 역할은 제한되어서 무의식에 기인한 소망 충동에 가장 합목적적인 길을 표시한다. 이 무의식적 여러 소망은 이 소망이 굴복해야 하고, 또 그 소망이 가능하면 자신의 과정으로부터 쫓아내거나 더 높은 목적으로 돌려야

하는, 하나의 강제를 그 무의식적 소망 뒤에 일어나는 모든 심적 노력에 대해서 완성한다. 또 의식의 에너지 부착이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기억 재료의 대부분은 우리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유아적인 생활에서 유래하는 깨뜨릴 수 없고 저지할 수 없는 이 소망 충동 중에는. 그 충동의 충족이 이차 사고의 목표 표상과 모순 관계에 들어간 소망 충동도 있다. 이런 소망 충족은 유쾌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불쾌 감정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 고 바로 이 감정 변화는 우리들이 '억압'이라고 불렀던 본질을 규정한다. 그런 변화 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원동력에 의하여 행하여지는가에 억압의 문제가 있다. 우리들은 여기서는 다만 이 문제에 간단하게 언급하자. 그런 감정 변화가 발달의 도중에서 나타난다는 것(아이들의 최초의 생활에서는 보이지 않는 열렬한 혐오 감 정이 나타나는 것을 참조하면 된다), 또 이 감정 변화가 제2 조직의 활동과 결합되 었다는 것, 이것들을 밝히면 그것으로써 충분하다. 무의식적 소망이 여러 기억에 서 감정 종합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기억은 전의식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또 그 기억의 감정 방사는 저지되지 않는다. 바로 이 감정의 발전 때문에 이 여러 표상은 이제 또 전의식의 사고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표상은 미리 자신들의 소망력(所望力)을 전의식의 사고에 전위시켰었다. 오히려 불쾌 원리가 작용하기 시작하여서 전의식을 이 전위 사상으로부터 일탈하게 한다. 전위 사상은 방임되고 '억압'된다. 그리하여 애당초부터 전의식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유아적 기억 재산의 존재는 이 억압의 전제 조건이 된다.

부착 에너지가 전의식의 전위(轉位) 사상에서 제거되자마자 가장 순조로운 경우에 불쾌 감정의 발달은 정지된다. 그리고 이 성공은 불쾌 원리의 간섭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 그러나 이 사정은 다음 조건에서 달라진다. 즉 그것은 억압된 무의식적 소망이 기질적 강화를 받아서 그 강화를 자신의 전위 사상에 빌려준다는 조건과, 그리고 그 전위 사상이 전의식의 점령에 의해서 포기되었어도 무의식적 소망은 그 흥분을 가지고 전위 사상으로 하여금 진출하도록 노력하게한다는 조건이다. 이때 전의식이 억압된 여러 사상에 대한 대립을 강화하기 때문에(Gegenbesetzung) 하나의 방비(防備) 투쟁이 생긴다. 이 결과로 무의식적 소망의

담당자인 전위 사상의 진출은 증세 형성에 의한 타협의 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억압된 사상이 무의식적 소망 충동에 의해서 강력하게 점령되고 전의식적 점령에 의해서 포기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상들은 1차 심적 과정에 굴복하고, 운동적 방 출만을 노리고, 혹은 길이 열려 있으면 원망된 지각동일성의 환각적 활발화(活潑 化)를 노린다. 우리들은 상술된 정확하지 않은 여러 과정이 억압 속에 있는 사상만 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지금 우리는 이 관련의 다른 부분 을 좀 더 밝혀 보자. 이 부정확한 여러 과정은 심적 기구 속에 있는 '1차 과정'이다. 이 과정은 무의식의 점령에 의해서 포기된, 표상이 방임되고 무의식으로부터의 유 출을 애써 구하면서 저지당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충만될 수 있는 어떤 곳에 나 나타난다. 이런 부정확한 여러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의 사실상의 개악(改惡), 즉 사상 착오가 아니고, 심적 기구의 어떤 저지에서 해방된 활동 방식이라는 견해 는 다른 몇 가지 관찰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그래서 전의식적 흥분은 동일 과정에 따라서 운동력으로 이행하고 전의식적 표상의 말과의 결합은 대체로 부주의에 돌 려지는 동일한 이동과 혼동을 표시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끝으로 이 1 차 과정을 저지할 때에 어차피 생기는 작업 증가의 한 증명을 나는 다음의 사실에 서 인용하고자 한다. "만일에 이 사고의 이런 흐름이 의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한다 면, 우리들은 우스꽝스러운 효과, 즉 웃음을 통해서 방출되어야 하는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신 신경증 이론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다. 즉, 유아 생활에서 생기는 성적 소망충동은 유아 시절의 발전적 여러 단계에서 억압(감정 변화)을 경험한다. 따라서 나중의 발달 단계에서 그 소망 충동은 활동에 되돌아갈 수 있고, 다음에 본원적인 양성에서 형성되는 성적 체질의 한 결과로서, 혹은 성생활의 불리한 여러 영향의 결과로서 부활되는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정신 신경증적 증세를 형성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유아적인 것에서 생기는 성적 소망 충동이다. 이 성적 여러 힘을 도입함으로써만, 억압에 관한 이론 속에 아직 남아 있는 결함을 없앨수 있다. 나는 성적인 것과 유아적인 것의 가정이 이론에 대해서도 주장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내가 미

해결로 두려는 까닭은, 내가 이미 "꿈 소망은 반드시 무의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가설에 의해서, 증명 불능한 것의 바깥에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다.29 나는 또 꿈 형 성과 히스테리 증세 형성에 있어서 마음의 여러 힘의 움직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가를 이 이상 더 추구하지 않으련다. 우리들은 비교되는 두 항 중의 한 항에 관한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한 점을 중대시하고 미리 고백하지만, 실은 나는 단지 이 점 때문에 두 심적 조직. 즉 마음의 작업 방식 과 억압 등에 관해서 여기서 논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 는 심리학적 여러 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의 여부나, 혹은 그 대상 이 대상인 만큼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시(斜視)적으로, 또는 잘못이 많게 단 편적으로 파악하지나 아니하였는가에 있지 않다. 마음의 검열과 꿈 내용의 정확 또는 이상한 가공에 관한 해석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그런 여러 과정이 꿈을 형성할 때에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본질적으로 히스테리 증세를 형성 할 때에 인식된 여러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데 꿈은 병적 현상이 아니다. 꿈은 마음의 평형의 이상을 전제하지 않는다. 꿈은 업적 능력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나의 꿈이나 신경증 환자의 꿈에서 건강한 29 다른 곳에서와 똑같이 여기에서도 논제의 연구에 틈이 있다. 이것을 나는 일부러 그대로 둔다. 이름을 메우려면 한편 너무도 큰 노력이 들고, 또 한편 꿈과는 관계없는 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나는 '억제된(unterdrückt)'이란 말에 '억압된(verdrängt)'이란 말과는 다른 의미를 포 합시키느냐의 여부를 설명하는 것을 피하였다. 억압이란 편이 억제란 말보다 강하게 무의식에의 소속 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설명의 필요 없이 분명하리라고 생각된다. 나는 또 왜 꿈 사상이 의식으로의 전 진적 계속을 다념하고 역행의 길을 더듬기로 결심하는 경우에도 검열에 의한 왜곡을 감수하여야 하느 냐와 같은 당연한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논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나에게 중요 한 것은 꿈 작업의 자세한 분석의 여러 문제에 관해서 인상을 환기시키고, 이 분석도상에서 부딪치는 그 밖의 여러 논제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도 반드시 쉬 우 일이 아니었다. —내가 꿈에 대한 성적 표상 생활의 역할을 충분히 취급하지 않고, 명백한 성적 내 용을 가진 꿈 분석을 피한 것은, 아마 독자들의 기대와 조금 상치되리라고 생각되는 특수한 이유에 의 한다. 성생활을 임상 의사나 학자와 관계없는 치부로 생각하는 것은, 신경증학의 영역에서 대표하고 있는 나의 학설이나 나 개인의 생각으로 보아서 절대로 허용하기 어렵다. 또 나는 아르테미도로스의 《꿈 상징》의 번역자가 이 원본에 있는 성적 꿈의 한 장을 삭제하여 독자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의 그 도의적 분개를 웃음거리로 생각한다. 나에게 중요하였던 것은. 성적인 꿈의 설명에 있어서 도착 과 양성의 미해결의 문제 덩어리에 깊이 들어 가 몰두하려는 것이 었으며 그러므로 나는 이 재료를 다 른 경우에 대비하여 남겨 두었다.

인간이 꾸는 꿈을 추측할 수 없다는 반박은 취할 바 못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현상으로부터 원동력을 추측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즉 신경증 이 이용하는 심적 기구는 인간의 심령 생활에 습격해 오는 질병적인 방해에 의해 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구의 올바른 구조 속에 전부터 준 비되어 있던 것이다. 마음의 두 조직, 두 조직 사이의 과도 검열, 한쪽 활동의 다 른 한쪽 활동에 의한 저지와 은폐. 양자의 의식 에 대한 여러 관계—이 밖의 사실 상의 여러 관계가 올바르게 해석된 경우, 그 대신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마음이란 도구의 정상적 구조에 속하는 것이고, 꿈은 마음의 구조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길 하나를 표시해 준다. 만일 우 리들이 완전히 확실한 인식 증가의 최소한도에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꿈이 우리들 에게 이렇게 증명해 준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억압된 것은 정상적인 사람 에게 있어서도 존속하고 마음의 업적을 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가 이 런 억압된 것의 여러 출현의 하나이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모든 경우에 다 옳다. 명확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적어도 꿈 생활의 뚜렷한 여러 특징을 가장 명 백하게 표시하는, 적어도 대다수의 경우에 옳다. 깨어 있는 생활에서는 '모든 모순 의 상살(相殺)'에 의해서 그 표현이 방해되었고, 내적 지각으로부터 절단되었던 억 압된 심적 재료는, 밤 동안에 타협 형성물의 지배 하에서 의식 속에 침입할 방도와 길을 발견한다.

천상의 신들을 움직이지 못하면 지옥을 움직이게 하겠다.

그러나 꿈 판단은 마음의 생활 속에 있는 무의식에 관한 지식으로 이르게 하는 왕 도이다.

우리들이 꿈의 분석에 종사할 때에, 이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신비스러운 도구의 조직 속을 조금 깊이 통찰할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의해서 다른, 소위 병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성물에서 더 깊이 이 도구의 내부로 들어갈 계기가 우리들에게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질병—적어도 올바르게 기

능적으로 불리는 은 이 도구의 파괴, 이 도구의 내부의 새로운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은, 그것들의 매우 많은 작용이 정상적인 기능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여러 힘의 움직임 속에 있는 성분을 혹은 강화하고, 혹은 약화시킴으로써 동력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두 개의 심급으로 된 이 기구의 조직이, 어떻게 단 하나의 조직에 대해서 불가능하였을 정묘화 (精妙化)를, 정상적인 업적에 대해서 용서하는가를 우리들은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30

## 6. 무의식과 의식, 현실

우리들이 좀 더 자세히 관찰한다면, 심적 기구의 운동 말단 가까이에, 두 조직의 존재가 아니라 '흥분의 두 과정'이나 혹은 경과 양식이 있음을 발견하거니와, 이 가정은 앞의 여러 장의 심리학적 논의에서 설명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평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가설을, 알지 못하는 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어떤 다른 것과 바꾸게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의 보조적 견해를 버릴 만한 각오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마음의 두 조직을, 가장 가깝고 가장 가공되지 않은 의미의마음의 기구 안에 있는 두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 으레 오해를 사기 쉬웠다고 생각되었던 몇몇 견해에 이제 우리들은 정확한 모양을 주어 보기로 하자. 이런 견해는 그 흔적을 '억압한다'와 '침입한다'라는 표현에 남겨 두고 있다. 그리하여 어떤 무의식적 관념이 전의식으로 옮겨 가고, 그 뒤에 의식 속으로 '침입'하려고 노력한다고 우리들이 말하

30 꿈은, 정신 병리학으로 하여금, 심리학에 기초를 두게 하는 유일한 현상이 아니다. 《정신병학·신경 중학 월간 잡지》에 발표한 결론을 얻지 못한 작은 일련의 논문〈망각의 심적 메커니즘〉(1898년), 〈은폐 기억에 관해서〉(1899년)에서 나는 일상생활 중의 심적 현상 몇 가지에 관해서 같은 인식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해석을 시도했다. 이 논문 및 망각, 잘못 말한 말, 잘못된 이해 등에 관한 그 이후의 논문은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속에 수록되어 있다(1904년, 제5판 1917년).

면, 새로운 장소에 놓인 제2의 관념은 원문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행간에 써 넣는 것과 같이 형성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들은 또 의식으로의 침입을 장소의 바꿈으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들이, 하나의 전의식적 관념이 억압되고 그 뒤에 무의식에 의해서 점령된다고 말할 때에, 한 장소를 위한 투쟁이란 표상군에서 차용해온 형상은 우리들에게 다음 것을 상징하게 한다. 즉 마음속의 어떤 장소에서 한 배비(配備)가 무너지고, 다른 배비에서 새로운 배비와 대치되었다고. 이런 비유를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현실의 사태에 좀 더 적당한 것과 바꾸어 보고자한다. 즉 어떤 에너지 부착이 일정한 배비에 옮겨지든지 혹은 그 배비에서 철퇴되든지 하기 때문에, 심적 형성물은 어떤 검문소의 지배하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거나 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시 장소적 표상법을 동력학적인 표상법으로 바꾼다. 우리들에게는 이 심적 형성물은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심적 형성물의 신경지배로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체계의 직관적인 표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합목 적적이고 이치에 알맞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들이 표상이나 관념이나 심적 형성물이 대체로 신경 조직의 유기적 여러 요소 중의 각각의 장소에 국한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저항과 통로가 그것들과 일치하는 상관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 사이에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장소적 표상법의 남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내적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광선의 통과에 의해서 생기는 망원경속의 영상과 같이 '허상'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심적이 아니고 또 결코 우리들의 마음의 지각에 접근할 수 없는 두 조직을, 우리들은 영상을 만드는 망원경의 렌즈와 같이 가정할 권리가 있다. 이 비유를 더 계속하면 두 조직 사이의 검열은, 하나의 새로운 매개체로 옮겨갈 때의 광선 굴절에 비교될 것이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혼자의 힘으로 심리학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들은 오늘날의 심리학의 지배적인 여러 학설을 다루고, 우리들의 의견에 대한 여러 학설의 관계를 음미할 단계에 도달했다. 심리학에서의 무의식에 관한 문제는, 립스(Lipps)의 힘찬 말에 의하면, 하나의 심리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심리학의 문제이다. 31 심리학이

<sup>31 〈</sup>심리학에 있어서의 무의식의 개념〉—1897년 뮌헨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심리 학회에서의 강연

이 문제를. "심적인 것은 바로 의식적인 것"이고. "무의식적 심적 과정은 확실한 모순"이라는 언어상의 설명으로 처리하는 한, 의사가 이상 심리 상태에서 얻을 수 있었던 관찰은 심리학적으로 이용될 수 없었다. 의사와 철학자가, 무의식의 심적 여러 과정이 '뚜렷이 존재하는 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 을 인정할 때에만 양자는 서로 일치한다. 의사는, "의식이란 심적인 것에 없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주장을 극구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의사는 그가 철학자들의 의견 을 충분히 존경하는 경우에도, 아마 의사와 철학자들이 같은 대상을 취급하지 않 고 같은 학문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신경증 환자의 심적 생활을 단 한 번이라도 관찰하거나 단 한 번이라 도 꿈을 분석하여 보면, 사고 과정에 대해서 심적 과정이란 명칭을 거부할 수 없 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밀한 심적 작용이 당사자의 의식을 자극하지 않고 나타 날 수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의사에게 덤벼들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의사는, 이 무의식적 과정이 의식 위에 이 보고나 관찰을 허용하는 작용을 끼칠 때 에 비로소 그런 과정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의식의 효과는 무의식적 과정과는 아 주 다른 심적 성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적 지각은 한쪽을 다른 쪽의 심 리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의사는 하나의 추측 과정에 의해서 의식의 효과에서 무 의식적 심적 과정으로 진행하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는 이 도상에서, 의식의 효과가 단지 무의식적 과정의 먼 심적 효과에 지나지 않고. 또 무의식적 과정이 그 대로 의식되지 않고, 또 의식에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대로 계속해서 작용해 왔다 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의식의 특성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올바르게 통찰하기 위한 없앨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된다. 무의식은, 립스의 말에 의하면, 심적

<sup>32</sup> 꿈의 연구에서, 의식적 활동의 무의식적 활동에 대한 관계에 해서 같은 결론을 내린 한 학자의 이름을 드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뒤 프렐은 이렇게 말한다. "영혼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분명히, 의식과 영혼이 동일물인가 아닌가의 논제가 미리 결정되기를 요구한다. 그런데 꿈은 바로 이 선결 문제를 부정한다. 꿈은 마치 어떤 별의 인력이 그 광력 범위를 넘는 큰 것인 것과 같이, 영혼의 개념은 의식의 개념을 넘는 큰 것임을 표시한다(《신비주의 철학》)."

<sup>&</sup>quot;의식과 영혼이 동일한 연장을 가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하나의 진리이다 (同書)."

생활의 일반적 기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무의식은 의식의 더욱 작은 세계를 자기 속에 포함하는 것보다 큰 세계이다. 의식적인 모든 것은 어떤 무의식적인 첫 단계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무의식적인 것은 이 단계에 머무르고, 더욱이 마음의 업적으로써 완전한 가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무의식적인 것은 본래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다. 무의식의 내적 성질은 외계의 현실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는 미지이고, 외계가 우리들의 감각 기관의 보고를 통해서 불완전하게만 파악되는 것과 똑같이 의식의 여러 재료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의식 생활과 꿈 생활과의 오랜 대립이 무의식의 심적인 것을 마련함으로써 그것에 알맞은 자리에 격하될 때에. 옛 학자들을 강력하게 점령하였던 일련의 꿈 문제는 소멸되고 말았다. 꿈속에서 그런 일이 행해진다고 사람들이 의심하였던 많은 꿈 업적은 오늘날에서는 이미 꿈에 돌려지지 않으며, 낮 동안에도 계속해서 움직이 고 있는 무의식적 사고의 것으로 돌려진다. 셰르너에 의하면, 만일에 꿈이 신체를 상징하여 희롱조로 표현하는 것같이 보인다면, 우리들은 이것이 아마 성적 흥분에 주어진 어떤 무의식적 환상이 저지른 일이고, 이 무의식적 환상은 꿈속에서만이 아니라 히스테리성의 공포증이나 다른 여러 증세 속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에 꿈이 낮의 활동을 계속하여 해결하고, 귀중한 생각까지도 명백히 드러내어 보인다면 우리들은 이것에서 꿈 작업의 업적으로서, 그리고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있는 컴컴한 여러 힘의 보조적 업적의 표적으로서 꿈의 변장을 제거하여야 할 뿐 이다(이탈리아의 음악가 타르티니(Tartinis)의 〈소나타의 꿈〉을 참조). 지적 업적 자체는, 낮 동안에 그러한 모든 일을 햇하는 동일한 마음의 여러 힘에 돌려져야 한 다. 여하튼 우리들은 지적 및 예술적 창조에서도 의식적 성격을 너무나 크게 평가 하기 쉽다. 괴테나 헬름홀츠(Helmholtz)와 같은 극히 창조적인 몇 사람의 보고로 부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창조의 본질적이고 새로운 것이 갑 자기 생각난 것이고, 거의 완전하게 지각된 것이다. 모든 정신력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경우의 의식적 활동의 도움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의식적 활동이 언제나 협동하고 있을 때에, 그 의식적 활동이 우리들에게 모든 다른 활동을 숨기는 것은 의식적 활동의 특권 남용이다.

꿈의 역사상의 의미를 특별한 하나의 주제로 설정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예 를 들면 어떤 우두머리가 꿈을 꾸고서 대담한 일을 결심하고. 그 사업에 성공하여 서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는 경우, 꿈을 알지 못하는 힘과 같이 간주하고 평소에 친 밀한 다른 마음의 여러 힘과 대치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 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꿈을, 낮 동안에는 저항의 지배하에 있다가, 밤이 되 어서 깊은 흥분 원천으로부터 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 흥분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간주한다면 새로운 문제 따위는 있을 수 없다. 33 그러나 꿈이 고 대의 여러 민족에게서 받았던 존경은 인간 영혼 속에 있는 억제할 수 없는 것과 파 괴하기 어려운 것. 즉 꿈 소망을 낳는. 그리고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다시 발견 되는 마력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심리학적 예감에 기초를 둔 하나의 공경이다. 나는 일부러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무의식은 철 학자들의 무의식과는, 또 립스의 무의식과도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에 게는, 그것은 의식적인 것의 대립을 의미한다. 의식적 여러 과정 이외에 또 무의 식적 · 심적 여러 과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되고 강력하게 변호된 인식이다. 립스는 일체의 심적인 것이 무의식으로 존재 하고, 그 중의 몇 가지가 의식으로서 존재한다는 한층 깊이 파고든 명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꿈이나 히스 테리 증세를 형성하는 여러 현상을 여기에 인용한 것은,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서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생활의 관찰만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명제의 정당성을 수립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들이 정신 병리학적 여러 형성과 그 첫 항. 즉 꿈의 분 석에서 배운 새로운 것은 무의식—즉 심적인 것—이 두 개의 별개의 조직의 한 기 능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무의식이 정상적·심적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으로 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아직 구별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한 '두 종류의 무의식'이 있다. 양자는 심리학적인 뜻에서 무의식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미로서는. 우리들이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하나는 '의식화될 수 없는 것'인 반면, 다른 하나는 그 흥분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전의식이라고 불린다. 물론 어떤 규칙으로써 제한함에 따라서 아마 새로운 검열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그러나 무의식 조직을 무시하고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의식되기 위해서 여러 흥분이 어떤 변함없는 사건의 연속, 즉 검열에 의한 변화를 통해서 밀고되는 일련의 절차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공간 관계에서 비유를 구하게 하였다. 우리들은 두 조직의 상호 관계와 두 조직의 의식에 대한 여러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즉 전의식 조직은 무의식 조직과 의식 사이에 병풍과 같이 서 있다고. 전의식 조직은 의식으로의 입구를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운동력으로의 입구를 지배하고 있으며, 활동적인 부착 에너지의 방출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에너지의 일부가 주의력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다. 34

정신 신경증의 새로운 문헌 속에 사용되게 된 '상부 의식(Oberbewußsein)'과 '하부 의식(Unterbewußtsein)'이란 구별도 또 우리들이 취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그런 구별은 심적인 것과 의식과의 동일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전능하였던, 그리고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던 의식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심적 질의 지각을 위한 한 감각 기관의 역할이다. 우리들의 도식적 시도의 근본 사상에 의하면, 우리는 의식 지각을 다만 우리들의 생략 부호 Bw(의식)으로 나타내는 어떤 특수한 조직의 독자적인 업적으로서만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직은 그 구조의 성격으로 보아서 지각의 여러 조직 W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것은 지각 조직과 같은 특질에 의해서 흥분되지만, 변화의 흔적을 간직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각 조직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 외계를 향하고 있는 마음의 기구는, 그 자체가 의식(Bw)의 감각 기관에게는 하나의 외계를 의미한다. 그 목적론적인 존재 이유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마음의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이는 심급의 검열을 통과하는 원리는, 여기서 다시 우리들의 문제가 된다. 흥분의 재료는 두 방면으로부터 감각 기관에 흘러든다. 그 하나는 지각 조직에서이고, 특질에 의해서 제약된 이 조직의 흥분은 아마도 새로운 가공을 끝내고 결국 의식적 감각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sup>34</sup> 이에 관해서는 나의 〈정신 분석에서의 무의식적 개념에 관한 의견〉을 참조. 나는 이 논문에서, 다의적 인 '무의식'이란 말의 기술적·동력학적·체계적 의미를 구분하였다.

마음의 기구 자체의 내부에서이고, 그 양적 여러 과정은 그것이 어떤 변화를 받자마자 쾌·불쾌의 특질의 계열로서 느껴진다.

정확하고 대단히 복잡한 여러 관념이 의식의 참가 없이도 형성될 수 있다고 느낀 철학자들은, 의식에 어떤 기능을 돌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임을 알았다. 이것 은 철학자들에게 완성된 심적 과정의 불필요한 반영인 듯이 생각되었다. 우리들의 소위 의식 조직과 지각의 여러 조직과의 유사성은 이 곤란에서 우리들을 구출하여 준다. 우리들은 감각의 모든 기관을 통한 지각이, 감각 흥분이 향해 퍼져나가는 길 로 주의 에너지 부착을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 조직의 질적 흥분은 심적 기구의 가동량에 대해서는 심적 기구의 경과를 위한 하나의 조정기(調整器)로서 봉사한다. 우리들은 이 기능을 의식 조직을 덮고 있는 감각 기관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새로운 질을 지각함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부착 에너지양을 유도 하고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기여를 한다. 이 기관은 쾌ㆍ불쾌의 지각에 의해서 보통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양의 이동을 통하여 작용하는 심적 기 구 안에서 에너지 부착의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아마 불쾌 원리는 에너지 부착의 이동을 처음엔 자동적으로 조정하나, 의식이 이러한 특질을 더욱 미묘하게 이차적 으로 조정을 가한다. 또 이것은 심지어 첫 번째 조정에 반항할 수 있고, 마음 기구 의 업적 능력을 완전하게 한다. 즉 그것은 마음의 기구를 본래의 소질에 반하여서, 불쾌의 발생과 결부하고 있는 것에도 에너지 부착과 가공과의 작용을 입히게 한 다. 우리들은 신경증 심리학으로부터 여러 감각 기관의 질적 흥분에 의한 그러한 조정이 심적 기구의 기능 활동에서 큰 역할을 다하는 것을 알았다. 일차적인 불쾌 원리의 자동적 지배와, 그 지배와 결부된 업적 능력의 제한은, 그 자체가 역시 자 동적 조직인 감각적 조정에 의해서 파괴된다. 본래 합목적적이지마는 저지와 심적 지배를 해롭게도 단념하기에 이르는 억압은, 지각에 대해서보다 훨씬 쉽게 기억에 대해서 실행된다. 왜냐하면 기억에서는, 심적 · 감각적 기관의 흥분에 의한 에너지 부착의 증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부될 한 관념이, 한편에서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으면, 이 관념은 또 한편에서 다른 이유로 의식 지각으로부터 벗어졌기에 억압된다. 이것들은 이미 수행된 여러 억압을 본시대로 돌리기 위해서 치료학에서 사용되는 암시이다.

의식의 감각 기관이 가동량에 끼치는 조정(調整)적 영향에서 만들어진 과대 에너 지 부착의 가치는 목적론적 관념에서 어떤 새로운 일련의 양을 창조하고. 따라서 동물을 능가한 인간의 특권을 구성하는 새로운 조정(調整)을 창조함으로써만 가장 훌륭하게 증명된다. 왜냐하면 여러 사고 과정은, 그 과정에 부수되는 쾌ㆍ불쾌의 흥분을 제외하곤 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흥분은 다 알다시피 그 자체 내에서 사고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속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 에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은 인간에 있어서는 언어 기억과 결합된다. 언 어 기억에 남아있는 특질 잔재는 의식의 주의를 자기에게 초치(招致)하고. 의식으 로부터 새로운 가동적 에너지 부착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충분한 힘이 있다. 여러 의식 문제의 복잡성의 전모는, 히스테리의 여러 사고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비로소 검토될 수 있다. 이 분석에서 우리들은, 전의식부터 의식 에너지 부착으로 의 전이가, 또 무의식과 전의식 사이에서처럼 검열과 결부되어 있는 인상을 받는 다 이 검열도 역시 어떤 종류의 양적 하계에서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하다. 그 때 문에 강도가 낮은 관념 형성물은 이 검열을 면할 수 있다. 많은 제한 아래에서 행 하여지는 의식으로부터의 격리와 의식으로의 돌입의 모든 가능한 경우는, 정신 신 경증의 증세의 테두리 안에서 종합되어 발견된다. 이 모든 가능한 경우는 검열과 의식과의 사이의 긴밀하고 양면적인 관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한 두 개의 사건 을 보고함으로써 나는 이상의 심리학적 여러 이론을 끝내려고 한다.

전년(前年)의 한 대진(對診)에서 나는 현명하고 순진한 얼굴의 한 소녀를 대하였다. 이 소녀는 묘한 옷차림을 했었다. 보통 여자들은 옷의 구김살 하나에도 머리를 쓰는 법인데, 이 소녀는 한쪽 양말을 내려뜨리고 블라우스의 단추 두 개를 잠그지 않았다. 이 소녀는 한쪽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종아리를 드러내보였다. 그 소녀의 호소는 다음과 같았다. 몸에 무엇인가 들어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그것이 몸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소녀는 심하게 흔들린다. 그때에 하복부 전체가 경직된다. 입회했던 동료는 이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도 이 호소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에게 다 같이 이상하

게 생각된 것은 환자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어머니 자신이 딸이 말한 상황을 여태까지 몇 번이나 경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녀 자신은 자기가 말한 이야기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면 그런 말을 밖에 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 예에 있어서, 보통이면 전의식 중에 머무르고 있는 공상이, 아무런 사심도 없는 듯이 질병의 괴로움의 호소란 탈을 쓰고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 받으리만큼 검열의 눈을 속인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다른 예 하나. 나는 14세의 사내아이의 정신 분석의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 아이는 안면 근육 경련·히스테리성 구토·두통 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우 선. 네가 눈을 감으면 여러 경치가 보이고 여러 일의 기억이 날 터이니 그것을 선 생에게 말해 보라고 했다. 그는 형상으로써 답하였다. 그가 나에게 오기 전에 받았 던 최근의 인상이 그의 기억 속에 시각적으로 다시 떠올랐다. 이 소년 환자는 백부 와 장기를 두었다. 그 장기판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는 유리한 말, 불리한 말, 장 기짝을 옮기고 옮기지 않는 방법 등을 백부에게서 배우고 있다. 말판 위에 단검 하 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의 공상이 이것을 말 판 위에 옮겨 놓았다. 다음에 장기판 위에 낫 한 자루가 놓여 있다. 여기에 또 큰 낫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늙은 농부 한 사람이 나타났다. 소년의 먼 고향집 앞에 서 풀을 베고 있었다. 이삼 일 후에 나는 이 일련의 풍경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재 미없는 가정의 여러 사정이 소년을 흥분시켰다.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의 어머니와 사이가 나쁘고 소년을 위협으로 교육시키는 신경질적인 차디찬 남자였다. 아버지 는 마음이 착하고 어진 어머니와 이별하고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자를 새 엄마로 집 에 데리고 왔다. 아버지는 재혼한 것이다. 이런 일 뒤에 며칠이 안 되어서 14세 소 년은 병이 났다. 저 풍경을 의미 있는 여러 암시로 종합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억 압된 분노였다. 신화의 추억이 재료를 제공하였다. 낫은 제우스(Zeus)가 그의 아 버지를 거세했던 것이었다. 큰 낫과 늙은 농부의 모습은 자기의 아이들을 먹어 삼 킨. 또 제우스가 아이답지 않은 복수를 한 난폭한 노인 크로노스(Kronos)이다. 아 버지의 재혼은 소년이 자기의 성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해서 언젠가 아버지가 소년 에게 가했던 많은 비난이나 위협을 아버지에게 돌릴 한 기회였다(장기놀이, 금지된 장기짝,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단검). 여기에 있는 것은 오랫동안 억압된 여러 기억과, 그런 여러 기억의 무의식으로 있던 산물이고, 그것들이 자신을 위해서 타개하였던 우로를 통하여 '일견 무의미한 형상'으로 의식 속에 몰래 기어들어왔던 것이다.

이럼으로써 나는 꿈 연구의 '이론적' 가치가 심리학적 인식을 높이고, 정신 신경병을 이해할 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에 구해진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미 우리들의 지식의 현 상태가, 본래 치료할 수 있는 정신 신경병의 여러 형식에 대해서 치료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심적 기구의 구조와 여러 업적을 철저히 구명하는일이 어떤 뜻인가를 누가 잘 예상할 수 있을까? 영혼의 지식, 개개인의 감추어진성격의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 데 이 연구는 얼마나 실용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꿈이 계시하는 무의식적인 충동은 영혼 생활에서의 현실적 여러 힘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오늘 꿈을 만드는 것과 같이 후일에 어떤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억제된 소망의 의미는 가볍게 생각될 것인가?

나는 이런 물음에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여러 생각은 꿈 문제의 측면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여하튼 나는, 다만 로마 황제가 어떤 신하가 황제를 죽이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신하를 처형했다는 것을 그릇되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는 먼저 그 꿈의 뜻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 꿈이 보여준 것과, 그 꿈의 참뜻은 아마 동일한 것이 아니었으리라. 또 만일 다른 내용의 꿈이 이 꿈과 같은 반역의 뜻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덕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실지로 행하는 것을 꿈꾸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상기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꿈을 마음대로 꾸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의식의 여러 소망에'현실성'이 승인될 것이냐의 여부를 나는 말할 수 없다. 물론 모든 과도(過渡) 사상이나 중간사상에는 현실성을 승인할 수 없다. 우리들이 그 궁극의, 참된 표현을 가진 무의식 소망을 눈앞에 둘 때에, 우리들은 '심리적' 현실성이 '물질적' 현실성과혼동될 수 없는 하나의 특별한 존재형(存在形)이라는 것을 명기(銘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꿈의 부도덕성의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려는 일은 옳은 일

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들의 꿈이나 공상의 생활에서 보는 도덕적으로 의아하지 않은 것은, 마음의 기구가 기능을 발휘하는 방법을 평가함으로써, 그리고 또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관계를 통찰함으로써 많은 경우에 없어질 것이다.

"꿈이 현재(현실)에 대한 모든 관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우리들은 나중에 의식 속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들이 분석이란 확대경을 통해서 본 괴물을, 이번에는 적충류(赤蟲類)로서 재발견해도 우리들은 놀라서는 안 된다(작스(H. Sachs))."

인간의 성격 판단의 실제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사람의 행동과,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의견이 있으면 충분하다. 행동이 우선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에까지 침입한 많은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지기에 앞서 심적생활의 현실적 여러 힘에 의해서 폐기되기 때문이다. 물론 충동들은 무의식이 그충동들을 다른 방법으로써 저지할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동들의 의식으로의 침입도상(侵入途上)에서 어떤 심적 방해에도 부딪치지 않는다. 우리들의 도덕이 그 위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몇 번이나 파헤쳐진 기반을 아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사방으로 동력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간의 성격의 복잡성이 우리들의 낡은 도덕이 좋아하듯이 간단한 '선'과 '악'의 양자택일로처리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미래를 알기 위한 꿈의 가치는 어떠한가?

꿈에 의한 미래의 예지는 물론 생각될 수 없다. 그 대신 꿈은 과거를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꿈은 미래를 사람에게 알려 준다는 낡은 신앙에도 물론 일면의 진리는 있을 것이다. 꿈은 어떤 소망을 충족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표시함으로써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들을 미래로 인도한다. 그러나 꿈을 꾸는 본인이 현재로 받아들이는 이 미래는 소멸하지 않는 소망에 의해 저 과거의 모상(模像)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꿈에 관한 문헌

### 꿈에 관한 문헌

(역자: 프로이드 문헌표 중에서 독 · 불 · 영어 문헌만을 발췌했다.)

ㄱ. 초판 발행까지 입수된 문헌(1900년까지)

Aristoteles. Über Träume und Traumdeutungen. Übersetzt von Bender. — Von der Weissagung im Traume.

Artemidoros, aus Daldis, Symbolik der Träume, Übersetzt von Friedr. S. Krauss, Wien 1881.

— Erotische Träume und ihre Symbolik. Aus dem Griechischen übersetzt von Dr.

Hans Licht. Anthropophyteia Bd. IX. p. 316-328.

Artigues. Essai sur la valeur séméiologique du rêve. These de Paris 1884.

Ball. La morphinomanie, les rêves prolongés. Paris 1885.

Benezé Emil. Das Traummotiv in der mittelhochdeutschen Dichtung bis 1250 und in allen deutschen Volksliedern. Halle 1897. (Benezé. Sagengesch. und lit.-hist.

Unters. 1. Das Traummotiv.)

Binz C. Über den Traum, Bonn 1878.

Birkmaier Hieron. Licht im Finsternüss der nächtlichen Gesichte und Träume.

Nurnberg 1715.

Bisland E. Dreams and their Mysteries. N. Ann. Rev., 1896, 152, p.716-726.

Börner J. Das Alpdrücken, seine Begründung und Verhütung. Würzburg 1855.

Bradley J.H. On the failure of movement in dream. Mind, July 1894.

Brander R. Der Schlaf und das Traumleben. Leipzig 1884.

Bouché-Leclercq. Histoire de la divination dans l'antiquité. (T.I.) Paris 1879.

Bremer L. Traum und Krankheiten. New York med. Monatschr. 1893.V. 281-286.

Büchsenschütz B. Traum und Traumdeutung im Altertum. Berlin 1868.

Burdach. Die Physiologie als Erfahrungswissenschaft, 3. Bd. 1830.

Calkins Mary Whiton. Statistics of dreams. Amer. J. of Psychology. V. 1893.

Cane Francis E. The physiology of dreams. The Lancet, Dez. 1889.

Carpenter. "Dreaming" in Cyclop. of anat. and phys. IV. p. 687.

Chabaneix. Le subconscient chez les artistes, les savants et les écrivains. Paris 1897.

Chaslin Ph. Du rôle du rêve dans l'évolution du délire. Thèse de Paris, 1887.

Clavière. La rapidité de la pensée dans le rêve. Revue philosophique XLII. 1897.

Coutts G.A. Night-terrors. Amer. J. of Med. Sc. 1896.

D.L.A. Propos de l'appréciation du temps dans le rêve. Rev. philos. vol. 40, 1895, p. 69–72.

Dagonet. Du rêve et du dêlire alcoolique. Ann. méd.-psychol. 1889, série 7, t. X,

p.193.

Davidson Wolf. Versuch über den Schlaf. 2 Aufl. Berlin 1799.

Debacker. Terreurs nocturnes des enfants. Thèse de Paris. 1881.

Dechambre. Cauchemar. Dict, encycl. de sc. méd.

Delage Yves. Une théorie du rêve. Revue scientifique, 11. Juli 1891.

Delboeuf I. Le sommeil et les rêves. Paris 1885.

Dochmasa A.M. Dreams and their significance as forebodings of diseases Kazan

1890

Dreher E. Sinneswahrnehmung und Traumbild. Reichs-med. Anzeiger, Leipzig 1890,

XV

Ducosté M. Les songes d'attaques épileptiques. 1899.

Dugas. Le souvenir du rêve. Revue philosophique. XLIV. 1897.

— Le sommeil et la cérébration inconsciente durant le sommeil. Revue

philosophique. XLIII. 1897.

Du Prel Carl. Oneirokritikon; der Traum vom Standpunkte des transcend. Idealismus. Deutsche

Vierteljahrschrift H. II. Stuttgart 1869.

- Psychologie der Lyrik. Leipzig 1880.
- Die Philosophie der Mystik. Leipzig 1887.
- Künstliche Träume. Monatsschrift "Sphinx", Juli 1889.

Egger V. Le sommeil et la certitude, le sommeil et la mémoire. La Critique philos.

Mai 1888, I, p. 341-350.

- La durée apparente des rêves. Revue philosophique. Juli 1895.
- Le souvenir dans le rêve. Revue philosophique. XLVI. 1898.

Ellis Havelock. On dreaming of the dead. The Psychological Review. II, Nr. 5,

September 1895.

— The stuff that dreams are made of. Appleton's popular science monthly. April

1899

- A note on hypnagogic paramnesia. Mind, April 1897.

Erdmann J.E. Psychologische Briefe, 6. Aufl. Leipzig 1848.

— Ernste Spiele (XII: Das Träumen). Vortr. 3. Aufl. Berlin 1875.

Erk Vinz.v. Über den Unterschied von Traum und Wachen. Prag 1874.

Escande de Messières. Les rêves chez les hystériques. Th. méd. Bordeaux 1895.

Faure. Étude sur les rêves morbides. Rêves persistants. Arch. génér. de méd. 1876,

vol. I, p.558.

Fechner G. Th. Elemente der Psychophysik.2. Aufl. 1889.

Féré Ch. A contribution to the pathology of dreams and of hysterical Paralysis.

Brain, Jan. 1887.

— Les rêves d'accès chez les épileptiques. La Med. mod. 8. Dez. 1897.

Fichte J.H. Psychologie. Die Lehre vom bewussten Geiste des Menschen. I. Teil.

Leipzig 1864.

Florentin V. Das Traumleben. Plauderei. Die alte und die neue Welt, 1899, 33. J.,

725.

Fornaschon H. Geschichte eines Traumes als Beitrag der teanscendentalen

Psychologie, Psychische Studien, 1897, S.274-281,

Freiligrath. Traumbuch (in der Biographie von Buchner).

Frensberg. Schlaf und Traum. Samml. gemeinverst. wiss. Vortr. Virchow- Holtzendorf, Ser. XX, H. 466,

Berlin 1885.

Frerichs Joh. H. Der Mensch: Traum, Herz, Verstand. 2 Aufl. Norden 1878.

Galenus. Von der Weissagung im Traume.

Giessler C.M. Beitrag zur Phänomenologie des Traumlebens. Halle 1888.

- Aus den Tiefen des Traumlebens. Halle 1890.

— Die physiologischen Beziehungen der Traumvorgänge. Halle 1896.

Girgensohn L. Der Traum, psychol.-physiol. Versuch.S.A. 1845.

Gleichen-Russwurm A.v. Traum in der Dichtung. Nat.-Ztg. 1899, Nr. 553-559.

Gley E. Appréciation du temps pendant le sommeil. L'intermédiaire des Biologistes,

20 mars 1898, No. 10, p.228.

Goblot. Sur le souvenir des rêves. Revue philosophique. XLII. 1896.

Gomperz Th. Traumdeutung und Zauberei, Vortrag, Wien 1866.

Gorton D.A.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 N.Y. Med. Times 1896, XXIV, 33, 37.

Gould. Dreams-Sleep-Consciousness. Open Court 1899.

Graffunder. Traum und Traumdeutung. 1894.

Greenwood. Imaginations in dreams and their study. London 1899.

Griesinger, Pathologie und Therapie der psychischen Krankheiten, 3 Aufl. 1871.

Grot Nicolaus. Die Träume, ein Gegenstand wissenschaftl. Analyse (russ.) Kiew

1878.

Cruardia J.M. La personnalité dans les rêves. Rev. philos. Paris 1892, XXXIV, 225-

258.

Gutfeldt J. Ein Traum. Psych. Studien, 1899, S.491-494.

Haffner P. Schlafen und Träumen. 1884.

Hallam FI. und Sarah Weed. A Study of the dream consciousness. Amer. J. of

Psychology. VI., Nr.3. April 1896.

Hampe Th. Über Hans Sachsens Traumgeschichte. Zeitschrift für den deutschen Unterricht, 10. Jahrg. 1896, p. 616 f.

Heerwagen. Statist. Untersuch. über Träume u. Schlaf. Philos. Stud. V, 1888, p. 88.

Hennings Justus Chr. Von Träumen und Nachtwandlern. Weimar 1802.

Henzen Wilh. Über die Träume in der altnord. Sagaliteratur. Diss. Leipzig 1890.

d'Hervey. Les rêves et les moyens de les diriger. Paris 1867. (anonym).

Hildebrandt F.W. Dar Traum und seine Verwertung fürs Leben. Leipzig 1875.

Hiller G. Traum. Ein Kapitel zu den zwölf Nächten. Leipz, Tagbl. und Anz. 1899,

Nr. 657, 1. Beil.

Hippokrates. Buch über die Träume. (Sämtliche Werke übersetzt von Dr. Robert

Fuchs. München 1895-1900, Bd. 1, p.361-369.)

Hitschmann F. Über das Traumleben der Blinden. Zeitschr. f. Psychol. VII, 5–6, 1894

Jastrow. The dreams of the blind. New Princetown Rev. New York Jan. 1888.

Ideler. Die Entstehung des Wahnsinns aus den Träumen. Charité Anna-len, 1862,

III. Bd.

Jean Paul. Blicke in die Traumwelt. Museum (1813)  $\mathbb{I}$  (Werke hg. v. Hempel 44, p. 128–152).

- Über Wahl und Halbträume, ebenda, p. 142 f.
- Wahrheit aus seinem Leben, 2, p. 106-126.

Jensen Julius, Traum und Denken, Berlin 1871.

Jessen. Versuch einer wissenschaftlichen Begründung der Psychologie. Berlin 1856.

Jodi. Lehrbuch der Psychologie. Stuttgart 1896. (3. Aufl. 1908.)

Kant J.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Kirchmannsche Ausgabe. Leipzig 1880.

Kingsford A.B. Dreams and dream-stories ed. by Maitland. 2. éd. London 1888.

Kloepfel F. Träumerei und Traum. Allerlei aus unserem Traumleben. Universum

1899, 15. J., Sp. 2469-2484, 2607-2622.

Krasnicki E. v. Karls IV. Wahrtraum. Psych. Stud. 1897, p. 697.

Krauss A. Der Sinn im Wahnsinn. Allgemeine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XV. und XVI. 1858–1859.

Kučera Ed. Aus dem Traumleben, Mähr.-Weisskirchen, Gymn, 1895.

Ladd. Contribution to the psychology of visual dreams. Mind, April 1892.

Laistner Ludw. Das Rätsel der Sphinx. 2 Bände, Berlin 1889.

Landau M. Aus dem Traumleben. Münchner Neueste Nachrichten, 9. Januar 1892.

Laségue. Le délire alcoolique n'est pas un délire, mais un rêve. Arch gén. de med 1881. (Réimp in Études méd. t.  $\mathbb{I}$ , p. 203–227, Paris. 7  $^{\circ}$  série, t. VI, p. 513–536, 1884.)

Laupts. Le fonctionnement cérébral pendant le rêve et pendant le sommeil hypnotique Annales méd-psychol. 1895.

Leidesdorf M. Das Traumleben. Wien 1880. – Sammlung der "alm "Mater."

Le Lorrain. La durée du temps dans le rêves. Rev. philos. vol. 38, 1894, p.275-279.

— Le rêve. Revue philosophique. Juli 1895.

Lélut. Mémoire sur le sommeil, les songes et le somnambulisme. Ann. mèd.-psych. 1852, t. IV.

Lemoine. Du sommeil au point de vue physiologique et psychologique. Paris 1855.

Lerch Math. Fr. Das Traumleben und seine Bedeutung. Gymn. Progr. komotau 1883/84.

Lièbeault A. Le sommeil provoqué et les états analogues. Paris 1889.

— A travers les états passifs, le sommeil et les rêves. Rev. de 1'hypnot. etc. Paris

Lipps Th. Grundtatsachen des Seelenlebens. Bonn 1883.

Luksch L. Wunderbare Traumerfüllung als Inhalt des wirklichen Lebens. Leipzig. 1894

Macario. Du sommeil, des rêves et du somnambulisme dans l'etat de santé et dans

l'état de maladie. Ann. méd.-psychol. 1858, t. IV, V.

- Des rêves morbides. Gaz. méd. de Paris, 1889, Nr. 8.

Macfarlane A.W. Dreaming. The Edinb. Med. J. 1890, t. 36.

Maine de Biran. Nouvelles considérations sur le sommeil, les songes et le somnambulisme (Ed. Cousin) 1792.

Manaceine Marie de. Le sommeil, tiers de notre vie. Paris 1896.

- Sleep; its Physiology, Pathology and Psychology, London 1897.

Maudsley. The Pathology of Mind. 1879.

Maury A. Analogies des phénomènes du rêve et de 1'aliènation mentale. Annales

méd. psych. 1853, V, VI.

1893, 4, VIII, 41, 65, 106.

- De certains faits observés dans les rêves. Ann. méd.-psychol. 1857, t. II.
- Le sommeil et les rêves. Paris 1878.

Meisel (pseud.) Natürlich-göttliche und teuflische Träume. Sieghartstein. 1783.

Melinaud. Dream and Reality, Pop. Sc. Mo. Vol. LIV, p. 96-103.

Melzentin C. Über wissenschaftliche Traumdeutung. Die Gegenwart 1899, Nr. 50.

Mentz Rich. Die Träume in den altfranzösischen Karls-und Artus-Epen. Marburg 1888. (Ausg. u. Abh. aus d.

Geb. d. roman, Phil, Bd. 73.)

Monroe W. S. A study of taste-dreams. Am. J. of Psychol. Jan. 1899.

Moreau de la Sarthe. Art. "Rêve" Dict, des sc. méd. t. 48. Paris 1820.

Moreau J. De l'identité de 1'état de rêve et de folie. Annales méd. psych. 1855,

p. 261.

Motet. Cauchemar. Dict. de méd. et de chir. pratiques.

Murry J.C. Do we ever dream of tasting? Proc. of the Amer. Psychol. 1894, 20.

Nagele Anton. Der Traum in der epischen Dichtung. Programm der Realschule in Marburg 1889.

Nelson J. A study of dreams. Amer. J. of Psychology. I, 1888.

Newbold W. R. Sub-conscious reasoning. Proc. Soc. Ps. Res. 1896, XII, 11-20.

— Über Traumleistungen. Psychol. Rev. March 1896, p. 132.

Paulhan. L'activité mentale et les éléments de l'esprit. Paris 1889.

— A propos de l'activité de 1'esprit dans le rêve. Rev. philos. vol. 38, 1894, p. 546

-548.

Pfaff E. R. Das Traumleben und seine Deutung nach den Prinzipien der Araber,

Perser, Griechen, Indier und Ägypter. Leipzig. 1868.

Pichon. Contribution à l'étude de délires oniriques ou délires de rêve. Thèse de

Bordeaux 1896.

Pick A. Über pathologische Träumerei und ihre Beziehungen zur Hysterie. Jahrbuch

für Psychiatrie 1896.

Pilcz. Über eine gewisse Gesetzmässigkeit in den Träumen. Autoreferat in Monatsschrift für Psychologie und Neurologie. März 1899.

Prévost. Quelques observations psycologiques sur le sommeil. Bibl. univ. des sc.,

belles-lettres et arts 1834, t.I. Littérature, p.225-248.

Purkinje. Artikel: Wachen, Schlaf, Traum und verwandte Zustände in Wagners

Handwörterbuch der Physiologie. 1846.

Radestock P. Schlaf und Traum. Leipzig. 1878.

Régis. Les rêves Bordeaux. La Gironde (Variétés) du mai 31, 1890.

— Des hallucinations oniriques des dégénérés mystiques; C.R. du Congrès des méd.

aliénistes etc. 5. Sitzung 1894. Paris 1895, p. 260.

- Rêves et l'hypnotisme. Le Monde, Août 25, 1890.

Richard Jérôme. La théorie des songes. Paris 1766.

Richardson B.W. The physiology of dreams, The Asclep, London 1892, IX, 129, 160,

Robert W. Der Traum als Naturnotwendigkeit erklärt. Hamburg 1886.

Richier, Onéirologie ou dissertation sur les songes considérés dans l'état de maladie, Thèse de Paris 1816,

Robinson L. What dreams are made of. N. Americ. Rev. New York 1893, Cl, VII, 687-697.

Rousset. Contribution à 1'ètude du cauchemar. Thèse de Paris 1876.

Roux I. Les rêves et les délires oniriques. Province méd. 1898, p.212.

Rvff Walther Herm. Traumbüchlein. Strassburg 1554.

Sante de Sanctis. Les maladies mentales et les rêves. 1897.

- Extrait des Annales de la Société de médecine de Gand.
- Psychoses et rêves. Rapport au Congrès de neurol. et d'hypnologie de Bruxelles

1898. Comptes rendus. H.l, p.137.

Sch. Fr. Etwas über Träume, Psych, Studien, 1897, 686-694.

Scherner R.A. Das Leben des Traumes, Berlin 1861.

Schleich K.L. Traum und Schlaf. Die Zukunft, 1899, 29. Bd, 14-27, 54-65.

Schleiermacher Fr. Psychologie, herausgegeben von L. George. Berlin 1862.

Scholz Fr. Schlaf und Traum. Leipzig 1887.

Schopenhauer. Versuch über das Geistersehen und was damit zusammenhängt.

Parerga und Paralipomena, I. Bd., 1857.

Schubert Gotthilf Heinrich. Die Symbolik des Traumes. Bamberg 1814.

Schwartzkopff P. Das Leben im Traum. Eine Studie 'Leipzig 1887.

- Science of dreams. The Lyceum. Dublin, Oct. 1890, p. 28.

Siebek A. Das Traumleben der Seele 1877.—Sammlung Virchow-Holtzendorf. Nr. 279.

Simon M. Le monde des rêves. Paris 1888.—Bibliothèque scientifique contemporaine.

Spitta W. Die Schlaf-und Traumzustände der menschlichen Seele. 2 Aufl. Freiburg

i. B. 1892.

Stevenson R.L. A Chapter on Dreams (in "Across. the Plain"). 1892.

Stricker. Studien über das Bewusstsein. Wien 1879.

- Studien über die Assoziation der Vorstellungen. Wien 1883.

Strümpell L. Die Natur und Entstehung der Träume. Leipzig 1877.

Stryk M.v. Der Traum und die Wirklichkeit (nach C. Mélinaud). Baltische Monatsschrift. Riga 1899, p. 189–210.

Stumpf E. J. G. Der Traum und seine Deutung. Leipzig 1899.

Sully J. Étude sur les rêves. Rev. scientif. 1882, p. 385.

- Les illusions des sens et de 1'esprit. Bibl. scientif. internat. vol. 62. Paris. (Deutsch: Die Illusionen, eine psychol. Unters. Leipzig 1884.)
- Human Mind, London 1892.
- The dreams as a revelation. Fortnightly Rev. März 1893.
- Laws of dream fancy. Cornhill Mag. Vol. L, p. 540.
- Art. "Dreams" in Encyclop. Brit. IX. Aufl.

Summers T.O. The physiology of dreaming, Saint-Louis, clin, 1895, VII, 401-406.

Surbled. Le rêve. 2. éd. 1898.

- Origine des rêves. Rev. de quest scient. 1895.

Synesius. Oneiromantik (deutsch von Krauss). Wien 1888.

Tannery M.P. Sur l'activité de l'esprit dans le rêve Rev. philos. 19<sup>e</sup> année, XXXV II.

p.630-634, 1894.

- Sur les rêves des mathématiciens. Rev. philos. 1898, I, p.639.
- Sur la paramnésie dans les réves. Rev. philos. 1898.
- Sur la mémoire dans le réve. Revue philosophique. XLV. 1898.

Thièry A. Aristote et Psychologie physiologique du rêve. Rev. nev. scol. 1896, II,

260-271.

Thomayer S. Sur la signification de quelques rêves. Rev. neurol. Nr. 4, 1897.

- Beitr. zur Pathologie der Träume (tschechisch). Poliklinik der tschechischen

Universität in Prag 1897.

Tissié Ph. Les rèves; réves pathogenes et thérapeutiques; rêves photographiés. Journ. de méd. de Bordeaux 1896. XXVI

— Les rêves, physiologie et pathologie. 1898.—Bibliothèque de philosophie contemporaine.

Titchener. Taste dreams. Amer. J. of Psychology. VI. 1893.

"Traum", Artikel in der allgemeinen Enzyklopädie der Wissenschaft und Künste von

Ersch und Gruber.

Traumbuch. Apomasaris···auss griechischer Sprach ins Latein bracht durch Lewenklaw jetzt und··· verteutschet. Wittemberg.

Tuke Hack. "Dreaming" in Dict. of Psycholog. Med. 1892.

Ullrich M. W. Der Schlaf und das Traumleben, Geisteskraft und Geistesschwäche. 3. Aufl. Berlin 1897.

Unger F. Die Magie des Traumes als Unsterblichkeitsbeweis. Nebst Vorw.: Okkultismus und Sozialismus von C. du Prel. 2. Aufl. Münster 1898.

Utility of dreams. Edit. J. Comp. Neurol. Granville 1893, III, 17-34.

Vaschide. Recherches experim. sur les rêves. Comptes rendus de l'acad. des sciences 17. Juillet 1899.

Vignoli. Von den Träumen, Illusionen und Halluzinationen. Internationale wis- senschaftliche Bibliothek, Bd. 47.

Vischer F.Th. Studien über den Traum. Beilage z. allg. Ztg. 1876, Nr. 105-107.

Void J. Mourly. Einige Experimente über Gesichtsbilder im Traume.

Dritter internationaler Kongress für Psychologie in München. 1897.

Zeitschr. für Psychologie und Physiologie der Sinnesorgane. XIII, 66-74.

— Expériences sur les rêves et en particulier sur ceux d'origine musculaire et optique. Christiania 1896.— Referat in Revue philosophique. XLII. 1896.

Vvlkoukal F.V. Über Träume und Traumdeutungen (tschechisch), Prag 1898.

Wedel R. Untersuchungen ausländischer Gelehrter über gew. Traumphänomene. Beiträge zur Grenzwissenschaft. 1899. S. 24-77.

Weed, Hallam and Phinney. A study of the dream-consciousness. Amer. J. of Psychol. vol. VII, 1895, p. 405–411.

Wehr Hans. Das Unbewusste im menschlichen Denken, Programm der Oberrealschule zu Klagenfurt 1887.

Weil Alex, La philosophie du rêve, Paris,

Wendt K. Kriemhilds Traum. Diss. Rostock 1858.

Weygandt W. Entstehung der Träume. Leipzig 1893.

Wilks S. On the nature of dreams. Med. Mag. London 1893/94, II, 597-606.

Williams H.S. The dreams state and its psychic correlatives. Americ. J. of Insanity

1891/92, vol. 17, 445-457.

Woodworth. Note on the rapidity of dreams. Psychol. Review IV, 1897, Nr. 5.

Wundt. Grundzü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 I. Bd., 2. Aufl. 1880.

Ce qu'on peut rêver en cinq secondes. Rev. sc. 3e sèrie, I. XII, 30. oct. 1886.

Zucarrelli. Pollutions nocturnes et épilepsie. Bull.de la Soc. de méd.ment. de Belgique, mars 1895.

#### ㄴ. 재판 이후에 공표된 문헌(1900년 이후)

Abraham Karl. Traum und Mythos. Eine Studie zur Völkerpsychologie. Schriften zur angew. Seelenkunde, Heft 4, Wien und Leipzig 1909.

— Über hysterische Traumzustände. Jahrbuch f. psychoanalyt. und psychopathol.

Forschungen, Bd. II. 1910.

- Sollen wir die Pat. ihre Träume aufschreiben lassen? Intern. Zeitschr. für ärztl.

Ps.-A.I, 1913, p.194.

— Zur narzisstischen Bewertung der Exkretionsvorgänge im Traum und Neurose.

Internat. Zeitschr. f. Ps.-A. VI, 64.

Adler Alfred. Zwei Träume einer Prostituierten. Zeitschr. f. Sexualwissenschaft, 1908, Nr. 2.

- Ein erlogener Traum. Zentralbl. f. Psychoanalyse, I. Jahrg. 1910, Heft 3.
- Traum und Traumdeutung. Ebenda, II, 1912/13, p.174.

Bleuler E. Die Psychoanalyse Freuds. Jahrb. f. psychoanalyt. u. psychopatholog.

Forschungen, Bd. II. 1910.

— Träume mit auf der Hand liegender Deutung, Münch, Med. Woch, 60. Jahrg, Nr.

47, 11. Nov. 1913.

Bloch Ernst. Beitrag zu den Täumen nach Coitus interruptus. Zentralbl. für Ps-A. II, 1911/12, p.276.

Brewster E.T. Dreams and Forgetting. New discoveries in dream psychology. Mc. Clure's Magazin, Okt. 1912.

Brill A.A. Dreams and their Relation to the Neurosis. New York Medical Journ., April 23, 1910.

— Psychoanalysis, its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Philadelphia and New York

1912.

- Hysterical dreamy states. New York Med. Journ., May 25, 1912.
- Artificial dreams and lying, Journ, of Abn, Psych, vol. IX, p. 321.
- Fairy tales as a determinant of dreams and neurotic symptoms. New York Med.

Journ, March 21, 1914.

Brown W. Freud's Theory of Dreams. The Lancet 19. u. 26. April 1913.

Bruce A.H. The marvels of dream analysis. Mc.Clure's Magaz. Nov. 1912.

Burckhard Max. Ein modernes Traumbuch. Die Zeit, 1900, Nr. 275, 276.

Busemann A. Traumleben der Schulkinder. Ztschr. f. päd. Psychol. 10. J. 1909, 294

-301.

- Psychol. d. kindl. Traumerlebnisse. Zeitschr. f. päd. Psychol. 1910, XI, p. 320.

Claparède E. Esquisse d'une théorie biologique du sommeil. Arch. de Psychol. t. IV,

Nr. 15-16, Fev.-Mars 1905.

- Rêve utile, Arch, de Psychol, 9, 1910, 148.

Coriat J. Zwei sexual-symbolische Beispiele von Zahnarzt-Träumen. Zent-ralbl. f. Ps-A. III, 1912/13, p. 440.

- Träume vom Kahlwerden. Int. Zeitschr. f. Ps-A. II, p. 460.
- The meaning of dreams. Mind and Health series. London, Heinem-ann.

Delacroix. Sur la structure logique du rêve. Rev. metaphys. Nov. 1904.

— Note sur la cohérence des rêves. Rapp, et C. R. du 2. Congrès intern. de Philos. 556-560.

Delage. La nature des images hypnagogiques et le rôle des lueurs entoptiques dans le rêve. Bull, de l'Instit. général psychol. 1903, p.235-247.

Eder M.D. Freud's Theory of Dreams. Transactions of the Psycho-Medic, Soc. London, vol. Ill, Part. 3, 1912.

— Augenträume. Internat. Ztschr. f. ärztl. Ps.-A.I, 1913, p. 157.

Eeden Frederik von. A study of dreams. Proceedings of the Society for Psych. Research, Part. LXVII, vol. XXVI.

Ellis H. The Logic of Dreams. Contemp. Rev. 98, 1910, 353-359.

- The Symbolism of Dreams. The Popular Science Monthly, July 1910.
- Symbolismen in den Träumen. Zeitschr. f. Psychotherapie III. 1911, p. 29-46.
- The World of Dreams. London 1911. (Deutsch v. H. Kurella. Würzburg 1911.)
- The Relation of Erotic Dreams to Vesical Dreams. Journ. of abn. Psychol. VIII, 3, August-Sept. 1913.

Federn Paul. Ein Fall von pavor nocturnus mit subjektiven Lichterscheinungen. Internat. Zeitschr. f. ärztl. Ps.-A. I, 1913, H. 6.

- Über zwei typische Traumsensation. Jahrb. f. Ps.-A. VI, p. 89.
- Zur Frage des Hemmungstraumes, Internat, Zeitschr. f. Ps.-A. VI, p. 73.

Ferenczi S. Die psychologische Analyse der Träume. Psychiatrisch-Neurologische Wochenschrift, XII. Jahrg., Nr. 11-13. Juni 1910.

- Symbolische Darstellung des Lust und Realitätsprinzips im Ödipus-Mythos. Imago, I, 1912, p. 276.
- Über lenkbare Träume. Zentralbl. f. Ps.-A. II, 1911/12, p. 31.
- Vergessen eines Symptoms und seine Aufklärung im Traume,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384.
- Affektvertäuschung im Traum, Intenat. Zeitschr. f. Ps.-A. IV, p.112.
- Träume von Ahnungslosen. Internat. Zeitschr. f. Ps.-A. IV, p. 208.
- Pollution ohne orgastischen Traum und Orgasmus im Traum ohne Pollution. Internat. Zeitschr. f. Ps.-A. IV, p. 187.

Flournoy. Quelques rêves au subjet de la signification symbolique de l'eau et du feu. Internat. Zeitschr. f. Ps.-A. VI. p. 328.

Förster M. Das lat.—altengl. Traumbuch. Arch. f. d. Stud. d. n. Spr. u. Lit. 120. Bd. p. 43 ff., 125. Bd. p. 39–70, 127. Bd. p. 1 ff.

- Mittelenglische Traumbücher. Herrings Archiv 1911.

Foucault Marcel. Le rêve. Études et observations. Paris 1906. (Bibl. de Philosophie contemporaine.)

Friedjung J.K. Traum eines sechsjährigen Mädchens. Internat. Ztschr. f. ärztl. Ps.-A. I, 1913, p. 71.

Frink H.W. Dreams and their analysis in reference to Psychotherap. Med. Record, May 27, 1911.

— On Freud's Theory of Dreams. Americ. Med., Burlington, New York VI, p. 652-661.

- Dream and Neurosis. Interstate Med. Journ. 1915.

Gincburg Mira. Mitteilung von Kindheitsträumen mit spezieller Bedeutung. Int. Ztschr. f. ärztl. Ps.-A. I, 1913, p. 79.

Gottschalk. Le rêve. D'après les idées du prof. Freud. Archives de Neurol. 1912, Nr. 4.

Gregory J.C. Dreams as a bye-product of waking activity. Westm. Rev. London 1911, Vol. 175, p. 561-567.

Hárnik J. Gelungene Auslegung eines Traumes. Zentralbl. f. Ps.-A. II, 1911/12, p. 417.

Hitschmann Ed. Freuds Neurosenlehre. Nach ihrem gegenwärtigen Stande zusammenfassend dargestellt.

Wien und Leipzig 1911.2. Aufl. 1913. (Kap. V.: Der Traum.) (Engl. übers.von C.R. Payne. New York 1912.)

- Ein Fall von Symbolik für Ungläubige. Zentralbl. f. Ps.-A. I, 1910/11, p. 235.
- Beiträge zur Sexualsymbolik des Traumes. Ebenda, p. 561.
- Weitere Mitt. von Kindheitsträumen mit spez. Bedeutung. Internat. Ztschr. für ärztl. Ps.-A. I, 1913, p. 476.
- Goethe als Vatersymbol in Träumen. Ebenda, Helt 6.
- Über Träume Gottfried Kellers.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41.
- Weitere Mitteilung von Kindheitsträumen mit spezieller Bedeutung,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31.
- Über eine im Traum angekündigte Reminiszens an ein sexuelles Jugenderlebnis. Internat. Zeitschr. f. Ps.-A. V, p. 205.

Hug-Hellmuth, H. v. Analyse eines Traumes eines 5½ j\u00e4hrigen Knaben. Zentralbl. f. Ps.-A. II, 1911/12, p. 122-127.

- Kinderträume, Internat, Ztschr. f. ärztl, Ps.-A. I, 1913, p. 470.
- Aus dem Seelenleben des Kindes. Schr. z. angew. Seelenk. herausg. v. Freud. H. 15. Wien und Leipzig 1913.
- Ein Traum, der sich selber deutet Internat zeitschr f. Ps.-A., Ill, p. 33.

Jones E. On the nightmare. Americ. J. of Insanity, Jan. 1910.

- The Oedipus-Complex as an Explanation of Hamlet's Mystery: A Study in Motive. American Journ. of Psychology, Jan. 1910, p. 72-113. (In deutscher Übersetzung: "Das Problem des Hamlet und der Odipus-Komplex." Schriften zur angew. Seelenkunde, H. 10, 1912.)
- Freud's Theory of Dream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April 1910.
- Remarks on Dr. M. Prince's Article: The mechanism, and interpr. of Dreams. Journ. of abn. Psychol. 1910/11, p. 328-336.
- Some Instances of the Influence of Dreams on Waking Life.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April—May 1911.
- The relationship between dreams and psychoneurotic symptoms. Americ. J. of Insanity, vol. 68, Nr. 1, Iuly 1911.
- A forgotten dream. J. of abn. Psychol. April-May 1912.
- Papers on Psycho-Analysis. London 1912.
- Der Alptraum in seiner Beziehung zu gewissen Formen des mittelalterl. Aberglaubens. Schriften zur angew. Seelenk., hg. v. Freud, H. 14, Leipzig und Wien 1912.

— Die Theorie der Symbolik. Internat. Zeitschr. f. Ps.-A. p. 244.

Jung C.G. L'analyse des rêves. L'année Psychologique, Tome XV.

- Assoziation, Traum und hysterisches Symptom. Diagnostische Assoziationsstudien. Beiträge zur experimentellen Psychopathologie, hg. von Doz. C. G. Jung, II. Bd., Leipzig 1910 (Nr. VIII, p. 31–66).
- Ein Beitrag zur Psychologie des gerüchtes zentralbl für Psychoanalyse. I. Jahrg. 1910, Heft 3.
- Ein Beitrag zur kenntnis des Zahlentraumes. Ebenda 1910/11, p. 567-572.
- morton Prince's: The Mechanism and Interpretation of Dreams. Eine kritische Besprechung. Jahrb. f. ps.-a. u. psychopathol. Forsch. Ill, 1911.

Iwaya S. Traumdeutung in Japan. Ostasien, 1902, p. 312.

Karpinska L. Ein Beitrag zur Analyse sinnloser Worte im Traume. Internat. Zeitschr. f. Ps.-A. III, p. 164.

Kazodowsky A. Zusammenhang von Träumen und Wahnvorstellungen. Neurol. Cbl. 1901, p. 440–447, 508–514.

Kostyleff. Freud et le problème des rêves. Rev. philos. 72. Bd., Juillet-Déc. 1911, p. 491-522.

Kraepelin E. Über Sprachstörungen im Traume. Psychol Arbeiten, 5, Leipzig 1907.

Lauer Ch. Das Wesen des Traumes in der Beurteilung der talmudischen und rabbinischen Literatur. Intern. Ztschr. f. ärztl. Ps.-A. I. 1913. H. 5.

Lehmann. Aberglaube und Zauberei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in die Gegenwart. Deutsch von Petersen. 2., verm. Aufl., Stuttgart 1908.

Leroy B. A propos de quelques rêves symboliques. Journ. de psychol. Norm, et pathol. 5, 1908, p. 358-365.

— et Tobowolska J. Mécanisme intellectuel du rêve. Rev. philos. 1901, I, vol. 51, p. 570-593.

Löwinger. Der Traum in der jüdischen Literatur. Leipzig 1908. Mitteilungen zur jüd. Volkskunde, 10. Jahrg., H. 1 u. 2.

Maeder Alphonse. Essai d'interprétation de quelques rêves. Archives de Psychol., T. VI, Nr. 24, April 1907.

- Die Symbolik in den Legenden, Märchen, gebräuchen und Träumen. Psychiatrisch-Neurolog. Wochenschr., X. Jahrg. 1908.
- Zur Entstehung der Symbolik im Traum, in der Dementia praecox etc. Zentralblatt f. Ps.-A. I, 1910/11, p. 383-389.
- Über die Funktion des Traumes. Jahrb. f. psychoanalyt Forsch. IV, 1912.
- Über das Traumproblem. Ebenda V, 1913, p. 647.
- Zur Frage der teleologischen Traumfunktion. Ebenda, p. 453.

Marcinowski I. Gezeichnete Träume, Zentralbl. f. Ps.-A. II, 1911/12, 490-518.

— Drei Romane in Zahlen. Ebenda, p.619-638.

Mitchell A. About Dreaming, Laughing and Blushing. London 1905.

Miura K. Japanische Traumdeuterei. Mitt. d. deutsch. Ges. f. Natur-u. Völkerk. Ostasiens. X, 291-306.

Näcke P. Über sexuelle Träume. H. groß' Archiv 1903, p. 307.

- Der Traum als feinstes Reagens f. d. Art d. sexuellen Empfindens, Monatsschrift f. Krim.-Psychol. 1905.
- Kontrastträume und spez. sexuelle Kontrastträume. H. Groß' Archiv, 24. Bd. 1907, p. 1-19.
- Beiträge zu den sexuellen Träumen. H. Groß' Archiv 29, 363 ff.

- Die diagnostische und prognostische Brauchbarkeit der sex. Träume. Ärztl. Sachv.-Ztg. 1911, Nr. 2.

Negelein J.v. Der Traumschlüssel des Yaggaddeva. Giessen 1912. (Relig. Gesch. Vers. XI, 4.)

Pachantoni D. Der Traum als Ursprung von Wahnideen bei Alkoholdeliranten. Zentralbl. f. Nervenheilk., 32. Jahrg., 1909, p. 796.

Pear T.H. The analysis of some personal dreams, with special reference to Freud's interpretation. Meeting at the British Assoc.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Birmingham Sept. 16–17, 1913. British Journ. of Psychol. VI, 3/4, Febr. 1914.

Pötzl Otto. Experimentell erregte Traumbilder in ihren Beziehungen zum indirekten Sehen. Zeitschr. f. d. ges. Neurol. u. Psych. Bd. 37, 1917.

- Kryptolalie, Kryptographie und unbewußtes Vexierbild bei Normalen. Jahrb. f. Ps.-A. Forschg. V, I, 1913.

  Prince Morton. The Mechanism and Interpretation of Dreams. The Journal of abnorm. Psych. Oct.-Nov.
  1910.
- The Mechanism and Interpr. of Dreams; a reply to Dr. Jones. Journ. of abn. Psychol. 1910/11, p. 337–353.

Putnam J.J. Aus der Analyse zweier Treppen-Träume. Zentralbl. f. Ps.-A. II, 1911/12, p. 264.

- Ein charakteristischer Kindertraum, Ebenda, p. 328.
- Dream interpretation and the theory of psychoanalysis. Journ. of abnorm. Psych. IX, Nr. 1, p. 36.

Raalte F.Van. Kinderdroomen. Het Kind 1912. Jan.

Rank Otto. Der Mythus von der Geburt des Helden. Schr. z. angew. Seelenkunde, Heft 5, Wien und Leipzig 1909.

- Beispiel eines verkappten Ödipus-Traumes. Zentralblatt für Psychoanalyse, I. Jahrg. 1910.
- Zum Thema der Zahnreiztraume. Ebenda.
- Das Verlieren als Symptomhandlung. Zugleich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der Beziehungen des Traumlebens zu den Fehlleistungen des Alltagslebens. Ebenda.
- Ein Traum, der sich selbst deutet. Jahrbuch für psychoanalyt. und psychopathol. Forschungen, Bd. II, 1910.
- Ein Beitrag zum Narzißmus. Ebenda, Bd. Ill, 1911.
- Fehlleistung und Traum. Zentralbl. f. Ps.-A. II, 1911/12, p. 266.
- Aktuelle Sexualregungen als Traumanlässe. Ebenda, p. 596-602.
- Die Symbolschichtung im Wecktraum und ihre Wiederkehr im mythischen Denken. Jahrb. f. Ps.-A. IV, 1912.
- Das Inzestmotiv in Dichtung und Sage. Grundzüge einer Psychologie des dichterischen Schaffens. Wien und Leipzig 1912.
- Die Nacktheit in Sage und Dichtung. Eine ps.-a. Studie, Imago, II, 1912.
- Eine noch nicht beschriebene Form des Ödipus-Traumes. Intern. Zeitschr. f. ärztl. Ps.-A. I, 1913, p. 151.
- Fehlhandlung und Traum. Internat. Zeitschr. f. Ps.-A. Ill, p. 158.
- Die Geburtsretungsphantasie in Traum und Dichtung.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43.
- Ein gedichteter Traum. Internat. Zeitschr. f. Ps.-A. III, p. 231.

Rank O. und Sachs H. Die Bedeutung der Psychoanalyse für die Geistes- wissenschaften. Grenzfr. d.

Nerven- u. Seelenlebens, hg. v. Löwenfeld, Heft 93, Wiesbaden 1913.

Reik Th. Zwei Träume Flauberts. Zentralbl. f. Ps.-A. Ill, 1912/13, p. 223.

- Kriemhilds Traum. Ebenda, II, p. 416.
- Beruf und Traumsymbolik. Ebenda, p. 531.
- Der Nacktheitstraum eines Forschungsreisenden.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463.
- Gotthilf Schuberts "Symbolik des Traumes." Internat. Zeitschr. f. Ps.-A. Ill, p. 295.
- Völkerpsychologische Parallelen zum Traumsymbol des Mantels. Internat. Zeitschr. f. Ps.-A. VI, p. 310.
- Zum Thema: Traum und Traumwandeln. Internat. Zeitschr. f. Ps.-A. VI, p. 311.

Robitsek Alfred. Die Analyse von Egmonts Traum. Jahrb. für psychoanalyt. und psychopathol. Forschungen, Bd. II, 1910.

- Die Stiege, Leiter, als sexuelles Symbol in der Antike. Zentralbl. f. Ps.-A. I, 1910/11, p. 586.
- Zur Frage der Symbolik in den Träumen Gesunder. Ebenda, II, p. 340.

Roheim G. Die Urszene im Traume. Internat. Zeitschr. f. Ps.-A. VI, p. 337.

Sachs Hanns. Zur Darstellungstechnik des Traumes. Zentralbl. f. Ps.-A. I, 1910/11.

- Ein Fall intensiver Traumentstellung. Ebenda, p. 588.
- Traumdeutung und Menschenkenntnis. Jahrb. f. Ps.-A. Ill, 1911, p. 568.
- Ein Traum Bismarcks. Intern. Ztschr. f. ärztl. Ps.-A. I, 1913, H. 1.
- Traumdarstellungen analer Weckreize. Ebenda, p. 489.
- Das Zimmer als Traumdarstellung des Weibes,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35.
- Ein absurder Traum, Internat, Zeitschr. f. Ps.-A. Ill, p. 35.

Sadger J. Über das Unbewußte und die Träume bei Hebbel. Imago, Juni 1913.

Schrötter Karl. Experimentelle Träume. Zentralbl. f. Ps.-A. II, 1912, p. 638.

Schwarz F. Traum u. Traumdeutung nach 'Abdalganī an Nābulusi' Zeitschr. d. deutsch. morgenl. Ges., Bd. 67, 1913, III, H., p. 473-493.

Secker F. Chines. Ansichten über den Traum. Neue metaph. Rdschr., Bd. 17, 1909/10, p. 101.

Silberer Herbert. Bericht über eine Methode, gewisse symbolische Halluzinationserscheinungen hervorzurufen und zu beobachten. Jahrb. Bd. I, 1909.

- Phantasie und Mythos. Ebenda, Bd. II, 1910.
- Symbolik des Erwachens und Schwellensymbolik überh. Ebenda, II, 1911.
- Über die Symbolbildung, Ebenda.
- Zur Symbolbildung, Ebenda IV, 1912.
- Spermatozoenträume. Ebenda.
- Zur Frage der Spermatozoenträume. Ebenda.

Spielrein S. Traum vom "Pater Freudenreich." Intern. Ztschr. f. ärztl. Ps.-A. I, 1913, p. 484.

Spitteler Karl. Meine frühesten Erlebnisse. I. Hilflos und sprachlos. Die Träume des Kindes. Südd. Monatsch., Okt. 1913.

Stärcke August. Ein Traum, der aus das Gegenteil einer Wunscherfüllung zu verwirklichen schien, zugleich

ein Beispiel eines Traumes, der von einem anderen Traum gedeutet wird. Zentralbl. f. Ps.-A. II, 1911/12. p. 86.

— Traumbeispiele.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381.

Stärcke Johann. Neue Traumexperimente in Zusammenhang mit älteren und neueren Traumtheorien. Jahrb. f. Ps.-A. V, 1913, p. 233.

Stegmann Marg. Darstellung epileptischer Anfälle im Traume. Internat. Zeitschr. f. ärztl. Ps.-A. I, 1913.

— Ein Vexiertraum. Ebenda, p. 486.

Stekel Wilhelm. Beiträge zur Traumdeutung. Jahrbuch für psychoanalytische und psychopatholog. Forschungen, Bd. I, 1909.

- Nervöse Angstzustände und ihre Behandlung. Wien-Berlin 1908, 2. Aufl. 1912.
- Die Sprache des Traumes. Eine Darstellung der Symbolik und Deutung des Traumes in ihren Beziehungen zur kranken und gesunden Seele für Ärzte und Psychologen. Wiesbaden 1911.
- Die Träume der Dichter. Wiesbaden 1912.
- Ein prophetischer Nummerntraum. Zentralbl. f. Ps.-A. II, 1911/12, p. 128-130.
- Fortschritte der Traumdeutung. Zentralbl. f. Ps.-A. III, 1912/13, p, 154, 426.
- Darstellung der Neurose im Traum. Ebenda, p. 26.

Swoboda Hermann. Die Perioden des menschlichen Organismus. Wien und Leipzig 1904.

Tausk, V. Zur Psychologie der Kindersexualität. Intern. Zeitschr. f. ärztl. Ps.-A. I. 1913, p. 444.

- Zwei homosexuelle Träume.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36.
- Ein Zahlentraum.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39.

Tfinkdji Joseph Abée. Essai sur les songes et l'art de les interpréter (onirocritie) en Mésopotamie. Anthropos Ⅷ, 2/3, März-Juni 1913.

Tobowolska Justine. Étude sur les illusions de temps dans les rêves du sommeil normal. Thèse ed Paris, 1900.

Vaschide N. Le sommeil et les rêves. Paris 1911, Bibl. de Philos. scient. (66) (mit Literaturangabe der übrigen zahlreichen Arbeiten desselben Autors über Traum und Schlaf).

Vaschide N. et Piéron. La psychol, du rêve au point de vue médical. Paris 1902.

Weiss Edoardo. Totemmaterial im Traume. Internat. Zeitschr. f. Ps.-A. II, p. 159.

Weiss Karl. Ein Pollutionstraum. Intern. Zeitschr. f. Ps.-A. VI, p. 343.

Weygandt W. Beitr. z. Psychologie des Traumes. Philos. Studien, 20. Bd., 1902, p. 456-486.

Wiggam A. A contribution to the data of dream psychology. Pedagogical Seminary, Juni 1909.

Winterstein, Alfr. v. Zum Thema: "Lenkbare Träume." Zentralbl. f. Ps.-A. I, 1911/12, p. 290.

Wulff M. Ein interessanter Zusammenhang von Traum, Symbolhandlung und Krankheitssymptom. Internat. Ztschr. f. ärztl. Ps.-A. I, 1913, H. 6.

#### 지은이 소개 | 지그문트 프로이트 (1856~1939)

오스트리아의 정신 의학자이자 철학자. 무의식의 영역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 비엔나의 과대학에서 생리학을 전공, 신경계 구조 연구로 학위를 받았으며, 1885년 파리에 샤르코 교수와 함께 정신 분석의 활로가 된 최면술을 연구했다. 비엔나로 돌아와 신경질환 전문의를 개업하며 많은 임상 관찰을 연구했으며, 최면술 치료에 결점을 깨닫고 자유연상기법을 창안 · 도입해 환자를 치료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꿈의 해석), (히스테리 연구),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성욕에 관한 세 편의 논문) 등이 있다.

#### 옮긴이 소개 | **장병길** (1919~2005)

함경남도 함흥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했다.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고 서울대에서 명예교수를 지내고 한국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세대 종교학자로 민간 신앙과 민족종교 연구에 초석을 쌓은 인물이다. 저서로는 (한국 고유 신앙 연구), (종교학 개론) 등이 있고, 역서로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등이 있다.

# 꿈의 해석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3년 10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김화란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 · 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09-9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